

2008년 한·중 고구려역사 연구 학술회의
2008年 中韩高句丽历史研究学术讨论会

졸본시기의 고구려 역사 연구

卒本时期的高句丽历史研究

- 일시 : 2008. 11. 11 ~ 13
- 장소 : 한국 제주 신라호텔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11월 12일

제3주제

사회 : 朴文一

解明의 죽음을 통해서 본 高句麗 五部の 형성과 변천-桂婁部를 중심으로

- (09:00~09:20) 발표 : 李大龍
- (09:20~09:30) 토론 : 김현숙
- (09:30~09:40) 발표자 답변
- (09:40~10:10) 자유 토론

휴식 (10:10~10:20)

제4주제

高句麗 國家形成期 ‘卒本時期’의 歷史的 位置

- (10:20~10:40) 발표 : 박경철
- (10:40~10:50) 토론 : 朴燾奎
- (10:50~11:00) 발표자 답변
- (11:00~11:30) 자유 토론

고구려 초기고분 적석묘의 유형과 특징

- (11:30~11:50) 발표 : 魏存成
- (11:50~12:00) 토론 : 박순발
- (12:00~12:10) 발표자 답변
- (12:10~12:40) 자유 토론

오찬 (12:40~14:00)

제5주제

사회 : 공석구

卒本時期 高句麗의 對外關係

- (14:00~14:20) 발표 : 이인철
- (14:20~14:30) 토론 : 于逢春
- (14:30~14:40) 발표자 답변
- (14:40~15:10) 자유 토론

五族시기의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 (15:10~15:30) 발표 : 朴燾奎
- (15:30~15:40) 토론 : 이성제
- (15:40~15:50) 발표자 답변
- (15:50~16:20) 자유 토론

휴식 (16:20~16:40)

폐막식

사회 : 李国强

- (16:40~17:00) 한국학자 대표 발언 : 노중국
- (17:00~17:20) 중국학자 대표 발언 : 魏存成
- (17:20~17:30) 폐막사 : 차웅환
- 폐회선언 : 厲聲

만찬 (18:00~19:00)

日 程

11月 11日

开幕式

主持人：金贞姬

- (09:00~09:10) 东北亚历史财团第二研究室室长车雄焕先生致辞
(09:10~09:20)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主任厉声先生致辞
(09:20~09:30) 东北亚历史财团理事长金容德先生祝辞
(09:30~09:50) 全体代表合影，茶歇

第1主题

主持人：杨泓

高句丽初期建国传说关联资料的系统与性质—以卒本扶余为中心

- (09:50~10:10) 发表：林起焕
(10:10~10:20) 评议：李大龙
(10:20~10:30) 答辩
(10:30~11:00) 讨论、提问

关于高句丽建国初期王都的探讨—以卒本和纥升骨城为中心

- (11:00~11:20) 发表：梁志龙
(11:20~11:30) 评议：孔锡龟
(11:30~11:40) 答辩
(11:40~12:10) 讨论、提问

午餐

(12:10~13:40)

第2主题

主持人：卢重国

考古资料所体现的卒本时期高句丽文化的性质

- (13:40~14:00) 发表：池炳穆
(14:00~14:10) 评议：梁志龙
(14:10~14:20) 答辩
(14:20~14:50) 讨论、提问

高句丽早期文化比较研究

- (14:50~15:10) 发表：姜维公
(15:10~15:20) 评议：赵仁成
(15:20~15:30) 答辩
(15:30~16:00) 讨论、提问

茶歇

(16:00~16:20)

第3主题

高句丽的种族起源和濊[濊貊]

- (16:20~16:40) 发表：余昊奎
(16:40~16:50) 评议：徐德源
(16:50~17:00) 答辩
(17:00~17:30) 讨论、提问

晚餐

(18:00~19:00)

11月 12日

第3主题

主持人：朴文一

由解明之死看高句丽五部的形成与变迁—以桂娄部为中心

(09:00~09:20) 发表：李大龙

(09:20~09:30) 评议：金贤淑

(09:30~09:40) 答辩

(09:40~10:10) 讨论、提问

茶歇 (10:10~10:20)

第4主题

高句丽国家形成期“卒本时期”的历史地位

(10:20~10:40) 发表：朴京哲

(10:40~10:50) 评议：朴灿奎

(10:50~11:00) 答辩

(11:00~11:30) 讨论、提问

高句丽早期墓葬积石墓的类型和特点

(11:30~11:50) 发表：魏存成

(11:50~12:00) 评议：朴淳发

(12:00~12:10) 答辩

(12:10~12:40) 讨论、提问

午餐 (12:40~14:00)

第5主题

主持人：孔锡龟

卒本时期高句丽的对外关系

(14:00~14:20) 发表：李仁哲

(14:20~14:30) 评议：于逢春

(14:30~14:40) 答辩

(14:40~15:10) 讨论、提问

五族时期的高句丽与玄菟郡的关系

(15:10~15:30) 发表：朴灿奎

(15:30~15:40) 评议：李成制

(15:40~15:50) 答辩

(15:50~16:20) 讨论、提问

茶歇 (16:20~16:40)

闭幕式

主持人：李国强

(16:40~17:00) 韩国学者代表卢重国先生发言

(17:00~17:20) 中国学者代表魏存成先生发言

(17:20~17:30) 车雄焕先生闭幕辞

中国社会科学院国际合作局局长厉声先生宣布会议闭幕

晚餐 (18:00~19:00)

‘2008년 한·중 고구려역사 연구 학술회의’ 참석자 명단

中国侧

正式代表

魏存成(吉林大学 教授)

朴灿奎(延边大学 教授)

李大龙(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研究员)

姜维公(长春师范学院 教授)

梁志龙(辽宁省本溪博物馆 研究员)

特邀代表及评议人

厉声(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研究员)

杨泓(中国社会科学院 考古研究所 研究员)

朴文一(延边大学 教授)

徐德源(辽宁大学 教授)

刘晖春(中国社会科学院科研局 研究员)

工作人员

李国强(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研究员)

于逢春(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研究员)

李大路(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副处长)

金香(中国社会科学院 国际合作局 项目官员)

丁英顺(中国社会科学院 日本研究所 研究员)

한국측

特別參加

김용덕(金容德, 東北亞歷史財團 理事長)

發表者

임기환(林起煥, 首爾教育大學校 助教授)

지병목(池炳穆,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所長)

여호규(余昊奎, 韓國外國語大學校 副教授)

박경철(朴京哲, 江南大學校 副教授)

이인철(李仁哲, 東北亞歷史財團 責任研究委員)

討論 및 社會者

노중국(盧重國, 啓明大學校 教授)

공석구(孔錫龜, 國立韓巴大學校 教授)

조인성(趙仁成, 慶熙大學校 教授)

김현숙(金賢淑, 東北亞歷史財團 研究委員)

박순발(朴淳發, 忠南大學校 教授)

이성제(李成制, 東北亞歷史財團 副研究委員)

運營委員

차웅환(車雄煥, 東北亞歷史財團 第二研究室長)

김정희(金貞姬, 東北亞歷史財團 第二研究室 一組長)

금경숙(琴京淑, 東北亞歷史財團 責任研究委員)

고광의(高光儀, 東北亞歷史財團 副研究委員)

김정열(金正烈, 東北亞歷史財團 副研究委員)

오주영(吳宙映, 東北亞歷史財團 行政員)

通譯

김혜림(金惠林, 梨花女子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助教授)

장현주(蔣賢周, 梨花女子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專任講師)

김지은(金池垠, 韓國外國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목 차

01. 高句麗 初期 建國說話 관련 자료의 계통과 성격	林起煥	3
高句麗初期建国传说关联资料的系统与性质		17
02. 关于高句麗建国初期王都的探讨	梁志龙	33
고구려 건국 초기 왕도에 대한 연구		51
03. 考古資料를 통해 본 卒本時期 高句麗 文化의 性格	池炳穆	73
考古资料所体现的卒本时期高句麗文化的性质		89
04. 高句麗早期文化比较研究	姜维公	105
고구려 초기문화 비교연구		123
05. 高句麗의 種族 起源과 濊[濊貊]	余昊奎	153
高句麗의 种族起源和濊(濊貊)		173
06. 由解明之死看高句麗五部的形成与变迁	李大龙	197
解明의 죽음을 통해서 본 高句麗 五部の 형성과 변천		207
07. 高句麗 國家形成期 ‘卒本時期’의 歷史的 位置	朴京哲	221
高句麗国家形成期“卒本时期”的历史地位		241
08. 高句麗早期墓葬积石墓的类型和特点	魏存成	261
고구려 초기고분 적석묘의 유형과 특징		273
09. 卒本時期 高句麗의 對外關係	李仁哲	289
卒本时期高句麗的对外关系		305
10. 五族时期的高句麗与玄菟郡的关系	朴灿奎	323
五族시기의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329

.01

高句麗 初期 建國說話 관련 자료의
계통과 성격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高句麗 初期 建國說話 관련 자료의 계통과 성격

- 卒本扶餘를 중심으로 -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建國說話에 나타난 卒本扶餘의 성격 |
| II. 高句麗 建國說話 資料의 系統 | IV. 맺음말 |

I. 머리말

高句麗 初期 특히 卒本에 도읍한 시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建國說話이다. 물론 건국설화는 상당 부분이 설화적인 내용으로 윤색되어 있다. 그러나 설화적인 윤색을 잘 걷어내고 살펴보면 초기의 역사상을 구성하는데 유익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¹⁾

여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그 하나가 고구려 건국설화 관련 자료가 여러 계통이며 서로 다른 다양한 내용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몽의 出自지역에 대해서도 夫餘出自 傳承, 北夫餘出自 傳承, 東夫餘出自 傳承 등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건국설화 자료의 계통성을 밝히는 것이 시급한 연구 주제이며, 본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건국설화의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본 발표에서는 ‘卒本扶餘’ 관련 자료 계통과 성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II. 高句麗 建國說話 資料의 系統

고구려의 始祖 傳承인 朱蒙神話を 전하는 자료는 크게 當代 고구려인에 의해 남겨진 金石

1) 高句麗 建國說話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盧明鎬(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歷史學研究』~X
 徐永大(1997), 「高句麗 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晚耕李忠熹先生華甲紀念 東西文化論叢』~II
 林起煥(1998), 「百濟 始祖傳承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百濟研究』~28
 李成市(1998), 「高句麗의 建國傳說と王權」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盧泰敦(1999),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5
 金基興(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113.
 윤성룡(2005), 「高句麗 建國神話와 祭儀」 『韓國古代史研究』~39

文 자료 및 『三國史記』 등 한국 내에서 전승되는 문헌 자료, 그리고 『魏書』 高麗傳 등 중국 측의 문헌자료로 나누어볼 수 있다.

주몽신화를 언급하고 있는 고구려의 金石文 자료는 「廣開土王碑」의 주몽신화(史料-1)가 기본이며, 이외에 「牟頭婁墓誌」에 “河泊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河泊之孫 日月之子 所生之地” 등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하고 있다. 414년에 건립된 「廣開土王碑」의 주몽신화는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몽의 계보, 출생,南下과정, 건국 등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5세기 당대에 고구려인의 始祖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이 「廣開土王碑」의 주몽신화의 내용이 당시에 전승되던 내용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니고, 왕실의 神聖性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측 史書에서 전하는 주몽신화는 『魏書』 高麗傳의 기사(史料-2)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동시에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다. 『周書』와 『北史』 高麗傳에도 주몽신화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소략하고 전체 줄거리가 『魏書』의 그것과 그리 차이가 없다. 아마도 『魏書』의 기사를 축약하여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몽신화를 분석할 수 있는 중국측 문헌 자료로는 『魏書』 高麗傳의 기사가 기본 자료가 된다.

『魏書』는 北齊의 魏收가 554년에 편찬한 史書로서, 고구려전에는 그 이전의 史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자료가 많이 들어있다. 이는 北魏와 고구려의 활발한 교섭의 결과로 보이며, 특히 435년 李敖가 책봉사절로 고구려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으리라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전혀 새로운 자료이면서 상당한 비중으로 기술된 것이 건국신화로서의 주몽신화와 여기에 이어지는 고구려의 王系이다. 이 새로운 자료가 『魏書』에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당시 고구려가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새롭게 건국 始祖로부터 이어지는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결과로 보인다.²⁾

즉 『魏書』 高麗傳의 주몽신화는 「廣開土王碑」와 거의 같은 5세기 전반에 고구려에서 전승되던 朱蒙神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廣開土王碑」의 주몽신화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 「광개토왕비」보다는 내용상으로 더 풍부하여 주몽의 잉태·출생과정과 부여에서 겪었던 고난, 남하 시의 隨從者 및 건국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몽신화를 전하는 한국 내 전승 자료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전승(史料-3), 『東明王篇』에 인용된 「舊三國史」의 전승(史料-4),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三國史記』 地理志 有名未詳地分條의 편찬 자료에 전해진 전승, 마지막으로 『三國遺事』에 전하는 전승(史料-5, 6, 7) 등이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전승 및 「舊三國史」의 전승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또다른 전승 자료를 살펴보자.

2) 林起煥(1998) 「4~6世紀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171쪽.

『三國史記』~地理志 有名未詳地分조에는 주몽신화에서 나오는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有名未詳地分을 편찬한 底本 자료는 현 『三國史記』~고구려본기의 底本 자료이지만³⁾, 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다만 구체적인 기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명을 중심으로 『東明王篇』에 인용된 「舊三國史」 및 『三國史記』~고구려본기, 그리고 有名未詳地分조의 底本 자료를 서로 비교해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朱蒙神話 關聯 資料 地名 比較表

地理志 有名未詳地分	高句麗本紀	舊三國史(東明王篇)
迦葉原	鯤淵	鯤淵
東牟河	迦葉原	迦葉原
優渤水	優渤水	熊心山
淹澆水[或云蓋斯水]	熊心山	清河 [今鴨綠江也]
沸流水	淹澆水 [或云蓋斯水在今鴨綠東北]	熊心淵
薩水	毛屯谷 [魏書云 至普述水]	優渤水[優渤澤名 今在太伯山南]
毛屯谷	卒本川 [魏書云 至紇升骨城]	淹滯[一名蓋斯水 在今鴨綠東北]
鶻嶺	沸流水	(沸流王松讓)
龍山	沸流國 (其國王松讓)	蟹原
松讓國	鶻嶺	鶻嶺
荇人國	荇人國	龍山
	龍山	

고구려본기와 有名未詳地分조의 주몽신화에서 추출된 지명을 비교하면,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고구려본기에만 보이는 지명으로 鯤淵, 熊心山, 卒本川이 있고, 有名未詳地分조에는 東牟河, 薩水가 있다. 아마도 鯤淵, 熊心山은 고구려본기를 찬술할 때 「舊三國史」에서 보완한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有名未詳地分조의 東牟河, 薩水是 고구려본기의 찬술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제외된 기사일 것이다. 한편 「舊三國史」에는 清河가 보이는데, 이는 有名未詳地分조의 薩水에 대응된다고 생각한다. 양 지명은 同處異名일 가능성이 높다.

有名未詳地分조의 지명과 「舊三國史」의 지명을 비교하면, 「舊三國史」에 보이지 않는 지명으로 毛屯谷이 있다. 『동명왕편』에는 모둔곡에서 만난 3인에 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데, 李奎報가 누락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원래 「舊三國史」에 없었다고 생각된다.⁴⁾ 즉 모둔곡 3인의 기록은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에서 채택된 기사이다.

다음 고구려본기에만 보이는 卒本·卒本川에 대하여 살펴보자. 卒本·卒本川이 有名未詳

3) 林起煥(2006), 「高句麗本紀 典據資料의 系統과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2 참조.

4) 왜냐하면 李奎報는 『三國史記』~高句麗本紀를 보았기 때문에 毛屯谷 3人の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할 때 동행한 烏伊 등 3인에 대해서는 본문 詩의 分註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저본 자료인 「舊三國史」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地分조와 「舊三國史」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卒本은 또 다른 저본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有名未詳地分조가 근거한 자료에 있는 지명인데 지리지 찬자가 有名未詳地分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가 될 터인데, 실상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의 毛屯谷, 卒本川이 모두 『魏書』와 대교되어 “魏書云 至紇升骨城”라는 분주 기사를 보입한 점을 고려하면, 卒本川이란 기사 역시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에 본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毛屯谷의 경우에도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毛屯谷의 분주 기사인 “魏書云 至普通水”을 有名未詳地分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에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毛屯谷과 普通水를 동일 지역으로 취급하지 않은 지리지 撰者의 입장 때문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地理志 撰者는 고구려조 앞부분의 기사에 보듯이 『通典』을 통하여 普通水가 주몽이 남하하면서 지나간 지명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본기에서 普通水, 紇升骨城을 『魏書』를 통하여 대교 분주한 것과는 달리, 地理志의 撰者는 『通典』을 통해 對校하고 있다.⁵⁾ 따라서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淹流水와 毛屯谷에 대한 두 개의 分註는 고구려본기 편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고구려본기의 주몽신화의 상당 부분이 『魏書』를 인용하고 있음에서도 방증된다.⁶⁾

이상 여러 지명을 비교 검토한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와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 사이에는 주몽신화의 기술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沸流水와 毛屯谷의 기술 순서도 그러하며, 松讓國과 沸流國이란 표기의 차이도 있다. 여기서도 고구려본기 편찬자가 주몽신화 부분을 편찬할 때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 이외에 「舊三國史」 등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東牟河·薩水란 지명은 고구려본기와 「舊三國史」 등 어떤 史書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지명이다. 이는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에 실려 있는 주몽신화의 내용 일부가 고구려본기 찬자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동명왕기의 지명만을 놓고 본다면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와 「舊三國史」는 별개의 史書이다. 따라서 주몽신화와 관련된 한국 내 전승자료는 최소 두 계통 이상의 전승 자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본기의 편찬자들은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 및 「舊三國史」의 기사, 그리고 『魏書』~고구려전 기사를 적절히 통합하여 동명왕본기의 주몽신화를 찬술하였다. 毛屯谷, 卒本川 기사는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에서, 鯤淵, 熊心山 기사 등은 「舊三國史」에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구성에서 보면 앞의 東扶餘 설화 부분은 거의 「舊三國史」의 기사를 그대로 옮겼으며, 중간 주몽 탄생부터 毛屯谷에 이르기까지의 기사는 『魏書』~고구려전의 기사를 중심으로 찬술하였다. 그리고 毛屯谷 기사 이후는 아마도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三國史記』~고구려본기의 주몽신화를 분석할 때에는 각 기사의 계통에 따라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다.

5) 『三國史記』~卷37 地理志4 “按通典云 朱蒙以漢建昭二年 自北扶餘東南行 渡普通水 至紇升骨城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古記云 朱蒙自扶餘逃難 至卒本 則紇升骨城·卒本 似一處也”

6) 林起煥(2006), 「高句麗本紀 典據資料의 系統과 性格」 『韓國古代史研究』~42

한편 『三國遺事』에도 주몽신화 관련 자료가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조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史料-5, 6, 7) 이 기사들은 내용상으로 보면 「舊三國史」 및 『三國史記』~고구려본기에 전하는 주몽신화와 그리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차이점도 나타나고 있어 또다른 주몽신화 관련 전승 자료의 존재를 시사한다. 史料-5의 '國史高麗本記'는 곧 『三國史記』~고구려본기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 문장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史料-6도 고구려본기에 의거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史料-5의 첫머리 기사와 分註 기사는 고구려본기와는 다른 계통의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史料-7의 '古記'가 어떤 史書を 가르치는지는 불분명한데, 고구려본기나 『舊三國史』의 전승과는 내용상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두 史書와는 또다른 저본 자료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三國遺事』의 기사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北扶餘 인식이다. 즉 史料-5, 6은 고구려본기에 의거한 기사인데, 고구려본기에 “扶餘王解夫妻”라고 되어 있음에도 『三國遺事』에는 ‘北扶餘王解夫妻’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편찬자인 一然이 갖고 있던 선입관에 의해 바뀐 것이다.

그러면 一然이 갖고 있던 ‘北扶餘王 解夫妻’라는 인식은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인가? 고구려본기 및 그 편찬의 저본 자료인 「舊三國史」 그리고 지리지 有名未詳地分조의 저본 자료, 그리고 『魏書』~고려전 등 어디에도 ‘北扶餘’에 대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⁷⁾ 一然의 ‘北扶餘’ 인식은 다름 아닌 『三國史記』~百濟本紀의 시조 전승에서 비롯된 것이다.

史料-8 :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百濟始祖 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或云 朱蒙到卒本 娶越郡女 生二子]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 沸流·溫祚 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 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

史料-9 :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分註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妻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陀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 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餘所生禮氏子孺 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 … 南遊卜地 別立國都

7)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琉璃王 29年 夏6月 “矛川上有黑蛙與赤蛙羣鬪 黑蛙不勝死 議者曰 黑北方之色 北扶餘破滅之徵也”라는 기사에 北扶餘가 보인다. 그러나 여기의 北扶餘는 건국설화 전체계 속의 東扶餘와 동일한 것으로 별도의 北扶餘 인식을 드러내는 기사는 아니다. ‘북쪽의 부여’로 해석된다.

위에서 보듯이 백제본기의 始祖傳承은 주몽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溫祚 전승의 경우에는 朱蒙이 北扶餘에서 남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沸流 전승의 경우에는 北扶餘王解扶婁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즉 『三國史記』에서 北扶餘와 관련된 기사는 百濟本紀를 찬술하는 자료 즉 百濟系 전승 자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北扶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卒本扶餘에 대한 기사도 유의된다. 史料-8의 전승에서는 朱蒙이 北扶餘에서 남하하여 卒本扶餘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北扶餘와 卒本扶餘는 고구려본기 및 그 저본 자료에서는 보이는 않는 기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建國說話에 나타난 卒本扶餘의 성격

史料-10

- ① (始祖 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一云鄒牟 一云衆解…) 一云 朱蒙至卒本扶餘 王無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明聖王 分註)
- ② 百濟始祖 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扶餘王薨 朱蒙嗣位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 ③ 按古典記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嘉三年癸卯 自卒本夫餘 至慰禮城 立都稱王 (『三國史記』~地理志)

위 史料-10에서 보듯이 고구려본기 東明聖王 元年조에 分註로 실려있는 주몽전승의 異說(①)은 백제본기 溫祚王 원년조의 전승(②)의 첫머리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주몽전승의 異說에는 卒本扶餘 王의 3女子 중 2女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또 고구려본기 주몽전승에는 온조전승의 異說인 越郡女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이 주몽전승의 異說(①)이 『三國史記』~고구려본기 편찬자가 직접 온조전승(②)에 의거하여 추가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두 기사의 문장이 거의 동일함에서, 고구려본기의 주몽전승의 異說(①)은 고구려계통의 전승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제본기 溫祚王 元년조의 전승자료(②)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료 ①에서 朱蒙의 이칭인 “一云鄒牟”가 사료 ②의 “其父鄒牟” 기사와 서로 대교되어 기술되었음에서도 방증된다.

그리고 사료 ③ 『古典記』기사에서도 卒本扶餘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온조의 건국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시조 전승 관련 자료이지, 결코 고구려의 주몽전승은 아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온조의 父가 朱蒙이 아니라 東明王으로 표현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古典記』~기사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온조전승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본래 백제측 전승에는 주몽이 아니라 東明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史料 -8, 9, 10에서 보이는 백제의 시조전승에서는 東扶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주몽신화와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유의된다.

이상 고구려본기의 주몽신화와 백제본기의 시조 전승에 보이는 주몽관련 전승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본기의 주몽전승에는 北扶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 둘째 고구려본기의 주몽신화에 보이는 東扶餘에 대한 인식이 백제본기의 주몽관련 전승에는 없다는 점, 셋째 백제본기의 주몽 관련 전승 중에는 주몽의 도착지가 卒本만이 아니라 卒本扶餘라는 기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三國史記』~고구려본기나 백제본기에 보이는 北扶餘와 卒本扶餘 관련 기사는 고구려측 전승 자료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백제측 전승 자료에서 비롯한다는 점은 卒本扶餘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하다.⁸⁾

물론 고구려에서 北扶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史料-1에 보이는 廣開土王碑에는 “出自北夫餘”라고 밝히고 있으며, 같은 시기의 牟頭婁墓誌에도 “鄒牟聖王 元出北夫餘”라고 하여, 적어도 5세기 당시의 고구려인은 주몽의 出自를 北扶餘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구려인의 시조 北扶餘 出自 의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후대에는 東扶餘 出自로 바뀌었으며,⁹⁾ 그러한 東扶餘 出自 의식을 반영하는 자료에 의하여 현 고구려본기의 주몽신화 및 舊三國史의 동명왕본기가 편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三國史記』나 『三國遺事』기사에 보이는 “朱蒙自北扶餘” 혹은 “北扶餘王解扶婁”라는 기사는 백제본기를 구성하는 백제측 전승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즉 5세기 고구려의 金石文에 보이는 ‘北扶餘’와 『三國史記』기사의 ‘北扶餘’는 그 인식 주제가 고구려와 백제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같은 北扶餘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三國史記』의 卒本扶餘도 같은 백제측 자료 계통이라는 점에서 北扶餘 인식과 더불어 하나의 맥락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史料-8에서 卒本扶餘는 朱蒙이 北扶餘에서 남하하여 도착한 지역의 先主집단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高句麗 자체를 卒本扶餘로 보는 기사도 있다. 『三國遺事』~高句麗조 첫머리 기사 및 珠琳傳의 分註 기사(史料-5), 그리고 『三國遺事』~北扶餘조(史料-7)의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기사는 撰者인 一然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卒本扶餘에 대한 저본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百濟本紀 溫祚王조 기사(史料-8)와 古典記

8) 『三國史記』~卷 37 地理志4 高句麗條에 “古記云 朱蒙自扶餘逃難 至卒本”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百濟本紀 溫祚王조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史料-10-②)와 유사한데, 北扶餘/扶餘, 卒本扶餘/卒本の 차이가 있다. 古記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지만, 고구려측 전승 자료에 北扶餘, 卒本扶餘 관련 기사가 없음을 의식한 地理志 撰者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9) 盧泰敦은 4세기 후반경에 고구려가 夫餘의 東明전승을 차용하여 『魏書』~고구려전과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朱蒙전승이 성립하였으며, 解夫婁 - 金蛙 계통의 전승은 6세기 후반경에 東夫餘의 전승이 첨가된 결과로 보았다. 盧泰敦 (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5, 43~52쪽.

기사(史料-10-③) 뿐이다.

그러면 백제본기의 온조 전승에서 등장하는 卒本扶餘를 실제의 역사적 존재로 인정할 수 있을까? 백제의 시조 전승은 溫祚傳承, 沸流傳承, b仇台傳承, 都慕傳承 등 다양한 계통이 있으며, 그 시조 전승의 성립 과정도 현재로서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주제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이를 직접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백제의 시조 전승이 백제 건국 세력의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¹⁰⁾ 특히 백제의 온조 전승에서만 나타나는 卒本扶餘는 그 역사적 실체를 인정하기 보다는 후대의 관념에서 일정한 내용이 윤색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백제의 시조 전승에서 北扶餘와 卒本扶餘에 대한 인식은 언제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선 北扶餘와 卒本扶餘라는 국명에서 백제의 扶餘 계승의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대략의 시기 범위를 찾아보자.

현재 전하는 자료상으로는 백제 蓋鹵王이 北魏에 보낸 表文(472년)에서 “臣與高句麗 源出 夫餘”고 말한 것이 扶餘系 出自 의식을 드러낸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그러나 이 表文에서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扶餘系 出自 국가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여 계승의식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扶餘 멸망 후¹¹⁾ 백제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계 국가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는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백제의 王姓이 夫餘氏라는 점도 부여 계승의식과 어느 정도 관련될 터인데,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왕실의 성씨를 扶餘氏로 표방한 近肖古王대 372년 이전에도 扶餘系 出自 의식 정도는 내세워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¹²⁾

그러나 백제가 부여 계승의식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聖王이 泗泚 遷都와 더불어 國號를 ‘南扶餘’로 칭하였다는 사실이다.¹³⁾ 遷都 자체가 국가체제의 재정비를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때 ‘南扶餘’라 칭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의 면모를 一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¹⁴⁾ 따라서 이 때 역사인식의 변화 가능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周書』, 『隋書』 등의 百濟傳에서 백제를 東明의 후예인 仇台가 세운 나라로서 夫餘의 別種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역시 이 시기 백제가 대외적으로 표방한 부여계승의식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隋書』 百濟傳의 東明神話는 『三國志』나 『後

10) 林起煥(1998), 「百濟 始祖傳承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百濟研究』 28

11) 夫餘는 346년에 前燕의 공격으로 5만명의 주민이 이주되는 등 거의 隕멸하였고, 일부세력이 農安 부근에서 그 명맥을 잇는 수준이었다.(盧泰敦,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따라서 百濟 등 주변 국가에게 이미 멸망한 국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文咨王 3년조에는 494년 扶餘가 高句麗에게 병합당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12) 『晉書』 권9 簡文帝紀 咸安 2년(372) 6월조,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

13) 『三國史記』 百濟本紀 聖王 16년조, “移都於泗泚 國號南扶餘”

14) 百濟가 스스로 夫餘라고 칭했음은 聖王의 사비 천도 이전에도 그 흔적이 보인다. 『日本書紀』 17 繼體天皇 23年((529)條

漢書』ˆ夫餘傳의 동명신화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隋書』의 편찬자들이 백제가 부여의 별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三國志』ˆ등에 수록되어 있는 부여의 東明神話を 백제의 시조 전승에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동명신화에 이어지는 仇台 시조전승은 어쨌든 백제로부터의 傳聞일 터인데, 거기에서 東明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굳이 『隋書』ˆ편찬자들이 前史에서 동명신화를 찾아서 부회하였을까 의문이 든다.

『隋書』ˆ百濟傳은 백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중심이 되어있고, 前史에서 그대로 全載된 기사는 찾기 어렵다. 이는 『隋東蕃風俗記』라는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隋書』ˆ백제전의 동명신화 역시 당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백제로부터 東明에 관한 傳聞이 있었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⁵⁾ 다만 백제의 시조 仇台的 선조인 東明이라는 이름이 중국에 알려진 후에, 『隋書』의 편찬자들이 『三國志』ˆ등 前史에서 東明의 기록을 찾아 부가한 것인지, 아니면 백제인 스스로가 부여의 동명신화를 자신의 시조전승의 일부로 재구성한 것인지는 좀 더 고찰할 문제이지만, 일단 백제가 스스로 東明의 후예임을 표방하는 부여 계승의식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면 부여 계승의식으로서 ‘南扶餘’라는 國號가 갖는 의미를 검토해보자. 南扶餘는 곧 北扶餘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니, 백제측 전승자료에 보이는 “朱蒙自北扶餘逃難” 혹은 “北扶餘王解扶婁”라는 기사의 北扶餘는 곧 南扶餘인 백제의 혈통적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北扶餘의 정통성이 南扶餘에 이어진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卒本扶餘도 南扶餘와 北扶餘의 또다른 상대 개념일 수 있다. 즉 고구려 역시 扶餘 出自 의식을 내세우기 때문에 고구려도 또다른 扶餘가 될 수 있지만, 고구려는 어디까지는 卒本에서 일어난 扶餘, 즉 ‘卒本扶餘’일 뿐이라는 식으로 역사인식의 틀을 만들었을 것이다. 즉 부여의 정통성은 어디까지나 北扶餘에서 ‘南扶餘=百濟’로 이어진다는 역사계승의식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백제측 전승 자료에 나타나는 北扶餘, 卒本扶餘에 대한 관념은 대략 성왕대의 南扶餘를 국호로 칭하게 되는 부여계승 의식 밀접하게 연관된 결과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IV. 맺음말

卒本扶餘는 백제측 전승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으로서, ‘卒本 땅의 扶餘’라는 뜻을 갖

15) 唐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東明州·帶方州나 東明都督府의 설치를 의도하였다. 이러한 東明·帶方の 명칭은 仇台傳承과 깊이 관련된다. 이는 당시 백제와 동명·대방을 깊이 연관시키고 있는 중국인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仇台전승의 東明을 『隋書』ˆ찬자들의 机上의 부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는 高句麗 혹은 고구려의 起源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추정하는 것이 현재 전해지는 관련 자료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 이전의 卒本 지역의 정치체를 ‘卒本扶餘’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 정치체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갖는 실체와 관계없이 사료상에 나타나는 ‘卒本扶餘’가 그러한 정치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史料-1 : 廣開土王碑

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 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 迎王 王於忽本東置履 龍貢昇天

史料-2 : 『魏書』高麗傳

高句麗者，出於夫餘，自言先祖朱蒙。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閉於室中，爲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旣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夫餘王棄之與犬，犬不食；棄之與豕，豕又不食。棄之於路，牛馬避之。後棄之野，衆鳥以毛茹之。夫餘王割剖之，不能破，遂還其母。其母以物裹之，置於暖處，有一男破殼而出。及其長也，字之曰朱蒙，其俗言朱蒙者，善射也。夫餘人以朱蒙非人所生，將有異志，請除之，王不聽，命之養馬。朱蒙每私試，知有善惡，駿者減食令瘦，駑者善養令肥。夫餘王以肥者自乘，以瘦者給朱蒙。後狩于田，以朱蒙善射，限之一矢。朱蒙雖矢少，殪獸甚多。夫餘之臣又謀殺之。朱蒙母陰知，告朱蒙曰：國將害汝，以汝才略，宜遠適四方。朱蒙乃與烏引·烏遼等二人，棄夫餘，東南走。中道遇一大水，欲濟無梁，夫餘人追之甚急。朱蒙告水曰：我是日子，河伯外孫，今日逃走，追兵垂及，如何得濟。於是魚鼈並浮，爲之成橋，朱蒙得渡，魚鼈乃解，追騎不得渡。朱蒙遂至普述水，遇見三人，其一人著麻衣，一人著納衣，一人著水藻衣，與朱蒙至紇升骨城，遂居焉，號曰高句麗，因以爲氏焉。初，朱蒙在夫餘時，妻懷孕，朱蒙逃後生一子，字始閭諧。及長，知朱蒙爲國主，卽與母亡而歸之，名之曰閭達，委之國事。朱蒙死，閭達代立。閭達死，子如栗代立。如栗死，子莫來代立，乃征夫餘，夫餘大敗，遂統屬焉。

史料-3 :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明聖王

始祖 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一云鄒牟 一云衆解 先是 扶餘王解夫婁老無子 祭山川求嗣 其所御馬至鯤淵 見大石 相對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蛙一作蝸 王喜曰 “此乃天賚我令胤乎” 乃收而養之 名曰金蛙 及其長 立爲太子 後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曰迦葉原 土壤膏腴宜五穀 可都也’ ” 阿蘭弗遂勸王 移都於彼 國號東扶餘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及解夫婁薨 金蛙嗣位 於是時 得女子於太白山南優渤水 問之 曰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

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下鴨淥邊室中私之 卽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優渤水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棄之與犬豕 皆不食 又棄之路中 牛馬避之 後棄之野 鳥覆翼之 王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男兒 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 嶷然異常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金蛙有七子 常與朱蒙遊戲 其伎能皆不及朱蒙 其長子帶素言於王曰 “朱蒙非人所生 其不早圖爲人也勇 若 恐有後患 請除之”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 而減食令瘦 駑者善養令肥 王以肥者自乘 瘦者給朱蒙 後獵于野 以朱蒙善射 與其矢少 而朱蒙殘獸甚多 王子及諸臣又謀殺之 朱蒙母陰知之 告曰 “國人將害汝 以汝才略 何往而不可 與其遲留而受辱 不若遠適以有爲” 朱蒙乃與烏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 行至淹漚水[一名蓋斯水 在今鴨淥東北] 欲渡無梁 恐爲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者垂及如何” 於是 魚鼈浮出成橋 朱蒙得渡 魚鼈乃解 追騎不得渡 朱蒙行至毛屯谷[魏書云 至普述水] 遇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朱蒙問曰 “子等何許人也 何姓何名乎” 麻衣者曰 “名再思” 衲衣者曰 “名武骨” 水藻衣者曰 “名默居” 而不言姓 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默居少室氏 乃告於衆曰 “我方承景命 欲啓元基 而適遇此三賢 豈非天賜乎” 遂揆其能 各任以事 與之俱至卒本川 [魏書云 至紇升骨城]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違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一云 朱蒙至卒本扶餘 王無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時朱蒙年二十二歲 是漢孝元帝建昭二年 新羅始祖赫居世二十一年甲申歲也

四方聞之 來附者衆 … 王見沸流水中 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獵往尋 至沸流國 其國王松讓出見曰 “寡人僻在海隅 未嘗得見君子 今日邂逅相遇 不亦幸乎 然不識吾子自何而來” 答曰 “我是天帝子 來都於某所” 松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都日淺 爲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與之鬪 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 十四年 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冬十月 遣使扶餘 饋方物 以報其德, 十九年 夏四月 王子類利自扶餘與其母逃歸 王喜之 立爲太子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號東明聖王

史料-4 : 『東明王篇』 引用 舊三國史 東明王本紀

○ 本紀云. 夫余王解夫妻老無子. 祭山川求嗣. 所御馬至鯤淵. 見大石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金色蛙形. 王曰. 此天錫我令胤乎. 乃收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 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 阿蘭弗勸王移都. 號東夫余. 於舊都. 解慕漱爲天帝子來都. ○ 漢神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降遊扶余王古都. 號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鶴. 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劍. ○ 朝則聽事. 暮卽升天. 世謂之天王卽. ○ 清河今鴨綠江也. ○ (河伯三女美) 長曰柳花. 次曰萱花. 季曰葦花. ○ 自

靑河出遊熊心淵上。○ 神姿艷麗。雜佩鏘洋。與漢臯無異。○ 王謂左右曰 得而爲妃。可有後胤。○ 其女見王卽入水。左右曰。大王何不作宮殿。俟女入室。當戶遮之。王以爲然。以馬鞭畫地。銅室俄成壯麗。於室中。設三席置樽酒。其女各坐其席。相勸飲酒大醉云云。○ 王俟三女大醉急出。庶女等驚走。長女柳花。爲王所止。○ 河伯大怒。遣使告曰。汝是何人。留我女乎。王報云。我是天帝之子。今欲與河伯結婚。河伯又使告曰。汝若天帝之子。於我有求婚者。當使媒云云。今輒留我女。何其失禮。王慙之。將往見河伯。不能入室。欲放其女。女間與王定情。不肯離去。乃勸王曰。如有龍車。可到河伯之國。王指天而告。俄而五龍車從空而下。王與女乘車。風雲忽起。至其宮。○ 河伯備禮迎之。坐定。謂曰。婚姻之道。天下之通規。何爲失禮。辱我門宗云云。○ 河伯曰。王是天帝之子。有何神異。王曰。唯在所試。於是。河伯於庭前水。化爲鯉。隨浪而遊。王化爲獺而捕之。河伯又化爲鹿而走。王化爲豺逐之。河伯化爲雉。王化爲鷹擊之。河伯以爲誠是天帝之子。以禮成婚。恐王無將女之心。張樂置酒。勸王大醉。與女入於小革輿中。載以龍車。欲令升天。其車未出水。王卽酒醒。取女黃金釵刺革輿。從孔獨出升天。○ 河伯大怒。其女曰。汝不從我訓。終欲我門。令左右絞挽女口。其唇吻長三尺。唯與奴婢二人。貶於優渤水中。優渤澤名。今在太伯山南。○ 漁師強力扶鄒告曰。近有盜梁中魚而將去者。未知何獸也。王乃使魚師以網引之。其網破裂。更造鐵網引之。始得一女。坐石而出。其女唇長不能言。令三截其唇乃言。○ 王知天帝子妃。以別宮置之。其女懷中日曜。因以有娠。神雀四年癸亥歲夏四月。生朱蒙。啼聲甚偉。骨表英奇。初生左腋生一卵。大如五升許。王怪之曰。人生鳥卵。可爲不祥。使人置之馬牧。羣馬不踐。棄於深山。百獸皆護。雲陰之日。卵上恒有日光。王取卵送母養之。卵終乃開得一男。生未經月。言語並實。○ 謂母曰。羣蠅瞿目。不能睡。母爲我作弓矢。其母以韋作弓矢與之。自射紡車上蠅。發矢卽中。扶余謂善射曰朱蒙。○ 年至長大。才能並備。金蛙有子七人。常共朱蒙遊獵。王子及從者四十餘人。唯獲一鹿。朱蒙射鹿至多。王子妬之。乃執朱蒙縛樹。奪鹿而去。朱蒙拔樹而去。太子帶素言於王曰。朱蒙者。神勇之士。瞻視非常。若不早圖。必有後患。○ 王使朱蒙牧馬。欲試其意。朱蒙內自懷恨。謂母曰。我是天帝之孫。爲人牧馬。生不如死。欲往南土造國家。母在不敢自專。其母云云。○ 其母曰。此吾之所以日夜腐心也。吾聞土之涉長途者。須憑駿足。吾能擇馬矣。遂往馬牧。卽以長鞭亂撻。羣馬皆驚走。一駢馬跳過二丈之欄。朱蒙知馬駿逸。潛以針捷馬舌根。其馬舌痛。不食水草。甚瘦悴。王巡行馬牧。見羣馬悉肥大喜。仍以瘦錫朱蒙。朱蒙得之。拔其針加餒云。○ 烏伊。摩離。陝父等三人。○ (南行至淹滯) 一名蓋斯水。在今鴨綠東北。○ 欲渡無舟。恐追兵奄及。迺以策指天。慨然嘆曰。我天帝之孫。河伯之甥。今避難至此。皇天后土。憐我孤子。速致舟橋。言訖。以弓打水。魚鼈浮出成橋。朱蒙乃得渡。良久追兵至。○ 追兵至河。魚鼈橋卽滅。已上橋者。皆沒死。○ 朱蒙臨別。不忍睽違。其母曰。汝勿以一母爲念。乃裹五穀種以送之。朱蒙自切生別之心。忘其麥子。朱蒙息大樹之下。有雙鳩來集。朱蒙曰。應是神母使送麥子。乃引弓射之。一矢俱舉。開喉得麥子。以水噴鳩。更蘇而飛去云云。○ 王自坐菴蓀之上。畧定君臣之位。○ 沸流王松讓出獵。見王容貌非常。引而與坐曰。僻在海隅。未曾得見君子。今日邂逅。何其幸乎。君是何人。從何而至。

王曰，寡人，天帝之孫，西國之王也，敢問君王繼誰之後，讓曰，予是仙人之後，累世爲王，今地方至小，不可分爲兩王，君造國日淺，爲我附庸可乎，王曰，寡人，繼天之後，今主非神之胄，強號爲王，若不歸我，天必殛之，松讓以王累稱天孫，內自懷疑，欲試其才，乃曰願與王射矣，以畫鹿置百步內射之，其矢不入鹿臍，猶如倒手，王使人以玉指環，於百步之外射之，破如瓦解，松讓大驚云云，○王曰，以國業新造，未有鼓角威儀，沸流使者往來，我不能以王禮迎送，所以輕我也，從臣扶芬奴進曰，臣爲大王取沸流鼓角，王曰，他國藏物，汝何取乎，對曰，此天之與物，何爲不取乎，夫大王困於扶余，誰謂大王能至於此，今大王奮身於萬死之危，揚名於遼左，此天帝命而爲之，何事不成，於是扶芬奴等三人，往沸流取鼓而來，沸流王遣使告曰云云，王恐來觀鼓角，色暗如故，松讓不敢爭而去，○松讓欲以立都，先後爲附庸，王造宮室，以朽木爲柱，故如千歲，松讓來見，竟不敢爭立都先，○西水獲白鹿，倒懸於蟹原，呪曰，天若不雨而漂沒沸流王都者，我固不汝放矣，欲免斯難，汝能訴天，其鹿哀鳴，聲徹于天，霖雨七日，漂沒松讓都，王以葦索橫流，乘鴨馬，百姓皆執其索，朱蒙以鞭畫水，水卽滅，六月松讓舉國來降云云，○七月，玄雲起鵲嶺，人不見其山，唯聞數千人聲以起土功，王曰，天爲我築城，七日，雲霧自散，城郭宮臺自然成，王拜皇天就居，○秋九月，王升天不下，時年四十，太子以所遺玉鞭，葬於龍山云云，○類利少有奇節云云，少以彈雀爲業，見一婦戴水盆，彈破之，其女怒而詈曰，無父之兒，彈破我盆，類利大慙，以泥丸彈之，塞盆孔如故，歸家問母曰，我父是誰，母以類利年少，戲之曰，汝無定父，類利泣曰，人無定父，將何面目見人乎，遂欲自刎，母大驚止之曰，前言戲耳，汝父是天帝孫，河伯甥，怨爲扶餘之臣，逃往南土，始造國家，汝往見之乎，對曰，父爲人君，子爲人臣，吾雖不才，豈不愧乎，母曰，汝父去時有遺言，吾有藏物七嶺七谷石上之松，能得此者，乃我之子也，類利自往山谷，搜求不得，疲倦而還，類利聞堂柱有悲聲，其柱乃石上之松木，體有七稜，類利自解之曰，七嶺七谷者，七稜也，石上松者，柱也，起而就視之，柱上有孔，得毀劍一片，大喜，前漢鴻嘉四年夏四月，奔高句麗，以劍一片，奉之於王，王出所有毀劍一片合之，血出連爲一劍，王謂類利曰，汝實我子，有何神聖乎，類利應聲，舉身聳空，乘牖中日，示其神聖之異，王大悅，立爲太子。

史料-5：『三國遺事』高句麗

高句麗 卽卒本扶餘也 或云今和州 又成州等 皆誤矣 卒本州在遼東界 國史高麗本記云 始祖東明聖帝姓言(高)氏 諱朱蒙 先是 北扶餘王解夫婁 既避地于東扶餘 及夫婁薨 金蛙嗣位 于時得一女子於太伯山南優渤水 問之 云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 解慕漱 誘我於態神山下 鴨渌邊室中知(私)之 而往不返 [壇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婁 今按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 而後產朱蒙 壇君記云 產子名曰夫婁 夫婁與朱蒙異母兄弟也]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于此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五升許 王棄之與犬猪 皆不食 又棄之路 牛馬避之 棄之野 鳥獸覆之 王欲剖之 而不能破 乃還其母 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兒 破殼而出 骨表英

奇 年甫七歲 岐嶷異常 自作弓矢 百發百中 國俗謂善射爲朱蒙 故以名焉 金蛙有七子 常與朱蒙遊戲 技能莫及 長者帶素言於王曰 朱蒙非人所生 若不早圖 恐有後患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 減食令瘦 駑者善養令肥 王自乘肥 瘦者給蒙 王之諸子與諸臣將謀害之 蒙母知之 告曰 國人將害汝 以汝才略 何往不可 宜速圖之 於是蒙與烏伊等三人爲友 行至淹水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魚鼈成橋 得渡而橋解 追騎不得渡 至卒本州[玄菟郡之界] 遂都焉 未皇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本姓解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 時年十二歲 漢孝元帝建昭二年甲申歲 卽位稱王 高麗全盛之日 二十一萬五百八戶 珠琳傳第二十一卷載 昔寧稟離王侍婢有娠 相者占之 曰 貴而當王 王曰 非我之胤也 當殺之 婢曰 氣從天來 故我有娠 及子之產 謂爲不祥 捐圈則猪噓 棄欄則馬乳 而得不死 卒爲扶餘之王[卽東明帝爲卒本扶餘王之謂也 此卒本扶餘 亦是北扶餘之別都 故云扶餘王也 寧稟離 乃夫妻王之異稱也]

史料-6 : 『三國遺事』 東扶餘

北扶餘王解夫妻之相阿蘭弗 夢 天帝降而謂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謂東明將興之兆也] 東海之濱 有地名迦葉原 土壤膏腴 宜立王都 阿蘭弗勸王 移都於彼 國號東扶餘 夫妻老無子 一日祭山川求嗣 所乘馬至鯤淵 見大石 相對俠(淚)流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王喜曰 此乃天賚我令胤乎 乃收而養之 名曰金蛙 及其長 爲太子 夫妻薨 金蛙嗣位爲王 次傳位于太子帶素 至地皇三年壬午 高麗王無恤伐之 殺王帶素 國除

史料-7 : 『三國遺事』 北扶餘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 移都于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而興 立都于卒本州 爲卒本扶餘 卽高句麗之始祖

高句丽初期建国传说关联资料的系统与性质

- 以卒本扶余为中心 -

林起焕 (首尔教育大学校)

〈目 次〉

- | | |
|----------------|----------------|
| 一. 前言 | 三. 建国传说的卒本扶余性质 |
| 二. 高句丽建国传说资料系统 | 四. 结束语 |

一. 前言

理解高句丽初期，特别是定都卒本时期的历史中最为重要的资料是建国传说。当然，建国传说中相当部分的内容是传说的色彩，但认真梳理传说色彩后仔细观察的话，就能得到理解初期历史面貌的有益资料。¹⁾在这里也存在着不少难题，其中之一就是与高句丽建国传说关联的资料属于多种系统，且互不相同的内容。例如，有关朱蒙的出自地域就有扶余传承、北扶余传承、东扶余传承等。而且，阐明现传建国传说资料的系统性是当务之际的研究课题，本文就已这样的前提为出发点，只是建国传说内容太广泛，只把焦点放在与“卒本扶余”关联资料的系统和性质上。

二. 高句丽建国传说资料系统

高句丽始祖传承的朱蒙神话资料大体上可分为当时高句丽人留下的金石文

1) 对高句丽建国传说的主要研究成果如下。

卢明镐：《百济的东明神话与东明庙》，《历史学研究》10，1981年。

徐永大：《高句丽王室始祖神话的类型》，《晚耕李忠喜先生花甲纪念·东西文化论丛》2，1997年。

林起焕：《对百济始祖传承的形成与变迁的考察》，《百济研究》28，1998年。

李成市：《高句丽的建国传说和王权》，《古代东亚的民族和国家》，1998年。

卢泰敦：《朱蒙的出自传承与桂娄部的起源》，《韩国古代史论丛》5，1999年。

金基兴：《高句丽建国神话的检讨》，《韩国史研究》113，2001年。

尹成龙：《高句丽建国神话和祭祀》，《韩国古代史研究》39，2005年。

资料及《三国史记》等韩国内相传的文献资料和《魏书》高句丽传等中国方面的文献资料。

言及朱蒙神话的高句丽金石文资料是《广开土王碑》的朱蒙神话(史料1)为基本。另外,《牟头娄墓志》所记“河伯之孙 日月之子 邹牟圣王 元出北扶余”、“河伯之孙 日月之子 所生之地”等片段内容。414年建立的《广开土王碑》朱蒙神话是目前为止最为悠久的记录。虽然简略记录朱蒙的谱系、出生、南下过程、建国等内容,但这反映五世纪当时高句丽人对始祖的认识这一点上是有重要价值的资料。当然,这一《广开土王碑》的朱蒙神话内容并不是记录当时传承的所有内容,只记录为强调王室的神圣性而必须的部分。

中国史书记录的朱蒙神话中时间最早的是《魏书》高句丽传的记事(史料2),同时也是内容最为丰富。《周书》和《北史》高丽传虽然也传有朱蒙神话,但内容非常简略,其文脉上与《魏书》相差无几。看来,浓缩《魏书》的可能性很大。因此,能够分析朱蒙神话的中国方面基本文献资料是《魏书》高句丽传的记事。

《魏书》是北齐的魏收于554年编撰的史书,其高句丽传中有很多是以前的史书中见不到的新的资料。这种现象可能是北魏和高句丽之间进行广泛交流的结果,特别是435年李敖作为册封使访问高句丽时收集的资料上形成的结果。其中作为新的资料且占有相当比重的是建国传说的朱蒙神话和与此前相联系的高句丽王系。这一新的资料出现在《魏书》,反映的是当时高句丽在整备国家体制时重新从建国始祖开始突出王室的权威,并把这些王权向对外标榜的结果。²⁾把《魏书》高句丽传的朱蒙神话看作与《广开土王碑》同时期的五世纪前半期传承于高句丽的朱蒙神话的反映,那么,就这一点上有与《广开土王碑》的朱蒙神话相比较和检讨的必要。特别是,比起《广开土王碑》,在内容上包涵着更加丰富的朱蒙的怀胎、出生过程和在扶余中遭受的苦难、南下时的随从者及建国过程。相传朱蒙神话的韩国资料有《三国世纪》高句丽本纪(史料3),引用于《东明王篇》的《旧三国史》(史料4)和虽不清楚其具体内容,但相传于《三国史记》地理志·有名未详地分条的编撰资料及相传于《三国遗事》的资料(史料5、6、7)等。

在这里把握具体内容有一些难度,但首先考察《三国史记》高句丽本纪的传承及《旧三国史》的传承有一定差异的另一种传承资料。

《三国史记》地理志·有名未详地分条中收录有朱蒙神话中出现的地名。编撰这一有名未详地分条底本资料是《三国史记》高句丽本纪的底本资料,³⁾但其内容是不同的。只是还不知道具体记事,所以以地名为中心的《东明王篇》

2) 林起煥:《出现于426世纪中国史书的韩国古代史像》,《韩国古代史研究》14,1998年,第171页。

3) 林起煥:《高句丽本纪典据资料的系统和性质》,《韩国古代史研究》42,2006年。

引用的《旧三国史》及《三国史记》高句丽本纪及其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相互作比较，考察其差异点。

朱蒙神话关联资料地名比较表

地理志·有名未详地分	高句丽本纪	旧三国史(东明王篇)
迦叶原	鯤渊	鯤渊
东牟河	迦叶原	迦叶原
优渤水	优渤水	熊心山
淹澆水[或云盖斯水]	熊心山	青河[今鸭绿江也]
沸流水	淹澆水[或云盖斯水在今鸭绿东北]	熊心渊
萨水	毛屯谷[魏书云 至普述水]	优渤水[优渤泽名 今在太伯山南]
毛屯谷	卒本川[魏书云 至纥升骨城]	淹滞[一名盖斯水 在今鸭绿江北]
鹊岭	沸流水	(沸流王松让)
松让国	沸流国(其国王松让)	蟹原
苻人国	鹊岭	鹊岭
	苻人国	龙山
	龙山	

高句丽本纪和有名未详地分条的朱蒙神话中出现的地名作比较，大部分是一致的，但只见于高句丽本纪的地名有鯤渊、熊心山、卒本川。有名未详地分条有东牟河、萨水。看来，鯤渊、熊心山是撰写高句丽本纪时取之于《旧三国史》的记事内容。还有，有名未详地分条的东牟河、萨水是撰写高句丽本纪的过程中不知什么理由被排除的记事。另外，《旧三国史》见有青河，这可能与有名未详地分条的萨水相对应，两地名是同处异名的可能性很高。

有名未详地分条的地名和《旧三国史》的地名作比较，在《旧三国史》中不见的地名有毛屯谷。《东明王篇》中不见在毛屯谷相见的三人的记事，这一情况应理解为并不是李奎报的遗漏，而是原来在《旧三国史》中就不存在。⁴⁾即毛屯谷三人的记录是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中的记事。

下面，再考察只见于高句丽本纪的卒本、卒本川。卒本、卒本川在有名未详地分条和《旧三国史》中不见。那么，卒本是依据另外一种底本资料，还是有名未详地分条依据的资料中存在的地名，但地理志编撰者没有分类为有名未详地分的缘故不得而知。只是高句丽本纪的毛屯谷、卒本川都与《魏书》对称，又注“魏书云 至纥升骨城”的情况看，把卒本川记事也看作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中原来就存在是妥当的。

4) 因为李奎报见过《三国史记》高句丽本纪，因此对毛屯谷三人的存在是清楚的，故对朱蒙从扶余南下时同行的乌伊等三人在本文诗的分注中明记不同，对毛屯谷三人不作任何记录的理由应理解为底本资料《旧三国史》中就不存在的缘故。

另外,从毛屯谷的情况看,见于高句丽本纪的毛屯谷的加注记事“魏书云 至普述水”不见于有名未详地分条可理解为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中就不存在或如果存在也是地理志编撰者把毛屯谷和普述水没有看作同一地域而未作记录。地理志编撰者在高句丽条前半部分记事中所反映的那样,通过《通典》知道普述水是朱蒙南下时经过的地名。但是,在高句丽本纪中普述水、纥升骨城是通过《魏书》对校并加注不一样,地理志的编撰者通过《通典》对校的。⁵⁾由此,见于高句丽本纪的对淹淲水和毛屯谷的两个加注是依靠高句丽本纪编撰者而形成是妥当的。这与高句丽本纪朱蒙神话的相当部分引用《魏书》这一点上也得到引证。⁶⁾

以上通过各种地名作比较检讨的结果就能发现,高句丽本纪和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之间对朱蒙神话记述上有一定的差异。沸流水和毛屯谷的记述顺序也是如此,松让国和沸流国的标记也有差异。在这里也能看出高句丽本纪编撰者在编撰朱蒙神话部分时,除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以外,也参考了《旧三国史》。而且,东牟河、萨水地名在高句丽本纪和《旧三国史》等任何史书中见不到的地名。这是记录于有名未详地分条底本资料中的朱蒙神话内容的一部分被高句丽本纪编撰者不作选择的事例。如此,只看东明王记的地名,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和《旧三国史》是互不相同的史书。而且,可以看出与朱蒙神话关联的韩国方面的传承资料至少可分为两个以上的传承资料。

还有,高句丽本纪的编撰者们把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和《旧三国史》记事、《魏书》高句丽传的记事适当的加以统合后撰述了东明王本纪的朱蒙神话。毛屯谷、卒本川记事取自于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鯤渊、熊心山记事是引用于《旧三国史》。从全体构成上看,前面的东扶余传说部分几乎是照搬了《旧三国史》的记事,从中间的朱蒙出生开始至毛屯谷的记事是以《魏书》高句丽传的记事为中心编撰的。而且,毛屯谷记事以后部分可推定为依据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由此,分析《三国史记》高句丽本纪的朱蒙神话时应按各记事的系统进行考察。

另外,《三国遗事》也有与朱蒙神话相关联的资料中分北扶馀、东扶余、高句丽条来记述(史料5, 6, 7)。这些记事从内容上看,与《旧三国史》及《三国史记》高句丽本纪中的朱蒙神话没有太大的差别,但具体内容上也出现一定的差异,提示着另一种朱蒙神话关联传承资料的存在,史料5的《国史高丽本纪》是指《三国史记》高句丽本纪,其文章和内容几乎是相同的。史料6也分

5) 《三国史记》卷37.地理志4“按通典云 朱蒙以汉建昭二年 自北扶余东南行 渡普述水 至纥升骨城居焉 号曰句丽 以高为氏 古记云 朱蒙自扶余逃难 至卒本 则纥升骨城·卒本 似一处也”

6) 林起煥：《高句丽本纪典据资料的系统和性质》，《韩国古代史研究》42, 2006年。

明是依据高句丽本纪，只是史料5的第一段记事和加注记事与高句丽本纪是不同系统的资料。还有，史料7的“古记”是指什么史书不明确，但与高句丽本纪或《旧三国史》的传承在内容上有一定的差异，依据与这两个史书不同的底本资料的可能性很高。

只是上述《三国遗事》的记事中共同出现了对北扶余的认识，即史料5、6是依据高句丽本纪的记事，但高句丽本纪记为“扶余王解夫娄”，而《三国遗事》则记为“北扶余王解夫娄”，这是被编撰者一然所持有的先入之见改变的记事。

那么，一然所持有的“北扶余王解夫娄”这一认识依据是什么资料呢？高句丽本纪及其编撰者的底本资料《旧三国史》、地理志·有名未详地分条的底本资料、《魏书》高丽传等哪里也找不出对“北扶余”的认识。⁷⁾一然的“北扶余”认识出自于《三国史记》百济本纪的始祖传承。

史料8【三国史记】百济本纪 温祚王

百济始祖 温祚王 其父邹牟 或云朱蒙 自北扶余逃难 至卒本扶余 扶余王无子 只有三女子 见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几 扶余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长曰沸流 次日温祚[或云 朱蒙到卒本 娶越郡女 生二子] 及朱蒙在北扶余所生子来为太子 沸流·温祚恐为太子所不容 遂与乌干·马黎等十臣南行 百姓从之者多 至汉山……改号百济 其世系与高句丽 同出扶余 故以扶余为氏

史料9【三国史记】百济本纪 温祚王 分注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优台 北扶余王解扶娄庶孙 母召西奴 卒本人延陋勃之女 始归于优台 生子二人 长曰沸流 次日温祚 优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余 以前汉建昭二年 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号高句丽 娶召西奴为妃 其于开基创业 颇有内助 故朱蒙宠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余所生礼氏子孺留来立之为太子 以至嗣位焉 於是……南游卜地 别立国都

从上所见，百济本纪的始祖传承与朱蒙神话有密切的联系。温祚传承的情况是朱蒙从北扶余南下，沸流传承的情况是言及北扶余王解夫娄的存在。即《三国史记》中与北扶余关联的记事是记述百济本纪的资料，可知所依据的是百济本纪传承资料。而且，这种对北扶余的认识相关联，也要留意对卒本扶余的记事。

7) 《三国史记》高句丽本纪琉璃王二十九年夏六月“矛川上有黑蛙与蛙群斗 黑蛙不胜死 议者曰 黑北方之色 北扶余破灭之征也”记事中见有北扶余。但这里的北扶余与建国传说体系中的东扶余是相同的，并不反映另外对北扶余的认识记事。可解释为“北方的扶余”。

史料8的传承中朱蒙是从北扶余南下后到达卒本川。北扶余和卒本扶余是高句丽本纪及其底本资料中见不到的记事。对此，将在下一章中考察。

三. 建国传说中的卒本扶余的性质

- 史料10 ①(始祖 东明圣王 姓高氏 讳朱蒙 一云邹牟 一云众解…)一云朱蒙至卒本扶余 王无子 见朱蒙 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三国史记】高句丽本纪 东明圣王 分注)
- ②百济始祖 温祚王 其父邹牟 或云朱蒙 自北扶余逃难 至卒本扶余 扶余王无子 只有三女子 见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几扶余王薨 朱蒙嗣位(【三国史记】百济本纪 温祚王)
- ③按古典记 东明王第三子温祚 以前汉鸿嘉三年癸卯 自卒本夫余 至慰礼城 立都称王(【三国史记】地理志)

上記史料10中所见，高句丽本纪东明王元年条中加注的朱蒙传承异说①与百济本纪温祚王元年条传承②的头一段很相似。只是朱蒙传承异说中没有卒本扶余王的三个女儿中与二女儿结婚的内容。还有，高句丽本纪朱蒙传承中也没有对温祚传承异说的越郡女的记事。而且，这一朱蒙传承异说①是《三国史记》高句丽本纪编撰者直接依据温祚传承②而追加的可能性也不是没有的。但是，从这两个记事几乎相同这一点上可知，高句丽本纪朱蒙传承异说①不是依据高句丽系统的传承资料，而是依据百济本纪温祚王元年条传承资料②。这在史料①中朱蒙的异称“一云邹牟”在史料②的“其父邹牟”记事相互对称而记述的情况中也得到引证。

还有，史料③《古典记》记事中也出现卒本扶余，这也是言及温祚的建国事实，指的是百济的始祖传承关联资料，并不是高句丽的朱蒙传承。因为，这一《古典记》记事是现在可以确认的最为悠久的温祚传承记事，反映着本来百济传承中记录为不是朱蒙而是东明的可能性。

另外，上記史料8, 9, 10看到百济始祖传承中没有对东扶余的认识这一点上，也要留意见于高句丽本纪朱蒙神话有很大差异。

以上，见于高句丽本纪的朱蒙神话和百济本纪的始祖传承中与朱蒙关联传承作比较时出现的大的差异如下：第一，百济本纪的朱蒙传承中存在对北扶余的认识。第二，见于高句丽本纪的朱蒙神话中对东扶余的认识在百济本纪的朱蒙关联传承中没有。第三，百济本纪的朱蒙关联传承中朱蒙的到达之地不仅是卒本，而且还有卒本扶余的记事。

如此，见于《三国史记》高句丽本纪或百济本纪的北扶余和卒本扶余关联记

事不是在高句丽方面的传承资料中找到，而是出自于百济方面的传承资料，这一点理解卒本扶余的实体上非常重要。⁸⁾

当然，在高句丽中不是没有对北扶余的认识。见于史料1的广开土王碑中明确记有“出自北扶余”，同一时期的牟头娄墓志中也有“邹牟圣王 元出北扶余”的记录，至少在五世纪当时的高句丽人把朱蒙的出自定为北扶余。但是，这种高句丽人的始祖出自北扶余的意识不知是什么理由，后代转为出自东扶余，⁹⁾并依据反映这些出自东扶余意识的资料，就编撰了现高句丽本纪的朱蒙神话及《旧三国史》的东明王本纪。

而且，见于现在的《三国史记》或《三国遗事》记事中的“朱蒙自北扶余”或“北扶余王 解夫娄”记事是依据构成百济本纪的百济方面传承资料。即见于五世纪高句丽金石文的“北扶余”和《三国史记》记事的“北扶余”，其认识主体按高句丽和百济明鲜区别。进而，同样标记为北扶余，把两者按不同的观点上加以分析。由此，《三国史记》的卒本扶余也同样是百济方面的资料系统这一点上与北扶余认识一起放在一个脉络上加以检讨。

在史料8中，卒本扶余是朱蒙从北扶余南下后到达地区的先主集团来出现的，但与此相反，也有把高句丽本身看作卒本扶余的记事。《三国遗事》高句丽条的头一段记事及珠琳传的加注记事(史料5)、《三国遗事》北扶余条(史料7)的记事就是如此。但是，这两条记事可看作是起因于撰者一然的误解的结果。而且，被确认为对卒本扶余的底本资料只是百济本纪温祚王条记事(史料8)和《古典记》记事(史料10-3)而已。

那么，把百济本纪的温祚传承中出现的卒本扶余是否能认定为实际的历史存在呢？百济的始祖传承有温祚传承、沸流传承、仇台传承、都慕传承等多种系统，其始祖传承的成立过程也从现在看来弄清楚是比较困难的课题。而且，在本文中对此做直接检讨有困难，但必须想指出的是把百济的始祖传承看作是反映百济建国势力的历史经验的结果是困难的。¹⁰⁾特别是只在百济的温祚传承中出现的卒本扶余认定为其历史主体，还不如看作后代的观念中出现的一种结果更为妥当。

那么，百济始祖传承中对北扶余和卒本扶余的认识是什么时候出现的呢？首先，北扶余和卒本扶余的国名中窥视百济的扶余继承意识，因此，基于这种观

8) 《三国史记》卷37·地理志4有“古记云 朱蒙自扶余逃难 至卒本”的记事。这一记事与百济本纪·温祚王条的“自北扶余逃难 自卒本扶余(史料10-②)相似，只有北扶余和扶余、卒本扶余和卒本”的差异。还不知道古记是什么资料，但可以窥见到高句丽方面传承资料中已意识到没有与北扶余、卒本扶余关联记事的地理志撰者的态度。

9) 卢泰敦认为，四世纪后半期，高句丽借用扶余的东明传承，形成了见于《魏书》高句丽传和广开土王碑的朱蒙传承，解夫娄一金蛙系统的传承是六世纪后半期添加到东扶余的结果。卢泰敦：《朱蒙的出自传承与桂娄部的起源》，《韩国古代史论丛》5，1993年，第43~52页。

10) 林起焕：《对百济始祖传承的形成与变迁的考察》，《百济研究》28，1998年。

点中寻找大致的时期范围。

现传的资料中百济的盖鹵王致北魏的表文(472年)所云的“臣与高句丽 源出扶余”是表现扶余系出自意识的最早资料。但是,在这一表文中明确记录高句丽也是出自扶余系的国家,因此,很难把它看做是正式表白扶余继承意识。当然,扶余灭亡后,¹¹⁾百济与高句丽一起对外宣称扶余系国家的认识意图。而且,百济的王姓为扶余氏这一点也多少与扶余继承意识有一定的关联,那么,对外标榜王室姓氏为扶余氏的近肖古王代(372年)以前也一定程度上主张扶余系出自意识的可能性也是存在的。¹²⁾

但是,百济最为鲜明地表白扶余继承意识的是圣王随迁都泗泚一起把国号称称为“南扶余”的实事。¹³⁾迁都本身就是追求国家体制的再整备方式,因此,这时称“南扶余”的实事本身反映着改变国家面貌的意志,¹⁴⁾进而可以窥见这时历史认识变化的可能性。

与此相关联,《周书》、《隋书》等的百济传中把百济记述为东明的后裔仇台建立的国家和扶余的别种,这些记述也可看作这一时期百济向对外标榜的扶余继承意识。《隋书》百济传的东明神话与《三国志》、《后汉书》扶余传的东明神话大体上是一致的。这说明《隋书》编撰者们持有百济是扶余别种的认识,把收录于《三国志》等的扶余东明神话追加到百济始祖传承的可能性。但是,与东明神话相连接的仇台始祖传承一定是百济的传闻,在那里没有言及东明,为什么《隋书》编撰者们从前史中找出东明神话来加以追加呢?对此不得不提出疑问。

《隋书》百济传是以有关百济的新的信息为中心,找不到从前史中照本全载的记事。这是以为《隋书》是以《隋东蕃风俗记》的新资料作为基础记述的缘故。而且,《隋书》百济传的东明神话也看作当时无论是以什么样的形态,从百济接收到对东明的传闻而形成的结果是比较妥当的。¹⁵⁾只是,百济的始祖仇台的先祖东明之名被传到中国后《隋书》编撰者们从《三国志》等前史中找出东明的记录而附加的,还是百济人自己把扶余的东明神话再构成为自己的始祖传承的一部分呢?这是还需要进一步考察的问题,但百济把自己

11) 扶余是346年因前燕的进攻,5万名居民迁移等几乎达到毁灭的程度,部分势力在农安附近维持其命脉的水准(卢泰敦:《扶余国的地域及其变迁》,《国史馆论丛》4,1989年)。而且,百济等周边国家认定为已灭亡的国家。还有,《三国史记》高句丽本纪文咨王三年条中传494年扶余被高句丽合并的事实。

12) 《晋书》卷9·简文帝纪·咸安二年(372年)六月条“遣使拜百济王余句为镇东将军领乐浪太守”。

13) 《三国史记》百济本纪·圣王十六年条“移都于泗泚 国号南扶余”。

14) 百济称自己为扶余的事实,在圣王的泗泚迁都以前也能看到其痕迹。《日本书纪》17,继体天皇二十三年(529年)条。

15) 唐灭百济后试图设立东明州、带方州或东明都督府。这些东明、带方的名称与仇台传承有深刻的关联。这是一条可窥见当时把百济和东明、带方加以联系的中国人观念的资料。而且,仇台传承的东明看作《隋书》撰者们的附加是困难的。

标榜为东明后裔的扶余继承意识向对外明确地加以阐明的事实是充分得到认定的。

那么，再检讨一下作为扶余继承意识的“南扶余”国号所持有的意义。南扶余即北扶余的相对概念。相反也是如此，见于百济方面传承资料“朱蒙出北扶余逃难”或“北扶余王解夫娄”记事的北扶余即意味着南扶余的百济血统起源。而且，这与北扶余的正统性连接到南扶余的认识相联系。

卒本扶余也是南扶余和北扶余的另一种相对概念。即高句丽也可举扶余出自意识，高句丽同样成为另一种扶余，但高句丽只创造出自卒本的扶余即卒本扶余的历史认识框架。即扶余的正统性无论如何只能是北扶余、南扶余=百济相连接的历史继承意识来形成的。

如此，出现于百济方面传承资料对北扶余、卒本扶余的观念可推定为与大约在圣王代称南扶余国号的扶余继承意识有密切关联而出现的结果。

四. 结束语

卒本扶余是只出现于百济方面传承资料的概念，具有专指“卒本之地扶余”意义的高句丽或高句丽的起源地概念来推定是从现传的关联资料看最为合理的解释。而且，朱蒙建立高句丽以前的卒本地域政治体使用“卒本扶余”的用语是不妥的。当然，并不否定高句丽建国以前这一地区已有的政治体。笔者只想指出，与此实体无关，对史料上出现的“卒本扶余”，不能当作专指这一政治体的用语。

史料-1：广开土王碑

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 出自北夫余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圣口口口口口口命驾 巡幸南下 路由夫余奄利大水 王临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邹牟王 为我连葭浮龟应声即为 连葭浮龟 然後造渡於沸流谷 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不乐世位 因遣黄龙来下迎王 王於忽本东置履 龙贡升天

史料-2：《魏书》高句丽传

高句丽者 出于夫余 自言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为夫余王闭於室中 为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 夫余王弃之与犬 犬不食 弃之与豕 豕又不食 弃之于路 牛马避之 后弃之野 众鸟以毛茹之 夫余王割剖之 不能破 遂还其母 其母以物裹之 至于暖处 有一男破壳而出

及其长也 字之曰朱蒙 其俗言朱蒙者 善射也 夫余人以朱蒙非人所生 将有异志 请除之 王不听 命之养马 朱蒙每私试 知有善恶 骏者减食令瘦 弩者善养令肥 夫余王以肥者自乘 以瘦者给朱蒙 后狩于田 以朱蒙善射 限之一矢 朱蒙虽矢少 殪兽甚多 夫余之臣又谋杀之 朱蒙母阴知 告朱蒙曰 国将害汝 以汝才略 宜远适四方 朱蒙乃与乌引 乌违等二人 弃夫余 东南走 中道遇一大水 欲济无梁 夫余人追之甚急 朱蒙告水曰 我是日子 河伯外孙 今日逃走 追兵垂及 如何得济 于是鱼鳖并浮 为之成桥 朱蒙得渡 鱼鳖乃解 追骑不得渡 朱蒙遂至普述水 遇见三人 其一人著麻衣 一人著纳衣 一人著水藻衣 与朱蒙至纥升骨城 遂居焉 号曰高句丽 因以为氏焉 初 朱蒙在夫余时 妻怀孕 朱蒙逃后生一子 字始闾谐 及长 知朱蒙为国主 即与母亡而归之 名之曰闾达 委之国事 朱蒙死 闾达代立 闾达死 子如栗代立 如栗死 子莫来代立 乃征夫余 夫余大败 遂统属焉

史料-3 : 《三国史记》高句丽本纪 东明圣王

始祖 东明圣王 姓高氏 讳朱蒙 一云邹牟 一云众解 先是 扶余王解夫娄老无子 祭山川求嗣 其所御马至赬渊 见大石 相对流泪 王怪之 使人转其石 有小儿 金色蛙形 蛙一作蜗 王喜曰“此乃天贶我令胤乎” 乃收而养之 名曰金蛙 及其长 立为太子 後其相阿兰弗曰 “日者天将我曰‘将使吾子孙立国於此 汝其避之 东海之滨有地 号曰迦叶原 土壤膏腴宜五谷 可都也’”阿兰弗遂劝王 移都於彼 国号东扶余 其旧都有人 不知所从来 自称天帝子解慕漱来都焉 解夫娄薨 金蛙嗣位 於是时 得女子於太白山南优渤水 问之 曰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与诸弟出游 时有一男子自言天帝子解慕漱 诱我於熊心山下鸭绿边室中私之 即往不返 父母责我无媒而从人 遂谪居优渤水” 金蛙异之 幽闭于室中 为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许 王弃之于犬豕 皆不食 又弃之路中 牛马避之 后弃之野 鸟覆翼之 王欲剖之 不能破 遂还其母 其母以物裹之 置於暖处 有一男儿破壳而出 骨表英奇 年甫七岁 嶷然异常 自作弓矢射之 百发白中 扶余俗语善射为朱蒙 故以名云 金蛙有七子 常与朱蒙游戏 其技能皆不及朱蒙 其长子带素言于王曰 “朱蒙非人所生 其为人也勇 若不早图 恐有后患 请除之” 王不听 使之养马 朱蒙知其骏者 而减食令瘦 弩者善养令肥 王以肥者自乘 瘦者给朱蒙 后猎于野 以朱蒙善射 与其矢少 而朱蒙殪兽甚多 王子及诸臣又谋杀之 朱蒙母阴知之 告曰 “国人将害汝 以汝才略 何往而不可 与其迟留而受辱 不若远适以有为” 朱蒙乃与乌伊·摩离·陔父等三人为友 行至淹淲水[一名盖斯水 在今鸭绿东北] 欲渡无梁 恐为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之子 河伯外孙 今日逃走 追者垂及如何” 于是鱼鳖浮出成桥 朱蒙得渡 鱼鳖乃解 追骑不得渡 朱蒙行至毛屯谷[魏书云 至普述水] 遇三人 其一人

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朱蒙问曰“子等何许人也 何姓何名乎”麻衣者曰“名再思”衲衣者曰“名武骨”水藻衣者曰“名默居”而不言姓 朱蒙赐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默居少室氏 乃告于众曰“我方承景命 欲启元基而适遇此三贤 岂非天赐乎”遂揆其能 各任以事 与之俱至卒本川[魏书云至纥升骨城]观其土壤肥美 山河险固 遂欲都焉而未遑作宫室 但结庐于沸流水上居之 国号高句丽 因以高为氏[一云 朱蒙至卒本扶余 王无子 见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时朱蒙年二十二岁 是汉孝元帝建昭二年 新罗始祖赫居世二十一年甲申岁也

四方闻之 来附者众…王见沸流水中 有菜叶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猎往寻 至沸流国 其国王松让出见曰“寡人僻在海隅 未尝得见君子 今日邂逅相遇 不亦幸乎 然不识吾子自何而来”答曰“我是天帝子 来都于某所”松让曰“我累世为王 地小不足容两主 君立都日浅 为我附庸可乎”王忿其言 因与之斗辩 亦相射以校艺 松让不能抗, …十四年 秋八月 王母柳花薨於东扶余 其王金蛙以太后礼葬之 遂立神庙 冬十月 遣使扶余 馈方物 以报其德, 十九年 夏四月 王子类利自扶余与其母逃归 王喜之 立为太子 秋九月 王升遐 时年四十岁 葬龙山 号东明圣王

史料-4：【东明王篇】 引用 旧三国史 东明王本纪

○本纪云。夫余王解夫妻老无子。祭山川求嗣。所御马至鲲渊。见大石流泪。王怪之。使人转其石。有小儿金色蛙形。王曰。此天锡我令胤乎。乃收养之。名曰金蛙。立为太子。其相阿兰弗曰。日者天降我曰。将使吾子孙。立国于此。汝其避之。东海之滨有地。号迦叶原。土宜五谷。可都也。阿兰弗劝王移都。号东夫余。于旧都。解慕漱为天帝子来都。○汉神雀三年壬戌岁。天帝遣太子降游扶余王古都。号解慕漱。从天而下。乘五龙车。从者百余人。皆骑白鹄。彩云浮于上。音乐动云中。止熊心山。经十余日始下。首戴鸟羽之冠。腰带龙光之剑。○朝则听事。暮即升天。世谓之天王即。○清河今鸭绿江也。○(河伯三女美)长曰柳花。次口萱花。季曰苇花。○自清河出游熊心渊上。○神态艳丽。杂佩锵洋。与汉无异。○王谓左右曰 得而为妃。可有后胤。○其女王即入水。左右曰。大王何不作宫殿。俟女入室。当户遮之。王以为然。以马鞭画地。铜室俄成壮丽。于室中。设三席置樽酒。其女各坐其席。相劝饮酒大醉云云。○王俟三女大醉急出。庶女等惊走。长女柳花。为王所止。○河伯大怒。遣使告曰。汝是何人。留我女乎。王报云。我是天帝之子。今欲与河伯结婚。河伯又使告曰 汝若天帝之子。于我有求昏者。当使媒云云。今辄留我女。何其失礼。王斩之。将往见河伯。不能入室。欲放其女。女间与王定情。不肯离去。乃劝王曰。如有龙车。可到河伯之国。王指天而告。俄而五龙车

从空而下. 王与女乘车. 风云忽起, 至其宫. ○河伯备礼迎之. 坐定. 谓曰. 婚姻之道. 天下之通规. 何为失礼. 辱我门宗云云.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异. 王曰. 唯在所试. 于是. 河伯于庭前水. 化为鲤. 随浪而游. 王化为獭而捕之. 河伯又化为鹿而走. 王化为豺逐之. 河伯化为雉. 王化为鹰击之. 河伯以为诚是天帝之子. 以礼成婚, 恐王无将女之心. 张乐置酒. 劝王大醉, 与女人于小革輿中. 载以龙车. 欲令升天, 其车未出水. 王即酒醒. 取女黄金钗 刺革輿. 从孔独出升天. ○河伯大怒. 其女曰. 汝不从我训. 终欲我门. 令左右绞挽女口. 其唇吻长三尺. 唯与奴婢二人. 贬于优渤水中. 优渤泽名. 今在太伯山南. ○渔师强力扶邹告曰. 近有盗梁中鱼而将去者. 未知何兽也. 王乃使鱼师以网引之. 其网破裂. 更造铁网引之. 始得一女. 坐石而出. 其女唇长不能言. 令三截其唇乃言. ○王知天帝子妃. 以别宫置之. 其女怀中日曜. 因以有娠. 神雀四年癸亥岁夏四月. 生朱蒙, 啼声甚伟. 骨表英奇. 初生左腋生一卵. 大如五升许. 王怪之曰. 人生鸟卵. 可为不祥. 使人置之马牧. 群马不践. 弃於深山. 百兽皆护. 云阴之日. 卵上恒有日光. 王取卵送母养之. 卵终乃开得一男. 生未经月. 言语并实. ○谓母曰. 群蝇嚼目. 不能睡. 母为我作弓矢. 其母以革作弓矢与之. 自射纺车上蝇. 发矢即中. 扶余谓善射曰朱蒙. ○年至长大. 才能并备. 金蛙有子七人. 常共朱蒙游猎. 王子及从者四十余人. 唯获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乃执朱蒙缚树. 夺鹿而去. 朱蒙拔树而去. 太子带素言於王曰. 朱蒙者. 神勇之士. 瞻视非常. 若不早图. 必有后患. ○王使朱蒙牧马. 欲试其意. 朱蒙内自怀恨. 谓母曰. 我是天帝之孙. 为人牧马. 生不如死. 欲往南土造国家. 母在不敢自专. 其母云云.

○其母曰. 此吾之所以日夜腐心也. 吾闻土之涉长途者. 须凭骏足, 吾能择马矣. 遂往马牧. 即以长鞭乱捷. 群马皆惊走. 一驃马跳过二丈之栏. 朱蒙知马骏逸. 潜以针捷马舌根. 具马舌痛. 不食水草. 甚瘦悴. 王巡行马牧. 见群马悉肥大喜, 仍以瘦赐朱蒙. 朱蒙得之. 拔其针加喂云.

○乌伊. 摩离. 陝父等三人. ○(南行至淹滞)一名盖斯水. 在今鸭绿东北. ○欲渡无舟. 恐追兵奄及. 乃以策指天. 慨然叹曰. 我天帝之孙. 河伯之甥. 今避难至此. 黄天后土. 怜我孤子. 速致舟桥. 言讫. 以弓打水. 鱼鳖浮出成桥. 朱蒙乃得渡. 良久追兵至. ○追兵至河. 鱼鳖桥即灭. 已上桥者. 皆没死. ○朱蒙临别. 不忍睽违. 其母曰. 汝勿以一母为念. 乃里五谷种以送之. 朱蒙自切生别之心. 忘其麦子. 朱蒙息大树之下. 有双鸠来集. 朱蒙曰. 应是神母使送麦子. 乃引弓射之. 一矢俱举. 开喉得麦子. 以水喷鸠. 更苏而飞去云云. ○王白坐弗萝之上. 略定君臣之位. ○沸流王松让出猎. 见王容貌非常. 引而与坐曰. 僻在海隅. 未曾

得见君子。今日邂逅。何其幸乎。君是何人。从何而至。王曰。寡人。天帝之孙。西国之王也。敢问君王继谁之后。让曰。予是仙人之后。累世为王。今地方至小。不可分为两王。君造国日浅。为我附庸可乎。王曰。寡人。继天之后。今主非神之胄。强号为王。若不归我。天必殛之。松让以王累称天孙。内自怀疑。欲试其才。乃曰愿与王射矣。以画鹿置百步内射之。其矢不入鹿脐。犹如倒手。王使人以玉指环。于百步之外射之。破如瓦解。松让大惊云云。○王曰。以国业新造。未有鼓角威仪。沸流使者往来。我不能以王礼迎送。所以轻我也。从臣扶芬奴进曰。臣为大王取沸流鼓角。王曰。他国藏物。汝何取乎。对曰。此天之与物。何为不取乎。夫大王困于扶余。谁谓大王能至于此。今大王奋身于万死之危。扬名于辽左。此天帝命而为之。何事不成。于是扶芬奴等三人。往沸流取鼓而来。沸流王遣使告曰云云。王恐来观鼓角。色暗如故。松让不敢争而去。○松让欲以立都。先后为附庸。王造宫室。以朽木为柱。故如千岁。松让来见。竟不敢争立都先○西水获白鹿。倒悬於蟹原。咒曰。天若不雨而漂没沸流王都者。我固不汝放矣。欲免斯难。汝能诉天。其鹿哀鸣。声彻于天。霖雨七日。漂没松让都。王以苇索横流。乘鸭马。百姓皆执其索。朱蒙以鞭画水。水即减。六月松让举国来降云云。○七月。玄云起鹞岭。人不见其山。唯闻数千人声以起土功。王曰。天为我筑城。七日。云雾自散。城郭宫台自然成。王拜皇天就居。○秋九月。王升天不下。时年四十。太子以所遗玉鞭。葬于龙山云云。○类利少有奇节云云。少以弹雀为业。见一妇戴水盆。弹破之。其女怒而詈曰。无父之儿。弹破我盆。类利大惭。以泥丸弹之。寒盆孔如故。归家问母曰。我父是谁。母以类利年少。戏之曰。汝无定父。类利泣曰。人无定父。将何面目见人乎。遂欲自刎。母大惊止之曰。前言戏耳。汝父是天帝孙。河伯甥。怨为扶余之臣。逃往南土。始造国家。汝往见之乎。对曰。父为人君。子为人臣。吾虽不才。岂不愧乎。母曰。汝父去时有遗言。吾有藏物七岭七谷石上之松。能得此者。乃我之子也。类利自往山谷。搜求不得。疲倦而还。类利闻堂柱有悲声。其柱乃石上之松木。体有七棱。类利自解之曰。七岭七谷者。七棱也。石上松者。柱也。起而就视之。柱上有孔。得毁剑一片。大喜。前汉鸿嘉四年夏四月。奔高句丽。以剑一片。奉之于王。王出所有毁剑一片合之。血出连为一剑。王谓类利曰。汝实我子。有何神圣乎。类利应声。身耸空。乘牖中日。示其神圣之异。王大悦。立为太子。

史料-5：《三国遗事》高句丽

高句丽 即卒本扶余也 或云今和州 又成州等 皆误矣 卒本州在辽东界 国史高丽本记云 始祖东明圣帝姓言(高)氏 讳朱蒙 先是 北扶余王解夫娄 既

避地于东扶余 及夫娄薨 金蛙嗣位 于时得一女子于太伯山南优渤水 问之云我是河伯之女 名柳花 与诸弟出游 时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诱我于熊神山下 鸭绿边室中知(私)之 而往不返[坛君记云 君与西河河伯之女要亲 有产子名曰夫娄 今按此记 则解慕漱私河伯之女 而后产朱蒙 坛君记云 产子名曰夫娄 夫娄与朱蒙异母兄弟也]父母责我无媒而从人 遂谪居于此 金蛙异之 幽闭於室中 为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五升许 王弃之与犬猪 皆不食 又弃之路 牛马避之 弃之野 鸟兽覆之 王欲剖之 而不能破 乃还其母 母以物里之置於暖处 有一儿破壳而出 骨表英奇 年甫七岁 歧嶷异常 自作弓久 白发百中 国俗谓善射为朱蒙 故以名焉 金蛙有七子 常与朱蒙游戏 技能莫及 长子带素言于王曰 朱蒙非人所生若不平图 恐有后患 王不听 使之养马 朱蒙知其骏者 减食令瘦 驽者善养令肥 王自乘肥 瘦者给蒙 王之诸子与诸臣将谋害之 蒙母知之 告曰 国人将害汝 以汝才略 何往不可 宜速图之 于是蒙与乌伊等三人为友 行至淹水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孙 今日逃遁 追者垂及奈何 于是鱼鳖成桥 得渡而桥解 追骑不得渡 至卒本州[玄菟郡之界]遂都焉 未皇作宫室 但结庐于沸流水上居之 国号高句丽 因以高为氏[本姓解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日光而生 故自以高为氏] 时年十二岁 汉孝元帝建昭二年甲申岁 即位称王 高丽全盛之日 二十一万五百八户 珠琳传第二十一卷载 昔宁稟离王侍姆有娠 相者占之曰 贵而当王 王曰 非我之胤也 当杀之 婢曰 气从天来 故我有娠 及子之产 谓为不祥 捐圈则猪嘘 弃栏则马乳 而得不死 卒为扶余之王[即东明帝为卒本扶余王之谓也 此卒本扶余 亦是北扶余之别都 故云扶余王也 宁稟离 乃夫娄王之异称也]

史料-6 : 【三国遗事】东扶余

北扶余王解夫娄之相阿兰弗 梦 天帝降而谓曰 将使吾子孙 立国于此 汝其避之[东明将兴之兆也] 东海之滨 有地名迦叶原 土壤膏腴 宜立王都 阿兰弗劝王 移都于彼 国号东扶余 夫娄老无子 一日祭山川求嗣 所乘马至赬渊 见大石 相对侠(泪)流 王怪之 使人转其石 有小儿 金色蛙形 王喜曰 此乃天贶我令胤乎 乃收而养之 名曰金蛙 及其长 为太子 夫娄薨 金蛙嗣位为王 次传位于太子带素 至地皇三年壬午 高丽王无恤伐之 杀王带素 国除

史料-7 : 【三国遗事】北扶余

古记云 前汉书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讫升骨城 乘五龙车 立都称王 国号北扶余 自称名解慕漱 生子名扶娄 以解为氏焉 王后因上帝之命 移都于东扶余 东明帝继北扶余而兴 立都于卒本州 为卒本扶余 即高句丽之始祖

02

关于高句丽建国初期 王都的探讨

梁志龙 (辽宁省本溪博物馆)

关于高句丽建国初期王都的探讨

- 以卒本和纥升骨城为中心 -

梁志龙 (辽宁省本溪博物馆)

〈目次〉

- 一. 卒本在哪
- 二. 卒本故事
- 三. 纥升骨城

公元前37年，高句丽建国。初期王都在哪？过去多认为是纥升骨城，也就是现在的辽宁省桓仁县五女山山城。近年，许多学者趋向“双城说”，即高句丽建国初期同时存在两个王都，一个在平地上，一个在山上，平地城和山城的相互结合，构成了高句丽建国初期复合式王都的特殊格局。

高句丽的建国，无疑挑战了汉朝在辽东及朝鲜半岛北部实施的郡县体制，挑战了周边部落累世相因的固有秩序，政权创建伊始，肯定面临着多方的政治压力和可能的军事打击。由此分析，在平地王都之外，另建一座更具防御能力的山上王都，是从实际出发的必要之举。因此“双城”之说符合历史实情，可信。

一般认为“双城”的名称分别为卒本和纥升骨城，但在关于“双城”当今何地的考释中，却存在分歧。第一，认为纥升骨城即今五女山山城，卒本即今桓仁县下古城子城址¹⁾。第二，认为纥升骨城即今五女山山城，卒本为桓仁县富尔江入浑江口处附近的喇哈城址²⁾。第三，认为纥升骨城即今下古城子城址，而卒本则泛指桓仁县城附近的平原³⁾。历史文献记载的含混及对文献理解角度的不同，是造成分歧的主要原因。

本文根据相关文献的释读及对考古成果的应用，试对高句丽初期的两个王都再行探讨，不当之处，祈盼教正。

1) a 李殿福、孙玉良：《高句丽的都城》，《博物馆研究》1990年1期..

b 王绵厚：《高句丽古城研究》，文物出版社，2002年。

2) a 田中俊明：《高句丽前期王都卒本的营造》，中译文载《东北亚考古资料译文集》(3)，北方文物杂志社，2001年。

b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2期。

3) 耿铁华：《高句丽纥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2期。

一. 卒本在哪

卒本，中国史籍无载，主要见于朝鲜史籍，相关名称还有卒本川、卒本州、卒本扶余等，它最初出现在高丽时期金富轼《三国史记》中。

《三国史记·高句丽本记·东明圣王》：“朱蒙乃与乌伊、摩离、陕父等三人为友，行至淹漉水，欲渡无梁。恐为追兵所迫，告水曰：‘我是天帝子，河伯外孙。今日逃走，追者垂及如何？’于是鱼鳖浮出为桥，朱蒙得渡，追骑不得渡。朱蒙行至毛屯谷，遇三人……，与之俱至卒本川，观其土壤肥美，山河险固，遂欲都焉，而未遑作宫室，但结庐于沸流水上居之。国号高句丽，因以高为氏”。

卒本川，最初应是一条河流的称谓，《说文》：“川，贯穿通流水也。”但这里的卒本川却具有“土壤肥美，山河险固”的特征，显然不是单指河流而言，还应包括这条河流两岸的山谷及平原，是一个地域名称。目前，在高句丽早期活动地的桓仁、集安、通化地区，仍有具“川”地名，如桓仁横道川、曲柳川、集安甲乙川、长川、通化大川等，这些带有“川”字地名的地方，大都有小河流过，想来卒本川亦当如此，本是一条小河的名称，后来泛指小河及其附近地区。关于沸流水，许多学者作过考证，沸流水是浑江的观点，现在普遍被大家认同。

朱蒙在卒本川立都，却在沸流水上“结庐”而居，看似矛盾的记述，恰恰提供了卒本川与沸流水的地理关系：卒本川靠近沸流水，那里流经的小河，当是沸流水的一条支流。而且，由此可知，卒本川是一个小的地理概念，它被囊括于沸流水流域的范围之内。这点，《好太王碑》有一条坚证：

“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出自北夫余，……命驾巡幸南下，路由夫余奄利大水，王临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邹牟王，为我连葭浮龟。’应声即为连葭浮龟，然后造渡，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碑中的忽本，无论从声韵上解读，还是与《三国史记》参读，显然是卒本的另一种写法。碑中的沸流谷和忽本是两个地名，但却不是并列关系，“沸流谷”置于“卒本”之前，前者地域范围显然大于后者，这是地理学的基本概念，如《史记·刺客列传》：“聂政者，轶深井里人也。”索隐：“《地理志》河内有轶县，深井，轶县之里名也。”又如《好太王碑》“自倭背追至任那加罗从拔城”，很明显，从拔城归属前置的任那加罗。如此，卒本川仅是沸流谷一隅而已，它应是一个具指地名，不是泛称。

沸流水是浑江，沸流谷当然就是浑江流经的谷地了。

多数学者认为卒本即是现今下古城子城址。

下古城子城址，位于桓仁县城西北约3公里，地处浑江西岸的平原上，东北

约10公里为五女山山城，两者同在浑江右岸。城墙夯土筑造，平面呈长方形，周长近800米，城内出土遗物“比较复杂，时代不一”，有青铜时代遗物，也有高句丽早、中期遗物，说明该城沿用时间较久⁴⁾。作为卒本的候选地，下古城子城址确实具有排位第一的先决条件。然而，当我们把五女山山城确定为高句丽建国初期建立的山上王都之后，两座城址在地理方位上，则与《好太王碑》记载不符。按照《好太王碑》“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的记载，卒本(忽本)和山上王都的位置为：山上王都在忽本之西，忽本则应在山上王都之东。然而，下古城子城址不在五女山山城的东边，而在西南，反过来，五女山山城也不在下古城子城址之西，而在东北(图一)。



(图 1) 五女山山城与下古城子城址位置示意图

《好太王碑》记载的方位应该是正确的。公元619年，是唐高祖武德二年，高句丽27代王荣留王刚刚继位，便从平壤来到卒本祭祀始祖庙。说明在那个时候，高句丽仍然知道卒本所在。《好太王碑》立于公元414年，早于荣留王卒本祭祖200余年，彼时，高句丽人对卒本位置的认识，肯定更加清楚，不会出现差错。

《好太王碑》的一个“西”字，迫使我们不得不把寻找卒本的目光离开下古城子城址，移向五女山的东边，于是有人开始注意桓仁历史上曾经存在的喇哈城。

清宣统元年(1909)版《怀仁县志》记载：“喇哈城，在(县)城东北六十里，富尔江水由此会入浑江。四围皆山，山脉伏向西南。为土岗环结，周遭约在数里。城建于此，不知何时代所筑，迄今基址犹存。城内外地势宽平，土甚厚。”

4) 李新全、梁志龙：《桓仁县下古城子高句丽城址1998年调查与试掘报告》，《五女山城》“附录”，文物出版社，2004年。

县志记载表明，喇哈城坐落在富尔江入浑江口处，在地理位置上确实居于五女山之东。根据“土岗环结”、“城外外地势宽平”等特征分析，它是一座平地上的土城。目前，由于桓仁水库蓄水，富尔江口一带已被淹没，喇哈城址的最终确定一直没有结果。多年前，我曾根据桓仁县志办公室提供的调查资料对该城予以介绍，将它视作一座石城⁵⁾，现在看来，提供的资料有误。日本学者田中俊明先生最早提出喇哈城为卒本⁶⁾。近年，桓仁地方史研究会在富尔江口附近的弯龙背村浑江水库边缘，发现一处“城址”，并进行了小规模试掘，发现一段墙基，遂将其推定为喇哈城址，并认定为卒本⁷⁾。我曾多次前往该地进行调查，发现暴露出来的石墙窄小，不似城墙，而采集的青灰色瓦片皆为民国时期遗物。将其定为高句丽城址，缺乏实物证据的支持。

富尔江口与五女山相隔12公里，其间高山重叠，古代交通多有不便，在这里寻找卒本，离开五女山山城似乎有些迂远。

卒本到底在哪？

我认为桓仁县原高丽墓子村所在的那片谷地，才是卒本。1968年浑江水库蓄水，这里已被水库淹没。

第一，高丽墓子村存在一处大规模的高句丽墓群。1956年考古工作者对桓仁水库拟淹没区进行调查，在高丽墓子村附近发现240余座高句丽墓葬，墓葬由村南山岗顶部顺山坡向下发展，一直延伸到村内平地，长达1000余米，大体呈纵行排列，由高向低渐渐增多(图二)。1958—1959年发掘了34座墓葬⁸⁾，1994年又对高山上的余存墓葬进行了发掘⁹⁾。据报告推测，墓葬年代上限可到汉晋。这是桓仁地区规模最大的一处高句丽墓地，从墓葬数量、形制、分布规律观察，墓地的形成经过了较长时间。如此大规模的墓地，相对应的便是一处较大的遗址或城址，此处遗址或城址，不会距离墓群太远，而高丽墓子村所在的平原上，应是最佳候选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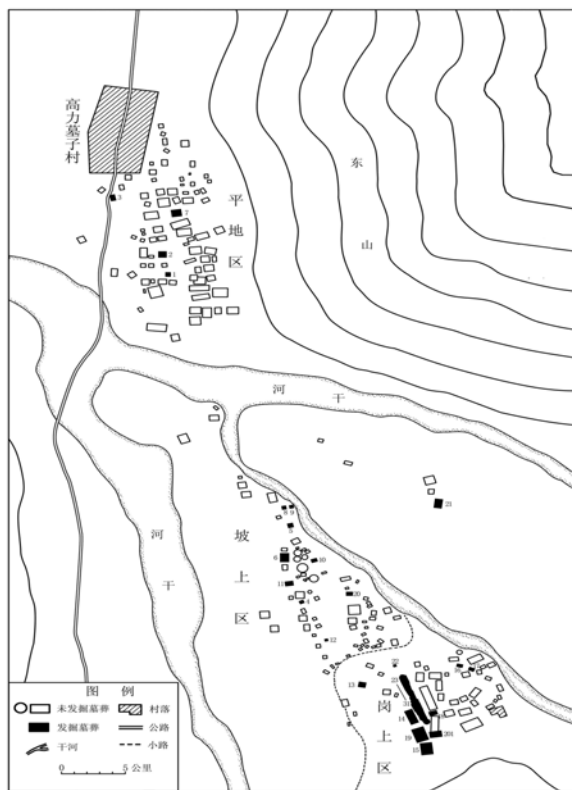
5) 梁志龙：《桓仁地区高句丽城址概述》，《博物馆研究》1992年1期。

6) 田中俊明：《高句丽前期王都卒本的营造》，中译文载《东北亚考古资料译文集》(3)，北方文物杂志社，2001年。

7)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2期。

8)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1期。

9)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等：《辽宁桓仁县高丽墓子高句丽积石墓》，《考古》1998年3期。



〔图 2〕高丽墓子墓葬分布图

墓群对应的遗址或城址，我想就是卒本。

第二，在高丽墓子附近的连江、官材梁子、马大营、小臭李崴子等地，也分布着较多的高句丽墓葬，其中连江墓地计有墓葬80余座¹⁰⁾，在浑江对面的大东沟、长岗等地，近年也有高句丽墓葬的发现，说明在高句丽时期，高丽墓子及其附近地区人烟稠密，应该存在着一个居住中心。

这个中心，应该就是卒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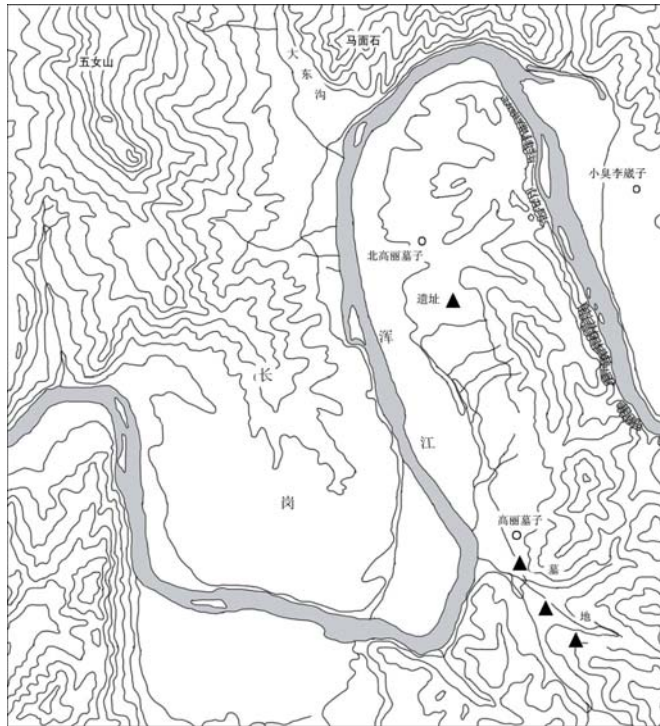
第三、依据高丽墓子墓群分布特征及墓葬规格的不同，有学者指出，大中小“三种类型的积石墓，明显的形成三个等级”，“岗顶的大型积石墓，可能是当时王室贵族的坟墓；下坡的中型积石墓，是统治阶级中身份低一些的奴隶主的坟墓；而散乱分布的小型积石墓，则可能是普通高句丽人的坟墓”¹¹⁾。墓葬等级如此明显，对应的遗址或城址肯定具有王都性质。

卒本，才是这个遗址或城址的唯一候选地。

10)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1期。

11) 杨泓：《高句丽墓葬的新发现》，《新中国的考古发现和研究》，文物出版社，1984年。

第四，高丽墓子村所在的谷地，南北狭长，位于浑江东岸，居于古代的沸流水旁，与文献记载相符。而且，五女山恰好在它的西北部，两者最近距离约2公里左右，隔江相望，与《好太王碑》记载的山上王都位于“忽本西”的方位也相符。据水库淹没前曾居于此地的村民回忆，在高丽墓子的北边，有一个渡口，对岸就是五女山下的大东沟，沿大东沟西行，有山路逶迤通向五女山顶。渡口附近有一段河水的哨口，水流较浅，春秋时节，人可涉水而渡。高丽墓子谷地东依起伏的山岗，山岗东侧皆为陡立的峭壁，浑江三面环绕，初沿东山峭壁之下北流，又西折，再南折，由高丽墓子谷地西侧流过。两岸土地，久已垦作良田。这里的自然环境与地理形胜，绝对称得上“土壤肥美，山河险固”(图三)。



(图 3) 五女山与高丽墓子谷地地理位置图

综合上述四点，卒本所指，应是高丽墓子所在的谷地。

在高丽墓子墓葬调查发掘简报中，配有《桓仁县主要遗址、墓葬分布图》，图中在约当北高丽墓子处，标注有一个遗址，南距高丽墓子墓群约3公里¹²⁾，这个遗址，极有可能就是卒本。

12)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1期。

二. 卒本故事

卒本，是高句丽最初建国的地方，也是高句丽初期平原上的王都，它与山上王都相比，自然条件优越，适宜活动，应是王公大臣们日常起居之处，有关家国大事的商讨与决断，除却特例者外，大都发生于此。

一般都城的选定，需要考虑地理环境，但人文环境也很重要。把都城设于没有人烟的不毛之地，几乎是不可想象的一件事情。

朱蒙选定卒本立都的人文环境，就是卒本扶余。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东明圣王》：“一云朱蒙至卒本扶余，王无子，见朱蒙，知非常人，以其女妻之。王薨，朱蒙嗣位。”同书《百济本纪·温祚王》：“或云，朱蒙到卒本，娶越郡女，生二子。”又，“一云始祖沸流王，其父优台，北扶余王解扶娄庶孙。母召西奴，卒本人延陲勃之女，始归于优台，生子二人，长曰沸流，次曰温祚。优台死，寡居于卒本。后朱蒙不容于扶余，以前汉建昭二年春二月，南奔至卒本，立都，号高句丽。娶召西奴为妃，其于开基创业，颇有内助。”

这三条史料，都是正文下的自注，应是金富轼编纂《三国史记》时收集到的关于朱蒙在卒本建国的不同“版本”。三条史料同时告诉我们，朱蒙来到卒本之前，此地已经有人居住，似乎已经形成一个小小的方国，即卒本扶余。那个召西奴的父亲延陲勃，可能就是朱蒙初来时的卒本扶余王。

《三国遗事·北扶余》曾说：“古记云：东明(朱蒙)帝继北扶余而兴，立都于卒本州，为卒本扶余，即高句丽之始祖。”同书《高句丽》又说“东明帝为卒本扶余王”。

有学者据上推论，朱蒙建国之初，国号沿袭着卒本扶余，不称高句丽¹³⁾，具有一定道理。

《三国史记》说朱蒙来到卒本川“遂欲都焉”，这个“欲”字，是希望的意思，似乎朱蒙在此定都，仅仅是一种打算。然而再读下文“未遑作宫室”一句，表明王都已定，只是没有闲暇时间建筑宫室罢了。在同一本书里的《百济本纪·温祚王》中，对朱蒙立都卒本却给予了肯定记载：“南奔至卒本，立都，号高句丽。”《三国遗事》作者已经发现了这个问题，他在记述这段历史时，尽管大多文字抄自《三国史记》，但却不见“欲”字：“至卒本州，遂都焉，国号高句丽，因以高为氏。”

显然，《三国史记》中的“欲”字是一个衍文，应删。

朱蒙建国，借助了卒本扶余的力量。但其统治阶层的构成，则是多方人物的聚合。一方面，是跟随朱蒙由北扶余逃难而来的同行者，《魏书》记为二人，即

13) 孙进己、王绵厚主编：《东北历史地理》第一卷，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

乌引、乌违,《三国史记》记为三人,即乌伊、摩离、陕父,其实,这应是一个群体,《冉牟墓志》作者牟头娄曾说“奴客祖先于□□北夫余随圣王来”,可见跟随朱蒙来到卒本的还有牟头娄的祖先。另一方面,是朱蒙沿途收纳的土著部落首领,《三国史记》记载朱蒙“行至毛屯谷,遇三人,其一人着麻衣,一人着衲衣,一人着水藻衣”,朱蒙称其为“三贤”,并分别赐姓,“遂揆其能,各任以事”。再有,则是卒本扶余的旧民,妃子召西奴对于朱蒙“开基创业,颇有内助”,功不可没。此外,朱蒙六年(前32)曾命乌伊和扶芬奴“伐太白山南苻人国”,十年(前28)又“命扶尉狷伐北沃沮”,扶芬奴、扶尉狷名字前边的“扶”字,和卒本扶余不无关系。朱蒙二年,沸流国来降,国王松让既被封为“多勿侯”,其中一部分王公贵族,也当进入高句丽统治阶层。大武神王十五年(32),沸流部长仇都、逸苟、焚求三人为非作歹,欺压百姓,大武神王本“欲杀之”,但考虑三人是“东明旧臣”,故“黜退而已”。仇都、逸苟、焚求,亦为朱蒙臣属。朱蒙建国,政权草创,曾在卒本举行过开国仪式。

朝鲜李奎报《东明王篇》注引《旧三国史》：“王自坐蒹藜之上，略定君臣之位。”蒹藜之“蒹”，当是“茅”字形讹，二字其上均从“艹”，其下弗、矛，形近而误。茅藜，是古人用来标志尊卑地位的标识物。《国语·晋语八》：“昔成王盟诸侯于岐阳，楚为荆蛮，置茅藜，设望表，与鲜卑守燎，故不与盟。”韦昭注：“藜，谓束茅而立之。”《说文》：“朝会束茅表位曰藜。”在朱蒙的开国仪式上，是否真的设置茅藜，不得而知，但可以肯定，那个草率的仪式，简单而带有许多原始色彩。

随着高句丽势力的逐步发展，“结庐而居”的历史宣告结束。《三国史记》记载朱蒙六年(前32)“神雀集宫廷”，十年(前28)“鸾集于王台”，琉璃明王二年(前18)“神雀集王廷”，宫廷、王台、王廷，表明卒本后来建有宫室及其附属建筑。

朱蒙去世之前，远在北扶余的长子类利，南奔而来，父子见面的地点，就是卒本。而类利被立为太子、继承王位的地点，也在卒本。

《三国史记·高句丽本纪·琉璃明王》：“与屋智、句邹、都祖等三人，行至卒本，见父王，以断剑奉之。王出己所有断剑合之，连为一剑。王悦之，立为太子，至是继位。”

朱蒙葬地，也在卒本附近。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东明圣王》：“十九年秋九月，王升遐，时年四十岁，葬龙山，号东明圣王。”《东明王篇》注引《旧三国史》：“秋九月，王升天不下，时年四十。太子以所遗玉鞭，葬于龙山。”《好太王碑》则谓朱蒙葬地为忽本东岗：“不乐世位，天遣黄龙来下迎王，王于忽本东岗，履龙首升天”。

或许在高句丽的传说中，朱蒙是天帝之子，说他死亡是一种忌讳，于是把他的死亡说成是“履龙首升天”，又因这个缘故，后人把他的葬地叫作了龙山。《好太王碑》“忽本东岗”，无疑是朱蒙葬地最为切实的记录。依据上节考证，卒

本即今桓仁水库淹没区内的高丽墓子一带，卒本东岗，应该是高丽墓子东边的山岗。我们从地图上可以看见，高丽墓子谷地的东侧，正是一条起伏的山岗，朱蒙墓，或许就在那里。

高句丽民族特别重视死亡，《三国志·高句丽传》：“男女已嫁娶，便稍作送终之衣。厚葬，金银财币，尽于送死。”集安等地的高句丽王陵，占地广大，规模宏伟，绝非一朝一夕筑就。好太王陵出土铜铃上刻有“辛卯年好太王陵造铃”字样¹⁴⁾，据考证，辛卯年为公元391年，好太王刚刚继位。由此分析，高句丽国王登基之时，便已开始了自家陵墓的建设。《好太王碑》又云：“国冈上广开土境好太王存时教言：……吾虑旧民转当羸劣，若吾万年之后，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来韩秽，令备洒扫。”这也是高句丽王生前筑墓的证明。如此，朱蒙墓地的筑造，当在执政期间就已实施。为何选择“忽本东岗”作为自己的葬地？我们推测可能和朱蒙平时居于卒本，故而熟悉那里的山川形胜有关。朱蒙葬于忽本东岗，是否逝于卒本，值得考虑。公元3年，琉璃明王迁都后，太子解明仍在“古都”掌政，“古都”所指，恐怕也是卒本。

卒本是高句丽创国之地，也是第一代王朱蒙的王宫所在，朱蒙死后，又葬其附近，迁都后，这里当被逐步神化起来，始祖庙的建立，使这种色彩愈加彰显。

《三国史记·高句丽本纪·大武神王》：“三年(公元20年)春三月，立东明王庙”。东明即朱蒙，亦即高句丽始祖。大武神王在哪里建立了东明王庙？《三国史记》没有明确记载，但其后记载祭祀始祖庙的国王们，前往的地点都是卒本。大武神王创立的东明王庙，应该就是卒本的始祖庙。

此外，这里还应有夫余女神庙，即传说的朱蒙之母庙。

《北史·高句丽传》说：“有神庙二所：一曰夫余神，刻木作妇人像；一曰高登神，云是其始祖、夫余神之子。并置官司，遣人守护。盖河伯女、朱蒙云。”

两座神庙在哪？《北史》也没有直说，当时高句丽“都平壤城”，照常理推测，国庙设在平壤才对。然而《三国史记》中的高句丽安臧、平原、荣留三王卒本祭祖，都由平壤而来，于是我们有理由相信，《北史》记载的两座神庙，就是卒本的神庙。

关于高句丽国王卒本祭祖的相关情况，制表如下。

14) a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集安高句丽王陵》，文物出版社，2004年。

b 张福有等：《朱蒙所葬之“龙山”及太王陵铜铃“峻”字考》，《东北史地》2

王序	王号	时间	《三国史记》记载	都城
8	新大王	三年(167)	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冬十月,王至自卒本。	国内
9	故国川王	二年(180)	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国内
11	东川王	二年(228)	春二月,王如卒本,祀始祖庙,大赦。	国内
12	中川王	十三年(260)	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国内
16	故国原王	二年(332)	春二月,王如卒本,祀始祖庙。巡问百姓老病,赈给。三月,至自卒本。	国内
22	安臧王	三年(521)	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庙。五月,王至自卒本,所经州邑贫乏者,赐谷人一斛。	平壤
25	平原王	二年(560)	春二月,王幸卒本,祀始祖庙。三月,王至自卒本,所经州郡狱囚,除二死皆原之。	平壤
27	荣留王	二年(619)	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庙。五月,王至自卒本。”	平壤

通过上表我们了解到,除特例外,高句丽王前往卒本祭祖的时间,一般都在继位后的第二或第三年。“国之大事,在祀与戎”,可见对始祖的祭祀,是新任国王登基后的首要事项之一。自新大王开始,至荣留王结束,共有8代国王前往卒本祭祀始祖,时间跨度452年。

始祖庙,是高句丽王朝的国庙,祭祀当由国家掌管。

我们推测,初期王都的卒本应该是一座城址。为了迎候祭祖的国王们的到来,城内及其附近地区,应该陆续建有行宫之类的建筑。城址的续修和完缮,也应该是经常之事。

上个世纪50年代考古调查,没有在高丽墓子及其附近发现城址,我们的解释只有一个:是时代的疏忽造成了这个遗憾。

三. 纥升骨城

纥升骨城是高句丽建于山上的王都,它最早出现在北齐魏收《魏书·高句丽传》:“朱蒙遂至普述水,遇见三人,其一人著麻衣,一人著纳衣,一人著水藻衣,与朱蒙至纥升骨城,遂居焉,号曰高句丽,因以为氏焉。”《周书》、《北史》等沿袭《魏书》之说,同样记载朱蒙建国于纥升骨城。但《周书·高丽传》则云朱蒙“土于纥斗骨城,自号曰高句丽。”“土”,我曾说过它是“王”字传抄或蠹蚀之误¹⁵⁾。“斗”,显然是“升”字形讹。

纥升骨城，是高句丽建国后第四年修筑的山上王都，引证和分析《三国史记》、《旧三国史》，可以寻到相应的答案。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东明圣王》：“三年春三月，黄龙见于鹞岭。秋七月，庆云见鹞岭南，其色青赤。四年夏四月，云雾四起，人不辨色七日。秋七月，营作城郭宫室。”

城郭宫室建于何地？依然没有明说。建城头一年，鹞岭上曾出现庆云、黄龙等奇特现象，在古人眼里，这是吉瑞之兆。庆云，亦称卿云等，《史记·天官书》：“若烟非烟，若云非云，郁郁纷纷，萧索轮囷，是为卿云。卿云，喜气也。”黄龙，是传说中的神物，汉司马相如《封禅文》：“宛宛黄龙，兴德而升。采色炫耀，焕炳辉煌。”今日看来，所谓“黄龙”，可能就是色彩斑斓的带状云气。“吉兆”出现的第二年，高句丽开始“营作城郭宫室”。一个因，一个果，表明城郭宫室建于鹞岭之上。

《东明王篇》注引《旧三国史·东明王本纪》，也有关于此次城郭建设的记载，那城，就建在鹞岭之上：“七月，玄云起鹞岭，人不见其山，唯闻数千人声，以起土功。王曰：‘天为我筑城。’七日，云雾自散，城郭宫台自然成，王拜皇天就居。”

山名鹞岭，岭上之城，揆情度理，当然该叫作鹞城，鹞城当即纥升骨城，推论的依据主要有二：

第一，骨、鹞一声，当通。

第二，纥升骨城确实曾被写作“骨城”，《翰苑·蕃夷部·高丽》：“灵河演颢，照日影以含胎；伏鳖摘祥，叩骨城而开壤。”此言朱蒙创世神话，骨城，当是纥升骨城的简写。

如此我们明白了，《魏书》是把山上王都，当作了高句丽的建国之地。20世纪初期，日本学者白鸟库吉首先提出纥升骨城即为五女山山城观点¹⁶⁾，如今已被大家普遍接受，但也有人曾予否定¹⁷⁾。近年，有人再次提出新的看法，认为纥升骨城不是五女山山城，而是高句丽初期建于平原上的王城，即今下古城子城址¹⁸⁾。对此，我们仍然坚持旧说。

纥升骨城就是五女山山城观点，证据比较充分。

第一，《好太王碑》“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的记载，明确告诉我们，这个王都是一座山城。依上考证，高句丽初期有两座王都，一是卒本，

15) 梁志龙：《哥勿考辨》，《辽海文物学刊》1994年2期。

16) 参见东潮、田中俊明：《高句丽的历史と遗迹》，中央公论社，1995年。

17) 王建群：《玄菟郡的西迁和高句丽的发展》，《社会科学战线》1987年2期。

18) 耿铁华：《高句丽纥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2期。

二是纥升骨城，城于山上的王都位于忽本之西，显然不是卒本。《好太王碑》此处的“城”字，名词动用，意即筑城、建城，古代文献不乏其例，如《诗·小雅·出车》：“天子命我，城彼朔方。”《明史·太祖本纪》：洪武二十年，“是月(九月)，城西宁。”

第二，五女山的读音，和鹞岭有关。历史上的回鹘，曾称“畏吾尔”，蒙古，也称“蒙兀儿”，鹞、古一声，当通，“吾尔”、“兀儿”，应是“鹞”或“古”的音变。“五女”与“吾尔”、“兀儿”读音相近，音源于“鹞”的可能性极大。准此，五女山的名称，应由鹞岭演变而来。

我们从史料上可以看出，两座都城在中朝相关史籍中互不相见。

《魏书》以降，中国史籍几乎众口一词，都把纥升骨城作为高句丽建国之地，这一现象的发生，与后来史家照抄《魏书》不无关系，而朝鲜史籍则习惯把卒本作为高句丽的建国之地。两者互异现象，表明资料来源不同。《魏书》资料来源，当与北朝与高句丽双方互通的使者有关。北魏太武帝时，曾派员外散骑侍郎李敖前往高句丽拜封长寿王，“敖至其所居平壤城，访其方事”，这些方事，大抵口传，后来可能被《魏书》采用。《三国史记》资料来源，按金富轼所说应是《古记》，所谓《古记》，当是《旧三国史》。由于《三国史记》存在较多舛错，某些记事的真实性便遭到了怀疑。但关于朱蒙创国的记述，却有两点已得到《好太王碑》证实。其一，朱蒙“一云邹牟”，碑文正作“邹牟王”¹⁹⁾。其二，卒本，碑文作“忽本”，音虽有小异，但两者通。因此《三国史记》关于卒本记载的真实性，无可怀疑。

金富轼也曾将纥升骨城作为高句丽的立国都城，《三国史记·地理志》：“自朱蒙立都纥升骨城，历四十年。孺留王二十二年，移都国内城。”王都名称的指代，一改前说，本纪里常见的卒本，此处却变作了纥升骨城。但将该段文字前后通读之后，疑虑便会冰释。此段文字前，金富轼曾对卒本、纥升骨城进行了考证：“按《通典》云：‘朱蒙以汉建昭二年自北夫余东南行，渡普述水，至纥升骨城居焉，号高句丽，以高为氏。’《古记》云：‘朱蒙自夫余逃难至卒本。’则纥升骨城、卒本似一处也。”进而推论这个王都可能是《汉书·地理志》中的“玄菟属县高句丽”。金富轼笔下王都概念的转换，原是对中国史籍王都称谓的移用，这部史籍，应该是金氏读到的《通典》。

多人曾经提出，纥升骨城在朱蒙来到之前就已经存在，不然，《魏书》只说“至纥升骨”便可，何必多了个“城”字²⁰⁾？我的解释是，朱蒙到来之前，纥升骨城并不存在。《魏书》的作者，是拿后来的城名代替了早时的地名，这点，我

19) 参见林沄：《夫余史地再探讨》，《北方文物》1999年4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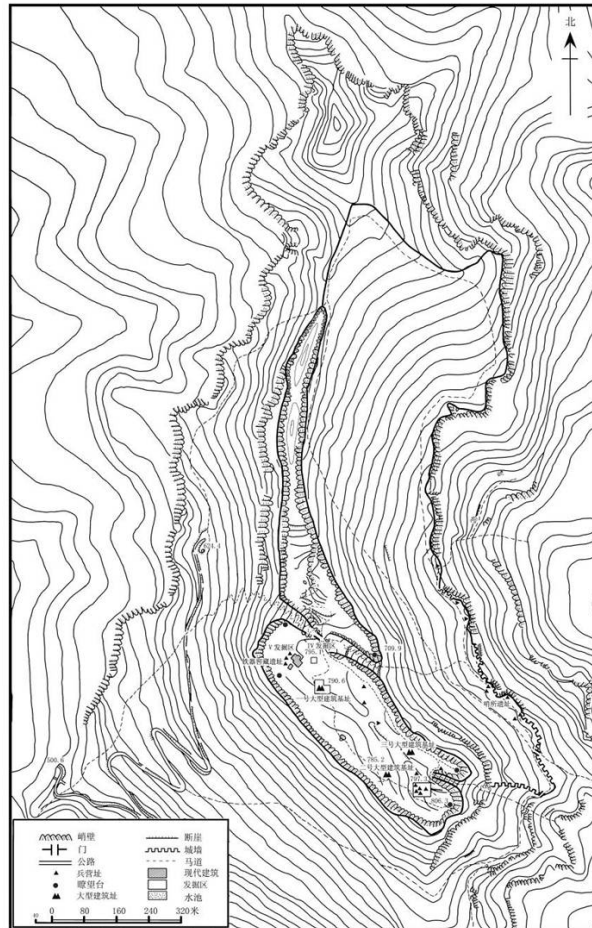
20) a 魏存成：《高句丽考古》，吉林大学出版社，1994年。

b 耿铁华：《高句丽纥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2期。

们完全可以理解。如果坚持纥升骨城久已存在的话，那么，我们质疑的就不仅仅是《旧三国史》、《三国史记》，同时还要质疑《好太王碑》。

现在，我们再来看看五女山山城考古发现中的证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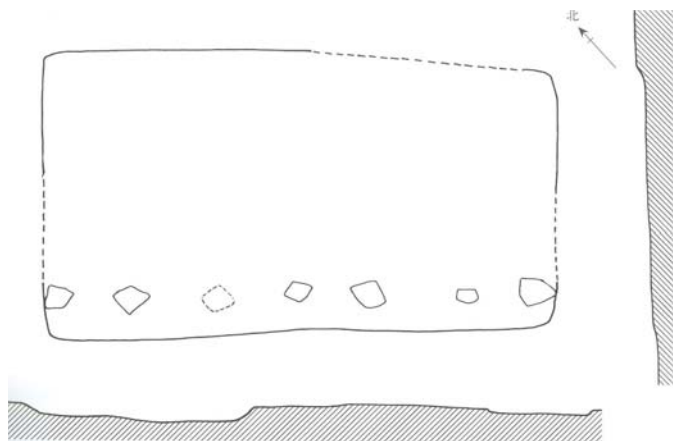
五女山山城，位于桓仁县城东北8.5公里的五女山上，海拔高度806.32米。平面呈不规则长方形，周长4754米。城墙分天然墙与人工墙两种，天然墙长4189米，几占城墙长度的88%，人工墙分段筑造，总长仅有565米。通过发掘，城内发现五个时期的文化遗存，其中三期文化年代大体在西汉和东汉之交，为高句丽建国前后的遗存，四期文化年代约当5世纪前后，为高句丽中期遗存。主要遗迹有蓄水池、了望台及1、2、3号大型建筑址、兵营遗址等(图四)²¹⁾。



(图 4) 五女山山城平面图

21)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五女山城》，文物出版社，2004年。

五女山山城1号大型建筑址，为第三期文化遗迹，系地面柱础式建筑，前存6块柱础石，平面呈长方形，规模较大，长13.8、宽7.2米(图五)，这座“大房子”，显然不为平民住宅，可能和高句丽早期宫室有关，其内出有王莽时期“大泉五十”铜钱，说明高句丽迁都后，建筑址仍被沿用。本期最具特征的器物是陶竖耳罐，器形一般为折沿，方唇，束颈，平底，颈部常常对置竖桥状耳或横桥状耳。目前，在调查和已经发掘过的其它高句丽早期山城中，都不见该类遗存，说明高句丽建国前后，只有五女山上得到了开发。这个开发项目，应和山上王都建设有关。



(图 5) 五女山山城1号大型建筑址平、剖面图

本期遗迹分布较少，主要位于Ⅱ区和Ⅳ区，反映出这一阶段高句丽在山上的活动不甚频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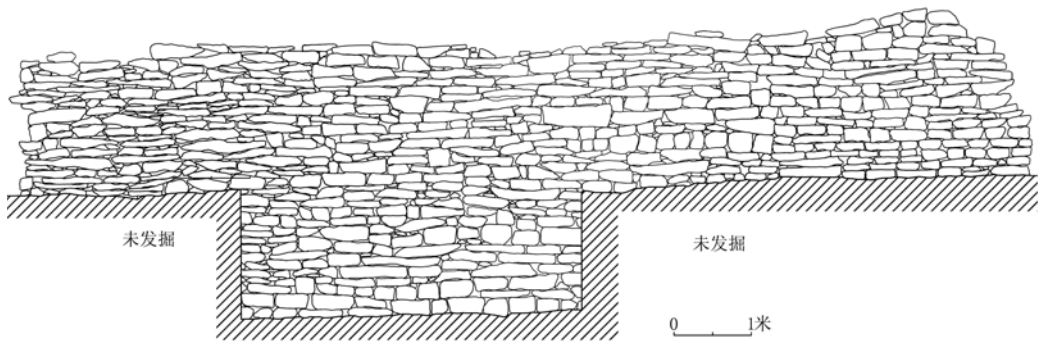
由于山高路险等特殊的地理环境，五女山山城不可能成为高句丽国王日常主政的地方，它应是平地王都之外的防御都城，战而不利之时，王公大臣可能退守于此。城内虽有宫室建筑，但利用率不会很高。《周书·高丽传》云：“治平壤城。其城东西六里，南临溟水。城内唯积仓储器备寇，贼至日，方入固守，王则别为宅于其侧，不常居之。”五女山山城也当如此，山上三期文化较少的原因，正是国王“不常居之”的真实反映。

纥升骨城是高句丽建造最早的山城，城墙的构筑形态应该具有较多的原始性，五女山山城恰是如此。

五女山山城东墙南段是较为连贯的人工石墙，外壁基础多铺筑大石条，其上叠筑楔形石(图六、七)，内壁多为石块和石板垒筑，不见楔形石(图八、九)。其它高句丽早期山城石墙，无论是内壁，还是外壁，均以加工规整的楔形石层层叠筑。两者比较，后者在建筑技术上前进了一大步。



〔图 7〕五女山山城东墙外壁



〔图 8〕五女山山城东墙内壁局部立面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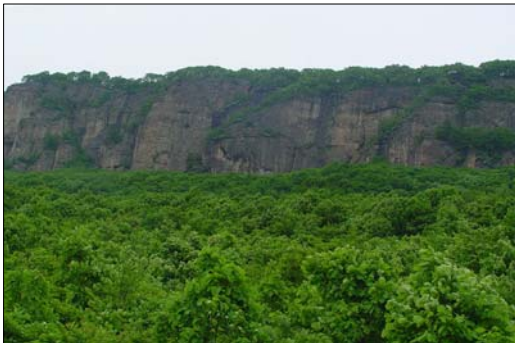


〔图 9〕五女山山城东墙内壁

墙体壁面均以楔形石构筑的高句丽山城，墙内构筑也很讲究，不是随意以碎石填充，而是以一端或两端为尖状或圆弧状的长条石精心构筑。用来砌筑墙体壁面的楔形石，平面多呈三角形，宽面朝外，尖部向内，平砌之后，外表看起来石头与石头紧密相挨，而内里却留下了空隙，于是用来砌筑墙芯的长条石的尖端，恰好插入这个空隙之中，随着楔形石一层层的压缝平砌，墙内的长条石也就自然的叠压起来。这种石筑技术，保证了城墙的牢固和稳定，非常符合力学原理。但五女山山城城墙内外壁面基部的大石条及石块和石板，砌筑后却无法留下放置长条石的空隙，因此壁面与墙芯很难咬合在一起，容易形成“两层皮”现象。技术上的不成熟，表明五女山山城建筑时间早于其它高句丽山城。

根据文献记载，纥升骨城是高句丽最早建筑的山城。

五女山山城直接利用峭壁为墙的段落极多，其中南墙西段、西墙、北墙，几乎均为自然峭壁或陡崖，有的地段高逾百米，如石壁矗立(图十)。《旧三国史》关于在鹞岭上筑城的几句话值得注意，一是“天为我筑城”，二是“城郭宫台自然成”，所谓“天筑”，所谓“自然成”，强调的应是山上王都的自然形胜。五女山山城的外貌形态，远望恰如一座天然城堡²²⁾(图十一)，与《旧三国史》的记载吻合。无独有偶，明万历二十三年(1595)，朝鲜南部主簿申忠一出使建州，路上遥望五女山，也有“天作”之城的感慨：“尼求里部落西南间，一山峯嶺，高出半天，遥望山顶，隐隐有石城，横带向西逶迤。问之，则乃也老江上，天作郁灵山城。”²³⁾郁灵山城即五女山山城。申忠一的描述，几乎是《旧三国史》的翻版。



(图 10) 五女山山城南墙中的峭壁



(图 11) 五女山山城远眺

22) 本文关于五女山山城为纥升骨城的部分推论，我们曾在《五女山城》考古报告中论及。

23) 《建州纪程图记校注》(申忠一撰、徐恒晋校注)，辽宁大学历史系，1979年。

本文余论如下：第一，高句丽建国初期就已出现王都的双城制度，由此滥觞，国内时期的王都则为国内城与丸都山城，两者相距3公里许，平壤时期的王都则为长安城与安鹤宫，两者相距700余米，由此推测卒本与纥升骨城相距也不会太远，高丽墓子谷地与五女山山城最近距离2公里左右，里距合适。第二，王都双城制度的出现和发展，与高句丽的战争观念有关，山上王都，是给国王及王室主要成员提供的战争避难之地，而平地王都，才具有真正都城的内容和实际意义，因此高句丽初期王都，应以卒本为代表。第三，我们否定下古城子城址为初期平面上的王都卒本，但不否定它是高句丽早期修筑的城址。《三国史记·高句丽本纪·琉璃明王》：“三年(前17年)，秋七月，作离宫于鹞川。”鹞川与鹞岭是相互对应的两个地名，鹞川，应是鹞岭之下的平川地带，亦即现今五女山下的桓仁县城及其附近。下古城子城址，或许与琉璃明王时期修筑的离宫有关。

고구려 건국 초기 왕도에 대한 연구

- 졸본과 홀슬골성을 중심으로 -

梁志龍 (요녕성본계박물관)

〈목 차〉

- I. 졸본은 어디에 있는가
- II. 졸본 고사(故事)
- III. 홀슬골성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하였다. 초기 왕도는 어디였을까? 과거에는 대다수가 홀슬골성(纒升骨城), 즉 지금의 요녕성 환인현 오녀산산성이라고 여겼다. 최근 여러 학자들은 ‘양성설(雙城說)’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 즉 고구려 건국초기 평지와 산에 왕도가 동시에 두 개 존재하여, 평지성과 산성이 상호 결합한 혼합식 왕도라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은 두말 할 것 없이, 한(漢) 나라가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서 실시한 군현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또한 주변 부락이 누대에 걸쳐 따라온 고유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정권 창립 초기부터 분명히 다방면의 정치적 압력과 군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로 볼 때, 평지의 왕도 이외에 방어능력이 보다 뛰어난 산 상 왕도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조치로 분석된다. 따라서 ‘양성’ 설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성’의 명칭은 각각 졸본(卒本)과 홀슬골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양성이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고증 부분에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첫째는 홀슬골성이 지금의 오녀산산성이고 졸본은 환인현 하고성자성지라는 것이다.¹⁾ 둘째는 홀슬골성이 지금의 오녀산산성이며 졸본은 부이강이 혼강에 합류하는 어귀 부근에 위치한 환인현의 나합성지라는 것이다.²⁾ 셋째는 홀슬골성은 지금의 하고성자성지이고 졸본은 환인현성 부근의 평원을 총괄하여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이다.³⁾ 문헌 기재의 모호성 및 문

1) a 李殿福、孙玉良：《高句丽的都城》，《博物馆研究》1990年 1期。
b 王绵厚：《高句丽古城研究》，文物出版社，2002年。

2) a 田中俊明：《高句丽前期王都卒本的营造》，中译文载《东北亚考古资料译文集》(3)，北方文物杂志社，2001年。

b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 2期。

3) 耿铁华：《高句丽纒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 2期。

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이러한 견해차의 주요 원인이다.

본문에서는 관련 문헌들에 대한 고증과 고고학적 성과물들을 응용하여, 고구려 초기 두 개의 왕도에 대해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바란다.

I. 졸본은 어디에 있는가

졸본은 중국 문헌에는 기록이 없으며 한국의 문헌에서 주로 보인다. 관련 명칭으로는 졸본천, 졸본주, 졸본부여 등이 있으며, 고려시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가운데 가장 먼저 출현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동명성왕(東明聖王)』에는 “주몽은 이에 조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陝父) 등 3명과 벳삼아 (도망하여) 엄사수(淹漚水)에 이르러 (물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병(追兵)이 쫓아 올까하여 강물에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으로 오늘 도망하는 중에 추자가 쫓으니 어찌하랴”고 하였다. 이 때 (물 속에서) 어벌(魚鱉)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 무사히 건너자 어벌이 곧 흩어지니 뒤를 쫓는 기병이 건너오지 못하고 말았다. 주몽은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그 토양은 비미(肥美)하고 산하가 험고(險固)함을 보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려 하였는데,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단지 비류수변에 집을 짓고 거기 거하여 나라를 고구려라 하고 인하여 고(高)로써 씨를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설문(說文)』에 “내[川]는 관통하여 흐르는 물이다 (川, 貫穿通流水也)”라고 설명하듯이, 졸본천은 처음에는 당연히 하류를 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의 졸본천은 “토양이 비미(肥美)하고, 산하가 험고(險固)”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하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류 양안의 골짜기와 평원을 포함하는 지역 명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고구려 초기 활동지였던 환인, 집안, 통화지역에는 환인의 황도천(橫道川), 곡유천(曲柳川), 집안의 갑을천(甲乙川), 장천(長川), 통화의 대천(大川) 등 여전히 ‘川’ 자를 지닌 지명이 존재한다. 이들 ‘川’자를 지닌 지명의 지역들은 대부분이 작은 하류가 흐르는데, 졸본천 역시 이와 같아 원래는 작은 하류의 명칭이었으나 후에 하류 및 그 부근의 지역까지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비류수는 많은 학자들이 혼강이라고 고증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몽은 졸본천에 수도를 세우고 비류수변에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순된 기록으로 보이지만, 공고롭게도 졸본천과 비류수의 지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졸본은 비류수에서 가까우며 졸본을 통과하는 작은 하류는 비류수의 지류임에 틀림없는 점이다. 또한 졸본은 하나의 작은 지리개념으로 비류수 유역을 포괄하는 범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점은 『호태왕비(好太王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옛적 시조(始祖)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다. 북부여(北夫餘)에서 나왔으며, ……남쪽으로 순행하는 길에, 부여(夫餘)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지나게 되었다. 왕이 나루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이며, 하백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잇고 거북으로 무리를 짓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소리에 응하여 곧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 떼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을 건너 가서, 비류곡(沸流谷) 흘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비문 중의 흘본(忽本)은 음운상으로 해독을 하든 아니면 『삼국사기』와 대조하여 읽어보면, 분명히 졸본의 다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비문 중의 비류곡과 흘본은 두 개의 명칭이나 결코 병렬관계가 아니다. ‘비류곡’은 ‘졸본’ 앞에 위치하며, 전자의 지리적 범위는 분명 후자보다 크다. 이는 지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이를테면 『사기(史記)』 『刺客列傳』에 “聂政이라는 사람은 軹縣 深井里的 사람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색은(索隱)은 그것을 “『지리지(地理志)』 河内に 軹县이 있다. 深井은 軹县의 이명(里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경우와 같다. 또한 『好太王碑』의 “왜의 배후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이르니 (自倭背追至任那加罗从拔城)”에서 처럼, 종발성은 분명히 앞에 위치한 임나가라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졸본천은 단지 비류곡의 한 모퉁이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의 구체적 지명이지 총칭이 아니다.

비류수는 혼강이며, 비류곡은 당연히 혼강 유역의 골짜기이다.
많은 학자들은 졸본이 현재의 하고성자성지라고 생각한다.

하고성자성지는 환인현성 서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혼강 서안(西岸)의 평원에 위치한 지점으로, 동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오녀산산성이 있어, 둘 다 혼강의 오른쪽 기슭에 같이 위치해 있다. 성벽은 향토 축조법으로 지어졌으며, 평면은 장방형이다. 둘레 길이는 거의 800미터에 가까우며, 성안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교적 복잡하고, 시대가 동일하지 않다.” 청동기 시대 유물도 있고 또한 고구려 초·중기 유물도 있어, 이 성이 오랜 시기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⁴⁾ 졸본의 후보지로서, 하고성자성지는 확실히 제일의 선결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녀산산성을 고구려 건국초기에 건립된 산상 왕도라고 여긴다면, 두 성은 지리방위에 있어 『호태왕비』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호태왕비』의 “비류곡 흘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라는 기록에 근거하면, 졸본(홀본)과 산상 왕도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즉 산상 왕도는 흘본의 서쪽에 있으며, 흘본은 산상 왕도의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고성자성지는 오녀산산성 동쪽에 있는 것

4) 李新全、梁志龙：《桓仁县下古城子高句丽城址1998年调查与试掘报告》，《五女山城》“附录”，文物出版社，2004年。

이 아니라 서남쪽에 있으며, 또한 오녀산산성 역시 하고성자성지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쪽에 있다(그림1).



(그림 1) 五女山山城与下古城子城址位置示意图

『호태왕비』에 기재된 방위는 당연히 정확한 것이다. 619년, 당고조(唐高祖) 무덕 2년(武德二年), 막 제위에 오른 고구려 27대 영유왕은 평양에서 졸본까지 건너와 시조묘에 제사를 지낸다. 이는 당시까지도 여전히 고구려가 졸본의 소재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호태왕비』는 영유왕이 졸본에서 제사를 지낸 시기보다 약 200년이 앞서는 414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고구려인들은 틀림없이 졸본의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결코 착오를 일으킬 리가 없었다.

『호태왕비』의 ‘서(西)’자는 졸본을 찾아 헤메는 우리의 눈을 하고성자성지로부터 오녀산의 동쪽으로 옮기게 한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환인의 역사 상 나합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청 선통(宣統) 원년(1909) 판 『환인현지(怀仁县志)』에는 “나합성은 (현)성의 동북쪽 육십리에 있다. 부이강물이 여기에서 혼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사면이 모두 산이며, 산맥은 서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낮은 언덕이 에워싸고 있으며 둘레가 약 수 리는 된다. 이곳에 성을 지은 것이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유지가 잘 남아있다. 성 안팎의 지세는 넓고 평평하며 흙이 매우 두텁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환인현지의 기재내용은 나합성의 위치가 부이강이 혼강으로 합류해 들어가는 어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낮은 언덕이 에워싸고 있다”와 “성 안팎의 지세는 넓고 평평하다” 등의 특징에 근거해 분석해 보면, 이는 평지상의 토성이 분명하다. 현재 환인댐으로 말미암아, 부이강 어귀 일대는 이미 수몰되어 나합성지의 최종 확정에는 줄곧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래 전, 필자는 환인현지업무실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에 근거해 이 성을 소개하면서 석성⁵⁾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지금 보아하니 제공한 자료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일본학자 다나카 도시야키(田中俊明) 선생은 나합성이 졸본이라고 제기한 최초의 학자이다.⁶⁾ 최근 환인지방사 연구회는 혼강댐과 접해있는, 부이강 어귀 부근의 만룡배촌(弯龙背村)에서 ‘성지(城址)’를 발견하였으며, 아울러 소규모의 발굴을 진행하여 성벽기단(牆基)도 찾아내었다. 마침내 이곳이 나합성지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졸본으로 여겨지고 있다.⁷⁾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는 동안, 노출된 석벽이 좁고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벽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채집한 청회색 기와편도 모두 중화민국시기의 유물이다. 이를 고구려성지로 여기기에는 실물증거가 부족하다.

부이강 어귀와 오녀산은 서로 12km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높은 산들이 중첩되어 있어, 고대에는 교통이 많이 불편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졸본을 찾아 오녀산산성을 떠나는 것은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졸본은 도대체 어디인가?

필자는 환인현 원고려묘자촌에 소재한 골짜기가 바로 졸본이라고 생각한다. 1968년 혼강댐으로 인해 이곳은 이미 수몰되었다.

첫째, 고구려묘자촌에는 대규모의 고구려 무덤떼가 있다. 1956년 고고학자들은 환인댐 수몰예정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고구려묘자촌 부근에서 240기의 고구려 무덤들이 발견되었다. 무덤은 마을 남쪽의 산구릉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산 능선을 따라 계속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을의 평지에 까지 이어진다. 총 길이가 1000여 미터에 이르며, 대체적으로 종렬 배치를 보여준다. 높은 지역에서 낮은 곳에 이룰수록 무덤이 점차 증가한다(그림2). 1958~1959년 34기의 무덤이 발굴되었으며⁸⁾, 또한 1994년 산 높은 곳에 위치한 나머지 무덤들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였다.⁹⁾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 무덤 연대의 상한선은 한진(漢晉) 시기이다. 이는 환인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구려 묘지(墓地)로, 무덤의 수량, 구조, 분포규모로부터 볼 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묘지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은 비교적 큰 유지(遺址) 혹은 성지(城址)로, 이 유지 혹은 성지는 무덤떼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고려묘자촌은 평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최적의 후보지임에 틀림없다.

5) 梁志龙：《桓仁地区高句丽城址概述》，《博物馆研究》1992年 1期。

6) 田中俊明：《高句丽前期王都卒本的营造》，中译文载《东北亚考古资料译文集》(3)，北方文物杂志社，2001年。

7)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 2期。

8)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 1期。

9)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等：《辽宁桓仁县高丽墓子高句丽积石墓》，《考古》1998年 3期。



(그림 2) 高丽墓子墓葬分布图

필자는 무덤떼와 짝을 이루는 유지 혹은 성지가 바로 졸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고령묘자 부근의 연강(连江), 관재양자(官材梁子), 마대영(马大营), 소취리외자(小臭李崴子) 등의 지역에도 비교적 많은 수의 고구려 무덤들이 분포해 있다. 그 중 연강 모지에는 80여기의 무덤이 존재한다.¹⁰⁾ 최근 연강 건너편의 대동구(大东沟), 장강(长岗) 등지에서도 고구려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시기 고령묘자 및 그 부근 지역에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분명 거주 중심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 중심지가 바로 졸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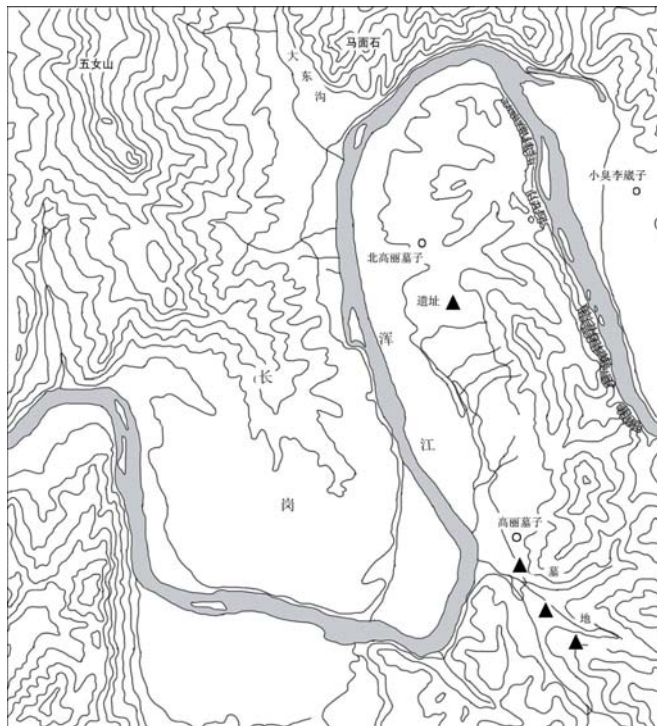
셋째, 고령묘자 무덤떼의 분포 특징 및 무덤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학자들은 대·중·소 “세 가지 유형의 적석묘가 세 개의 등급을 형성하고 있다”고 제기한다. 산 구릉 정상에 대형 적석묘는 아마도 당시 왕실귀족의 무덤일 것이다. 내리막의 중형 적석묘는 통치계급 중 신분이 낮은 관리의 무덤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형적석묘는 일반 고구려인들의 무덤으로 보인다.¹¹⁾ 무덤의 등급이 이처럼 명확하니 짝을 이루는 유지 혹은 성

10)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1期。

지도 분명 왕도의 성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졸본이야 말로 이 유지 혹은 성지의 유일한 후보지이다.

네째, 고려묘자촌이 소재한 골짜기는 남북이 좁고 길며, 혼강 동쪽 기슭에 위치하여, 고대의 비류수 옆에 위치하였다는 문헌 기록과 서로 일치한다. 게다가 마침 오녀산의 서북부에 위치해있는데, 두 곳은 최단거리가 2km 좌우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어, 『호태왕비』에 기재된, 산상 왕도가 “홀본의 서쪽” 방위에 위치한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댐에 의해 수몰되기 전 이 지역에 살았던 촌민들의 말에 의하면, 고려묘자의 북쪽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그 맞은 편 기슭은 바로 오녀산 밑의 대동구(大東沟)였다. 대동구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오녀산 정상으로 통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이 나온다. 나루터 부근에는 작은 하류 어귀가 있는데, 물길이 비교적 얇아 봄, 가을에는 사람이 걸어서 하천을 건널 수 있었다. 고려묘자 골짜기는 동쪽으로 구불구불 낮아졌다 기복이 있는 구릉으로, 구릉의 동쪽은 모두 가파른 절벽이다. 또한 혼강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처음에는 동쪽 산의 절벽아래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다 서쪽으로 굽어지고 다시 남쪽으로 굽어져 고려묘자 골짜기의 서쪽으로 흐른다. 양쪽 기슭의 땅은 이미 오랫동안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밭이다. 이곳의 자연환경과 지리지세는 분명 “토양이 비미하고 산하가 험고하다”라는 말에 부합한다(그림3).



(그림 3) 五女山与高丽墓子谷地理位置图

11) 杨泓：《高句丽墓葬的新发现》，《新中国的考古发现和研究》，文物出版社，1984年。

상술한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졸본은 마땅히 고려묘자가 소재한 골짜기 이다.

고려묘자 무덤의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환인현 주요 유지 및 무덤 분포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에는 대략 북고려묘자촌이 있는 곳에 하나의 유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남쪽의 고려묘자 무덤떼와 약 3km가량 떨어져 있다.¹²⁾ 이 유지가 아마 졸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II. 졸본 고사(故事)

졸본은 가장 이른 고구려의 건국 지역이며, 또한 고구려 초기 평지 위의 왕도이기도 하다. 이는 산상 왕도와 비교해 볼 때, 자연 조건이 우월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하여 왕공대신들이 평소 기거하는 곳으로 관련 국가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였던 곳이다. 특별한 예가 아니고서는 모두 여기에서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도성을 결정할 때는 지리환경을 고려해야하지만, 인문환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도성을 인가도 없는 불모의 땅에 설립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몽이 졸본을 선택하여 입도(立都)한 인문환경은 바로 졸본부여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동명성왕」에는 “이르되,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니 왕이 무자(無子)하여 주몽이 보통인물이 아님을 알고 그의 딸로 아내를 삼게 했다. 왕이 돌아가시니 주몽의 그 위(位)를 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같은 책 「백제본기·온조왕」에는 “혹은 주몽이 졸본에 와서 건너편 고을의 여자를 취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와 또 “혹은 이 르기를, 시조는 비류왕으로서, 아버지는 우태(优台)니 북부여왕 해모수의 서손(庶孫)이며, 어머니는 소서노(召西奴)니 졸본인 연타발(延陞勃)의 딸이다. 처음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沸流)요 차자(次子)는 온조(溫祚)였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내었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 용납되지 못하여 전한 건소(建昭) 2년 2월에 남으로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서소노를 취하여 비로 삼았는데, 건국에 내조의 공이 매우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세가지 사료는 모두 본문아래의 자주(自註)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 수집한, 주몽이 졸본에 건국을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또 다른 ‘판본’임에 틀림없다. 세 사료는 모두 주몽이 졸본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조그만 방국(方國) 즉 졸본부여를 형성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소서노의 부친 연타발은 바로 주몽이 처음 도착했을 때 졸본부여왕이었을 지도 모른다.

『삼국유사』 「북부여」에는 “고기(古記)에 이르길, 동명(주몽)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 졸본부에 도읍을 정하여 졸본부여를 이룩하였으니 이가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라고 언급

12)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 1期。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 「고구려」에도 “동명왕제는 졸본부여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어떤 학자는 주몽이 건국 초기 국호를 고구려라 하지 않고 졸본부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추론하고 있는데¹³⁾, 그럴 듯하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졸본천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는데(遂欲都焉)”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하려고 하였는데(欲)”라는 글자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몽이 여기에 도읍을 정한 것 같지만 단지 일종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계속 이어지는 글을 보면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왕도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단지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책 「백제본기·온조왕」 중에는 주몽이 졸본에 도읍을 세운 것과 관련하여 분명한 기록을 보여준다. 즉 “남으로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南奔至卒本, 立都, 號高句麗)”이다. 『삼국유사』 저자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시기의 역사를 기술할 당시 비록 대부분을 『삼국사기』에서 베껴 썼으나, 욕(欲)자는 생략한 것이다.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세워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인하여 고(高)로써 씨(氏)를 삼았다(至卒本州, 遂都焉,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과연 『삼국사기』 중의 ‘욕(欲)’자는 연문(衍文)으로 삭제해야만 한다.

주몽의 건국은 졸본부여의 힘을 빌렸다. 그러나 그 통치계층의 구성은 다방면의 인물들을 취합하였다. 하나는 주몽을 따라 북부여에서부터 난을 피해 나온 동행자들로서, 『위서(魏書)』에는 두 사람 즉 오인(烏引)과 오위(烏違)로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세 사람 즉 오이, 마리, 협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이는 하나의 무리로, 『冉牟墓志』의 주인공 모두루는 “노객(奴客)의 선조가 □□북부여에서부터 성왕(聖王)을 수행하여 (이곳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주몽을 따라 졸본으로 온 이들 가운데는 또한 모두루의 조상도 있었다. 또 다른 무리는 주몽이 도중에 만난 토착부락의 수령들이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모둔곡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마의(麻衣)를 입고 한 사람은 남의(衲衣)를 입고 또 한 사람은 수조의(水藻衣)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주몽이 이들을 “세 사람의 현인(三賢)”이라 부르고, 아울러 각각 성을 내리고 “그 재능을 헤아려 각 각 일을 맡겼다”라는 기록도 있다. 또한 졸본부여의 구민(舊民)도 있다. 왕비 소서노는 주몽에 대해 “건국에 내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주몽 6년(기원전 32년) 오이와 부분노(扶芬奴)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의 행인국을 쳤으며”, 또한 10년(기원전 28년)에는 “부위염(扶尉狷)에게 명하여 옥저를 쳐 멸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부분노와 부위염의 ‘부(扶)’자는 졸본부여와 관계가 없다. 주몽 2년 비류국이 항복을 하자, 국왕 송양을 ‘다물후(多勿侯)’로 봉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왕공귀족이 되어 고구려의 통치계층이 되었다. 대무신왕 15년(32년), 비류부의 장인 구도, 일구, 분구 세 사람이 온갖 악행을 다하고 백성을 억압하자 대무신왕이 본래 “이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이 세 사람이 “동명의 구신(舊臣)”이라는

13) 孙进己、王绵厚主编：《东北历史地理》第一卷，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

점을 고려하여 “퇴출만 시켰다.” 구도, 일구, 분구는 또한 주몽의 신하였다.

주몽이 건국하여 정권을 처음 창조하면서 졸본에서 개국의식을 거행한 적이 있다.

조선 이규보 『동명왕편(東明王篇)』⁷⁾이 주인(注引)한 『구삼국사(舊三國史)』에는 “玉은 불절(菴)의 위에 앉아 군신의 자리를 대략 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불절의 ‘불(菴)’은 ‘모(茅)’자의 잘못된 표기임이 분명하다. 두 글자 위에는 모두 초두[++]가 있고 그 아래 弗과 矛자가 있는 것으로, 형태는 유사하나 서로 다른 글자이다. 모절(茅菴)은 고대에 지위의 존비(尊卑)를 상징하는 표시물이다. 『국어(國語)』⁸⁾진어팔(晉語八)에는 “옛날 성왕이 기산의 남쪽에서 제후들과 맹약을 맺었을 때, 초는 장강 중류의 한 오랑캐[荊蠻]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절(茅菴)과 망표(望表)를 설치하고 선비(鮮卑)와 함께 화툃불[燎]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맹약을 맺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위소(韋昭)는 여기에 “절(菴)은 띠를 단으로 묶어 세운 것이다”라고 주를 달고 있다. 『설문』에는 “조희 때에 띠를 단으로 묶어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절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주몽이 개국의식에서 정말로 모절(茅菴)을 설치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진지하지 못한 의식은 분명 간단하면서도 수많은 원시적 색채를 지녔을 것이다.

고구려의 세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집을 지어 거했다”라는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 6년(기원전32년)“신작(神雀)이 궁정에 모여들었다”, 10년(기원전 28년)“난(鸞)새가 왕대에 모여 들었다”, 유리명왕 2년(기원전 18년)“신작이 궁정에 모여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궁정, 왕대, 왕정이라는 단어는 졸본 이후 궁실 및 그 부속건축물들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몽이 죽기 전에, 멀리 북부여에 있던 장자 유리가 남으로 내려와 부자상봉을 하게 된 곳은 바로 졸본이다. 그리고 유리가 태자로 봉해지고 왕위를 계승하게 된 곳도 바로 졸본이다.

『삼국사기』⁹⁾고구려본기·유리동명왕」에는 “옥지, 구추, 도조 등 세 사람과 함께 졸본에 가서 부왕을 보고 단검을 바쳤다. 왕은 가지고 있던 단검을 꺼내어 맞추어 보니 완전한 칼 한 자루가 되었다. 왕이 기뻐하여 유리를 태자로 삼더니 이에 이르러 왕위를 계승하였다.”

주몽의 장지 또한 졸본 부근이다.

『삼국사기』¹⁰⁾고구려본기·동명성왕」에는 “19년 9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나이 40세요, 용산(龍山)에 장사하고 동명성왕이라 시호하였다.”『동명왕편』¹¹⁾이 주인(注引)한 『구삼국사』에는 “9월 왕이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셨다. 나이 40세였다. 태자가 (왕이) 남기신 옥편(玉鞭)을 용산(龍山)에 장사하였다.” 그러나 『호태왕비』에는 주몽의 장지가 홀본의 동쪽 언덕(東崗)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왕이) 세상의 지위를 즐기지 아니하여 (하늘이) 황룡을 내려 보내 왕을 영접하였다. 왕은 홀본의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 승천하였다.”

아마 고구려 전설 가운데 주몽은 천제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그가 죽었다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그의 죽음을 “용의 머리를 밟고 승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후대인들이 그의 장지를 용산이라고 불렀을 지도 모른다. 『호태왕비』

의 “홀본 동쪽 언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몽의 장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이다.

앞 장에서 고증한 내용에 의하면, 졸본은 지금의 환인댐 수몰지내의 고려묘자일대로, 졸본의 동쪽 언덕은 마땅히 고구려 묘자 동쪽의 언덕이다. 지도를 보면 곧 고려묘자 골짜기 동쪽이 바로 골곡 진 언덕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몽의 묘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고구려 민족은 특히 죽음을 중시하였다.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남녀는 혼인을 한 다음 바로 수의를 만들기 시작한다. 후장(厚葬)의 풍속이 있어서 금은과 재화를 모두 부장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집안 등지의 고구려 왕릉은 분포지가 넓고 규모가 거대하여 절대로 하루 아침에 축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호태왕릉 출토의 청동방울에는 “辛卯年好太王陵造鈴”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¹⁴⁾ 고증에 의하면 신묘년은 391년으로 호태왕이 막 즉위하던 때이다. 따라서 고구려국왕은 제위에 올랐을 때 이미 자신의 능묘를 건설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태왕비』에 이르기를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생시에 교(敎)를 내려 말하기를, ……나는 이들 구민이 쇠약해질까 염려된다. 만일 내 만년 뒤에 (죽은 뒤에) 안전하게 수묘하는 것은, 오직 내가 몸소 순행하여 약탈해 온 한인(韓人)과 예인(穢人)들만을 취하여 청소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하셨다.”

이는 또한 고구려왕이 생전에 무덤을 축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주몽의 묘지 축조는 집정기간에 이미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홀본의 동쪽 언덕”을 선택하여 자신의 장지로 삼았을까? 아마 추측컨데, 주몽이 평소에 졸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곳의 산천형세에 익숙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주몽이 홀본 동쪽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졸본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3년 유리명왕이 천도 이후, 태자 해명이 여전히 ‘고도(古都)’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고도’도 아마 졸본일 것이다.

졸본은 고구려 개국의 땅으로 또한 제1대 왕 주몽의 왕궁이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주몽 사후 그 부근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천도 후 이곳이 점차 신성화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며, 시조묘를 건립한 것은 이러한 색채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대무신왕』에는 “3년(20년) 3월에 동명왕묘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다. 동명은 주몽을 일컫는 것이며 또한 고구려 시조를 말하는 것이다. 대무신왕은 어디에 동명왕묘를 건립하였을까? 『삼국사기』에는 명확한 기록이 이 없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에 시조묘에 제사를 지낸 국왕들이 모두 졸본으로 갔다는 내용이 있다. 대무신왕이 건립한 동명왕묘는 마땅히 졸본에 있는 시조묘인 것이다.

14) a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集安高句丽王陵》，文物出版社，2004年。

b 张福有等：《朱蒙所葬之“龙山”及太王陵铜铃“峻”字考》，《东北史地》2006年1期。

이밖에도, 졸본에는 또한 부여여신묘 즉 전설상의 주몽 모친의 사당이 있음에 틀림없다.

『북사(北史)』~『고구려전』에는 “신묘(神廟)가 두 곳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으로 나무로 여신상을 조각하였고, 다른 하나는 고등신(高登神)으로 그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아울러 관사를 설치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수호하였다. 이것은 대개 하백의 딸[河伯女]과 주몽을 위한 것이라 한다.”

이 두 신묘는 어디에 있을까? 『북사』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다. 당시 고구려의 “도읍이 평양성”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추측해 볼 때 국묘(國廟)는 평양에 설치해야 맞다. 그러나 『삼국사기』~『중의 고구려 안장왕, 평원왕, 영류왕 세 왕은 졸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고 모두 평양에서 건너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우리는 『북사』에 기재된 두 개의 신묘가 바로 졸본의 신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고구려 국왕이 졸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사실과 관련된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왕 명	연 대	『삼국사기』~기재	도성
8대	신대왕	3년(167)	9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10월에 왕이 졸본에서 돌아왔다.	국내
9대	고국천왕	2년(180)	구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국내
11대	동천왕	2년(228)	2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고 죄수를 대사하였다.	국내
12대	중천왕	13년(260)	9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국내
16대	고국원왕	2년(332)	2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백성을 순문(巡問)하여 늙고 병든 자에게 물품을 진급하였다. 3월, 왕이 졸본에서 돌아왔다.	국내
22대	안장왕	3년(521)	4월, 왕이 졸본에 거둥하여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5월, 왕이 졸본에서 돌아오면서 경로, 주읍의 빈궁한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섬씩의 곡식을 내렸다.	평양
25대	평원왕	2년(560)	2월, 왕이 졸본에 거둥하여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3월, 왕이 졸본에서 돌아오다가 경로 주군의 죄수를 이사(二死) 이외는 모두 놓아주었다.	평양
27대	영류왕	2년(619)	4월, 왕이 졸본에 거둥하여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5월 왕이 졸본에서 돌아왔다	평양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왕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졸본에 와서 제사를 지냈던 때가 보통 제위에 오른 지 2년에서 3년되는 시기였다. “나라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이다” 는 기록에서 시조에 대한 제사가 새로운 국왕이 즉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신대왕부터 시작하여 영류왕대에 끝이 났다. 모두 8대 국왕이 졸본에 가서 제사를 지냈으며, 그 시기는 452년에 걸친다.

시조묘는 고구려 왕조의 국묘로서, 마땅히 국가가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초기 왕도 졸본이 당연히 성지(城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상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국왕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 안과 그 부근 지역에는 계속해서 행궁과 같은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또한 성지의 지속적인 수리와 보수도 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1950년대 발굴조사 시, 고려묘자 및 그 부근에서 성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오직 시대적 소홀이 큰 유감을 남겼다는 해석 밖에 할 도리가 없다.

III. 홀슬골성

홀슬골성은 고구려가 산상에 건립한 왕도로서, 『위서』~『고구려전』에 제일 먼저 출현한다. 즉 “주몽이 보술수(普述水)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마의를 걸치고, 한 사람은 납의를 걸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수조의를 걸쳤다. 주몽과 함께 홀슬골성에 이르러 거하였는데 고구려라 부르고 인하여 이로써 씨(氏)를 삼았다.”라는 기록이다. 『주서(周書)』~『북사』~『동사』에서는 『위서』를 따라 똑같이 주몽이 홀슬골성에 건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서』~『고구려전』에서는 주몽이 “홀두(斗)골성에 뿌리를 내리고[土] 스스로 고구려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의 “土”자는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王”자를 잘못 베낀 것이며,¹⁵⁾ “斗”자도 “升”자의 오류이다.

홀슬골성은 고구려 건국 4년째 되는 해에 수축한 산상의 왕도로 『삼국사기』, 『구삼국사』를 인증·분석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동명성왕』에는 “3년 3월에 황룡이 홀령(鶻嶺)에 나타났다. 7월에 경운(慶雲)이 홀령에 나타났는데 빛이 푸르고 붉었다. 4년 4월에 운무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이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했다. 7월에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성곽과 궁실은 어디에 지었을까? 역시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 없다. 성을 축조한 처음 1년에 홀령에 경운과 황룡 등이 출현한 기이 현상은, 옛 사람들의 눈에는 상서로운 징조였다. 경운은 경운(卿雲) 등으로도 칭하는데 『사기(史記)』~『천관서』에는 “연기인 듯 아닌 듯 구름인 듯 아닌 듯, 화려하고 고요하며 둥글고 구불구불한 것을 경운(卿雲)이라 한다. 경운은 경사로운 기운을 일컫는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황룡은 전설 상의 신물로 한(漢) 사마상여의 『봉선문(封禪文)』에 “구불구불 길게 늘어진 황룡은 덕이 흥하면 (하늘에) 오르는데 색깔이 곱고 빛나며 밝고 휘황찬란하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지금 생각하면, “황룡”이라는 것은 색채가 알록달록 찬란한 형태를 띤 운기(雲氣)를 일컫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길조”가 출현한 2년째 되는 해에 고구려는 “성곽과 궁실을 짓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

15) 梁志龙:《哥勿考辨》,《辽海文物学刊》1994年2期。

로서, 흘령 위에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명왕편』인용의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도 역시 이 시기의 성곽축조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성은 바로 흘령 위에 지어졌다. “7월에 현운(玄雲)이 흘령에 일자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볼 수가 없었으며, 오직 수 천명의 사람소리 만이 들렸는데 이로써 토공(土功)을 일으켰다. 왕이 이르기를 ‘하늘이 나를 위해 성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7월에 운무가 스스로 사라지고 성곽, 궁대가 저절로 만들어 졌다. 왕이 황천에 절하고 거하였다”

산의 이름은 흘령(鶻嶺)이고 따라서 이 산 위의 성은 마땅히 흘성(鶻城)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흘성은 당연히 흘슬골성(紇升骨城)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 骨(gu)과 鶻(gu)은 같은 소리로 당연히 통하는 바가 있다.

둘째, 흘슬골성은 분명 일찍이 “骨城”이라고 쓰여졌다. 『한원(翰苑)』 『번이부(蕃夷部) · 고려』에는 “영험하신 하백이 납시니 햇빛을 쬐여 잉태하게 하였으며, 었드린 자라들이 상서로움을 널리 퍼뜨리니, 골성을 두드려 땅을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말은 주몽의 건국신화로, 골성(骨城)은 당연히 흘슬골성(紇升骨城)의 약자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위서』의 내용이 산상 왕도를 고구려 건국지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일본학자 白鳥庫吉는 제일 먼저 흘슬골성이 오녀산성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¹⁶⁾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를 부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¹⁷⁾ 최근 한 학자가 다시 흘슬골성은 오녀산산성이 아니라 고구려 초기 평지에 세워진 왕성 즉 하고성자성지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¹⁸⁾ 이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흘슬골성이 오녀산산성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비교적 충분하다.

첫째, 『호태왕비』의 “비류곡 흘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짓고 도읍을 세웠다(于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라는 기록은 분명 우리에게 이 왕도가 산성임을 알려주고 있다. 앞의 고증에 의하면, 고구려 초기 두 곳에 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졸본이고 다른 하나는 흘슬골성이다. 산상에 있는 왕도는 흘본의 서쪽에 위치한다고 하니 분명 졸본은 아니다. 『호태왕비』의 “城”자는 명사를 동사로 사용한 것으로, 의미는 즉 성을 축조하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례는 고대 문헌 중에 다수가 있다. 예를 들어 『詩經 · 小雅』 『出車편』의 “천자가 내게 명하여 저 삭방에 성을 쌓게 하셨네(天子命我, 城彼朔方)”와 『명사(明史)』 『태조본기(太祖本記)』의 홍무(洪武) 20년 “이달(9월)에 서녕에 성을 쌓았다(是月[九月], 城西寧)”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오녀산의 발음(讀音)은 흘령과 관련이 있다. 역사상 回鶻(hui gu)는 또한 “畏吾爾(wei wu er)”이라고 불려 졌다. 몽고어로는 또한 “蒙兀儿(meng wu er)”이라고도 칭하여 졌

16) 参见东潮、田中俊明：《高句麗の歴史と遺迹》，中央公论社，1995年。

17) 王建群：《玄菟郡的西迁和高句麗的发展》，《社会科学战线》1987年 2期。

18) 耿铁华：《高句麗紇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 2期。

다. 鶻(gu)과 古(gu)는 같은 발음으로, 당연히 서로 통한다. “吾爾(wu er)”과 “兀儿(wu er)”은 “鶻(gu)” 혹은 “古(gu)”의 음이 변한 것이다. “오녀(wu nú)”는 “吾爾(wu er)” 및 “兀儿(wu er)”과 발음이 서로 비슷하여 음원(音源)이 “鶻(gu)”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오녀산의 명칭은 흘령(鶻嶺)이 변천하여 생겨난 것임에 틀림없다

사료 상으로 볼 때, 이 두 도성은 한·중 관련 문헌 가운데 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서』 이후의 중국문헌에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흘슬골성을 고구려의 건국지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후대의 사가들이 『위서』를 베낀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한국문헌에서는 졸본을 고구려 건국지로 보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현상은 자료의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서』의 자료 출처는 당시 북조와 고구려 쌍방간에 파견한 사신들과 관련이 있다. 북위 태무제 시기 员外散骑侍郎 李敖를 파견하여 장수왕을 배알하여 봉건한 한적이 있다. “오(敖)가 그 거소인 평양성에 이르러 그 방사(方事)를 물었다”, 여기에서 말한 방사(方事)들이 대개 구전을 통해, 후에 『위서』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의 자료 출처는, 김부식의 말에 따르면 『고기』이다. 『고기』는 당시의 『구삼국사』이다. 『삼국사기』에는 비교적 착오가 많아, 어떤 기사내용은 확실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몽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이미 두 가지 점에서 『호태왕비』의 증명을 받았다. 하나는 주몽을 “추모라 이르기도 한다”인데, 비문에 바로 “추모왕”이라 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⁹⁾ 다른 하나는 졸본을 비문에서는 “홀본”이라고 적고 있는 점이다. 졸본과 홀본이 물론 발음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는 서로 통한다. 따라서 『삼국사기』 졸본에 대한 기록의 확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부식은 일찍이 흘슬골성을 고구려 개국 도성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주몽이 흘슬골성에 도읍한 후로 40년이 지났다. 유리왕 22년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왕도 명칭을 다르게 표현 한 것은 앞의 말을 바꾼 것으로, 본기(本紀)에서 항상 보이던 졸본이 여기에서는 흘슬골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전후를 읽으면 의혹이 풀리게 된다. 이 문장의 앞에서 김부식은 졸본, 흘슬골성에 대한 고증을 하였다. “『通典』에 이르길, ‘주몽이 한 건소 2년에 북부여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 보솔수(普述水)를 건너 흘슬골성’에 이르러 거하면서 고구려라 하고 고로써 씨를 삼았다.’ 『고기』에 이르길, ‘주몽은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흘슬골성과 졸본은 한 곳인 것 같다.” 더 나아가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이 왕도는 『한서』 『지리지』 중의 “현토군의 속현 고구려”일 수도 있다. 김부식의 글에 쓰여진 왕도 개념에 대한 전환은 원래는 중국문헌의 왕도 명칭에 대한 이용(移用)이다. 이 문헌은 바로 김부식이 읽은 『통전』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미 제기한 바에 의하면, 흘슬골성은 이미 주몽이 도착하기 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위서』에서 “흘슬골에 이르러”라고 했을 터인데 굳이 “성”자²⁰⁾를 더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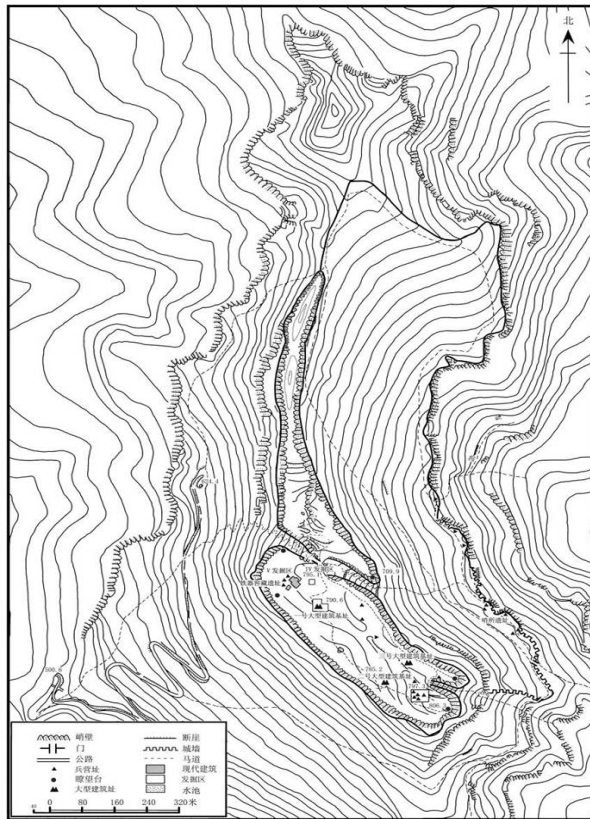
19) 参见林沄：《夫余史地再探讨》，《北方文物》1999年4期。

20) a 魏存成：《高句丽考古》，吉林大学出版社，1994年。

까? 필자의 견해로는 주몽이 도착하기 전에 흘슬골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위서』의 저자는 후대의 성 이름을 가지고 초기의 이름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흘슬골성(纒升骨城)의 오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우리는 『구삼국사』와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호태왕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오녀산산성 발굴조사 중 얻은 증거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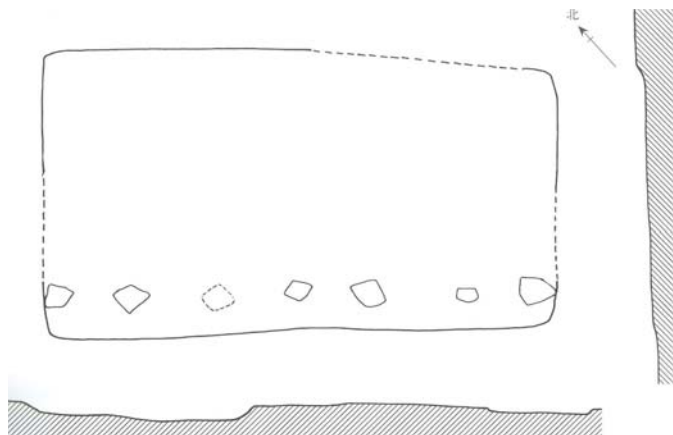
오녀산산성은 환인현 성 동북쪽 8.5km 떨어진 오녀산 위에 위치한다. 높이는 해발 806.32m이다.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으로 둘레는 4754m이다. 성벽은 천연 성벽과 인공 성벽 둘로 나뉜다. 천연 성벽은 4189m로, 거의 전체성벽의 88%를 차지한다. 인공성벽은 세그먼트 기법으로 축조되었으며 총 길이는 겨우 565m이다. 발굴 시, 성 안에서 다섯 시기의 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중 3기 문화의 연대는 대략 서한에서 동한시기로 고구려건국 전후의 유적이다. 4기 문화의 연대는 대략 5세기 전후로 고구려 중기의 유적이다. 주요 유적으로는 물저장지, 전망대 및 1, 2, 3호 대형 건축지 그리고 병영유지 등이 있다(그림4).²¹⁾



(그림 4) 五女山山城平面图

b 耿铁华：《高句丽纒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 2期。
21)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五女山城》，文物出版社，2004年。

오녀산산성의 1호 대형 건축지는 제3기 문화유적으로 주초식 건축이다. 앞 부분에 6개의 주초석이 남아있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규모가 비교적 크며, 길이 13.8m 넓이 7.2m(그림5)이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분명 평민들의 주택을 아닐 것이고, 아마도 고구려 초기의 궁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건축물 유지 안에서 왕망시기의 “大泉五十” 동전(銅錢)이 나와, 고구려 천도 후에도 건축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토제 수이관(豎耳罐)으로 기형은 일반적으로 절연(折沿), 방순(方唇), 속경(束頸), 평저(平底)의 특징을 보이며, 목 부분은 항상 대칭을 이룬 수교상(豎橋狀) 혹은 횡교상(橫橋狀)의 손잡이[耳]가 달려 있다. 현재 조사 중이거나 이미 발굴이 완료된 기타 고구려 초기 산성 가운데 이와 같은 유형의 유존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고구려 건국 전후 오직 오녀산만이 개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발은 반드시 산상 왕도 건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 5) 오녀산山城1号大型建筑址平、剖面图

이 기의 유적은 분포지가 비교적 작고, 주로 II구역과 IV구역에 위치하여, 이 시기의 고구려 산상 활동이 그다지 빈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산이 높고 길이 험한 등 특수한 지리환경으로 인해, 오녀산산성은 결코 고구려 국왕이 평시에 정사를 돌보던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평지 왕도 이외의 방어 도성으로, 전쟁에 불리할 시 왕궁대신이 이곳으로 물러나 나라를 지켰던 곳일 것이다. 성 안에 궁실건축이 있으나, 이용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서』 『고려전』에 이르기를 “평양성을 쌓았다. 그 성은 동서 6리이며 남쪽으로 패수(溘水)를 끼고 있다. 성 내에는 곡식과 기물을 쌓아두고 도적이 대비하였다. 도적이 쳐들어 오면 바로 들어가 굳게 지켰다. 왕은 따로 그 옆에 집을 지었지만 항상 거쳐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 오녀산산성 또한 마땅히 이리했을 것이다. 산 위의 제3기문화가 비교적 적은 원인은 바로 국왕이 “평시에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를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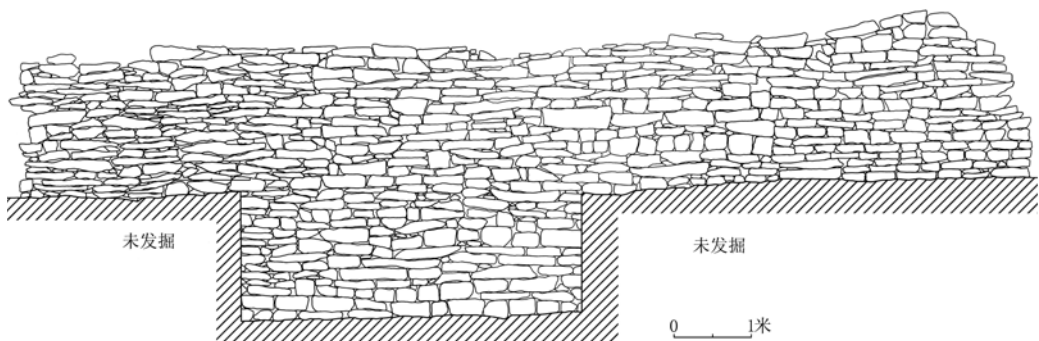
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홀슬골성은 고구려에서 축조한 가장 이른 시기의 산성으로, 성벽의 축조 형태는 마땅히 원시적인 형태를 많이 띠어야 하는데, 오녀산산성이 바로 이와 같다.

오녀산 산성 동 벽의 남단은 비교적 서로 연결이 되어있는 인공석벽인데, 외벽의 기초는 대부분 비교적 큰 긴 돌을 끼워 넣어 축조한 것이다. 그 위에 썰기형 돌을 쌓아 올렸다(그림 6, 7). 내벽은 대부분 돌덩이와 돌판을 쌓아 축조하였으며 썰기형 돌은 보이지 않는다(그림 8, 9). 기타 고구려 초기 산성의 석벽은, 내벽은 물론 외벽까지 모두 일정한 크기로 가공한 썰기형 돌을 층층이 쌓아 축조하였다. 양자를 비교해 볼 때, 후자는 건축 기술상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그림 7) 五女山山城东墙外壁



(그림 8) 五女山山城东墙内壁局部立面图



〔그림 9〕五女山山城东墙内壁

성 벽이 모두 켜기형 돌로 축조된 고구려 산성은 벽 안 또한 매우 신경 써서 축조하여, 잡석들을 아무렇게나 메워 넣은 것이 아니라, 한 단 또는 두 단 뾰족한 형태 혹은 타원형의 긴 돌로 정성스럽게 축조하였다. 성 벽면(牆體壁面)쌓는데 사용되는 켜기형 돌은 평면이 삼각형으로, 넓은 면이 밖을 향하고 뾰족한 면이 안을 향한다. 평평하게 쌓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돌과 돌이 매우 긴밀하게 짜여 있으나 안에는 틈이 남아 있다. 따라서 벽 중심(牆芯)을 쌓는데 사용되는 긴 돌의 뾰족한 부분은 바로 이 틈 속으로 끼워지기 때문에, 켜기형 돌이 한 층 한 층 틈새를 누르면서 평평하게 쌓인다. 벽 안의 긴 돌도 자연히 겹겹이 누르게 된다. 이러한 석축 기술은 성벽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역학원리에 매우 부합한다. 그러나 오녀산산성의 성 내외 벽면 기단의 비교적 큰 긴 돌 및 돌덩어리와 돌판은 축조 후, 긴 돌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틈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벽면은 벽 중심이 맞물리기가 힘들며, 쉽게 “이중구조” 현상을 일으킨다. 기술상의 미숙으로 보아, 오녀산산성은 건축시기가 다른 고구려 산성보다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 기재에 의하면, 흘슬골성은 고구려의 가장 이른 시기 축조된 산성이다.

오녀산 산성은 가파른 절벽을 성벽으로 직접 이용한 부분이 매우 많다. 그 중 남벽 서단과 서벽, 북벽은 거의 모두 천연의 가파른 절벽 혹은 험준한 벼랑으로, 그 가운데 높이가 거의 100m에 다다른 곳도 있어 마치 석벽이 우뚝 솟은 것 같다(그림 10). 『구삼국사』의 흘령 상에 축조된 성과 관련한 몇 마디의 말은 주의할 만 하다. 하나는 “하늘이 나를 위해 성을 세우다”와 다른 하나는 “성곽과 궁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이다. “하늘이 세웠다”와 “저절로 만들어 졌다”에서 강조하는 바는 산 위의 왕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오녀산 산성의 외관은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천연의 요새와 같아(그림 11),²²⁾ 『구삼국사』의 기재와 일치한다. 또한, 명 만력23년(1595) 조선 남부의 主簿 신충일이 사신으로 건주(建州)에 가는

22) 本文关于五女山山城为纒升骨城的部分推论, 我们曾在《五女山城》考古报告中论及。

도중 오녀산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하늘이 만든[天作]” 성이라고 감탄하였다. “니구리(尼求里) 부락 서남쪽에 산이 하나 있어 험하고 가팔라 하늘로 우뚝 솟아 있다. 멀리서 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보일 듯 말 듯 석성이 있어 옆으로 띠를 이루면서 서쪽으로 뻗어간다. 물 어보니 바로 야로강 옆의 하늘이 만든 옥령산성(郁灵山城)이다.”²³⁾ 옥령산성은 곧 오녀산 산성이다. 신충일의 묘사는 거의 『구삼국사』의 복사판이다.



〔그림 10〕五女山山城南墙中的峭壁



〔그림 11〕五女山山城远眺

본 글의 여론(余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 건국 초기에 이미 왕도의 양성제도가 출현하였다. 이로부터 기원하여, 국내시기의 왕도는 바로 국내성과 환도산성으로, 양자의 거리는 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평양시기의 왕도는 바로 장안성과 안학궁으로, 양자의 거리는 7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추측해 볼 때, 졸본과 흘슬골성의 거리는 그리 멀다고 볼 수 없다. 고려묘자 골짜기는 오녀산산성과의 최단 거리가 2킬로미터 좌우로, 거리가 적합하다. 둘째, 왕도의 양성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고구려의 전쟁관념과 관련이 있다. 산상 왕도는 국왕 및 왕실의 주요 성원들에게 전쟁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제공해 주나, 평지 왕도가 비로서 진정한 도성의 의미와 실질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왕도는 당연히 졸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는 하고성자성지가 초기의 평지 왕도인 졸본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나, 그것이 고구려 초기 축조된 성지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유리명왕』에는 “3년(기원전 17년) 7월에 흘천에 이궁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흘천과 흘령은 서로 짝을 이루는 두 개의 지명으로, 흘천은 마땅히 흘령 아래에 있는 평천(平川)지대로, 즉 지금의 오녀산 아래의 환인현성 및 그 부근이다. 하고성자성지는 아마 유리명왕 시기에 축조된 이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建州纪程图记校注》(申忠一撰、徐恒晋校注), 辽宁大学历史系, 1979年.

03

考古資料를 통해 본 卒本時期 高句麗 文化의 性格

지병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考古資料를 통해 본 卒本時期 高句麗 文化의 性格

지병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목 차〉

- I. 머리말
- II. 고고학상으로 본 高句麗 成立以前 卒本 地域의 考古學的 樣相
- III. 高句麗 初期 卒本地域의 考古學的 樣相
 - 1. 初期 高句麗의 都城과 그 調査 成果
 - 2. 初期 高句麗 墓制에 대한 調査 成果
- IV. 高句麗史에서 卒本時期가 지닌 意義
- V. 맺음말

I. 머리말

高句麗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시조와 그의 건국과정일 것이다. 여러 차례 극화되어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막상 그 곳이 어디이며, 어떤 모습을 하였을까 하고 반문하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는 우리에게 알려진 고구려는 저 웅대한 장군총과 광개토왕릉비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창기의 모습도 어렵듯이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는 발전하는 것, 작은 것이 커지고 그러다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무기력하게 사라지기도 한다. 지치지 않을 것 같았던 고구려도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제는 그 흔적만이 그때의 활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할 뿐이다. 19세기말 광개토왕릉비를 재발견하기 전까지 이 비는 한동안 막연히 금나라 황제의 비로 인식했던 적이 있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잊혀진 땅 한가운데 놓여 진 이 거대한 역사기념물은 그 의미조차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금세기에 오면서 고구려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제목조차 읽어 내지 못할 만큼의 연구결과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 옛 터에서는 무수한 물질자료들이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기존의 사료해석만으로는 고구려의 참 모습을 찾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 새로운 대안으로 고구려 당대인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으로서의 물질이 있다. 부서지고 빠져나가고 세월의 흐름에 놀려 사라진 것이 더 많아 잘못 주워 붙이면 이상한 그림이 완성될 수도 있다. 그것이 고고학적 물질자료다. 그러나 너무도 생생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또한 이것이다.

과연 고구려 초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넓은 대양에 작은 조각배를 띄우고 바다 밑의 해양지도를 그리려는 무모한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배라도 띄울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옛 졸본지역을 더듬어 고구려 초기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증과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가능한 물질자료가 말하는 그 본질에 충실하여 해석하려고 노력하겠다.

II. 고고학상으로 본 高句麗 成立以前 卒本地域의 考古學的 樣相

흔히 高句麗史를 시기별로 나눌 때 통상적으로 前期, 中期, 後期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高句麗 都邑地의 變遷을 기준으로 한 편의상의 구분이다. 한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首都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遷都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변화를 同伴하기 때문에 時期區分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高句麗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즉 단순히 初期(卒本 首都時期), 中期(國內 首都時期), 後기(平壤 首都時期)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國內時期와 平壤時期가 지나는 역사적 중요성이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卒本時期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뿐만 아니라, 그 原形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그리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雛牟(朱蒙)세력으로 대표되는 高句麗가 卒本에 근거지를 정하고 나라를 세운 시점과 그 以前時期와의 文化的 差異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부족하다.

史書에도 雛牟(朱蒙)가 卒本地域에 도착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 이미 그 周邊에는 先住 政治體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는 考古學的 資料로도 증명되고 있다. 즉 기원전 1세기 중반 이전의 상황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물질자료가 이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록 이 지역은 遼河以東의 몇몇 중심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은 金屬文化의 발달단계를 거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戰國 初, 中期(紀元前5-4世紀) 이후가 되면 이 지역에서도 金屬器를 동반하는 새로운 물질문화가 보급, 유행하게 된다. 이는 이 지역에 새로운 정치체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고구려가 등장하여 이 지역의 패권을 아우르게 되는 시기까지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卒本地域에 언제 金屬文化가 처음 流入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다만, 周邊地域의 변화 양상을 통해 類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지역과는 그 發展段階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卒本地域의 初期金屬文化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지역의 文化變動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遼河以東의 初期金屬文化(=靑銅器文化)가¹⁾ 琵琶形銅劍(遼寧式銅劍, 혹은 曲刃短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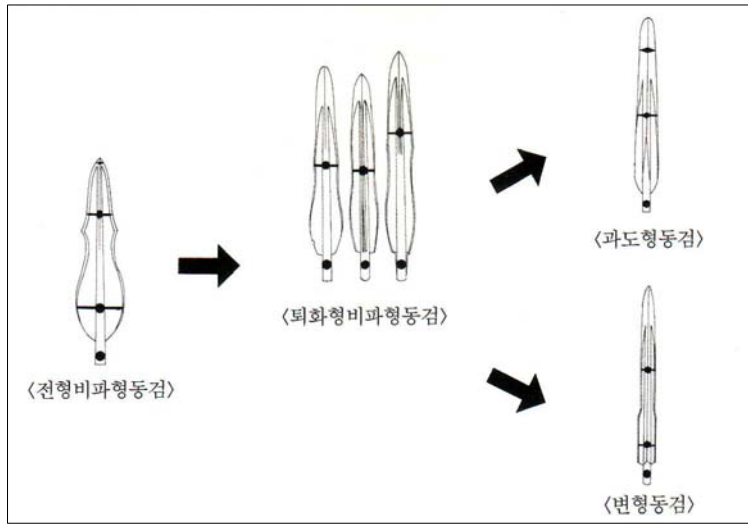
대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문화는 특히 遼河以西의 下家店上層文化와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비과형동검을 標識遺物로 遼河以東의 初期金屬文明을 고찰한다면, 前期와 後期라는 뚜렷한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형적인 琵琶形銅劍 형태를 유지한 단계인 前期와 銅劍의 형태가 변화, 또는 변형된 단계인 後기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銅劍의 형태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銅劍을 반출하는 遺構, 즉 대부분 무덤의 부장품으로 그 墓制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비록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前期의 墓制는 대개 돌무덤 계통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요동반도 남단의 積石墓가 그러하며, 주변지역에서는 石棺墓와 支石墓 등지의 遺蹟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시기 琵琶形銅劍의 소유자들은 주로 돌무덤계통의 문화담당자라는 것이다. 이는 遼西以西 지역의 비과형동검의 출토 양상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출토되는 墓制의 양상뿐만 아니라 공반 유물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²⁾ 대체로 遼河以東의 琵琶形銅劍 관련 유구에서 확인되는 遺物組合이 以西地域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도 하지만, 中原的 遺物의 共伴이 많지 않은 점 또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後期の 樣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銅劍의 형태에 있어서 하단의 曲線部가 상당히 鈍化되어 나중에는 거의 直線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된다. 또 일부에서는 앞부분(鋒部)은 直線化되었지만 下段部가 段을 이루면서 넓어지는 이른바 變形銅劍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일부 유적에서는 鐵器가 공반되는 경우도 있다. 출토되는 유구도 以前時期의 돌무덤에서 簡化된 형태의 돌무덤(簡化積石墓, 石棺墓 등), 혹은 흙무덤(土壙(木槨, 木槨)墓) 계통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遼東半島 등지의 集團墓葬의 성격을 띠고 있던 정형화된 積石墓가 戰國初期 이후 遼河以西의 東漸勢力에 의해 分化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黃海 북쪽 연안(長山海峽 등)을 따라 동쪽으로 移動하면서 남겨놓은 유적이 바로 간화된 개별 積石遺蹟이 아닌가 한다.³⁾ 이들이 마침내 鴨綠江 하류를 거슬러 올라가 中, 上流域에 정착하여 그 곳 토착의 돌무덤 계통 묘제와 만나 융합하게 된다. 이것이 이 지역에 積石墓라는 묘제가 출현한 배경이 아닌가 한다.⁴⁾

1) 이 글에서는 금속이 보급된 이후의 시대 특징을 단순히 그 주된 금속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기존의 靑銅器時代, 鐵器時代라는 용어 대신 初期金屬器時代(기존의 靑銅器時代)와 後期金屬器時代(기존의 鐵器時代)로 부르기로 한다.

2) 遼西地域의 비과형동검은 주로 石槨墓나 土壙(木槨)墓 계통에서 출토되고 있다.

3) 이러한 흔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鳳城 小陳家, 寬甸 泡子沿, 趙家堡, 四平家, 岫岩 西房身 유적(許玉林, 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靑銅短劍」 『考古』 1984-8 참조) 등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이들 대부분이 정식 발굴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그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적석묘로 보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보고의 정황상 적석묘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수습된 銅劍이 筆者의 분류상 후기형인 退化形琵琶形銅劍이거나 過渡形銅劍으로 미루어 전형비과형동검에서 변형동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간 漸移地帶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池炳穆, 2005, 「高句麗 成立期の 考古學的 背景 - 묘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국가 형성』(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01), 74~80쪽 참조)



압록강, 혼강유역에서 初期金屬文化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단계 중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부근의 撫順, 淸原 등지에서 초기금속문화 전기단계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지역이 상대적으로 늦은 발전 변화를 보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鴨綠江 中, 上流域, 渾江流域의 금속문화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돌무덤 계통의 유적에서 과도형, 혹은 변형의 銅劍과 거미줄모양의 문양이 있는 銅鏡, 그리고 靑銅斧, 柳葉形銅鏃 등이 2~3가지 이상씩 함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桓仁縣 大甸子 石棺墓,⁵⁾ 集安 五道嶺溝門 積石墓⁶⁾ 등이 그러하며, 인근의 通化 萬發撥子遺蹟의 제3기층,⁷⁾ 英布戈鄉 小都嶺⁸⁾ 등지의 자료들이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최근 桓仁縣 四道河子鄉의 무덤에서 琵琶形銅劍(遼東式曲刃靑銅劍)과 長柄矛 등이 출토되어 桓仁縣文管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⁹⁾ 단지 石墓의 副葬品으로 春秋末期에서 戰國時代의 것으로만 보고되어 형태와 유구의 情況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연대를 春秋末-戰國時期라는 것으로 미루어 銅劍의 경우 前期段階에 속하는 典型的 琵琶形銅劍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集安 五道嶺溝門 積石墓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유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적석묘가 변형동검을 동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

4) 池炳穆, 1997, 「遼東半島와 鴨綠江 中·下流域 積石墓의 관계 - 高句麗 積石墓의 기원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53, 3~32쪽 참조

5) 梁志龍, 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靑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6)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靑銅短劍墓」 『考古』 1981-5,

7) 國家文物局 主編,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8) 滿承志, 1987, 「通化縣小都嶺出土大批石范」 『博物館研究』 1987-3

9) 王綿厚, 2005, 『高句麗與濊貊研究』, 41쪽

리고 공반유물에서 발견되는 청동제품들도 앞의 유적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지역 금속문화유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볼 때, 이 적석묘를 고구려 성립이전의 것으로 편년하는 데는 거의 학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¹⁰⁾ 그렇다면 이미 고구려 성립이전에 鴨綠江 中, 上流域에서 방형의 단을 갖춘 적석묘가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鴨綠江 中, 上流域, 渾江과 富爾江流域뿐만 아니라, 부근의 太子河와 蘇子河 上流域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初期金屬文化의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이들이 동일한 문화적 淵源을 지녔으며, 後來의 고구려 초기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¹¹⁾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나중에 고구려가 성립된 후 매우 빠른 시기에 포섭, 융화된 지역으로 비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積石墓, 支石墓, 大石蓋墓, 石棺墓를 동일한 문화적 연원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소위 二河流域(太子河와 蘇子河)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확인되는 이들 축조 집단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진행시켜 보아야 할 것 같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많이 보고되는 石棺墓 유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석관묘라면 네 벽을 판석이나 할석 등으로 쌓아 올린 주검 안치 공간으로서의 묘제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되는 석관묘가 이러한 형태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만약 돌무더기 안에 만들어진 주검 안치 공간으로서의 석관이라면 기존의 석관묘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경작이나 기타 이유로 훼손된 상태에서 수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유구의 원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수습된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유물의 출토 맥락 등에 대해서도 너무 소략하게 정리,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지의 성과로 볼 때, 鴨綠江 中, 上流域, 渾江流域에는 주변지역보다 늦은 단계의 금속문화가 유입되어 돌무덤 계통의 묘제 - 특히 적석묘 -를 지니고 소규모의 정치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들이 후에 雛牟(朱蒙)로 대표되는 유이민 집단과 융합하여 고구려 성립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구려 성립 이전 鴨綠江 中, 上流域, 渾江流域을 중심으로 하여 독자적인 문화 영역을 구축하였다가 후에 高句麗 성립의 주축(혹은 원형)이 된 정치체들의 집합을 原高句麗(Proto-Koguryo)社會라고 부르거나 한 바 있다.¹²⁾ 그 시기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금속문화를 받아들여 적석묘를 그 주된 묘제로 사용한 때부터 고구려가 성립되기까지이다.¹³⁾ 영역적으로는 초기 적석묘의 분포지역과 크게 다

10) 王綿厚, 2005, 『高句麗與濊貊研究』, 39쪽; 耿鐵華, 2002, 『中國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55쪽

11) 王綿厚, 2005, 앞의 책, (東北史研究資料叢書), 37~50쪽 참조

12) 池炳穆, 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號

余昊奎, 199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 비록 이 지역에 적석묘 이외에 석관묘나 대석개묘 등의 다른 묘제가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적석묘라는 묘제가 고구려 전반기 동안 절대적인 묘제로 단일화되고 있다. 이는

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의 조사 성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시간적, 영역적 범위는 다소 증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I. 高句麗 初期 卒本地域의 考古學的 樣相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雛牟(朱蒙)세력이 남하하여 졸본지역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지역에는 이미 여러 정치체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문헌기록의 내용은 사실에 가까운 것임을 고고학적 자료로도 증명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성립되고 난 후의 고고학적 상황들은 이전시기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점이 주목된다. 전시기의 政治體들은 소규모의 영역과 인구를 지닌 집단이었을 것이므로,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나 죽은 후에 묻히는 무덤 역시 그리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전시기의 유적들은 대부분 산발적이거나 빈약한 副葬遺物들을 남겨진 채 발견되곤 한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고 稱王을 한 상태¹⁴⁾ 하에서 남겨 놓은 물질자료는 전시기의 그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王의 존재를 대외에 과시하고 建國에 뒤따르는 行爲로서의 都城과 宮闕의 築造, 그리고 威身財적 성격을 지닌 器物의 存在는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우리에게 물질자료로 남겨지게 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도 건국 후 성곽이나 궁궐의 축조 등이 이루어지고, 왕과 귀족들을 위한 무덤들도 전시기와는 다른 규모를 지녔을 것이다. 또한 그 안의 副葬物도 더 다양하고 고급화되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졸본지역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건국한 후 국가적 면모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행위들을 하였으며, 그 것이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찾아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初期 高句麗의 都城과 그 調査 成果

고구려가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 지금의 혼강 연안인 환인 일대였을 것이란 것에는 국내외 학계에서 거의 정설이 된 듯하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一國의 都邑이 위치하였던 곳으로서의 환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이점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물질자료들을 통해 보아도 도읍지로서의 비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혼강과 부이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풍부한 수자원과 수로 교통의 이점, 그리고 너른 평원이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

부여쪽에서 남하하였다는 추모집단이 비록 석관묘를 그 주된 묘제로 하였더라도 이 지역에 도착하여 적석묘에 동화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적석묘가 지니는 이 지역에서의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14) 고구려가 정확히 언제 稱王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왕망이 高句麗王을 下句驪侯로 낮추어 부르게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대외에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나 유적들이 집안 다음으로 풍부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추모세력이 이곳에 도읍하였을 때 이미 선주민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들이 남겨 놓은 고고학적 자료들 역시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정확히 어디가 초기 紇升骨城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환인 주변에서 찾아지는 성지를 중심으로 五女山城說, 下古城子城說 등이 제기되었다.¹⁵⁾ 그 중 현재 환인현성의 동북쪽 8.5km에 위치한 오녀산 위에 있는 山城이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도읍으로 주목 받고 있는 오녀산성은 옛 기록과도 부합된 면이 있어 유력한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비류곡 홀본 서쪽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산 위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五女山城이 일찍부터 주목 받게 된 것이다. 이 산성에 대해서는 1996-1999년, 그리고 2003년에 걸쳐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상세한 보고서가 간행되었다.¹⁶⁾ 대부분의 발굴보고가 단편적이고 일부 내용만 보고되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보고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조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겠다. 다만, 비교적 여러 지구에서 발굴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구려 초기의 유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후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산 정상부에서 발굴한 5개 구역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곳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모두 5개 層位의 유적이 확인 되었다고 한다. 즉, 신석기 문화층인 제1기층, 금속문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제2기층, 그리고 고구려 시대로 판단되는 제3기층, 渤海時期的 유적인 제4기층과 金나라 시기의 모습을 보이는 제5기층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특히 제2기층에서 동검을 모방한 듯한 마제석검편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倣製 石劍의 존재는, 풍부하지 못한 금속유물의 대용물로서 석재유물의 비중이 높았던 이 지역 특유의 금속문화 양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3기층의 고구려시기의 양상이다. 수혈식주거지, 초석건물지, 모래와 운모나, 혹은 활석이 섞인 회갈색, 혹은 황갈색 토기 등은 고구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굴에서도 역시 오녀산성이 즐본시기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석축성으로서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다른 성에 비해 축조방법에서 원시성이 확인된다하더라도,¹⁷⁾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빨라도 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아직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별도의 성벽이 없이도 천연적인 요새기능을 지녔을 산 정상부와 산 아래의 성벽부분의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사용연대의 선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 견해가 주목된다.¹⁸⁾ 다만,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물증자료를

15) 고구려 초기 도읍과 관련된 기록들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것을 참조할 수 있다.(趙法鍾, 2007, 「高句麗 初期都邑과 沸流國研究」 『2007년 한중고구려역사연구학술회의』(발표요지문)

1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1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4, 『五女山城』, 294 ~ 295쪽

통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오녀산성이 초기 고구려의 도성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고고학 자료는 비록 오녀산성이 고구려 초기부터 주민이 거주하였던 것을 증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고구려 이전시기부터 있었던 거주 연속이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녀산성이 최초의 고구려 도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집안지역의 국내성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내성이 고구려시대에 축조되고 사용된 것은 틀림없지만, 언제부터 성이 축조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성벽의 축조과정, 출토유물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

한편 오녀산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10여 km 떨어져 있는 토축성인 하고성자성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비록 오녀산성이 도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평시에도 험준한 산성에서 생활하였을까 하는데서 평지성의 존재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거리상으로 오녀산성과 하고성자성은 평지성과 수비성의 상호 기능을 잘 보완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다. 현재 이 성은 거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성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북성벽이 240m, 서성벽이 170m, 그리고 남성벽이 205m 정도 남아 있지만 동성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장방형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이 성에 대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를 비롯하여 1998년에는 시굴조사가 있었다.¹⁹⁾ 그 결과 성 내부에서는 오녀산성 제3기층과 관련된 고구려시대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특히 성벽 단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성벽의 북단쪽에 설치하였던 16×2m 크기의 Tr 1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성벽 조사에서 중요한 체성부에 대한 발굴로 매우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보고자는 생토층 위에서 3개층(간층 포함 4개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 Tr의 서쪽부분에서 평면이 반타원형인 수혈(?) H1이 주목된다. 토축 성벽의 기저부에 해당하는 제3층을 파괴하고 위치한 이 H1은 길이 1.7m, 너비 1.5m, 깊이 0.5m로 다 발굴되지 않았다고 한다. 갭 내부는 회갈색 흙이 채워져 있고 그 안에 붉은 소토 덩어리를 비롯하여 모래 섞인 회갈색, 회색, 홍갈색의 토기 구연부편이 있었다고 한다. 이 토기편들은 오녀산성 3기층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 상부에 쌓은 토축성이 이 H1갱과 동시이거나 조금 늦은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하고성자성이 고구려 건국초기에 쌓은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H1의 조성시기가 고구려 초기라하더라도 그 위에 쌓여진 토성이 동시기, 혹은 곧 바로 이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성을 쌓을 때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정지작업을 행한다. 따라서 생토면 위에 성벽 축조 시 만들어진 층이 아닌 다른 층이 남아 있다면 양자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좀 더 장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정교한 판축 형태를 한 體城部에서는 아무런 방증자료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럴 경우 또 다른 자료의 출현을 기다

18) 李新全, 2007, 「高句麗 初期都城과 遷移」 『2007년 한중고구려역사연구학술회의』(발표요지문)

1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4, 『五女山城』, 304-315쪽 참조

러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 아직까지 고구려의 성 중에서 평지의 토축성은 일반적이지 않다. 더욱이 고구려 초기에 도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요한 성이라면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補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럴 경우 고구려의 경우 석축, 혹은 토석혼축 등의 방법이 채택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 하고성자성 내에서는 고구려시기뿐 아니라 이전시기의 유물도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遼金時代의 獸面文瓦當, 陶器片 등도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 토축성이 언제 축조되었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은 좀 더 자세한 현지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에 논하여도 늦지 않을 문제인 것 같다.

2. 初期 高句麗 墓制에 대한 調査 成果

인간이 여러 대를 거쳐 삶을 영위한 장소의 곁에서 어김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바로 무덤이다. 오히려 삶의 흔적은 잘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후 세계를 담은 흔적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따라서 오늘날 얻을 수 있는 고고자료 중 절대 다수가 이 무덤에서 수습된 것이다. 이처럼 한 시대의 묘제는 그 시대가 지닌 생활의 축소 모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풍부한 고분의 벽화는 생전의 모습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고구려 무덤이 남아 있는 곳은, 약 400여 년간 도읍이었던 集安地域이다.²⁰⁾ 그 다음이 약 250여 년간 중심지 역할을 한 平壤附近이다. 그리고 桓仁地域이 그 뒤를 잇고 있다.²¹⁾ 이는 그대로 당시 해당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의 전반기에는 積石墓가 그 주류를 이루었으며, 후반기에는 封土(石室)墓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아마도 평양으로 천도한 5세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현상은 뚜렷한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봉토묘는 中原의 영향을 받아 3세기 중엽 무렵부터 고구려 지역에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³⁾ 특히 환인지역에서 확인된 750기의 무덤 중 716기가 적석묘(95%)라는 것은 집안의 그 것(11,300기 중 4,994기가 적석묘로 44%)과 대비된다. 이는 집안 지역이 고구려 전, 후반 전시기 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지역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면, 환인지역은 전반기에 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후반기로

20) 1966년대의 조사 시 알려진 통구고분군에만 10,0782기의 고구려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런데 1997년 재조사시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6,854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2, 『洞溝古墓群 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9~15쪽 참조)

21) 1958년의 桓仁一帶의 9개 鄉, 31개 村, 屯에 대한 조사 시 확인된 무덤은 750기였다. (陳大爲, 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期, 5~10쪽 참조)

22) 적석묘가 평양 천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85쪽.

가면서는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중, 소도시로 전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앞장에서 鴨綠江 中, 上流域, 渾江流域에서 고구려 성립이전부터 적석묘가 축조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적석묘가 이 지역에서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어떤 형태를 띠고 축조되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시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적석묘의 초기 형태가 圓丘形을 띠며 특별한 내,외부 구조가 없는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란 것에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외부구조는 점차 네 변에 단을 만들어 무덤의 평면이 長方形, 혹은 正方形으로 規格化하고 있다. 마침내 각 변을 階段 형태로 여러 층을 안으로 좁혀가며 段을 쌓아 웅장하고 견고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내부구조는 초기의 無壙(無槨) 형태에서 石壙(石槨)으로, 다시 橫穴式石室 구조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축조 기술의 발달과 외래문화의 영향에 따른 변화, 발전의 모습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졸본시기의 고구려지역에서 축조되었을 적석묘를 추론한다면 비교적 초보적인 외형과 내부구조를 지닌 적석묘였을 것이다. 대개 횡혈식 내부구조의 출현은 봉토묘의 보급과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지역에서 횡혈식구조를 지닌 적석묘는 3세기 이후에나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졸본시기에는 수혈식의 내부구조를 지닌 적석묘가 축조되었을 것이다. 외부구조에서 방단이나 계단의 구조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집안 오도령구문에서 발견된 적석묘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적석묘의 구조에서 한 변에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다층 기단구조의 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²⁴⁾ 경사면이라는 지형에 따른 배려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졸본시기에는 적어도 방단이 있는 적석묘는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시기에 2-3층의 기단을 지닌 적석묘의 존재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니 유보토록 하겠다.

환인 부근에서 적석묘의 분포지로 알려진 곳은 다음과 같다. 桓仁 高力(麗)墓子村, 上古城子일대, 楊家街古墳群, 聯合古墳群, 董船營古墳, 大把古墳群, 灣灣川, 大靑溝, 四道嶺子, 川里, 連江, 望江樓, 五道河子, 寨我堡 등지에서 많게는 200-300기가 적게는 수기에서 수 십기가 모여 있다. 通化일대에서는 下龍頭, 公가각, 西山, 高만석, 南頭屯, 江沿, 向陽村地區, 渾江 上流의 七道溝, 龍崗, 西馬鹿泡子, 砬台, 二道河子, 賈家營, 滴台, 大長川, 仙人洞, 葫蘆套, 도연자 등지에서도 알려지고 있다.²⁵⁾ 이 밖에 압록강 중류 연안과 독로강 연안 일대에서 알려진

24) 그러나 최근 이 적석묘를 이른바 ‘方壇階梯積石墓’로 파악하고, 상한을 紀元前3세기말, 하한을 紀元前1세기초로 보고 있다.(孫仁杰, 遲勇, 2007, 『集安高句麗墓葬』, 173-178쪽)

方壇이 있는 적석묘에서 출토되는 ‘明化’, ‘半兩’, ‘大泉五十’, ‘貨泉’ 등의 화폐를 근거로 방단적석묘의 상한 연대를 동한 초기보다 늦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李殿福, 1980, 앞의 논문,)

25) 손수호, 2001,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8-10쪽

余昊奎, 199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21-228쪽

姜賢淑, 2000, 「高句麗古墳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10-211쪽

수 많은 고분군에서 적석묘가 보고되고 있다.²⁶⁾ 이들 중 특히 高麗墓子村古墳群,²⁷⁾ 上古城子古墳群 등지에서 초기 유형의 고구려 적석묘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환인 望江樓지역의 적석묘가 부여쪽과의 관련 등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환인 하고성 자성에서 가깝고 혼강을 끼고 있다. 1974년 발견되었으나, 이미 도굴이 심한 상태로 6기가 1994년 보고되어 알려졌다. 그러나 단 1기에 대한 정황만이 보고되었다. 보고된 출토유물 모두가 4호(길이 10.5m, 너비 9m)의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최근 이 무덤을 고구려 시조 雛牟의 무덤으로 比定하면서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²⁹⁾ 고구려 시조의 무덤이 졸본지역에 있었을 것은 거의 틀림 없다. 문헌에도 후대 왕들이 여러 차례 始祖廟를 찾아 卒本에 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龍山이라는 매장지를 추정하여 始祖王陵을 비정하는 방법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 같다. 첫째, 통상적으로 시조의 무덤은 同時代 다른 무덤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컸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4호무덤은 당시 무덤의 크기로 보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차가 별로 없는 2대 琉璃王의 무덤으로 비정한 집안 우산묘군 JYM0000호, 3대 大武神王陵으로 비정한 마선구 JMM0626호와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다.³¹⁾ 둘째, 시조의 무덤은 처음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의 원시적인 무덤 형식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移葬이 아니라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외부 구조와 주변지역 등을 정비하여 시조릉으로서의 위용을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건립 당시 始祖의 무덤은 石室構造가 아닌 石壙(石槨)의 형태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내부구조는, 移葬하여 再建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제2대 유리왕 이후의 왕릉으로 비정된 적석무덤에서는 예외없이 기와편이 보이고 있다. 고구려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기와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초기 왕릉을 비롯하여 무덤에서 기와편이 확인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집안 將軍墳의 예에서처럼 墓上建築物이나 주변의 祭壇施設 등에 기와가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대의 정비 시

26) 정찬영, 1973, 「기원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5

2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98, 「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積石墓」 『考古』1998-3, 17-22쪽

28) 梁志龍, 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1994-2, 72-78쪽

29) 張福有, 孫仁杰, 遲勇, 2006, 「朱蒙所葬之“龍山”及好太王陵銅鈴“峻”字考」, 『東北史地』2006-1, 20-23쪽

張福有, 孫仁杰, 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 81-85쪽

30) 『三國史記』에 따르면 大武神王 3년 시조인 東明王廟를 세운 기록이 보이고, 이후 여러 왕들이 卒本の 始祖廟에 제사하러 간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시조의 무덤도 졸본에 있었다.

31) 그렇다고 이 왕릉들의 비정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처럼 고구려 왕릉의 위치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 것은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고려해야 할 작업이다. 특히 시조인 추모와 마지막 보장왕을 제외한 모든 왕의 무덤을 집안지역에서 찾으려 한 것은(張福有, 孫仁杰, 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 재고를 요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도록 하겠다.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유독 始祖의 무덤에만 기와가 없다.³²⁾ 후대의 수많은 왕들이 시조의 廟와 무덤에 참배하였다.³³⁾ 어쩌면 시조 무덤이 지닌 상징성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가늠한 한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후대왕들의 참배나 제사 등을 위한 부속 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넷째, 복원된 토기자료를 통해 볼 때,³⁴⁾ 일부 기종의 토기는 手製의 紀元前 1세기의 것으로 보기에 웬지 어색한 점이 있다.³⁵⁾ 망강루 적석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일수록 취급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형을 잃은 유적을 발굴하여 얻은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는 그만큼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초기 고구려 적석묘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편년작업일 것이다. 무덤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적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또한 계급적인 차이 등도 무덤의 구조나 부장유물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적인 구조나 외형을 지닌 적석묘가 모두 초기의 것은 아니다. 환인 일대에서 발견되는 수 백기의 적석묘 중 졸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구분하기란 그래서 쉬운 작업이 아니다. 많은 고분이 이미 인위적인 도굴이나 후대의 경작, 건설 등으로 훼손되어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고구려 초기의 토기 자료에 대한 편년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형이나 육안 분석에 의한 태토의 성분 등을 가지고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다면 졸본시기 적석묘의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IV. 高句麗史에서 卒本時期가 지닌 意義

위에서 살펴본 졸본시기의 고구려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적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혼재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간에 걸쳐 중복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어느 것을 졸본시기의 것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과학적 분석과 방증자료를 필요로 한다. 문헌기록상으로 본 고구려의 졸본시기는 시조 추모왕과 2대 유리왕 대의 일부를 포함하는 불과 40년의 시간으로 규정되어

32) 중국측에서는 고구려 왕릉 비정 시 고려한 사항 중 무덤 위에 기와가 있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 망강루4호에만 기와가 없는 것을 의식하여 이는 건국초로 생산력 수준이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張福有, 孫仁杰, 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 70쪽) 이는 始祖墓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고구려 적석묘 위의 발견되는 기와편이 모두 무덤 조성 당시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후대의 보축이나 정비 시 추가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始祖廟와 무덤은 근거리에 있었을 것이다.

34) 張福有, 2007, 『高句麗王陵統監』, 11쪽

35) 이 유물들은 무덤의 부장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후에 무덤 주변에 반치진 공납물이었을 경우 또 다른 가설이 가능하다.

있다. 그러나 고고학상으로 살펴본 초기 고구려의 모습은 단지 이 짧은 기간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로 천도한 이후에도 졸본은 한동안 중요한 거점이었을 것이다. 특히 시조묘가 있어 여러 왕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일정기간 머물기도 하였던 만큼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환인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무덤 가운데 절대다수가 적석묘라는 사실은 5세기, 즉 평양천도 이후 졸본지역에 대한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국내성 시기에는, 구 都邑으로서의 기득권이 아직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도읍으로 이전하지 않은 구세력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인 雅河鄉 米倉溝에서 1990년대 초 벽화무덤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³⁶⁾ 이 무덤의 피장자는 아마도 환인지역이 어느 정도나마 舊都로서의 힘이 발휘되던 시기의 거의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토착 유력자였을 것이리라. 왜냐하면 그 이후 우리는 환인지역에서 거대한 봉토분이나 벽화고분과 같은 威勢的 상징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舊 首都로서 지녔던 기득권은 집안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인근 거리에 있던 환인은 그야말로 황성옛터가 되어 전략적 중요성도, 정치적 입지도 상실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인지역은 고구려사에 있어 도읍지였던 극히 일부 시간만 역사의 주 무대였으며, 이후 약 400년간은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고구려 성립 이전시기의 중심지로서의 환인일대가 지닌 중요성이다.

이미 살펴본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고구려는 지금의 환인지역인 졸본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고구려의 성립은 이미 그 지역에 기반을 지닌 돌무덤 계통 묘제 - 특히 적석묘 -와 동북아시아 초기금속문화에서도 특별한 지역성을 지닌 선주민 집단과의 연합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부여로부터 이주하였다는 추모집단이 새로운 정치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적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석묘 일색의 배타적 지역성을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⁷⁾ 특히 기원전후 시기 부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 중 묘제상에서 감지되는 가장 변화는 기존의 石棺墓 계통에서 土壙(木棺)墓 계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榆樹老河深 中層의 유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는 현상이다.³⁸⁾ 따라서 비록 고구려 성립의 핵심 세력이 외부의 流移民 집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집단은 土着의 原住勢力이며, 고고학적 문화 양상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 졸본시기를 논할 때는 반드시 국가 성립 이전단계의 고고학적 양상을 함

36) 武家昌, 1994, 「桓仁米倉溝將軍墓壁畫初探」 『遼海文物學刊』 1994-2

37) 환인 땅강루에서 발견된 4호 적석묘의 성격이 부여계통의 유수 노하심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유물상에서 관찰되는 것이며, 유구상에서는 엄연한 차이(積石墓 : 土壙墓)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졸본지역 전체의 문화상을 부여계가 대표한다고 할 만큼의 위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의 조사나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3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1-86쪽 참조

게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최근 고구려 졸본시기를 구분하여 ‘卒本夫餘’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³⁹⁾ 卒本夫餘란 명칭은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등장한다.

百濟의 始祖 溫祖王은 그 부가 雛牟尼, 혹은 朱蒙이라고도 한다. (주몽은) 北夫餘에서 도망하여 卒本夫餘로 왔는데, (卒本)夫餘의 왕은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다. 朱蒙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그의 둘째딸로 아내를 삼게 했다. 얼마 아니하여 (卒本)夫餘王이 돌아가매 朱蒙이 그 位를 이었다.⁴⁰⁾

이는 여러 역사 기록들과 비추어 보아도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 않다. 즉 雛牟(朱蒙)가 부여에서 남하하여 이른 곳이 졸본지역이었고, 그 곳에 이미 선주 정치체가 존재하였다. 그는 이들 先住 정치체의 힘을 빌어 나라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卒本夫餘란 雛牟(朱蒙) 이전 졸본지역에 있었던 정치체의 이름이다. 주몽이 어떤 형태로 왕을 칭하고 국가를 선포하였던지 간에 그는 高句麗의 王이다. 이미 당대 기록인 廣開土王陵碑文에서도 高句麗의 始祖는 雛牟(朱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稱王하여 都邑을 정한 마당에 그 명칭에 졸본부여를 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졸본부여란 명칭을 당시의 정치체가 정말로 사용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붙인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단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부여라는 정치체가 강성하였기 때문에 이곳저곳의 정치체를 지칭할 때 각각의 지역명칭과 어울려 ‘○○夫餘’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기록을 취신한다면 추모는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남하하였다. 그런 그가 굳이 나라를 세운 후에도 적대관계에 있는 부여의 명칭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세에 그 명칭을 부를 때도 역시 이러한 역학관계나 전후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본부여란 명칭은 내적 공통성을 지닌 다른 명칭의 부여를 상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명칭이다. 즉, 한 정치체가 (다른 지역으로 移動하여) 새로 기틀을 다진 경우 (南宋: 北宋, 前漢: 後漢; 朝鮮: 衛滿朝鮮)이거나, 아니면 本國에서 갈라져 나와 독자적 정치체가 아닌 분국으로서의 의미가 강할 때 쓸 수 있는 명칭이다. ‘國內高句麗’나 ‘平壤高句麗’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적어도 추모가 고구려를 선포한 이후의 명칭은 ‘高句麗’ 그 자체이어야 한다.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라면, 고구려가 졸본지역에 도읍을 하여 근거지를 삼았던 시기라는 의미의 ‘高句麗 卒本時期’ 혹은 문맥에 따라 ‘卒本時期의 高句麗’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고학상으로도 분명한 자취와 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한 장으로서의 고구려 초기의 내용과 의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9) 王綿厚, 2005, 앞의 책, (東北史研究資料叢書), 20~24쪽.

王綿厚, 2007, 「桓仁지역의 望江樓積石墓와 卒本夫餘에 대한 試論」, 『2007년 한중고구려역사연구학술회의』~「발표요지문」

劉素云, 2005, 「高句麗의 發祥地 - 卒本川當今何地」, 『東北史地』~2005-6, 32-33쪽

王貴玉, 王珺, 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跡群所在地當即卒本夫餘初居地」, 『東北史地』~2006-6, 43쪽

40) 『三國史記』~권제13, 백제본기 제1 (乙酉文化史 刊 李丙燾 譯註本の 해석을 따랐다)

V. 맺음말

고구려가 지금의 환인지역인 졸본지역에 근거하여 고구려를 세울 무렵 그 일대에는 이미 일정한 정도의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돌무덤 계통의 묘제를 지니고 금속문화를 향유하던 그들은 비록 주변 지역보다는 늦은 출발을 보였지만 빠른 속도로 적응하여 갔다. 지난 십 수 년 전부터 이 시기에 대한 고고학적 실물자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환인지역이 초기의 고구려 근거지임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당시의 모습은 아직도 매우 빈약하다. 백제나 신라의 사정이 비슷하지만, 도성의 위치조차 명확치 않다. 오녀산성의 위용과 자연지세가 돋보이지만, 만족할만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다. 초기 무덤 자료들 역시 명확한 답을 주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몇몇 보고 자료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고구려사는 고구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졸본에 자리한 고구려에 대한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 ‘卒本時期의 高句麗’, ‘高句麗 卒本時期’의 주인공은 당연 고구려이다. 향후의 연구 발전의 척도는 현지에서 진행될 조사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결과물에 달려 있다.

考古资料所体现的卒本时期高句丽文化的性质

池炳穆(国立庆州文化财研究所)

〈目次〉

- 一. 序言
- 二. 考古学上所体现的高句丽建立以前卒本地区考古学状况
- 三. 高句丽初期卒本地区考古学状况
 - (一) 高句丽初期都城及调查成果
 - (二) 高句丽初期墓制调查成果
- 四. 在高句丽史上卒本时期所具有的意义
- 五. 结语

一. 序言

提到高句丽，首先想到的事情之一就是其始祖和建国过程，经过多次激化以致普通人也对此予以较多关注。但如果一反问到其所处的位置和具有的面貌，就逐渐变得混乱了。这是因为我们所熟知的高句丽被雄伟的将军坟和广开土王陵碑所包装，从而模糊地认为高句丽初创时期的面貌也应与此相似。但历史是发展的，会由小变大而后在某个时候无力地消失。似乎不会消亡的高句丽某个瞬间也在历史上湮没了足迹。现在只能凭借其遗迹来想象昔日的强盛。直到19世纪末广开土王陵碑被再次发现以前，它一直都不着边际地被认为是金朝皇帝的陵碑。虽然知道其文字，但对于存在于所失去领土一隅的这一巨大历史纪念遗物，甚至不想了解其所具有的意义而逐渐被淡忘了。

进入本世纪以来，高句丽揭开了新的历史篇章。研究成果多得让人连目录都读不完。其故地上无数的文物资料在等待着新的解释，仅仅凭借以往的史料阐述来探求高句丽的真实面貌是存在局限的。新的解决方法就是当时高句丽人留下的生活痕迹——遗物。由于更多的是破碎、残缺并在岁月流逝中消失，因此粘贴得不对就有可能组成奇怪的图样，这就是考古学文物资料。但能向我们传递无比生动信息的也是这些。

高句丽初期到底是怎样的情况呢？这或许就像想在广阔海洋上驾着独木舟

来画海底的海洋地图那样的行为。不过就算能够驾驭船只的话也是幸运的。现在就梳理卒本地区从而开始描绘高句丽初期面貌的工作。但由于存在着不是以实证和现场调查为依据进行考察的局限，因此对文物资料所体现的本质将尽可能予以充分的阐释。

二. 考古学上所体现的高句丽建立以前卒本地区考古学状况

在对高句丽史进行时期划分时，通常分为前期、中期和后期。这是以高句丽都邑地的变迁为基准而进行的便利划分。在一个国家存在的过程中，迁都是具有极其重要意义的事件。在很多情况下，迁都都伴随着多方面的社会变化，因此就成为了时期划分的重要基准。但高句丽的情况是否适用这样的基准还有待进一步考察的必要。也就是说，单纯地划分为初期(卒本首都时期)、中期(国内首都时期)、后期(平壤首都时期)是否合理还有必要进行探讨。考虑到国内时期和平壤时期所具有的历史重要性和特点，这两个时期的划分是没有什么大问题的。只是卒本时期与其他时期相比，不仅时间短而且能够了解其真实情形的资料也不很丰富。尤其是能够区分以雒牟(朱蒙)势力为代表的高句丽以卒本为根据地建立国家的起点与此前时期文化差异的明确基准也是不充分的。

史书也记载雒牟(朱蒙)到达卒本创立国家基业时，在其周边存在着先住政治势力，这也为考古学资料所证明。这一地区发现了反映公元前1世纪中叶以前情况的考古学文物资料。可以确定比起辽河以东的几个中心地区，这一地区处于相对较晚的金属文化发展阶段。但最晚到战国初、中期(公元前5-4世纪)以后，这一地区与金属器相伴的新的物质文化也得到了普及。这也意味着这一地区具备了新的政治势力能够登场的条件。因此，就要必要关注此时高句丽出现开始直到掌握该地区霸权的这一时期的状况。

要找到卒本地区从何时开始传来金属文化的确切资料是很难的，只能通过周边地区的变化状况进行类推。尤其是如果其发展阶段与周边地区不一致，那么就可以在诸多方面确认其不同点。因此，为了阐明卒本地区初期金属文化的状况，首先就有必要了解周边地区文化变动的情形。

众所周知，辽河以东的初期金属文化(=青铜器文化)¹⁾呈现出以琵琶型铜

1) 本文中金属器普及以后时代的特点单纯是其主要金属材质为基准，将以往分类的青铜器时代、铁器时代代之以初期金属器时代(以往的青铜器时代)和后期金属器时代(以往的铁器时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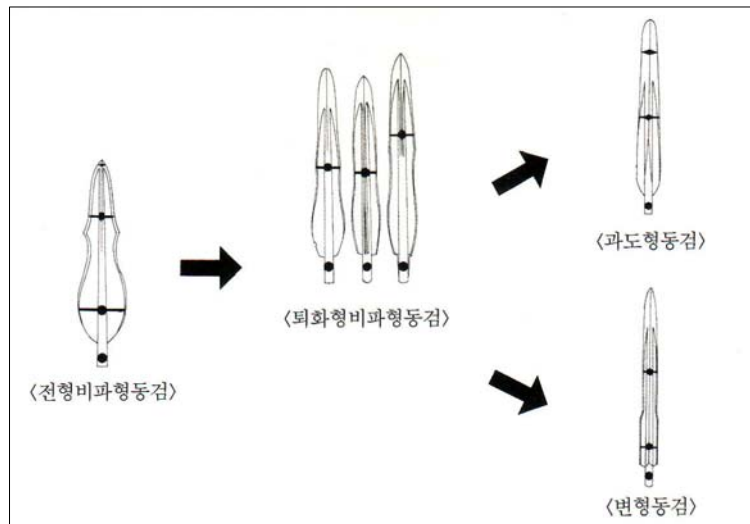
剑(辽宁式铜剑或曲刃短剑)为代表的样相。这种文化尤其与辽河以西的下家店上层文化有着密切的联贯关系。以琵琶型铜剑作为标志性遗物来考察辽河以东的初期金属文明,就可以发现前期和后期的明显变化。即可以划分为保持典型琵琶型铜剑形态的前期阶段和铜剑形态有所变化或变形的后期阶段。这些变化不仅仅在铜剑的形态上可以看到,通过发现铜剑的遗构,即大部分墓葬的随葬品以及墓制也可看到。虽然存在地区性差异,但前期墓制大致是以石墓为主流。辽东半岛南端的积石墓便是如此,周边地区则主要是在石棺墓和支石墓等遗迹中出土的。因此,这一时期琵琶型铜剑的持有者主要应是石墓系统文化的持有者。这与辽西以西地区琵琶型铜剑的出土状况有着诸多方面的差异。不仅是出土墓制的形式,就连共伴的遗物也存在着差异。²⁾大致在辽河以东与琵琶型铜剑有关的遗构中所确认的遗物组合与以西地区相比虽然相对匮乏,但共伴的中原遗物较少也可以说是其一大特点。

另外,后期的状况表现出不同的情形。就铜剑的形态而言,下端的曲线部相当钝化,最终呈现出接近直线的形态。有一部分则是虽然锋部直线化,但下段部连接段时变宽,呈现为变形铜剑的形态。在有些遗址中还发现伴有铁器。出土的遗构也是从以前时期石墓简化而来的石墓(简化积石墓、石棺墓等),或变化为土墓(土圻(木棺、木椁)墓)系统。特别是辽东半岛等地的具有集团墓葬性质的典型积石墓,在战国初期以后依托辽河以西的东渐势力呈现出分化的态势。其中一部分沿着黄海北部沿岸(长山海峡等地)向东移动过程中留下的遗迹或许就是简化的积石遗迹。³⁾最终沿着鸭绿江下游逆流而上抵达中、上游流域,与那里土著的石墓系统墓制相融合,这或许就是这一地区积石墓墓制出现的背景。⁴⁾

2) 辽西地区的琵琶型铜剑主要发现于石椁墓或土圻(木椁)墓系统。

3) 反映这些遗迹的有凤城下陈家、宽甸泡子沿、赵家堡、四平家、岫岩西房身遗址等(参阅许玉林、王连春:《丹东地区出土的青铜短剑》,《考古》1984年4期)。虽然这些大部分由于不是正式发掘而使其构造不明确,从而难以将其看作是积石墓。但在报告的情况中存在着与积石墓相关遗构的可能性,这里出土的铜剑在笔者的分类上属于后期型的退化形琵琶形铜剑或过渡形铜剑,处于从典型琵琶形铜剑向变形铜剑变化的过程,在地区上位于中间渐移地带。(参阅池炳穆:《高句丽建立期考古学的背景——以墓制的变化为中心》,《高句丽国家形成》,高句丽研究财团研究丛书)1,2005年,74~80页)。

4) 池炳穆:《辽东半岛与鸭绿江中、下游地区积石墓的关系——试论高句丽积石墓的起源》,《史学研究》53,1997年,3~32页。



在鸭绿江、浑江流域所确定的初期金属文化可以延续到前文所提阶段中的中后期，这可与附近抚顺、清原等地确定为初期金属文化前期阶段的遗址形成对比。如前所述，这些事实意味着这些地区呈现出相对较慢的发展变化。

迄今所发现的鸭绿江中、上流域、浑江流域金属文化有如下特点。大致在石墓系统的遗址中会出土过渡形或变形铜剑、蜘蛛网纹样的铜镜，同时还伴随有2~3件以上的青铜斧、柳叶形铜铍等物品。桓仁县大甸子石棺墓、⁵⁾ 集安五道岭沟门积石墓⁶⁾ 等即如此。邻近的通化万发拔子遗址第3期层、⁷⁾ 英布戈乡小都岭⁸⁾ 等地遗物也具有相似性质。最近在桓仁县四道河子乡墓葬中出土了琵琶形铜剑(辽东式曲刃青铜剑)和长矛等遗物，保管于桓仁县文管所。⁹⁾ 由于只报告石墓的随葬品属于春秋末期至战国时代，因此对于其形态和遗构情况等还无从详细了解。从其年代为春秋末—战国时期来推测，或许应是属于铜剑前期阶段的典型琵琶形铜剑。其中有必要关注集安五道岭沟门积石墓。对该遗址虽然还存在着一些问题，但值得关注的是积石墓中随葬有变形铜剑，而且随葬品中发现的青铜制品与上述遗址的青铜制品非常相似，较好地反映了这一地区金属文化遗址的特点。从目前的研究成果来看，将该积石墓的编年断定为高句丽建立以前，学者们的观点似乎是一致的。¹⁰⁾ 这就意味着高句丽

5) 梁志龙、王俊辉：《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博物馆研究》1994年2期。

6)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发现青铜短剑墓》，《考古》1981年5期。

7) 国家文物局主编：《吉林通化万发拔子遗址》，《1999中国重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1。

8) 满承志：《通化县小都岭出土大批石范》，《博物馆研究》1987年3期。

9) 王绵厚：《高句丽与濊貊研究》，2005，第41页。

建立以前在鸭绿江中、上游流域就已经建造带有方坛的积石墓了。

最近不仅在鸭绿江中、下游、浑江和富尔江流域，而且在附近的太子河和苏子河上游也发现了很多具有类似性质的初期金属文化遗址。鉴于此，有观点认为这些遗址具有相同的文化渊源，而且与后来的高句丽初期文化也有着密切联系。¹¹⁾ 应是值得重视的观点。尤其这些地区是高句丽建立后很快就被兼并、融合的地方。只是对于这一地区发现的积石墓、支石墓、大石盖墓、石棺墓是否可以归结为同一文化渊源，以及包括所谓二河流域(太子河和苏子河)在内的广大领域的建造集团之间存在着怎样的关系等还需要进一步研究。因此有必要关注最近在这些地区发现较多的石棺墓遗址。通常石棺墓墓制是四壁用板石或块石堆砌成放置尸体的空间。但对于这里发现的石棺墓是否具有这种形态，或者与以往的石棺墓有着怎样的差异还需要进行明确的区分。如果积石中安置尸体的空间是石棺，就应与以往的石棺墓有所区分。由于大部分因耕作或其他原因而处于毁损状态，因此稍有不慎就可能对了解遗构原来的样子有所疏忽。对于已发掘的遗址，不仅是其具体情况，还有对遗物出土脉络等过于疏略整理和报告的情况较多，因此还要期待更多的调查结果。

从目前的成果来看，鸭绿江中、上游和浑江流域应传入了比周边地区要晚些阶段的金属文化，确立了石墓系统的墓制——尤其是积石墓，并且形成了小规模的政治势力。他们后来与以朱蒙(朱蒙)为代表的移民集团相融合，成为建立高句丽的主体。因此，我们将高句丽建立前以鸭绿江中、上游和浑江流域为中心形成独立文化领域，后来又成为高句丽建立核心(或原型)的政治势力的联合称为原高句丽(Proto-Koguryo)。¹²⁾ 其时期应是从这一地区开始接受金属文化将积石墓作为其主要墓制到高句丽建立为止。¹³⁾ 在领域方面与初期积石墓的分布地区没有大的差异。只是这一地区的调查成果在不断增加，其时间上和领域上的范围会多少有所增减。

10) 王绵厚：《高句丽与濊貊研究》，《东北史研究资料丛书》，2005年，第39页；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第55页。

11) 王绵厚：同上书，第37～50页。

12) 池炳穆：《高句丽成立过程考》，《白山学报》34号，1987年。

余昊奎：《1-4世纪高句丽政治体制研究》，首尔大学博士学位论文，1997年。

13) 即使这一地区在积石墓之外还存在使用石棺墓、大石盖墓等其他墓制的痕迹，但基本上积石墓这一墓制在高句丽前半期为主要墓制并形成单一化。这意味着从夫余南下的朱蒙集团即使以石棺墓为其主要墓制，但到达这一地区后便同化为积石墓了。从而反映了当时在分布着积石墓的这一地区中的位置。

三. 高句丽初期卒本地区考古学状况

如前所述,在雒牟(朱蒙)势力南下至卒本地区建立国家之前,这一地区已有多支政治势力的文献记载,通过考古学资料证实是接近事实的。那么值得关注的就是高句丽建立后的考古学情况与此前时期表现出怎样的不同。前期政治势力是拥有小规模领域和人口的集团,他们生前的居住地或死后埋葬的目的应不太大和华丽。前期遗址大部分都是在遗留着零散或较少随葬遗物的情况下被发现的,或许就反映了这种情况。但在建国称王的情况¹⁴⁾下,所遗留的文物资料与前期有着明显的差异。尤其对外宣布国王的存在,进而作为与建国相伴行为的修筑都城和宫阙以及具有象征身份性质器物的存在几乎都是必需的。这些即使不是全部也会有相当部分作为文物资料留给我们。高句丽也在建国后修筑了城郭、宫阙,为王和贵族修建的坟墓也与前期具有不同的规模,墓葬内的随葬品也更加多样和高级。在此将考察高句丽在卒本地区建国后,为了体现国家面貌而进行了怎样的活动,这些又是怎样通过考古学得以体现的。

(一) 高句丽初期都城及调查成果

高句丽最初定都的地方是现在浑江沿岸的桓仁一带,对此国内外学界几乎已成定论。虽然时间不长,但作为一国都城所在地的桓仁与其他地区相比还是具有地理优势的。通过目前遗留的文物资料来看,在被确定为都城所在地方面也是处于有利位置的。即它位于浑江和富尔江汇合之处,具有丰富的水资源和水路交通便利,而且广阔的平原也提供了适于人们生活的自然条件。目前这里所遗留的高句丽初期积石墓和遗址仅次于集安。如前所示,朱蒙势力在这里定都前已存在有先住民集团,他们所遗留的考古学资料也在多处得到了确认。因此对于初期纥升骨城到底位于哪里的问题还存在着众多分歧。以桓仁周边发现的城址为中心,提出了五女山城说、下古城子城说等观点。¹⁵⁾其中位于现在桓仁县城东北8.5km处五女山上的山城作为有力的候补者而受到关注。

极其适合作为都城而受到关注的五女山城也因符合古史记载而成为适合的对象。从广开土王陵碑文中“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的记载来看,也是在山上建立根据地的。因此,五女山城很早就受到了关注。1996-1999年、2003年对该山城进行了大规模的发掘调查并出版了详细报告。¹⁶⁾虽然存在着

14) 还无从确定高句丽是从何时开始称王的,但从王莽将高句丽王降称为下句骊侯来看,应该与对外宣布建国是同时的。

15) 对高句丽初期都邑及相关记载的整理可参阅下文。赵法钟:《高句丽初期都邑与沸流国研究》,《2007年韩中高句丽历史研究学术会》(发表论文提要),2007年。

大部分发掘报告为单篇且只介绍部分内容的遗憾,但该书还是很令人鼓舞的。对于调查内容的详细探讨已多次进行,故在此不予提及。只是如果从较多地区所发现的遗物来看,大部分与其说是高句丽初期的遗址,倒不如说是稍晚的后期遗址。在山顶部发掘的5个区域的遗址引人注目。根据对该处的调查,可以确定5个层位的遗址。即作为新石器文化层的第1期层、体现金属文化的第2期层、确定为高句丽时代的第3期层、作为渤海时期遗址的第4期层和金国时期的第5期层。特别是在第2期层中发现了似乎是仿制于铜剑的磨制石剑片。这种仿制石剑的存在较好地反映了这一地区作为不很丰富的金属遗物替代品的石材遗物占比重较大的特有金属文化状况。值得关注的是第3期层高句丽时期的情况。竖穴式居住址、础石建筑址、参杂有砂石和云母或滑石的灰褐色、黄褐色的陶器等都体现了高句丽的特征。但在这次发掘中也没有找到能够证明五女山城起到卒本时期都城作用的决定性证据。作为石筑城,虽然可以确定五女山城比高句丽的其他山城在筑造方法上具有原始性,¹⁷⁾但还没有发现可以将目前残存的城墙确定为最早筑造于3世纪以前的考古学依据。鉴于此,有观点认为即使没有城墙,将具有天然要塞作用的山顶部与山下城墙部分的作用分离,由此反映了使用年代的先后差异。¹⁸⁾只是这种观点要想具有说服力就需要更为缜密的物证资料来论证。

由此看来,五女山城作为初期高句丽都城的可能性是很大的。但目前发现的考古学资料虽然能够证明五女山城从高句丽初期开始就有居民居住,同时也提示着高句丽以前时期开始居住的可能性。因为,为了确定五女山城作为高句丽最初都城的所在,就应进行更广泛的调查和研究。这一点对集安地区国内城也是同样适用的问题。虽然国内城确切无疑是高句丽时期修筑和使用的,但筑城从何时开始的问题并不简单。尤其是对城墙的筑造过程、出土遗物等还需要科学的分析。

与此同时,对距五女山城西南约10多公里的土筑城下古城子城的关注也不少。虽然五女山城是都城的可能性很大,但是否平时也会生活在险峻的山城中,由此平地城的存在就受到了关注。但从距离来看,五女山城和下古城子城似乎并不能很好地行使平地城与守备城的相互作用。现在该城大部分坍塌,如果不仔细观察就很难发现其遗迹。虽然北城墙残留240m,西城墙残留170m,南城墙残留205m,但东城墙却没有被发现,或许应该呈长方形。以前曾对该城进行过多次实地调查,1998年则进行了试掘。¹⁹⁾结果在城内部发现了与五

16)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编:《五女山城》,文物出版社2004年。

17)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编:《五女山城》,第294~295页。

18) 李新全:《高句丽初期都城与迁移》,《2007年韩中高句丽历史研究学术会》(发表论文提要),2007年。

19)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编:《五女山城》,2004年,第304~315页。

女山城第3期层相关的高句丽时期的遗物。特别值得关注的是，为了确认城墙截面而在西城墙北端设置的大小为16×2m的Tr1(探沟)而得出的结果。这是城墙调查中对重要的城体部的发掘而引人关注的部分。调查者称在生土层上方发现了3层(包括间层则为4层)。值得关注的是位于Tr西部平面为半椭圆形的竖穴(?)H1(1号房址)。破坏相当于土筑城墙地基部分的第3层而建的H1为长1.7m, 宽1.5m, 高0.5m房址, 据说还没有全部发掘完。坑内都是灰褐色的泥土, 其中发现了参杂着红烧土块和沙子的灰褐色、灰色、红褐色陶器口沿部残片。这些陶器片被认为与五女山城3期层中出土物一致。据此认定其上部所筑土城与H1是同一时期或稍晚时期的。因此下古城子城应是高句丽建国初期修筑的。即便H1的建造时期是在高句丽初期, 但也存在着可以认为其上部所筑土城属于同一时期或以前时期的可能性。不过如此断定还是有些武断。通常在筑城时, 为了打地基会进行整地作业, 因而如果不是在生土层上筑城所留下的土层而是其他土层, 那么两者之间的时期差异就有可能更长些。况且在精巧的板筑形态的体城部也没有发现任何可以反证的资料。这就要期待其他资料的出现来得出结论了。到目前为止高句丽城中平地土筑城并不普遍。而且如果是在高句丽初期起到都城作用的城, 那么以后就应会有多次的补筑。在这种情况下高句丽或许采用了石筑或土石混筑等方法。下古城子城中不但发现了高句丽时期的遗物, 还发现了以前时期的遗物。不仅如此, 还出土了辽金时代的兽面纹瓦当、陶器片等文物。因此, 对该土城筑于何时并开始使用的问题, 在更详细的实地发掘调查以后进行讨论也为时不晚。

(二) 高句丽初期墓制调查成果

在人们历经几代所生活的场所附近一定能够确认的另一种遗迹之一就是墓葬。虽然生活痕迹大多难以保留, 但承载死后世界的遗迹却保留得较好。因此目前所获考古资料中的绝大多数都是在墓葬中发现的。一个时代的墓制就是作为当时生活的缩小模型而遗留下来的。高句丽也不例外, 其中后期出现的丰富的墓葬壁画就是反映生前生活的珍贵资料。

目前保留高句丽墓葬最多的地方就是作为其都城400多年的集安地区,²⁰⁾ 其次就是起到中心作用约250余年的平壤附近, 而后便是桓仁地区。²¹⁾ 这如实地反映了当时各地区所具有的地位。众所周知, 高句丽前半期积石墓构成了主

20) 仅1966年发现的洞沟古墓群就分布着100782座高句丽古墓。但根据1997年再此调查所确定的资料, 则保留有6854座(参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编著:《洞沟古墓群1997年调查测绘报告》, 科学出版社2002年)。

21) 1958年调查桓仁一带9个乡、31个村屯, 确定墓葬为750座(参考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 《考古》1960年1期, 第5~10页)。

要形式，后半期封土(石室)墓取而代之。估计在迁都平壤的5世纪前后这种现象发生了明显变化。²²⁾ 封土墓是受中原影响从3世纪中叶开始出现在高句丽地区的。²³⁾ 特别是桓仁地区发现的750座中有716座为积石墓(95%)，与集安(11300座中4994座为积石墓，占44%)形成了对比。这表明集安地区在高句丽前、后整个时期都占据着重要的地位。反之，这也意味着桓仁地区虽然在前半期占据了重要地位，但到后半期则几乎失去作用而沦为中、小之城。

前文已指出鸭绿江中、上游和浑江流域在高句丽建立以前就开始修建积石墓。关注的焦点是这一地区修建积石墓到底是从什么时候开始的，又是以什么形态修筑的，以及如何发展的。对这一问题国内外诸多学者进行研究并取得了丰硕成果。认为积石墓的初期形态是从呈圆丘形且没有特别内外部构造的简单形态开始的观点也基本是一致的。另外，外部构造逐渐在四边修筑台阶，墓葬平面规整化为长方形或正方形。最后各边以阶梯形态诸层向内收缩筑段，从而具备了雄伟而坚固的形态。内部构造则从初期的无圻(无椁)形态向石圻(石椁)，再向横穴式石室构造发展。这些都是随着时间流逝受筑造技术进步和外来文化影响而出现的变化和发展。

考虑到这些，那么卒本时期高句丽地区修筑的积石墓可估计应是具有初步外形和内部构造的积石墓。横穴式内部构造的出现与封土墓的普及可在同一脉络中予以考察。因此，高句丽地区具有横穴式构造的积石墓应是从3世纪以后开始普及的。那么卒本时期就应修筑了具有竖穴式内部构造的积石墓。可是外部构造上的方坛或阶梯构造是何时出现的呢？如前所述，在集安五道岭沟门发现的积石墓为此提供了重要的线索。以该积石墓构造中只有一边为方坛作依据，还很难认为出现了多层阶梯构造。²⁴⁾ 墓葬是沿着倾斜的地形排列的，因此卒本时期很有可能修建了具有方坛的积石墓。这一时期存在具有2~3层阶梯的积石墓也不是不可能的，但由于缺乏充分的证据而只能有所保留。

桓仁附近积石墓的分布地有桓仁高力(丽)墓子村、上古城子一带、杨家街古墓群、联合古墓群、董船营古墓、大把古墓群、湾湾川、大青沟、四道岭子、川里、连江、望江楼、五道河子、寨我堡等地，发现了多至200~300座，少则数座至十几座古墓。在通化一带的下龙头、西山、南头屯、江沿、向阳村地区，浑江上游的七道沟、龙岗、西马鹿泡子、砬台、二道河子、贾家营、滴台、大长川、仙人洞、葫芦套等地也有发现。²⁵⁾ 此外，在鸭绿江中游沿岸和秃鲁

22) 估计积石墓在迁都平壤后也持续建造了一段时期。

23) 李殿福：《集安高句丽墓研究》，《考古学报》1980年2期。

24) 最近将积石墓称谓“方坛阶梯积石墓”，认为其上限为公元前3世纪末，下限为公元前2世纪初。(孙仁杰、迟勇，《集安高句丽墓葬》，第173~178页)

25) 孙秀浩：《高句丽古墓研究》，社会科学出版社2001年，第8~10页。

余昊奎：《1~4世纪高句丽政治体制研究》，首尔大学博士学位论文1997年，第

江沿岸一带发现的众多古墓群中也有积石墓。²⁶⁾ 其中高丽墓子村古墓群、²⁷⁾ 上古城子古墓群等地确认了初期类型的高句丽积石墓。

最近桓仁望江楼地区的积石墓由于与扶余族有关而为人们所关注。这里与桓仁下古城子城很近而且还依托着浑江。虽然发现于1974年,但由于盗掘严重1994年报告时有6座,并且只对1座的情况进行了报告,出土遗物都应出自于4号(长 10.5m,宽9m)墓中。²⁸⁾ 最近将该墓葬比定为高句丽始祖雒牟的墓并重新加以审视。²⁹⁾ 毫无疑问高句丽始祖的墓应在卒本地区。因为文献上也有后世王多次到卒本祭祀始祖庙的记载。³⁰⁾ 将称作龙山的埋葬地推测来比定始祖王陵的方法也有合理的一面。但这里需要指出不容忽视的几点。第一,通常始祖的墓要比同时期其他墓葬规模更大些。对此从当时墓葬的大小来看,4号墓的规模并不小。但与没有多少时间差异的被推定为第2代王琉璃王墓的集安禹山古墓群JYM0000号和第3代王大武神王陵的麻线沟JMM0626号相比却过于简陋;³¹⁾ 第二,如果一开始就建造了始祖墓,那么随后也应有一定的整备和管理。因此也有可能没有保持最初墓葬的形式。不过内部构造,如果不是移葬,就不会有很大的变化,而只是修整了外部构造和周围地区以保存始祖陵的威容。因此,建造当时的始祖墓应是石圻(石椁)形态,而不是石室构造。如果没有移葬再建,这样的内部构造是很有可能保持原样的;第三,在被推定为第2代王琉璃王以后的诸王陵墓的积石墓中无一例外地都发现有瓦片。虽然无从了解高句丽从什么时候开始使用瓦当,但在初期王陵等墓葬中发现瓦当却是可能的,因为就象将军坟那样,墓上建筑物或周围的祭坛设施等就使用瓦当,而且后世进行修整时也有可能增设。但唯独始祖的陵墓没有瓦当。³²⁾ 后世的很多王都参拜过始祖庙和陵墓。³³⁾ 或许这是由于始祖墓所具

221~228页。

姜贤淑:《高句丽古墓研究》,首尔大学博士学位论文2000年,第210~211页。

26) 郑灿永:《至公元4世纪时高句丽墓制研究》,《考古民俗论文集》5,1973年。

27)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等:《辽宁桓仁县高丽墓子高句丽积石墓》,《考古》1998年3期,第17~22页。

28) 梁志龙、王俊辉:《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博物馆研究》1994年2期,72~78页。

29) 张福有、孙仁杰、迟勇:《朱蒙所葬之“龙山”及好太王陵铜铃“峻”字考》,《东北史地》2006年1期,第20~23页。

张福有、孙仁杰、迟勇:《高句丽王陵通考》,2007,第81~85页。

30) 根据《三国史记》记载,大武神王三年立始祖东明王庙,以后又可看到多位王到卒本祭祀始祖庙的记载。因此始祖的墓应在卒本。

31) 并不是说这些王陵的推定都是正确的。确定高句丽王陵位置是很有意义的必要工作。但这应是从正确的依据来着手考虑的工作。特别是试图在集安地区寻找除始祖雒牟和末王宝藏外的所有王的墓葬(张福有、孙仁杰、迟勇:《高句丽王陵通考》)就有必要重新考虑。对此将另外著文予以论述。

32) 中国方面在确定高句丽王陵时所考虑事项之一就是王陵墓上有瓦片作为重要条件。

有的象征性而力图尽可能保持其原貌。即使如此也应存在着为后世诸王的参拜或祭祀而设置的附属设施；第四，通过夏原的陶器来看，³⁴⁾ 将一些器种的陶器确定为公元前1世纪手制的器物似乎有些牵强。³⁵⁾ 望江楼积石墓是极为重要的资料，但越是对待重要的资料就越要更加慎重。因为在解释通过发掘而失去原貌的遗址资料时，总是伴随着与此相应的困难和限制。

在研究初期高句丽积石墓方面极其困难的一点就是编年工作。虽然墓葬的外形和内部构造是反映时间变化的决定性依据，但阶级差别等也对墓葬构造或随葬品产生影响。因此具有最初构造或外形的积石墓并不一定都是早期的。在桓仁一带发现的数百座积石墓中区分卒本时期修建墓葬的工作并非易事。很多古墓已经由于盗墓或后世耕作、建设等而遭到毁损并失去原来的样子。特别是对高句丽初期陶器资料的准确编年工作应切实进行，仅仅依靠通过器形或肉眼分析而得出的胎陶成分等是不能获得确切资料的。今后对这一部分的调查和研究如果得以进行，则卒本时期积石墓的研究将会进一步有所推动。

四. 在高句丽史上卒本时期所具有的意义

描绘前述卒本时期高句丽的面貌并非易事。因为大部分遗址都超越时间而混在一起，在某种情况下经历数十或数百年而被重复使用。确定其中哪些属于卒本时期的就需要众多科学分析和旁证资料。从文献来看，高句丽卒本时期只包括始祖雒牟王和第2代琉璃王部分时期的不过40年时间。但从考古学来看，则可确定初期高句丽的面貌并不能用如此短的时期来考察。即使迁都国内以后，卒本在一段时期内也还应是重要的地方。特别是由于存在始祖墓，很多国王多次出巡甚至还停留一定时期，因而具有重要的政治意义。桓仁地区发现的高句丽墓葬绝大多数都是积石墓的事实，或许说明了5世纪，即迁都平壤以后卒本地区地位相对降低了。也就是说，在国内城时期，这里作为旧都邑的权力还依然存在，没有迁移到新都的旧势力还留在这里掌握着权力。1990年代初桓仁雅河乡米仓沟因发现壁画墓而受到关注。³⁶⁾ 该墓的被葬者或许属

但确认惟独望江楼4号墓没有瓦当并解释为是由于建国初期生产力水平的低下(张福有、孙仁杰、迟勇：《高句丽王陵通考》，第70页)。不过这却没有考虑到始祖墓的特殊性。而且高句丽积石墓上发现的瓦片并不一定都是墓葬建造当时的，也应考虑到后世补筑、修整时增设的情况。

33) 始祖庙和陵墓距离应较近。

34) 张福有：《高句丽王陵统览》，2007，第11页。

35) 这些遗物虽然很有可能是墓葬的随葬品，但如果是后来放置在墓葬周围的供物的话，那么其他假设也是可能的。

36) 武家昌：《桓仁米仓沟将军墓壁画初探》，《辽海文物学刊》1994年2期。

于桓仁地区还作为旧都发挥作用时期的最后阶段的土著有权势者。因为此后我们已很难在桓仁地区发现巨大的封土墓或壁画墓那样的威武象征物了。高句丽迁都平壤以后，作为旧都所具有的权力转移到了集安地区，位于附近的桓仁成为了皇城故土，丧失了战略重要性和政治地位。如果考虑到这些情况，认为桓仁地区在高句丽历史上只有作为都城的极短时期才是历史的主要舞台，以后约400年则处于次要地位的评价并不为过。但这里存在着不容忽视的时期，就是高句丽建立以前作为中心地区的桓仁所具有的重要性。

根据已调查的考古资料，高句丽是在现今桓仁地区建国的。不过高句丽的建立是通过与拥有这一地区石墓系统——尤其是积石墓和在东北亚初期金属文化中也具有独特地域性的先住民集团相融合而进行的。从扶余迁移来的雒牟集团只不过是以新政治体的主人公登场的，既有的文化并没有发生什么变化。对此可从积石墓反而更强地表现出清一色的排他地域性而得到证实。³⁷⁾ 公元前后扶余地区的文化特点中，在墓制上可以感知的明显变化就是从以往的石棺墓系统向土圹(木棺)墓系统变化。这是在榆树老河深中层遗构中也能得到确认的现象。³⁸⁾ 因此即使建立高句丽的核心力量是外部的流移民集团，但其主要集团还是土著的原住势力，考古学文化状况也证明了这一点。由此看来，在探讨高句丽卒本时期时，应将国家建立以前时期的考古学状况一并予以考虑的原因即在于此。

最近出现了划分高句丽卒本时期而称之为“卒本夫余”的倾向。³⁹⁾ 卒本夫余这一名称出现在《三国史记·百济本纪》中。

百济始祖温祚王，其父邹牟，或云朱蒙。自北夫余逃难，至卒本夫余。夫余王无子，只有三女子，见朱蒙知非常人，以第二女妻之。未几夫余王薨，朱蒙嗣位。⁴⁰⁾

这与其他诸历史记载相对照也没有大的差异。雒牟(朱蒙)从夫余南下到达的地方就是卒本地区，那里已经存在有先住政治势力。可以说他是凭借着这

37) 需要关注的是，桓仁望江楼发现的4号积石墓的性质与扶余系统的榆树老河深等遗址具有相似性。但这只是从遗物上观察到的，而在遗构上却存在着俨然的差异(积石墓：土圹墓)。而且卒本地区的整个文化状况并不具有能够代表扶余系的实力。这是需要通过以后增加的资料调查或研究予以阐明的问题。

3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榆树老河深》，文物出版社1987，第11~86页。

39) 王绵厚：前揭书(东北史研究资料丛书)，2005，第20~24页。

王绵厚：《试论桓仁地区望江楼积石墓和卒本夫余》，《2007年韩中高句丽历史学术会》(发表论文提要2007年)。

刘素云：《高句丽的发祥地——卒本夫余当今何地》，《东北史地》2005年6期，第32~33页。

王贵玉、王琚、王志敏：《通化沿江遗址群所在地当即卒本夫余初居地》，《东北史地》2006年6期，第43页。

40) 《三国史记》卷第13，百济本纪1(依据乙酉文化史刊，李丙焘译注本)

些先住政治势力的力量建立国家的。因此卒本夫余应是雏牟(朱蒙)以前存在于卒本地区政治势力的名称。不管朱蒙是以怎样的形态称王并宣布建国的,他都是高句丽的王。作为当时记载的广开土王陵碑文也明确指出高句丽的始祖就是雏牟(朱蒙)。在已经称王并定都的情况下,将国家名称定为卒本夫余是不合理的。卒本夫余这一名称是当时的政治势力真正使用过的名称,亦或是后世之人使用的还不很明确。只是在当时东北亚由于夫余政治势力的强盛,因此在指称各地政治势力时可能与各自的地区名称相结合而称之为“○○夫余”。如果采信历史记载,则雏牟是为夫余难容而南下的,因此他在建国后是不会使用处于敌对关系的夫余名称的。后人在使用这一名称时也有必要考虑这种力量关系或前后脉络,而且卒本夫余有可能是把具有内部共性的其他夫余名称在提升状态下使用的名称。也就是说,是某个政治势力(迁移到其他地区)确立新的立足之地(南宋:北宋,前汉:后汉,朝鲜:卫满朝鲜),或从本国分立出来还没有成为独立政治势力但又强调本国含义时所使用的名称,就如同“国内高句丽”或“平壤高句丽”都是不相称的。因此雏牟宣称建立高句丽以后的名称要与“高句丽”本身相联系。如果是为了更加明确的划分,那么就应在高句丽定都卒本地区并以其为根据地时期的意义上称之为“高句丽卒本时期”,或者依据文句称为“卒本时期的高句丽”。惟有如此才能正确评价在考古学上能够确定其发展和足迹的作为历史一页的初期高句丽的历史和意义。

五. 结语

在高句丽以现今桓仁地区的卒本为根据地建国之时,那一带已经形成了一定程度政治势力得以发展的基础。实行石墓系统的墓制和拥有金属文化的这些政治势力虽然比周边地区起步要晚,但却以很快的速度对此加以适应发展。过去的十几年来对这一地区的考古学文物资料也在逐渐有所增多。

毫无疑问,现在桓仁地区就是初期高句丽的根据地。但我们所获知的当时情况还是非常匮乏的。虽然与百济和新罗的情况相似,但却连都城的位置都还不明确。五女山城的雄伟和自然地势虽然很突出,但却没有给出令人满意的答案。初期墓葬资料对于给出明确答案也依然存在不足。尤其可惜的是目前所发现资料的详细而准确的信息。在这方面最近一些报告资料具有非常值得肯定之处。

高句丽史应从高句丽的层面出发进行研究。只有这样才能更为正确地描绘出立足卒本的高句丽的真实面貌。“卒本时期的高句丽”、“高句丽卒本时期”的主人公当然就是高句丽。今后研究发展的尺度就取决于目前所进行的调查及其客观而严谨的研究成果。

04

高句丽早期文化比较研究

姜维公（长春师范学院）

高句丽早期文化比较研究

姜维公 (长春师范学院)

〈目次〉

- 一. 高句丽文化与夫余、汉文化的比较
- 二. 高句丽与同期东胡族、肃慎族的比较
- 三. 结论

按照笔者的观点，高句丽在沸流水流域建都时期是高句丽与百济共有历史时期，高句丽迁都丸都山下始是其真正建国的开始，故二者皆可视为高句丽早期。最早记载高句丽历史的《魏略》、《三国志》中所描写的高句丽文化泰半是高句丽迁都后的文化。如果从史源学的角度来考虑，同时剔除不太可靠的传说纪事部分，其文化可以分为三个部分，一部分是因为高句丽出自夫余而所继承的夫余文化；一部分是高句丽是在汉郡县下成长起来的而继承的汉文化；一部分是高句丽受自然环境限制而特有的文化。而在东北三族系中，濊貊族的文化程度独高于其他二族系，我们也可能通过高句丽与肃慎、乌桓的文化比较证明此点。

一. 高句丽文化与夫余、汉文化的比较

高句丽文化与夫余、汉文化的共通性在它们都是建立农业社会基础上，而且夫余是较早从内地迁到东北的，其文化与汉文化同出一源；而高句丽源出夫余，又久在汉郡县管理之下，夏建国在汉四郡之地，容纳了大量汉族移民，故受汉文化亦颇显著。¹⁾ 而受自然环境局囿，夏与游牧、山林民族毗邻，故文化虽大抵与汉、夫余相同，亦有少许差异。

高句丽早期所居环境²⁾颇不利于农耕，而适宜于象肃慎族这样以渔猎为主要

1) 笔者的观点，是先有高句丽县后有高句丽族，高句丽族是高句丽县域内形成的，相关论断的由来请参考笔者相关论文。

2) 孙进己等《东北历史地理》谓魏晋时高句丽人的居住区“主要分布在今老岭、龙岗山、白头山、狼林山等组成的山地之中”，其言近之，大致在今鸭绿江上游两岸。《三国志·高句丽传》描述这一地区是：“多大山深谷，无原泽。随山谷以为居，

经济产业的山林部族，而按自然的发展规律，这一地区也只能产生象肃慎族的部族。但早期高句丽人的主要产业是农业，据文献明确记载，农业在这个国家中占有主导地位。《三国志》记载：“方可二千里，户三万。多大山深谷，无原泽，随山谷以为居，食涧水，无良田，虽力佃作，不足以实口腹，其俗节食……其国中大家不佃作，坐食者万余口，下户远担米粮鱼盐供给之……无大仓库，家家自有小仓，名之为桴京”³⁾ 《三国志》是最早为高句丽立传的正史，它关于高句丽经济的记载非常明确，就是高句丽的经济以农业为主，《后汉书》、《通典》在这方面的纪事完全继承了《三国志》，并有一定的删节，而没有增加新的内容，可以考虑是完全以《三国志》为蓝本的[5]。就《三国志》所描述的高句丽自然环境而言，这确不是农业的发源地。但高句丽人虽然没有良田，仍“力佃作”，表现出了强烈的农业意识。大家不佃作，其生活所需，自有下户将收获所得作为租费交纳，“米粮鱼盐”的序列，农产品赫然居于首位。农产品作为一年的生活资料，其储藏也形成了独自的特点：“无大仓库，家家自有小仓，名之为桴京。”这种桴京在高句丽壁画墓(麻线沟1号壁画墓)中有所反映，“其样式类似现在东部山区农家的苞米楼子，是两层建筑，下层四角有四柱立起。上层贮粮，下层储藏农具。”⁴⁾ 出土文物中也有高句丽陶仓的实物。⁵⁾ 《三国志》的记载可以肯定“三国”时期，高句丽的主体经济是农业。从考古资料得知，在高句丽境土上，曾发现大量石斧、石镐、石锄、石磨盘等农业社会的劳动工具，这说明早在高句丽族形成之前，在当地的经济生产中农耕就已经占有举足轻重的地位。⁶⁾ 而汉乐浪郡、玄菟郡、辽东郡在东北保持数百年之久，汉族农耕生产技术也应在汉郡县的保持下得到发展，则高句丽的农耕文化初承于夫余，再承于汉文化，故在山地环境中能够一枝独秀，文明程度高出于当时的乌桓与挹娄。

瘠田所出不足于解决温饱问题，当然需要有其他方法为补充。桑麻不足，可以兽皮代之，故高句丽人“衣布帛及皮”。⁷⁾ 粮食不足，狩猎所得亦无保障，故高句丽人有节食的习俗。与夫余与内地相比较，其时夫余的农业条件比较优越，“多山陵、广泽，於东夷之域最平敞。土地宜五谷。”⁸⁾ 土地既宜五谷，收获必然丰厚，因为夫余人是有余粮度岁的，不必象高句丽人那样有“节食”之俗。

食涧水。无良田。”据《集安县文物志》记载：“(集安)全县东西78公里，南北80公里，总面积3217平方公里……现有耕地32.7万亩，其中水田占12%。”可见耕种比例之低。

3) 《三国志》卷30《魏书·东夷·高句丽传》。

4) 李殿福《两汉时代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收入《辽海文物学刊》1986年创刊号。

5) 《集安文物志》第227页。

6) 参见《集安文物志》。

7) 《魏书》卷100《高句丽传》。

8) 《三国志》卷30《魏书·东夷·夫余传》。

内地的情况也比高句丽的农耕环境优越，换言之，高句丽的“节食”风俗完全是自然条件恶劣造成的。直到今天，东三省的农村居民，在冬季都是食两餐，而夏季则是三餐，这也是一种节食风俗。在困难时期，内地的农民也有青黄不接的时候，这时也会以一种“节食”及食野菜度荒的形态表现出农业社会对待荒年的习俗。因而这种高句丽“力佃作”风气显然是受夫余与汉文化的双重影响，其节食风俗也渊源有自。

农业社会的历法都是与农业生产息息相关的，也与农业生产相关的祭祀仪式密切关联。以东汉末曹魏初的情况来看，濊貊族尚未能掌握精密的历法，其历法当然是以物候历、观星为主。史称濊貊族的秽人“知种麻，养蚕，作绵布。晓候星辰。豫知年岁丰约……常用十月节祭天，昼夜饮酒歌舞，名之为舞天。”⁹⁾高句丽也是“十月祭天”的，“国中大会，名曰东盟”。并与秽族关系密切。而夫余则是在“殷正月祭天，国中大会，连日饮食歌舞，名曰迎鼓。”¹⁰⁾我们看夫余的“迎鼓”、高句丽的“东盟”，秽的“舞天”非常都相似，都是一种农业生产的宗教仪式。但时间上有一定差异，这种差异可能是夫余直接承自殷商，而高句丽与秽都久处汉郡县管理之下，自然接受了汉文化，因而表现出与夫余不一致的祭祀时间。

服饰饮食也是与经济密切相关的。夫余的服饰更接近于殷商，“殷人尚白”¹¹⁾，此非殷人对白色有特殊爱好，而是因为殷商时代，衣物主要以麻织成为主。盖农业社会以耕织为生活重心，而普通的衣物皆用麻织成，麻未着色者皆以白为本色，故士庶多白衣。白衣为中原士民常服，夫余、高句丽僻居边陲，纺织、染色技术未能与内地同步，仍服饰仍为“白色”为尚。商之初起，争议颇多，然商居今河南，气候远较今之东北暖和，衣服之制，大抵与气候相关。南方气候温暖，故衣服宽博；北方气候寒冷，故衣服窄狭。而夫余“在国衣尚白，白布大袂，袍、裤，履革鞮。出国则尚缁绣锦罽，大人加狐狸、狝白、黑貂之裘，以金银饰帽。”¹²⁾这种服饰，与殷人颇为契合。至于高句丽人亦有尚白之俗，¹³⁾而冠服之制，尤胜于夫余。“其公会，衣服皆锦绣金银以自饰。大加主簿头著帻，如帻而无馀，其小加著折风，形如弁”。史谓高句丽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¹⁴⁾则其所从来，除汉文化影响别无他解，不过结合当地情况略作改易而已。

以农业为主，兼以渔猎，则以饮食可知。唯其饮食之器皿及饮食之礼节，与

9) 《三国志》卷30《魏书·东夷·秽传》。

10) 此从《三国志》，《后汉书》作腊月。

11) 《礼记·檀弓上》。

12) 《三国志》卷30《魏书·东夷·夫余传》。

13) 《翰苑》卷30引梁元帝《职贡图》。

14) 《三国志》卷30《魏书·东夷·高句丽传》。

东北其他二族系截然有异。《三国志》谓夫余“食饮皆用俎豆，会同、拜爵、洗爵，揖让升降。”¹⁵⁾ 现代辞书解释，俎豆都是古代祭祀用的器具。但这种祭祀器皿最初肯定是由普通食器演变来的。俎是盛牛羊的食器，豆则是一种形似高足盘的陶质食器，是一种盛行于商周时期的食器。俎豆最初可能都是木制或陶质的，后来演化成漆器和青铜器。我们看到，夫余人除了仍在这些中原人已经逐渐淘汰的食器，还保持着一套内地曾经有过的饮食礼节。“会同”，即古代诸侯朝见天子的通称。“拜爵”与“洗爵”并列，显然不是“封侯拜爵”之意，而是酒席上行酒过程中的两种礼节，在《仪礼》中有赞爵、洗爵类的字样。“揖让升降”，显然是入席与撤席时的礼节。《魏书》称高句丽人也“食用俎豆”，这种纪事是否有沿袭《三国志·夫余传》的成份，就象“君子国”的称号在海东地区传递继袭一样，我们还不太好确定这个纪事的可靠性，因为高句丽人的“俎”与“豆”还没有出土过实物。但是，高句丽人的幘弁，与夫余人的俎豆，都被中原史家视为内地已经丧失的古礼，从而盛誉备至：“东夷率皆土著，喜饮酒歌舞，或寇弁衣锦，器用俎豆。所谓中国失礼，求之四夷者也。”¹⁶⁾

社会风俗既与经济密切相关，也与周边诸族的影响有关。《汉书》皆叙其地风俗云：“玄菟、乐浪，武帝时置，皆朝鲜、濊貉、句骊蛮夷。殷道衰，箕子去之朝鲜，教其民以礼义，田蚕织作。乐浪朝鲜民犯禁八条：相杀以当时偿杀；相伤以谷偿；相盗者男没入为其家奴，女子为婢，欲自赎者，人五十万。虽免为民，俗犹羞之，嫁取无所讎，是以其民终不相盗，无门户之闭，妇人贞信不淫辟。其田民饮食以笏豆，都邑颇放效吏及内郡贾人，往往以杯器食。”¹⁷⁾ 这种对东北地区风俗的概述其中许多都与高句丽的情况是相符合的。

歌舞率各有其民族特色，而濊貉族歌舞与内地关系尤大。高句丽人是“其民喜歌舞，国中邑落，暮夜男女群聚，相就歌戏。”¹⁸⁾ 夫余人也是这样：“以殷正月祭天，国中大会，连日饮食歌舞，名曰迎鼓。行道昼夜无老幼皆歌，通日声不绝。”¹⁹⁾ 我们固然可以说高句丽酷好歌舞的习俗是承自夫余，但夫余与殷商关系密切，殷商也是一个好歌舞的社会。与夫余、高句丽毗邻的汉郡也都有着好歌舞的风气。²⁰⁾ 进而言之，中国古俗本好歌舞，所以才特别重视“礼乐”，吕思勉谓：“中国古俗，本好歌舞。礼称‘君子无故不去琴瑟。’又曰：‘邻有丧，舂不相。里有殡，不巷歌。’《论语》谓‘子于是日哭，则不歌。’可见歌舞习为

15) 《三国志》卷30《魏书·东夷·夫余传》。

16) 《后汉书》卷85《东夷传序》。

17) 《汉书》卷28下《地理志下》。

18) 《三国志》卷30《魏书·东夷·高句丽传》。

19) 《三国志》卷30《魏书·东夷·夫余传》。

20) 参见《汉书》卷28下《地理志》。又司马相如《上林赋》有“文成颠歌”，注云：“文颖曰：文成，辽西县名也，其县人善歌”。

常事，古代礼乐之盛，盖亦以此。”²¹⁾濊貊族都有一个“公会”，夫余称之为“迎鼓”，高句丽称之为“东盟”，秽称之为“舞天”，都与农业有关；喜好音乐是人类的天性，但各民族的音乐皆因其环境、经济各有其特点，夫余、高句丽昼夜皆歌的情况是比较少见，但与《诗经》中的所体现出的田歌、织歌相比较，可见高句丽的歌舞风俗是来自内地的。

丧葬祭祀之俗，濊貊族与中国最为相类。祭祀之礼，濊貊族多表现在祈年和庆收上。史称夫余“以殷正月祭天，国中大会，连日饮食歌舞，名曰迎鼓……有军事亦祭天，杀牛观蹄以占吉凶，蹄解者为凶，合者为吉。”²²⁾高句丽则是“祭鬼神，又祀灵星、社稷。以十月祭天，国中大会，名曰东盟。其国东有大穴，名隧穴，十月国中大会，迎隧神还于国东上祭之，置木隧于神坐。”²³⁾秽人是“多忌讳，疾病死亡辄损弃旧宅，更作新居……常用十月节祭天，昼夜饮酒歌舞，名之为舞天，又祭虎以为神。”²⁴⁾高句丽祭灵星、社稷，也是典型的农业社会祭祀，与其不适宜农耕的居住环境恰成反比，可见不是自然发展来的，而是受内地、夫余影响而来。高句丽的葬俗是“厚葬，金银财币，尽於送死，积石为封，列种松柏。”²⁵⁾厚葬也是农业社会特有的风俗，是秦汉以来内地流行着这种风气，并由内地扩展到边疆，汉朝诸帝屡下禁止之诏，也未能挽此颓风。高句丽厚葬也是受内地影响的，但独具特色，这是由于东北地区的多山少田的自然环境使然。田少，就决定了墓葬只能在山上或河畔，山多富石，决定了东北地区盛行积石墓的风气。

风俗尚淫，婚姻则女方掌握主动权。《三国志》记载“国中邑落，暮夜男女群聚，相就歌戏……其俗淫。”其他正史高句丽传也相类的纪事，说明高句丽长期存在着“淫风”。这种“淫风”在东北肃慎族、东胡族中也有所体现，有一定自然发展的成份，也有受汉边郡影响的成份，是建立在女子比较自由的基础上的。因而表现在婚姻，女子也有很大的主动权。史载：“其俗作婚姻，言语已定，女家作小屋於大屋后，名婿屋，婿暮至女家户外，自名跪拜，乞得就女宿，如是者再三，女父母乃听使就小屋中宿，傍顿钱帛，至生子已长大，乃将妇归家。”²⁶⁾这种婚姻，其实也就是赘婿，现在东北地区称之为“倒插门”或“上门女婿”。我们注意到，《诗经·我行其野》中有这样的诗句：

我行其野，蔽芾其樗。婚姻之故，言就尔居。尔不我畜，夏我邦家。

21) 吕思勉《中国民族史》第6章《貉族》。

22) 《三国志》卷30《魏书·东夷·夫余传》。

23) 《三国志》卷30《魏书·东夷·高句丽传》。

24) 《三国志》卷30《魏书·东夷·秽传》。

25) 《三国志》卷30《魏书·东夷·高句丽传》。

26) 《三国志》卷30《东夷·高句丽传》。

我行其野，言采其蓫。婚姻之故，言就尔宿。尔不我畜，言归斯夏。
我行其野，言采其菑。不思旧姻，求尔新特。成不以富，亦祇以异。²⁷⁾

读此诗，知古代实有结婚后男到女方家中住宿之习俗。可知高句丽婿屋之源由之久矣。顾颉刚在其《史林杂识》中尝论及此种婚姻。但笔者注意到，除了高句丽外，濊貊、东胡、肃慎诸族都表现出一种“妇贞而女淫”的共性，说明女子在婚前比较自由，交往不受限制，但结婚后就得一而终了。但由于高句丽这种“婿屋”婚姻，使得高句丽女子在结婚后，未生子前仍很大的择夫的权利，这样，后来“妇人淫奔，俗多游女”就好解释了。

政治制度是建立经济基础上并与之相适应的。高句丽的早期政治制度明显有来自夫余、汉文化两方面的影响。

高句丽早期的王位继承制应该是世选而非世袭，这与殷商和夫余都比较相近。在高句丽早期纪事，经常有“国人拥立新王”的内容。这固然可以解释成王权与贵族权的冲突，但更多迹象表现这是世选制而非世袭制，是一种比较落后于时代的制度，在夫余以前的历史上，或在内地更早的殷商时期仍能找到这种制度的鼎盛状况。《三国志》记载，“旧夫余俗，水旱不调，五谷不熟，辄归咎於王，或言当易，或言当杀。”²⁸⁾可以看出，这时的夫余王要为农业的歉收负责的，他的身份不但是世俗的国王，也是宗教上的巫师。殷商时期也是这样，国王也要对农业歉收负责，要对影响农业收获的种种天灾做人事上的补救，王位继承上也多表现出“兄终弟及”来。

高句丽自承是源出夫余，在政治制度上明显昉自夫余主要有两点。一是职官，二是行政区划。最早的高句丽职官制度，出现在《三国志》中：“其官有相加、对卢、沛者、古雏加、主簿、优台丞、使者、皂衣先人，尊卑各有等级。”²⁹⁾“加”在夫余官制中比较常见，我们可以看出，“加”系官名是继承了夫余的官制，有学者曾考订出夫余“加”系官名渊源于殷商，对高句丽而言，不过是间接传入的内地文化而已。³⁰⁾而在行政区划上，夫余是“诸加别主四出道，大者主数千家，小者数百家。”³¹⁾这种诸加管理“四出道”的设置，对高句丽的五部区划应该有一定影响。”

高句丽在崛起之初，就在汉郡县统治之下，受汉文化影响甚大。其行政设置和职官制度都一仿内地。汉代地方行政设置一般是置郡国，郡国下有县邑，县

27) 《诗经》卷5《小雅·我行其野》。

28) 《三国志》卷30《东夷·夫余传》。

29) 《三国志》卷30《东夷·高句丽传》。

30) 姜维东《从夫余、高句丽官制中的“加”看夫余玉文化与经山文化的关系》，收入《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论文集》。

31) 《三国志》卷30《东夷·夫余传》。

邑下有乡里。高句丽早期的地方行政设置不太清楚，主要是由于史料阙略造成的。后期则明显是郡县制度，与内地郡县制度相似，说明其郡县制已经成熟。但我们看《三国志》记载的高句丽官名中，相加、主簿、优台丞显然有汉化或汉译的色彩。考虑到高句丽不过汉郡国中一个县级侯国，其相加的地位相当于县令，主簿、丞也显然是县级官员，可以说，高句丽建国之初，其整个官僚体系不过相当于汉朝县一级而已。其后，高句丽王一方面接受中原王朝的封爵，一方面继续吸收内地官制方面的成功经验，在政治制度上是积极仿效内地的，可以用“亦步亦趋”来形容。

同样，高句丽的五部设置除了夫余的影响外，也有汉制的影响。高句丽建国之后，仍受汉朝玄菟郡高句丽县管辖，是一个县级侯国。³²⁾高句丽的五部制就是依照汉朝郡和分五个监察区这一制度建立的。汉代郡、县邑、乡皆分为五个监察区，即五部。由于其时高句丽人社会结构依然高度氏族化，与中原内地有着明显的不同，因而指派氏族首领担任监察区的长官，以适应其国情。可见，高句丽的五部制是吸收了夫余、汉两种制度的。

二. 高句丽与同期东胡族、肃慎族的比较

属于濊貊族系的高句丽族是以农业为主要产业的，正因为经济基础的相同，其政治、经济、文化都与内地相似，历代中原中家对夫余、高句丽、王氏高丽、李氏朝鲜的欣赏，实际上就是农业国家对农业国家的认同。东胡族是以畜牧业为主部族，但能保据山险，也有一定山林部族的特点。肃慎系诸族则是典型的山林部族，以狩猎、采集为主要经济收入，其文化也与之相匹配。将同一时期的高句丽、挹娄(勿吉)、乌桓(鲜卑)做一文化上比较，不但可以彰显各民族的特点，也可从中看出高句丽的文明程度明显优于其它二族，整个濊貊族的文明程度也是东北地区最高的，这不能不归功于汉文化的影响。

从君权与职官制度上来比较，高句丽当时已经树立了国王的威权，形成了一套完整的职官制度。但同期东胡族的乌桓、鲜卑只有诸部落共同推举出的盟主性质的大人，部落各有小帅，没有职官制度。直到鲜卑檀石槐去世后，才形成“诸大人遂世相袭也”制度。肃慎族的挹娄则因为处于山林之间，受到自然地理的隔绝，各族之间联络不方便，因此长期是“无大君长”，直到晋代才逐渐形成“父子世为君长”的制度，可见，在高句丽的政治制度都比东胡、肃慎族程度要高。

32) 时岭东秽、貊、夫余皆为县侯，高句丽亦不例外。如《三国志》直称其王为“句丽侯”。称其国在西汉末为“侯国”。

从饮食衣服上也可以看出高句丽与东胡、肃慎有着明显的不同，而且文明程度要高许多。高句丽以农业产国的国家，饮食风俗都农业社会的，以烹饪菜蔬谷米为主食。而东胡族是以畜牧业为主，其饮食是“食肉饮酪”，而当时肃慎更为落后，主要以“猪”为稳定食物来源，其他都靠狩猎、采集所得。连基本的“井、灶”都没有。³³⁾在衣服上，高句丽由于所处自然环境比较恶劣，不能象夫余、内地一样自给自足，所以普通民众“衣布帛及皮。”³⁴⁾而当时的乌桓族是“以毛毳为衣”³⁵⁾，表现了游牧民族的特色。肃慎族系的挹娄、勿吉则因是山林民族，表现得很落后：“其俗好养猪，食其肉，衣其皮。冬以猪膏涂身，厚数分，以御风寒。夏则裸袒，以尺布隐其前后，以蔽形体”³⁶⁾“妇人则布裙，男子猪犬皮裘。”³⁷⁾“猪放山谷中，食其肉，啞其皮，绩猪毛以为布。”³⁸⁾可见，挹娄仍把服饰的主要来源放大最常豢养的猪上。

在仪礼方面，夫余、高句丽相近而略有差异，与内地差异更大。这是因为内地的几席不适宜东北寒冷地区的使用，因而内地的几席礼仪在夫余、高句丽方面都走了形。但相较而言，乌桓、挹娄都没有形成日常生活中的体现尊卑、体现男女不同的仪礼。乌桓是“父子男女，相对蹲踞。”³⁹⁾而挹娄因其仪礼方面的落后而受到中原史家的奚落。“坐则箕踞”⁴⁰⁾“东夷饮食类皆用俎豆，唯挹娄不，法俗最无纲纪也。”⁴¹⁾

在葬俗方面，高句丽以厚葬和积石墓著称。而乌桓、挹娄则以“无忧哀”相尚，具体葬俗则各有特点。乌桓是“贵兵死，斂尸有棺，始死则哭，葬则歌舞相送。肥养犬，以采绳婴牵，并取亡者所乘马、衣物、生时服饰，皆烧以送之。特属累犬，使护死者神灵归乎赤山。赤山在辽东西北数千里，如中国人以死之魂神归泰山也。至葬日，夜聚亲旧员坐，牵犬马历位，或歌哭者，擲肉与之。使二人口颂咒文，使死者魂神径至，历险阻，勿令横鬼遮护，达其赤山，然后杀犬马衣物烧之。”我们看，乌桓的葬俗比较复杂，“贵兵死”与匈奴无异，而“烧麦”之俗特异，后来一直延续下来。至于相信死者神灵归于赤山，又与内地相类。挹娄“其父母春夏死，立埋之，冢上作屋，不令雨湿；若秋冬，以其尸捕貂，貂食其肉，多得之。”⁴²⁾“以无忧葬相尚。父母死，男子不哭。哭者谓之不

33) 《太平御览》卷784引《肃慎国记》。

34) 《魏书》卷100《高句丽传》。

35) 《三国志》卷30《乌桓传》引《魏略》。

36) 《三国志》卷30《挹娄传》。

37) 《魏书》卷100《勿吉传》。

38) 《翰苑》引《肃慎国记》。

39) 《三国志》卷30《乌桓传》引《魏略》。

40) 《太平御览》卷784引《肃慎国记》。

41) 《三国志》卷30《挹娄传》。

42) 《魏书》卷100《勿吉传》。

壮相……死者即日便葬于野，交木作小椁，杀猪积椁上，富室数百，贫者数十，以为死者之粮。以土覆之，以绳系于椁头，出土上。以酒灌酹，才绳腐而止，无进祭祀也。”⁴³⁾在这种三种葬俗中，肃慎族的葬俗显然比较落后。

内地向“衣冠礼仪”自矜，高句丽也是以“冠服”受到中原史家的推捧的。⁴⁴⁾同时的乌桓“悉髡头以为轻便。妇人至嫁时乃养发，分为髻，著句决，饰以金碧，犹中国有冠步摇也。”⁴⁵⁾同时的挹娄则是“俗皆编发”，表现出三个民族各自不同的民族特点。

在居室方面，也凸现了三个民族不同的特点。高句丽好治宫室，这主要是指国王居处、政府机构和寺观，普通平民仍以茅草屋为主。这基本与内地无别，是农业社会的建筑。乌桓则“俗善骑射，随水草放牧，居无常处，以穹庐为宅，皆东向。”⁴⁶⁾穹庐帐幕，是游牧民族的典型居室。挹娄则因所处环境较高句丽、乌桓更北，气候寒冷，以穴居为主。“处山林之间，常穴居，大家深九梯，以多为好。土气寒，剧於夫馀……其人不洁，作溷在中央，人围其表居。”⁴⁷⁾居室如何保暖得当，远比穴居舒适安全，挹娄以穴居为主，正是其落后的表现。

在刑罚、婚姻和报嫂习俗上，高句丽与乌桓、肃慎有一定相通之处

刑罚方面三者都比较严酷，没有牢狱。高句丽是“无牢狱，有罪诸加评议，便杀之，没入妻子为奴婢。”⁴⁸⁾乌桓是“其约法，违大人言死，盗不止死。其相残杀，令部落自相报，相报不止，诣大人平之，有罪者出其牛羊以赎死命，乃止。自杀其父兄无罪。其亡叛为大人所捕者，诸部落不肯受，皆逐使至雍狂地，以穷困之。”⁴⁹⁾挹娄是“无文墨，以言语为约……盗赃物无多少尽诛杀，虽野处而不相犯。”⁵⁰⁾这说明当时它们在法律方面成熟较晚。刑罚简单，故流于严酷。没有牢狱，故罪行无相区别，多以处以死刑。乌桓因活动区域较大，因而形成了类似内地流放的刑罚，将一些亡叛都驱逐到穷困地区去。

在婚姻上，三族的女子都比较自由，有较大的选择权。这里面，高句丽有“媾屋”制度，女子的选择权尤大。乌桓“其嫁娶皆先私通，略将女去，或半岁百日，然后遣媒人送马牛羊以为聘娶之礼。媾随妻归，见妻家无尊卑，旦起皆拜，而不自拜其父母。为妻家仆役二年，妻家乃厚遣送女，居处财物，一出妻家。故其俗从妇人计，至战斗时，乃自决之。”可见，男子先私通，后掠夺，表现

43) 《太平御览》卷784引《肃慎国记》。

44) 《后汉书》卷85《东夷传序》：“东夷率皆土著，烹饮酒歌舞，或寇弁衣锦，器用俎豆。所谓中国失礼，求之四夷者也。”

45) 《三国志》卷30《乌桓传》引《魏略》。

46) 《三国志》卷30《乌桓传》引《魏略》。

47) 《三国志》卷30《挹娄传》。

48) 《三国志》卷30《东夷·高句丽传》。

49) 《三国志》卷30《乌桓传》引《魏略》。

50) 《太平御览》卷784引《肃慎国记》。

出男子的主动方面，与高句丽女子有很大自主权形成对比。但乌桓妇女婚后的地位也是高句丽妇女无法比拟的。挹娄“初婚之夕，男就女家执女乳而罢，便以为定，仍为夫妇。”⁵¹⁾“嫁娶之法，男以毛羽插女头，和则持归，然后致礼聘之。妇贞而女淫。贵壮贱老，寡居终身不嫁。”⁵²⁾也凸现了女子在婚姻方面有一定主动性。

报嫂之俗，中原早已有之。但后来受到儒家的非议，遂在严禁下得到杜绝。⁵³⁾高句丽“兄死亦报嫂”，⁵⁴⁾夫余“兄死妻嫂，与匈奴同俗。”⁵⁵⁾乌桓“乌桓父兄死，妻后母执嫂；若无执嫂者，则己子以亲之次妻伯叔焉，死则归其故夫。”⁵⁶⁾显然，烝庶母，报寡嫂的习俗是人类早期形成的巩固部族、家族财产的一种习俗，是人类发展过程中的一个环节。

总而言之，高句丽与乌桓、肃慎的相通处是因为在某些环节上，他们都遭遇了人类发展历史的必然过程，才导致这些相通之处。

三. 结论

通过对史籍文献的比较，我们知道濊貊族是一支以农业立国的族系，其文化大同而小异，大同是因为主要经济都是建立的农业基础上的，因而文化大致相同；但由于所处的自然环境不同，一则由于面临不同的经济收入，不得不利用方式弥补农业生产之不足，其文化有特定性；二则受毗邻不同文化之薰染，故其文化亦一定互通性。高句丽在饮食衣服、婚姻生活等方面与内地、夫余的不同，正说明自然环境对人类生活的影响。高句丽在不适宜农耕的环境下发展成为农业国家，这不能不归功于夫余与汉郡县的影响。

通过于上面的对比研究，我们可以得出两方面结论。一、高句丽是一农业国家，其演进过程中，汉文化起了主导作用。二、高句丽所属的濊貊族是东北三大族系中文明程度最高的，这也归功于汉文化的东移。

51) 《魏书》卷100《勿吉传》。

52) 《太平御览》卷784引《肃慎国记》。

53) 《礼记·曲礼》：“嫂叔不通问”。《孟子》中有关嫂溺，叔是否援之以手的讨论也同样引人注目。

54) 《太平御览》卷783引《魏略》。

55) 《三国志》卷30《东夷·夫余传》。

56) 《三国志》卷30《乌桓传》引《魏略》。

附表1

	高句丽文化	夫余文化	濊貊系其它诸族	汉文化
始祖传说	朱蒙传说	东明传说	百济东明传说	殷商“玄鸟生商”传说
君权	国人有立王之权，则其王位非世袭而系世选，亦多兄终弟及之事，此与殷商、夫余相类[笔]	旧夫余俗，水旱不调，五谷不熟，辄归咎於王，或言当易，或言当杀[三]		殷代君位承袭即以兄终弟及为最著，殷代三十王，弟兄相及者十四[笔]
职官	其国有王，其官有相加、对卢、沛者、古雏加、主簿、优台丞、使者、阜衣先人，尊卑各有等级。诸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名皆达於王，如卿大夫之家臣，会同坐起，不得与王家使者、阜衣先人同列。	国有君王，皆以六畜名官，有马加、牛加、猪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邑落有豪民，名下户皆为奴婢。诸加别主千家，小者数百家。	(东沃沮)有邑落长帅而无大君主[三](穆)汉以土地广远，在单单大领之东，分置东部都尉，治不耐城，别主领东七县，时沃沮亦皆为县。汉(光)武六年，省边郡，都尉由此罢。其后皆以其县中渠帅为县侯，不耐、华丽、沃沮诸县皆为侯国。夷狄更相攻伐，唯不耐濊侯至今犹置功曹、主簿诸曹，皆濊民作之。沃沮诸邑落渠帅，皆自称三老，则故县国之制也。[三]	县令、长，皆秦官，掌治其县。万户以上为令，秩千石至六百石。减万户为长，秩五百石至三百石。皆有丞、尉，秩四百石至二百石，是为长吏。百石以下有斗食、佐史之秩，是为少吏。大率十里一亭，亭有长。十亭一乡，乡有三老、有秩、嗇夫、游徼。三老掌教化。嗇夫职听讼，收赋税。游徼循禁贼盗。县大率方百里，其民稠则减，稀则旷，乡、亭亦如之，皆秦制也。[汉]
服饰	其公会，衣服皆锦绣金银以自饰。大加主簿头著帻，如帻而无馀，其小加著折风，形如弁[三]民皆土著，随山谷而居，衣布帛及皮。[魏书]高丽妇人衣白，而男子衣纈锦……贱者上白衣衫，下白长裤[职责图]	在国衣尚白，白布大袂，袍、裤，履革鞮。出国则尚纈绣锦罽，大人加狐狸、犵白、黑貂之裘，以金银饰帽[三]		殷人尚白。[礼记·檀弓上]

	高句丽文化	夫余文化	濊貊系其它诸族	汉文化
饮食	无良田，虽力佃作，不足以实口腹。其俗节食[三]土田薄脊，蚕农不足以自供，故其人节饮食……食用俎豆[魏书]	食饮皆用俎豆，会同、拜爵、洗爵，揖让升降。[三]	(东沃沮)其土地肥美，背山向海，宜五谷，善田种……食饮居处，衣服礼节，有似句丽[三]	虽夷狄之邦，而俎豆之象存。中国失礼，求之四夷，犹信。[三]东夷率皆土著，意饮酒歌舞，或寇弁衣锦，器用俎豆。所谓中国失礼，求之四夷者也[后]
仪礼	跪拜申一脚，与夫馱异，行步皆走。	译人传辞，皆跪，手据地窃语。		
祭祀	祭鬼神。又祀灵星、社稷……以十月祭天，国中大会，名曰东盟……其国东有大穴，名隧穴，十月国中大会，迎隧神还于国东上祭之，置木隧于神坐[三]有军事亦祭天，杀牛观蹄以占吉凶[魏略]	以殷正月祭天，国中大会，连日饮食歌舞，名曰迎鼓……有军事亦祭天，杀牛观蹄以占吉凶，蹄解者为凶，合者为吉。[三]	三韩俗以腊日，家家祭祀，俗云“腊鼓鸣，春草生”也。[谢承后汉书]	
刑罚	无牢狱，有罪诸加评议，便杀之，没入妻子为奴婢[三]	用刑严急，杀人者死，没其家人为奴婢。窃盗一责十二。男女淫，妇人妒，皆杀之。尤憎妒，已杀，尸之国南山上，至腐烂。女家欲得，输牛马乃与之[三]		商法亦以严酷著称。[笔]
葬俗	男女已嫁娶，便稍作送终之衣。厚葬，金银财币，尽於送死。[三]其死，葬有椁无棺，停丧百日，好厚葬。[魏略]	其死，夏月皆用冰。杀人徇葬，多者百数。厚葬，有椁无棺。[三]其俗停丧五月，以久为荣。其祭亡者，有生有熟。丧主不欲速而他人强之，常诤引以此为节。其居		厚葬本中国旧俗。经儒墨诸家之非议，乃渐革除者也[吕]

	高句丽文化	夫余文化	濊貊系其它诸族	汉文化
		丧，男女皆纯白，妇人着布面衣，去环佩，大体与中国相仿佛也。[魏略]		
墓葬	厚葬，金银财币，尽於送死，积石为封，列种松柏[三]	有椁无棺……汉时，夫余王葬用玉匣，常豫以付玄菟郡，王死则迎取以葬。公孙渊伏诛，玄菟库犹有玉匣一具[三]		在环渤海湾地区，早有就各种形式的积石墓墓葬的存在，高句丽人的积石墓，夫余的玉棺，都是在此基础上发展而来的[笔]
婚姻	其俗作婚姻，言语已定，女家作小屋於大屋后，名婿屋，婿暮至女家户外，自名跪拜，乞得就女宿，如是者再三，女父母乃听使就小屋中宿，傍顿钱帛，至生子已长大，乃将妇归家。其俗淫。[三]其俗淫，多相奔诱[魏略]			我行其野，蔽芾其樗。婚姻之故，言就尔居。尔不我畜，夏我邦家。我行其野，言采其蓫。婚姻之故，言就尔宿。尔不我畜，言归斯夏。我行其野，言采其菑。不思旧姻，求尔新特。成不以富，亦祇以异《诗经·小雅·我行其野》
经济	其国中大家不佃作，坐食者万馀口，下户远担米粮鱼盐供给之。[三]大家不田作，下户给赋税如奴客[魏略]	邑落有豪民，名下户皆为奴仆。诸加别主四出，道大者主数千家，小者数百家……有敌，诸加自战，下户俱担粮饮食之。[三]		与我国古采邑之制颇为相类[笔]
性气	国人有气力，习战斗[三]	其人粗大，性强勇谨厚，不寇钞[三]	(东沃沮)性质强勇[三]	
娱乐	其民喜歌舞，国中邑落，暮夜男女相聚，相就歌戏[三]好歌舞，其人洁淨自喜[魏略]其俗淫，好歌舞，夜则男女	行道昼夜无老幼皆歌，通日声不绝[三]		昔唐人都河东，殷人都河内，周人都河南……温、轵西贾上党，北贾赵中山。中山地薄人众，犹有沙丘纣淫

	高句丽文化	夫余文化	濊貊系其它诸族	汉文化
	群聚而戏，无贵贱之节，然洁净自喜 [魏书]			地余民，民俗怀争，仰机利而食。丈夫相聚游戏，悲歌慷慨，起则相随椎剽，休则掘冢、作巧奸冶，多美物，为倡优。女子则鼓鸣瑟、跕屣，游媚贵富，入后宫，遍诸侯然。 [中国古俗，本好歌舞。礼称“君子无故不去琴瑟。”又曰：“邻有丧，舂不相。里有殡，不巷歌。”《论语谓“子于是日哭，则不歌。”可见歌舞习为常事，古代礼乐之盛，盖亦以此 [吕]
建筑	好治宫室，於所居之左右立大屋，祭鬼神	其民土著，有宫室、仓库、牢狱……作城栅皆员，有似牢狱 [三]	(秽人)多忌讳，疾病死亡辄损弃旧宅，更作新居 [三]	
器械	有气力，便弓矢 [魏略]	以弓矢刀矛为兵，家家自有铠仗。 [三]	(东沃沮)便持矛步战 [三]	
报嫂	兄死亦报嫂 [魏略]	兄死妻嫂，与匈奴同俗。 [三]		

附表2高句丽与东胡、肃慎文化的比较

	高句丽文化	东胡文化	肃慎文化
君权	国人有立王之权，则其王位非世袭而系世选，亦多兄终弟及之事，此与殷商、夫余相类 [笔]	(鲜卑)其言语习俗与乌丸同……自檀石槐死后，诸大人遂世相袭也 [魏略]	无大君长 [三] 父子世为君长 [肃慎国记]
职官	其国有王，其官有相加、对卢、沛者、古雏加、主簿、优台丞、使者、皂衣先人，尊卑各有等级。诸	常推募勇健能理决斗讼相侵犯者为大人，邑落各有小帅，不世继也。数百千落自为一部，大人有所召	邑落各有大人，处于山林之间。 [后]

	高句丽文化	东胡文化	肃慎文化
	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名皆达於王，如卿大夫之家臣，会同坐起，不得与王家使者、阜衣先人同列[三]其官名有谒奢、太奢、大兄、小兄之号[魏书]	呼，刻木为信，邑落传行，无文字，而部众莫敢违犯。氏姓无常，以大人健者名字为姓[魏略]	
服饰	其公会，衣服皆锦绣金银以自饰。大加主簿头著帻，如帻而无馀，其小加著折风，形如弁[三]头著折风，其形如弁，旁插鸟羽，贵贱有差[魏书]	以毛毳为衣[魏略]	其俗好养猪，食其肉，衣其皮。冬以猪膏涂身，厚数分，以御风寒。夏则裸袒，以尺布隐其前后，以蔽形体[三]妇人则布裙，男子猪犬皮裘……俗以人溺洗手面。头插虎豹尾。(魏书·勿吉)猪放山谷中，食其肉，啣其皮，绩猪毛以为布[肃慎国记]
饮食	无良田，虽力佃作，不足以实口腹。其俗节食[三]	食肉饮酪	其俗好养猪，食其肉[三]无井灶，作瓦鬲四五升以食……土地无盐，烧木作灰灌取汗食之[肃慎国记]
节候	以十月祭天，国中大会，名曰东盟[三]	俗识鸟兽孕乳，时以四节，耕种常用布谷鸣为候[魏略]	
仪礼	跪拜申一脚，与夫馀异，行步皆走[三]立则反拱，跪拜曳一脚，行步如走……好蹲踞[魏书]	父子男女，相对蹲踞。[魏略]	东夷饮食类皆用俎豆，唯挹娄不，法俗最无纲纪也。[三]坐则箕踞[肃慎国记]
发式	冠服[笔]	悉髡头以为轻便。妇人至嫁时乃养发，分为髻，著句决，饰以金碧，犹中国有冠步摇也。[魏略]	俗皆编发[肃慎国记]
祭祀	祭鬼神。又祀灵星、社稷。	敬鬼神，祠天地日月星辰山川，及先大人有健名者，亦同祠以牛羊，祠毕皆烧之……饮食必先祭。[魏略]	
刑罚	无牢狱，有罪诸加评议，便杀之，没入妻子为奴婢。	其约法，违大人言死，盗不止死。其相残杀，令部落自相报，相报不止，诣大人平之，有罪者出其牛	无文墨，以言语为约……盗赃物无多少尽诛杀，虽野处而不相犯。[肃慎国记]

	高句丽文化	东胡文化	肃慎文化
		羊以赎死命，乃止。自杀其父兄无罪。其亡叛为大人所捕者，诸邑落不肯受，皆逐使至雍狂地，以穷困之。[魏略]	
葬俗	男女已嫁娶，便稍作送终之衣。厚葬，金银财币，尽於送死。积石为封，列种松柏[三]	贵兵死，敛尸有棺，始死则哭，葬则歌舞相送。肥养犬，以采绳婴牵，并取得亡者所乘马、衣物、生时服饰，皆烧以送之。特属赤山。赤山在辽东西北数千里，如中国人以死之魂神归泰山也。至葬日，夜聚亲旧员坐，牵犬马历位，或歌哭者，掷肉与之。使二人口颂咒文，使死者魂神径至，历险阻，勿令横鬼遮护，达其赤山，然后杀犬马衣物烧之[魏略]	其父母春夏死，立埋之，冢上作屋，不令雨湿；若秋冬，以其尸捕貂，貂食其肉，多得之。(魏书·勿吉)以无忧葬相尚。父母死，男子不哭。哭者谓之不壮相……死者即日便葬于野，交木作小椁，杀猪积椁上，富室数百，贫者数十，以为死者之粮。以土覆之，以绳系于椁头，出土上。以酒灌酹，才绳腐而止，无进祭祀也。[肃慎国记]
婚姻	其俗作婚姻，言语已定，女家作小屋於大屋后，名婿屋，婿暮至女家户外，自名跪拜，乞得就女宿，如是者再三，女父母乃听使就小屋中宿，傍顿钱帛，至生子已长大，乃将妇归家。其俗淫。[三]	其嫁娶皆先私通，略将女去，或半岁百日，然后遣媒人送马牛羊以为聘娶之礼。婿随妻归，见妻家无尊卑，旦起皆拜，而不自拜其父母。为妻家仆役二年，妻家乃厚遣送女，居处财物，一出妻家。故其俗从妇人计，至战斗时，乃自决之。[魏略]	初婚之夕，男就女家执女乳而罢，便以为定，仍为夫妇(魏书·勿吉)嫁娶之法，男以毛羽插女头，和则持归，然后致礼聘之。妇贞而女淫。贵壮贱老，寡居终身嫁[肃慎国记]
经济	其国中大家不佃作，坐食者万馀口，下户远担米粮鱼盐供给之。[三]	日弋猎禽兽，食肉饮酪……大人已下，各自畜牧治产，不相徭役……地宜青稞、东墙，东墙似蓬草，实如葵子，至十月熟。能作白酒，而不知作麴蘖。米常仰中国。大人能作弓矢鞍勒，锻金铁为兵器，能刺韦作文绣，织缕毡<毛曷>[魏略]	有五谷、牛、马、麻布……其弓长四尺，力如弩，矢用楛，长尺八寸，青石为镞，古之肃慎氏之国也。善射，射人皆入(因)。矢施毒，人中皆死。出赤玉，好貂，今所谓挹娄貂是也。[三]其国无牛，有车马，佃则偶耕，车则步推。有粟及麦稗，菜则有葵。水气醎凝，盐生树上，

	高句丽文化	东胡文化	肃慎文化
			亦有盐池。多猪无羊。嚼米醞酒，饮能至醉。(魏书·勿吉)其畜有猪、牛、羊，不知乘马，以为财产而已[肃慎国记]
性气	国人有气力，习战斗[三]	贵少贱老。性悍鹜，怒则杀父兄，而终不害其母，以母有族类，父兄以己为种，无复报者故也。[魏略]	人多勇力……自汉已来，臣属夫馀，夫馀责其租赋重，以黄初中叛之。夫馀数伐之，其人众虽少，所在山险，邻国人畏其弓矢，卒不能服也。其国便乘船寇盗，邻国患之[三]性凶悍[肃慎国记]
娱乐	其民喜歌舞，国中邑落，暮夜男女群聚，相就歌戏[三]	(鲜卑)常以季春大会，作乐水上，嫁女娶妇，髡头饮宴。[魏略]	
医疗		有病，知以艾灸，或烧石自熨，烧地卧上，或随痛病处，以刀决脉出血，及祝天地山川之神，无针药[魏略]	
建筑	好治宫室，於所居之左右立大屋，祭鬼神[三]其王好治宫室[魏书]	俗善骑射，随水草放牧，居无常处，以穹庐为宅，皆东向。[魏略]	处山林之间，常穴居，大家深九梯，以多为好。土气寒，剧於夫馀……其人不絜，作溷在中央，人围其表居。(三·挹娄)其地下湿，筑城穴居，屋似形豕，开口于上，以梯出入(魏书·勿吉)
报嫂	(高句丽)兄死亦报嫂[魏略](夫余)兄死妻嫂，与匈奴同俗。[三]	父兄死，妻后母执嫂；若无执嫂者，则己子以亲之次妻伯叔焉，死则归其故夫。[魏略]	

参考文献

- 孙进己、张志立《秽貊文化的探索》，《辽海文物学刊》1986年 第1期。*
- 李殿福《两汉时代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辽海文物学刊》1986年 第1期。*
- 耿铁华《高句丽民俗概述》，《求是学刊》1986年 第2期。
- 魏存成《高句丽渤海文化之发展及其关系》，《吉林大学学报》(社科)1989年 第4期。
- 张志立《高句丽风俗研究》，收入《东北亚历史与文化》(辽沈书社)，1992年6月。
- 刘长江《略论地理环境对高句丽文化的影响》，《辽海文物学刊》1994年 第2期。
- 李若迁《高句丽文化与中原文化渊源关系述略》，《通化师院学报》1996年 第1期。*
- 于波《汉文化对高句丽文化的影响》，《东北史地》2006年 2期。
- 魏存成《从考古学上看百济·高句丽的文化特点及其与周邻文化的关系》，收入韩国忠南大学国际学术会议论文集《百济社会之诸问题》1994年10月。
- 姜维东《高句丽文化渊源概论》，《社会科学战线》2004年 6期。*

고구려 초기문화 비교연구

姜维公 (장춘사범학원)

〈목 차〉

- I. 고구려 문화와 부여 및 한 문화 비교
- II. 고구려와 같은 시기의 동호족 및 숙신족 비교
- III. 결론

필자의 관점에 의하면, 고구려가 비류수 유역에 도읍을 세운 시기는 고구려와 백제가 공존하는 역사 시기이고, 고구려가 환도산(丸都山) 아래로 천도하기 시작하며 진정한 건국이 시작된 것으로서, 따라서 이 두 시기는 모두 고구려의 초기라고 볼 수 있다. 최초로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한 『위략』과 『삼국지』 가운데 묘사된 고구려 문화는 대부분 천도 이후의 문화이다. 사원학(史源学)의 각도에서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다지 믿어지지 않는 전설 기사 부분을 빼버리면, 고구려의 문화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 부분은 고구려가 부여에서 계승한 부여 문화이고, 다른 한 부분은 고구려가 한(漢)의 군현(郡縣) 때에 성장시켜 계승한 한(漢) 문화이며, 다른 한 부분은 고구려가 자연환경의 제한을 받아 형성시킨 특유의 문화이다. 동북의 3족(族) 중에 예맥족의 문화수준이 기타 두 족(族)보다 유난히 높는데 우리들은 고구려와 숙신(肅慎) 및 오환(烏桓)과의 문화 비교를 통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I. 고구려 문화와 부여 및 한 문화 비교

고구려 문화와 부여 및 한 문화의 공통성은 그들이 모두 농업사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점인데, 부여는 비교적 일찍이 내륙으로부터 동북으로 천입되면서 그의 문화는 한 문화와 기원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는 부여에서 기원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한 군현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뒤에 한사군의 지역에서 다시 건국되면서 동시에 많은 한족(漢族) 이민을 수용하기 때문에 한 문화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다.¹⁾ 그러나 자연환경의 제한을 받으며 또한 유목 및 산림 민족들과 인접하기 때문에 비록 고구려의 문화는 대체로 한 및 부여와 서로 같

1) 필자의 관점은 먼저 고구려현이 있는 후에 고구려족이 생겼고, 고구려족은 고구려현 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단(論斷)은 필자의 관련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으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고구려가 초기에 거주한 환경은 농경에 매우 불리한데,²⁾ 숙신족처럼 어렵을 주요한 경제 산업으로 삼는 산림부족에게는 적합하다. 그러므로 자연적 발전규칙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숙신족과 같은 부족만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초기 고구려인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고 문헌의 명확한 기록에 의하면 농업은 이 나라의 주도적 산업이었다. 『삼국지』에 “사방 2천리이며 호수(戶數)는 3만이다.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벌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서 경작하지만,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들의 습속은 음식을 아껴먹는다. …그 나라 안의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명에 이르며, 하호(下戶)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짚어지고 와서 그들에게 공급한다. …큰 창고는 없으나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가 있으며 그 이름을 부경(桴京)이라 한다.”고 기록되었다.³⁾ 『삼국지』는 최초로 고구려전(高句麗傳)을 기록한 정사(正史)이며, 고구려의 경제에 관한 기록은 특히 명확한데, 바로 이곳에 고구려의 경제는 농업이 주된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후한서』 및 『통전』 중에서 고구려의 경제에 관련된 기사는 완전히 『삼국지』를 계승하였고 일정한 생략도 하였지만, 새로 첨가시킨 내용도 없으므로 『삼국지』를 저본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지』에서 묘사된 고구려의 자연환경으로 말하면, 이 지역은 농업의 발원지가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나 고구려인이 비록 좋은 농토는 없지만 그럼에도 힘써서 밭을 경작함은 강력한 농업의식을 표출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대가(大家)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 소요되는 것들은 하호가 수확하는 소득을 임대료로 거두어 들여 충당하는데, “미양어염(米糧魚鹽)”이란 서열을 보면 농산품이 뚜렷하게 제일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농산품이 1년의 생활 물자가 되는데, 그의 저장도 독자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 “큰 창고는 없으나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가 있으며 그 이름을 부경이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경은 고구려의 벽화무덤(麻線溝 1號 壁畫墓) 중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며 “그 양식은 지금 동북 산간 지대 농가의 옥수수 곳간과 비슷하여 2층 건물이고 아래층의 4각에 네 개 기둥이 있는데, 위층에는 양식을 저장하고 아래층에는 농구를 저장한다.”⁴⁾ 출토된 문물 중에도 고구려 도창(陶倉)의 실물이 있다.⁵⁾ 이렇듯 『삼국지』의 기록을 통하여 삼국 시기 고구려의 중심적 경제는 농업이라 단정

2) 손진기(孫進己) 등의 『동북역사지리(東北歷史地理)』 중에서 위진(魏晉) 시기 고구려인의 거주지역은 “주로 지금 노령(老嶺), 용강산(龍崗山), 백두산, 낭림산(狼林山) 등 산지에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지금 압록강 상류 양안에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벌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농토가 없다.”라고 하였다. 『집안현문물지(集安縣文物志)』에 의하면 “집안현 전 지역은 동서 78km이고 남북은 80km인데 총면적은 3217km²이다. …지금의 경지는 32.7만 무(畝)인데 수전은 12%에 달하다.”고 한다. 경작의 비례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3) 『三國志』卷30 「魏書」高句麗

4) 李殿福, 「양한시대의 고구려와 그의 문질문화」, 『遼海文物學刊』 1986년 창간호에 수록됨.

5) 『集安文物志』, 227쪽.

할 수 있다. 또한 고고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고구려 지역에서 일찍이 대량의 돌도끼(石斧), 돌괘이(石鎬), 돌호미(石鋤), 돌맷돌(石磨盤) 등 농업사회의 노동공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농경이 그 지역의 경제생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⁶⁾ 한의 낙랑군, 현토군, 요동군은 동북에서 수백년이나 오래도록 존속하였으므로 한족(漢族)의 농경생산기술도 물론 이들 한의 군현에서 발전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고구려의 농경문화는 처음에는 부여에서 계승되었고 뒤에는 한의 문화에서 계승되었으므로, 산간 지대란 환경 속에서 당대에 독특하게 빼어나며, 문명 수준이 당시의 오환 및 읍루보다 높았다.

그러나 메마른 논밭 때문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는 생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되어야만 했다. 비단과 삼베 등 입거리가 부족하면 짐승의 가죽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인은 “직물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⁷⁾ 양식이 부족하고 수렵도 무작정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고구려인은 음식을 절약하는 습속이 있었다. 부여 및 내륙지역과 비교하면 당시에 부여의 농업조건이 비교적 우월한데 사서에는 “산릉과 넓은 연못이 많아서 동이(東夷)의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다.”고 기록되었다.⁸⁾ 토지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수확은 당연히 풍부하였고, 부여인은 남은 양식으로 해를 넘길 수 있어서 고구려인처럼 음식을 절약하는 풍속을 지닐 필요가 없었다. 내륙지역의 상황도 고구려의 농경환경에 비교하면 우월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고구려의 “음식 절약” 풍속은 자연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동북3성의 농촌 사람들이 겨울에는 모두 두 차례의 식사를 하지만 여름에는 세 차례의 식사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음식 절약” 풍속의 일종이다.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내륙지역의 농민들도 춘궁기를 맞으면, 역시 “음식 절약”과 야채를 먹으며 기근을 극복하는 형태로 농업사회의 흉년에 대처하는 습속을 표출해내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풍조는 분명히 부여 및 한 문화의 이중적 영향을 받은 것이며, 고구려인의 “음식 절약” 풍속도 여기에서 연원한 것이다.

농업사회의 역법은 모두 농업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고, 농업생산과 관련된 제사의식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동한(東漢) 말 조위(曹魏) 초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맥족은 아직도 정밀한 역법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그의 역법은 물후력(物候曆)과 관성(觀星) 위주였다. 사서에서 예맥족의 예인(穢人)은 “삼베를 경작할 줄 알며, 양잠을 하고, 누에를 치고, 옷감을 만든다. 새벽에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 해의 풍흉을 미리 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없이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니, 이름하여 무천(舞天)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고구려도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국중대

6) 『集安文物志』를 참고함.

7) 『魏書』卷100 「高句麗傳」

8) 『三國志』卷30 「魏書」高句麗

회(國中大會)를 동맹(東盟)이라 하였다.” 이는 예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여에서는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국중대회는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름하여 영고(迎鼓)라 하였다.”¹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은 서로 매우 유사한데 모두 농업생산과 관련된 종교의식의 일종이다. 단지 그들은 시간상에서 서로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여는 직접 은상(殷商)을 이어받고 고구려와 예는 오래 동안 한 군현의 관리를 받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한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부여와 제사시간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복식 및 음식도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부여의 복식은 훨씬 은상(殷商)에 가까운데 “은인(殷人)은 흰색을 숭상하였다.”¹¹⁾ 이는 은인(殷人)이 흰색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고, 은상 시대의 의복이 주로 삼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개 농업사회에서 경작과 방직은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보통 의복은 모두 삼베로 만들어졌고, 삼베는 염색하기 이전에는 흰색이 그의 본래 색깔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은 흰옷을 입게 된 것이다. 흰옷은 중원 백성들의 일상적인 의복인데, 부여와 고구려는 궁벽한 변방에서 거주하며 방직과 염색 기술이 내륙보다는 뒤져있어서 그 복식이 아직도 흰색을 위주로 하게 된 것이다.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상(商)의 초기부터 그 나라는 지금의 하남(河南)에 위치하여 지금의 동북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따뜻하였는데, 의복에 관한 제도는 대체로 기후와 관련이 있다. 남방은 기후가 온난하기에 의복은 넓고 크다. 이에 비해 북방은 기후가 춥기 때문에 의복은 좁다. 부여는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에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大人)은 그 위에다 여우, 삿갓이, 원숭이, 희거나 검은 담비가죽으로 만든 갓을 입었으며 또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고 하였다.¹²⁾ 이러한 복식은 은인(殷人)과 상당히 일치한다. 고구려인도 역시 흰색을 숭상하는 풍습이 있는데,¹³⁾ 관복(冠服)의 제도는 부여보다 더 뛰어나다. 고구려의 의복에 대해 “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대가(大加)나 주부(主簿)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幘)과 유사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弁)과 같다.”고 하였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인은 “항상 현토군으로부터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았다.”고 하였는데,¹⁴⁾ 따라서 이러한 풍습이 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역 상황과 결합하여 약간 고쳐졌을 뿐이다.

9) 『三國志』卷30 「魏書」 滅

10) 이는 『삼국지』를 따랐고 『후한서』에서는 설달이라 한다.

11) 『禮記』「檀弓」上

12) 『三國志』卷30 「魏書」 夫餘

13) 『翰苑』卷30 梁元帝『職貢圖』를 인용함.

14) 『三國志』卷30 「魏書」 高句麗

농업을 위주로 하고 어렵(漁獵)을 겸하는 것은 음식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음식 그릇과 식사 예절은 동북의 다른 두 민족과 완전히 다르다. 『삼국지』에서 부여는 “음식을 먹고 마심에 모두 조두(俎豆)를 사용하고, 회동(會同)할 때에는 서로 술잔을 주고(拜爵) 술잔을 닦는(洗爵) 예(禮)가 있고, 서로 읍(揖)하고 사양하면서 출입한다.”고 기록하였다.¹⁵⁾ 현대 사서(辭書)의 해석에 따르면 조두(俎豆)는 모두 고대의 제사용 그릇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은 최초에 보통의 식기에서 변천되어온 것이 확실하다. 조(俎)는 소와 양을 담은 식기이고, 두(豆)는 일종의 다리가 높은 큰 접시와 비슷한 토기 품질의 식기인데 상주(商周) 시기에 성행된 식기이다. 조두는 최초에는 나무나 토기로 만들어졌을 것인데, 뒤에는 칠기와 청동기로 만들었다. 이로서 부여인은 중원 사람들이 이미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점차 도태시킨 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내륙지역에서 일찍이 사용하였던 음식예절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회동(會同)”은 고대에 제후들이 천자를 조현(朝見)하는 통칭이다. “배작(拜爵)”과 “세작(洗爵)”은 병렬되었는데 “봉후배작(封侯拜爵)”이란 의미가 아님이 분명하며, 이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예절인데, 『儀禮』~중에 “찬작(贊爵)” 및 “세작(洗爵)”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음양승강(揖讓升降)”은 술자리에서 출입할 때의 예절인 것이 분명하다. 『위서』에서 고구려인도 “식사할 때 조두(俎豆)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삼국지』~부여전(夫餘傳)을 답습하였는지 그 여부는 마치 “군자국(君子國)의 칭호가 해동(海東)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아직도 이 기사의 신뢰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고구려인의 “조”와 “두”가 아직까지도 실물로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구려인의 책변(幘弁)과 부여인의 조두는 모두 중원 사가들에 의해 이미 상실된 고례(古禮)라고 간주되어 졌으며 이에 따라 “동이(東夷)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관(冠)으로는 고깔(弁)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 그릇은 조두(俎豆)를 사용하였으니, 이른바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四夷)에게서 구했던 것이다.”라는 극찬도 뒤따랐다.¹⁶⁾

사회풍속은 경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주변 각 민족의 영향과도 관계가 있다. 『한서』에서 모두 그 지역의 풍속을 “현도와 낙랑은 무제(武帝) 때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조선(朝鮮)·예맥(濊貊)·구려만이(句驪蠻夷)이다. 은(殷) 나라의 도(道)가 쇠해지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의에 힘쓰고 농사짓고 누에를 치며 길쌈하도록 가르쳤다. 낙랑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팔조법금(八條法禁)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그것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 집 노비로 만들고 여자일 경우에는 역시 하녀로 만든다. 자기가 용서받 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50만 전을 내게 한다. 자기가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는 못하여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렇

15) 『三國志』卷30 「魏書」 夫餘

16) 『後漢書』卷85 「東夷傳序」

게 해서 그 백성들은 중시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대문을 닫고 사는 법이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 지방의 농사짓는 백성들은 변두(邊豆)로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내군(內郡)의 상인을 본받아서 왕왕 잔 같은 그릇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서술하였다.¹⁷⁾ 동북지역의 풍속에 대한 이와 같은 개략적 서술 중 많은 부분이 고구려의 실정과 부합된다.

가무는 모두 각기 자기의 민족 특색이 있는데, 예맥족의 가무가 내륙지역과 특별히 큰 관계가 있다. 고구려에서는 “그 백성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촌락마다 저물어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고 하였다.¹⁸⁾ 부여사람도 마찬가지로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迎鼓)라 하였다. 길에 다닐 때는 낮에나 밤에나,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⁹⁾ 고구려가 노래와 춤을 매우 좋아하는 습속은 부여에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여와 은상(殷商)의 관계가 긴밀한데, 은상(殷商) 역시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사회였다. 부여 및 고구려와 인접한 한의 군(郡)도 모두 가무를 좋아하는 풍습이 있었다.²⁰⁾ 더 나아가 중국의 옛 풍속은 본래 노래와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에 “예악(禮樂)”을 특히 중시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사면(呂思勉)은 “중국의 옛 풍속은 본래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예기』에서 말하기를 ‘군자는 이유 없이 금슬(琴瑟)을 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이웃집에 장례가 있으면 쌀을 찿을 때 노래로 돕지 않고, 동네에 빈소가 있으면 골목에서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장례가 있으면 시작을 읊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부터 가무 풍속은 이미 일상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예악의 성행은 대개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²¹⁾ 예맥족은 모두 “공회(公會)”가 있는데 부여는 “영고”라 칭하고 고구려는 “동맹”이라 칭하며 예는 “무천”이라 칭하며 모두 농업과 관련이 있다. 음악을 좋아함은 인간의 천성이지만, 각 민족의 음악은 모두 환경 및 경제로 인해 형성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데, 부여와 고구려처럼 밤낮으로 모두 노래하는 상황은 비교적 보기 드물다. 『시경』 가운데 나타나는 전가(田歌) 및 직가(織歌)와 서로 비교하면, 고구려의 가무 풍속은 내륙지역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장제사(喪葬祭祀)의 풍속은 예맥족과 중국이 가장 유사하다. 제사의 예속(禮俗)은 예맥족이 풍년을 기원하거나 수확을 경축할 때 다수 표현된다. 사서에서 부여가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17) 『漢書』卷28下 「地理志」下

18) 『三國志』卷30 「魏書」高句麗

19) 『三國志』卷30 「魏書」夫餘

20) 『漢書』卷28下 「地理志」를 참고 바람. 또한 司馬相如『上林賦』에서 “文成顛歌”이란 기사가 있다.
注雲：“文穎曰：文成，遼西縣名也，其縣人善歌。”

21) 呂思勉, 『中國民族史』第6章 貉族.

이름을 영고(迎鼓)라 하였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한다.”고 기록되었다.²²⁾ 고구려에서는 “귀신에게 제사지낸다. 또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도 제사를 지낸다.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그 이름을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이름을 수혈(隧穴)이라 한다. 10월 국중대회에서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隧神)을 신와 좌석에 모신다.”고 한다.²³⁾ 예인(穢人)은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 집을 버리고 곧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고 했다.²⁴⁾ 고구려가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을 제사하는 것도 전형적인 농업사회의 제사인데, 그것과 농경에 적합하지 않는 거주환경과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사는 자연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내륙지역과 부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장례풍속은 “후장하는데, 생전의 금은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한다.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주위에 벌려 심는다.”고 한다.²⁵⁾ 후장하는 것도 농업사회 특유의 풍속인데 진한(秦漢) 이래 내륙지역에서 이러한 풍습이 유행되었고, 또한 내륙으로부터 변강까지 확산된 것으로서, 한의 여러 황제가 여러 차례 금지하라는 칙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퇴폐 풍기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고구려의 후장 풍속도 내륙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독자적인 특색도 있는데, 이것은 동북지역의 산이 많고 밭이 적은 자연환경에 연유한 것이다. 밭이 적으니 무덤은 산 위나 강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고, 산이 많고 돌이 많으니 동북지역에서 적석묘(積石墓)를 만드는 풍속이 성행되도록 결정된 것이다.

풍속은 음란하고, 혼인에서는 여자 쪽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삼국지』에서 “나라 안의 촌락마다 저물어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 …그 풍속은 음란하다.”고 기록했다. 다른 정사(正史)의 고구려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에 장기적으로 “음풍(淫風)”이 존재했음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음풍(淫風)은 동북의 숙신족과 동호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일정하게 자연적으로 발전된 것이기도 하고, 주변 한의 군(郡)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한데, 여자가 비교적 자유로운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혼인에서는 여자도 매우 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서에는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본체 뒤에 작은 별체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婿屋)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밖에 도착하여

22) 『三國志』卷30 「魏書」 夫餘

23) 『三國志』卷30 「魏書」 高句麗

24) 『三國志』卷30 「魏書」 濊

25) 『三國志』卷30 「魏書」 高句麗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아무쪼록 신부와 같이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 서옥(婿屋)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돈과 폐백은 서옥(婿屋)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이러한 혼인은 사실 데릴사위인데, 지금 동북지역에서는 “도삽문(倒插門)” 혹은 “상문녀서(上門女婿)”라고 부른다. 『詩經·我行其野』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볼 수 있다.

내가 벌판을 걸으며, 가죽나무 무성하게 그늘졌구나. 혼인의 일로, 그대 집에 와서 산다네. 그대 나를 돌보지 않아, 다시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려네.

내가 벌판을 걸으며, 소루쟁이를 캐노라. 혼인의 일로, 그대 집에 와서 묶는다네. 그대 나를 돌보지 않아,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벌판을 걸으며, 순무를 캐노라. 이미 혼인한 것 생각 않고, 그대는 신부를 다시 구한다. 그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대가 다만 괴팍해서라네.

我行其野，蔽芾其樗。婚姻之故，言就爾居。爾不我畜，復我邦家。

我行其野，言采其蓫。婚姻之故，言就爾宿。爾不我畜，言歸斯復。

我行其野，言采其菑。不思舊姻，求爾新特。成不以富，亦祇以異。²⁷⁾

이 시를 읽으면, 고대에서 남자가 결혼한 이후 여자의 집에서 묵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서옥(婿屋)”의 원천도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고희강(顧頡剛)은 『사림잡식(史林雜識)』에서 이러한 혼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구려 이외에 예맥과 동호 및 숙신 등 여러 민족은 “결혼한 여자는 정절을 지키고 미혼 여자는 음탕하다”는 일종의 공통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자는 결혼 이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고 교제가 제한을 받지 않지만 결혼 이후에는 한평생 한 남편을 섬기는 것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의 이러한 “서옥(婿屋)” 혼인에서 고구려의 여자는 결혼한 이후에도 자식을 낳기 이전에는 남편을 택할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며, 이러한 점이 뒤에 “부녀는 음분(淫奔)하며 풍속에 유녀(遊女)가 많다.”라고 쉽게 해석되도록 만들었다.

정치제도는 경제기초 위에서 세워지고 경제와 서로 상응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초기 정치제도는 부여 및 한 문화의 두 방향에서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제도는 당연히 ‘세선(世選)’이고 ‘세습(世襲)’이 아닌데, 이는 은상(殷商) 및 부여와 비교적 유사하다. 고구려 초기의 역사기록 가운데 “국민이 새로운 왕을 옹립한다.”는 내용이 자주 보인다. 이는 왕권과 귀족권의 충돌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욱 많

26) 『三國志』卷30「魏書」高句麗

27) 『詩經』卷5「小雅」我行其野

은 현상으로부터 이는 ‘세습제(世襲制)’가 아니고 ‘세선제(世選制)’임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 시대에 낙후된 제도로서 부여 이전의 역사에서 볼 수 있고, 내륙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이른 은상(殷商) 시대에 이러한 제도가 한창 시행되던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지』의 기록에서 “옛 부여의 풍속은 가뭇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⁸⁾ 이를 통해 이 시기 부여의 왕은 농업의 흥작에 책임을 져야하며, 그의 신분은 세속의 왕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무사(巫師)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은상(殷商) 시기도 이러했는데, 국왕도 농업의 흥작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농업 수확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천재(天災)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바의 여러 가지 구제를 해야 했으며, 왕위계승도 대부분 “형이 죽으면 동생이 계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고구려는 스스로 부여에서 기원되었다고 승인하는데, 정치제도에서 명백하게 부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주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직관(職官)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구획이다. 최초의 고구려 직관제도는 『삼국지』에서 “그의 관제는 상가(相加), 대로(對盧), 패자(沛者), 고추가(古鄒加), 주부(主簿), 우태승(優台丞), 사자(使者), 조의(皂衣), 선인(先人)이 있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⁹⁾ “가(加)”는 부여의 관제에서 비교적 흔하게 보임으로써 우리는 “가”계 관직명은 부여의 관제를 계승한 것임을 알아낼 수 있다. 어떤 학자는 부여의 “가”계 관직명이 은상(殷商)에서 연원한 것임을 고증하여 교정해냈지만, 고구려로 말하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전파해온 내륙문화일 뿐이다.³⁰⁾ 부여의 행정구획에 대해서는 “제가(諸加)들은 별도로 사출도(四出道)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家)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이러한 제가가 관리하는 “사출도(四出道)”의 설치는 고구려의 오부(五部) 구획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그의 건국 초기부터 한 군현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에 한 문화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고구려의 행정기구와 관직제도는 모두 내륙지역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한대(漢代)의 지방행정기구는 일반적으로 군국(郡國)을 설치하고, 군국 아래에 현읍(縣邑)이 있고, 현읍 아래는 향리(鄉里)가 있다. 고구려 초기의 지방행정기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주요한 이유는 사료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후기는 군현제도인 것이 분명하고, 내륙지역의 군현제도와 유사하여 그의 군현제가 이미 성숙되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삼국지』에 기재된 고구려 관직명 가운데 상가, 주부, 우태승은 한화(漢化) 혹은 한역(漢譯)의 색채를 띠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고구려는 한(漢) 군국 가운데 하나의 현급(縣級) 후국(侯國)이

28) 『三國志』卷30「魏書」夫餘

29) 『三國志』卷30「魏書」高句麗

30) 姜維東, 「從夫餘、高句麗官制中的“加”看夫余玉文化與經山文化的關係」,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에 수록됨.

31) 『三國志』卷30「魏書」夫餘

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구려 상가의 지위는 현령에 해당되고 주부와 승도 현급 관원인 것이 분명하여, 고구려 건국 초기에 그의 모든 관료체계는 한나라 현급에 해당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에 고구려 왕은 한편으로 중원왕조의 봉작(封爵)을 받고, 한편으로 계속 내륙지역 관제의 성공적인 경험을 흡수하여, 정치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내륙지역을 모방하는 것이 마치 “남이 걸으면 걷고 남이 뛰면 뛰는 즉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亦步亦趨)”과 같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오부의 설치는 부여의 영향 이외에도 한(漢) 제도의 영향도 받았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에도 아직 한의 현토군 고구려현의 관할을 받는 하나의 현급 후국이였다.³²⁾ 고구려의 오부제는 한의 군(郡)과 5개의 감찰구(監察區)를 나눈 제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한대(漢代)의 군(郡), 현읍(縣邑), 향(鄉)은 모두 5개 감찰구로 나누는데 즉 오부이다. 그 시기 고구려인의 사회구조는 아직도 고도적인 씨족화 사회로서 중원 내륙지역과 선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 상황에 맞게 씨족 수령을 지목하여 감찰구의 장관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오부제는 부여와 한의 두 가지 제도를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고구려와 같은 시기의 동호족 및 숙신족 비교

예맥족 계통에 속한 고구려족은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다. 경제기초가 서로 같기 때문에 고구려의 정치, 경제, 문화는 모두 내륙과 유사하다. 역대 중원왕조가 부여, 고구려, 왕씨고려, 이씨조선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농업국가가 농업국가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다. 동호족은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부족이지만, 산세의 험준함을 의거할 수 있기에 일정하게 산림부족의 특징도 띠고 있다. 숙신 계통의 모든 부족은 전형적인 산림부족으로서 수렵과 채집이 주요 경제수입이며 그의 문화도 이와 부합된다. 같은 시기의 고구려, 읍루(勿吉), 오환(鮮卑)에 대해 문화적인 비교를 하면 각 민족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고구려의 문명 수준이 기타 두 민족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도 보아낼 수 있다. 또한 전체 예맥족의 문명 수준도 동북지역에서 제일 높는데, 이는 한 문화의 영향의 덕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왕권과 직관제도에서 비교하면, 고구려는 당시에 이미 국왕의 권위가 수립되었고 일련의 완비된 직관제도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동호족의 오환과 선비에는 모든 부락이 공동으로 천거해낸 맹주(盟主) 성격의 대인(大人) 밖에 없었고 부락에는 각각 소사(小帥)가 있었을 뿐 직관제도는 없었다. 선비의 단석괴(檀石槐)가 죽은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32) 당시 영동(嶺東)의 예(穢), 맥(貊), 부여는 모두 현후(縣侯)이고 고구려도 예외가 없다. 예컨대 『삼국지』에서 그의 왕을 직접 “구려후(句麗侯)”로 칭하였고 그의 나라가 서한(西漢) 말에 “후국(侯國)”이라 하였다.

대인은 대대로 세습된다.”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숙신족의 읍루는 산림 사이사이에 살기 때문에 자연지리의 단절로 각 부족 사이의 연락이 불편하였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대군장(大君長)이 없었는데” 진대(晋代)에 와서야 비로소 점차적으로 “부자가 대대로 군장이 된다.”라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로서 고구려의 정치제도 모두가 동호 및 숙신에 비교하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식과 의복에서도 고구려는 동호 및 숙신과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그 문명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농업 생산국이기 때문에 음식 풍속은 모두 농업사회의 것으로서 야채와 곡식을 요리하여 주식으로 한다. 동호족은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데 그들의 음식은 “고기를 먹고 진한 유즙(酪)을 마신다.” 당시의 숙신은 이보다 더욱 낙후하여, 주로 돼지를 음식물 원천으로 삼고 기타는 모두 수렵과 채집에 의지하였다. 기본적인 “우물과 부뚜막”조차도 없었다.³³⁾ 의복에서는 고구려가 처한 자연환경이 비교적 열악하여 부여와 내륙지역처럼 자급자족할 수 없어서 일반 민중은 “삼베와 비단 그리고 짐승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³⁴⁾ 그러나 당시의 오환족은 “짐승의 털가죽으로 옷을 만든다.”고 했는데³⁵⁾, 이는 유목민족의 특징이 드러난 것이다. 숙신족계의 읍루와 물길은 산림민족이기 때문에 매우 낙후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들의 풍속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가죽은 옷을 해 입는다. 겨울철에는 돼지기름을 몸에 바르는데 그 두께를 두껍게 여러 번 발라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여름철에는 벌거벗은 채 지내는데 짧은 베 조각으로 앞뒤를 둘러서 형체만을 가린다.”고 하고,³⁶⁾ 또 “부녀자는 베로 만든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돼지나 개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하며,³⁷⁾ “돼지는 산골짜기에서 방목하여 고기와 가죽은 먹고 털로는 옷을 만든다.”고도 하였다.³⁸⁾ 읍루는 아직도 복식의 주요한 원천을 일상적으로 기르는 돼지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례(儀禮) 부분에서 부여와 고구려는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륙지역과의 차이가 더욱 크다. 이는 내륙지역의 기석(幾席)이 동북의 추운 지방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륙지역의 기석 예의가 부여와 고구려에서 모두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오환과 읍루는 모두 일상생활 가운데 존비(尊卑)와 남녀유별(男女有別)을 체현시키는 의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오환에서는 “부자 사이와 남녀 사이에는 서로 맞대어 쭈그리고 앉는다.”고 한다.³⁹⁾ 읍루는 의례 부분에서 낙후하므로 중원 사가의 놀림을 받았는데, “앉을 때 다리를 뻗고 앉는다.”거나⁴⁰⁾, “동이는 음식을 먹을 때 모두

33) 『太平御覽』卷784에 인용된 「肅慎國記」

34) 『魏書』卷100 「高句麗傳」

35) 『三國志』卷30 「魏書」烏桓에 인용된 「魏略」

36) 『三國志』卷30 「魏書」挹婁

37) 『魏書』卷100 「勿吉傳」

38) 『翰苑』에 인용된 「肅慎國記」

39) 『三國志』卷30 「魏書」烏桓에 인용된 「魏略」

조두(俎豆)를 사용했으나, 오직 읍루만은 그렇지 못했으니, 그 법도나 풍속에서 가장 기강이 없었다.”고 기록하였다.⁴¹⁾

장례 풍속에서 고구려는 후장(厚葬)과 적석묘(積石墓)로 잘 알려졌다. 오환과 읍루는 “슬픔이 없음”을 숭상하는데, 구체적인 장례 풍속은 각기 특징이 있다. 오환에서는 “그의 풍속은 전사(戰死)를 추앙한다. 그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관으로 거둔다. 슬프게 우는 의식이 있지만, 매장할 때에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사람을 보낸다. 살지게 기른 개를 채색 끈으로 휘감아 끌고 죽은 자가 타던 말, 옷과 일상 용품, 생전의 복식을 가져와 모두 불태워버려 죽은 자를 보낸다. 그 뜻은 개한테 부탁해 죽은 자의 신령을 적산(赤山)까지 호송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적산은 요동 서북 수천리에 있는데, 중국 사람이 죽은 영혼을 태산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장례날에 이르면 밤에 친족들을 모아 함께 앉히고, 개와 말을 끌고 그 자리를 넘어간다. 혹은 노래 부르고 울며 개에게 고기를 던져준다. 또한 두 사람을 시켜 주문을 읊으며 죽은 자의 혼신이 길을 떠나 험난한 길을 넘으며, 불길한 귀신이 막지 못하게 하며, 적산에 도착하게 한다. 그리고 개와 말을 죽이고 의복을 태워버린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오환의 장례 풍속은 비교적 복잡하며, 전사(戰死)를 추앙하는 것은 흉노와 같고, “소맥(燒麥)의 풍속은 아주 특이하며 뒤에 줄곧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죽은 자의 신령을 적산에 보낸다고 믿는 것은 내륙지역의 풍습과 서로 유사하다. 읍루에서는 “부모가 봄이나 여름에 죽으면 세워서 묻고는 무덤 위에 지붕을 지어 비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가을이나 겨울에 죽으면 그 시체를 이용하여 담비를 포획하는데, 담비가 그 살을 뜯어 먹다가 많이 잡힌다.”고도 하고,⁴²⁾ “슬픔 없는 장례를 숭상한다. 부모가 죽을 때 남자는 울지 않는다. 우는 사람은 체면이 없다고 여긴다. …죽은 자는 당일 저녁에 들에 묻고, 교목(交木)으로 작은 괘(槨)를 만들고, 돼지를 죽여 괘 위에다 쌓아 놓는다. 부자집은 수백 마리, 가난한 집은 수십 마리를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삼는다. 흙으로 덮으며 끈의 한 쪽은 괘의 꼭대기에 매어 한 쪽은 흙위에 놓는다. 그리고 땅에 술을 부어 제사를 지내는데, 끈이 찢어서야 비로소 그치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⁴³⁾고도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장례 풍속 중에 속신족의 장례 풍속이 비교적 낙후한 것임이 분명하다.

내륙지역은 항상 “의관예의(衣冠禮儀)”를 스스로 자랑하는데, 고구려도 “관복(冠服)”으로 중원의 사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⁴⁴⁾ 같은 시기의 오환은 “모두 삭발하는데 간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녀자는 시집 갈 때서야 머리를 기르는데 머리꼭지 양쪽에 틀어 엮는다. 구결(句決)로 머리 장식품을 하는데 위에는 금벽(金碧)으로 장식하여 중원의 관보요(冠

40) 『太平御覽』卷784에 인용된 「肅慎國記」

41) 『三國志』卷30 「魏書」挹婁

42) 『魏書』卷100 「勿吉傳」

43) 『太平御覽』卷784에 인용된 「肅慎國記」

44) 『後漢書』卷85 「東夷傳」序：“東夷率皆土著，意飲酒歌舞，或寇弁衣錦，器用俎豆。所謂中國失禮，求之四夷者也。”

步搖)와 같다.”고도 했다.⁴⁵⁾ 같은 시대의 읍루에서는 “풍속에 모두 편발(編髮)을 한다”고 하였으니, 세 민족은 각자의 서로 다른 민족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거실(居室)에서도 세 민족은 서로 다른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고구려는 궁실을 치장하기 좋아하는데, 이것은 주로 국왕의 거처나 정부기구와 사당이며, 보통 평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초막집에서 산다. 이는 기본적으로 내륙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데, 농업사회의 건물이다. 오환은 “그 풍속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며, 물과 풀을 따라가며 방목하는데,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없고, 파오(窮廬)를 집으로 삼는데, 모두 동쪽으로 향한다.”고 하였다.⁴⁶⁾ 파오 장막은 유목민족의 전형적인 거실이다. 읍루가 처한 자연환경은 고구려 및 오환보다도 더 북쪽이며 기후가 추워서 혈거(穴居)를 위주로 하여 “그들은 항상 산림 속에 살며 혈거생활을 한다. 큰 집은 그 깊이가 아홉 계단이나 되며, 계단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긴다. 그 지방의 기후는 추워서 부여보다 혹독하다. …그들은 깨끗하지 못하여 집의 중앙에 변소를 만들고 그 주위에 둘러 모여 산다.”고 한다.⁴⁷⁾ 거실이 보온에 적당하다면 혈거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데, 읍루가 혈거를 위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가 낙후함을 설명해준다.

형벌, 혼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를 아내로 삼는 습속에서 고구려는 오환 및 숙신과 서로 일정하게 상통하는 점이 있다.

형벌에서 3자는 모두 비교적 엄격하며 감옥은 없다. 고구려에서는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평의(評議)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고 했다.⁴⁸⁾ 오환에서는 “규정이 있는데, 부락 수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죄는 사형에 처한다. 도둑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서로 참살하여 죽이면 부락끼리 서로 복수하기를 한다. 복수가 끝이 없으면 대인에게 보고하여 이를 수습하기로 한다. 죄가 있는 자는 소와 말을 바쳐 목숨을 바꾼다. 스스로 자기의 부친과 형제를 죽이면 죄가 없다. 나라를 배반하여 도망치다가 대인에게 붙잡히고 어떤 촌락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불편하고 아득히 먼 곳으로 추방한다.”고 한다.⁴⁹⁾ 읍루에서는 “글이 없어서 말로 약정을 맺는다. …장물을 조금이라도 훔치면 모두 죽인다. 비록 들에 있어도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고 한다.⁵⁰⁾ 이는 당시 그들의 법률이 아직도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형벌은 간단하기에 엄혹하기만 하였다. 감옥은 없기에 죄행은 구별할 수 없어 대부분 사형에 처하였다. 오환은 활동 구역이 커서 내륙지역의 유배와 비슷한 형벌이 형성되었으며, 나라를 배반하여 도망친 자들을 모두 빈궁한 지역으로 추방하였다.

45) 『三國志』卷30 「魏書」 烏桓에 인용된 「魏略」

46) 『三國志』卷30 「魏書」 烏桓에 인용된 「魏略」

47) 『三國志』卷30 「魏書」 挹婁

48) 『三國志』卷30 「魏書」 高句麗

49) 『三國志』卷30 「魏書」 烏桓에 인용된 「魏略」

50) 『太平御覽』卷784에 인용된 「肅慎國記」

혼인에서 세 민족의 여자는 비교적 자유롭고 큰 선택권이 있었다. 고구려는 “서옥”제도가 있어서 여자의 선택권은 더욱 컸다. 오환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모두 먼저 사통(私通)하고, 여자를 빼앗아 간다. 반년이나 백일이 지나간 후에 중매쟁이를 보내 말 및 소와 양을 결혼의 예물로 보낸다. 사위는 신부를 따라 돌아온다. 처갓집 사람을 보면 존비(尊卑)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절하는데, 오직 그 부모에게만은 절하지 않는다. 처갓집에서 하인으로 2년을 보낸 이후, 처갓집은 딸을 후하게 보낸다. 거처의 재물은 모두 처갓집에서 낸다. 따라서 그 풍속은 부인으로부터 피해지는데 전투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남자가 먼저 사통한 뒤에 빼앗는데, 이는 남자의 주동적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서 고구려에서 여자가 상당한 자주권이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한 이후 오환 부녀자의 지위도 고구려 부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다. 읍루에서는 “결혼 첫 날밤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의 유방을 잡았다가 그만 두면 곧 정혼이 되어 이내 부부가 된다.”고 하였고,⁵¹⁾ “시집가고 장가가는 예법은 남자가 깃털을 여자 머리 위에 꽂는다. 서로 맞으면 깃털을 가지고 돌아간 후에 예법을 지켜 그를 맞는다. 결혼녀는 정절을 지키고 미혼녀는 음란하다. 청장년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을 천하게 대한다. 과부가 되면 평생 다시 시집가지 않는다.”고도 하였다.⁵²⁾ 이런 기록에서도 여자가 혼인에서 일정한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는 풍속은 중원지역에서도 일찍부터 있었다. 그러나 뒤에는 유가(儒家)의 비난을 받아 엄하게 금지시킴에 따라 이 풍속이 끊기고 말았다.⁵³⁾ 고구려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고 했으며,⁵⁴⁾ 부여에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흉노의 풍습과 같다.”고 했고,⁵⁵⁾ 오환에서는 “부친과 형이 죽으면 형수와 계모는 아내로 삼는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식을 후처의 백숙에게 보낸다. 죽은 후에 옛 남편에게 돌려보낸다.”고 했다.⁵⁶⁾ “계모와 사통하고(烝庶母),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는(報寡嫂)” 풍습은 인류 초기에 형성된 부족과 가족 재산을 공고히 보존하는 일종의 습속이고, 인류 발전과정 속에서의 한 부분이다.

총적으로 말하면, 고구려와 오환 및 숙신의 상통하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 모두가 인류발전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에 부딪히면서 비로소 이러한 상통점이 초래된 것이다.

51) 『魏書』卷100 「勿吉傳」

52) 『太平御覽』卷784에 인용된 「肅慎國記」

53) 『禮記』「曲禮」: “嫂叔不通問.” 『孟子』중에서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동생은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도 주목할 만하다.

54) 『太平御覽』卷783에 인용된 「魏略」

55) 『三國志』卷30 「魏書」 夫餘

56) 『三國志』卷30 「魏書」 烏桓에 인용된 「魏略」

III. 결 론

사적(史籍) 문헌의 비교를 통해, 예맥족은 농업으로 건국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크게 같은 점은 그들의 주요한 경제가 모두 농업을 기초로 하여 건립되었기 때문에 문화가 대체로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자연 환경은 서로 같지 않다. 한편으로는 같지 않은 경제수입에 직면하여 부득이 방법을 써서 농업생산의 부족을 미봉해야 함에 따라, 그들의 문화는 특정한 성격을 띤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지역의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문화는 또한 일정하게 상통하는 점을 갖게 된다. 고구려는 음식, 의복, 혼인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내륙지역 및 부여와 서로 다른데 이는 바로 자연환경이 인류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 고구려는 농경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농업국가가 되어 발전했는데, 이는 부여 및 한 군현의 영향의 덕택이다.

위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고구려는 농업국가이며, 그의 변천 과정에서 한(漢) 문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고구려가 소속된 예맥족은 동북의 3대 민족 중에서 문명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 역시 한 문화의 동이(東移)에 의한 것이다.

부표1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시조 전설	주몽 전설	동명 전설	백제 동명 전설	은상(殷商) “현조생상(玄鳥生商)” 전설
왕권	국인(國人)은 왕을 세울 권리가 있기에 왕위는 세습제가 아니고 “세선(世選)” 제도이다. 형이 죽은 이후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일들도 많았는데 은상(殷商) 및 부여와 유사하다.[필자]	옛 부여의 풍속은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삼국지]		은대(殷代)의 왕위 계승 제도 중에서 형이 죽은 후 동생이 계승한 제도가 가장 널리 알려졌다. 은대에 30대(代)의 왕이 있는데, 형제상속의 경우는 14대나 된다.[필자]
직관	그의 관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승, 사자, 조의, 선인이 있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모든 대가들도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치 중국의	나라에는 군왕(君王)이 있고 모두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 읍락에는 호민(豪民)이 있으며, 하호(下戶)라 불리는 백성은 모두 노복이 되었다. 제자들은 별도로 사출도	(동옥저)읍락에는 장수(長帥)가 있으며, 대군(大郡)은 없다.[삼국지](예)한(漢)으로부터 넓고 멀어 단단대령(單單大領)이동은 나누어 동부도위(東部都尉)를 설치하고 불내성(不耐城)에 치소(治所)를 두어 별도로 영동(領東) 7현(縣)을	현령(縣令) 및 장(長)은 모두 진(秦)의 관직명이다. 만 호(戶) 이상을 다스리는 관리는 현령이고 녹봉은 6백석부터 천석까지 있다. 만 호 이하를 다스리는 관리는 현장이고 녹봉은 300석부터 500석까지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p>경(卿)이나 대부(大夫)의 가신과 같은 것으로 회합할 때의 좌석 차례에서는 왕가(王家)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줄에 앉지 못한다.[삼국지]</p>	<p>(四出道)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家)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이다.[삼국지]</p>	<p>통치하게 하였다. 후한 건무(建武) 6년에 변방의 군(郡)을 줄였으며 이때 도위도 폐지하였다. 그 후부터 현에 있던 거수(渠帥)를 모두 현후(縣侯)를 삼으니 불내(不耐), 화려(華麗), 옥저(沃沮) 등의 모든 현은 전부 후국(侯國)이 되었다. 이들 이적(夷狄)들은 서로 침공하여 싸웠으나, 오직 불내(不耐)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조(功曹)와 주부(主簿) 등의 여러 조(曹)를 두었는데, 예민(濊民)이 모두 그 직을 차지하였다. 옥저의 여러 읍락의 거수들은 스스로를 삼로(三老)라 일컬으니, 이것은 옛 현이었을 때의 제도이다.[삼국지]</p>	<p>있다. 모두 승(丞) 및 위(尉)들이 보좌하고 있고 그들의 녹봉은 2백석부터 4백석까지 있다. 이들은 주요 관리들이다. 백석 이하로는 두식(斗食), 좌사(佐史) 등의 관리가 있는데 보조관리라 칭한다. 대개 10리마다 하나의 정자를 세우는데 정장(亭長)이 있다. 10정(亭)이면 하나의 향(鄉)을 세우고 향에는 삼로(三老)가 있다. 이 삼로는 즉 유질(有秩), 색부(耆夫), 유요(游徼) 등이다. 삼로는 교화를 관장하는데 그 중에 색부는 소송을 관장하고 부세를 징수한다. 유요는 치안을 순찰하고 도둑을 막는다. 현은 대개 사방 백리이고 백성들이 많고 뽕뽕하면 면적을 좀 줄이고 백성들이 적으면 면적을 좀 늘여놓는다. 향 및 정도 이와 같은데 모두 진의 제도이다.[한서]</p>
복식	<p>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대가(大加)나 주부(主簿)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幘)과 유사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弁)과 같다.[삼국지] 백성들은 모두 정착해 생활하고 산 계곡을 따라</p>	<p>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에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大人)은 그 위에다 여우, 삿갓이, 원숭이, 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을 입었으며 또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삼국지]</p>		<p>은인(殷人)은 흰색을 숭상한다.[예기(禮記)·단궁(檀弓) 상(上)]</p>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거주하며 삼베와 비단 그리고 짐승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위서] 고려의 부녀자는 흰옷을 입고 남자는 무늬가 있는 견직 및 면직물을 입는다……비천한 자는 위에는 흰 옷을 입고 아래는 긴 흰바지를 입는다.[직공도(職貢圖)]			
음식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서 경작하지만,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들의 습속은 음식을 아껴먹는다.[삼국지] 토질이 척박하여 양잠과 농업으로는 자급하기에 부족한 까닭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절약한다.……식사할 때는 조두(俎豆)를 사용한다.[위서]	음식을 먹고 마심에 모두 조두(俎豆)를 사용하고, 회동(會同)할 때에는 서로 술잔을 주고(拜爵) 술잔을 닦는(洗爵) 예(禮)가 있고, 서로 읍(揖)하고 사양하면서 출입한다.[삼국지]	(동옥저)그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음식, 주거, 의복, 예절은 고구려와 유사하다[삼국지]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조두(俎豆) 모양의 그릇이 있다. 중국에서 예를 잃으면, 사이(四夷)에서 구한다 하는 것은 역시 믿을만한 것이다.[삼국지] 동이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관(冠)으로는 고깔(弁)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 그릇은 조두(俎豆)를 사용하였으니, 이른바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四夷)에서 구했던 것이다.[후한서]
의례	무릎을 꿇고 절할 때에는 한쪽 다리를 펴니, 부여와 같지 않다. 길을 걸을 적에는 모두 달음박질하듯 빨리 간다.	통역자가 말을 전할 때에는 모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짚고 조용히 말한다.		
제사	귀신에게 제사지낸다. 또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도 제사를 지낸다.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그 이름을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이름을 수혈(隧穴)이라 한다. 10월 국중대회에서 수신(隧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국중대회는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름하여 영고(迎鼓)라 하였다.……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한 것	삼한의 풍속은 납일(腊日) 때에 가가호호가 제사를 지낸다. 속어로 소위 “납고(腊鼓) 소리가 나면 봄풀이 자란다”는 것이다.[사승 후한서(謝承后汉书)]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p>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隧神)을 신와 좌석에 모신다[삼국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친다.[위략]</p>	<p>이고, 발굽이 합쳐지면 길한 것이라고 보았다.[삼국지]</p>		
형벌	<p>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평의(評議)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지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삼국지]</p>	<p>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갚게 했다. 남녀 사이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준다.[삼국지]</p>		<p>상(商)의 법은 엄혹함으로 유명하다.[필자]</p>
장례 풍속	<p>남녀가 결혼하면 죽어서 입고 갈 수의(壽衣)를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둔다.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과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한다.[삼국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관(棺)을 쓰지 않고 덧널무덤(槨)을 쓴다. 후장하기 위하여 백일 동안 상을 멈춘다.[위략]</p>	<p>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서 장사지내며,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명가량이나 된다.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데, 관(槨)은 사용하나 관을 쓰지 않는다.[삼국지] 그 나라의 습속은 다섯달 동안 초상을 지내는데 오래 들수록 영화롭게 여긴다. 죽은 이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날 것과 익은 것을 함께 쓴다. 상주는 빨리 장사 지내고 싶어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강</p>		<p>후장제도는 본래 중국의 옛 풍속이다. 유묵(儒墨) 제가(諸家)의 비난으로 점차 없어졌다.[여사면(呂思勉)]</p>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권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량을 벌이는 것으로서 예절을 삼는다. 상을 입는 동안에는 남녀 모두 순백색의 옷을 입고 부인은 베로 만든 면의(面衣)를 착용하며, 반지나 패물 따위를 몸에서 제거하니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위략]		
묘장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과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한다.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는다.[삼국지]	곽(椁)은 쓰나 관은 쓰지 않는다……한(漢) 시기에는 부여왕의 장례에 옥갑(玉匣)을 사용하였으므로, 언제나 현도군에 미리 갖다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다 장사지냈다. 공손연(公孫淵)이 주살된 뒤에도 현도군의 창고에는 옥갑 1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삼국지]		발해만(渤海灣)을 둘러싼 지역에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형식의 적석묘 묘장이 존재하는데 고구려인의 적석묘, 부여의 옥관은 모두 이를 기초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다.[필자]
혼인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본체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婿屋)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아무쪼록 신부와 같이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 서옥(婿屋)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돈과 폐백은 서옥(婿屋)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풍속은 음란하			내가 별관을 걸으며, 가축나무 무성하게 그늘졌구나. 혼인의 일로, 그대 집에 와서 산다네. 그대 나를 돌보지 않아, 다시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려네. 내가 별관을 걸으며, 소루쟁이를 캐노라. 혼인의 일로, 그대 집에 와서 묶는다네. 그대 나를 돌보지 않아,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별관을 걸으며, 순무를 캐노라. 이미 혼인한 것 생각 않고, 그대는 신부를 다시 구한다. 그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대가 다만 괴팍해서라네.[시경·소아·내가 별관을 걸으며(我行其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다.[삼국지] 그 나라의 풍속은 음탕하고, 서로 유혹하여 도망가는 일이 많다.[위략]			野)]
경제	그 나라 안의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다가 만여명에 이르며, 하호(下戶)들이 멀리서 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 와 소금을 짚어지고 와서 그들에게 공급한다.[삼국지] 대가(大家)는 경작을 하지 않고 하호(下戶)는 부세를 바치는데 노예와 같다.[위략]	읍락에는 호민(豪民)이 있고, 하호(下戶)로 불리는 백성은 모두 노복이 되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四出道)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 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 백 가이다.....적군이 침입하면 제가들이 몸소 전투를 하고, 하호는 양식을 저다가 음식을 만들어 준다.[삼국지]		우리 나라의 옛 채읍(采邑) 제도와 당상히 비슷하다.[필자]
기질	그 나라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에 익숙하다.[삼국지]	그 나라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 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삼국지]	(동옥저)성질이 강인하고 용감하다[삼국지]	
오락	그 백성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촌락마다 저물어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삼국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였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였다.[위략] 그 풍속은 음란하며,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서 유희를 즐기는데, 귀천(貴賤)의 구별이 없었다.[위서]	길에 다닐 때는 낮이나 밤이나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는데 하루 종일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삼국지]		옛날에 당나라는 수도를 하동(河東)에 세웠고 은나라는 하내(河內)에 세웠으며 주나라는 하남(河南)에 세웠다..... 온(溫), 지(軹) 지역의 백성은 서쪽의 상당(上黨)에 가서 장사를 하고 북쪽 조(趙)의 중산(中山)에 가서 장사를 한다. 중산은 토지가 척박하고 인구가 많으며 사구(沙丘) 지역에 아직도 이전에 은(殷) 주왕(紂王)이 음락(淫樂)한 곳의 후예들이 있다. 이 지역의 민풍(民風)은 성미가 급하고 투기로 이익을 꾀하여 생활한다. 남자는 서로 모여 장난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p>치며 강개하여 비장한 노래를 부른다. 행동할 때 서로 잇달아 망치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다. 휴식할 때 도굴하고 거짓으로 꾸미며 간사하고 음란한 일을 한다. 미색이 있는 여자들은 창우(倡優)가 된 자가 많다. 여자들은 큰 거문고를 치면서 신을 끌고 다니며 권귀와 부호 가운데 기어가면서 애교를 끈다. 이렇게 후궁에 들어간 것이 제후 중에 보편적인 일이다.[] 중국 고대 풍속은 본래 가무를 좋아한다. 『예기』에서 “군자는 이유없이 금색을 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또 “이웃집에 장례가 있으면 쌀을 찿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향리에서 장례가 있으면 골목에서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논어』에 “공자는 장례가 있으면 시작을 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들로부터 가무는 이미 일상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예악의 성행은 대개 이와 관련이 있다.[여사면(呂思勉)]</p>
건축	<p>궁실을 잘 지어 치장한다. 거처하는 좌우에 큰 집을 건립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p>	<p>그 나라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며 궁실과 창고 및 감옥을 가지고 있다.……성책은 모두 둥글게 만들어서 마치 감옥과 같다.[삼국지]</p>	<p>(예)꺼리는 것이 많아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 집을 버리고 곧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삼국지]</p>	
기계	<p>힘이 있어서 활 쏘기에</p>	<p>활, 화살, 칼, 창을 병기</p>	<p>(동옥저)창을 잘 다루며</p>	

	고구려 문화	부여 문화	예맥계 기타 제족	한(漢) 문화
	유리하다.[위략]	로 사용하며 집집마다 자체적으로 갑옷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삼국지]	보전(步戰)을 잘 한다.[삼국지]	
형사 수취	형이 죽으면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위략]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하는데, 이는 흉노와 같은 풍속이다.[삼국지]		

부표2. 고구려와 동호 및 속신 문화 비교

	고구려 문화	동호 문화	속신 문화
왕권	국인(國人)은 왕을 세운 권리가 있기에 왕위는 세습제가 아니고 “세선(世選)” 제도이다. 형이 죽은 이후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일들도 많았는데 은상(殷商) 및 부여와 유사하다.[필자]	(선비)그 언어와 풍속은 오환과 같다……단석괴(檀石槐)가 죽은 이후부터 모든 대인(大人)들은 세습되기 시작하였다.[위략]	대군장(大君長)이 없다.[삼국지]父子는 대대로 군장(君長)이 된다.[속신국기(肅慎國記)]
직관	그의 관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승, 사자, 조의, 선인이 있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모든 대가들도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치 중국의 경(卿)이나 대부(大夫)의 가신과 같은 것으로 회합할 때의 좌석 차례에서는 왕가(王家)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줄에 앉지 못한다.[삼국지] 그 관직으로는 알사(謁奢), 태사(太奢), 대형(大兄), 소형(小兄)의 호칭이 있다.[위서]	항상 용감하며 건장하고 격투와 쟁송과 같은 일을 조리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 대인(大人)으로 천거한다. 읍락에서는 각각 소사(小師)가 있는데 대대로 계승하지 않는다. 수백이나 천여 개의 읍락이 스스로 한 부락으로 구성된다. 부락의 수령이 소환이 있을 때 새긴 나무를 증거물로 삼아 읍락에서 전송한다. 문자가 없어도 각 부락은 감히 위범(違犯)하지 못한다. 고정된 성씨가 없고 수령 중에 강건한 사람의 이름을 성씨로 삼는다.[위략]	읍락에는 각각 대인(大人)이 있는데, 산림 사이에 위치해 있다.[후한서]
복식	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대가(大加)나 주부(主簿)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幘)과 유사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틀(弁)과 같다.[삼국지]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틀(弁)과 같다. 건(巾)의 모서리에	새와 짐승의 털로 옷을 만든다.[위략]	그들의 풍속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가죽은 옷을 해 입는다. 겨울철에는 돼지 기름을 몸에 바르는데 그 두께를 두께를 여러 번 발라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여름철에는 벌거벗은 채 지내는데 짧은 베 조각으로 앞뒤를 둘러서 형체만을 가린다.[삼국지] 여자들은 베로써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남자들은 돼지나 개 가죽을 입는다……풍

	고구려 문화	동호 문화	속신 문화
	새의 깃을 꽂는데, 귀천(貴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위서]		속은 사람의 오줌으로 손과 얼굴을 씻고, 머리에는 호랑이나 표범의 꼬리를 단다.[위서·물길] 돼지는 산골짜기에서 방목하여 고기와 가죽은 먹고 털로는 옷을 만든다.[속신국기]
음식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서 경작하지만,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들의 습속은 음식을 아껴먹는다.[삼국지]	고기를 먹고 유락(酪)을 마신다.	그 풍속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는다.[삼국지] 우물과 부뚜막이 없어 기와로 술 같은 것을 만들어 사오되 정도를 해 먹는다.……땅에서 소금이 나오지 않아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물을 부어 그 즙을 먹는다.[속신국기]
절후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그 이름을 동맹(東盟)이라 한다.[삼국지]	그들의 풍속은 조수(鳥獸)의 임신과 생육을 알고 이를 통해 4계절을 구분한다. 경작할 때 뻐꾹새의 울음소리를 징후로 삼는다.[위략]	
의례	무릎을 꿇고 절할 때에는 한쪽 다리를 펴니, 부여와 같지 않다. 길을 걸을 적에는 모두 달음박질하듯 빨리 간다.[삼국지] 일어서면 반공(反拱)을 하였고, 꿇어앉아 절할 때는 다리 하나를 끌었으며, 걸음걸이는 달리는 듯하였다.……쭈그리고 앉기를 좋아하였다.[위서]	부자 사이와 남녀 사이에는 서로 맞대어 쭈그리고 앉는다.[위략]	동이(東夷)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대부분 조두(俎豆)를 사용했으나, 오직 읍루만은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법도나 풍속이 가장 기강이 없었다.[삼국지] 앉을 때는 걸터 앉는다.[속신국기]
머리모양	관복[필자]	모두 삭발하는데 간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녀자는 시집갈 때서야 머리를 기르는데 머리꼭지 양쪽에 틀어 엮는다. 구결(句決)로 머리 장식품을 하는데 위에는 금벽(金碧)으로 장식하여 중원의 관보요(冠步搖)와 같다.[위략]	그의 풍속은 모두 편발(編髮)이다.[속신국기]
제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게도 제사한다.	그들은 귀신을 존경하고 천지(天地), 일월(日月), 성진(星辰), 산천 및 선대 수령(首領) 중에 강건함으로써 이름난 자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소와 양	

	고구려 문화	동호 문화	속신 문화
		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마친 후에 소와 양을 모두 태워 죽인다.……음식을 먹을 때 무조건 제사를 지낸다.[위략]	
형벌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평의(評議)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삼국지]	규정이 있는데, 부락 수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죄는 사형에 처한다. 도둑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서로 참살하여 죽이면 부락끼리 서로 복수하기를 한다. 복수가 끝이 없으면 대인에게 보고하여 이를 수습하기로 한다. 죄가 있는 자는 소와 말을 바쳐 목숨을 바꾼다. 스스로 자기의 부친과 형제를 죽이면 죄가 없다. 나라를 배반하여 도망치다가 대인에게 붙잡히고 어떤 촌락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불편하고 아득히 먼 곳으로 추방한다.[위략]	글이 없어서 말로 약정을 맺는다. …장물을 조금이라도 훔치면 모두 죽인다. 비록 들에 있어도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속신국기]
장례 풍속	남녀가 결혼하면 죽어서 입고 갈 수의(壽衣)를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둔다.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과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한다.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는다.[삼국지]	그의 풍속은 전사(戰死)를 추앙한다. 그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관으로 거둔다. 슬프게 우는 의식이 있지만, 매장할 때에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사람을 보낸다. 살지게 기른 개를 채색 끈으로 휘감아 끌고 죽은 자가 타던 말, 옷과 일상 용품, 생전의 복식을 가져와 모두 불태워버려 죽은 자를 보낸다. 그 뜻은 개한테 부탁해 죽은 자의 신령을 적산(赤山)까지 호송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적산은 요동 서북 수천리에 있는데, 중국 사람이 죽은 영혼을 태산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장례날에 이르면 밤에 친족들을 모아 함께 앉히고, 개와 말을 끌고 그 자리를 넘어간다. 혹은 노래 부르고 울며 개에게 고기를 던져준다. 또한 두 사람을 시켜 주문을 읊으며 죽은 자의 혼신이 길을 떠나 험난한	부모가 봄이나 여름에 죽으면 세워서 묻고는 무덤 위에 지붕을 지어 비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가을이나 겨울에 죽으면 그 시체를 이용하여 담비를 포획하는데, 담비가 그 살을 뜯어 먹다가 많이 잡힌다.[위서·물길] 슬픔 없는 장례를 숭상한다. 부모가 죽을 때 남자는 울지 않는다. 우는 사람은 체면이 없다고 여긴다. …죽은 자는 당일 산(赤山)까지 호송하기를 바라므로 작은 괘(槨)를 만들고, 돼지를 죽여 괘 위에다 쌓아 놓는다. 부자집은 수백 마리, 가난한 집은 수십 마리를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삼는다. 흙으로 덮으며 끈의 한 쪽은 괘의 꼭대기에 매어 한 쪽은 흙 위에 놓는다. 그리고 땅에 술을 부어 제사를 지내는데, 끈이 썩어서야 비로소 그치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고구려 문화	동호 문화	속신 문화
		길을 넘으며, 불길한 귀신이 막지 못하게 하며, 적산에 도착하게 한다. 그리고 개와 말을 죽이고 의복을 태워버린다.[위략]	않는다.[속신국기]
혼인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본체 뒤에 작은 별체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婿屋)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아무쪼록 신부와 같이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 서옥(婿屋)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돈과 폐백은 서옥(婿屋)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풍속은 음란하다. [삼국지] 그 나라의 풍속은 음탕하고, 서로 유혹하여 도망가는 일이 많다.[위략]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모두 먼저 사통(私通)하고, 여자를 빼앗아 간다. 반년이나 백일이 지나간 후에 중매쟁이를 보내 말 및 소와 양을 결혼의 예물로 보낸다. 사위는 신부를 따라 돌아온다. 처갓집 사람을 보면 존비(尊卑)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절하는데, 오직 그 부모에게만은 절하지 않는다. 처갓집에서 하인으로 2년을 보낸 이후, 처갓집은 딸을 후하게 보낸다. 거처의 재물은 모두 처갓집에서 낸다. 따라서 그 풍속은 부인으로부터 피해지는데 전투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한다. [魏略]	결혼 첫날밤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의 유방을 잡았다가 그만 두면 곧 정혼이 되어 이내 부부가 된다.[위서·물길] 시집가고 장가가는 예법은 남자가 깃털을 여자 머리 위에 꽂는다. 서로 맞으면 깃털을 가지고 돌아간 후에 예법을 지켜 그를 맞는다. 결혼녀는 정절을 지키고 미혼녀는 음란하다. 청장년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을 천하게 대한다. 과부가 되면 평생 다시 시집가지 않는다.[속신국기]
경제	그 나라 안의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명에 이르며, 하호(下戶)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짚어지고 와서 그들에게 공급한다.[삼국지]	매일 조수(鳥獸)를 잡아 그 고기를 먹고 유락(醕)을 마신다.……부락 수령 아래에서 스스로 목축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요역이 없다. ……땅은 청제(靑稜) 및 동장(東墻)이 적합하다. 소위 동장에서는 개연꽃과 비슷하고 열매가 규자(葵子)와 같은 것이 10월에 익는다. 이로써 흰 술을 만드는데 국열(麴藥)을 만들 줄은 모른다. 곡식은 항상 중국에 의지한다. 수령은 활과 화살, 말의 안장과 말갈래, 금과 철을 다루어 병기를 만들 수 있다. 다름가죽을 자수하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수 있고 담요를 짤 수 있다.[위략]	오곡과 소, 말, 삼베가 산출된다.……그 활의 길이는 4자인데 그 위력은 쇠뇌와 같다. 화살대로는 고(楛)를 쓰는데 길이는 한 자 여덟 치나 되며 청석(靑石)으로 화살촉을 만들었으니, 옛 속신씨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활을 잘 쏘아 사람을 쏘면 어김없이 명중시킨다. 화살에는 독약을 바르기 때문에 사람이 맞으면 모두 죽는다. 적옥(赤玉)과 좋은 담비 가죽이 산출되는데, 오늘날 이른바 음류의 초(貂)가 그것이다.[삼국지] 그 나라는 소가 없고, 수레와 말이 있다. 밭을 갈 때에는 사람 둘이서 갈고, 수레를 사람이 밀고 다닌다. 조와 보리와 기장이 있고, 채소는 아욱이 있다. 물에 소금

	고구려 문화	동호 문화	속신 문화
			기가 응결하니, 나무 위에서 소금이 산출되고, 또한 소금기가 있는 못도 있다. 돼지는 많으나 양은 없다. 쌀을 씹어 술을 만드는데 마시기만 하면 취한다.[위서·물길] 그들의 가축은 돼지, 소와 양이 있고 말타는 것을 모르며 다만 재물로써 인식될 뿐이다.[속신국기]
기질	그 나라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에 익숙하다.[삼국지]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노인을 경시한다. 성품이 사납고 고집스럽다. 노하면 아버지와 형도 죽이는데 모친은 가해하지 않는다. 모친이 족속이 있고 부형(父兄)은 자기가 후계자이기에 복수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위략]	사람들은 힘이 세고 용감하다.……한(漢) 이래로 부여의 휘하에 있었다. 부여가 조세와 부여를 무겁게 하니, 황초(黃初) 년간에 모반하였다. 부여가 수차례 정벌하였으나, 사람들의 무리가 비록 적으나 산이 험하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 활과 화살을 두려워하여 병사로써 능히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그 나라 배를 타고 노략질을 잘 하는데, 이웃나라들의 근심거리였다.[삼국지] 성품이 사납고 흉악하다.[속신국기]
오락	그 백성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촌락마다 저물어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삼국지]	(선비)항상 늦은 봄에 대회를 갖는데 물 위에서 즐긴다.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내를 맞을 때에는 머리를 깎고 연회를 베푼다.[위략]	
의료		병이 나면 쑥뜸으로 치료할 줄 알며, 혹은 돌에 열을 가하여 문지르거나 땅에 열을 가하고 그 위에 눕는다. 혹은 아픈 곳이나 환부를 칼로 잘라 피를 내기도 하고, 천지와 산천의 신에게 제사하는데, 침약(鍼藥)은 없다.[위략]	
건축	궁실을 잘 지어 치장한다. 거처하는 좌우에 큰 집을 건립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삼국지] 그 왕은 궁실을 잘 지어 치장한다.[위서]	그 풍속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며, 물과 풀을 따라가며 방목하는데,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없고, 파오(窮廬)를 집으로 삼는데, 모두 동쪽으로 향한다.[위략]	그들은 항상 산림 속에 살며 혈거생활을 한다. 큰 집은 그 깊이가 아홉 계단이나 되며, 계단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긴다. 그 지방의 기후는 추워서 부여보다 혹독하다. …그들은 깨끗하지

	고구려 문화	동호 문화	속신 문화
			못하여 집의 중앙에 변소를 만들고 그 주위에 둘러 모여 산다.[삼국지] 그 땅은 아래가 습하며, 성을 쌓고, 구멍을 파고 거주하는데, 집의 형태가 무덤과 같다. 문이 위로 나 있으며, 사다리으로써 출입을 한다.[위서·물길]
형사 수취	(고구려)형이 죽으면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위략] (부여)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하는데, 이는 흉노와 같은 풍속이다.[삼국지]	부친과 형이 죽으면 형수와 계모는 아내로 삼는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식을 후처의 백숙에게 보낸다. 죽은 후에 옛 남편에게 돌려보낸다.[위략]	

참고문헌

孫進己·張志立, 「穢貊文化的探索」, 『遼海文物學刊』~1986年 第1期.

李殿福, 「兩漢時代的高句麗及其物質文化」, 『遼海文物學刊』~1986年 第1期.

耿鐵華, 「高句麗民俗概述」, 『求是學刊』~1986年 第2期.

魏存成, 「高句麗渤海文化之發展及其關係」, 『吉林大學學報』(社科) 1989年 第4期.

張志立, 「高句麗風俗研究」, 『東北亞歷史與文化』(遼沈書社), 1992年 6月.

劉長江, 「略論地理環境對高句麗文化的影響」, 『遼海文物學刊』~1994年 第2期.

李若遷,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述略」, 『通化師院學報』~1996年 第1期.

于波, 「漢文化對高句麗文化的影響」, 『東北史地』~2006年 2期.

魏存成, 「從考古學上看百濟·高句麗的文化特點及其與周鄰文化的關係」, 한국 충남대학 국제 학술회의논문집인 『백제사회의 제문제』(1994년 10월)에 수록.

姜維東, 「高句麗文化淵源概論」, 『社會科學戰線』~2004年 6期.

.05

高句麗의 種族 起源과 濊[濊貊]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高句麗의 種族 起源과 濊[濊貊]

여호규 (한국의국어대학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濊[濊貊]族의 분화와 句麗族의 형성 |
| II. 高句麗와 濊貊(穢貊)의 관계 | 1. 濊[濊貊]族의 분화와 ‘貊’의 형성 |
| 1. 種族 起源에 대한 諸說 | 2. 積石墓 축조집단과 句麗族의 형성 |
| 2. 濊[濊貊], 貊, 句麗의 관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역사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역사를 일구어온 인간집단도 변모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집단의 기원을 논할 때는 기준 시점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준 시점과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고찰 대상의 범주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도 건국 이래 끊임없는 정복활동을 통해 영역을 확대한 만큼, 고구려인의 범주도 각 시기마다 크게 변화했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정복활동과 영역확대로 인해 고구려인의 범주가 확장되기 이전 시기부터 高句麗의 母體를 이루었던 인간집단을 그 대상으로 삼아 種族的 起源을 고찰하고자 한다. 種族[ethnic group, stock]은 일반적으로 계통이 동일하고 언어, 종교, 관습 등의 문화적 유대를 지닌 집단을 지칭한다. 따라서 어떤 집단의 種族 起源을 고찰할 경우, 系統과 더불어 이들이 언제부터 다른 집단과 명확히 구별되는 문화적 유대를 형성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高句麗의 母體를 이룬 집단의 형성과정을 명확히 전하는 사료는 없다. 다만 《三國史記》高句麗本紀와 《三國志》東夷傳에는 高句麗 建國을 주도한 집단으로 桂婁部, 沸流那部[消奴部] 등 5部가 나오는데,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실체는 동일하다.¹⁾ 이들은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했는데, 이는 대체로 고구려 초기 墓制인 積石墓의 분포범위와 일치한다.²⁾ 이로 보아 늦어도 국가형성기에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주변 족속과 구별되는 高句麗의 母體를 이룬 주민집단이 형성되었다고 파악된다.

1) 盧泰敦, 1975 <삼국시대의 ‘部’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

2) 池炳穆, 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

余昊奎, 1992 <고구려 초기 那部統治體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

특히 3세기경 沃沮나 東濊가 고구려에 복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三國志》東夷傳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만 高句麗라고 지칭했다. 또한 5세기 초반 고구려인들은 王陵의 守墓人을 징발할 때,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정복민만 징발 대상으로 삼았다(〈廣開土王陵碑〉 守墓人烟戶조).³⁾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3세기에도 피복속민과 구별될 정도로 강한 정체성을 지녔고, 5세기 초반까지도 피정복민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자의식을 간직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고찰할 때, 국가형성기에 확인되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주민집단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건국을 주도했던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문헌 사료나 고고학자료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유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종족 기원의 시간적 상한이나 공간적 외연을 무한정 소급시키거나 확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II. 高句麗와 濊貊(穢貊)의 관계

1. 種族 起源에 대한 諸說

고구려의 모체를 이룬 압록강 중상류 일대 주민집단의 종족 기원을 언급한 최초의 역사서는 《三國志》東夷傳인데, 두 가지 계통의 기사가 나온다. 먼저 東夷의 舊語를 인용하여 고구려를 ‘夫餘別種’으로 파악한 기사이다.⁴⁾ 고구려가 夫餘의 支派라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부여족에서 찾은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⁵⁾ 그렇지만 ‘夫餘別種’이라는 표현은 고구려의 종족 기원보다는 건국 시조의 出自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듯이 〈廣開土王陵碑〉, 《魏書》 등의 건국설화에는 시조 鄒牟[朱蒙]가 (北)夫餘에서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전한다. 물론 이때 부여인들이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을 교체할 정도로 대거 南下했다면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부여와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상 그러한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夫餘別種’은 고구려 시조 朱蒙의 건국설화와 관련된 표현으로서 종족 기원보다는 건국과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林起煥, 199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民’의 성격> 《고구려연구》 2, 780쪽

4) 《三國志》권30 東夷傳 高句麗조: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5) 王健群, 1987 <高句麗族屬探源> 《學習與探索》 1987-5

楊昭全, 1993 <論高句麗的歸屬> 《韓國上古史學報》 13, 187-200쪽

金 岳, 1994 <東北貊族源流研究> 《遼海文物學刊》 1994-2

다음으로 貊族으로 파악한 기사가 나온다. 西安平 북쪽에 高句麗의 지파[別種]인 小水貊이 작은 강에 의지해 거주한다면,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던 고구려를 大水貊으로 설정한 것이다.⁶⁾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나 그 서쪽의 주민집단이 모두 貊族 계통이라는 것인데, 《後漢書》東夷傳에서는 “고구려는 일명 貊이다”라고 명기했다.⁷⁾ 반면 《三國志》부여조에서는 부여 창고에 ‘濊王之印’이 있고, 도성에 ‘濊城’이라는 옛 성곽이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원산만과 강원도 북부의 ‘東濊’라고 지칭했다.⁸⁾ 貊族으로 불린 고구려와 달리 부여나 동예는 濊族 계통이라는 것이다.

이에 상기 자료를 근거로 濊族과 구별되는 貊族을 상정하고, 양자를 계통이 다른 족속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貊族이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평지나 구릉지대를 배경으로 농경을 시작한 이후에도, 濊族은 여전히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어로와 수렵에 의존하는 낙후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다.⁹⁾ 두 주민집단은 생활방식이 현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족속 계통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족과 맥족의 계통을 달리 설정하는 濊·貊 異種族說이다.

또한 예족과 맥족을 동일 계통으로 보면서도 일찍부터 뚜렷이 구별되어 별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보기도 한다. 예족이 주로 嫩江-松花江 유역과 한반도 일부에 분포한 반면, 맥족은 요동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거주했다면서 분포지역을 명확히 분별한다.¹⁰⁾ 또한 청동기시기에 이미 渾河-太子河 중상류와 渾江-鴨綠江 일대에 濊族과 구별되는 貊族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¹¹⁾ 예와 맥이 동일 계통에서 갈라졌다고 보는 濊·貊 分化說인데,¹²⁾ 일찍부터 별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濊·貊 異種族說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편 상기 사료와 관련하여 아예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집단이 중국 북방의 貊族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秦漢 이전 시기에 중국 북방에 위치했던 貊族이 점차 동방으로 이

6) 《三國志》권30 東夷傳 高句麗조: 又有小水貊.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7) 《後漢書》권85 東夷列傳 高句麗조: 句驪一名貊耳.

8) 《三國志》권30 東夷傳 부여조 및 동예조

9) 三上次男, 1966 <東北アジアの古代文化と穢人の民族的性格>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李成市, 1997 <穢族の生業と民族>: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岩波書店

10) 文崇一, 1958 <濊貊民族文化及其史料>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5

金貞培, 1968 <예맥족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5: 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고려대 출판부

李殿福, 1993 <高句麗民族的形成發展與解體> 《中國古代北方民族史》黑龍江人民出版社

박경철, 1997 <고구려와 예맥: 고구려의 주민과 그 문화계통> 《백산학보》48

11) 王綿厚, 1994 <關於漢以前東北貊族考古學文化的考察> 《文物春秋》1994-1; 1997 <高句麗民族的起源及其考古學文化> 《高句麗·渤海研究集成》(一) 哈爾濱出版社; 2002 <高夷, 濊貊與高句麗> 《社會科學戰線》2002-5; 2006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析> 《社會科學輯刊》2006-1

12) 田村晃一, 1990 <高句麗の積石塚> 《東北アジアの考古學》六興出版; 2001《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同成社, 348-353쪽

주해 요동지역을 거쳐 압록강 유역에 정착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것인데, 貊族移動說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물론 맥족과 더불어 예족의 이주를 설정하거나¹³⁾ 맥족이 동방으로 이동한 다음 여러 집단[족속]으로 분화했다고 보기도 하지만,¹⁴⁾ 맥족의 이동만 상정하기도 한다.¹⁵⁾ 만약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 맥족은 예족과 원거주지조차 완전히 다른 전혀 별개의 족속으로 설정된다.

중국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商人起源說이나 炎帝族起源說도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주민이동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貊族移動說과 연관되는 측면이 많다. 商人起源說은 본래 高句麗와 商[殷]의 문화적 유사성을 근거로 하나의 가설로 제시되었다가,¹⁶⁾ 《逸周書》王會解篇의 ‘高夷’를 징검다리로 삼아¹⁷⁾ 전설상의 인물인 顓頊 高陽氏의 후예라는 주장으로 발전했다.¹⁸⁾ 遼西地域 신석기문화인 紅山文化의 담당자가 顓頊 高陽氏 族團인데, 이들이 중국대륙으로 이동할 때 일부는 동방으로 이주하여 高句麗의 선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炎帝族起源說도 山東地域에 존재했다는 炎帝系의 ‘介’씨·‘萊’씨와 ‘高麗’의 발음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삼아 가설로 제시되었다가,¹⁹⁾ 《逸周書》의 高夷를 징검다리로서 삼아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형태로 발전했다.²⁰⁾

그렇지만 중국학계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商人起源說이나 炎帝族起源說은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상 충분한 논거를 갖추지 못했다.²¹⁾ 가령 商人起源說의 경우, 핵심 논거인《逸周書》가 周代의 誥書와 辭命 등을 모방하여 후대에 지은 假作이라는 점에서²²⁾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

13) 金庠基, 1948 <韓·濊·貊 移動考> 《史海》 1: 1974《東方史論叢》서울대 출판부

李 玉, 1984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교보문고, 34-51쪽

14) 許憲範, 1985 <濊貊遷徙考> 《民族研究》 1985-4

白鳥庫吉, 1934 <濊貊民族のを由來述べて、夫餘高句麗及び百濟の起源に及ぶ> 《史學雜誌》 45-12: 1970《白鳥庫吉全集》 3

15) 和田清, 1947 <周代の蠻貊について> 《東洋學報》 28-2:

金光洙, 1983 <고구려 고대 집권국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6-15쪽

박준형, 2001 <‘濊貊’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學林》 22

16) 張博泉, 1987《東北地方史稿》吉林大學出版社

范梨[耿鐵華], 1993 <高句麗族源探源駁議> 《高句麗研究文集》延邊大學出版社

耿鐵華, 1993 <集安高句麗歷史與好太王碑> 《高句麗研究文集》延邊大學出版社

17) 耿鐵華, 1986 <高句麗起源和建國問題探索> 《求是學刊》 1986-1

18) 金 岳, 1994 <東北貊族源流研究> 《遼海文物學刊》 1994-2

耿鐵華, 1999 <高句麗族源論考>(상, 하) 《通化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1999-1,3

張碧波, 1999 <高句麗文化淵源考>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 論文集》吉林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耿鐵華, 2006 <高句麗民族起源與民族融合> 《社會科學輯刊》 2006-1

19) 李德山, 1992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辯> 《社會科學戰線》 1992-1

20) 馬大正 외, 2001《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黑龍江教育人民出版社, 31-39쪽

21) 王綿厚, 2006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析> 《社會科學輯刊》 2006-1, 154-155쪽

22) 裴治國 외 편, 1990《中國古籍二百種提要》吉林人民出版社, 103-104쪽

戴 逸 總主編, 鄭秦 主編,《二十六史大辭典》(典章制度卷) 吉林人民出版社, 1017-1018쪽

고 있다. 《逸周書》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王會解篇의 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기원전 1057년 成周之會를 묘사했다는 王會解篇에는 많은 족속 명칭이 등장하지만, 그 위치나 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高句麗의 ‘高’와 高夷의 ‘高’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高句麗라는 명칭은 ‘句驪’에서 유래했고²³⁾ ‘高’는 미칭에 불과하다.²⁴⁾ 高夷와 高句麗의 연관성을 설정할 만한 근거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설령 高夷의 존재까지 인정하더라도 이를 顓頊 高陽氏와 연결시킬 논거는 더욱더 미약하다. 黃帝의 손자라는²⁵⁾ 顓頊 高陽氏는 전설상의 인물에 불과할 뿐 아니라²⁶⁾ 실존 인물로 보더라도 高夷와 1500여년이나 차이나는 기원전 2500년경에 활동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²⁷⁾ 또한 遼西地域 신석기문화인 紅山文化와 고구려 초기 문화와의 연관성도 이야기하는데, 양자 사이에는 3000여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며 제반 문화양상에서도 유사성을 찾기 힘들다.²⁸⁾ 적석묘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홍산문화의 주 묘제는 적석묘가 아니라 소형 석관묘였다.²⁹⁾ 또한 최상층 지배층에 한정해 조영한 홍산문화의 적석묘는 매장 주체부가 반지하에 위치했다는 점에서³⁰⁾ 지상에 위치한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³¹⁾ 명확히 구별된다.

결국 商人起源說은 첫 번째 연결고리인 《逸周書》의 高夷부터 顓頊 高陽氏, 紅山文化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정할 만한 논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炎帝族起源說 역시 음운상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아무런 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商人起源說과 마찬가지로 机上의 假說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³²⁾ 따라서 상기 견해 가운데 商人起源說이나 炎帝族起源說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濊·貊 異種族說, 濊·貊 分化說, 貊族移動說 등은 각기 사료상의 논거를 일정 정도 확보한 만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夫餘起源說은 종족 기원보다는 始祖의 出自와 관련되므로 건국과정과 연관시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3) 《漢書》권28 地理志 제8하

24) 《漢書》권99 열전 제69 왕망전

25) 《史記》권1 五帝本紀

26) 王廷洽, 1990 《中國文化史年表》上海辭書出版社, 18-19쪽

27) 翦伯贊 주편, 1961 《中外歷史年表》中華書局, 3쪽

28) 紅山文化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泥質紅陶와 彩陶의 토기문화, 용이나 새를 조각한 玉器文化, 神殿과 祭壇을 갖춘 대형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劉素俠, 1996 <紅山諸文化反映的原始文明> 《中國考古集成》(동북권 신석기시대1) 北京出版社). 그런데 현재까지 압록강 중류일대의 신석기문화에서는 이러한 문화요소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29) 高美璇, 1989 <試論紅山文化墓葬> 《北方文物》 1989-1

3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6 <遼寧省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塚冢群發掘簡報> 《文物》 1986-8

31) 주영현, 1962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魏存誠, 1987 <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 《考古學報》 1987-3

32) 余昊奎, 2003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현황> 《한국고대사연구》 31

2. 濊[濊貊], 貊, 句麗의 관계

濊·貊 異種族說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과 주변 족속의 관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三國志》東夷傳에 따르면, 3세기 전반경 한반도 북부와 만주 중남부에는 中國 郡縣이 설치된 遼東-西北韓 지역을 제외하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高句麗, 吉林地域을 중심으로 한 松花江 유역에는 夫餘, 함경도의 동해안 방면에는 沃沮, 원산만과 강원도 북부에는 東濊, 그리고 만주 동부에는 挹婁 등이 각기 분포하고 있었다.

〈표 1〉 《三國志》東夷傳에 나타난 고구려 주변 주민집단의 위치 관계

분류	동	서	남	북
高句麗	沃沮	〈在遼東之東千里〉	朝鮮·濊貊	夫餘
夫餘	挹婁	鮮卑	高句麗	弱水
沃沮	大海	〈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濊貊	挹婁·夫餘
挹婁	大海	〈在夫餘東千餘里〉.	北沃沮	〈未知其北所極〉
濊	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辰韓	高句麗·沃沮

이 가운데 挹婁는 부여나 고구려와 언어가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³³⁾ 이는 족속 계통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는 언어나 습속이 유사했다고 한다.³⁴⁾ 흔히 言語는 각 집단의 족속 계통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가 유사했다면, 고구려는 부여, 옥저, 동예 등과 동일한 계통의 족속에서 갈라진 주민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고구려는 동예와 同種이었다고 한다.³⁵⁾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의 족속 계통이 부여나 동예와 다르다고 파악한 濊·貊 異種族說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를 ‘貊’으로 지칭한 사료가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두 기원 이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를 貊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한 최초의 사서는 《漢書》인데, 서기 10년 王莽이 匈奴를 정벌할 때 동원한 고구려인을 ‘貊人’이라 일컬었다.³⁶⁾ 또한 연대상 가장 앞선 기사는 기원전 1세기 전반인데, 《三國志》東夷傳 沃沮조에서 제1玄菟郡이 夷貊의 침입을 받고 고구려 서북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33)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挹婁조: 言語不與夫餘·句麗同.

34) 《三國志》東夷傳 高句麗조: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三國志》東夷傳 沃沮조: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三國志》東夷傳 東濊조: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35) 《三國志》東夷傳 東濊조: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36) 《漢書》 권99 王莽전

현전하는 사료상 고구려를 ‘貊’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한 용례의 상한은 기원전 1세기 전반인 것이다. 이는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이 기원전 1세기 전반 이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과 더불어, 그들이 본래는 貊族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예와 맥의 용례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濊(穢, 穢)와 貊(貉)이라는 족속 명칭은 先秦 문헌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다만 이때 예와 맥을 합칭하여 ‘예맥’이라 칭한 경우는 거의 없고,³⁷⁾ 대체로 穢나 貊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들 용례를 종합하면 穢는 대체로 遼河 동쪽,³⁸⁾ 貊은 河北-陝西 북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³⁹⁾ 秦漢代 이전의 예와 맥은 거주 지역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족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濊·貊 異種族說이나 濊·貊 分化說이 성립하려면 중국 북방의 貊이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전하는 문헌자료상 중국 북방의 貊이 遼河 동쪽으로 이주했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논거는 없다. 또한 고고학 자료상으로도 청동기나 초기철기시대에 중국 북방의 주민집단이 대거 동방지역으로 이주했다는 흔적도 찾아지지 않는다. 결국 중국 북방의 貊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을 형성했다거나, 이들이 예와 결합해 예맥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貊族移動說은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先秦시기에 貊族의 이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貊이라는 명칭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용례는 많이 나온다. 가령 《史記》燕召公世家에서는 貊이 東胡나 山戎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尚書》武成篇에서는 ‘蠻’과 결합하여 華夏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맥이 북방 종족 내지 이종족 전체에 대한 범칭으로 확장된 것이다.⁴⁰⁾ 예와 맥을 連稱한 ‘穢貊(穢貉)’은 《史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이때에도 穢와 連稱되지 않은 貉은 중국 대륙의 서북이나⁴¹⁾ 북방,⁴²⁾ 并·代의 변경⁴³⁾ 등에 위치한 주민집단을 지칭했으며, 요하 동쪽의 주민집단을 지칭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37) 《管子》小匡篇에서 齊나라 桓公이 북방의 孤竹, 山戎과 더불어 穢貊을 정벌했다고 언급했지만, 동일 사실을 기술한 《國語》齊語 등에는 예맥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보아 《管子》小匡篇의 예맥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황철산, 1963 <고조선의 종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 9쪽), 이를 제외하면 선진문헌에서 穢貊이라고 連稱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38) 《逸周書》王會解편 : 成周之會 (중략) 西面者 正北方 稷慎大塵 穢人前兒 前兒若獼猴 立行 聲似小兒. 《呂氏春秋》恃君覽편 : 非濱之東 夷穢之鄉 大解·陵漁·其·鹿野·搖山·揚島·大人之居 多無君.

39) 三品彰英, 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 4
황철산, 1963 <예맥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20-23쪽
박준형, 2001 <‘濊貊’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學林》 22, 16-22쪽

40) 황철산, 1963 <예맥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22-23쪽

41) 《史記》권27 天官書5 : (진시황시) 其西北則胡貉. 月氏諸衣旃裘引弓之民, 爲陰.

42) 《史記》권87 李斯列傳 : 李斯乃從獄中上書曰 地非不廣, 又北逐胡貉, 南定百越, 以見秦之疆.

43) 《史記》권110 匈奴列傳 : 後百有餘年, 趙襄子踰句注, 以破并代以臨胡貉.

이로 보아 《史記》단계에도 遼河 동쪽 지역에는 貊이라고 불리던 주민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穢貉이라는 명칭은 穢와 貉의 合稱에 의해서가 아니라 貉의 용례가 확장되면서 穢와 결합하여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穢貉의 종족적 실체는 穢와 貉이 아니라 先秦시기부터 요하 동쪽에 존재했던 穢인 것이다. 그러므로 穢貉이라는 명칭은 穢族 일반에 대한 범칭이라고 볼 수 있다.⁴⁴⁾ 기원전 134년 主父偃이 匈奴에 대한 계책을 상주할 때, 고조선을 포함한 동방지역 전체를 ‘薺州’로 인식한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⁴⁵⁾

이러한 점에서 前漢代 고조선 주변에 穢로 불린 주민집단이 다수 존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128년 28만구를 거느리고 漢 遼東郡에 투항한 南閩는 薺君으로 불렸고,⁴⁶⁾ 沃沮의 전신인 夫租의 渠帥도 ‘薺君’으로 불렸다.⁴⁷⁾ 또한 3세기 부여 창고에 있었다는 ‘薺王之印’도 기원전 109년 溟王이 수여받은 ‘溟王之印’의 사례로 보아⁴⁸⁾ 前漢代의 인장으로 추정된다.⁴⁹⁾ 또한 요동반도 寶蘭店市에서 ‘臨穢丞印’ 封泥가 출토되었다.⁵⁰⁾ 前漢代까지만 하더라도 遼東半島에서 東海岸 나아가 松花江 유역에 이르기까지 고조선 주변의 주민집단은 대부분 薺(穢)로 불렸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沃沮의 전신인 ‘夫租薺君’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원전 2세기에 명칭이 확인되는 古朝鮮, 眞番, 夫餘 등도⁵¹⁾ 대체로 穢 곧 穢貉에서 분화했다고 파악된다.⁵²⁾ 특히 薺君南閩는 요동군의 동부 산간지대에서 동해안 방면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집단을 이끌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⁵³⁾ 그가 거느렸다는 28만구는 3세기경 高句麗의 3만호, 沃沮의 5천호, 東濊의 2만호 등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 역시 본래 예[예맥]족의 일원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08년, 漢이 古朝鮮을 멸망시킨 다음 고조선과 그 주변에 郡縣을 설치하던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44) 三品彰英, 1953 앞의 글 및 황철산, 1963 앞의 글

45) 《史記》권112 主父列傳 및 《漢書》권64 嚴安傳

46) 《漢書》권6 武帝紀 ‘元朔元年 東夷薺君南閩等 口二十八萬人降 爲蒼海郡.’

47) 리순진, 1964 <‘부조예군’ 무덤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4

金基興, 1985 <夫租薺君에 대한 일고찰> 《韓國史論》 12

48) 吉開將人, 1999 <印からみた南越の世界(中篇)>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7, 9-11쪽

49) 林起煥, 1992 <낙랑 인장> 《역주 한국고대금석문》(I)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304쪽

50) 劉俊勇, 1993 <遼東沓水縣文縣縣治考證> 《博物館研究》 1993-3, 39쪽

劉俊勇(최무장 역), 1997 《中國大連考古研究》학연문화사, 105쪽

51) 《史記》권129 貨殖列傳: 北鄰烏桓·夫餘, 東縮穢貉·朝鮮·眞番之利.

52) 송호정, 1999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9-81쪽

53) 예군남려의 세력 근거지에 대해서는 압록강 중류일대설(白鳥庫吉, 李丙巖)과 동해안 방면설(池內宏, 和田清)등으로 나뉘지만, 인구규모로 보아 양자를 아울렀을 것으로 파악된다(여호규, 2005 <고구려의 국가형성과 한의 대외정책> 《군사》 54).

- ①-㉠ 是時 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史記》권110 匈奴列傳)
- ①-㉡ 元封三年(108) 募天下死罪擊朝鮮 (중략) 以其地爲樂浪臨屯玄菟眞番郡.(《漢書》권6 무제기)
- ①-㉢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漢書》권28 지리지8하2)
- ①-㉣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漢書》권73 韋賢전)
- ①-㉤ 東定穢貉朝鮮, 廓地斥境, 立郡縣.(《漢書》권75 夏侯勝전)
- ①-㉥ 是時 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漢書》권94 흉노전)

①-㉡과 ㉢을 제외하면, 漢郡縣의 설치 지역이 朝鮮과 穢貉으로 병기되어 있다. 朝鮮이 古朝鮮 故地라면, 穢貉은 고조선 주변 지역의 여러 주민집단을 통칭한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①-㉢에서는 朝鮮, 濊貉과 더불어 句驪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 이는 당시 句驪가 穢貉의 일부로 파악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리된 존재로도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이 본래 예[예맥]족의 일원으로 존재하다가, 그로부터 점차 분화되어 ‘句麗’를 형성했음을 말한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집단은 본래부터 예[예맥]족과 계통이 다르거나 일찍부터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貊族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부여, 옥저, 동예 등과 마찬가지로 예[예맥]족에서 분화하여 ‘구려’라는 주민집단을 형성했던 것이다.⁵⁴⁾

그런데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 玄菟郡을 몰아내고 기원 직후에는 新王莽의 동방정복마저 분쇄하며 漢人들에게 강렬한 인식을 심어주며 貊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특히 기원 이후 중국 북방 족속에 대한 貊의 사용례가 점차 소멸한 반면, 고구려를 맥이라고 일컫는 사례는 급격히 늘어났다.⁵⁵⁾ 이에 따라 마치 고구려가 본래부터 예[예맥]족과 구별되는 맥족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三國志》나 《後漢書》의 찬자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고구려를 貊族으로 지칭했다고 파악된다.

III. 濊[濊貊]族의 분화와 句麗族의 형성

1. 濊[濊貊]族의 분화와 ‘貊’의 형성

상기와 같이 고구려는 본래 예[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그로부터 분화하여 ‘句麗’라는 독자적인 주민집단을 형성했으며, 기원전 1세기경부터 漢人들에 의해 貊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54) 예[예맥]족의 분화와 ‘句麗族’의 형성과정에 대한 서술은 余昊奎, 2002 <고구려 초기의 양맥과 소수맥> 《한국고대사연구》 25, 103-115쪽을 수정 보완한 것임.

55) 《漢書》에도 중국의 북방 족속을 일컫는 貊(貉)의 사례가 다수 나오지만, 《三國志》와 《後漢書》에서는 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 《三國志》와 《後漢書》에서 ‘貊’이라는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 거의 대부분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인과 그 서쪽의 주민집단을 지칭한다.

고구려는 예족에서 분화한 만큼, 종족 기원과 주민집단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려면 예[예맥]족 전체의 동향과 연계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을 주도한 주민집단은 대체로 압록강 중상류에 국한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西安平 북쪽의 寬甸지역의 주민집단도 小水貊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太子河 상류에 위치한 本溪지역의 주민집단도 梁貊이라 일컬어졌다.⁵⁶⁾

이처럼 압록강 중상류 일대와 더불어 寬甸-本溪지역의 주민집단도 貊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이들이 예[예맥]족 계통의 다른 주민집단보다 문화적 친연성이나 유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句麗’가 형성되기에 앞서, 압록강 중상류와 寬甸-本溪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걸쳐 동질성이 강한 주민집단이 형성되었다고 상정된다. 이는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句麗가 여러 단계의 분화를 거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이 지역 주민집단의 동향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자료는 기원전 128년의 蕤君南閭 및 기원전 107년의 句麗蠻夷와 관련된 기사이다. 그러므로 기원전 2세기 후반 이전 이 지역 주민집단의 동향을 고찰하려면 고고학 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 청동기문화의 대표 유물은 琵琶形銅劍인데, 현재까지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는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청동기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 청동기문화는 흔히 公貴里類型이라 불리는데, 장방형 움집과 石棺墓·大石蓋墓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비파형동검은 보이지 않지만, 토기나 석기는 많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토기의 경우 바닥이 평평하며 고리[橋狀]나 꼭지모양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적이다.⁵⁷⁾

이 가운데 바리모양 토기[鉢形土器]는 西團山子型 토기의 그것과 비슷하며,⁵⁸⁾ 미송리형 토기가 중강군 토성리와 通化 萬發撥子(구명 王八脖子) 등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⁵⁹⁾ 또한 평평한 바닥이나 꼭지모양 손잡이는 두만강 유역이나 동해안 연안의 토기와 통하는 요소이며, 二重口沿이나 굽 높은 좁은 바닥은 대동강 유역의 팽이형 토기를 연상시킨다.⁶⁰⁾ 이 지역 청동기문화는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⁶¹⁾ 따라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청동기시대로의 진입이 상당히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문화적

56) 《三國史記》고구려본기1 유리명왕 33년조 및 고구려본기5 동천왕 20년조

57) 사회과학출판사, 1984《조선의 청동기시대》, 54-60쪽

58) 리병선, 1963 <압록강유역의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들과 그 분포정형> 《고고민속》 1963-3. 한편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청동기 문화층에서 三足器가 발견되었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 《通化市文物志》). 이러한 三足器는 만주지역에서는 松花江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양 지역의 문화교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59) 宋鎬晟, 1991 <遼東地域 靑銅器文化和 美松里型土器에 관한 考察> 《韓國史論》 24, 43-46쪽

60) 사회과학출판사, 1984《조선의 청동기시대》, 59쪽

61) 오강원, 2005 <오녀산과 환인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사회> 《北方史論叢》 3, 32-35쪽

특색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자료만 놓고 본다면, 비파형 동검기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이나 주변의 예[예맥]족과 구별되는 주민집단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시기의 토기에서 보이는 평평한 밑바닥, 고리모양 손잡이, 바리모양 기형 등의 특징은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고구려시기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특히 최근 桓仁 五女山城과⁶²⁾ 通化 萬發撥子⁶³⁾ 유적 등에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중간형동검기], 고구려 초기, 고구려 중기 등의 문화층이 연속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바리모양 토기가 거의 모든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의 기저문화가 신석기시대 이래의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⁶⁴⁾

한편, 기원전 4-3세기에 戰國 燕의 遼東 進出과 더불어 동방지역의 정세가 급변했다. 고조선의 판도가 서북한 지역으로 축소됨과 더불어 琵琶形銅劍이 細形銅劍으로 전환되고, 戰國 燕 계통의 철기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도 밀려왔는데,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劍身 하단부에 턱이 형성된 중간형동검은 이를 잘 보여준다.⁶⁵⁾ 검신 하단부에 턱이 형성된 중간형동검(B식 중간형동검)은 <표 2>에서 보듯이 요동 동부 산간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6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五女山城, 1996-1999, 2003年 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63) 國家文物局 主編,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64) 오강원, 2004 「萬發撥子を 통하여 본 通化지역 先原史文化의 전개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창간호, 166-167쪽

65) 이 동검은 후기비파형동검(林濤, 靳楓毅, 翟德芳), 초기세형동검(박진옥, 박순발), 중간형동검(이청규), 中細型銅劍(오강원)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 동검이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형동검으로 명명한 견해를 수용하였다.

林 濤, 1982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2-1

靳楓毅, 1982·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1982-4, 1983-1

翟德芳, 1988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1988-3

박진옥,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朴淳發, 1993 <우리나라 초기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考古美術史論》 3

李清圭,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吳江原, 2002 <遼寧-西北韓지역 中細型銅劍에 관한 연구> 《清溪史學》 16·17

〈표 2〉 검신 하단부에 턱이 형성된 중간형동검의 출토현황⁶⁶⁾

일련 번호	유적 명칭	유구 상황	청 동 유 물				철 기	기타 및 비고	문헌
			검	모	경	기타			
1	本溪 劉家哨	지표하 1.5m 석관묘	3	1	1	김승장식2 청동고리1		검집끝금구 T자형검파두식,	1
2	本溪 南芬	豎穴土坑墓.	1					파손된 검병.	2
3	樺甸 西荒山屯	豎穴岩石墓 M1	3			刀3, 鏃1, 扣2,	쇠칼1	촉각식검병 T자형검파두식, 석제방추차1 토기, 장식품 多	3
		豎穴岩石墓 M6	3				도끼3, 낫1, 칼1	T자형검파두식, 토기, 장식품 多	3
4	寬甸 趙家堡子	지표하 30cm 지점 돌덩 이 사이. 부근에 막돌과 자갈로 축조한 석묘.	1	1	3				4
5	懷德 大青山	土坑淺穴墓.	1			半環形銅飾		夾砂紅褐陶 4	6
6	(傳)撫順	미상	1					T자형검파두식, 침상기	7
7	雙遼 吉祥屯	미상	1					T자형검파두식, 침상기	8
8	長海 上馬石	豎穴土坑墓	1						9
9	永吉 汪屯	도랑 옆의 지층.	1					촉각식검병	5

66) 이 도표는 吳江原, 2002 앞의 글, 12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1 梁志龍, 1992 <遼寧本溪劉家哨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92-4
- 2 齊俊, 1994 <本溪地區發現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994-2
- 3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 1
- 4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1984-8
- 5 陳家槐, 1984 <吉林永吉縣烏拉街出土‘觸角式劍柄’銅劍> 《考古》 1984-2
- 6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1974 <吉林懷德大青山發現青銅短劍> 《考古》 1974-4
- 7 樞本杜人, 1951 <滿洲式銅劍の割合について> 《考古學雜誌》 37-2; 1980《朝鮮の考古學》同朋社
- 8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雙遼縣文物志》
- 9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2 <遼寧長海縣上馬石青銅時代墓葬> 《考古》 1982-6
- 10 裴耀軍, 1989 <遼寧昌圖縣發現戰國漢代青銅器及鐵器> 《考古》 1989-4
- 11 李矛利, 1993 <昌圖發現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993-1
- 12 撫順市博物館考古隊, 1983 <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 《文物》 1983-9
- 13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81-5
- 14 윤광수, 1994 <토성동 486호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4-4

일련 번호	유적 명칭	유구 상황	청 동 유 물				철 기	기타 및 비고	문헌
			검	모	경	기타			
10	昌圖 翟家村	장방형 구덩이(암반)	3			銅鏃 12	鐵鏃 5	T자형검과두식, 침상기. 骨鏃 1. 동검1은 중국식.	10 11
11	新賓 馬架子	판석 석관묘.	1						4
12	東溝 大房身	미 상	1						12
13	集安 五道嶺溝門	돌무지 아래 1m 지점. 方壇階梯積石墓로 보고.	1	3	1	銅斧1 鉞形銅斧4	鐵鏃2(?)	검집끝금구	13
14	평양 토성동	목곽묘	1	戈1				촉각식검병	14

이러한 B식 중간형동검은 다시 ㉠검신 하단부의 圓弧가 직선화되어 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 ㉡검신 하단부의 턱이 圓折된 것, ㉢ 검신 하단부의 턱이 直折된 것 등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식 樺甸縣 西荒山屯과 ㉢식 昌圖縣 翟家村에서는 戰國 燕 계통의 쇠도끼·쇠낫·쇠칼 등이 출토되었다. 다만 燕 계통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유적에서는 다양한 철기가 출토되는데 비해,⁶⁷⁾ 이들 B식 중간형동검 유적에서는 일부 종류만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B식 중간형동검 유적은 戰國 燕 계통의 철기문화가 보급되던 초기 단계인 기원전 4-3세기경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⁶⁸⁾

그런데 <표 2>와 <지도 1>에서 보듯이 B식 중간형동검은 북쪽으로 요하 상류와 송화강 중상류, 서쪽으로 요동반도, 남쪽으로 대동강유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심 연대에서 벗어난 토성동 유적(14번)을 제외하면,⁶⁹⁾ B식 중간형동검의 분포지역은 크게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와 요하 상류-송화강 중상류 일대 등 두 권역으로 나뉘는데, 후자에서는 철기가 공반되는 반면 전자에서는 철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아 뚜렷이 대별된다.⁷⁰⁾ 이는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에 철기문화 보급이 지체된 결과로 볼 수 있다.⁷¹⁾

67) 李南珪, 199? <東アジア初期鐵器文化の研究> 廣島大 博士學位論文(별책), 7-9쪽

68) 戰國 燕의 철기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4세기부터 요동-서북한 지역에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에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철기문화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潮見浩, 1982 <古朝鮮의鐵器> <<東アジア初期鐵器文化>>吉川弘文館, 203-229쪽

李南珪, 199? <東アジア初期鐵器文化の研究> 廣島大 博士學位論文, 380-3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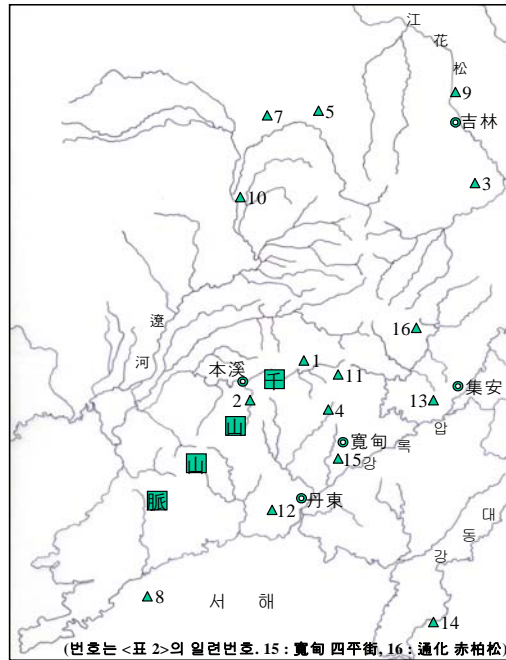
이남규, 2005 <고구려 국가 형성기 철기문화의 전개양상> <<고구려의 국가형성>>고구려연구재단

69) 토성동유적은 목곽묘로서 기원전 1세기경으로 편년된다(윤광수, 1994 앞의 글).

70) 五道嶺溝門의 鐵鏃은 후대의 혼입품일 가능성이 높다(박진욱, 1988 앞의 책, 116쪽).

71) 秦漢交替期나 漢初에 철기문화권에 진입하였다고 보기도 한다(朴淳發, 1993 앞의 글, 55쪽).

<지도 1> B식 중간형동검 분포도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의 B식 중간형동검 유적에서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는 대신 나뭇잎무늬[葉脈紋]를 시문한 銅矛가 공반되고 있어 주목된다. 집안 오도령구문에서 출토된 銅矛 3개 가운데 1개는 刃部 등날의 양면에 침엽수 계열 나뭇잎무늬가 시문되어 있는데,⁷²⁾ 이러한 銅矛는 本溪 劉家哨와⁷³⁾ 寬甸 趙家堡에서도⁷⁴⁾ 출토되었다. 그리고 중간형동검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通化 赤柏松과⁷⁵⁾ 寬甸 四平街에서도⁷⁶⁾ 나뭇잎무늬 銅矛가 출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通化 萬發撥子 제3기층에서도 동검과 함께 나뭇잎무늬 銅鋒가 출토되었다.⁷⁷⁾ 나뭇잎무늬 銅矛는 集安·寬甸을 중심으로 本溪와 通化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뭇잎무늬 동모가 출토된 寬甸-本溪-集安-通化 일대는 B식 중간형동검 출토지역 가운데 다시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뭇잎무늬는 銅鏡에서도 확인된다. 五道嶺溝門에서 출토된 雙紐鏡의 문양은 거미줄무늬[蛛網紋]라고 보고되었지만,⁷⁸⁾ 기본적인 모

72)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81-5, 468쪽
 73) 梁志龍, 1992 <遼寧本溪劉家哨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92-4, 316-317쪽
 74)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1984-8, 712-714쪽
 75)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通化縣文物志》, 96-97쪽
 邵春華·溝承志·柳崗, 1987 <赤柏松漢城調查> 《博物館研究》 1987-3, 62쪽
 76)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1984-8, 712-714쪽
 77) 中國 國家文物局 主編, 2001 앞의 글, 29-30쪽

티브는 침엽수 계열의 나뭇잎무늬이다.⁷⁹⁾ 이러한 나뭇잎무늬 쌍뉴경은 寬甸 趙家堡에서도 출토되었다.⁸⁰⁾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의 중간형동검은 철기가 공반되지 않는 대신 나뭇잎무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⁸¹⁾ 이와 관련하여 集安 五道嶺溝門과 本溪 劉家哨에서 형태나 문양이 동일한 검집끝금구가 출토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⁸²⁾ 靑銅器라는 상층 문화만 놓고 본다면,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의 주민집단은 철기문화로의 전환기에 밀접한 연계를 맺었다고 파악된다.

더욱이 곧바로 이어지는 明刀錢의 출토양상도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는 서부의 평원지대와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부 평원지대의 명도전 유적이 集落유적이든 비해, 천산산맥-압록강 중류일대의 겨우 석관묘나 적석총 등 고분유적으로서 토착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⁸³⁾ 최근에는 토기문화의 유사성도 지적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말기에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에서는 공귀리식 기형에 橋狀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많이 출토된다는 것이다.⁸⁴⁾ 철기문화로의 전환기에 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의 주민집단 상호간에는 문화적 친연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橋狀손잡이 토기와 중간형동검의 분포지역인 천산산맥 동쪽의 寬甸, 本溪, 桓仁, 通化, 集安 일대는 小水貊[寬甸 일대], 梁貊[本溪 일대], 大水貊[압록강 중상류] 등 ‘貊’으로 불린 주민집단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앞서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句麗’가 형성되기 이전에, 압록강 중상류와 寬甸-本溪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걸쳐 동질성이 강한 주민집단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한 바 있는데,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말기 내지 철기문화로의 전환기에 압록강 중상류와 寬甸-本溪 지역의 주민집단이 穢(穢貊)로부터 분화하여 문화적 친연성이 높은 주민집단을 이루었다고 추정된다.⁸⁵⁾ 그리고 그들

78)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靑銅短劍墓> 《考古》 1981-5, 470쪽

79) 李清圭, 1999 <동북아시아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60쪽

80)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靑銅短劍> 《考古》 1984-8, 712-713쪽

81) 通化縣 英戈布鄉 小都嶺에서 銅鏡, 銅斧, 銅矛 등의 石范이 대량으로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滿承志, 1987 <通化縣小都嶺出土大批石范> 《博物館研究》 1987-3, 68-70쪽) 나뭇잎무늬 銅矛·銅鏡은 이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樺甸 西荒山屯 유적에서는 銅刀에 나뭇잎무늬[葉脈紋]을 한 줄 시문하였다고 한다(吉林省文物工作隊, 1982 앞의 책, 146쪽).

82) 秋山進午, 1995 <遼寧省東部地域의靑銅器再論> 《東北アジアの考古學研究》同朋舍, 262
이와 동일한 검집끝금구가 요동반도의 長海縣 哈仙島 徐家溝에서도 출토되었다(許明綱, 1993 <大連市近年來發現靑銅短劍及相關的新資料> 《遼海文物學刊》 1993-1, 11-12쪽).

83) 田村晃一, 1994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 《東アジア世界史の展開》汲古書院, 24-28쪽

84) 박순발, 1999 <고구려 토기의 형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29, 7쪽

85) 이러한 문화적 친연성은 千山山脈-鴨綠江 일대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 청동기문화로 설정되는 묘후산유형이나 공귀리유형의 분포현황이나 상호 연관성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동기시기 전반기부터 문화적 친연성이 높은 주민집단을 형성하였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 太子河-渾河 상류와 鴨綠江-渾江 유역에 貊部라고 불린 주민집단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한 견해는(王綿厚, 2006 <遼東 ‘貊系’靑銅文化的重要遺迹及其向高句麗早期文化的傳承演變> 《東北史地》 2006-6) 보다 신중하게

이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貊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일단 ‘貊’의 형성이라고 명명해 둔다.⁸⁶⁾ 이처럼 기원전 4-3세기경 연의 요동진출과 고조선의 위축으로 동방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던 와중에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에는 예(예맥)족으로부터 분화한 문화권과 주민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 積石墓 축조집단과 句麗族의 형성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의 주민집단은 다시 한 번 분화되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널리 발견되는 積石墓는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지표 위에 강돌이나 깎은 돌을 쌓아 墓壇을 만든 다음, 그 위에 墓槨을 설치하여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덮는 형태로 축조했다. 지상의 묘단 위에 매장 주체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하나 반지하에 매장시설을 만든 松花江 유역의 석관묘나 遼東 일대의 토광묘·목곽묘 등과 명확히 구별된다.

또한 요서지역의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牛河梁 유적에서도 적석묘가 발견되었지만, 매장 주체부가 板石墓로서 반지하에 위치했다는 점에서⁸⁷⁾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동반도 서남단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적석묘가 확인되었지만, 지표상에 곧바로 매장 주체부를 조성했으며, 여러 매장 주체부를 하나의 봉분으로 덮은 집단묘라는 점에서⁸⁸⁾ 역시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많이 차이난다. 이렇게 본다면 주변 지역의 영향이나 교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이 지역의 고유한 墓制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 초기 적석묘에서는 銅劍은 출토되지 않고, 청동제 장식품과 생활용구를 비롯하여 철제 농공구와 무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⁸⁹⁾ 적석묘는 앞서 언급했던 B식 중간형동검에 뒤이어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단계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通化 萬

검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점에서 중간형동검 및 조세문경 초기단계 곧 戰國 燕의 진출 이전인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동북지방-한반도 청동기문화가 지역적으로 分岐하였다고 상정하고, 각 지역별로 형성된 청동기 생산보급체계 및 사회체계가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연구성과가 주목된다(李清圭, 1999 앞의 글, 66-67쪽). 한편 요하-청천강 일대에서 석관묘를 조영하고 미송리형 토기를 사용하던 주민집단을 ‘貊’으로 설정하고, 그 이남의 지식묘 조영집단을 ‘穢’로 구분하기도 하지만(鄭漢德, 1989 <美松里型土器の生成> 《東北アジアの考古學》六興出判, 131-132쪽), 미송리형토기 분포권이 상기 지역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양자를 직접 연관시키기는 곤란하다.

86) 다만 이들이 ‘貊’이라고 불린 것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로 추정되며, 철기문화로의 전환기에 어떠한 명칭으로 불렸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8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6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塚冢群發掘簡報> 《文物》 1986-8

88)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 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旅大市文物管理組, 1978 <旅順老鐵山積石墓> 《考古》 1978-2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3 <大連于家村砬頭積石墓地> 《文物》 1983-9

華玉冰 외, 1996 <遼寧大連市土龍積石墓地1號積石塚> 《考古》 1996-3

89) 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7-28쪽

發撥子 유적에서 중간형동검 바로 위의 문화층에서 무기단적석묘가 확인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⁹⁰⁾

다만 압록강 하류나 태자하 중상류의 B식 중간형동검 유적은 대부분 매장주체부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석관묘이지만, 그 상부에 積石을 한 경우가 많다.⁹¹⁾ 아직도 적석묘인지 아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⁹²⁾ 集安 五道嶺溝門 유적 역시 적석 유구에서 중간형동검을 비롯하여 나뭇잎문양의 동모와 동경이 출토되었다.⁹³⁾ 또한 通化 萬發撥子 유적에서는 중간형동검 문화 단계의 石棺墓·大石蓋墓와 더불어, 대석개묘에서 고구려 초기 적석묘로 전환되는 과도기 묘제인 大石蓋積石墓가 확인되었다.⁹⁴⁾

이로 보아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바로 전단계의 B식 중간형 동검문화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⁹⁵⁾ 그런데 이러한 초기 적석묘는 중간형동검이 분포한 千山山脈 동부지역 가운데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渾河·太子河 일대에도 고구려 고분이 있지만, 本溪墓는 4·5세기 封石石室墓이고,⁹⁶⁾ 鳳城縣 胡家堡와 孟家 적석묘도 중기의 封石石室墓(洞室墓)이고,⁹⁷⁾ 渾河·太子河 일대 적석묘도 지표에 석실을 조형한 뒷 시기의 석실 적석묘이다.⁹⁸⁾ 남쪽으로 대동강 중류 이남의 적석묘는 뒷 시기 것이거나⁹⁹⁾ 고구려계 유이민이 축조한 것이다.¹⁰⁰⁾ 따라서 초기 적석묘의 서쪽 계선은 忠滿江 河口, 남쪽 계선은 청천강·대동강 상류 산간지대로 설정할 수 있다.¹⁰¹⁾

초기 적석묘의 이러한 분포범위는 千山山脈 동부의 B식 중간형동검 분포권 가운데 寬甸縣, 本溪縣, 新賓縣 등이 제외된 것이다. ‘貊’으로 통칭되던 주민집단 가운데 주로 고구려 서변의 小水貊이나 梁貊이 거주하던 지역이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말기 내지는 철기문화로의 전환기에 형성되었던 ‘貊’은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압록강 중상류일대의 주민집단과 그 서변의 주민집단으로 다시 분화되었다고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압록강

90) 中國 國家文物局 主編,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91) 梁志龍, 1992 <遼寧本溪劉家哨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92-4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1984-8

92) 張雪岩, 1993 <集安青銅短劍墓及相關問題> 《高句麗研究文集》延邊大學出版社

93)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81-5

94) 中國 國家文物局 主編, 2001 앞의 글, 29-30쪽

95) 지병목, 2005 <고구려 성립기의 고고학적 배경> 《고구려의 국가형성》고구려연구재단, 92쪽에서는 “기원전 4-3세기대로 편년되는 비파형동검계 문화의 후기단계에 해당하는 압록강 중류의 유적들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적석묘 축조집단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여 양자 사이에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96) 遼寧省博物館, 1984 <遼寧本溪晉墓> 《考古》 1984-8, 715-720쪽

97) 許玉林·任鴻귀, 1991 <遼寧鳳城胡家堡孟家積石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 1991-?, 74-81쪽

98) 陳大爲, 1989 <遼寧境內高句麗遺蹟> 《遼海文物學刊》 1989-1

99)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100) 임영진, 1995 <백제 한성시대 고분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2-125쪽

101) 여호규, 1997 앞의 논문, 40쪽의 지도 및 부록의 도표 참조.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적석묘를 조영하면서 그 서쪽 지역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석묘 문화권은 고구려 초기의 공간범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때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인 句麗族이 형성되었다고 파악된다.¹⁰²⁾

다만 적석묘 축조집단 내부에도 다양한 층차가 확인된다. 가령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여러 기를 연접한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개별 적석묘를 일렬로 연이은 형태를 띤다. 그만큼 개별 적석묘의 독자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압록강 최상류에 위치한 長白干溝子 고분군의 경우,¹⁰³⁾ 다른 적석묘처럼 地上에 墓壇을 만들고 그 위에 묘곽을 마련했지만, 墓壇 아래에 돌을 한 두 벌 깔아 공동의 묘역을 설정한 다음 한복판의 主墓壇에 잇대어 3-4기 내지 십수기의 적석묘를 겹겹이 축조했다. 간구자 고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단묘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이곳에서는 戰國時代 말기의 一化錢[一刀錢] 17매와 진말-한초의 半兩錢 18매가 출토되었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 가운데 가장 이른 기원전 3-2세기경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7기의 집단묘, 총 65기의 개별 적석묘를 발굴했는데, 철기는 쇠칼[鐵刀] 3개와 鐵鏟 1개가 출토되었을 뿐이다. 철기문화의 보급이 상당히 저조했던 셈이다. 따라서 압록강 최상류처럼 철기문화의 보급이 저조했던 지역은 적석묘 축조집단이 형성된 이후에도 사회분화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집단묘의 성격이 강한 적석묘를 조영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압록강 중상류 가운데 층적평원이 넓게 발달된 지역의 경우,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철제 농공구가 많이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墓壇을 切石으로 쌓은 기단적석묘가 조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단적석묘를 축조하려면 자연암석을 채취, 가공, 운반하기 위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보아 이러한 지역에는 철제농공구를 다량 집적하고 넓은 대지를 점유해 읍락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세력자들이 등장했다고 보인다. 즉 철기문화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사회분화가 심화되고, 각지에 세력집단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복속과 통합을 통해 고구려 건국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원전 128년 衛滿朝鮮의 압박을 피해 漢에 투항했던 蘇君南閩 집단이나¹⁰⁴⁾ 기원전 107년 玄菟郡을 설치할 때 등장하는 句麗 등이 그러한 정치세력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玄菟郡 설치 이후, 이들은 玄菟郡의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수탈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더욱 결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82-75년경 이 지역의 주민집단이 무력을 동원하여 玄菟郡을 蘇子河 방면으로 驅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¹⁰⁵⁾ 이렇게 본다면 압록강 중상류

102) 이러한 점에서 梁貊이나 新賓縣 일대를 고구려 건국 주도세력 가운데 하나인 涓奴部(涓奴部)로 비정한 견해(李殿福, 1986 <兩漢時代的高句麗及其物質文化> 《遼海文物學刊》 1986 및 梁志龍, 1993 앞의 글), 太子河 상류까지 포함하여 기원전 2세기경 고구려 연맹왕국이 성립되었다는 견해(박순발, 1999 앞의 글, 11-12쪽)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10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2003-8

104) 李丙燾, 1975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 172-176쪽

일대에는 玄菟郡 설치를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 건국의 모체가 되는 ‘句麗族’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외부적 간섭만 없다면 고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파악된다.¹⁰⁶⁾

이처럼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이 玄菟郡을 蘇子河 방면으로 몰아내고 고대국가를 향한 통합과 복속을 상호간에 활발하게 전개할 무렵, 고구려 시조로 전하는 朱蒙이 부여 방면에서 이 지역으로 남하했다. 다만 이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 사이의 통합과 복속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몽집단이 아무리 선진문화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정복할 수는 없었다. 이에 주몽집단은 召西奴 등의 토착세력과 연합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점차 세력을 확장한 다음,¹⁰⁷⁾ 소노집단[消奴, 松壤國]을 제압하고 새로운 맹주로 부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⁸⁾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구려 첫 번째 도성으로 추정되는 환인분지에서 부여계 유물을 부장한 적석묘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바로 桓仁 望江樓 고분군이다. 망강루 고분군은 桓仁盆地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마루를 따라 자리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언덕이 펼쳐지지만 북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강변의 충적대지나 산기슭에 자리잡은 다른 적석묘의 입지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런데 이 적석묘에서는 西豊 西岔溝나 유수 老河深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금귀걸이의 경우 부여 계통으로 추정되는 노하심 유적의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다.¹⁰⁹⁾ 이로 보아 망강루 적석묘는 북방에서 남하한 부여계 유이민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¹¹⁰⁾ 다른 적석묘와 달리 절벽을 낀 산마루 정상을 따라 고분을 조성한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서차구나 노하심유적은 기원전 2세기 후반-1세기에 조성되었다고 하므로 망강루 적석묘는 대략 기원전 1세기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망강루 적석묘는 부여 계통의 유이민 세력이 적석묘라는 고유 墓制를 채용하며 토착사회에 융합되어 가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시조 주몽이 정복이 아니라 이 지역 토착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맹주로 부상했다는 건국설화는 당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부여 방면에서 남하한 주몽집단이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고, 고

105) 《漢書》권7 昭帝紀7 元鳳6년 春正月조: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

《漢書》권26 天文志6: 其(元鳳)六年正月, 築遼東·玄菟城

《三國志》권30 東夷傳 沃沮조: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106) 積石墓 축조집단 형성 이후,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 정치체의 성장 및 국가형성에 대해서는 余昊奎, 1996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형성> 《역사와현실》 21 참조.

107) 《三國史記》百濟本紀 제1 始祖溫祚王 卽位年조의 割註

108) 李丙燾, 1975 <高句麗 國號考>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 359-360쪽

109)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2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初期遺跡>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의의》고구려연구재단

110) 余昊奎, 1997 앞의 논문, 45쪽

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주민집단의 전면 교체와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건국설화를 근거로 고구려의 종족적 기원을 부여에서 찾는 견해는 성립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주몽의 건국설화는 고구려의 종족적 기원이 아니라 건국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을 통해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의 종족 기원을 고찰했다.

현재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해서는 貊族說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심지어 중국 북방의 貊族이 동방으로 이동하여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 선조가 중국대륙의 商人이나 炎帝族에서 기원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秦漢 이전에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북부에 貊이라 불린 주민집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 북방의 貊族이 대규모로 이주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물론 商人기원설이나 炎帝族기원설도 아무런 논거가 없는 机上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히려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집단은 본래 濊[濊貊]族의 일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예[예맥]족으로부터 분화하여 처음에는 句麗로 불리다가 기원전 1세기경부터 貊이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 맥족의 나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집단은 본래 貊族이 아니라 예[예맥]족의 일원이었으며, 맥은 후대에 붙여진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예[예맥]족 전체의 동향을 고려하며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룬 句麗族의 형성과정을 고찰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청동기문화가 늦게 보급되어 이때는 주변과 구별되는 문화권이나 주민집단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기원전 4-3세기경 연의 요동진출로 동방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던 와중에 압록강 중상류를 포함한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에 중간형동검과 나뭇잎무늬를 공유하는 문화권과 주민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이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貊’이라 불렀다는 점에서 ‘貊’의 형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기원전 3-2세기에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은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적석묘라는 독특한 무덤을 조영하면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다.

고구려 건국의 모체를 이루었던 句麗族은 철기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적석묘를 조영하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桓仁 望江樓 적석묘를 통해 부여계 유이민 세력이 적석묘를 채용하며 토착사회와 융합하던 양상도 파악했다. 이는 주몽이 토착세력과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했다는 건국설화의 사실성을 반영하며, 건국과정에서 주민집단이 대거 교체되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부여와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주몽의 건국설화는 고구려의 종족 기원이 아니라 건국과정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高句丽的种族起源和濊(濊貊)

余昊奎 (韩国外国语大学校)

〈目次〉

一. 序言	(一) 濊(濊貊)族的分化和“貊”的形成
二. 高句丽和濊貊(秽貊)的关系	(二) 积石墓的修筑集团和句丽族的形成
(一) 关于种族起源问题上的诸说	
(二) 濊(濊貊)、貊、句丽的关系	
三. 濊(濊貊)族的分化和句丽族的形成	四. 结语

一. 序言

正如历史随着时间的流逝起变化, 缔造历史的人们的共同体也有了变化。所以论某一人类集团的起源时, 有必要首先确定其时间上的起始点和空间上的范围, 然后再进行论述。因为如何确定时空的范围, 可导致所要考察的对象范畴本身的变化。高句丽从建国以后, 通过不断的对外征服活动, 扩大了其领土, 所以所谓高句丽人的范畴也可能在各时期起了很大的变化。

本文欲以高句丽人随着征服活动和领域的扩大, 其范畴被扩展前开始到构成高句丽母体的集团人为研究对象, 试图考察其种族上的起源问题。一般而言, 种族(ethnic group, stock)是指属于同一系统, 而且在语言、宗教、习俗等文化方面具有纽带关系的集团。所以考察某种族起源问题时, 不仅从种族系统方面, 而且还需要认清这一集团是从何时开始形成了与其他集团有明确区分的文化纽带等重要的问题。

至今还没有明确记录构成高句丽母体的集团形成过程的史料。只是在《三国史记·高句丽本纪》和《三国志·东夷传》中载有主导高句丽建国的集团有桂娄部、沸流那部(消奴部)等五部, 虽然称谓上两部史书多少有不同, 但所指的实体则相同¹⁾。这些人居住于鸭绿江中上游一带, 这一点与高句丽初期墓制—积石墓的分布状况大体上相一致²⁾。由此可知, 至少在高句丽国家形成时

1) 卢泰敦:《关于三国时代的“部”研究》,《韩国史论》2, 1975年。

2) 池炳穆:《高句丽成立过程考》,《白山学报》34, 1987年; 余昊奎:《高句丽初期那部政治体制的成立和运作》,《韩国史论》27, 1992年。

期，鸭绿江中上游一带已有与周边族属相区别的，构成高句丽母体的集团已形成。

特别是三世纪左右，沃沮和东濊已服属于高句丽，而《三国志·东夷传》排除这些集团，专称鸭绿江中上游住民集团为高句丽。而且五世纪初，高句丽人征调王陵守墓人时，除鸭绿江中上游住民，专以其他地区的被征服民为其征调对象(好太王陵碑守墓人烟户条)³⁾。鸭绿江中上游的住民们在三世纪就已经与被服属民予以区别，具有极强的整体性，而且五世纪初也仍具有区别于被征服民的自我意识。

所以考察高句丽种族起源时，可以把高句丽国家形成时期出现的鸭绿江中上游一带的居民作为首要的标志。因此本文主要是把主导高句丽建国的住民集团作为重点研究对象，欲要考察高句丽的种族起源。但是在论述过程中需要注意文献史料和考古资料上的时间性和空间性，若不然有可能在时间上导致无限追溯种族起源的上限，或者在空间上无限扩大其外延等危险。

二. 高句丽和濊貊(秽貊)的关系

(一) 关于种族起源问题上的诸说

最早记载构成高句丽母体的鸭绿江中上游一带住民种族起源的史书是《三国志·东夷传》，但是载有两种种族系统的内容。此书首先引用东夷旧语记为“夫余别种”⁴⁾。可以说，高句丽是夫余的支派，有人依此为根据，提出了高句丽种族的起源应寻于夫余族的观点⁵⁾。但是，史书之“夫余别种”与其说是与高句丽种族起源相关的问题，不如说是与高句丽建国始祖的出自问题相关的内容表现。

众所周知，《好太王陵碑》，《魏书》等记载的高句丽建国神话的内容是始祖邹牟(朱蒙)从(北)夫余南下建立了高句丽国的。当然，如果这时期夫余人大举南下，其规模可以达到能够替代鸭绿江中上游住民集团的程度，那么可以把高句丽的种族起源与夫余相联系，但是至今为止不仅在文献上，而且从考古资料上很难发现这种迹象。所以“夫余别种”之意是与高句丽始祖朱蒙建

3) 林起焕：《见于好太王陵碑文中“民”的性质》，《高句丽研究》2，780页。

4) 《三国志》卷三十，东夷传，高句丽：“东夷旧语以为夫余别种，言语诸事，多与夫余同，其性气衣服有异”。

5) 王健群：《高句丽族属探源》，《学习与探索》1987-5；杨昭全：《论高句丽归属》《韩国上古史学报》13，1993年，187~200页；金岳：《东北貊族源流研究》，《辽海文物学刊》1994年 第2期。

国神话相关的一种表现，因此与其种族起源相关，不如与高句丽的建国过程相联加以考察则更具有意义。

其次是记为貊族的内容，即把西安平北的高句丽支派(别种)记为小水貊并依小水居住，把居住于鸭绿江流域的高句丽则记为大水貊⁶⁾。此说把位于鸭绿江中上游的高句丽和位于其西边的住民集团都说成是貊族系统。《后汉书·东夷传》也明确记有“高句丽一名貊耳”的内容⁷⁾，与相相反，《三国志·夫余传》则记有夫余国库有“濊王之印”，国都有故城名“濊城”，而且把元山湾和江原道北部称之为“东濊”⁸⁾。也就是说，夫余和东濊是属于濊族系统，与被称之为“貊族的高句丽属于不同的种族系统。

有人根据上述资料，提出了区别对待濊族与貊族的同时，二者是系统上不相同的族属之观点。即濊族在貊族使用金属器物并以平地或丘陵地带为背景，开始从事农耕生产以后也仍然居住在江河或海边，继续依靠渔捞和狩猎活动来维持着落后的生活⁹⁾。

也就是说，两个集团在生活方式上有明显的差距，是属于不同系统的族属，此说即是濊族和貊族属不同系统的濊、貊异种族说。

也有人认为，濊族和貊族为属于同一系统，但很早开始就已出现明显的区别，形成了两个不同的实体。并认为濊族主要分布在嫩江~松花江流域和朝鲜半岛部分地区，而貊族则居住于辽东地区和朝鲜半岛北部，进而把二者从地理分布上也加以了明确区分¹⁰⁾。而且也认为青铜器时代浑河~太子河中上游和浑江~鸭绿江一带就已经形成有不同于濊族的貊族文化¹¹⁾。这种观点是属于濊和貊分化于同一种族系统的濊、貊分化说¹²⁾，但是从二者最终形成不

6) 《三国志》卷三十，东夷传，高句丽：“又有小水貊，句丽作国，依大水而居。西安平县北有小水，南流入海，句丽别种依小水作国，因名之为小水貊。出好弓，所谓貊弓是也”。

7) 《后汉书》卷八十五，东夷列传，高句丽：“句丽一名貊耳”。

8) 《三国志》卷三十，东夷传，夫余、东濊。

9) 三上次男：《东北亚细亚古代文化和秽人的民族性质》，《古代东北亚细亚史研究》，吉川弘文馆1966年；李成市：《秽族的生业和民族》，1997年；《古代东北亚细亚的民族和国家》，岩波书店1988年。

10) 文崇一：《濊貊民族文化及其史料》，《中央研究院民族研究所集刊》5，1958年；金贞培：《关于濊貊族的研究》，《白山学报》5，1968年；《韩国民族文化的起源》，高丽大学出版部1973年；李殿福：《高句丽民族的形成发展与解体》，《中国古代北方民族史》，黑龙江人民出版社1993年；朴京哲：《高句丽和濊貊—高句丽居民及其文化系统》，《白山学报》48，1997年。

11) 王绵厚：《关于汉以前东北貊族考古学文化的考察》，《文物春秋》1994年第一期；《高句丽民族的起源及其考古学文化》，《高句丽、渤海研究集成》(一)，哈尔滨出版社1997年；《高夷、濊貊与高句丽》，《社会科学战线》2002年第5期；《高句丽起源的国内外代表性观点解析》，《社会科学集刊》2006年第1期。

12) 田村晃一：《高句丽的积石冢》，《东北亚细亚考古学》，六兴出版1990年；《

同实体的角度而言，又与濊、貊异种族说相通。

另一方面，根据上述史料甚至也有人提出了建立高句丽的住民集团源于中国北方的貊族之观点。此种观点认为，秦汉以前位于中国北方的貊族逐渐东迁，经辽东地区后定居于鸭绿江流域，并建立了高句丽，因此可以把此观点命名为貊族移动说。当然也有人认为与貊族一样，濊族也有过迁移¹³⁾；或者认为貊族向东方移动后，又分化为多个集团(族属)¹⁴⁾；但也有只承认貊族的迁移¹⁵⁾等等诸多观点。如果按后者的观点，那么甚至可以把貊族认为是连原居住地就与濊族完全不同的两个族属。

而中国学界角度提出来的商人起源说，或者是炎帝族起源说，都是从中国大陆方面的住民迁移到东方为前提的，从这一角度来说，这种观点与貊族移动说多有关联。商人起源说原本是以高句丽和商(殷)文化间的类似性为根据而提出的假说¹⁶⁾，但是后来《逸周书·王会解篇》中的“高夷”为桥梁¹⁷⁾，发展成为传说中的人物—颛顼高阳氏后裔的观点¹⁸⁾。也就是说，辽西地区的新石器文化—红山文化的主人是颛顼高阳氏集团，而他们迁移到中国大陆时，一部分人迁移到东方，成为了高句丽的祖先。炎帝起源说也是以山东地区的炎帝系“介”氏和“莱”氏在发音上与“高丽”相类似为根据而提出的假说¹⁹⁾，后来也以《逸周书》中的高夷为桥梁，发展成为追溯这些人的迁移路线的模式而提出来的²⁰⁾。

但是，正如中国学界已提出，不仅商人起源说，而且炎帝族起源在文献和考

乐浪和高句丽的考古学》，同成社2001年。

- 13) 金庠基：《韩、濊、貊移动考》，《史海》1，1948年；《东方史论丛》，首尔大学出版部1974年；李玉：《高句丽民族形成和社会》，教保文库1984年，34~51页。
- 14) 许宪范：《濊貊迁徙考》，《民族研究》1985年第4期；白鸟库吉：《叙述濊貊民族的由来，言及夫余、高句丽及百济的起源》，《史学杂志》45-12，1934年；《白鸟库吉全集》3，1970年。
- 15) 和田清：《关于周代的蛮貊》，《东洋学报》28-2，1947年；金光洙：《高句丽古代集权国家的成立研究》，延世大学博士学位论文1983年，6~15页；朴俊亨(音译，下同)：《“濊貊”的形成过程和古朝鲜》，《学林》22，2001年。
- 16) 张博泉：《东北地方史稿》，吉林大学出版社1987年；范梨(耿铁华)：《高句丽族源探源驳议》，《高句丽研究文集》，延边大学出版社1993年；耿铁华：《集安高句丽历史与好太王碑》，《高句丽研究文集》，延边大学出版社1993年。
- 17) 耿铁华：《高句丽起源和建国问题探索》，《求是学刊》1986年第1期。
- 18) 金岳：《东北貊族源流研究》，《辽海文物学刊》1994年第2期；耿铁华：《高句丽族源论考》(上、下)，《通化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1999年第1期、第3期；张碧波：《高句丽文化渊源考》，《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论文集》，吉林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通化师范学院高句丽研究所1999年。耿铁华：《高句丽民族起源与民族融合》，《社会科学辑刊》2006年第1期。
- 19) 李德山：《高句丽族称及其族属考辩》，《社会科学战线》1992年第1期。
- 20) 马大政等著：《古代中国高句丽历史论丛》，黑龙江教育人民出版社2001年，31~39页。

古资料上不具备有充分的论据²¹⁾。若以商人的起源说来看，作为其核心论据的《逸周书》是后人模仿周代的诰书和辞命而编写的伪书²²⁾，而这正是此说根本问题的所在。即使信赖《逸周书》，但是完全没有视《王会解篇》中的高夷为高句丽先人的根据。描述公元前1057年“成周之会”的《王会解篇》中出现众多的族属之名，但是能够弄清他们的地理位置和种族系统的族属则几乎没有。特别是此说以高句丽的“高”和高夷之“高”相同为根据，但是高句丽的名称来源于“句骊”²³⁾，“高”只不过是美称而已²⁴⁾，事实上不存在把高夷联系到高句丽的根据。

甚至也承认高夷的存在，但是与颛顼高阳氏相联系的论据则更为微薄。因为作为黄帝之孙²⁵⁾的颛顼高阳氏不过是传说中的人物²⁶⁾，而且即使把他视为实际人物，其生存年代与高夷相差1500多年，时间上可追溯到公元前2500年左右²⁷⁾。持有此种观点的人还提出了辽西地区的新石器文化—红山文化和高句丽初期文化间的相关性问题，但是两者之间有3000余年的时间之差，而且两者在诸多文化方面也难寻相互间的类似性²⁸⁾。虽然此说也言及了积石墓间的相关性，但是红山文化中的主要墓制并不是积石墓，而是小型石棺墓²⁹⁾。而且只限于最高支配层而修筑的红山文化中的积石墓，其埋葬的主体部分位于半地下³⁰⁾，相反，高句丽初期的积石墓则位于地上³¹⁾，相比之下，二者有明显的区别。

综上所述，商人起源说从本身所依据的第一环节，即《逸周书》高夷到颛

-
- 21) 王绵厚：《高句丽起源的国内外代表性观点解析》，《社会科学集刊》2006年第1期，154~155页。
- 22) 裴治国等编：《中国古籍二百种提要》，吉林人民出版社1990年，103~104页；戴逸总主编、郑秦主编：《二十六史大辞典》(典章制度卷)，吉林人民出版社，1017~1018页。
- 23) 《汉书》卷二十八，地理志第八下。
- 24) 《汉书》卷九十九，列传第六十九，王莽传。
- 25) 《史记》卷一，五帝本纪。
- 26) 王廷洽：《中国文化史年表》，上海辞书出版社1990年，18~19页。
- 27) 翦伯赞主编：《中外历史年表》，中华书局1961年，3页。
- 28) 有人认为，红山文化是以泥质陶器、雕刻有龙和凤的玉器文化、具有神殿和祭坛的大型建筑物等为最重要特征的(刘素侠：《红山诸文化反映的原始文明》，《中国考古集成》东北卷，新石器时代一，北京出版社1996年)，但是至今为止，在鸭绿江中游一带的新石器文化中几乎还没有发现这种文化因素。
- 29) 高美璇：《试论红山文化墓葬》，《北方文物》1989年第1期。
- 30)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辽宁牛梁河红山文化女神庙与积石冢冢群发掘简报》，《文物》1986年第8期。
- 31) 朱荣宪：《高句丽积石墓研究》，《文化遗产》1962年第二期；郑灿永(音译)：《公元四世纪为止的高句丽墓制研究》，《考古民俗论文集》5，1973年；李殿福：《集安高句丽墓研究》，《考古学报》1980年第2期；魏存诚：《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考古学报》1987年第3期。

项高阳氏，直到红山文化为止，根本没有确保与高句丽建国母体的住民集团有直接联系性的论据，而炎帝族起源说除了音韵方面的类似性外，也没有具备任何论据。从这一点来看，可以说炎帝族起源说与商人起源说一样，不过是机上的假说而已³²⁾。因此，笔者认为，上述诸多观点中，把商人起源说和炎帝族起源说排除在本文的论述对象外也无妨。只是濊、貊异种族说；濊、貊分化说；貊族移动说等观点是在一定程度上具有史料根据，所以有必要具体探讨。而夫余起源说相对高句丽种族起源更与其始祖的出自相关的问题，所以将与高句丽的建国过程相联系进行论述。

(二) 濊(濊貊)、貊、句丽的关系

为探讨濊、貊异种族说，首先有必要探讨形成高句丽母体的鸭绿江中上游住民集团与周边族属之间的关系问题。据《三国志·东夷传》载，在三世纪前半左右如果把朝鲜半岛北部和满洲中南部设有中国郡县的地区排除在外的话，即是说把辽东~西北朝鲜地区除外的话，那么各族属在地理上的分布格局为鸭绿江中上游一带有高句丽；吉林地区为中心的松花江流域有夫余；(朝鲜)咸镜道东海岸方面有沃沮；元山湾和江原道北部有东濊；满洲东部则有挹娄。

表一 见于《三国志·东夷传》中高句丽周边住民集团间的地理位置关系

分类	东	西	南	北
高句丽	沃沮	<在辽东之东千里>	朝鲜、濊貊	夫余
夫余	挹娄	鲜卑	高句丽	弱水
沃沮	大海	<在高句丽盖马大山之东>	濊貊	挹娄、夫余
挹娄	大海	<在夫余东千余里>	北沃沮	<未知其北所极>
濊	大海	<今朝鲜之东皆其地也>	辰韩	高句丽、沃沮

其中挹娄在语言上不同于夫余和高句丽，³³⁾而这一点给人提示着他们之间的族属系统互相不同的可能性。相反，夫余、高句丽、沃沮、东濊的语言和习俗相类似³⁴⁾。一般而言，语言被利用于辨别各集团族属系统的最重要的标志。既然语言具有这种意义，那么从语言类似的角度而言，是否可以把高句丽看

32) 余昊奎：《中国学界的高句丽对外关系研究现状》，《韩国古代史研究》31，2003年。

33) 《三国志》卷三十，魏书，东夷传，挹娄：“言语不与夫余、句丽同”。

34) 《三国志》，东夷传，高句丽：“言语诸事，多与夫余同，其性气衣服有异”；《三国志》，东夷传，沃沮：“其言语与句丽大同，时时小异”；《三国志》，东夷传，东濊：“言语法俗大抵与句丽同，衣服有异”。

作是跟夫余、沃沮、东濊等族属同属于一个系统，而后分化出来的住民集团呢？特别是史书称高句丽与东濊为同种³⁵⁾。

若如此，那么主张高句丽的族属系统不同于夫余和东濊的濊、貊异种族说则存在有必要重新考虑的余地。从这种角度来看，虽然称高句丽为“貊”的史料多，但是值得注意的是这些史料都是属于公元以后的事实。最初明确称高句丽为貊的史书是《汉书》，此书在公元10年王莽伐匈奴时，把所动员的高句丽人称之为“貊人”³⁶⁾。从时间上看，最早出现貊的记载则在公元前一世纪前半，即《三国志·东夷传·沃沮》所载的第一玄菟郡受夷貊所侵被驱走到高句丽西北之记录。

从现存的史料上看，明确称高句丽为“貊”的事例之上限是公元前一世纪前半。这一点给人的提示是：形成高句丽建国母体的鸭绿江中上游住民集团在公元前一世纪前半以前，有可能被称为其他别的名，同时也具有他们原本不属于貊族的可能性。与此问题相关，首先有必要注目濊和貊在不同时期起了变化的问题。

在先秦时期的文献中，多次出现濊(稊、薺)和貊(貉)族名。只是在这时期几乎没有出现把濊和貊合称为濊貊的用例³⁷⁾，大体上都单独地称之为濊或貊。特别是综观这些用例来看，濊大体上位于辽河以东³⁸⁾，而貊大体上位于河北～陕西之北³⁹⁾。也就是说，秦汉以前的濊和貊各自的居住地位置有着明确区别的，是属于不同的族属。因此如果濊、貊异种族说或者濊、貊分化说得以成立的话，首先需要证明中国北方的貊族迁移到东方的历史事实。

但是在现存的文献史料中没有可证明貊族迁移到辽河以东的根据，而且在考古资料上也没有发现在青铜器时代或早期铁器时代中国北方的住民集团大举东迁的痕迹，所以很难看作中国北方的貊族东迁后形成了高句丽建国母体的住民集团，或者貊族东迁后与濊族相结合形成了濊貊等观点也难以成立。事实上，貊族移动说没有赖以成立的余地。

35) 《三国志》，东夷传，东濊：“其耆老旧自谓与句丽同种”。

36) 《汉书》卷九十九，王莽传。

37) 《管子·小匡篇》记载，齐国桓公征伐北方的孤竹、山戎的同时，也征伐了稊貊。但是记录这一同一事件的《国语·齐语》中则不见有稊貊。相比之下，《管子·小匡篇》的内容被后代人添加的可能性较为浓厚(黄哲山(音译，下同)：《关于古朝鲜的种族》，《考古民俗》1963年第1期，9页)。除此之外，在先秦文献中再也找不到把稊貊连称的事例。

38) 《逸周书》，王会解篇：“成周之会(中略)，西面者，正北方，稷慎大尘，稊人前儿，前儿若弥猴，立行，声似小儿”；《吕氏春秋》，恃君览篇：“非滨之东，夷稊之乡，大解、陵渔、其、鹿野、摇山、扬岛，大人之居，多无君”。

39) 三品彰英：《濊貊族小考》，《朝鲜学报》4，1953年；黄哲山：《关于濊貊族》，《考古民俗》1963年第2期，20～30页；朴俊亨：《“濊貊”的形成过程和古朝鲜》，《学林》22，2001年，16～22页。

如上所述, 先秦时期不见有貊族的迁移迹象, 但是貊之称谓在使用上被扩大化的事例较多。例如《史记·燕召会世家》中的貊之名包括东胡, 甚至包括有山戎, 而《尚书·武成篇》中则又与“蛮”相结合, 被作为对华夏的对称概念。即是说, 貊之名被扩大化到对北方种族甚至是对整个异种族的凡称而使用的⁴⁰⁾。濊和貊正式开始被连称为秽貊(秽貉)则是从《史记》开始, 只是这时期还没被与秽连称的貉所指的是位于中国大陆的西北⁴¹⁾、北方⁴²⁾、并和代的边境地区⁴³⁾的住民集团, 而称辽河以东的住民集团为貉的事例则没有发现。

从而可知, 在《史记》成书阶段, 辽河以东地区还没有存在被称之为貊的住民集团。因此可以说, 秽貉之名并不是源于秽和貉的合称, 而是随着貊之名的扩大化使用过程中, 与貊相结合而出现的。秽貉在种族意义上的实体并不是各自单独的秽和貉两个族体, 而是从先秦时期开始居住于辽河以东的秽, 所以秽貉之名可认为是对秽族整体的凡称⁴⁴⁾。这一点又从公元前134年主父偃上奏对付匈奴计策时, 把整个东方包括古朝鲜理解为“葷州”的事例中可得到佐证⁴⁵⁾。

从上述的角度来看, 值得注意的是前汉代在古朝鲜周边有多个被称之为秽的住民集团之事实。例如公元前128年率28万口降于汉辽东郡的南吕被称为葷君⁴⁶⁾; 沃沮的前身—夫租的渠帅也被称为“葷君”⁴⁷⁾, 而且公元三世纪夫余库中有“濊王之印”, 从公元前109年滇王所受的“滇王之印”的事例来看⁴⁸⁾, 夫余库中有“濊王之印”可推定是前汉代的印章⁴⁹⁾。又在辽东半岛宝兰店市也曾出土过“临秽丞印”封泥⁵⁰⁾。这些说明前汉代为止, 从辽东半岛到朝鲜东海岸, 甚至到松花江流域为止, 古朝鲜周边的住民集团大部分都被称之为葷(秽)。

由此可推断, 正如沃沮前身“夫租葷君”的事例所反映, 早在公元前二世纪就可以确认的古朝鲜、真番、夫余等⁵¹⁾名称也大体上是从秽, 即从秽貉中分化

40) 黄哲山:《关于濊貉族》,《考古民俗》1963年 第2期, 22~23页。

41) 《史记》卷二十七, 天官书五:(秦始皇时)“其西北则胡貉、月氏诸衣旃裘引弓之民, 为阴”。

42) 《史记》卷八十七, 李斯列传:“李斯乃从狱中上书曰:地非不广, 又北逐胡貉, 南定百越, 以见秦之疆”。

43) 《史记》卷一百一十, 匈奴列传:“后百有余年, 赵襄子踰句注, 以破并代以临胡貉”。

44) 三品彰英:同前文, 1953年;黄哲山:同前文, 1963年。

45) 《史记》卷一百一十二, 主父列传;《汉书》卷六十四, 严安传。

46) 《汉书》卷六, 武帝纪:“元朔元年, 东夷葷君南闾等, 口二十八万人降, 为苍海郡”。

47) 李舜镇(音译):《关于芙租葷君之墓》,《考古民俗》1964年 第4期;金基兴:《关于对芙租葷君之墓的一考察》,《韩国史论》12, 1985年。

48) 吉开将人:《从印章看南越世界》(中篇),《东洋文化研究所纪要》137, 1999年, 9~11页。

49) 林起焕:《乐浪印章》,《译注韩国古代金石文》(I), 韩国古代社会研究所1992年, 304页。

50) 刘俊勇:《辽东沓水县文县县治考证》,《博物馆研究》1993年 第3期, 39页;刘俊勇著、崔茂藏译:《中国大连考古研究》,学苑文化社1997年, 105页。

出的⁵²⁾。特别是濊君南吕所率有的集团可推定为是分布于辽东郡东部山间地带到朝鲜东海岸一带的居民⁵³⁾，他所领的28万口几乎相当于三世纪左右的高句丽(三万户)、沃沮(五千户)、东濊(二万户)的户数。若按如此，那么形成高句丽建国母体的住民集团最初也可能是作为濊(濊貊)的一员而存在的。而公元前108年汉灭古朝鲜以后，在其地和周边地区设郡县的历史过程很好地反映这一点。

A - a 是时 汉东拔秽貉朝鲜以为郡。(《史记》 卷110, 匈奴列传)

A - b 元封三年(108) 募天下死罪击朝鲜(中略), 以其地为乐浪、临屯、玄菟、真番郡。(《汉书》 卷6, 武帝纪)

A - c 玄菟、乐浪、武帝时置, 皆朝鲜濊貉句骊蛮夷。(《汉书》 卷28, 地理志8, 下2)

A - d 东伐朝鲜, 起玄菟、乐浪, 以断匈奴之左臂。(《汉书》 卷73, 韦贤传)

A - e 东定濊貉朝鲜, 廓地斥境, 立郡县。(《汉书》 卷75, 夏侯胜传)

A - f 是时 汉东拔秽貉朝鲜以为郡。(《汉书》 卷94, 匈奴传)

除史料A - b和A - d外, 记录汉郡县的设置地区时均把朝鲜和秽貉并记。若说朝鲜是指古朝鲜故地, 那么秽貉可能是古朝鲜周边地区住民集团的统称。但是史料A - C中记有朝鲜、秽貉的同时, 另记有句骊。这说明虽然当时句骊被认为是属于秽貉的一部, 但是另一方面又被认为是已分离出去的实体。而这一点反映了居住在鸭绿江中上游的住民集团原是以濊(濊貊)族的一员而存在的, 但是后来逐渐与他们分化出来并形成了“句丽”的事实。建立高句丽国的住民集团并不是最初开始就作为貊族在种族系统上与濊(濊貊)族属于不同的系统, 而且其居住地也并不是很早开始就与濊(濊貊)族有区别的。而是与夫余、沃沮、东濊一样, 是从濊(濊貊)族中分化出来后, 形成了被称之为“句丽”的住民集团⁵⁴⁾。

但是高句丽通过公元前一世纪左右驱走玄菟郡, 公元之后又打破新王莽朝

51) 《史记》 卷一百二十九, 货殖列传: “北邻乌桓、夫余, 东结秽貉、朝鲜、真番之利”。

52) 宋镐晷: 《古朝鲜国家形成过程研究》, 首尔大学博士学位论文1999年, 79~81页。

53) 关于濊君南闾势力的根据地问题上, 大体可分为鸭绿江中游一带说(白鸟库吉、李丙涛)和朝鲜半岛东海岸方面说(池内宏、和田清)等观点, 但是从人口规模上看, 其势力范围可能包括以上两说之地(余昊奎: 《高句丽国家的形成和汉的对外关系》, 《军事》 54, 2005年)。

54) 本文对濊貊族的分化和“句丽族”形成过程部分的论述是笔者曾在2002年发表于《韩国古代史研究》第25集的《高句丽初期的梁貊和小水貊》一文中, 对103~115页进行修改和补充的内容。

的东方政策，给汉人注入了强有力的影响，开始被称之为貊。特别是公元以后逐渐不见有以貊名称谓中国北方族属的事例，与此相反，称高句丽为貊的用例急剧增多⁵⁵⁾，于是把高句丽理解为似乎是从起源开始就与濊(濊貊)族有区别的，是属于貊族的认识得到了扩散。笔者认为，《三国志》和《后汉书》的作者们正是基于这种认识下，称高句丽为貊族的。

三. 濊(濊貊)族的分化和句丽族的形成

(一) 濊(濊貊)族的分化和“貊”的形成

如上所述，高句丽原本是濊(濊貊)族的一员，后来分化出形成了独立的“句丽”这一住民集团，从公元前一世纪左右开始被汉人称为“貊”。高句丽是从濊族分化出来的，所以欲要追溯他们的种族起源和住民集团的形成过程，则须要与濊(濊貊)族的整体历史状况相联系进行考察。而主导高句丽建国的住民集团之地理位置大体上局限于鸭绿江中上游，但是如前所述，位于西安平以北宽甸地区的住民集团也被称为小水貊，而且位于太子河上游本溪地区的住民集团也被称为梁貊⁵⁶⁾。

宽甸~本溪地区的住民集团也和鸭绿江中上游一带的住民一起被称为貊，笔者认为，这是因为他们之间和同属濊(濊貊)族系统的其他住民集团相比，更具有文化上的亲缘性和纽带关系才如此被称谓的。也就是说在形成高句丽母体的“句丽”以前，鸭绿江中上游和包括宽甸~本溪地区的广阔范围内已形成有同质性较强的住民集团。这种推断反过来又说明高句丽建国母体的句丽，经过几个阶段的分化后，最终才得以形成的可能性。在现存的文献中，从时间上最早见有这一地区住民集团状况的史料是公元前128年的葺君南吕和公元前107年与句丽蛮夷相关的记载。所以若要考察公元前二世纪后半这一地区的状况，只能依靠考古学方面的资料。

在满洲和朝鲜半岛地区代表青铜器文化的典型遗物是琵琶形铜剑，但是至今为止在鸭绿江中上游一带几乎没有发现有典型的琵琶形铜剑。从青铜器的普及情况来看，鸭绿江中上游一带比其他地区相当落后，一般称这一地区的青铜器文化为公贵里类型，有长方形半地下式房址、石棺墓、大石盖墓等遗

55) 《汉书》中多处见有称北方族属为貊(貉)的事例，而在《三国志》和《后汉书》中其使用次数明显减少，但是《三国志》和《后汉书》单独称貊时，大部分都是对鸭绿江中上游的高句丽人和位于其西边的住民集团的称谓。

56) 《三国世纪》卷十三，高句丽本纪一，琉璃明王三十三年条；高句丽本纪五，东川王二十年条。

存。虽然在这些遗存中不见有琵琶形铜剑，但多有陶器和石器出土，特别是陶器具有平底、桥状耳和乳状耳等特点。⁵⁷⁾

出土遗物中的钵形陶器类似于西团山子器形⁵⁸⁾，而美松里型陶器在中江郡土城里和通化万发拔子(旧名为王八脖子)等地也有发现⁵⁹⁾，平底和乳状耳陶器与图们江流域和朝鲜东海岸沿岸出土的陶器具有相通的因素。而二重口沿和高圈足小平底陶器使人联想起大同江流域的螺形陶器⁶⁰⁾，说明这一地区的青铜器文化极具有复合性⁶¹⁾。因此可以说，鸭绿江中上游一带进入青铜器时代的进程较晚，而且与周边地区有明显区别的文化特色也相对微弱，据至今为止已取得的考古学资料来看，认为在琵琶形铜剑时期已形成了以这一地区为中心的文化圈，或者认为这一地区已形成了有别于濊(濊貊)族的住民集团等观点均难以成立。

只是这一时期在陶器上见有的平底、环手柄、钵形器物等特点，经过早期铁器时代，一直延续到高句丽时期。特别是最近在桓仁五女山城⁶²⁾，通化万发拔子⁶³⁾等遗存中连续发现了新石器时代、青铜器时代、早期铁器时代(中间型铜剑期)、高句丽早期、中期等文化层，但是在各文化层中几乎都有钵形陶器出土。这说明构成高句丽母体的住民集团，其基本文化是以新石器以来的土著文化为基础而形成的可能性大。⁶⁴⁾

另一方面，公元前四~三世纪随着战国燕进出于辽东，导致了东方局势的急剧变化。古朝鲜的版图向朝鲜西北缩小的同时，琵琶形铜剑转变为细形铜剑，战国燕系统的铁器文化开始得到普及。这种变化的旋涡也传播到鸭绿江中上游一带，中间型铜剑很好地说明这一点，它不仅同时具有琵琶形铜剑和细形铜剑属性的同时，剑身下端部变为了有棱的铜剑⁶⁵⁾。如表二⁶⁶⁾，剑身下端

57) 《朝鲜的青铜器时代》，社会科学出版社1984年，54~60页。

58) 李炳善(音译)：《鸭绿江流域青铜器时代具有特色的陶器及其分布状况》，《考古民俗》1963年第3期。另一方面，在通化万发拔子遗址青铜器时代文化层中发现了三足器(吉林省文物志编委会：《通化市文物志》，1986年)，这种三足器在满洲地区多发现于松花江一带。上述两地三足器的发现可能与二者之间的文化交流有关。

59) 宋镐晷：《关于辽东地区的青铜器文化和美松里型土器之考察》，《韩国史论》24, 43~46页。

60) 《朝鲜的青铜器时代》，社会科学出版社1984年，59页。

61) 吴江原：《五女山和桓仁地区的青铜器文化和社会》，《北方史论丛》3, 2005年，32~35页。

62)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编著：《五女山城—1996~1999、2003年桓仁五女山城调查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4年。

63) 中国国家文物局主编：《吉林通化万发拔子遗址》，《1999中国重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1年。

64) 吴江原：《通过万发拔子看通化地区先原史文化的展开和初期高句丽文化的形成过程》，《北方史论丛》创刊号，2004年，166~167页。

65) 在学界这一铜剑被称为后期琵琶形铜剑(林沅、靳枫毅、翟德芳)；初期细形铜剑

部有棱的中间型铜剑(B式中间型铜剑)集中出土于辽东东部山间地带。

表二 剑身下端部有棱的中间型铜剑出土状况

序号	遗址名	墓制概况	青铜遗物				铁器	其他及备考	文献
			剑	矛	镜	其他			
1	本溪 刘家哨	地表下1.5m, 石棺墓	3	1	1	兽饰 2青铜环		剑囊 T字形剑把头饰	1
2	本溪南芬	竖穴土坑墓	1					破损剑柄	2
3	桦甸西 荒山屯	竖穴岩石墓 M1	3			刀3 镞1 扣2	铁刀1	触角式剑柄 T字形剑把头饰 石制纺锤车1 陶器、饰件多	3
		竖穴岩石墓 M6	3				斧3, 镞1, 刀1	T字形剑把头饰、 陶器、饰件多	3

(朴晋昱、朴淳发)；中间型铜剑(李清圭)；中细型铜剑(吴江原)等不同名称。本文认为这一铜剑同时具有琵琶形铜剑和细形铜剑两种属性，所以接受命名中间型铜剑的观点。

林沄：《中国东北系铜剑初论》，《考古学报》1982年第1期；靳枫毅：《论中国东北地区含曲刃青铜短剑的文化遗存》，《考古学报》1982年第4期、1983年第1期；翟德芳：《中国北方地区青铜短剑分群研究》，《考古学报》1988年第3期；朴晋昱：《关于琵琶形短剑文化的研究》，科学百科辞典出版社1987年；朴淳发：《关于对我国早期铁器文化展开过程的若干考察》，《考古美术史论》3，1993年；李清圭：《通过青铜器看古朝鲜》，《国史馆论丛》42，1993年；吴江原：《关于辽宁~西北韩地区中细型铜剑的研究》，《清溪史学》16、17，200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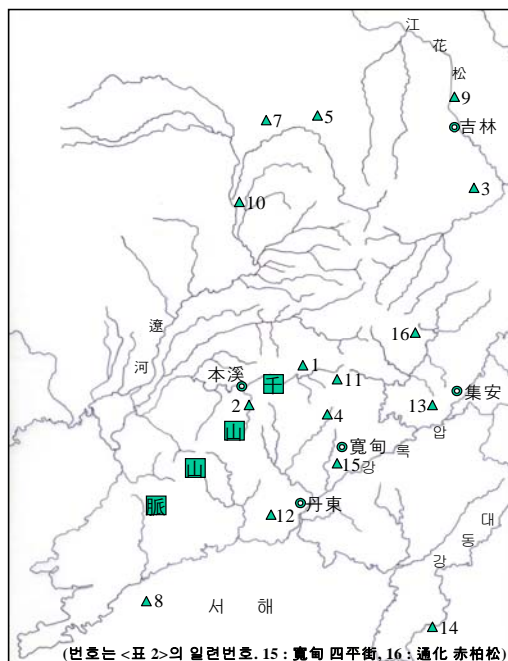
- 66) 表二是参考吴江原的文章(同前文，2002年，12页)列出的，而其他参考文献则为如下；梁志龙：《辽宁本溪刘家哨发现青铜短剑墓》，《考古》1992年第4期；齐俊：《本溪地区发现青铜短剑墓》，《辽海文物学刊》1994年第2期；吉林省文物工作队、吉林市博物馆：《吉林桦甸西荒山青铜短剑墓》，《东北考古与历史》1，1982年；许玉林、王连春：《丹东地区出土的青铜短剑》，《考古》1984年第8期；陈家槐：《吉林永吉县乌拉街出土“触角式剑柄”铜剑》，《考古》1984年第2期；吉林省文物管理委员会：《吉林怀德大青山发现青铜短剑》，《考古》1974年第4期；榎本杜人：《满洲式铜剑の离合について》，《考古学杂志》37-2，1951年；《朝鲜考古学》，同朋社1980年；吉林省文物志编委会：《双辽县文物志》，1986年；旅顺博物馆、辽宁省博物馆：《辽宁长海县上马石青铜时代墓葬》，《考古》1982年第6期；裴耀军：《辽宁昌图县发现战国汉代青铜器及铁器》，《考古》1989年第4期；李矛利：《昌图发现青铜短剑墓》，《辽海文物学刊》1993年第1期；抚顺市博物馆考古队：《抚顺地区早晚两类青铜文化遗存》，《文物》1983年第9期；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发现青铜短剑墓》，《考古》1981年第5期；尹光洙：《土城洞486号木椁墓发掘报告》，《朝鲜考古研究》1994年第4期。

序号	遗址名	墓制概况	青铜遗物				铁器	其他及备考	文献
			剑	矛	镜	其他			
4	宽甸赵家堡子	地表下30cm, 石块之间添有块石和河卵石修造的石墓	1	1	3				4
5	怀德大青山	土坑浅穴墓	1			半环形铜饰		夹砂红褐陶 4	6
6	(传)抚顺	未详	1					T字形剑把头饰, 枕状器	7
7	双辽吉祥屯	未详	1					T字形剑把头饰, 枕状器	8
8	长海上马石	竖穴土坑墓	1						9
9	永吉汪屯	小溪边的地层	1					触角式剑柄	5
10	昌图翟家村	长方形坑(岩凿墓)	3			铜簇 12	铁镞 5	T字形剑把头饰、枕状器、骨簇 1. 铜剑为中国式	10 11
11	新宾马架子	板石石棺墓	1						4
12	东沟大房身	未详	1						12
13	集安五道岭沟门	石堆下1m地点 视为方坛阶梯积石墓	1	3	1	铜斧1 钺形铜斧4	铁镞(?)	剑囊	13
14	平壤土城洞	木椁墓	1	戈1				触角式剑柄	14

这种B式中间型铜剑再细分为:a剑身下端部从圆弧开始演变为直线并形成了棱;b剑身下端部的棱为环折的类型;c剑身下端部的棱为直折等几种类型。其中出土a式铜剑的桦甸县西荒山屯和c式昌图县翟家村遗址中同时也出土了战国燕系统的铁斧、铁镰、铁刀等遗物。在燕系统的铁器文化广泛普及的遗址中出土多种多样的铁器⁶⁷⁾, 相比之下, 但在B式中间型铜剑出土的遗址中只出土部分种类。因此可以推定, B式中间型铜剑遗址形成于战国燕系统的铁器文化开始普及的初期阶段, 即公元前四~三世纪左右⁶⁸⁾。

67) 李南圭:《东亚细亚初期铁器文化研究》, 广岛大学博士学位论文(别册)199?, 7~9页。

68) 战国燕的铁器文化大体上从公元前四世纪开始在辽东~西北韩地区得到了普及, 而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则是从公元前三世纪左右开始普及。潮见浩:《古朝鲜的铁器》, 《东亚细亚初期铁器文化》, 吉川弘文馆1982年, 203~229页; 李南



地图一 B式中间型铜剑分布图

通过表二和地图一可知，B式中间型铜剑主要分布于北至辽河上游和松花江中上游，西达辽东半岛，南抵大同江流域。其中除远离中心地区的土城洞遗址(14号)之外⁶⁹⁾，B式中间型铜剑的分布大体上可分为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和辽河上游~松花江中上游一带两大区域，但是两者之间在出土物上有很大的区别，即后者伴有铁器，相反，前者几乎没有铁器出土⁷⁰⁾。这可能是因为铁器在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普及较晚的结果⁷¹⁾。

值得注意的是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B式中间型铜剑遗址中虽然没有铁器出土，但是有施有叶脉纹的铜矛出土。曾在集安五道岭沟门出土过三个铁矛，其中有一铁矛的北刃部两面都刻有针叶树系列的叶脉纹⁷²⁾，而这种纹样的铁矛在本溪刘家哨⁷³⁾和宽甸赵家堡⁷⁴⁾遗址中也曾出土过。而且通化赤柏松⁷⁵⁾

圭：《东亚细亚初期铁器文化研究》，广岛大学博士学位论文199?，380~391页；
《高句丽国家形成时期铁器文化的展开状况》，《高句丽国家的形成》，高句丽研究财团2005年。

69) 土城洞遗址是属于木椁墓，其编年为公元前一世纪左右(尹光洙：同前文，1994年)。

70) 出土于五道岭沟门遗址的铁镞为后代流入到此地的可能性大(朴真旭：同前文，1988年，116页)。

71) 也有人主张在秦汉交替期或汉初进入了铁器文化圈(朴淳发：同前文，1993年，55页)。

72)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发现青铜短剑墓》，《考古》1981年第5期，468页。

73) 梁志龙：《辽宁本溪刘家哨发现青铜短剑墓》，《考古》1992年第4期，316~

和宽甸四平街⁷⁶⁾遗址中虽然没有中间型铜剑出土，但也出土过叶脉纹铜矛。还有，最近在通化万发拔子第三期文化层中与铜剑一起出土了叶脉纹铜铤⁷⁷⁾。施有叶脉纹的铜矛以集安、宽甸为中心，集中出土于本溪和通化一带。

因此在B式中间型铜剑的出土地区中，又可以把叶脉纹铜矛出土的宽甸～本溪～集安～通化一带再划为一个文化圈。这种叶脉纹样在铜镜上也有发现。出土于五道岭沟门遗址的双纽镜的纹饰虽然报告为蛛网纹⁷⁸⁾，但是其基本的饰样是属于针叶树系列的叶脉纹样⁷⁹⁾，这种叶脉纹双纽镜在宽甸赵家堡遗址中也曾出土过⁸⁰⁾。也就是说，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中间型铜剑虽然不伴有铁器的出土，但是具有叶脉纹的共同点⁸¹⁾。与此相关，引人注目的是集安五道岭沟门和本溪刘家哨遗址中出土过同一形态和纹样的剑囊⁸²⁾。从位于其上层的文化内涵为青铜器文化的角度来看，位于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住民集团们在进入铁器文化的转换时期互相间结有密切的联系。

特别是随之出土的明刀钱也说明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是有别于西部平原地区的事实。明刀钱在西部平原地区则出土于集落遗址中，与此相反，千山山脉～鸭绿江中游一带只在石棺墓和积石冢等古坟遗址中出土，说明这一地区相对西部平原而言所具有的土著性质更为强⁸³⁾。最近也提出了陶器文化的类似性问题，在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青铜器时代末期遗址中多出土公贵里

317页。

74) 许玉林、王连春：《丹东地区出土的青铜短剑》，《考古》1984年第8期，712～714页。

75) 吉林省文物志编委会：《通化县文物志》，1987年，96～97页；邵春华、沟承志、柳岗：《赤柏松汉城调查》，《博物馆研究》1987年第3期，62页。

76) 许玉林、王连春：《丹东地区出土的青铜短剑》，《考古》1984年第8期，712～714页。

77) 中国国家文物局主编：同前文，2001年，29～30页。

78)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发现青铜短剑墓》，《考古》1981年第5期，470页。

79) 李清圭：《关于东北地区的多纽镜及其陪葬墓》，《韩国考古学报》40，1999年，60页。

80) 许玉林、王连春：《丹东地区出土的青铜短剑》，《考古》1984年第8期，712～713页。

81) 在通化县英戈布乡小都岭大批出土了铜镜、铜斧、铜矛等石范(满承志：《通化县小都岭出土大批石范》，《博物馆研究》1987年第3期，68～70页)，据此可以推断，叶脉纹铜矛、铜镜的制造地点是这一地区，是在本地制造的。又据说，桦甸西荒山屯遗址中发现的铜刀上也施有一条叶脉纹(吉林省文物工作队：同前文，1982年，146页)。

82) 秋山进午：《再论辽宁省东部地区的青铜器》，《东北亚考古学研究》，同朋舍1995年，262页。与此相同的剑囊在辽东半岛长海县哈仙岛徐家沟也有发现(许明纲：《大连市近年来发现青铜短剑及相关的新资料》，《辽海文物学刊》1993年第1期，11～12页)。

83) 田村晃一：《乐浪郡设置前夜的考古学》，《东亚细亚世界史的展开》，汲古书院1994年，24～28页。

式器形、桥状耳陶器⁸⁴⁾。即是说,在进入铁器文化的转换时期,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住民各集团间的文化亲缘性日益得到了增强。

桥状耳陶器和中间型铜剑的分布地区—千山山脉以东的宽甸、本溪、桓仁、通化、集安一带是小水貊(宽甸一带)、梁貊(本溪一带)、大水貊(鸭绿江中上游)等被称为貊的住民集团居住的地区。前已述,笔者曾推测高句丽建国母体—“句丽”形成以前,在鸭绿江中上游和包括宽甸—本溪等广阔地区可能形成有同质性较强的住民集团。而这种可能正是符合于这些被称为貊的住民集团。因此可以推定,在青铜器时代末期乃至向铁器文化转换的时期,位于鸭绿江中上游和宽甸—本溪地区的住民集团从秽(秽貊)开始分化,形成了文化亲缘性较强的住民集团⁸⁵⁾,而正是这些人从公元前后开始被称之为貊。从这种考虑出发,本文暂且把这段历史命名为“貊”的形成⁸⁶⁾。如上所述,公元前四~三世纪左右,随着燕进出于辽东以及古朝鲜的微缩,东方地区的局势急变的过程中,位于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人们开始从秽(秽貊)中分化出来,形成了自己的文化圈和住民集团。

(二) 积石墓的修筑集团和句丽族的形成

随着铁器文化的广泛普及,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的住民集团又一次分化,发现于鸭绿江中上游一带的积石墓很好地反映这一点。高句丽早期积石墓是首先在地表上铺河卵石或碎石修墓坛后,其上设有墓椁并安置尸体,最终以石封盖的形制,从地上的墓坛上置有埋葬主体部的形制来说,与松花江流域地下或半地下修有埋葬设施的石棺墓和辽东一带的土圜墓、木椁墓有明显的

84) 朴淳发:《关于高句丽陶器的形成》,《百济研究》29,1999年,7页。

85) 这种文化上的亲缘性可能是以千山山脉~鸭绿江一带的青铜器文化为基础得到了加强。但是,被视为这一地区的青铜器文化—庙后山类型和公贵里类型的文化分布状况以及这些文化相互间的联系性问题还没有得到确认,所以很难断言在这一地区从青铜器前半开始已形成有文化亲缘性较高的住民集团。从这种角度而言,有必要对整个青铜器时代在太子河~浑河上游和鸭绿江~浑河流域形成有被称之为貊部的住民集团等观点(王绵厚:《辽东“貊系”青铜文化的重要遗迹及其向高句丽早期文化的传承演变》,《东北史地》2006年第6期)做更慎重的考虑。与此相反,较为引人注目的研究成果认为;中间型铜剑和粗细纹镜初期阶段,即战国燕进出于辽东以前的公元前四世纪左右,中国东北地区 and 朝鲜半岛的青铜器文化出现了地区性的分歧。此观点进一步认为,这种在各地区所形成的青铜器生产补给体系和社会体系成为了该地区的文化基础(李清圭:同前文,1999年,66~67页)。也有把辽河~清川江一带修筑石棺墓并使用美松里陶器的住民集团为“貊”,而位于“貊”以南修有支石墓的集团为“秽”,以此来区分两者(郑汉德:《美松里型陶器的生成》,《东北亚考古学》,六兴出版1989年,131~132页。但是,美松里型陶器的分布圈之广远远超过上述诸地区,所以不能把二者直接联系起来

86) 开始被成为“貊”的时间可推断为公元前一世纪左右,但进入铁器文化的转变期以何名被称谓的问题至今无从可知。

区别。

虽然在辽西地区代表新石器文化的牛梁河遗址中也发现有积石墓，但是其埋葬主体部是板石墓，而且位于半地下⁸⁷⁾，这与高句丽初期的积石墓有着本质性的区别。辽东半岛西南端也发现有青铜器时代的积石墓，但是直接在地表上修有埋葬主体部，而且是把多个主体封为一个坟的集团墓⁸⁸⁾，这一点也与高句丽的初期积石墓多有着距。虽然不能完全排除周边地区的影响和交流之因素，但是可以说，高句丽的初期积石墓是有其独特性的，是这一地区固有的墓制。

在这种高句丽初期的积石墓中不见有铜剑的出土，但出土青铜制饰件，如生活用具以及铁制农具和武器类等遗物⁸⁹⁾。可以把积石墓看作是继前述的B式中间型铜剑后，在铁器文化普遍得到普及的阶段修筑的。最近在通化万发拔子遗址中，被确认的中间型铜剑上层文化为无基坛积石墓的事实，很好地反映了这一点⁹⁰⁾。

只是鸭绿江下游和太子河中下游地区出土B式中间型铜剑的大部分遗址是埋葬主体部位于地下或半地下的石棺墓，但是在其上面再积石的形制多⁹¹⁾。是否属于积石墓的问题上仍有争议⁹²⁾的集安五道岭沟门积石遗址中，也出土了中间型铜剑以及叶脉纹铜矛和铜镜⁹³⁾。还有，通化万发拔子遗址中也已发现了石棺墓、大石盖墓以及从大石盖墓过渡到高句丽初期阶段的过渡墓制—大石盖积石墓⁹⁴⁾。

由此可推断，高句丽初期的积石墓是继承前一阶段的B式中间型铜剑文化而形成的⁹⁵⁾。在中间型铜剑分布的千山山脉东部地区中，这种属于初期的积石

87)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辽宁牛河梁红山文化女神庙与积石冢冢群发掘简报》，《文物》1986年第8期。

88) 朝、中共同考古学发掘队：《中国东北地区的遗迹发掘报告—1963~1965》，社会科学出版社，1966年；旅大市文物管理组：《旅顺老铁山积石墓》，《考古》1978年第2期；旅顺博物馆、辽宁省博物馆：《大连市家村砬头积石墓地》，《文物》1983年第9期；华玉冰等：《辽宁大连市土龙积石墓地1号积石冢》，《考古》1996年第3期。

89) 余昊奎：《一~四世纪高句丽政治体制研究》，首尔博士学位论文1997年，27~28页。

90) 中国国家文物局主编：《吉林通化万发拔子遗址》，《1999中国重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1年。

91) 梁志龙：《辽宁本溪刘家哨发现青铜短剑墓》，《考古》1992年第4期；许玉林、王连春：《丹东地区出土的青铜短剑》，《考古》1984年第8期。

92) 张雪岩：《集安青铜短剑墓及相关问题》，《高句丽研究文集》，延边大学出版社，1993年。

93)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发现青铜短剑墓》，《考古》1981年第5期。

94) 中国国家文物局主编：同前书，2001年，29~30页。

95) 池炳穆：《高句丽成立时期的考古学背景》，《高句丽国家的形成》，高句丽研究财团2005年，92页。他指出，“位于鸭绿江中游的遗存其编年年代为公元前四至三世纪，是属于琵琶形铜剑系文化的后期阶段，这些遗存的主人们接受铁器文化后，发展成为修筑积石墓的集团”。他进一步把两者的关系直接联系起来。

墓, 只有在鸭绿江中上游一带被发现。虽然浑河、太子河一带也分布有高句丽古墓, 但是本溪墓是属于四、五世纪的封石石室墓⁹⁶⁾, 而凤城县胡家堡孟家积石墓也是中期的封石石室墓(洞室墓)⁹⁷⁾, 而且浑河、太子河一带的积石墓也是在地表上修有石室, 是属于后世的石室积石墓⁹⁸⁾。在南方大同江中游以南的积石墓或者是属于后世的⁹⁹⁾, 或者是高句丽的遗人和移民们修筑的¹⁰⁰⁾。因此可以把高句丽初期石室墓的分布范围划为如下: 其西界为忠满江河口, 而南界为清川江、大同江上游的山间地带¹⁰¹⁾。

在千山山脉东部B式中间型铜剑的分布圈中, 宽甸县、本溪县、新宾县等地区是被排除在上述初期积石墓的分布范围界定之外。因此可以推断定, 在青铜器时代末期乃至进入铁器文化的转变时期形成的“貊”, 随着铁器文化的广泛普及, 再次分化为鸭绿江中上游一带的住民集团和位于其西边的住民集团。换句话说, 鸭绿江中上游的住民集团接受铁器文化, 并开始修筑积石墓, 逐渐形成了与其西边地区有区别的独立的文化圈, 而且这种积石墓文化圈与高句丽初期的空间范围互相一致, 从而可以认为, 此时形成了构成高句丽建国母体的住民集团—句丽族¹⁰²⁾。

但是, 在修筑积石墓的集团内部中也可发现层次上的不同, 虽然高句丽的初期积石墓是联结几座墓的情况多, 但大体上是采取把单个墓排成一列的形态, 从这一点上可看出单个积石墓具有较强的独立性。但是位于鸭绿江最上游的干沟子古墓群情况而言¹⁰³⁾, 虽然与其他积石墓一样, 先在地上修墓坛后, 其上置有墓椁, 但是墓坛下铺有一、二层石头, 划共同墓区后, 在中央修主墓坛, 而在其周围与主墓坛相连修筑了三~四座, 甚至十数座积石墓。干沟子古墓群与其他地区相比, 具有较强的集团墓性质。

在这一墓区出土了战国时代末期的一化钱(一刀钱)十七枚和秦末汉初的半

96) 辽宁省博物馆:《辽宁本溪晋墓》,《考古》1984年第8期,715~720页。

97) 许玉林、任鸿归:《辽宁凤城胡家堡孟家积石墓发掘简报》,《博物馆研究》1991年?期,74~81页。

98) 陈大为:《辽宁境内高句丽遗迹》,《辽海文物学刊》1989年第1期。

99) 郑灿永(音译):《关于公元四世纪为止的高句丽墓制研究》,《考古民俗论文集》5,1973年。

100) 林英珍(音译):《汉城百济时代的古坟研究》,首尔大学博士学位论文1995年,102~125页。

101) 余昊奎:同前文,1997年,40页,参考地图附录的图表。

102) 在这一问题上,主张把梁貊和新宾县一带比定为创建高句丽建国的主导势力之一涓奴部(消奴部)的观点(李殿福:《两汉时期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辽海文物学刊》1986年;梁志龙:同前文,1993年),或者主张公元前二世纪左右在包括太子河流域的地区,建立有高句丽联盟王国(朴淳发:同前文,1999年,11~12页)等等观点均难以成立。

10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长白干沟子墓地发掘简报》,《考古》2003年第8期。

两钱十八枚，说明这些墓的修筑年代在高句丽初期积石墓中可能属于最早的公元前三~二世纪左右。在此墓群中共发掘了7座集团墓，总计六十五座单个积石墓，但是出土的遗物只有三件铁刀和一件铁镬，说明铁器文化的普及率相当低落。因此可以认为，诸如鸭绿江最上游地区铁器文化的普及相对低落的地方，即使已形成有修筑积石墓的集团，但是其社会内部的分化进行地较缓慢，所以所修筑的积石墓也多具有集团墓葬的性质。

与此相比之下，鸭绿江中上游中位于较宽广的冲积平原情况来看，公元前二世纪中期开始不仅铁制农具多有普及，而且开始出现以切石修筑基坛的基坛积石墓。修筑这种积石墓必然需要对自然岩石的采材、加工、运输等方面的所需之劳动力，社会内部须有能够动员这种劳动力的能力。由此可知，在这种地区已经出现了集中拥有大量的铁制农工具，并占有大片的土地，可以有组织的动员邑落民的势力阶层。即随着铁器文化的广泛普及，深化了社会内部分化，各地出现了势力集团。

而且可以推定，通过这些集团之间的服属和整合，逐渐形成了能够主导高句丽建国的势力。公元前128年为逃避卫满朝鲜的压迫，而降于汉的濊君南吕¹⁰⁴⁾，或者是公元前107年设玄菟郡时出现的句丽等集团可能是属于上述政治势力范围之内。而这些势力集团在玄菟郡设后，通过抗拒玄菟郡的政治压迫和经济掠夺等过程中，相互间更增强了集结力。这一点可从公元前82~75年左右，这一地区的人们用武力把玄菟郡向苏子河方面驱逐的史料为佐证¹⁰⁵⁾。由此可知，在鸭绿江中上游一带设置玄菟郡前后时期，不仅已经形成有高句丽建国母体的“句丽族”，而且如果没有出现外界干涉的情况发生，那么也充分具有了能够发展成为古代国家的政治力量¹⁰⁶⁾。

如上所述，鸭绿江中上游的住民集团向苏子河方面驱逐玄菟郡，并互相之间积极展开整合和服属活动，日益走向古代国家之时，被称为高句丽始祖的朱蒙从夫余南下到了此地，只是因为在这地区已经形成有多个政治势力，而且各自间积极展开着整合和服属活动，所以朱蒙集团虽然具有先进文化，但是不可能一意孤行地征服这些势力，于是朱蒙集团首先与召西奴等土著势力联合，或者是得到了他们的支持，逐渐扩大了势力后¹⁰⁷⁾，降服消奴集团(松让

104) 李丙涛：《玄菟郡考》，《韩国古代史研究》，博英社1975年，172~176页。

105) 《汉书》卷七，昭帝纪七，元凤六年春正月条：“募郡国徒筑辽东、玄菟城”；《汉书》卷二十六，天文志六：“其(元凤)六年正月，筑辽东、玄菟城”；《三国志》卷三十，东夷传，沃沮：“汉武帝元封二年，伐朝鲜，杀满孙右渠，分其地为四郡，以沃沮城为玄菟郡。后为夷貊所侵，徙郡句丽西北，今所谓玄菟故府是也”。

106) 修筑积石墓的集团形成以后，有关鸭绿江中上游的政治体的成长以及国家的形成等状况，参考余昊奎：《在鸭绿江中游流域上高句丽的国家形成》，《历史与现实》21，1996年。

107) 《三国史记》百济本纪第一，始祖温祚王即位年条的割注。

国), 成为了这一地区新的盟主¹⁰⁸⁾。与此问题相关, 引人注目的是最近在高句丽首次定都的都城—桓仁盆地中发现的积石墓中有夫余系的随葬品出土。

这一积石墓就是桓仁望江楼古墓群, 望江楼古墓群随山脊位于一眼尽收桓仁盆地的优越地理位置上, 古墓群的南边为坡度较慢的山岗, 而北边则是峭壁, 仅从这一点来说, 就与位于江边冲积地带和山脚下的其他大多积石墓有着明显的区别。在此地积石墓中大量出土了西丰西岔沟和榆树老河深遗址出土品类似的遗物。特别是所出土的金耳环几乎与被认为是夫余系文化的老河深遗址出土品一样¹⁰⁹⁾。由此可见, 望江楼积石墓为从北方南下的夫余系遗移人的墓葬之可能性大¹¹⁰⁾。此墓群与其他积石墓不同, 是随着山脊修有古坟, 而且北边有峭壁, 这一点也很好的反映古墓所具有的独特性。西岔沟和老河深墓葬的修筑年代认为是公元前二世纪后半至一世纪左右, 所以望江楼积石墓的修筑年代也大约可推定为公元前一世纪左右。

望江楼积石墓很好地反映了夫余系的遗移人势力采用自己固有的墓制, 逐渐与土着势力相融合的状况。如此看来, 高句丽建国神话中的始祖朱蒙并不是通过征服, 而是通过与此地的土着势力相联合, 成为了盟主, 神话所反映的是当时的实际状况。换句话说, 从夫余方面南下的朱蒙集团成为新的盟主, 建立高句丽这一系列的过程中, 并没有出现过内部住民集团全部被交替的变化。从这种角度来说, 以建国神话为根据, 认为高句丽的种族起源于夫余的观点是难以成立的。朱蒙的建国神话应与高句丽的建国过程相联系起来加以认识, 而不应理解为是对高句丽种族起源的传承。

四. 结语

以上考察了形成高句丽建国母体的住民集团其种族起源的问题。

现今在高句丽种族起源问题上多为普遍的观点是貂族说, 甚至认为是中国北方的貂族向东方迁移建立了高句丽国, 最近在中国学界又提出了高句丽的先人起源于中国大陆的高人或炎帝族等观点。但是通过考察、分析地结果可以确认, 在秦汉以前满州中南部和朝鲜半岛北部地区不存在被称为貂的住民集团, 也没有中国北方的貂族大举迁移的史事。当然也确认了高人起源说和炎帝族起源说均为不具有任何论据的观点, 同时这种主张只不过是机上之假说

108) 李丙涛:《高句丽国号考》,《韩国古代史研究》,博英社1975年,359~360页。

109) 梁志龙、王俊辉:《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博物馆研究》1999年第2期;李新全:《五女山山城及其周围的高句丽初期遗迹》,《高句丽文化的历史意义》,高句丽研究财团2005年。

110) 余昊奎:同前文,1997年,45页

而已的事实。

相反，建立高句丽国的住民集团原本是构成濊(濊貊)族的一员，而且从濊(濊貊)族中分化出来后，起初被称为句丽，从公元前一世纪左右开始被称为貊，而这种称谓逐渐被扩大化，并被理解为貊族之国。但是最终得出的观点是建立高句丽国的住民集团并不是原有的貊族，而是濊(濊貊)族中的一员，而貊之称谓只不过是后世相加的名称而已。于是本文考虑濊(濊貊)族整体状况的同时，考察了高句丽建国母体—句丽族的形成过程。

鸭绿江中上游一带铁器文化普及较晚，所以此时还没有形成与周边地区相区别的文化圈或住民集团，但是到了公元前四~三世纪随着燕国进出于辽东，引起了东方局势的急剧变化。在这一过程中，包括鸭绿江中上游的千山山脉东部山间地带形成了共拥有中间型铜剑和叶脉纹文化的文化圈和住民集团。而这些人是在公元前后开始被称为“貊”，从这一角度本文把这一阶段历史命名为“貊”的形成。而位于鸭绿江中上游的住民集团则是从公元前三~二世纪开始接受铁器文化，并修筑积石墓这一独特的墓制，形成了独立的文化圈。

高句丽建国母体的句丽族是接受铁器文化的同时，开始修筑积石墓而最终形成的，而且本文还通过桓仁望江楼积石墓，确认了夫余系遗移民势力采用积石墓墓制并与土著社会相融合的问题。这是高句丽建国神话所承载的朱蒙联合土著势力，扩大了自身势力这一内容的事实性的反映，而且也是对高句丽建国过程中并没有出现过住民集团大规模被交替变换这一历史的说明。从这种角度来说，难以把高句丽的种族起源与夫余相联系起来，朱蒙的建国神话应与高句丽的建国过程相联系加以认识，而不应与高句丽的种族起源联系起来理解。

06

由解明之死看高句丽五部的 形成与变迁

李大龙（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由解明之死看高句丽五部的形成与变迁

- 以桂娄部为中心 -

李大龙 (中国社会科学院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在高句丽历史的研究中,五部(五族)问题占有重要的地位,因为五部问题不仅是认识高句丽民族或政权形成和发展的关键,也是解析高句丽政权统治体制构筑和完善的钥匙。也正因为如此,学术界对五部的研究倾注了大量的精力,也出版了众多的论著,¹⁾但遗憾的是关于五部的认识不仅没有形成统一的意见,反而歧议更多,成为制约高句丽历史研究深入的一个重要因素。笔者在《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几个问题》²⁾及2005年“中韩高句丽文化的历史意义”讨论会的发言《高丽建国神话蕴涵的历史信息》中曾经对五部的形成过程有过粗浅的探讨,依据的主要是高句丽建国神话传说提供的线索。下面想在上述两文的基础上主要依据《三国史记》的相关记载,对高句丽五部早期的情况,尤其是桂娄部的形成和分布地域的变化再做进一步探讨。受到资料的限制,有些认识可能存在不足,抛砖引玉,敬请指正。

一.

关于高句丽五部或五族的记载,主要是见于中国史书。学者对高句丽五部的探讨一般多依据《三国志·东夷传·高句丽》的如下记载:“高句丽本有五族,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³⁾在《三国志》之后,诸多史书对高句丽五部也有一些略有不同的记载。

1) 关于高句丽五部的研究,国内已经出版的一些专著都有专门的章节进行阐述。如刘子敏《高句丽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1996年版)、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版)、杨军《高句丽民族与国家的形成和演变》(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6年版)等。也有一些论文专门对此进行探讨,如李殿福:《两汉时代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辽海文物学刊》1986年创刊号;张博泉:《高句丽五部与统一的民族和国家》,《黑龙江社会科学》1996年第1期等。

2) 《东北史地》2006年第4期。

3) (晋)陈寿撰:《三国志》卷30《东夷传·高句丽》,中华书局标点本1959年版(下同),第843页。

- 《后汉书·东夷·高句丽传》载：“(高句丽)凡有五族，有消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消奴部为王，稍微弱，后桂娄部代之。”
- 《梁书·高句丽传》载：“(高句丽)本有五族，有消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消奴部为王，微弱，桂娄部代之。”
- 《南史·高句丽传》载：“(高句丽)本有五族，有消奴部、绝奴部、慎奴部、灌奴部、桂娄部。本消奴部为王，微弱，桂娄部代之。”
- 《隋书·高丽传》载：“(高句丽)夏有内评、外评、五部褥萨。”
- 《旧唐书·高丽传》载：总章元年(668)十一月，“拔平壤城，虏高藏、男建等。十二月，至京师，献俘于含元宫。诏以高藏政不由己，授司平太常伯；男产先降，授司宰少卿；男建配流黔州；男生以乡导有功，授右卫大将军，封汴国公，特进如故。高丽国旧分为五部，有城百七十六，户六十九万七千；乃分其地置都督府九、州四十二、县一百，又置安东都护府以统之。”同书卷32《地理二》也载：“总章元年九月，司空李绩平高丽。高丽本五部，一百七十六城，户六十九万七千。其年十二月，分高丽地为九都督府，四十二州，一百县，置安东都护府于平壤城以统之。用其酋渠为都督、刺史、县令，令将军薛仁贵以兵二万镇安东府。”
- 《新唐书·高丽传》载：“(高丽)分五部：曰内部，即汉桂娄部也，亦号黄部；曰北部，即绝奴部也，或号后部；曰东部，即顺奴部也，或号左部；曰南部，即灌奴部也，亦号前部；曰西部，即消奴部也。”
- 《通典·高句丽传》载：“(高句丽)凡有五族，有消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消奴部为王，稍微弱，后桂娄部代之。”
- 《通志·高句丽传》载：“(高句丽)凡有五族，有消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消奴部为王，稍微弱，后桂娄部代之。”其下引注曰：“唐时高丽五部，一曰内部，一名黄部，即桂娄部也。二曰北部，一名后部，即绝奴部也。三曰东部，一名左部，即顺奴部也。四曰南部，一名前部，即灌奴部也。五曰西部，一名右部，即消奴部也。”《文献通考·高句丽传》与这一记载相同。

从上述记载看，各书记载虽然有相同之处，但也存在差异。差异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

一是，“本有”和“凡有”、“旧分”、“本”的差异。《三国志》、《梁书》、《南史》为“本有”，《旧唐书》的“旧分”当与此含义相同，只是又称为“本五部”；《后汉书》、《通典》、《通志》则为“凡有”。

二是，“五族”与“五部”的差异。《新唐书》和《旧唐书》记载为“五部”，尤

其是《新唐书》对五部有更为具体的记载：内部，又称黄部，即汉桂娄部；北部，又称后部，即绝奴部；东部，即顺奴部，又称左部；南部，即灌奴部，又称前部；西部，即消奴部。而其他史书都记载为“五族”，尤其是《三国志》是最早为高句丽立传的史书。

三是，个别部名称上的差异。《三国志》为：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后汉书》“娟奴”改为了“消奴”；《南史》“顺奴部”改为了“慎奴部”；《梁书》“灌奴部”改为了“灌奴部”。

四是，王位更迭记载上的差异。《三国志》为“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后汉书》为“本消奴部为王，稍微弱，后桂娄部代之”，《通典》、《通志》同；《梁书》为“本消奴部为王，微弱，桂娄部代之”，《南史》同。其他史书则没有记载。

至于《隋书》，虽然没有明确的关于高句丽五部的记载，但有“五部褥萨”称呼的出现，从一个侧面也肯定了高句丽五部存在的史实。

对于上述差异，笔者认为“五部”或“五族”在名称上的差异，比如“涓”与“消”、“顺”与“慎”、“灌”与“灌”，可能是史书传抄过程中所导致的讹误，因而不做进一步分析。但其他几处不同似都有深入分析的必要性，因为用语的不同应该是反映着史书作者对高句丽“五族”或“五部”变化情况的不同认知。

首先是，高句丽王位由涓奴部改为桂娄部的时间。应该说，诸书虽然记载了高句丽王位由涓奴部到桂娄部的变化，但变化的时间则没有记载，《三国志》“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以及在其后记载的“涓奴部本国主，今虽不为王，适统大人，得称古维加，亦得立宗庙，祠灵星、社稷。绝奴部世与王婚，加左维之号”，可以看成是最晚在《三国志》成书时这一变化已经完成。《三国志》为三国时期蜀人陈寿(233-297)撰，陈寿著《三国志》时“魏、吴两国已先有史，官修的有王沈《魏书》、韦昭《吴书》，私撰的有鱼豢《魏略》，这三种书是陈寿所根据的基本材料”，⁴⁾且裴松之校注《三国志》对其《高句丽传》只字未注，显示了记载的可靠性。

其次，“五族”和“五部”的差异。从史书成书的年代和内容分析，无论是“五族”还是“五部”，都是指称高句丽民族的构成情况，但从《旧唐书》、《新唐书》的记载看，尤其是唐人李贤在《后汉书》上述记载下注曰：“一曰内部，一名黄部，即桂娄部也；二曰北部，一名后部，即绝奴部也；三曰东部，一名左部，即顺奴部也；四曰南部，一名前部，即灌奴部也；五曰西部，一名右部，即消奴部也”，表明唐代人对于高句丽民族的构成认识是：高句丽民族经历了一个由血亲关系构成的“五族”到地缘关系分布的“五部”。尽管我们从上述记载中尚难以确定这一变化的时间，但最迟在高句丽政权和唐王朝发生关系时

4) 《三国志》出版说明，中华书局1982年 第2版。

这一过程已经结束，所以在唐人的观念中有了“五部”的认识而非“五族”，至于《通典》的记载应是沿用了《三国志》等前代史书的用法。

对于王位由涓奴部转为桂娄部的时间，目前学术界一般认为这一王位的更替过程是朱蒙率领夫余部众南下后开始的，笔者也赞同这一认识，并在《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几个问题》和《高丽建国神话蕴涵的历史资讯》中已经有过阐述，只是对于当时是否存在名之为“高句丽”的五族却有不同的看法。理由是既然桂娄部是在朱蒙南下之后才形成的，那么高句丽五族的形成时间自然不会早于朱蒙南下的时间，那些将高句丽民族形成的时间上溯到很早的做法自然是缺乏科学依据的。当然，笔者并不否认朱蒙所率领的这部分人在南下之前应该是已经存在的，但是否能称之为“桂娄部”是一个值得考虑的问题，而且“高句丽”这一政权名或族名是否在此前已经出现也是一个需要探讨的问题，《三国史记》记载的“国号高句丽，因以高为氏”⁵⁾就证明了“高句丽”作为政权的名称是在朱蒙建国之后。因此，笔者认为朱蒙统率南下的以乌引、乌违为首的属部是构成高句丽王族的主体，也是形成桂娄部的主要部分，而途中遇到的以再思、武骨、默居为首的三部则分别构成了绝奴部、顺奴部、灌奴部的主体，涓奴部则应该是高句丽县境内原有的部落。同时进一步认为，从《三国志·高句丽传》的记载“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分析，朱蒙南下抵达纥升骨城地区之后，曾经有过一段时间臣服于涓奴部的历史，之后随着势力的壮大，逐渐取代了涓奴部的统治地位，时间应该是在《三国史记·高句丽本纪》所记载的公元前37年。⁶⁾五族在纥升骨城地区的聚集，既是高句丽民族形成的开始，也是高句丽政权走向壮大的起点。朱蒙此时虽然获得了对高句丽五族的统治权，但高句丽还是处在西汉玄菟郡高句丽县的管辖之下，史书所载：“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丽令主其名籍”⁷⁾即是对这种状况的记述，所以五族在纥升骨城的聚集应该是持续了一段时间。之所以认为存在着一个聚集的时段，是因为朱蒙需要有一个巩固自己统治地位的过程，同时也需要建立和完善高句丽内部的统治体系，而这一过程的完结即是高句丽五族由聚集走向再次分散的开始，也是高句丽“五族”向“五部”变化的开始。

史书对朱蒙如何巩固自己的统治地位和构筑并完善高句丽内部的统治体系

5) 金富轼撰、孙文范等校勘：《三国史记》卷第13《高句丽本纪第一》，吉林文史出版社2003年版，第175页。

6) 笔者对《三国史记·高句丽本纪》所记载的高句丽建国的时间一直心存疑问，最主要的原因是该书的年代记载不仅和我国其他史书的记载经常出现误差，而且和好太王碑中的年代也存在差距，但限于没有其他的记载，只有暂且从之。

7) (晋)陈寿撰：《三国志》卷30《东夷传·高句丽》，第843页。另(宋)范晔撰：《后汉书》卷85《东夷列传·高句丽》也载：“武帝灭朝鲜，以高句丽为县，使属玄菟，赐鼓吹伎人。”第2813页。

没有明确的记载，但《三国志·高句丽传》有：“后稍骄恣，不夏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今胡犹名此城为帻沟溇”的记载，并对高句丽政权官职的设置概要记述。这一记载所反映的史实是朱蒙取得高句丽统治权之后，高句丽政权的势力不断壮大，出现了脱离高句丽县管辖的倾向，其内部的统治体系也处于完善之中。势力的壮大，一方面促成了高句丽政权脱离高句丽县控制的倾向，另一方面也是高句丽政权对外扩张的开始，而这种对外扩张也导致了高句丽五族由聚集到分散的开始。关于高句丽五族由聚集走向再次分散的过程，中国史书没有记载，但从《三国史记》的一些记载中可以窥知一二。

二.

关于高句丽“五族”或“五部”，《三国史记》没有明确的记述，但也留下了一些桂娄部形成和变迁的记载，其中有关迁都和王太子解明的事迹值得关注。《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相对详细的记载了高句丽政权由纥升骨城迁都国内和解明被立为太子以及最后自杀的过程：

(琉璃明王)二十二年(公元3年)冬十月，王迁都于国内，筑尉那岩城。十二月，王田于质山阴，五日不返。大辅陝父谏曰：“王新移都邑，民不安堵，宜孜孜焉刑政之是恤，而不念此，驰骋田猎，久而不返。若不改过自新，臣恐政荒民散，先王之业坠地。”王闻之，震怒，罢陝父职，俾司官园，陝父愤去，之南韩。

二十三年春二月，立王子解明为太子，大赦国内。

二十四年秋九月，王田于箕山之野，得异人，两腋有羽。登之朝，赐姓羽氏，俾尚王女。

二十七年春正月，王太子解明在古都，有力而好勇，黄龙国王闻之，遣使，以强弩为赠。解明对其使者，挽而折之，曰“非予有力，弓自不劲耳。”黄龙王惭。王闻之，怒，告黄龙曰：“解明为子不孝，请为寡人诛之。”三月，黄龙王遣使，请太子相见，太子欲行，人有谏者曰：“今邻国无故请见，其意不可测也。”太子曰：“天之不欲杀我，黄龙王其如我何！”遂行。黄龙王始谋杀之，及见，不敢加害，礼送之。

二十八年春三月，王遣人谓解明曰：“吾迁都，欲安民以固邦业，汝不我随，而恃刚力，结怨于邻国，为子之道，岂若是乎！”乃赐剑，使自裁。太子即欲自杀，或止之曰：“大王长子已卒，安知其非诈乎？”太子曰：“向黄龙王以强弓遗之，我恐其轻我国家，故挽折而服之，不意见责于

父王。今父王以我为不孝，赐剑自裁，父之命其可逃乎！”乃往砺津东原，以枪插地，走马触之而死。时年二十一岁。以太子礼葬于东原，立庙，号其地为枪原。

论曰：孝子之事亲也，当不离左右以致孝，若文王之世子。解明在于别都，以好勇闻，其于得罪也宜矣。又闻之，《传》曰：“爱子教之以义方，弗纳于邪。”今王始未教之，及其恶成，疾之已甚，杀之而后已，可谓父不父，子不子矣。⁸⁾

在上述记载中，值得关注的是以下几项内容：一是陕父谏王及走之南韩；二是高句丽王建都国内与解明留守“古都”；三是解明与黄龙国的矛盾及高句丽王令解明自杀以消除与黄龙国的矛盾。由于中国史书没有关于上述记事的任何记载，所以下面只能依据《三国史记》的上述记载进行分析。

首先看陕父谏王及走之南韩。陕父之人曾经出现于《三国史记·高句丽本纪》所记载的建国神话传说中：“朱蒙乃与乌伊、摩离、陕父等三人为友，行至淹淲水，⁹⁾欲渡无梁。恐为追兵所迫，告水曰：‘我是天帝子，河伯外孙。今日逃走，追者垂及，如何？’于是鱼鳖浮出成桥，朱蒙得渡，鱼鳖乃解，追骑不得渡。”¹⁰⁾由此看，陕父是随朱蒙从夫余南下的三人之一。笔者在分析高句丽建国神话传说时曾经认为“朱蒙统率南下的以乌引、乌韦为首的部是构成高句丽王族的主体，也是形成桂娄部的主要部分，而途中遇到的以再思、武骨、默居为首的三部则分别构成了绝奴部、顺奴部、灌奴部的主体，涓奴部则应该是高句丽县境内原有的部落。”¹¹⁾也就是说，如果陕父其人存在，那么他也应该是朱蒙所属夫余部的首领，其部众也是构成桂娄部的主体之一。这一认识应该是得到了上述记载的证实。陕父在高句丽政权中位居大辅，肩负着辅佐高句丽王的重任，而且从他的谏言中也可以看出维护新都的稳定是很紧迫的事件，遗憾的是高句丽王没有听从他的谏言。不过，在职务被罢免的情况下，“陕父愤去，之南韩”，说明其部众应该有一部分随他迁到了新都，因此他才有此忿然之举。高句丽王将都城由纥升骨城迁往国内，其随从部众按照常理应该是亲信，即桂娄部的成员，陕父及其部众能够随高句丽王迁往新都，自然也是桂娄部的主要组成部分。

其次看高句丽王建都国内与解明留守“古都”。学术界一般将高句丽的早期都城纥升骨城比定为今天中国辽宁省桓仁县五女山城。如果这一认识不错的

8) 金富轼撰、孙文范等校勘：《三国史记》卷第13《高句丽本纪第一》，第178-180页。

9) 原注：一名盖斯水，在今鸭绿东北。

10) 金富轼撰、孙文范等校勘：《三国史记》卷第13《高句丽本纪第一》，第174页。
《魏书·高句丽传》记载的传说中只有“乌引”、“乌韦”二人，无“陕父”。

11) 李大龙：《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几个问题》，《东北史地》2006年第4期。

话，那么《三国史记》上述记载中太子解明留守的“古都”应该是位于五女山城。关于高句丽王是迁都于“国内”还是“尉那岩城”，学界还存在不同的认识。如李淑英女士在《国内城及其位置考论》中列举了大多数学者的论著，认为“以上论文和论著的结论：公元3年(汉平帝元始三年)高句丽琉璃明王迁都国内城，遗址在集安市区内，这已经是国内外公认的观点。”¹²⁾不过，冯永谦、孙进己认为，高句丽的第二个都城不是“国内城”，而应当是尉那岩城，具体地点说是今集安霸王朝山城。¹³⁾刘子敏先生则认为“公元3年西盖马县尚且存在，高句丽不可能将首都迁至‘国内城’……彼时的西盖马县尚且占据‘国内城’，附近的古高夷部落(如盖马国、句茶国等)尚未归附高句丽，高句丽的势力向东不可能越过老岭山脉。老岭山脉应是彼时高句丽县与西盖马县的自然分界线，而所谓‘国内’地区则不应包括尉那岩(今霸王朝山)地区”。¹⁴⁾但是，无论是迁都“国内”还是定都“尉那岩城”，高句丽王肯定是已经离开纥升骨城，也即离开了所谓“古都”，留守“古都”的是太子解明。而且，从《三国史记》上述“二十八年春三月，王遣人谓解明曰：‘吾迁都，欲安民以固邦业，汝不我随，而恃刚力，结怨于邻国，为子之道，岂若是乎！’乃赐剑，使自裁”的记载看，高句丽王迁都时曾经要求太子解明跟随，但解明没有同意，于是有了高句丽王和太子分驻新旧二都的状况。高句丽王和太子解明分驻两地，由此也带来了桂娄部在两地的分布，即一部分，甚至可能是大部分桂娄部成员随高句丽王迁徙到了“国内”，而少部分桂娄部成员则跟随太子解明继续留守“古都”。这应该是桂娄部在纥升骨城附近凝聚之后第一次分据两地。

其次看太子解明和黄龙国的矛盾。黄龙国应该是位于“古都”即纥升骨城附近的一个政权，从《三国史记》的记载看它和高句丽政权应该没有政治隶属关系。关于太子解明和黄龙国的矛盾，《三国史记》的记载粗看起因是因解明将黄龙国赠送的“强弩”“挽而折之”，而解明所为乃是“有力而好勇”导致的结果，但实际上有着很深层的政治意图。这是解明在桂娄部大部分迁徙新都后为维持其对“古都”的统治而采取的一项措施。对此，《三国史记》记载解明在自杀前所说“向黄龙王以强弓遗之，我恐其轻我国家，故挽折而服之，不意见责于父王。今父王以我为不孝，赐剑自裁，父之命其可逃乎”可以作为证据，而解明之所以有黄龙国“轻我国家”的担心，应该是桂娄部大部分随高句丽王迁往新都，而戍守“古都”的力量不足的一个反映。

最后看矛盾的解决。按照《三国史记》的上述记载，高句丽王先是“怒，告黄龙曰：‘解明为子不孝，请为寡人诛之’”，后是遣人在责骂解明“欲安民以固

12) 《通化师院学报》2007年 第7期。

13) 冯永谦、孙进己：《高句丽国内城定点与建城时间论辩》，《哈尔滨社会科学》2004年 第2期。

14) 刘子敏：《朱蒙之死新探——兼说高句丽迁都“国内”》，《北方文物》2002年 第4期。

邦业，汝不我随，而恃刚力，结怨于邻国，为子之道，岂若是乎”的同时“赐剑，使自裁”。高句丽王在太子都切卒、解明继立为太子不久即如此处理解明似乎难以让人理解，《三国史记》的作者由此也发出了“今王始未教之，及其恶成，疾之已甚，杀之而后已，可谓父不父，子不子矣”的感叹。但实际上，高句丽迁都国内之后尚未确立起对新都及其周围地区的牢固统治，而此刻留守“古都”的太子解明和黄龙国又发生了矛盾，首尾不能相顾，桂娄部的王位应该说是岌岌可危，有覆灭的危险，琉璃明王赐死解明是不得已而采取的政策。因为迁都国内是因为“其山水深险，地宜五谷，又多麋鹿鱼鳖之产，王若移都，则不唯民利之无穷，又可免兵革之患也”，但结果是桂娄部在新都的统治“民不安堵……恐政荒民散，先王之业坠地”，“古都”解明又与黄龙国矛盾激化。在此情况下，琉璃明王只有用解明之死来换取对“古都”统治的稳定，同时为完善对新都及其附近地区的统治赢得时间。

三.

如果《三国史记》的上述记载没有太大问题，通过上述分析，结合笔者对有关高句丽建国神话传说的分析，那么可以对桂娄部的形成和分布区域的变化做出以下认识：

一是，桂娄部作为高句丽政权的核心力量，其形成主体是随朱蒙南下的夫余人，《三国史记》所记载的乌伊、摩离、陕父(我国史书《三国志》记载为“乌引、乌违”)应该是这些夫余人的部落首领，而三人在朱蒙取得高句丽政权的统治权后也成为了高句丽政权的重要官员。

二是，以朱蒙为首的夫余人虽然在纥升骨城地区凝聚成高句丽五族之一的桂娄部，而且朱蒙在桂娄部的支持下夺取了涓奴部的王权，建立了高句丽政权，桂娄部、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等以血缘关系为纽带的“五族”开始聚集在高句丽名称之下，为高句丽民族的形成和发展奠定了基础。

三是，伴随着高句丽迁都“国内”，作为高句丽“五族”之一的桂娄部的分布地域出现过变化，即由分布于纥升骨城(今辽宁省桓仁五女山城)附近地区，转为分据“国内”和纥升骨城两地。

四是，由于桂娄部大部分部众迁徙到了新都附近，高句丽在纥升骨城的统治受到了来自黄龙国的威胁，威胁的解除是通过高句丽王迫使太子解明自杀而实现，但其后《三国史记》再无黄龙国的记载，而有琉璃明王三十三年(14)“王命乌伊、摩离领兵二万，西伐梁貊，灭其国，进兵袭取汉高句丽县县属玄菟”¹⁵⁾的记述，黄龙国是否为高句丽政权灭亡不得而知。

五是，高句丽民族由五族(血缘部落)到五部(地域部落)的变化在迁都“国内”

之时尚未有明显形成的证据，但桂娄部主要分布于“国内”的格局已经确立，这应该是内部(黄部)、北部(后部)、东部(左部)、南部(前部)、西部(右部)划分的开始，也即由五族到五部变化的开始。

总之，笔者认为五族(五部)是构成高句丽政权的核心力量，高句丽疆域的扩大、对境内众多民族的征服和控制都是依靠五族的力量完成的，因而五族的分布范围也存在着一个变化过程，即随着疆域的不断扩大而变化，但最迟在唐代初期已经完成了由五族(血缘部落)到五部(地域部落)的变化过程。

15) 金富轼撰、孙文范等校勘：《三国史记》卷第13《高句丽本纪第一》，第181页。

解明의 죽음을 통해서 본 高句麗 五部の 형성과 변천

- 桂婁部를 중심으로 -

李大龍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고구려 역사 연구에서 五部(五族)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五부와 관련된 문제는 고구려 민족이나 정권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관건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통치체제 구축과 그 완성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학계에서는 五부의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다.¹⁾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五부에 관해 합일된 견해가 도출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의견이 분분해져 더욱 깊이 있고 면밀한 고구려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幾個問題」²⁾와 2005년에 개최된 ‘한중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학술대회 상에서 발표한 「高麗建國神話蘊涵的歷史資訊」에서 고구려 건국신화 전설 속에서 찾은 단서들에 근거하여 고구려 五부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거칠게나마 다룬 적이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두 편의 글들을 기초로 하고, 더하여 『三國史記』의 관련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고구려 五부의 상황, 특히 계루부의 형성과 영역의 변화에 대하여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I.

高句麗 五部(五族)에 관한 기사는 주로 중국 사서에서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고구려 五부에 관해 일반적으로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條의 “(고구려는) 본래 五族이 있는데,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가 있다. 본래 涓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桂婁部가 대신하고 있다”³⁾라는 기록에 의거해 논의하고 있다. 『三國志』 이후의 여러

1) 중국 내의 高句麗 五부에 관한 연구로는 몇몇 관련 저서에서 전문적인 章節로 다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劉子敏, 『高句麗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96 ; 耿鐵華, 『中國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2 ; 馬大正 等,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楊軍,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학술 논문의 형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李殿福, 「兩漢時期的高句麗及其物質文化」 『遼海文物學刊』 (創刊號), 1986 ; 張博泉, 「高句麗五部與統一的民族和國家」 『黑龍江社會科學』 1996-1 등이 그것이다.

2) 『東北史地』 2006-4에 掲載.

사서들의 高句麗 五部に 관한 기록 중에는 조금씩 다른 기재가 눈에 띈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 ① (高句麗) 무릇 五族이 있는데, 洧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가 있다. 본래 洧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이후 桂婁部가 대신하게 되었다.(凡有五族, 有洧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洧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後漢書』 東夷傳 高句麗條)
- ② (高句麗는) 본래 五族이 있었는데, 五族이 있는데, 洧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가 있다. 본래 洧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미약하여 桂婁部가 대신하였다.(本有五族, 有洧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洧奴部爲王, 微弱, 桂婁部代之. 『梁書』 高句麗傳)
- ③ (高句麗는) 본래 五族이 있었는데, 五族이 있는데, 洧奴部, 絶奴部, 慎奴部, 灌奴部, 桂婁部가 있다. 본래 洧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미약하여 桂婁部가 대신하였다.(本有五族, 有洧奴部, 絶奴部, 慎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洧奴部爲王, 微弱, 桂婁部代之. 『南史』 高句麗傳)
- ④ (高麗는) 다시 內評, 外評, 五部褥薩이 있었다.(復有內評, 外評, 五部褥薩. 『隋書』 高麗傳)
- ⑤ 總章 元年(668) 11월 평양성을 함락하고 高藏, 男建 등을 포로로 하였다. 12월 京師에 도착해 포로들을 含元宮에 진상하였다. 조서를 내려 고장은 정치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려해 司平太常伯에 제수하고, 男產은 먼저 항복하였으므로 司宰少卿을 제수하였다. 男建은 黔州로 유배하였다. 男生은 향도로서 공이 있으니 右衛大將軍을 제수하고 汴國公에 봉하였으며 特進 등의 관작은 전과 같이 한다. 고려국은 이전에 五部로 나뉘었는데, 城이 176개이며, 호가 697,000이었다. 이에 그 땅을 나누어 9都督府, 42州, 100縣을 설치하고, 安東都護府를 두어 이를 통할토록 하였다.(總章元年 十一月 拔平壤城. 虜高藏, 男建等. 十二月, 至京師, 獻俘於含元宮. 詔以高藏政不由己, 授司平太常伯; 男產先降, 授司宰少卿. 男建配流黔州. 男生以鄉導有功, 授右衛大將軍, 封汴國公, 特進如故. 高麗國舊分為五部, 有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乃分其地置都督府九、州四十二、縣一百, 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舊唐書』 高麗傳)
- ⑥ 總章 元年 9월 司空 李勣이 고려를 평정하였다. 고려는 본래 五部, 176城, 697,000戶가 있었다. 그 해 12월 고려땅을 나누어 9都督府, 42州, 100縣으로 하고, 安東都護府를 평양성에 두어 이를 통할게 하였다. 그(고려) 수장들로 도독, 자사, 현령을 삼았으며, 장군 설인귀로 하여금 2만 병력으로 安東府를 진수토록 하

3) 本有五族, 有洧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洧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三國志』卷30 東夷傳 高句麗)

였다.(總章元年九月, 司空李勣平高麗. 高麗本五部, 一百七十六城, 戶六十九萬七千. 其年十二月, 分高麗地為九都督府, 四十二州, 一百縣, 置安東都護府於平壤城以統之. 用其酋渠為都督刺史縣令, 令將軍薛仁貴以兵二萬鎮安東府. 『舊唐書』卷39 「地理志」2)

- ⑦ (高麗) 五부로 나뉘어 지는데, 內部는 漢代의 桂婁部이고 黃部로도 칭해진다. 北部는 絶奴部이고 後部로도 칭한다. 東部는 順奴部이고, 左部로도 칭한다. 南部는 灌奴部이고, 前部로도 칭한다. 西部는 곧 消奴部이다.(分五部, 曰內部, 即漢桂婁部也亦號黃部. 曰北部, 即絶奴部也 或號後部. 曰東部, 即順奴部也 或號左部. 曰南部, 即灌奴部也 亦號前部. 曰西部, 即消奴部也. 『新唐書』高麗傳)
- ⑧ (高句麗) 무릇 五族이 있는데,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가 있다. 본래 소노부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이후 계루부가 대신하였다.(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通典』高句麗傳)
- ⑨ (高句麗) 무릇 五族이 있는데,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가 있다. 본래 소노부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이후 계루부가 대신하였다.(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通志』高句麗傳)
- ⑩ 唐 시기의 고려는 五部가 있었는데, 첫째는 內部 일명 黃部로, 곧 桂婁部이다. 둘째 北部 일명 後部로, 곧 絶奴部이다. 셋째는 東部 일명 左部로, 곧 順奴部이다. 넷째는 南部 일명 前部로, 곧 灌奴部이다. 다섯째는 西部 일명 右部로, 곧 消奴部이다.(唐時高麗五部, 一曰內部, 一名黃部 即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即絶奴部也 . 三曰東部, 一名左部 即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即灌奴部也. 五曰西部, 一名右部 即消奴部也. 『通志』高句麗傳 注, 『文獻通考』高麗傳 同)

이상을 통해 볼 때 각 사료들 마다 서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本有’와 ‘凡有’, ‘舊分’, ‘分’ 등으로 표기한 차이이다. 『三國志』, 『梁書』, 『南史』 등에는 ‘本有’로 표기하였는데, 『舊唐書』의 ‘舊分’과 대략 그 뜻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舊唐書』에는 ‘本五部’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다. 『後漢書』, 『通典』, 『通志』에는 ‘凡有’라 하였다.

두 번째는 ‘五族’과 ‘五部’의 차이이다. 『新唐書』와 『舊唐書』에는 ‘五部’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新唐書』는 五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內部는 漢代의 桂婁部이고 黃部로도 칭해진다. 北部는 絶奴部이고 後部로도 칭한다. 東部는 順奴部이고, 左部로도 칭한다. 南部는 灌奴部이고, 前部로도 칭한다. 西部는 곧 消奴部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사서들은 모두 ‘五族’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히 가장 이른 시기에 고구려를 단독 立傳한 『三國志』도 그러하다.

세 번째는 각 部 명칭 상에서 보이는 차이이다. 『三國志』는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로 기록하고 있고, 『後漢書』는 ‘涓奴’를 고쳐 ‘消奴’로 하였고, 『南史』는 ‘順奴部’를 ‘愼奴部’로 하였다. 그리고 『梁書』는 ‘灌奴部’를 ‘藿奴部’로 기록하였다.

네 번째는 왕계 변화에 관한 기록의 서술 상의 차이이다. 『三國志』는 “본래 涓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桂婁部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後漢書』는 “본래 消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이후 桂婁部가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전한다. 『通典』과 『通志』의 기사 역시 이와 같다. 『梁書』에는 “본래 消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미약하여 桂婁部가 대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南史』도 이와 같다. 다른 사서에는 관련 기사가 없다.

『隋書』는 고구려의 五部に 관한 구체적인 기사가 없지만, ‘五部褥薩’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어 史實로서 고구려 五部の 존재를 방증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차이들 중에서 五部(五族)의 명칭 상의 차이, 곧 ‘涓’과 ‘消’, ‘順’과 ‘愼’, ‘灌’과 ‘藿’ 등에 대해 필자는 사료의 전제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로 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비슷하지만 다른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표현 및 용어의 사용은 각 사료 저자들의 고구려 五族(五部)에 대한 변화된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먼저 고구려의 왕계가 涓奴部에서 桂婁部로 바뀐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비록 많은 사서들이 고구려의 왕계가 涓奴部에서 桂婁部로 바뀌었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뀐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三國志』는 “본래 涓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桂婁部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涓奴部는 본래 國主이다. 지금은 비록 왕이 되진 못 하지만 適統大人은 古雛加的 칭호를 얻었고, 또한 宗廟를 세우고 靈星, 社稷에 제사를 지낸다. 絶奴部는 대대로 王과 혼인하며, 古雛加的 칭호를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늦어도 『三國志』가 저술되는 시기에는 이미 왕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는 중국의 삼국시대 蜀 출신의 陳壽(233~297)가 편찬한 사서이다. 진수가 『三國志』를 저술하던 무렵에는 魏와 뒤틀는 이미 역사서가 존재해, 관찬으로 王沈의 『魏書』, 韋昭의 『吳書』가 있었고 사찬으로 魚豢의 『魏略』이 있었다. 이 세 사서는 진수가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⁴⁾ 그리고 裴松之가 『三國志』에 주석을 달 때도 高句麗傳에는 전혀 더하지 않아 그 기록이 믿을 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五族’과 ‘五部’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사료가 씌어지던 연대와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보면 ‘五族’ 혹은 ‘五部’는 모두 고구려 민족의 구성 상황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다만 『舊唐書』와 『新唐書』의 기록, 그리고 唐의 李賢이 『後漢書』에 단 주석인 “첫째는 內部 일명 黃部로, 곧 桂婁部이다. 둘째 北部 일명 後部로, 곧 絶奴部이다. 셋째는 東部 일명 左部로, 곧 順奴部이다. 넷째는 南部 일명 前部로, 곧 灌奴部이다. 다섯째는 西部 일명 右部로, 곧 消奴

4) 「出版說明」 『三國志』, 中華書局, 1982.

部이다.(一曰內部, 一名黃部 即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即絕奴部也. 三曰東部, 一名左部 即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即灌奴部也. 五曰西部, 一名右部 即涓奴部也)”라는 기록 등은 唐代人들의 고구려 민족의 구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 민족은 혈연관계로 구성된 五族에서 地緣的 분포인 五부로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비록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로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고구려와 당이 관계를 수립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唐人들의 관념 속의 五部는 五族이 아닌 것이다. 다만 『通典』에 보이는 五族 표현의 경우 『三國志』~ 등 이전의 자료를 그저 연용한 것에 불과하다 사료된다.

왕계가 涓奴部에서 桂婁部로 바뀐 시기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朱蒙이 夫餘系의 무리를 이끌고 남하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본다. 필자 역시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전에 발표한 「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幾個問題」와 「高麗建國神話蘊涵的歷史資訊」에서 대체적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다만 당시 ‘高句麗’라는 명칭의 五族의 存否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 변화가 생겼다. 그 이유는 계루부는 주몽의 남하 이후 형성된 것으로, 그렇다면 고구려 五族의 형성 시기는 결코 주몽의 남하 시기보다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민족의 형성 시기를 이보다 더 이른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필자가 주몽의 통솔을 받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그의 남하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을 桂婁部라 칭할 수 있을 지는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그리고 ‘고구려’라는 政權名 혹은 族名이 그 이전에 출현하였을 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에 보이는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인하여 高로 성을 삼았다”⁵⁾ 라는 기록이 ‘高句麗’라는 명칭이 주몽의 건국 이후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필자는 주몽이 남하 시에 이끌고 오고 烏引, 烏遼가 수장격으로 있었던 집단이 고구려 왕실의 주체가 되었고, 또한 계루부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도중에 만난 再思, 武骨, 默居가 우두머리였던 三部가 각각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の 주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涓奴部는 高句麗縣 경내의 원주 부락일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三國志』~高句麗傳에 실린 “본래 涓奴部가 왕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桂婁部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분석해 보면, 주몽은 남하하여 紇升骨城 지역에 도착한 후 잠시 동안 涓奴部에 臣屬하다가 그 후 차츰 세력을 키워 涓奴部를 밀어내고 통치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시기는 곧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기재된 기원전 37일 것이다.⁶⁾

5)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6) 필자는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보이는 고구려 건국 시기에 대해 줄곧 의문을 품어왔다. 그 이유는 『三國史記』에 보이는 연대 기재가 종종 중국의 사서에 나오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연대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서의 기록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紇升骨城 지역에서 五族이 결집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민족 형성의 시발이 되었고, 고구려 정권이 성장하는 기점이 되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여전히 漢 玄菟郡 高句麗縣의 관할 하에 있었다. 사료에서 보이는 “漢 시기에 복치고 피리를 부는 재인들을 하사하였는데, 항상 玄菟郡에서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다. 고구려현령이 그 名籍을 주관하였다”⁷⁾라는 기록은 이러한 정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五族이 紇升骨城 지역에 결집하는 과정은 일정 시기동안 지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집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이유는 주몽이 통치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고구려 내부의 통치체제를 갖추고 완성하는 일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과정의 완결이 바로 고구려 五族의 결집에서 재분산으로의 개시이다. 이것이 곧 고구려의 五族에서 五部로의 변화의 시작이다.

사료에는 주몽이 어떻게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 고구려 내부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완성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三國志』 高句麗傳에는 “이후 점차 교만하고 방자하여져서 군에 복종치 않고,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아, 조복과 의책을 거기에 두면 새해에 와서 가져갔다. 지금 오랑캐가 이 성을 幘溝婁라 부른다.(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為幘溝婁)”라는 기사가 있어 고구려의 관직 설치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기사는 주몽이 고구려의 통치권을 장악한 후 고구려가 거둬 성장하여 고구려현의 관할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 사실과 그 내적 통치체제가 갖추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세력의 성장은 일방면으로 고구려가 고구려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방면으로 고구려의 대외 팽창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 확장은 고구려 五族이 결집단계에서 재분산을 시작하는 단계로 이르게 하였다. 고구려 五族의 결집에서 재분산으로의 과정에 관하여 중국 사서에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三國史記』의 일부 기사를 통하여 이를 엿볼 수가 있다.

II.

고구려의 五族 혹은 五部に 관하여 『三國史記』는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루부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기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遷都와 관련된 太子 解明의 事迹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는 고구려가 紇升骨城에서 國內로 천도한 사실과 解明이 太子로 책립되었다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7) 漢時賜鼓吹伎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三國志』 卷30 東夷 高句麗) 이 외에 『後漢書』 卷85 東夷 高句麗에도 “武帝가 朝鮮을 멸하고 高句麗를 縣으로 삼아 玄菟郡에 속하게 하고 복 치고 피리 부는 재인들을 하사하였다.(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라는 기록이 있다.

- 22년** 10월에 왕이 도읍을 國內에 옮기고 尉那巖城을 쌓았다. 12월에 왕이 質山 북쪽에서 전렵을 행하여 닷새가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大輔 陝父가 간하기를, "왕께서 새로 도읍을 옮겨 백성들이 안심치 못하니, 마땅히 政法에 마음을 부지런히 쓰실 일이온대, 이는 생각지 아니하시고 田獵에만 열중하여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시니 만일 이를 고치지 아니하시면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이 散亡하여 先王의 위업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 진노하여 협보의 벼슬을 파하고, 官園 莊園의 사무를 보게 하였다. 이에 협보가 분하여 南韓으로 달아났다.
- 23년** 2월에 왕자 해명을 세워 태자로 삼고 國內의 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 24년** 9월에 왕이 箕山의 별관에서 전렵하다가 한 異人을 만났는데 그의 두 겨드랑이에는 것이 달려 있었다. 조정에 등용하여 羽氏란 姓을 주고 왕녀를 취하게 하였다.
- 27년** 정월에 태자 해명이 古都(卒本)에 있었는데 힘이 세고 武勇을 좋아하는지라 황룡국왕이 듣고 사람을 보내어 强弩를 증여하였다. 해명은 그 사자 앞에서 활을 당겨 꺾으며 말하기를, "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굳세지 못하다"고 하였다. 황룡왕이 이에 부끄러이 여겼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황룡왕에게 말하기를, "해명이 자식으로서 불효하니 청컨대 나를 위하여 죽여 주시오" 하였다. 3월에 황룡왕이 사람을 보내어 태자와 상견하기를 청하니 태자가 가려고 하였다. 간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지금 이웃나라가 무고히 회견을 청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데 황룡왕이 나에게 어찌할까 보나"하고 드디어 갔다. 황룡왕이 처음에는 해명을 죽이려고 꾀하다가 급기야 (그를) 보고서는 감히 害를 加하지 못하고 (오히려) 禮로써 보냈다.
- 28년** 3월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해명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도한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여 邦業을 굳게 하려 함이어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힘센 것만 믿고 鄰國과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이와 같을 수 있느냐"하고 이에 칼을 주어 자결케 하였다. 태자가 곧 자살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왕의 장자가 이미 죽었으므로 태자는 정당히 後嗣가 될 터인데 지금 사자가 한 번은 것으로 (가벼이) 자살하려 하니, 그 전언이 혹 거짓이 아님을 어찌 알리요" 하였다. 태자가 말하기를, "저번에 황룡왕이 센 활을 보내 주었을 때 나는 그가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길까 염려하여 활을 꺾어 그에게 보답한 것인데, 뜻밖에 부왕에게 꾸지람을 받아 지금 부왕이 나를 불효자라 하여 칼을 주어 자결케 하시니, 어찌 아버지의 命을 어길 수 있으랴" 하고 이에 礪津의 東原으로 가서 창을 땅에 꽂고 말을 달려 질려 죽었다. 그 때의 나이 21세였다. 태자의 예로 東原에 장사지내고 사당을 세워 그 곳을 槍原이라 이름하였다.

史臣은 논한다. "효자가 아버지를 섬김에는 그 좌우를 떠나지 않고 효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치 文王이 세자가 되었을 때와 같이. (그런데) 해명은 別都에 있어 그 용맹으로만 널리 알려졌을 뿐이니 죄를 얻음이 당연한 일이다. 또 들으니 傳에 말하기를, "자식을 사랑함에는 옳은 길로써 가르치고 邪道에 들게 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유리왕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이끈 적이 없다가 惡하게 되자 심히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으니, 아버지는 아버 노릇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⁸⁾

위의 사료에서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다. 첫째는 陝父가 왕에 간하다가 南韓으로 간 사실이다. 둘째는 고구려왕이 國內에 建都할 때 해명이 여전히 舊都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해명과 黃龍國 간의 갈등 및 고구려왕이 해명에게 자살을 명해 황룡국과의 갈등을 제거한 것이다. 중국 사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의 사실들에 대한 분석은 오직 『三國史記』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

먼저 陝父의 간언과 南韓으로의 이탈부터 살펴보자. 陝父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建國神話 부분에 보이는데, “주몽은 烏伊·摩離·陝父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갔다. 淹澗水⁹⁾에 이르러 건너려 하였다. 그러나 다리가 없어 추격병에게 잡히게 될 것이 두려워 물에게 고하기를 “나는 天帝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가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은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하는 기마병이 건널 수 없었다.”¹⁰⁾라고

8) 二十二年 冬十月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 十二月 王田于質山陰 五日不返 大輔陝父諫曰 “王新移都邑 民不安堵 宜孜孜焉 刑政之是恤 而不念此 馳騁田獵 久而不返 若不改過自新 臣恐政荒民散 先王之業墜地” 王聞之震怒 罷陝父職 司官園 陝父憤去之南韓

二十三年 春二月 立王子解明爲太子 大赦國內

二十四年 秋九月 王田于箕山之野 得異人 兩腋有羽 登之朝 賜姓羽氏 俾尙王女

二十七年 春正月 王太子解明在古都 有力而好勇 黃龍國王聞之 遣使以強弓爲贈 解明對其使者 挽而折之曰 “非予有力 弓自不勁耳” 黃龍王慙 王聞之怒 告黃龍王曰 “解明爲子不孝 請爲寡人誅之” 三月 黃龍王遣使 請太子相見 太子欲行 人有諫者曰 “今鄰國無故請見 其意不可測也” 太子曰 “天之不欲殺我 黃龍王其如何” 遂行 黃龍王始謀殺之 及見不敢加害 禮送之

二十八年 春三月 王遣人謂解明曰 “吾遷都 欲安民以固邦業 汝不我隨 而恃剛力 結怨於鄰國 爲子之道 其若是乎” 乃賜劔使自殺 太子即欲自殺 或止之曰 “大王長子已卒 太子正當爲後 今使者一至而自殺 安知其非詐乎” 太子曰 “嚮黃龍王以強弓遺之 我恐其輕我國家 故挽折而報之 不意見責於父王 今父王以我爲不孝 賜劔自裁 父之命其可逃乎” 乃往礪津東原 以槍插地 走馬觸之而死 時年二十一歲 以太子禮葬於東原 立廟 號其地爲槍原

論曰 孝子之事親也 當不離左右以致孝 若文王之爲世子 解明在於別都 以好勇聞 其於得罪也宜矣 又聞之 傳曰 『愛子教之以義方 弗納於邪』 今王始未嘗教之 及其惡成 疾之已甚 殺之而後已 可謂父不父子不子矣(『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琉璃明王)

9) 原文注:일명 蓋斯水라고도 한다.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10) 朱蒙乃與烏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 行至淹澗水 一名蓋斯水 在今鴨綠東北 欲渡無梁 恐爲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者垂及如何” 於是 魚鼈浮出成橋 朱蒙得渡 魚鼈乃解 追騎不得渡(『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始祖 東明聖王).『魏書』高句麗傳에 기록된 전설에는 ‘烏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陝父가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할 때 함께 한 3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필자는 고구려 건국신화를 분석하며, 주몽이 남하 시에 이끌고 온 烏引, 烏遼가 수장격이었던 집단이 고구려 왕실의 주체가 되었고, 또한 계루부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중에 만난 再思, 武骨, 默居가 우두머리였던 三部가 각각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の 주체가 되었고, 涓奴部는 高句麗縣 경내의 원주 부락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¹¹⁾ 만약 陝父가 실존했다면, 그는 당연히 주몽에게 소속된 부여계 집단의 수령이었을 것이고, 그 部衆 역시 계루부를 구성한 주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위의 사료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 된다.

협보는 고구려에 있을 때 고구려왕을 보좌하는 중임인 大輔에 올랐고, 그의 간언을 통해서 그가 새 도읍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왕은 그의 간언을 채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파직이 된 상황에서 협보가 분을 이기지 못해 남한으로 가버렸다는 통해 볼 때 그의 휘하에 있던 무리 중 일부도 그를 따라 새 도읍으로 이주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는 것처럼 분개하였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고구려왕이 紇升骨城에서 國內로 천도하려 할 때는 자신에게 속한 집단, 곧 계루부 성원들을 가장 신임하였을 것이다. 응당 협보 및 그 휘하의 무리들도 왕을 따라 새 도읍으로 옮겨갔을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계루부의 주된 구성원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왕이 국내성 建都和 해명이 여전히 舊都에 남았던 것에 대해 살펴보자.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려 초기의 도성인 紇升骨城을 중국 遼寧省 桓仁縣에 있는 五女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틀림없다면, 『삼국사기』~중에 보이는 태자 해명이 남아 지키던 古都는 五女山城일 것이다. 고구려왕의 천도지가 ‘國內’인지 아니면 ‘尉那巖城’인지는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李淑英은 자신의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근거로 서기 3년(漢 平帝 元始 3년)에 고구려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하였고 그 遺址가 集安市內에 있음은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하였다.¹²⁾ 그러나 馮永謙, 孫進己 등은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은 國內城이 아니라 尉那巖城이며, 그 구체적 위치는 集安市의 霸王朝山城으로 보았다.¹³⁾ 劉子敏은 서기 3년경엔 西蓋馬縣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고구려는 수도를 國內城으로 옮길 수 없었고, 당시는 서개마현이 국내성 지역을 점거하고 있어 당시 부근의 高夷 부락(蓋馬國, 句茶國 등)들은 아직 고구려로 귀부하지 않아 고구려의 세력권은 동쪽으로 老嶺山脈을 넘지 못 했다고 보았다. 老嶺山脈은 당시 고구려와 西蓋馬縣의 자연적 분계선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國內지역에 尉那巖(현 霸王朝山城)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引’, ‘烏韋’ 2인만 있고, 陝父는 보이지 않는다.

11) 李大龍, 『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幾個問題』, 『東北史地』, 2006-4.

12) 李淑英, 「國內城及其位置考論」, 『通化師院學報』, 2007-7.

13) 馮永謙·孫進己, 「高句麗國內城定點與建城時間論辯」, 『哈爾濱社會科學』, 2004-2.

하였다.¹⁴⁾

國內로 천도하였건, 尉那巖城에 定都하였건 간에 고구려왕이 이미 紇升骨城을 떠났음은 분명하다. 곧 왕은 古都를 떠났고, 古都에 남은 것은 태자인 해명이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삼국사기』~중에 “28년 3월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해명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도한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여 邦業을 굳게 하려 함이어늘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힘센 것만 믿고 鄰國과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이와 같을 수 있느냐” 하고 이에 칼을 주어 자결케 하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볼 때 고구려왕은 천도 시에 이미 태자 해명에게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해명이 듣지 않았고, 왕과 태자가 신, 구도에서 각각 거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왕과 태자 해명이 두 지역에 분리 거주하게 됨에 따라 계루부도 두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대부분의 계루부 성원들은 왕을 따라 國內로 이주하였을 것이고, 소수의 계루부 성원들은 태자 해명과 함께 계속 古都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계루부가 紇升骨城 부근에 결집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두 지역으로의 분리 거주였을 것이다.

이어서 태자 해명과 황룡국 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자. 황룡국은 아마 古都 紇升骨城 부근의 세력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기록을 통해 볼 때 고구려와 황룡국 사이에는 정치적 연속관계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자 해명과 황룡국 간 갈등의 원인을 『三國史記』에서 찾아보면, 황룡국이 보낸 强弩를 해명이 당겨 꺾어버려 그 강용함을 보여준 것에서 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해명이 계루부의 성원 대부분이 새 도움으로 떠나버린 후 남겨진 舊都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행한 조치였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三國史記』에 실린 해명의 자살하기 전에 남긴 “**황룡왕이 쉰 활을 보내 주었을 때 나는 그가 우리나라를 가버어 여길까 염려하여 활을 꺾어 그에게 보답한 것인데, 뜻밖에 父王에게 꾸지람을 받아 지금 부왕이 나를 불효자라 하여 칼을 주어 자결케 하시니, 어찌 아버지의 命을 어길 수 있으랴**”라는 발언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명은 황룡국이 우리나라(고구려)를 가버어 보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이는 계루부의 대부분이 왕을 따라 새 도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古都를 지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갈등의 해결에 대하여 살펴보자. 『三國史記』에는 고구려왕이 노하여 황룡국에 해명이 불효하니 자신을 대신해 죽여주기를 청한다. 이후 다시 해명에게 사자를 보내어 책망하기를 “내가 천도한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여 邦業을 굳게 하려 함이어늘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힘센 것만 믿고 鄰國과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이와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칼을 주어 자진토록 하였다. 유리왕은 태자 都切이 죽은 후 해명을 태자로 책립하였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조치를 취해, 상식적으로 그의 행

14) 劉子敏, 「朱蒙之死新探-兼說高句麗遷都國內」 『北方文物』~2002-4.

동에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三國史記』의 찬자 역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왕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이끈 일이 없다가 惡하게 되자 심히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으니, 아버지는 아버지를 노릇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을 노릇을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고구려가 국내로 천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 도읍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아직 공고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 古都에 남은 태자 해명이 황룡국과 갈등을 일으켰으니, 계루부의 왕권 역시 위협에 처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왕은 부득불 해명에게 자살을 명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유는 “그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은 옥곡을 농사짓기에 알맞으며 많은 짐승의 소산이 있으므로 왕이 만약 천도한다면 백성들이 이로울 뿐만 아니라 병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 도읍에서 계루부의 통치는 “백성은 안심하지 못하고, 정치는 문란하여 백성들이 흩어져 선왕(동명성왕)의 유업은 모두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다. 거기에 古都에 있던 해명과 황룡국과의 갈등마저 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유리왕은 해명의 죽음과 古都에 대한 안정적 통치 및 새 도읍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맞바꿀 수밖에 없었다.

III.

만약 앞에서 살펴 본 『삼국사기』의 기사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이상의 분석과 고구려 건국신화 전설에 관한 필자의 기존 해석을 결부시켜 계루부의 형성 및 분포 영역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계루부는 고구려 정권의 핵심 역량이 되었는데, 그 형성 주체는 주몽과 함께 남하한 부여인들이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烏伊, 摩離, 陝父(『三國志』에는 烏引, 烏違로 기재)는 이러한 부여인 부락의 수장들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3인은 주몽이 고구려의 통치권을 확보한 후에 고구려 정권의 주요 관료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주몽이 우두머리가 된 부여계는 흘승골성에서 고구려 五族 중 하나인 계루부로 결집하였고, 주몽은 이 계루부의 지지로 연노부로부터 왕권을 탈취해 고구려를 세웠다. 그리고 계루부,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등 혈연적 유대감을 가진 五族이 고구려라는 이름 하에서 결집하면서 고구려 민족의 형성과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셋째 고구려가 國內로 천도함에 따라 고구려 五族 중에 하나인 계루부의 분포 영역에 변화가 생겼다. 본래 계루부는 흘승골성(현 遼寧省 桓仁 五女山城)지역에 있다가 국내와 흘승골성 두 지역으로 나뉘어 지게 된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계루부 성원들이 새 도읍 부근으로 이거하게 됨에 따라 고구려는 흘승골성 지역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함에 있어 황룡국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유리왕은 이러한

위협을 태자 해명을 자살케 함으로써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후 황룡국에 관한 기사는 『三國史記』에 다시 보이지 않는다. 다만 琉璃明王 33년(14) 왕이 烏伊, 摩離로 하여금 2만 군사를 이끌고 서쪽의 梁貊을 쳐서 멸하고, 漢의 玄菟郡 高句麗縣도 습취했다는¹⁵⁾ 기록이 있을 뿐인데, 황룡국이 이때 고구려에 망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다섯째 고구려 민족의 五族(血緣部族)에서 五部(地域部落)로의 변화가 國內 천도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계루부의 국내 지역 이주와 재편이 완료되었음을 통해 볼 때, 內部(黃部), 北部(後部), 東部(左部), 南部(前部), 西部(右部)의 구분이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고, 五族에서 五부로의 변화도 개시되었음이 틀림없다

요컨대 필자는 五族(五部)은 고구려 정권의 핵심 역량이었고, 고구려의 영역 확대와 경내의 여러 민족에 대한 정복과 통치는 모두 五族의 역량에 의지해 완성되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고구려 강역의 끊임없는 확대와 변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五族의 성격과 분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늦어도 唐代 초기가 되면 五族(血緣部族)에서 五部(地域部落)로의 변화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琉璃王

07

高句麗 國家形成期 ‘卒本時期’의
歷史的 位置

박경철 (강남대학교)

高句麗 國家形成期 ‘卒本時期’의 歷史的 位置

박경철 (강남대학교)

〈목 차〉

- I. 序言
- II. 積石塚築造集團과 ‘高句麗社會論’
 - 1. 濊貊과 高句麗
 - 2. 貊系文化論
 - 3. 고구려 積石塚의 起源
 - 4. 高句麗社會論
- III. 高句麗 國家形成의 主體集團
 - 1. 貊系主體論
 - 2. 扶餘系主體論
 - 3. 文獻資料와 考古學資料의 不整合性
 - 4. ‘濊君南閭’의 實體
- IV. 高句麗 國家形成을 보는 두 가지 視點
- V. ‘高句麗社會’의 發展(3C~1C B.C.)
 - 1. 高句麗社會 基底集團(‘마을’ 혹은 ‘村’)의 胎動(3C B.C. ~)
 - 2. 고구려사회 ‘局地的 集團(‘那集團’ 혹은 ‘谷集團’:the local group)’의 成立 (B.C. 3C~2C 초)
 - 3. 高句麗社會 ‘地域集團(‘那’ 혹은 ‘國’: the regional group)’의 성립 (2C 초 ~1C B.C.)
- VI. 高句麗의 國家形成(1C B.C.~1C A.D.)
- VII. 結言: 高句麗 國家形成期 ‘卒本時期’의 歷史的 位置

I. 序言

高句麗는 B.C. 3C 이래 濊系住民을 중심으로 一定한 發展過程을 經過,¹⁾ B.C. 1C~A.D. 1C 경 東北Asia 구석진 곳의 한 王國(kingdom)으로 興起하였다. 고구려는 주어진 環境의

1) 朴京哲, 1996.12,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朴京哲, 1997, 「高句麗와 濊貊: 高句麗의 住民과 그 文化系統」, 『白山學報』~48; 朴京哲, 1997.9, 「B.C.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的 存在樣式」, 『韓國史研究』~98; 朴京哲, 1998.11,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 『韓國古代史研究』~14; 朴京哲, 2007, 「고구려의 국가형성」,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劣惡性과 經濟的 基盤의 脆弱性을 全方位의 軍事膨脹政策으로 相殺하면서 A.D. 4C 末 이래 東北亞 一帶에서 獨自의인 生存圈(lebensraum)을 構築한 하나의 帝國(empire)으로 成長할 수 있었다.²⁾

發表者는 고구려라는 國家(state)의 이러한 持續的이면서도 執拗한 軍事적 팽창 정책 및 그 성공적 實現은 그 국가의 內在的인 性向 혹은 傾向性과 관련되는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러한 고구려 國家의 性格 파악을 위한 노력의 첫 출발점도 그 國家形成 과정과 無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고구려 國家형성 문제는 韓國學界 內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 그 實相을 둘러싸고 各 研究者의 視點과 接近方法에 따라 多岐多樣한 見解가 提示되어 오고 있다.

本發表文은 고구려 國家형성과 관련되어 이제까지 주로 한국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바 있는 몇 가지 爭點들을 본 學術會議에서 되새겨 보고, 발표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韓中 兩國 學者들의 이 문제의 論議와 解明을 위한 실마리를 조심스럽게 摸索해보고자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II. 積石塚築造集團과 ‘高句麗社會論’

1. 濊貊과 高句麗

오늘날 韓國 학계는 東北Asia 住民 移動의 큰 줄기인 古Asia族(Palio-Asiatics)과 Altai語 族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우리 靑銅器文化의 享有者인 濊貊이 新石器文化의 담당 주인이었던 古Asia族을 征服·吸收·同化·統合하는 과정이 韓民族의 형성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³⁾

따라서 우리 민족의 起源·형성 문제 해명을 위한 노력은 Altai어족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獨立된 民族單位인 濊貊의 實體 究明 문제로 集約된다. 또 그것은 古朝鮮과 扶餘 나아가서 高句麗 住民構成과 文化 系統을 밝히는 문제의 열쇠도 되는 것이다.⁴⁾

2) 朴京哲, 1988, 「高句麗軍事力量의 再檢討」, 『白山學報』35;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平壤 遷都 以後 高句麗 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史學研究』40; 朴京哲, 2003.9,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제15; 朴京哲, 2005.3.30, 「高句麗 邊方의 擴大와 構造의 重層性」, 『韓國史學報』19; 朴京哲, 2005.4.30,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71.

3)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한편 이에 대한 多少 批判的이면서도 多樣한 接近과 認識은, 盧泰敦, 1991.5,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韓國古代史論叢』1; 韓永熙·李鮮馥·盧嫻真·朴善周, 1997, 『韓國民族의 起源과 形成(上)』, 小花 參照.

4) ‘예맥’에 대한 관련 학계 인식의 研究史의 檢討는, 朴京哲, 2003.9, 「高句麗 ‘民族’問題 認識의 現況과 課題」, 『韓國古代史研究』31; 朴京哲, 2004.12, 「濊貊·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

2. 貊系文化論

韓國 靑銅器文化를 表象하는 ‘濊貊文化’ 가운데 ‘貊’系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곧 고구려의 주민과 그 先行文化 혹은 基底文化의 脈絡을 이해하기 위한 所望스런 접근이 될 것이다. 鄭漢德은 맥계 청동기문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無文土器인 美松里型土器를 준거로 ‘美松里類型文化’의 존재에 注目, 論議를 진행한 바 있다. 곧 그는 이러한 미송리 유형문화의 荷擔者를 맥계 민족으로 比定하면서, 특히 渾河·太子河·鴨綠江中·下流地方에서의 그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遼河 중·하류 流域에서부터 淸川江 以北 地域은 B.C. 1,000年紀의 前盤代에서 B.C.4~5C까지, 늦어도 B.C.3C 대에 이르기까지 中原文化와 구별되는 獨自的 文化를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서 高句麗族-貊族 系統의 活動範圍였다고 파악하고 있다.⁵⁾

朴京哲은 관련 考古學界의 연구 성과를 援用, 中國 東北地方 濊貊系諸 集團의 文化를 分別하고 있다. 곧 그는 濊貊文化圈이 B.C. 10C 頃 遼西 地方에서 琵琶形銅劍文化를 中心으로 成立한 뒤, B.C. 7~8C 경 以來 遼寧 지역에서 韓半島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별 生態的·地政學的·生業經濟的 조건에 卽應한 ‘發展의 不均等性’이나 生態的 適應戰略의 差別性에 따라 異形同質的 種族·住民集團으로 分별되면서, 여러 下位 文化圈으로 分化·發展해 나간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濊貊文化圈’의 검토가 고조선·부여·고구려 등의 주민 구성과 문화 및 국가 형성 契機 구명을 위한 先次的 課題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脈絡에서 公貴里類型文化를⁶⁾ 고구려의 先行文化 혹은 基底文化로서 파악하고 있다.⁷⁾

3. 고구려 積石塚의 起源

余昊奎는 鐵器文化의 波及과 積石塚 始築과의 相互關聯性에 주목하고 있다.⁸⁾ 그러나 朴京哲은 B.C. 5C~4C를 轉換點으로 하는 靑銅器時代에서 鐵器時代로의 中國 東北地方 基底文

『高句麗研究18:高句麗 正體性』~참조. 한편 본 논의 과정에서 흔히 거론되는 住民集團들을 지칭하는 ‘民族’·‘種族’·‘族屬’ 등의 개념 分별 문제에 관해서는 朴京哲, 2003.9, 앞의 글.

5) 鄭漢德, 1990, 「美松里型土器의 生成」, 田村晃一編, 『東北アジア의 考古學:天池:東北アジア 考古學研究會二十周年記念論文集』, 東京, 六興出版社; 鄭漢德, 1996, 「美松里型土器形成期에 於ける若干의 問題」,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編, 『東北アジア의 考古學 第二: 槿域』, 서울, 깊은샘.

6)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3, 東京, 雄山閣; 東潮, 1995, 「高句麗以前の東北アジア」, 東潮·田中俊明 編著, 『高句麗의 歷史と遺跡』, 東京, 中央公論社.

7) 朴京哲, 1992, 「扶餘史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 『白山學報』~40; 朴京哲, 1997.6, 「高句麗와 濊貊: 高句麗의 住民과 그 文化系統」, 『白山學報』~48; 朴京哲, 2004.12, 朴京哲, 「濊貊·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 『高句麗研究18:高句麗 正體性』.

8) 余昊奎, 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27.

化上의變化는 이 지방 全域에 걸쳐 일어난 共時的 現象이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철기문화의 普及·擴散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土壤墓를 基本墓制로 하는 他地域(중국 동북 지방 및 韓半島 西北部 지방)과 峻別되는 鴨綠江中流流域 一帶 積石총의 集中的 築造라는 突出現象을 明快히 說明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⁹⁾

최근 耿鐵華는 고구려 積石총의 起源을 新石器時代 遼西 지방의 紅山文化(遼寧省 凌源·建平縣의 境界에 있는 牛河梁遺跡가 대표적 遺蹟地 임)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¹⁰⁾ 그러나 盧泰敦은 이들 두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時·空間的 間隙을 考慮할 때 현재로서는 首肯하기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¹¹⁾

오늘날 고구려 積石총의 기원과 관련된 제 논의는 遼東半島淵源說과 接脈된 住民移動說이나 鴨綠江流域 獨自發展說 등 發生論의 接近에 依據하여 進行되고 있다.

朴京哲은 積石塚이라는 墓制 그 자체 혹은 그에 先行하는 埋葬慣行이 B.C. 4~3C를 전후한 貊族의 文化로 거론되는 公貴里類型文化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의 여타 지역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적시된 예가 드문 형편 임(청동기시대 遼東半島 南端 지역은 例外)을 지적한다.¹²⁾

이 점에 비추어, 일부 論者들은 遼東積石塚이 고구려의 그것에 先行함을 認定한다는 前提下에 고구려 積石총이라는 墓制 성립의 背景을 遼東地域과 一定한 關係脈絡 속에서 구하고자 하고 있다.

鄭燦英은 일찍이 요동반도 남단의 崗上·樓上 무덤, 특히 單獨 무덤인 雙陀子 무덤을 고구려의 無基壇積石塚에 直接的으로 앞선 形식의 그것으로 추정 한 바 있다.¹³⁾

池炳穆은 B.C. 8~5C 경의 요동반도 旅大市 附近 積石墓와 鴨綠江 중류 유역의 그것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地域的·時間的 隔差를 勘案할 때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無理가 있다고 본다. 그는 오히려 요동지방 積石묘를 축조하던 집단이 秦漢交替期 이후 요동으로의 중국 세력 東進으로 인한 混亂을 피해 압록강 중류 유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¹⁴⁾

東潮와 田村晃一은 요동반도 積石총(崗上墓·樓上墓)의 下限이 B.C. 4C~3C로서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 積石총의 上限時期에 접근하므로, 고구려의 積石총은 B.C. 4C~3C에서 紀元 전후의 시기에 요동반도 지역의 묘제를 淵源으로 하여 성립, 고구려 특유의 묘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¹⁵⁾

9) 朴京哲, 1996.12, 앞의 글.

10) 耿鐵華, 1986-1期, 「高句麗起源和建國問題探索」, 『求是學刊』

11) 盧泰敦, 1996, 「개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1-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盧泰敦, 1998,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2) 朴京哲, 1996.12, 앞의 글.

13) 鄭燦英, 1967-4, 「고구려 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4) 池炳穆, 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34.

그런데 최근 池炳穆은 B.C.4C 말~3C 초 사이에 요동반도 지역의 적석묘 축조집단은 점차 土壙墓 축조집단과 燕 세력에 의해 逐出되어 압록강 하류 지역으로, 다시 압록강 중류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朴晋煜은 고구려 적석총의 遼東半島起源說을 부정하면서, 압록강 하류지역 丹東地區의 寬甸縣의 太平哨公社 琵琶形短劍時期에 該當하는 泡子沿 무덤을 그것의 先行墓制로 추정하면서, 좁은놋단검 시기에 속하는 관전현 四平街 무덤과 조가보 무덤·鳳城縣의 소진가 무덤 및 集安의 五道嶺溝門 돌무지무덤에서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찾으려하고 있어 주목된다.¹⁷⁾ 한편 朴京哲은 요동과 압록강 유역, 두 지역 적석총 構造 상 同質性이 확인된 이상, 압록강 하류 지역의 적석총의 존재는 이 지역이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총과 압록강 중류 지역 일대의 그것을 架橋하는 시·공간적 漸移地帶였던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본다.¹⁸⁾

한편 姜賢淑은 丹東 以東 지역에서 集安 일대에 이르는 지역은 중국 동북지방의 土壙墓 대신 石棺·積石墓·石蓋石棺 등 돌무덤 계통 무덤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이 지역의 積石墓를 造營한 주민들은 철기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요동지방의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적석묘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집단으로 결속을 다지게 되었고, B.C. 1C 경부터 압록강 중하류 유역에 대규모 積石塚群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最近 余昊奎는 千山山脈 東部地方에서의 靑銅器/鐵器時期 文化遲滯現象을 前提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²⁰⁾

B.C. 4~3C 頃에는 中間形銅劍이²¹⁾ 천산산맥 동부(太子河 중·상류/鴨綠江 중류·하류)와 遼河 중·상류와 松花江 流域에 出現하며, 특히 천산산맥 동부에서 중간형동검과 葉脈文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B.C. 3~2C 천산산맥 동부 지역 가운데에서도 압록강 중·상류에서 積石塚 築造集團이 登場하면서 '原高句麗社會(高句麗社會)'가 성립·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鴨綠江 중류 유역의 문화 전개상은[B.C. 7C 公貴里文化 → B.C. 4~3C 천산산맥 동부에서 중간형동검과 葉脈文을 공유하는 문화 → B.C. 3~2C 魯南里文化(積石塚文化:'高句麗社會' 形成) → B.C. 1~ A.D. 1C 高句麗文化]를 示顯하게 된다.

15) 東潮, 1995, 「積石塚の成立と發展:前期・中期の墓制」, 앞의 책; 田村晃一, 1995, 「高句麗の積石塚」, 田村晃一 編,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東北アジア考古學研究會二十周年記念論文集』, 東京, 六興出版社.

16) 池炳穆, 1997.6, 「遼東半島와 鴨綠江 中·下流地域 積石墓의 關係:高句麗 積石墓의 起源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53.

17) 朴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8) 朴京哲, 1996.12, 앞의 글.

19) 姜賢淑, 1999, 「高句麗 積石塚의 登場에 대하여」, 『京畿史學』 3.

20) 余昊奎, 2007,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기반」,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글.

21) '中間形銅劍'이란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屬性을 共有하는 劍身 下段部에 턱이 형성된 동검으로, 從來 '後期形銅劍·變形劍·過渡形劍'으로 지칭되던 그것이다. 余昊奎, 2007, 위의 글.

이러한 試圖와 더불어 최근 中國 학계에 의하여 調査된 望江樓遺蹟·萬發撥子遺蹟·干溝子古墳群의 존재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 성과를 期約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4. 高句麗社會論

B.C. 1,000年紀 後盤 以後 中國 東北地方 철기문화의 進展과 함께 遼寧 東部 지방·吉林 지방에서는 土壙墓가 濊貊系 제 집단의 기본묘제로 광범위하게 擴散·定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3C 이래 鴨綠江 중류 유역 일대의 貊系 주민 일부는 積石塚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적으로 特化된 墓制를 自己 집단의 기본적 埋葬慣行으로 삼아 그것을 集中築造하고 있었다.

따라서 朴京哲은 이 지역 적석총의 집중적 축조라는 突出現象은 이 시기 압록강 중류 유역의 맥계 제 집단의 凝集力이 현저하게 提高됨으로써 그들이 高句麗 國家形成 前史에 있어 하나의 主體로서 그 존재를 뚜렷히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文化現象으로 파악, 이들이 主導하는 國家形成이라는 政治的 存在樣式의 高揚 과정을 君長社會(chiefdom)論에²²⁾ 입각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²³⁾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B.C. 3C 이래 고구려가 ‘國家(state)’로서 발흥하기 이전의 압록강 중류 유역과 그 支流인 渾江·禿魯江 유역 일대 등에서 적석총을 축조하던 貊系諸勢力集團 그 自體 혹은 그들의 存在樣態를 ‘原高句麗社會’²⁴⁾ 혹은 ‘句麗種族社會’²⁵⁾ 또는 ‘高句麗社會’²⁶⁾ 指稱, 國家形成期 이전 當該 지역에서의 적석총 축조집단의 實體와 그 存在樣相(이하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의 편의상 ‘高句麗社會’라 지칭함) 해명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다.

III. 高句麗 國家形成의 主體集團

1. 貊系主體論

金貞培는 ‘濊·貊·韓’은 모두 同一種族의 共時的 存在로서 中國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걸

23) 朴京哲, 1996.12, 앞의 글; 朴京哲, 1997.9; ; 1998.11 앞의 글; 2007, 앞의 글.

24) 池炳穆, 1987, 앞의 글; 余昊奎, 1997.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5) 余昊奎, 1992, 앞의 글; 1996, 「압록강중류유역에서의 고구려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21; 1997.7, 위의 글; 2007,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기반」,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글.

26) 朴京哲, 1996.12, 앞의 글; 1997.9, 앞의 글; 1998.11 앞의 글; 2007, 앞의 글.

친 광범위한 歷史의 場 내에서 그 地域的 分布相에 따라 그 具體的 存在樣態에 있어 일정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그는 濊貊은 文獻 상 先秦時代 이래 우리 韓民族을 指稱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내용적으로 貊이나 濊는 個別的으로 지역적 分布相에 따라 分別·認識되고 있었다고 본다. 즉 그는 扶餘人들에 대해 모든 자료들은 ‘濊’로 표기하고 있으나, 같은 종족이면서도 그 住地가 다른 高句麗人들은 ‘貊’으로 기록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고구려의 국가형성 주체는 貊系 제 집단이 되는 셈이다.²⁷⁾

한편 최근 韓國 학계 일각에서는 ‘고구려=맥계주체론’에 대해 “‘濊貊’의 實體는 ‘濊’이지 ‘貊’이 아니”라는 懷疑的 견해가²⁸⁾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先秦 시기의 여러 文獻에 나오는 ‘貊’은 원래 中國 北方에 거주하던 北方族屬들에 대한 汎稱으로 쓰였다. 이에 비해 渤海灣 동부 지역은 先秦 시기에 대체로 ‘夷穢之鄉’ 곧 穢族의 거주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본래의 貊이 『史記』 이후 ‘濊’와 결합하여 중국 東北方에 거주하던 濊族 일반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곧 이 견해는 고구려를 구성하는 주민집단의 名稱이 [‘濊’→‘濊貊’→‘貊(高句麗社會 住民集團)']으로 바뀌어 불리워 왔던 것이지, 본래 그 實體는 濊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扶餘系主體論

現傳하는 제 資料는 고구려의 국가 형성과정과 扶餘史의 전개가 重層的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점에 비추어, 오늘날 학계에는 ‘고구려 국가형성의 主導集團=扶餘系’라 보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부여사의 전개과정 자체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다기 다양한 점은 고구려 국가형성의 주체 문제 해명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제 논의는 일단 ‘北·東夫餘 通時的 分岐論’과 ‘北·東夫餘 共時的 實在論’으로 대별 할 수 있다.²⁹⁾

北·東夫餘 通時的 分岐論이란 본래 朱蒙의 고향은 송화강 유역의 北扶餘(扶餘)로서 A.D. 5C 말 고구려에 合併되었고, 東扶餘란 A.D. 3C 말 鮮卑族 慕容氏의 공격을 받은 북부여의 一族이 세운 나라인 바, 廣開土王代에 고구려에 통합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盧泰敦(1989, 1993)은 『三國史記』·『三國遺事』 및 고구려 제 金石文 상에 表白된 ‘扶餘·東扶餘’의 실체는 A.D. 5C 당시 고구려인들이 의식하고 있던 그 나름의 ‘天下觀’을 準據視點으로 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그는 당시 고구려인들은 自國을 ‘中’

27) 金貞培, 1968, 「濊貊族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5.

28) 余昊奎, 2007. 앞의 글.

29) 朴京哲, 2004.11, 「또 다른 부여, 동부여와 작은 부여 두막루」, 고구려연구재단, 『고조선·단군·부여』.

으로, 그 이웃하고 있는 부여인의 두 나라를 각각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 그들의 국가를 北扶餘로, 그 동쪽에 위치한 부여를 東扶餘라 관념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⁰⁾ 따라서 그는 이를 입론의 바탕으로 삼아 桂婁集團의 出自地는 압록강 중류 유역이 아니라, 부여 방면이라 보기도 한다.³¹⁾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고구려 건국 당시 北扶餘·東扶餘 共時的 實在說 및 이에 바탕한 朱蒙의 출자에 관한 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 학계의 경우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런 觀點을 取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²⁾ 徐榮洙도 고구려의 건국 당시 桂婁部의 故地로 비정되는 豆滿江 유역에 東扶餘가 실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A.D. 410년 원정한 ‘東扶餘’란 A.D. 285년 모용씨에 의해 북부여가 망하자 그 殘類가 親緣關係에 있는 이 동부여의 故地로 옮겨 온 이래 성립된 존재라 보면서, A.D. 494년 고구려로의 ‘扶餘王 來降’을 이 동부여의 멸망과 연계시켜 이해하고자 한다.³³⁾

3. 文獻資料와 考古學資料의 不整合性

고구려 국가형성을 주도한 것이 扶餘系 流移民集團이라고 한다면, 建國主導勢力과 基層住民集團 간 相關性的 이해 문제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현전하는 文獻 및 金石文 자료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示唆點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考古學 자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점은 더욱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즉 당시의 墓制는 松花江 유역 중심의 扶餘가 石棺墓에서 土壙墓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반면 B.C. 3C 이래 高句麗社會에서는 石棺墓에 갈음하여 積石塚이 집중적으로 造營되는 돌출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점은 扶餘族의 一員이라 추정되는 朱蒙 남하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부여족 중심축에 선 견해를 따르면, 이러한 고고학 자료를 해명할 길이 없다.

朴京哲은 이 점에 주목, B.C. 1C 중반 이래 高句麗社會의 政治的 統合을 志向하는 力動性의 一端을 ‘解慕漱-河伯-柳花-朱蒙’集團의 有機的 關係項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곧 그는 B.C. 1C 후반 새로운 建國主導勢力으로 등장한 주몽집단은 다른 아닌 한 世代 전 이 지역에서 일시 부여 방면으로 強制退出되었던 해모수 및 유화집단에 그 脈絡을 대고 있는 貊系의 闖入·戰士集團이었던 것이라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이 ‘北夫餘’를 出自로 하는 주몽집단이 주도한 국가형성이 고구려사회에 큰 문화적 충격이나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던

30) 朴京哲 역시 ‘北·東夫餘 通時的 分岐論’에 따라 이 문제 접근하고 있다 (1992년 12월,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白山學報』40;2004.11, 앞의 글).

31) 盧泰敦, 1989, 「扶餘國의 疆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4; 盧泰敦, 19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起源」, 『韓國古代史論叢』5.

32) 張博泉과 孫正甲의 견해가 그 實例가 될 것이다. 張博泉, 1981-6, 「夫餘史地叢說」, 『社會科學輯刊』7; 孫正甲, 1984-6, 「夫餘源流辨析」, 『學習與探索』.

33) 徐榮洙, 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의 再檢討(中)」, 『歷史學報』119.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³⁴⁾

近來 桓仁縣 望江樓 積石塚에서 西豐縣 西岔溝遺蹟이나 榆樹縣 老河深의 夫餘 墓의 그것과 유사한 遺物이³⁵⁾ 다수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 유적이 扶餘系 流移民의 遺蹟일 가능성이 크다³⁶⁾. 앞으로 考古學的 發掘 如何에 따라 鴨綠江 中류 지역과 松花江 流域 간의 交流나 住民移住를 反映하는 유물들이 더 出土된다면 朱蒙說話의 事實性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文獻資料와 考古學資料의 不整合性’ 문제에 대한 해명 노력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⁷⁾

4. ‘濊君南閔’의 實體

B.C. 128년 漢帝國은 28萬 濊君南閔 집단이 投降해오자, 이곳에 ‘滄海郡’ 설치를 劃策한 바 있다. 오늘날 한국 학계는 이 예군남려의 존재를 고구려사회의 발전과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견해가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³⁸⁾

그러나 栗原朋信(1960)은 『三國志』 夫餘傳에서의 ‘濊王之印’은 漢에 투항해 ‘內臣’이 된 예군남여에게 준 印章임을 주장하고 있다.³⁹⁾ 이에 대해 盧泰敦은 예군남여가 衛滿 朝鮮에 대항하다가 漢에 투항했으므로, ‘滄海郡=夫餘’로 봄에는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⁰⁾ 한편 朴京哲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들어 滄海郡의 立地를 松花江 流域 ‘濊族’의 땅에서 구함보다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즉 첫째, 獬族의 주지를 ‘濊’라 하지 않고, 濊의 그것을 일부 ‘濊獬’이라 지칭하기는 했어도 ‘獬’이라 한 적이 없다는 점, 둘째 압록강 유역 창해군의 經營費用 過多로 이를 拋棄한 漢이 예군남려 세력에 비해 보다 강력했고 훨씬 남쪽 먼 곳에 위치한 衛滿朝鮮과 1년 간이나 끌었던 치열한 交戰狀態를 持續, 끝내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B.C. 2C 말 당시 고구려사회의 정치적 통합 노력이 아무리 활발히 또 급속히 진전되었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漢에로의 ‘內屬’ 같은 정치적 運命을 같이 하는 수준의 凝集力을 가진 28萬 口의 대규모 집단을 統轄하는 예군남려의 존재를 想定함은 무리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예군남려의 실체 해명 노력은 扶餘의 國家形成論的 觀點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⁴¹⁾

34) 朴京哲, 1996.12, 앞의 글과 1998.11, 앞의 글.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36) 余昊奎, 1996, 앞의 글.

37) 노태돈, 2007, 「高句麗人の 種族的 起源」(2007年度 韓中學術會議 發表文).

38)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9) 栗原朋信, 1960, 「濊王之印」と「濊王之印」, 『秦漢史の研究』.

40) 盧泰敦, 1986, 「高句麗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政治史 理論」, 『東方學志』 52.

41) 朴京哲, 1992, 앞의 글과 1997.6, 앞의 글.

IV. 高句麗 國家形成을 보는 두 가지 視點⁴²⁾

韓國學界의 고구려 국가형성과 관련된 論議는『三國史記』高句麗本紀 初期記事에 대한 接近方式에 따라 대체로 두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三國史記』초기기사에 대한 消極的 受容姿勢와 이에 바탕한 太祖王代(A.D. 53 ~146 A.D) 古代國家成立論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資料를 積極的으로 새기면서, 고구려 국가형성을『三國史記』장의 ‘東明聖王·瑠璃明王·大武神王(37 B.C. ~44 A.D.)’ 대로 파악 하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太祖王代의 古代國家成立論은 또한 두 가지 事實에 논의의 焦點이 모아지고 있다. 그 하나는 태조왕 대의 王系交替論이고, 또 하나는 태조왕 대의 那部體制成立論이다.

那部體制成立論은 태조왕 대에 이르러 高句麗國家의 基本的 支配 틀이 成立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입장은 ‘部族國家論→部體制論’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 具體性和 適實性을 深化시켜 온 바, 오늘날 한국 학계의 가장 有力한 견해로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본래 部族國家論은 ‘部族國家→部族聯盟→古代國家’라는 觀點에 서서, 고구려가 B.C. 2C 이래 ‘부족국가’를 그 原初의 형태로 하는 ‘部族聯盟’단계를 거쳐, A.D. 2C 頃 ‘고대국가’로 성립·발전하였다고⁴³⁾ 파악한 바 있다.

그리고 部體制論은 이러한 부족국가론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고대국가 성립기 單位政治 組織體의 特性으로서 從來의 血緣性에 같음하는 地緣性을 重視, 고대국가로서의 ‘聯盟體’ 확립에 대신하는 ‘部體制’라는 認識 틀을 제시하면서,⁴⁴⁾ A.D. 1C 후반 태조왕 대에 이르러 강력한 集權力을 갖춘 古代國家 高句麗가 확립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태조왕 대 王系交替論의 경우,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 대한 懷疑의 입장에서 출발, A.D. 1C 후반 太祖王의 존재에 着目] ⇒ [「廣開土王陵碑文」상의 王系에 태조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추구; 태조 중심의 王系認識이 먼저 성립한 후, 鄒牟王 중심의 「陵碑文」상의 왕계 인식이 나중에 성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三國史記』高句麗本紀 상의 왕계 인식이 맨 나중에 定立됨] ⇒ [『三國史記』高句麗本紀 초기 기사의 事實性 인정에 消極的 立場]이라는 論理的 構造를 지니고 있다.

한편 한국 학계 내에는[『삼국사기』~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 대한 積極的 受容 立場에서 出發]⇒[『삼국사기』~고구려 왕계 인식=「陵碑文(現存하는 最古의 金石文 자료)」의 왕계 인

42) 이에 대한 研究史的 정리는, 朴京哲, 2002.12,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28

43) 金哲垞, 1975, 『한국고대국가발달사』, 한국일보社; 金철준, 1981, 「II-1.部族聯盟勢力의 擡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고대-민족의 성장』.

44)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考察」, 『韓國史論』~2; 盧泰敦, 1981, 「III-1.三國의 成立과 發展」, 『한국사2:고대-민족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盧泰敦, 1991, 「高句麗의 歷史와 思想」,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宗教研究室 編, 『韓國思想大系』~(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식] ⇒ [鄒牟王 중심의 왕계 인식의 歷史性·事實性 認定하는 위에서, 高句麗史 상 태조왕의 역사적 有意味性 穿鑿] ⇒ [A.D.4~5C 高句麗人의 自己 國家形成認識의 구체적 實相이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初期記事에 그대로 드러남]이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보다 다른 視點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입장이 없지 않다. 본 발표자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國家形成期 고구려사 연구를 진행시켜 온 바 있다.⁴⁵⁾

V. ‘高句麗社會’의 發展(3C~1C B.C)

‘太祖王代=那部體制成立’論은 部體制論을 高句麗史에 援用한 경우로서, 論者에 따라 ‘고구려사회’와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의 구체적 인식, 곧 그 概念的 內包에 있어서 다소 偏差를 보이고 있다.

먼저 늦어도 B.C. 40餘年 경 對漢郡縣鬪爭의 求心點 역할을 하던 朱蒙集團이 이 지역 聯盟體의 領導 세력으로 등장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大武神王 15년 이후 太祖王 대 이전 어느 시기 엔가에 주몽집단의 桂婁部王權을 중심으로 五那部體制를 그 기본 틀로 하는 高句麗聯盟體가 형성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那部’ 자체를 多數의 ‘谷(邑落)’을 構成單位로 한 ‘那國’이 다수 결속된 ‘小聯盟體’라 보는 바, ‘高句麗聯盟王國’이란 이러한 다섯 개의 소연맹체의 總和라 인식하며, 初期에는 洎奴部 곧 沸流部가 聯盟王權을 차지하였다가, 이후 그 지위를 넘겨받은 桂婁部가 연맹 왕권의 基盤을 鞏固히 다지며 太祖王 대에는 五那部體制를 확립시켰던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谷集團 → 那國 → 那部=那國의 小聯盟體 → 五那部體制(國家)].⁴⁶⁾

한편 A.D. 1C 初·中葉 경 句麗種族社會에 ‘那部體制’라는 형태의 桂婁部 중심의 ‘國家權力’이 成立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논의는 B.C. 3C 말 경 ‘原高句麗社會’·‘句麗種族社會’가 형성되고, B.C. 2C 중엽 이들 가운데서 ‘那’가 성장하다가, B.C.1C 전반 현토군 逐出 과정에서 ‘那國’ 및 이들이 뭉친 ‘那國聯盟’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것들이 지역 별로 보다 큰 單位政治體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 이 입장은 A.D. 1C 초~3C 후반 계루 집단이 이들 각 지역 별 단위 정치체들을 ‘那部’라는 下部單位政治體로 編制함으로써 ‘那部體制’·‘那部統治體制’가 完成·移動되는 과정을 고구려 初期史의 전개라 이해한다. 또 이 견해는 이 나부체제가 A.D. 3C 이래 解體 과정을 밟으면서, A.D.4C 이후 ‘集權的 貴族國家’가 확립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那集團 → 那國 → 那部=那國聯盟 → 五那部體制(國家) → 集權的 貴族國家]⁴⁷⁾

45) 朴京哲, 2002.12, 앞의 글.

46) 林起煥,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慶熙史學』 14.

47) 余昊奎, 1992, 앞의 글; 余昊奎, 1996, 앞의 글; 余昊奎, 1997, 앞의 글.

이러한 나무체제론은 고구려 국가 형성을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 전체에 統治力을貫徹시키는 求心體의 成立이라 파악하면서 그 時期를 B.C. 1C 朱蒙集團의 出現에서 A.D. 1C 太祖王 때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위의 視點과는 달리, 발표자는 고구려 國家形成期를 『三國史記』 7장의 ‘東明聖王·瑠璃明王·大武神王(37 B.C. ~44 A.D.)’ 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에서 ‘國家形成’이라는 政治的 存在樣式의 高揚 過程을 君長社會(chiefdom)論에 입각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⁴⁸⁾

1. 高句麗社會 基底集團(‘마을’ 혹은 ‘村’)의 胎動(3C B.C. ~)

B.C. 3C 頃 鴨綠江 中流域에 積石塚築造集團을 중심으로 ‘高句麗社會가 形成 되기 시작한다. 압록강 중류 지역 일대의 貊系 住民들 또한 B.C. 4 ~3C 濊貊文化圈 全體 勢力 構圖 再編 소용돌이 속에서 ‘마을’ 혹은 ‘村’을 실체로 하는 자기 基底集團 生存基盤을 확보하기 위하여 盡力한 것 같다.

고구려사회의 기저집단은 個別住居의 單婚家族을 특징으로 하는 世帶가 모여 이루어진 住居群인 世帶複合體 및 그것이 구성단위가 되는 世帶複合體群이 거주하는 ‘小規模 聚落’ 수준에 照應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구려사회의 기저집단은 다수의 血緣集團이 地緣을 연결고리로 하여 결합한 형태로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一定空間 내에서의 主導權을 확립한 기저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들 간에 優劣 차가 생기면서, 前者를 중심으로 고구려사회의 基本的 社會單位인 ‘局地的 集團(local group)’을 형성코자 하는 움직임이 胎動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頭角을 나타내기 시작한 기저집단의 指導者는 자기 집단 내 다른 構成員에 대한 자기의 優越性과 差別性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집단에 대한 자기 집단의 그것을 誇示코자 無基壇積石塚을 축조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48) 最近 政治人類學界 一角에서는 人類의 정치·經濟·社會發展의 進展相을 [the family level group=the band → the local group(局地的 集團)=the tribal level → the regional group(地域的 集團)]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서, 單純君長社會(simple chiefdom)와 複合君長社會(complex chiefdom)로 분별되는 군장사회를 ‘the regional group’에 귀속시키고 있다. Allen W. Johnson & Timothy Earle, 1987,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5~22; Timothy Earle, 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Edited by Tim Ingol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 Culture and Social Life』, New York, 1994, Routledge, pp.940~961, 朴京哲 譯, 1999.12, 「政治的 支配와 社會進化」, 『史叢』 50, 解題. 朴京哲, 1996.12, 앞의 글; 朴京哲, 1997.9, 앞의 글; 朴京哲, 1998.11, 앞의 글; 朴京哲, 2007, 앞의 글.

2. 고구려사회 ‘局地的 集團(‘那集團’ 혹은 ‘谷集團’ : the local group)’의 成立 (B.C. 3C~2C 초)

B.C. 2C 초 경 일정 공간 내에 共時的으로 존재하던 몇몇 基底集團들이 그중 가장 빼어난 武裝力量을 갖춘 하나의 기저집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階序關係에 의하여 規律되는 社會單位로서 ‘那集團’ 혹은 ‘谷集團’이라 지칭되는 ‘局地的 集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한된 공간적 범위 그것도 매우 한정된 可耕地에 대한 人口壓은 고구려사회 형성 과정을 보다 暴力的인 그것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 하나의 內在的 規正性을 가지고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 지역의 제 기저집단이 국지적 집단으로 結集·성장하는 과정에서 表出된 暴力的·抑壓的 霧圍氣는 고구려사회의 普遍的 情緒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B.C. 2C 경 고구려사회에서 형성된 제 국지적 집단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物理的 暴力에 바탕하고 또 組織化된 武裝衝突을 통해서 성장한 집단이었다는 점에 있다. 또 이점은 당시 고구려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던 ‘軍事化(militarization) 傾向’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B.C. 3C에서 2C 초 사이 高句麗社會 形成過程은 貊系住民들의 生態的 適應過程에서 비롯된 過度한 軍事化傾向을 現象的 特性으로 하는 諸基底集團의 物理的 暴力에 바탕 한 無基壇 積石塚을 造營하는 社會單位로서의 諸局地的 集團의 형성과정으로 把握할 수 있다..

3. 高句麗社會 ‘地域集團(‘那’ 혹은 ‘國’:the regional group)’의 성립(2C 초~1C B.C.)

당시 衛滿朝鮮·扶餘·漢 세력의 존재는 고구려사회의 성장·통합에 대한 刺戟劑임과 동시에 명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었다. 즉 B.C. 2C 초 경 싹터서 B.C. 2C 말 경 본격화한 고구려사회의 정치적 통합노력은 이 方面으로 勢力浸透를 劃策하는 外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힘의 結集 과정과 軌를 같이 하고 있었다.

또 그것은 B.C. 2C 초 이래 고구려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회단위로서의 那集團·谷集團 같은 諸 局地的 集團이 君長社會(chiefdom) 수준의 ‘那’ 나 ‘國’ 같은 ‘地域集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군장사회(chiefdom)’란 首長을 중심으로 한 特定血緣集團에 의하여 지배되는 地緣에 바탕한 ‘地域集團(regional group)’을 일컫는 用語이다. 또 或者는 이 군장사회를 중심이 되는 ‘國邑’과 ‘諸邑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單位政治體’로 파악하기도 하며, 이를 흔히 ‘城邑國家’ 혹은 ‘小國’·‘初期國家’라 指稱하는 바 그 실체는 군장사회인 것이다.⁴⁹⁾

고구려사회는 那나 國 같은 지역집단이 성립하는 B.C. 2C 말 경을 轉機로 하여 종래의 강

49) Timothy Earle, 1994, 앞의 글; 朴京哲, 1997.9, 앞의 글; 朴京哲, 1998.11, 앞의 글.

돌 무기단적석층에 갈음하여 切石基壇積石塚를 축조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강돌 무기단적석층에서 절석기단적석층으로의 적석층 조영 樣式 변화는 이 집단 내에서 巨石의 運搬·加工·構築을 擔保하는 일정한 勞動力 動員機制가 이전보다 한층 實效적으로 稼動되게 되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아울러 이 사실은 일정 지역에서의 특정 혈연 집단으로 보다 힘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 지역집단인 君長社會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現實이 墓制라는 文化規範으로 표출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那와 國 같은 지역집단은 늦어도 B.C. 2C. 말까지 고구려사회에 多數 성립·발전하고 있었다. B.C. 2C 말을 전후하여 압록강 중류 유역일대의 새로운 狀況 전개는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그 곳의 주민들 및 그들이 집중적으로 구축한 적석층 분포 지역을 ‘句麗’라 特稱하면서 ‘朝鮮’과 餘他 ‘穢貉’ 집단과 分別 인식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주목에 값하는 사실이었다.

B.C. 2C 말 漢의 衛滿朝鮮 攻滅(108 B.C.) 및 漢郡縣, 특히 玄菟郡 設置(107 B.C.)로 表象되는 漢 세력의 東北Asia 방면으로의 積極 膨脹勢는 이미 那와 國 같은 지역집단 수준의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던 고구려사회 제 집단의 정치적 葛藤을 增幅·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 渦中에서 懸案인 外壓을 극복하고 고구려사회 내에 頻發하는 葛藤과 分열의 효율적 收斂과 실효적 통합을 擔保·推進하기 위한 보다 高揚된 政治的 存在 樣式의 創出을 志向하는 움직임도 서서히 고개 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현재 韓國 학계에 존재하는 두 가지 相異한 視點에 立脚한 高句麗 國家形成의 前史에 該當하는 高句麗社會의 成長·發展에 관한 제 견해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들 視點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那部體制論이나 本發表者의 입장이나 고구려 국가 형성을 豫備하는 高句麗社會發展論이 [那集團 / 谷集團 = 局地的 集團(local group) → 那 / 國 / 那國 = 地域集團(regional group) 혹은 君長社會(chiefdom) → 國家(state)]라는 政治人類學的 認識 틀과 그다지 틀리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 高句麗의 國家形成 (1C B.C. ~ 1C A.D)

‘太祖王代=那部體制成立’論은 國家支配構造論인 나부체제론을 國家形成論과 同質的 範疇 내로 자리매김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나부체제론을 국가형성론과 等値시킴은 認識視點에 있어 層位가 서로 다른 국가형성과 국가지배구조의 발전 문제를 混同함을 결과한다.⁵⁰⁾

50) 우리 학계의 이러한 인식 상의 混同相에 대한 문제 제기는, 金瑛河, 1999.2,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社會變動: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진과 변혁의 一環」, 韓國古代史學會, 『한국고대의 전쟁과 사회변동: 韓國古代史學會 第12回 學術討論會 論文集』; 金瑛河, 1999.7.29~7.30, 「古代國家의 政治體制發展: 部體制論」에 대한 所見을 대신하여, 한국고대사학회, 『제1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어떤 집단의 政治的 存在樣式은 高度의 複合的 政治的 組織體(polity)인 ‘國家(state)’ 水準까지 高揚됨을 契機로 하여 그 삶이 質·量面에 있어 종래와는 次元을 달리하게 됨은 周知의 사실이다.⁵¹⁾ 즉 國家(state)란 일정한 空間的 範圍 안에 존재하는 여러 君長社會(chiefdom)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것이 주위의 다른 것들을 힘으로 아우르면서, 이들을 征服·統合하는 과정에서 우뚝 서게 된 고도의 複合적 政治적 組織체와 다른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제 軍장社會의 累層的 통합·정복 과정에서 放出된 力動性이 國家형성의 energy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太祖王 대에 那部體制라는 支配體制가 稼動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既往에 존재해 온 高句麗國家의 存在根據가 됨과 다른 아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高句麗史像의 정립은 일단 國家형성의 實相을 밝히고, 이 國家형성 과정의 dynamics 속에서 噴出되는 energy를 바탕으로 生成·發展해 온 國家支配構造의 문제를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國家형성 논의와 ‘中央集權的 古代國家’ 성립의 相關關係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⁵²⁾ 中央集權化는 國家의 형성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립·膨脹한 뒤 ‘中央(center)-周邊(periphery)’의 關契構造 속에서 진행되는 政治·經濟·社會·文化現象의 한 過程일 뿐이다. 만일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力學關係 상의 中央集權化를 國家형성의 認識指標로 삼는다면, 그 이전에 國家가 일단 興期한 후 中央이 周邊部로 그 힘을 放射·擴散시키는 政治·軍事的 行爲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은 쉽게 看過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화는 國家發展의 斷面을 보여주는 것이지, 國家형성 논의의 前提 혹은 認識根據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中央集權的 古代國家’ 成立 論議 역시 國家形成論이 아닌 國家支配構造論의 層位에서 검토해야 할 論題임을 留意해야만 할 것이다.⁵³⁾

당시 고구려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계속되는 漢의 세력침투 企圖와 扶餘의 이 방면으로의 進出 試圖 그리고 靺鞨의 跋扈와 鮮卑의 攻勢라는 加重되는 外壓 및 頻發한 相爭에서 비롯된 危機意識이 高調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國家形成期를 前後한 鴨綠江 中流流域의 住民들은 보다 高揚된 水準의 政治的 存在樣式的 創出, 곧 國家(state) 形成을 所望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國家形成過程이란 戰爭과 祭祀를 媒介機制로 하여 物理的 힘에 바탕 한 權力裝置의 制度化와 權力의 人格化가 定着되는 과정이다. 이 경우 戰爭은 權力의 實質的 基盤을 造成하며, 祭祀는 그것에 理念的 바탕을 賦與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그리고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初期記事는 이러한 國家형성과정을 잘 摘示해주고 있다.⁵⁴⁾

세미나 발표문(別紙 發表文)』.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체제론의 입장은, 盧泰敦, 1999.7.29~7.3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부체제론을 중심으로」, 위의 책,

51) Timothy Earle, 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52) 朴大在, 1997.3, 「辰韓 諸國의 규모와 정치발전단계」,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2.

53) 이상의 논의는, 朴京哲, 2002.12, 앞의 글.

국가형성기 고구려는 증가하는 人口와 한정된 可耕地로 인해 걸머지게 된 過負荷의 解消策을 摸索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韓半島 서북 지방과 遼寧 지역에 설치한 漢郡縣들은 고구려가 物的·人的 자원이 豊富한 西部·北部·西南部 지역들로 접근하는 出路를 封鎖하는 障礙物로 機能하였다. 고구려는 이렇게 ‘우리에 뚝뚝 묶여 버린 상황(a circumscribed environment)’을 軍事力 行使을 통하여 正面으로 突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고구려가 국가형성기에 이미 全方位的 國勢膨脹이라는 戰略的 構圖 하에 수많은 軍事行動을 실시하였음을 示唆해주 있다.⁵⁵⁾ 그리고 이러한 군사행동의 실효적 수행이 국가형성기 고구려에 있어 力動性 創出의 本源的 推動力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국가형성기 고구려는 이미 自己 國家의 生存·發展을 위한 戰略으로서 持續的인 軍事力 造成 政策·露骨的인 軍事的 膨脹政策·被征服住民의 集團隸屬民化 政策·集團的 徙民 政策 등을 選擇, 자기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에서 ‘專制的 軍事國家(despotic military state)’로서의 面貌를⁵⁶⁾ 드러내게 되었다.

애당초 그의 妻子로부터 “非常人”으로 여겨졌던 고구려 始祖 朱蒙은 벌써 그 孫子인 無恤에게는 “神靈之孫”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天帝之子, 母河伯女郎”이라는 주몽의 神格化가 추진되게 된다. A.D. 20년 대무신왕은 東明廟를 建立함으로써 東盟이라는 祭天行事와 동명묘를 ideology적 매개기제로 하는 國家的 祭祀儀禮를 制度化함을 통하여 先王代로부터 추진해 온 權力의 人格化를 理念的으로 定着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형성기 이후 A.D.3C 경까지 고구려 支配體制의 內包를 이루는 中央統治構造·地方統治體制·軍事制度 등의 運營 과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權力裝置로 舉論되고 있는 것이 바로 ‘五那部’의 존재이다. 따라서 이 桂婁部와 ‘四那部’의 실체와 그 성격 구명을 둘러싸고 종래 한국 학계는 적지 않은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三國史記』장의 ‘那部’와 『三國志』장의 ‘部’는 동일한 실체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後者 상의 ‘涓奴部’의 경우, ‘奴=那’이며,⁵⁷⁾ ‘部’ 곧 部族이란 漢族들이 북방 異種族의 組織單位에

54) 朴京哲, 1996.12, 앞의 글.

55) 동명성왕 대의 B.C. 37년 말갈 외복, B.C. 37~36년 비류국 제압, B.C. 34년 荇人國 정벌, B.C. 28년 北沃沮 공멸이 그것이다. 유리명왕 대에는 B.C. 9년 선비 공멸, B.C. 6년 부여의 고구려 내공 기도 좌절, A.D. 12년 고구려와 新的 군사충돌, A.D. 13년 고구려와 부여의 鶴盤嶺會戰, A.D. 14 梁貊 공멸 및 漢의 고구려현 강습이 있었다. 대무신왕 대에도 A.D.21~ 22년 부여 공멸전쟁, A.D. 26년 蓋馬國 정벌 및 句茶國 내항, A.D. 28년 한 요동 太守 내공, A.D. 32·37··44년 ‘樂浪’ 방면 진출 기도 등이 그 예가 된다.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및 本紀2의 大武神王條; 朴京哲, 1996.12, 앞의 글; 朴京哲, 2002.12, 앞의 글.

56) “The despotic military states seem to be definitely products of slaving, new weapons, population removals and outright colonialism”.
Elman R.Service., 1968, 「War and Our Contemporary Ancestors」, Morton H.Fried, Marvin Harris & Robert Murphy, eds., 『War;The Anthropology of Armed Conflict and Aggression』, New York;The Natural History Press.

57)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考察」, 『韓國史論』2.

대한 慣用的인 표현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四那’와 ‘五部’는 共時的인 동일집단에 대한 각 歷史敍述集團의 각기 다른 視點에서의 自己表現이다. 이 경우 각기 그 서술 對象으로 捕捉된 역사적 諸事象의 視點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당시 實在했던 政治組織 單位의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關鍵이 되는 것이다. 『三國史記』에서 ‘桂婁部’가 明示의로 나타나지 않고 또 각 ‘나’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實事實物이 panorama식으로 摘示되고 있음은 당해 고구려본기 초기기사의 敍述視點이 국가형성기 이래 建國을 주도한 桂婁部 중심적이었던 史料를 底本으로하여 後代에 再編輯된 것임을 傍證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三國志』는 中國人의 見聞과 漢族의 ‘部族’ 인식 같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고구려 ‘오부’가 漢人들의 遊牧諸族의 세력 編制 單位인 部族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⁵⁸⁾ 유목 제족들의 部族制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곧 遊牧社會의 부족이 血緣의 집단인지, 아니면 地緣性에 기반한 擬制的 血緣집단인지 혹은 또다른 보다 合目的인 人爲的 편제인지를 파악함이 당시 中國인들이 인식했던 고구려의 오부의 실체에 보다 정확히 접근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목사회 연구 성과는 그들의 ‘부족’을 “현실적인 必要에 의해 (擬似)血緣의인 紐帶를 前提로 결합된 地域單位의 政治的 集團”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은⁵⁹⁾ 당시 中國인들이 인식했던 고구려 오부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즉 이런 고찰은 최소한 고구려의 각 ‘那部’ 혹은 ‘部’가 血緣적 집단이라기 보다는 지역적 정치조직단위체이거나 그것들의 결합체이었던 實事를 적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오나부 가운데 고구려사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목되는 桂婁部·沸流(那)部·椽那部는 이미 大武神王에 이르러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나부의 실체는 闖入·戰士集團인 朱蒙集團이 자기의 우월한 군사역량을 매개로 高句麗社會에 존재하던 다수의 君長社會(chiefdom)를 국가 지배구조 내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人爲的·意圖的으로 分割된 국가의 下部單位政治組織이었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국가형성기 고구려에 있어서 那部の 형성과정 자체는 이후 그것들의 政治적 존재 樣態를 일정하게 규정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런 實事들은 大武神王 대의 고구려에 있어 계루부·연나부는 물론 비류나부가 그 국가 지배구조 내에서 行사할 수 있는 힘의 수준을 시사해주고 있다.⁶¹⁾

고구려는 鄒牟王·琉璃王·大武神王 대에 이미 戰爭과 祭祀를 매개기제로 하여 국가지배

58) 盧泰敦, 1975, 위의 글.

59) 金浩勳, 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洋史學會 編, 『東亞史上的 王權』, 서울, 한울아카데미, 121~122.

60) 朴京哲, 1997.9, 앞의 글; 朴京哲, 1998.11, 앞의 글.

61)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및 本紀 2의 大武神王條; 朴京哲, 1996.12, 앞의 글; 朴京哲, 1997.9, 앞의 글; 朴京哲, 1998.11, 앞의 글.

구조를 制度化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인 국가권력을 人格化함으로써 ‘國家(state)’로서 儼存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루부·비류나부·연나부는 이미 이때부터 국가의 하부정치단위로 分割·組織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國家權力과 그것의 窮極的 淵源인 主權의 共有現象을 前提로 하는 ‘聯盟王權’과 四那部の 國家權力 分有를 전제로 하는 從來의 諸 논의는 再考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思料된다.

이상에서 발표자는 고구려가 B.C. 1C~A.D. 1C [東明聖王→琉璃王→大武神王]의 3대에 걸쳐 “鄒牟王 創基→儒留王 以道興治→大解朱留王 紹承基業(「廣開土王陵碑文」)”이라는 國家形成過程을 거치면서 ‘國家’로서 聳立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那部體制論에 따른 太祖王代의 古代國家成立論 역시 본 발표와는 다소 접근 방향에 있어 다른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A.D. 1C 末을 前後한 五那部體制的 確立과 더불어 高句麗國家의 成立을 論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형성기 고구려의 국가성격은 國家形成論의 측면에서 ‘專制的 軍事國家(despotic military state)’의 성격이 濃厚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國家 支配構造의 人的 基盤이라는 측면에서 ‘軍事貴族制(militocracy)’社會에 바탕을 둔 국가였다. 당시 고구려는 그 주요 支配階層이 軍事貴族으로 充員되는 恒時 武官이 文官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支配秩序의 측면에서 ‘身分制’를 기축으로하여 운영되는 ‘身分國家’였다. 고구려는 애당초부터 신분제를 根幹으로 物理的 暴力에 바탕한 專一의인 통제력이 支配·生産·日常儀禮에 대해 貫徹되는 국가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형성기 고구려는 ‘專制的 軍事國家’에서 출발한 ‘軍事貴族制’에 입각한 ‘身分國家’로서의 성격을 顯現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기 고구려의 국가성격은 이후 高句麗史의 전개에 있어 그 내재적 屬性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⁶²⁾

VII. 結言: 高句麗 國家形成期 ‘卒本時期’의 歷史的 位置

발표자는 고구려 국가형성과 관련하여 韓國學界에서 주로 거론 되는 기본적인 논의들을 本稿 I·II·III 章에서 考察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高句麗社會(IV章)’에서 ‘高句麗 國家形成(V章)’에 이르는 歷史的 過程을 주로 본 발표자의 觀點에서 概觀해 보았다.

오늘날 한국 학계는 準據視點의 如何를 不問하고 高句麗 國家形成期를 대체로 B.C. 1C~A.D. 1C, 그 前史인 高句麗社會期를 B.C. 3C~B.C. 1C 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韓中學術會議의 主題인 ‘卒本時期(37 B.C.~3 A.D.:琉璃王22)’는 B.C. 1C~A.D. 1C라는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한 段落을 이루는 짧은 시기이다.

62) 朴京哲, 1996.12, 앞의 글.

中核地(core area/nuclear region/nuclear core)란 國家가 誕生·組織되어 그 國家의 政治權力이 集中된 比較적 좁은 地域을 指稱한다.⁶³⁾

그런데 卒本時期 高句려는 이미 전방위적 군사팽창 정책의 수행과 이에 바탕한 始祖에 대한 charisma 賦與라는 國家권력의 人格化 시도 및 琉璃王 대의 那部의 始置·大輔制 運營⁶⁴⁾ 등 國家經營을 위한 權力裝置 稼動 등이 이미 進行되고 있었다.

즉 高句려는 鄒牟王 이래 먼저 小水貊의, 그 다음으로는 大水貊에 속한 諸君長社會의 통합과 세력 재편 노력을 통해 高句麗國家를 형성하고, 鴨綠江 중류 유역 左岸에 자리한 그것들의 國家 지배구조 내로의 통합·재편은 자기의 全方位의 國勢膨脹戰略에 副應, 合目的의 으로 또 漸進的으로 進전시켜 나갔다. 國家형성기 高句려의 세 那部 형성과정 역시 이러한 高句려사의 전개와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桂婁部는 王室과 그 衛星勢力인 여러 君長社會와 勢力集團들이 결합된 政治勢力單位로 우선적으로 組織化되었을 것이다. 즉 琉璃王은 ‘鄒牟王→類利’로 연결되는 血緣集團을 高句麗의 王室로 삼고, ‘烏伊·摩離·陝父’로 지칭되는 鄒牟王의 直系집단 및 ‘屋智·句鄒·都祖’로 대표되는 자기의 直轄 집단과 君長社會 수준의 扶芬奴 집단과 ‘克氏·仲室氏·少室氏’ 집단·優台 집단 같은 局地的 集團級 社會單位는 물론 沸流·濫祚 세력의 이탈로 瓦解狀態에 빠진 召西奴 집단의 殘留 세력을 흡수, 이들을 자기 王室의 위성세력으로서 편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桂婁部는 琉璃王이 그 卽位 초 자기 支配基盤을 鞏固化하는 과정에서 왕실과 그 위성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人爲的으로 구성된 政治組織으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沸流(那)部의 실체는 본래부터가 세 個 이상의 國지적 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君長社會였던 바,⁶⁵⁾ 이 점이 “立宗廟, 祠靈星社稷”하는⁶⁶⁾ 별개 祭祀體制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권을 享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沸流那部의 특권 또한 國家 支配構造 內에서 制度的으로 보장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⁶⁷⁾ 따라서 沸流那部의 國家 支配構造 內에서의 位相 또한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갔던 것이다.⁶⁸⁾

琉璃王은 기존의 자기 직할세력인 桂婁部를 확대·개편하고, 또 새로 통합된 大水貊에 속하던 諸君長社會를 재편, 國家권력의 새로운 運用單位로 편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椽那部는 高句려가 國초 이래 상대적인 獨自性을 보유한 沸流那部를 견제코자, 琉璃王

63) 任德淳, 1973,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64) “琉璃明王二十二年(3 A.D.) 十二月 王田于質山陰 五日不返 大輔陝父諫曰···王聞之震怒 罷陝父職 俾司官園 陝父憤去之南韓.”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65) “大武神王十五年(32 A.D.)春三月 黜大臣仇都·逸苟·焚求等三人爲庶人 此三人爲沸流部長 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 有不與者 卽鞭之 人皆忿怨”(『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66)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條.

67)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十五年(32 A.D.) 春三月 條

68) 『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條.

代 이래 A.D. 22年 사이에⁶⁹⁾ 大水貊系の 적어도 네 개 이상의 諸君長社會를⁷⁰⁾ 人爲的으로 편제한 정치조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형성기 고구려에 있어서 那部の 형성과정 자체는 이후 그것들의 存在樣態를 일정하게 규정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은 大武神王代의 고구려에 있어 桂婁部·椽那部는 물론 沸流那部가 그 국가 지배구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수준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졸본 시기는 비록 그 시간적 短期性에도 不拘하고 국가형성기 고구려의 中核地로서의 구실을 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9) 大武神王五年(22 A.D.)秋七月扶餘王從弟……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安置椽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70) 故國川王十二年(190 A.D.)秋九月 京都雪六尺 中畏大夫沛者於畀留·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 并恃勢騎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怒欲誅之 左可慮等與四椽那謀叛(『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高句丽国家形成期“卒本时期”的历史地位

朴京哲 (江南大学校)

〈目次〉

- 一. 序言
- 二. 积石冢筑造集团与“高句丽社会论”
 - (一) 濊貊与高句丽
 - (二) 貊系文化论
 - (三) 高句丽积石冢的起源
 - (四) 高句丽社会论
- 三. 高句丽国家形成的主体集团
 - (一) 貊系主体论
 - (二) 扶余系主体论
 - (三) 文献资料与考古学资料的非整合性
 - (四) “濊君南闾”的实体
- 四. 关于高句丽国家形成的两种视角
- 五. “高句丽”社会的发展(公元前3世纪~公元1世纪)
 - (一) 高句丽社会的基底集团(‘屯’或‘村’)的胎动(公元前3世纪~)
 - (二) 高句丽社会“局域集团”(‘那集团’或‘谷集团’: the local group)的成立(公元前3世纪~公元2世纪初)
 - (三) 高句丽社会“地域集团(‘那’或‘国’: the regional group)”的成立(公元前2世纪初~公元1世纪)
- 六. 高句丽的国家形成(公元前1世纪~公元1世纪)
- 七. 结语: 高句丽国家形成期“卒本时期”的历史地位

一. 序言

公元前3世纪以来以貊系居民为中心经过一定的发展,¹⁾ 于公元前1世纪~公元1世纪兴起于东北亚的一个角落, 并建立起自己的王国(kingdom)即“高句丽”。

1) 朴京哲:《高句丽的国家形成研究》, 高丽大学大学院历史学科博士学位论文, 1996. 12; 朴京哲:《高句丽与濊貊——高句丽的住民及其文化系统》,《白山学报》48, 1997; 朴京哲:《公元前1000年纪后半期积石冢筑造集团的政治性存在样式》,《韩国史研究》98, 1997.9; 朴京哲:《高句丽社会的发展和政治性统合努力:理解国家形成期高句丽历史的前提》,《韩国古代史研究》14, 1998.11; 朴京哲:《高句丽的国家形成》, 东北亚历史财团《高句丽的政治与社会》, 2007。

高句丽在建国初期，以全方位的军事膨胀政策克服了自身存在的生存环境的恶劣性和经济基础的薄弱。公元4世纪末以后，高句丽在东北亚地区构筑了独立的生存圈(lebensraum)，发展成为一个帝国(empire)。²⁾

笔者认为高句丽国家(state)之所以制定持续的、执拗的军事膨胀政策并成功地付诸实施，与其国家内在的取向或倾向性相关甚深。若要全面了解高句丽的国家性质，应由源头即从它的国家形成过程说起。

高句丽国家形成问题是韩国学界争论的热点之一。各位学者从不同的视角出发，运用不同的研究方法对此问题进行了深入研究，其研究成果可谓仁者见仁，智者见智。

本文围绕高句丽国家形成问题，在介绍迄今为止韩国学界争论的几个问题的同时，提出了自己的一些见解，希望可以为韩中两国学者探讨和弄清该问题提供一线索。

二. 积石冢筑造集团与“高句丽社会论”

(一) 濊貊与高句丽

当今韩国学界极为关注作为东北亚居民移动的大枝干的古亚细亚族(Palio-Asiatics)和Altai语族的迁移问题。韩国学界认为作为韩国青铜器文化享有者的濊貊，其征服、吸收、同化、统合作为代表青铜器文化的古亚细亚族的过程，即为韩民族的形成过程。³⁾

我们知道濊貊原属Altai语族，后由Altai语族分离而出，形成了一个独立的民族单位。阐明其实体，成为研究韩民族的起源、形成问题的焦点。此外，这也是我们研究古朝鲜和扶余，以及高句丽的居民构成及文化系统的一把钥匙。⁴⁾

2) 朴京哲：《高句丽军事力量的再检讨》，《白山学报》35，1988；朴京哲：《为考察高句丽军事战略的一试论：以平壤迁都以后高句丽军事战略的志向点为中心》，《史学研究》40，1989；朴京哲：《高句丽异种族支配的实相》，《韩国史学报》第15，2003.9；朴京哲：《高句丽边方的扩大与构造的重复性》，《韩国史学报》19，2005.3.30；朴京哲：《高句丽的东蒙古经略》，《白山学报》71，2005.4.30。

3) 金贞培：《韩国民族文化的起源》，1973。卢泰敦：《对韩国民族形成的理论考察》，《韩国古代史论业》1，1991.5，该文在批判前文的同时，也有多样的接近和认识；韩永熙、李鲜馥、卢熾真、朴善周：《韩国民族的起源与形成(上)》，小花1997年参照。

4) 学界关于‘濊貊’的研究史性质的检讨有：朴京哲：《高句丽‘民族’问题认识的现状与课题》，《韩国古代史研究》31，2003.9；朴京哲：《关于濊貊、扶余与高句丽的正体性研究》，《高句丽研究18：高句丽正体性》，2004.12，参考；此外，在论述过程中对经常涉及‘民族’、‘种族’、‘族属’等关于住民集团的概念，对它们的区分

(二) 貊系文化论

深刻剖析代表韩国青铜器文化的“濊貊文化”中“貊”系文化的实体，有助于我们理解高句丽的住民及其先行文化或基底文化的脉络。郑汉德为揭示貊系青铜器文化的实体，以无文土器—美松里型土器为根据，论证“美松里类型文化”的存在。即他将这种美松里类型文化的承担者比定为貊系民族，特别指出他们存在于浑河、太子河、鸭绿江中下游地区。他以这些考察为基础，进一步指出辽河中下游流域至清川江以北地区在公元前1000年纪的前半期到公元前4~5世纪，至少至公元前3世纪，存在着与中原文化不同的独立的文化，而高句丽族—貊族系统就是栖息和活动在这里。⁵⁾

朴京哲援用考古学界的相关研究成果，对中国东北地区濊貊系诸集团的文化进行了区分。他认为：至公元前10世纪，辽西地区以琵琶型铜剑文化为中心形成了濊貊文化圈。在公元前7~8世纪以后，辽宁地区至韩半岛的各个地区根据生态的、地政学的、生业经济的条件和即应的“发展的不均等性”或生态的适应战略的差别性，分离出异形同质的种族、住民集团，并分化发展成为下位文化圈。他指出对“濊貊文化圈”的考察是进一步阐明古朝鲜、扶余、高句丽等住民的构成和文化，以及国家形成的先决条件。特别值得指出的是，他认为公贵里类型文化⁶⁾是高句丽的先行文化或基底文化。⁷⁾

(三) 高句丽积石冢的起源

余昊奎认为铁器文化的传播与积石冢的起源具有相互关联性。⁸⁾但是朴京哲强调在以公元前5~4世纪为转折点的青铜器时代，迈向铁器时代的中国东北地方，其基底文化的变化是整个地区同时发生的，具有共时性。他还指出与以土

可参考朴京哲，前文，2003.9。

5) 郑汉德：《美松里型土器的生成》，田存晃一编：《东北亚考古学：天池：东北亚考古学研究会二十周年纪念论文集》，东京，六兴出版社，1990；郑汉德：《有关美松里型土器形成期的若干问题》，东亚细亚考古学研究会编：《东北亚的考古学第二：槿域》，(汉城)深泉1996年。

6) 黄基德：《朝鲜的青铜器时代》，平壤，社会科学出版社，1984；藤口健二：《朝鲜无文土器与弥生土器》，《弥生文化的研究》3，(东京)雄山阁1986年；东潮：《高句丽以前的东北亚》，东潮·田中俊明编著《高句丽的历史与遗迹》，(东京)中央公论社1995年。

7) 朴京哲：《关于扶余史展开的再认识试论》，《白山学报》40，1992；朴京哲：《高句丽与濊貊：高句丽的住民及其文化系统》，《白山学报》48，1997.6；朴京哲：《关于濊貊·扶余与高句丽的正体性研究》，《高句丽研究》18(高句丽正体性)，2004.12。

8) 余昊奎：《高句丽初期那部统治体制的成立与运营》，《韩国史论》27，1992。

圜墓为基本墓制的其他地域(中国东北地方及韩半岛西北部地区)不同,鸭绿江中游一带出现了集中筑造积石墓的现象。如果仅以铁器文化的普及、扩散为由解释这一现象,恐怕难以令人信服。⁹⁾

最近,耿铁华提出高句丽积石墓起源于新石器时代辽西地区的红山文化(位于辽宁省凌源·建平县的境界牛河梁遗迹就是其代表遗迹)。¹⁰⁾但是卢泰敦认为考虑到两地区存在的时、空间的间隙,在如今看来很难苟同其观点。¹¹⁾

目前,关于高句丽积石墓的起源论有:辽东半岛渊源说和与其接脉的居民移动说、鸭绿江流域独自发展说等,这些都与发生论相接近。

对此朴京哲指出,积石冢的墓制本身或者先行于它的埋葬惯例皆属于公元前4~3世纪前后的貊族文化的公贵里类型文化,在中国东北地区的其他地方至今很少发现与之相适应的例子(青铜器时代的辽东半岛南端地区除外)。¹²⁾

部分学者在认定辽东积石墓先行于高句丽积石冢的前提下,进一步论证高句丽积石冢这一墓制的形成与辽东地区的关联性问题的。

郑灿永很早就提出:辽东半岛南端的岗上、楼上墓葬,特别是单独墓的双陀子墓应为高句丽无基坛积石冢的前身。¹³⁾

池炳穆认为考虑到地域和时间的隔差,以目前的研究成果来看,将公元前8~5世纪的辽东半岛旅大市附近的积石墓与鸭绿江中游的积石墓直接联系起来是不可能的。很可能是辽东地区筑造积石墓的集团在秦汉交替之后,为躲避中国势力的东进所引起的混乱,而迁至鸭绿江中游地区。¹⁴⁾

东潮与田村晃一则认为辽东半岛积石冢(岗上墓、楼上墓)的下限为公元前4~3世纪,这接近于鸭绿江中游一带积石冢的上限时期。因此可以认为高句丽的积石冢是公元前4~3世纪至公元前后时期,以辽东半岛地区的墓制为渊源,形成的高句丽特有的墓制。¹⁵⁾

但是近来池炳穆主张,公元前4~3世纪初之间辽东半岛地区积石墓的筑造集团与土圜墓筑造集团被燕势力逐出,来到鸭绿江下游地区,再迁至鸭绿江中游地区。¹⁶⁾

9) 朴京哲:前文,1996.12.

10) 耿铁华:《高句丽起源和建国问题探索》,《求是学刊》,1986年 1期。

11) 卢泰敦:《概要》,国史编撰委员会,《韩国史5:三国的政治与社会1-高句丽》,1996;卢泰敦:《高句丽的起源与国内城迁都》,金时俊编《韩半岛与中国东北3省的历史与文化》,首尔大学出版部1998年。

12) 朴京哲:前文,1996.12.

13) 郑灿英:《高句丽初期墓制的由来》,《考古民俗》,1967-4.

14) 池炳穆:《高句丽成立过程考》,《白山学报》34,1987.

15) 东潮:《积石冢的成立与发展:前期、中期的墓制》,前书,1995;田村晃一:《高句丽的积石冢》,田村晃一编《东北亚的考古学:天池:东北亚考古学研究会二十周年纪念论文集》,(东京)六兴出版社1995年。

16) 池炳穆:《辽东半岛与鸭绿江中下流地域积石墓的关系——试论高句丽积石墓的

朴晋煜对高句丽积石冢的辽东半岛起源说持否定态度。他认为与鸭绿江下游丹东地区宽甸县的太平哨公社琵琶型短剑相当的泡子沿为其先行墓制，他试图从属细型短剑时期的宽甸县四平街墓葬和赵家堡墓葬、凤城县的小镇街墓葬以及五道岭沟门的积石墓中寻找高句丽积石冢的起源。¹⁷⁾此外，朴京哲指出：目前辽东和鸭绿江流域的积石冢在构造上具有同质性已被证实，这暗示了鸭绿江下游地区的积石冢即是架桥辽东半岛南端的积石冢和鸭绿江中游地区积石冢的时、空间上的渐移地带。¹⁸⁾

另一方面，姜贤淑指出丹东以东地区至集安一带持续使用了石棺、积石墓、石盖石棺等石墓系统的墓葬，并未使用中国东北地区的土圜墓。他还特别指出，该地区积石墓的筑造民不顾铁器的普及，仍继续沿用与中国辽东其他地区相区别的积石墓，并结成区域集团。因此自公元前1世纪开始鸭绿江中下流地区形成了大规模的积石冢群。¹⁹⁾

近期值得关注的是，余昊奎以千山山脉东部地区的青铜器/铁器时期文化迟滞现象为前提，试图以新的视角分析此问题。²⁰⁾

公元前4~3世纪，千山山脉东部(太子河中、上流/鸭绿江中、下流)和辽河中、上流和松花江流域皆出现了中间形铜剑²¹⁾，特别是千山山脉东部形成了兼有中间形铜剑和叶脉纹的文化。公元前3~2世纪，在千山山脉东部地区的鸭绿江中、上游出现了积石冢的筑造集团，这说明“原高句丽社会(高句丽社会)”的形成和发展。

因此，他认为鸭绿江中游地区的文化发展情况应是：公元前7世纪的公贵里文化→公元前4~3世纪的千山山脉东部的兼有中间形铜剑和叶脉纹的文化→公元前3~2世纪的鲁南里文化(积石冢文化：‘高句丽社会’形成)→公元前1世纪~公元1世纪的高句丽文化。

近期中国学界发掘了望江楼遗迹、万发拨子遗迹、干沟子古墓群，我们也期待在此领域能够出现更多深层次的研究成果。

(四) 高句丽社会论

公元前1000年纪后半期，中国东北地区的铁器文化有了长足地发展。与此

起源》，《史学研究》53，1997.6。

17) 朴晋煜：《朝鲜考古学全书》，平壤，科学百科辞典综合出版社1988年。

18) 朴京哲：前文，1996.12。

19) 姜贤淑：《关于高句丽积石冢的出现》，《京畿史学》3，1999。

20) 余昊奎：《高句丽的起源与文化基础》，东北亚历史财团，前文，2007。

21) “中间形铜剑”是指兼有琵琶形铜剑和细形铜剑的属性，剑身下段部隆起的铜剑。一直以来被认为是“后期形铜剑·变形剑·过渡形剑”。余昊奎：前文，2007。

同时，土圻墓成为辽宁东部、吉林等地区的濊貊系集团的基本墓制，并在该地区广泛扩散。但是在公元前3世纪以来，鸭绿江中游一带的部分貊系居民仍以积石冢为其墓制和埋葬惯例，并集中筑造。

朴京哲认为这是一种文化现象，这说明该时期鸭绿江中游的貊系集团的凝聚力有了显著的提高，他们作为高句丽国家形成前的一个主体，已开始显现出它的存在。他立足于君长社会(chiefdom)论²²⁾，重点考察了这些人所主导的国家形成这一政治存在形式的高扬过程。²³⁾

最近，韩国学界的争论焦点集中在了以下两点。首先，公元前3世纪以来高句丽在其作为“国家(state)”兴起前，在鸭绿江中游及其支流的浑江、秃鲁江流域一带存在筑造积石冢的貊系诸势力集团，并称他们或其存在形式为“原高句丽社会”²⁴⁾或“句丽种族社会”²⁵⁾或“高句丽社会”²⁶⁾；其次是阐明在国家形成期前，该地区积石冢筑造集团的实体及其存在形式(以下本文中简称‘高句丽社会’)。

三. 高句丽国家形成的主体集团

(一) 貊系主体论

金贞培认为“濊·貊·韩”是生存在同一时代的同一种族。他们在中国东北地区和韩半岛这一广阔的历史舞台上繁衍生息，根据不同的地域分布，其具体的存在形态存在一定的差别。他强调虽然从文献上看，濊貊所指的是先秦以来的韩民族，但从内容上看，濊或貊根据地域的分布各自独立。即在所有的资料中都将扶余人标记为“濊”，虽为同一种族，居住地不同的高句丽人被记录为“貊”。因此高句丽的国家形成主体应为貊系集团。²⁷⁾

另一方面，最近韩国学界的部分学者对“高句丽=貊系主体论”提出了怀疑，认为“‘濊貊’的实体为‘濊’而非‘貊’”。²⁸⁾

22)

23) 朴京哲：前文，1996.12；朴京哲：1997.9；前文，1998.11；前文，2007。

24) 池炳穆：前文，1987；余昊奎：《1~4世纪高句丽政权体制研究》，首尔大学大学院 国史学科 博士学位论文，1997.7。

25) 余昊奎：前文，1992；《鸭绿江中游的高句丽国家形成》，《历史与现实》21，1996；前文，1997.7；《高句丽的起源与文化基础》，东北亚历史财团，前文，2007。

26) 朴京哲：前文，1996.12；前文，1997.9；前文，1998.11；前文，2007。

27) 金贞培：《濊貊族研究》，《白山学报》5，1968。

28) 余昊奎：前文，2007。

依据上述观点，先秦时期的许多文献中出现的‘貉’应是对居住在中国北方的北方族属的泛称。而在先秦时期，渤海湾东部地区被认为是“夷秽之乡”，即秽族的居住地。原先的貉与《史记》之后的‘濊’相结合，泛指居住在中国东北地区的濊族。

即此观点认为构成高句丽住民集团的名称变化应是：‘濊’→‘濊貉’→‘貉（高句丽社会住民集团）’，其原实体应是濊。

（二）扶余系主体论

现存的资料中关于高句丽的国家形成过程和扶余史的展开相互关联甚深。根据这一点，学界提出“高句丽国家形成的主导集团=扶余系”的主张。但是，目前学界对扶余史的展开过程本身持有多种意见，这也成为我们阐明高句丽国家形成的主体问题的绊脚石。对此笔者认为可以先大致分为“北·东扶余通时性分歧论”与“北·东扶余共时性实在论”。²⁹⁾

北·东扶余 通时的 分歧论的基本观点是：朱蒙的故乡是松花江流域的北扶余(扶余)，于公元5世纪末合并于高句丽；公元3世纪末，鲜卑族慕容氏进攻北扶余，北扶余的一族建立了东扶余，在广开土王时被高句丽吞并。

卢泰敦(1989、1993)认为，应以公元5世纪时高句丽人意识中的自我“天下观”为前提，阐明《三国史记》、《三国遗事》及高句丽金石文中记载的“扶余·东扶余”的实体。即他认为当时的高句丽人将本国视为“中心”，与其相邻的扶余人的两个国家中，称位于高句丽北部的为北扶余，称位于其东部的为东扶余。³⁰⁾并以此为前提，指出桂娄集团并非出自鸭绿江中游，而是扶余方面。³¹⁾

但是学界的部分学者对高句丽建国时的北扶余、东扶余共时性实在说，以及以此为前提的关于朱蒙的出身都提出了自己的不同观点。中国学界中的相当一部分学者也赞同此说。³²⁾徐荣洙也认为被认为是高句丽建国时桂娄部故地的豆满江流域确实存在东扶余。此外，他还认为广开土王于公元410年远征的‘东扶余’所指的是，公元285年慕容氏灭亡北扶余后，其残余来到与其具有亲缘关系的东扶余故地后形成的势力。进而将此东扶余的灭亡与公元494年“扶余王来降”与高句丽事件相联系来理解。³³⁾

29) 朴京哲：《不同的扶余，东扶余和小扶余豆莫娄》，《古朝鲜·檀君·扶余》，高句丽历史财团2004.11。

30) 朴京哲也根据《北·东扶余 通时的 分歧论》，对此问题展开了论述(《关于扶余史展开的再认识》，《白山学报》40, 1992.12；前文, 2004.11)。

31) 卢泰敦：《扶余国的疆域及其变迁》，《国史馆论业》4, 1989；卢泰敦：《朱蒙的出自传承与桂娄部的起源》，《韩国古代史论业》5, 1999.3。

32) 可以张博泉与孙正甲的主张为例。张博泉：《扶余史地业说》，《社会科学辑刊》，1981-6；孙正甲：《扶余源流辨析》，《学习与探索》，1984-6。

(三) 文献资料与考古学资料的非整合性

如果认为主导高句丽国家形成的是扶余系流移民集团，那么，又应如何理解建国主导势力与基层住民集团间的相关性问题。现存的文献及金石文资料还不能提供与此相关的任何线索。特别是从考古学资料的层面来看，这一点更令人怀疑。因为当时的墓制发生了变化，即以松花江流域为中心的扶余的墓制由石棺墓向以土圜墓为中心转变。与此相反，公元前3世纪以来，高句丽社会以积石墓代替石棺墓，而且集中筑造积石墓的现象非常突出。这在被认为是扶余族一员的朱蒙南下后仍未发生变化。由此可以看出上述观点存在严重缺陷。

朴京哲对此也很关注。他试图从“解慕漱－河伯－柳花－朱蒙”集团的有机关系中考察公元1世纪中期以来高句丽社会内部志向于政治统合的力动性的端倪。朴京哲认为在朱蒙建国前的1个世代，解慕漱－柳花集团由于遭到扶余方面的排斥退出了该地区。公元1世纪后半期朱蒙集团作为新兴的建国主导势力崛起于该地区。可以说，朱蒙集团出自解慕漱－柳花集团，解慕漱－柳花集团即貊系的闯入·战士集团。同时他还指出，朱蒙集团虽出自“北扶余”且建立了国家，但并未给整个高句丽社会带来大的文化冲击或变化。³⁴⁾

近来，在桓仁县望江楼积石冢中出土与西丰县西岔沟遗迹和榆树县老河深的扶余墓类似的遗物³⁵⁾。这些遗迹很可能是扶余系流移民的遗迹。³⁶⁾今后根据考古发掘的情况，如果出土更多关于鸭绿江中游地区和松花江流域之间的交流或住民遗住的遗物，那么，相信我们在朱蒙建国的真实性问题，以及与此相关的“文献资料与考古学资料的非整合性”问题上都会取得更多的进展。³⁷⁾

(四) “濊君南闾”的实体

公元128年，28万濊君南闾集团降于汉帝国，汉帝国策划在此地设置“沧海郡”。目前韩国学界将濊君南闾同高句丽社会的发展相结合考察的观点占据优势。³⁸⁾

但是栗原朋信(1960)认为，《三国志》扶余传中出现的“濊王之印”是汉赐予濊君南闾的印章，³⁹⁾濊君南闾降汉后，成为汉的“内臣”。但是卢泰敦认为，濊

33) 徐荣洙：《对广开土王陵碑文征服记事的再检讨(中)》，《历史学报》119。

34) 朴京哲：前文，1996.12；前文，1998.11。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编，《榆树老河深》，1987。

36) 俞昊奎：前文，1996。

37) 卢泰敦：《高句丽人的种族和起源》(2007年度韩中学术会议发表论文)，2007。

38) 卢泰敦：《高句丽史研究》，四季，1999。

39) 栗原朋信：《‘濊王之印’与‘濊王之印’》，《先秦史研究》，1960。

君南间与卫满朝鲜对抗一段后降于汉，因此“沧海郡=扶余”的看法存在一些问题。⁴⁰⁾此外，朴京哲主张从“濊族”的栖息地寻找沧海郡的立地更为合理，并举了以下三个事实。

第一，不能称濊族的住地为“濊”，濊虽称自己的一部分为“濊貂”，但从未称自己为“貂”。第二，鸭绿江流域沧海郡因经营费用过多而遭汉的弃舍，而当时的卫满朝鲜位于濊君南间的南侧且相距甚远，就两国实力而言，濊君南间更是无法比拟。汉与卫满朝鲜激烈交战一年，最后是否取得胜利，仍存在疑问。最后，公元前2世纪末的高句丽社会的政治统合力虽取得了一定的发展，但当时位于该地区的濊君南间作为汉的“内属”，其政治命运同汉相连，且统辖着28万人口，高句丽不可能无视这一集团势力的存在。

朴京哲认为应从扶余的国家形成论的观点出发，阐明濊君南间的实体。⁴¹⁾

四. 关于高句丽国家形成的两种视角

韩国学界在讨论与高句丽国家形成有关的问题时对《三国史记》高句丽本纪初期记事的理解上大体上按两个方向进行讨论。

其一是消极的接受《三国史记》初期记事，以及在此基础上的太祖王代(公元53~公元146)古代国家成立论。其二是积极评价《三国史记》初期记事，认为高句丽国家形成期是《三国史记》所记载的那样“东明圣王·琉璃明王·大武神王(公元前37年~公元44年)”。

其中太祖王代的古代国家成立论又集中在以下两个焦点：一是太祖王代的王系交替论；二是太祖王代的那部体制成立论。

那部体制成立论意味着至太祖王代高句丽国家的基本统治框架已形成。这一观点经历了“部族国家论→部体制论”阶段，同时深化了它的具体性和适时性，成为当今韩国学界最有说服力的观点。⁴²⁾

部族国家论原本是持“部族国家→部族联盟→古代国家”的观点，认为高句丽自公元前2世纪以来经历了以“部族国家”为其原初形态的“部族联盟”阶段，至公元2世纪发展成为“古代国家”。⁴³⁾

此外，部族体制论在接受部族国家论立场的同时，更为重视作为古代国家

40) 卢泰敦：《高句丽史研究的现状与课题：政治史理论》，《东方学志》52, 1986。

41) 朴京哲：前文，1992；前文，1997.6。

42) 关于此方面的研究史整理，请参考朴京哲：《试论高句丽人的‘国家形成’认识》，《韩国古代史研究》28, 2002.12。

43) 金哲竣：《韩国古代国家发展史》，韩国日报社1975年；《Ⅱ-1,部族联盟势力的抬头》，国史编撰委员会，《韩国史2：古代—民族的成长》，1981。

成立期单位政治组织体的特性之一的地域性，相对淡化血缘性，提出了“部体制”的认识体系，即以“部体制”替代作为古代国家的“联盟体”确立。⁴⁴⁾指出至公元1世纪后半期太祖王代，高句丽已发展成为具有中央集权的古代国家。

太祖王代王系交替论的理论体系为[对《三国史记》高句丽本纪初期记事持怀疑态度，关注公元1世纪后半期太祖王的存在]→[阐明《广开土王碑文》的王系中无太祖王的理由；先确立以太祖为中心的王系认识，最终确立以邹牟王中心的《陵碑文》的王系认识，再以此为基础订立《三国史记》高句丽本纪中的王系认识]→[对《三国史记》高句丽本纪初期记事的真实性持怀疑态度]。

此外，韩国学界的部分学者从不同的角度看待此问题。其理论体系为：[由积极接受《三国史记》高句丽本纪初期记事的立场出发]→[《三国史记》高句丽王系认识=陵碑文(现存最早的金石文资料的王系认识)→[在认定邹牟王中心的王系认识的历史性、真实性的基础上，对高句丽历史上太祖王的历史性、有意味性的穿凿]→[《三国史记》高句丽本纪初期记事真实地展现了公元4~5世纪高句丽人的自我国家形成认识的具体真相]。笔者正是以这样的视角对国家形成期的高句丽历史进行了研究。⁴⁵⁾

五. “高句丽”社会的发展(公元前3世纪~1世纪)

“太祖王代=那部体制成立”论是将部体制论援用于高句丽史。学者间对于“高句丽社会”和高句丽国家形成过程的具体认识及其概念的内涵多少存在一些偏差。

有人提出至少在公元前40年时，对汉郡县斗争中发挥求心点作用的朱蒙集团作为联盟体的领导势力崛起于该地区。此种观点认为大武神王十五年以后，在太祖王代之前的一个时期，朱蒙集团形成了以桂娄部王权为中心，以五那部体制为基本框架的高句丽联盟体。此外，此种观点认为“那部”本身是由多个“谷(‘邑落’)”为其组成单位，即将“那部”看作是一个“小联盟体”。“高句丽王国”就是这样的5个小联盟体的总和。初期有消奴部即沸流部占据了联盟王权，后由桂娄部接替了消奴部的支配地位，并巩固了联盟王权的基础，至太祖王时期确立了五那部体制。[谷集团→那国→那部=那国的小联盟体→五那部

44) 卢泰敦：《对三国时代的‘部’的考察》，《韩国史论》2，1975；卢泰敦：《Ⅲ-1.三国的成立与发展》，《韩国史2：古代-民族的成长》，国史编撰委员会，1981；卢泰敦，〈高句丽的历史与思想〉，韩国精神文化研究院 哲学宗教研究室编，〈韩国思想大系〉(2)，韩国精神文化研究院1991年。

45) 朴京哲：前文，2002.12。

体制(国家)].⁴⁶⁾

此外还有一种观点认为：公元1世纪初·中叶，句丽种族社会形成了被称为“那部体制”形态的以桂娄部为中心的“国家权力”。他们认为公元前3世纪末形成了“原高句丽社会”、“句丽种族社会”。公元前2世纪中叶，它们中间有些成长为“那”，公元前1世纪前期在驱逐玄菟郡的过程中，形成了“那国”及由它们结成的“那国联盟”，这些“那国”和“那国联盟”再根据区域形成了更大的单位政治体。此外，他们还认为公元1世纪初～3世纪后期，桂娄集团将这些不同地区的政治体编制成下属单位政治体—“那部”，高句丽初期史的展开就是“那部体制”、“那部统治体制”完成、运转的过程。此外，他们还认为此那部体制经历了公元3世纪以来的解体过程，在公元4世纪以后最终确立了“集权的贵族国家”。[那集团→那国→那部=那国联盟→五那部体制(国家)→集权的贵族国家]。⁴⁷⁾

那部体制论认为，高句丽的国家形成是对鸭绿江中游一带实施统治力的求心体的成立，其时间跨度是公元前1世纪朱蒙集团的出现至公元1世纪太祖王时期。

笔者对以上观点持有异议。笔者将依照《三国史记》中的“东明圣王·琉璃明王·大武神王(公元前37年～公元44年”，分析高句丽的国家形成期。笔者立足于君长社会(chiefdom)论，重点分析“国家形成”这一政治性的存在样式的高扬过程。⁴⁸⁾

(一) 高句丽社会的基底集团(‘屯’或‘村’)的胎动(公元前3世纪～)

公元前3世纪，鸭绿江中游开始形成了以“积石冢筑造集团”为中心的“高句丽社会”。公元前4～3世纪，鸭绿江中游地区的貊系居民在再编濊貊文化圈整个势力构图的漩涡中，以“屯”或“村”为实体，似乎在努力确保基底集团的生存基础。

可以说高句丽社会的基底集团是由别居的单婚家族为特征的世带聚居形成的居住群—世带复合体，以及以世带复合体为组成单位的世带符合体群居住

46) 林起焕：《高句丽初期的地方统治体系》，《庆熙史学》14，1987。

47) 余昊奎：前文，1992；余昊奎：前文，1996；余昊奎：前文，1997。

48) 最近，政治人类学界的部分学者认为，人类的政治、经济、社会发展的进展相为[the family level group=the band→the local group(局部地区集团)=the tribal level→the regional group(地域集团)]。分为单纯君长社会(simple chiefdom)与复合君长社会(complex chiefdom)的君长社会归结为“the regional group”。Allen W. Johnson & Timothy Earle, 1987,《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5~22; Timothy Earle, 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Edited by Tim Ingol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Culture and Social Life》, New York, 1994, Routledge, pp.940~961, 朴京哲译：《政治性的支配与社会进化》，《史业》50，解题，1999.12。

的“小规模聚落”。因此可以推断，高句丽社会的基底集团是由多个血缘集团以地域为媒介结合而成的。

在一定空间内，确立了主导权的基底集团与实力较弱的集团间产生优劣差异的同时，以前者为中心，高句丽社会的基本社会单位—“局域集团(local group)”的形成开始进入胎动期。此时部分基底集团的指导者开始崭露头脚，他们为确立自己在集团内部的优越性和差别性，同时向外集团夸示本集团的势力，开始筑造无基坛积石冢。

(二) 高句丽社会“局域集团”(‘那集团’或‘谷集团’: the local group)的成立(公元前3~2世纪初)

可以推断在公元前2世纪初，在一定的空间内，同时存在的几个基底集团以武装实力最为强劲的一个基底集团为中心，根据一定的阶序关系形成了规律的社会单位—“那集团”或“谷集团”的“局域集团”。狭小的空间、有限的可耕地加上人口压力，这些不利因素作为一种内在的规定性发挥作用，这也是高句丽社会的形成过程显得极为暴力的原因之一。而这一地区的基底集团集结、成长成为局域集团的过程中所表现出来的暴力的、压抑的氛围成为一种普遍情绪扎根于高句丽社会。

因此可以说，公元2世纪高句丽社会形成的局域性集团是以物理性的暴力为基础，通过组织化的武装冲突成长起来的集团，这也是局域性集团的特征之一。同时，它还与整个高句丽社会进行的“军事化(militarization)倾向”不无关系。

公元前3世纪至2世纪初，貊系居民为适应生态环境，表现出了过度的军事化倾向。此间高句丽社会的形成过程可以说是，以诸基底集团的物理性暴力为基础，作为营造无基坛积石冢的社会单位—诸局域集团的形成过程。

(三) 高句丽社会“地域集团(‘那’或‘国’: the regional group)”的成立(公元前2世纪初~1世纪)

卫满朝鲜、扶余、汉势力的存在，对于当时高句丽社会的成长·统合而言，既是刺激剂又是枷锁。公元前2世纪初开始的高句丽社会的政治统合，至2世纪末已初见成效。此间高句丽社会为对抗外部势力的渗透，与政治统合同步进行了军事力量的累积。

此外公元前2世纪初以来，构成高句丽社会的社会单位—那集团、谷集团等诸局域集团正处于君长社会(chiefdom)水平的“那”或“国”之类的“地域集团”的形成过程。这里所说的“君长社会”是指以首长为中心的，依靠特定血缘集团进行统治，并以地缘为基础的“地域集团(regional group)”。或者也可以解

释为：以“国邑”和“诸邑落”为中心形成的“一个完整的单位政治体”。通常称它们为“城邑国家”或“小国”、“初期国家”，其实体为君长社会。⁴⁹⁾

高句丽社会以那或国等区域集团成立的公元前2世纪末为转机，营造基坛积石冢来取代无基坛积石冢。这种积石冢筑造样式的变化也说明，集团内部劳动力动员机制较之以往有了实质性的进展，发展到足以保证巨石的搬运、加工和构筑等工作。同时通过墓制这一文化规范也可以说明，一定区域的特定血缘集团已发展成为集权的君长社会的历史现实。

公元前2世纪末，高句丽社会内多数的那与国之类的区域集团形成和发展。公元前2世纪前后鸭绿江中游地区发生的一些新的状况，使中国人在观念上发生了变化，特别称呼居住在该处的居民及其筑造积石冢的分布区域为“句丽”，以与“朝鲜”和其他“秽貊”集团相区别。

公元前2世纪末，汉出兵灭卫满朝鲜(公元前108年)，在朝鲜故地设置汉郡县。特别是玄菟郡的设置(公元前107年)表现出汉势力向东北亚方面的积极膨胀，这使兼有那与国等区域集团水准政治经验的高句丽社会各集团之间的政治摩擦日益增加。但此时高句丽社会内部也悄然发生着变化。为抵御外敌和有效地制止社会内部频发的摩擦和分裂活动，为保证和推进实质性的统治统合，高句丽社会内部正酝酿创造出更为高端的政治性的存在形式。

以上介绍了目前韩国学界存在的两种不同的观点，同时阐述了笔者对相当于高句丽国家形成前历史的高句丽社会的成长与发展的一些看法。但不论是那部体制论，或是笔者的主张，或是高句丽社会发展论，它们与政治人类学的认识框架，即[那集团/谷集团=局域集团(local group)→那/国/那国=地域集团(regional group)或君长社会(chiefdom)→国家(state)]出入并不大。

六. 高句丽的国家形成(公元前1世纪～公元1世纪)

“太祖王代=那部体制论”不无将国家支配论之那部体制论与国家形成论归于同质性范畴之后，进行议论之感。这种将那部体制论视同国家形成论，将在视角上导致将层次各异的国家形成和国家支配结构的发展问题相混同的结果。⁵⁰⁾

49) Timothy Earle：前文，1994；朴京哲：前文，1997.9；朴京哲：前文，1998.11。

50) 韩国学界提到这种认识上的混同问题的，有：金瑛河：《新罗的百济统合战争与社会变动：七世纪东亚细亚国际战与变革的一环》，韩国古代史学会，《韩国古代史战争与社会变动：韩国古代史学会第12届学术讨论会论文集》，1992.4；金瑛河：《古代国家的政治体制发展：“关于部体制论”的替代所见》韩国古代史学会，《第一届韩国史学会夏季研讨会发表论文(另文发表文章)》，1992.7.29-7.30。关于这些主张中提出的部体制论的立场，有卢泰敦：《初期古代国家的国家构造和政治运营——以部体制论为中心》，1999.7.29-7.30。

众所周知,任何集团的政治存在方式是以高度复合的政治组织体高扬到国家水准为契机而使其生活在质和量方面实现与此前不同的层次。⁵¹⁾即国家(state)是在一定空间范围内存在的各君长社会中最为强大的一支,通过力量来融合周围的其它,是在征服和统合的过程中屹立的高度复合的政治组织。这种诸君长社会累积的统合征服过程中释放出的活力,成为国家形成的energy。因此即使太祖王代所谓那部体制这一支配体制移动过,这一事实与已往持续下来的高句丽国家的存在根据是相同的。因此,塑造值得肯定的准确的高句丽史像,首先是说明国家形成的真实形象,以在国家形成过程中的dynamics中喷出的energy为基础来讨论生长发展的国家支配构造问题,才是可取的。最后,想指出高句丽国家形成讨论与“中央集权的古代国家”成立间的关系问题。⁵²⁾中央集权化并不是在国家的形成阶段形成的,而只是在其成立、膨胀之后在与“中央(center)-周边(periphery)”的关系结构中进行的政治、经济、社会、文化现象的一个过程。如果在这样的构造中,将力学关系上的中央集权化视作国家形成的认识指标,将容易忽视在此前的国家兴起后中央将其力量放射、扩散的政治、军事行为等为中心的相互关联关系的意义。因此,中央集权化体现的只是国家发展的一个断面,不能看作是国家形成论的前提或认识的根据。因此,应注意:“中央集权的古代国家”成立是不应从国家形成论,而是应从国家支配构造论层面上进行探讨的论题。⁵³⁾

当时,在高句丽社会的构成人员中,正是因持续不断的汉族势力侵入企图与扶余在此方面的进出打算以及靺鞨的跋扈和鲜卑的攻势而加重的外压及由频发的相争而导致的危机意识高扬的时候。因此,国家形成期前后,要比鸭绿江中流流域的居民更期望创造更高水平的政治存在样式,及国家的形成。

高句丽的国家形成过程是以战争和祭祀为媒介机制,以力量为基础的权力机构的制度化和权力的人格化逐渐得到巩固的过程。在这种情况下,战争创造权力的实质性基础,祭祀则履行赋予其理论基础的作用。同时《三国史记》高句丽本纪的初期记事,很好地揭示着这种国家形成的过程。⁵⁴⁾

国家形成期高句丽处于因人口增加和可耕土地的限制而不得不寻求摸索消解其过重负荷的困境。但是,在韩半岛西部和辽宁地区设置的汉郡县却成为阻碍高句丽与物质、人力资源丰富的西部、北部、西南部地区的出口接近的障碍物。高句丽希望通过行军事力量来突破“将我们团团围住(a circumscribed environment)”的状况。

这一事实揭示高句丽在国家形成时期,已开始在全方位的扩张国势的战略

51) Timothn Earle :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1994.

52) 朴大在 : <辰韩诸国的规模与政治发展阶段> 高丽史学会 《韩国史学报》 2, 1997.3.

53) 上述主张参考朴京哲 : 前文, 2002.12.

54) 朴京哲 : 前文, 1996.12.

意图。同时,这种军事行动的有效履行,是高句丽创造活力的根本动力。⁵⁵⁾这样,早在国家形成时期,高句丽已为了(实现)生存与发展的战略,选择了持续构筑军事实力的政策、露骨的军事膨胀政策、对被征服居民的集团隶属化政策、集团徙民政策等,走自己的发展道路。从这一点上,开始展现作为“专制的军事国家(despotic military state)”的面貌。⁵⁶⁾

当初被其妻视为“非常人”的高句丽始祖朱蒙,在其孙无恤时已被视为“神灵之孙”。以这种认识为基础,开始促进所谓“天帝之子,母河伯女郎”的朱蒙神格化。公元20年,大武神王通过建立东明庙,以东盟这一祭天行事与将东明庙作为ideology的媒介的国家祭祀礼仪制度化(方式),开始固定自先代王以来促进的权力的人格化理念。

国家形成期以后至公元30年,在构成高句丽支配体制内涵的中央统治构造、地方统治构造、军事制度等的运营过程中,被提到起了核心作用的权力机构就是“五那部”的存在。因此,围绕此桂娄部与“四那部”的实体与性质,韩国学界早有不少论争。

《三国史记》上的“那部”与《三国志》中的“部”可以视作同一实体。即后者“涓奴部”,“奴=那”,⁵⁷⁾“部”及部族,常用在汉族对北方异种族组织的习惯性称谓中。从这种视角上看,“四那”、“五部”是各历史叙述集团对同时代同一集团,出自不同角度的自我表现。这时,对成为其叙述对象的历史诸现象的正确认识,便成为把握当时实在的政治组织单位的历史实体所付出的努力中的关键。《三国史记》中“桂娄部”没有明显出现,同时各与“那”相关的具体历史诸事实以panorama式标示,从一个侧面证明当时以高句丽本纪初期纪事的叙述是以国家形成期以来主导建国的桂娄部为中心的史料为底本,由后代再编辑而成的。相反,《三国志》是将中国人的见闻和汉族的“部族”认识等的自身的历史经验为基础叙述的,应留意这一点。

55) 即东明圣王代的公元前37年靺鞨征服,公元前37-36年制服沸流国,公元前34年的荇人过征伐,公元前28年攻破北沃。琉璃王时期有公元前9年进攻鲜卑,公元前6年的高句丽攻击扶余遭受的挫折,公元12年高句丽与新的军事冲突,公元13年高句丽与扶余的鹤盘岭会战,公元14年的攻灭梁貊及汉的强攻高句丽县。大武神王时期也有公元21-22年的攻击扶余战争,公元26年的盖马国征伐及句茶国来降,公元28年的辽东太守的来攻,公元32、34、44年向乐浪方面的进出企图等,可为实例。《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及本纪2的大武神王条;朴京哲:上文,1996.12;朴京哲:前文,2002.12。

56) “The despotic military states seem to be definitely products of slaving, new weapons, population removals and outright colonialism”. Elman R. Service 1968, 『War and Our Contemporary Ancestors』, Morton H. Fried, Marvin Harris & Robert Murphy eds., 『War: The Anthropology of Armed Conflict and Aggression』, New York: The Natural History Press.

57) 卢泰敦:《关于三国时代“部”的考察》,《韩国史论》2,1975。

但是,如果说高句丽“五部”是汉人对游牧诸族的势力编制单位-部族的认识形成的,⁵⁸⁾就有必要正确把握游牧诸族。即把握游牧社会的部族是血缘集团,还是以地缘性为基础的拟制的血缘集团,或者更加符合目的的人为的编制,这将成为正确地接近当时的中国人所认识的高句丽五部实体的捷径。但是,今天,关于游牧社会的研究成果,是将“部族”当成“依据现实必要而结成的,以拟似血缘的纽带为前提而结合的地域单位的政治集团”,⁵⁹⁾对把握当时的中国人所认识的高句丽五部的实体以不少启迪。即这种考查至少与其将高句丽的各“那部”或“部”看成血缘集团,不如说揭示着其是地区性的政治组织单位体或他们的结合体这一事实。

五那部中,在高句丽历史的展开过程中被认为是起了重要作用的桂娄部、沸流(那)部、椽那部在大武神王时已明显显露了其实体。但是,这样的那部的实体是闯入·战士集团之朱蒙集团以优越的军事力量为媒体,将此前高句丽社会中存在的大多数君长社会编入国家支配构造中划分的人为的、有意识的国家下部单位政治组织。⁶⁰⁾

当然在这样的国家形成期,对高句丽来说,那部的形成过程本身,一定程度上规定了他们的政治存在形态。同时,这些事实都揭示着在大武神王时代的高句丽的桂娄部、椽那部,以及沸流部,在其国家支配结构内能够行使的力量水平。⁶¹⁾

高句丽在邹牟王、琉璃王、大武神王时代已经以战争和祭祀为媒体,将国家支配结构制度化,通过将推动国家权力的人格化而使国家俨然存在。同时桂娄部、沸流那部、椽那部这时起被划分、组织为国家的下层单位。因此,以国家权力和其最终渊源之主权的共有现象为前提的“联盟王权”和以四那部的国家权力分有为前提的从来的主张,我想应有再考的必要。

在以上的论述中,笔者确认了高句丽自公元前1世纪至公元1世纪,从东明圣王→琉璃王→大武神王三代,经过邹牟王创下基业→儒流王以道兴治→大解朱留王绍承基业(《广开土王陵碑文》)这样的国家形成过程,(高句丽)开始耸立成为“国家”。

同时,根据那部体制论的太祖王代的古代国家成立论虽与本文的着眼点有不无相异之处,但是论证了公元1世纪末前后,随着五那部体制的确立,高句丽国家也成立。

58) 卢泰敦：前文，1975。

59) 金好动：《北亚细亚游牧国家的君主权》，东洋史学会编《东亚史上的王权》，(首尔)Academi, 1993, 121-122。

60) 朴京哲：前文，1997.9；朴京哲：前文，1998.11。

61) 三国史记》卷13 高句丽本纪1及本纪2大武神王条；朴京哲：前文，1996.12；朴京哲：前文，1997.9；前文，1998.11。

在这样的国家形成期，高句丽国家的性质在国家形成论上来看，可以推断出“专制的军事国家(despotic military state)”性质浓厚。当时高句丽的主要支配阶层是军事贵族，（高句丽）是组成军事贵族的恒时武官比文官占优越地位的社会。最后从支配秩序角度来看，是以“身份制”为基轴运营的“身份国家”。高句丽自建立之时起，便是以身份制为根基，以力量性暴力为基础的专一的控制力量贯彻于分配、生产、日常礼仪的国家(形式)出发的。因此，在国家形成期高句丽便显现出从“专制的军事国家”出发的以“军事贵族制”为落脚点的“身份国家”的性质。并且，在这种形成期，高句丽的国家性质在以后高句丽史的展开中，在成为其内在属性的过程中起了作用。⁶²⁾

七. 结语：高句丽国家形成时期“卒本时期”的历史地位

笔者就高句丽国家的形成问题，在本稿的第一、第二、第三章考察了在韩国学界被广泛提及的主张，并以此为基础，探讨了从“高句丽社会(第四章)”到高句丽国家形成期(第五章)的历史进程，主要从笔者的立场进行了概括。

现在韩国学界普遍认为：高句丽国家的形成期大致为公元前1世纪至公元1世纪，将其以前历史即高句丽社会期视为公元前3世纪至公元前1世纪。

本次韩中学术会的主题——“卒本时期(公元前37年-公元3年，琉璃王22年)”属于公元前1世纪至公元1世纪，是高句丽国家形成期的一段短暂的时期。

中核地(core area/nuclear region/ nuclear core)是指国家诞生后，其国家的政治权力集中的比较狭窄的地区。⁶³⁾

但是，卒本时期高句丽已实行全方位的军事膨胀政策，并以此为基础赋予Chrisma的国家权力的人格化企图及琉璃王代那部的设置、大辅制的运营等，⁶⁴⁾为国家经营而设置的权力机构的移动等已开始推行。

即高句丽在邹牟王以来通过先统合和重组小水貊,后统合和重组属于大水貊的诸君长社会，形成高句丽国家，从位于鸭绿江左岸的立场上来看,他们的国家支配结构的统合和再编是与他们的全方位的国势膨胀战略相适应的、符合目的的、逐渐展开的。国家形成期高句丽的三个那部的形成过程也与高句丽的发展相符合。在这种发展过程中，桂娄部是王室与其卫星势力的各个君长社会和势力集团集结的政治势力单位,是优先组织而成的。即琉璃王将由邹牟

62) 朴京哲：前文，1996.12。

63) 任德淳：《政治地理学》，一志社1973年。

64) “琉璃明王二十二年十二月王田于质山阴五日不返大辅陝父諫曰……王闻之震怒罢陝父职俾司官园 陝父愤去之南韩”(《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

王→类利联结起来的血缘集团,当作高句丽的王室,不仅收留了被称为“乌伊、摩离、陝父”的邹牟王的直属集团及以“屋智、句邹、都祖”为代表的自身直辖集团和君长社会水准的扶芬奴集团和“克氏、仲室氏、少室氏”集团这样的地域集团级社会单位,也收留因沸流、温祚势力的脱离而陷于瓦解状态的召西奴集团的残余势力,推测将他们编入到王室的卫星势力中。因此,桂娄部是琉璃王在其即位初,在巩固自身的支配势力的过程中,以王室与其卫星势力为中心,从人为的政治组织出发的。

沸流部的实体从开始时便是由三个以上的地域集团构成的一个君长社会,⁶⁵⁾这使他们成为可以享有“立宗庙,祠灵星社稷”⁶⁶⁾之不同的祭祀体制的基础。但是,这样的沸流那部的特权也没能摆脱国家支配构造内得到保证的水准。⁶⁷⁾因此,沸流那部在国家支配结构内的地位也逐渐低下。⁶⁸⁾

琉璃王扩大、改编了已存的自身直辖势力之桂娄部,同时重组新统合的隶属于大水貂的诸君长社会,努力将其编入到新的运用单位中。因此,椽那部为牵制自高句丽建国以来便保有独立性的沸流那部,自琉璃王代以来的公元22年间,⁶⁹⁾至少将大水貂系四个以上的诸君长社会⁷⁰⁾编制成人为了的政治组织。

同时,这样的国家形成期对高句丽来说,那部的形成本身规定了其后的存在形式。因此,这样的事实对高句丽来说,预示着不仅是桂娄部。椽那部,就是沸流部在其国家支配结构中能够行使力量的水平。

因此,卒本时期虽然存在时期比较短,但确履行了高句丽国家形成期高句丽核心地位的作用。

65) “大武神王十五年春三月黜大臣仇都、逸苟、焚求等三人为庶人 此三人为沸流部长 资贪鄙 夺人妻妾牛马财货 恣其所欲 有不与者 即鞭之 人皆忿怨”(《三国史记》卷14,高句丽本纪2),

66) 《三国志》卷30,魏书30,列传30,乌丸、鲜卑、东夷传,高句丽条。

67) 《三国史记》卷14,高句丽本纪2,大武神王十五年春三月条。

68) 《三国志》卷30,魏书30,列传30,乌丸、鲜卑、东夷传,高句丽条。

69) 大武神王五年秋七月扶余王从弟……乃与万余人来投 王封为王 安置椽那部以其背有络文 赐姓络氏(《三国史记》卷14,高句丽本纪2)

70) 故国川王十二年秋九月 京都雪六尺 中畏大夫沛者于畀留、评者左可虑 皆以王后亲戚 执国权柄 其子弟并恃势骑侈 掠人子女 夺人田宅 国人怨愤 王闻之怒欲诛之 左可虑等与四椽那谋叛(《三国史记》卷16,高句丽本纪4),

08

高句丽早期墓葬积石墓的类型和特点

魏存成 (吉林大学)

高句丽早期墓葬积石墓的类型和特点

魏存成 (吉林大学)

〈目次〉

- | | |
|------------------|---------------|
| 一. 积石墓的类型 | (二) 积石墓中的火烧迹象 |
| 二. 积石墓不同类型的等级与年代 | (三) 积石墓的葬具 |
| 三. 积石墓的特点 | (四) 关于合葬与二次葬 |
| (一) 积石墓的分布排列 | (五) 墓上建筑迹象 |

高句丽墓葬从外观上可分为以石为封的积石墓和以土为封的封土墓两大类，又称为石墓和土墓。而积石墓名称的来源，最早见于《三国志》之“积石为封”的记载¹⁾。具体分析，同是积石墓和封土墓，又各有不同。从总体上看，积石墓早，封土墓晚，在从积石墓向封土墓的演变过程中，墓葬的外部结构和内部结构都在变化，从这些变化中可以看出高句丽文化的原有特点及其与周边地区、民族之间的关系。

积石墓在高句丽墓葬中占有相当大的比例。桓仁发现的高句丽墓葬中，绝大部分是积石墓；集安洞沟墓群1966年统计的11300座中，有4973座是积石墓，占44%²⁾；朝鲜慈江道发现的高句丽墓葬，见于报导的都是积石墓³⁾。这些墓

1) 《三国志》卷三十《乌丸鲜卑东夷·高句丽传》：“(高句丽)男女已嫁娶，便稍作送终之衣。厚葬，金银财币，尽于送死，积石为封，列种松柏。”

2) 《考古学报》1980年第2期166面表二，表中积石墓所占百分比是43%，实算应是44%；而封土墓，表中百分比是55%，实际计算应为56%。1997年调查测绘，重新确定1966年统计的洞沟墓葬总数为10782座，而至1997年，现存墓葬为6854座，注销3928座。并把这6854座划分为积石墓(包括积石石圪墓、有坛积石石圪墓、阶坛积石石圪墓、阶坛积石石室墓)3368座(49、14%)，封土墓(包括有坛封土石室墓、封土石室墓)386座(5、63%)，洞室墓3100座(45、23%)。可见1997年调查测绘的结果，封土墓的数量比1996年大幅度减少，但是这次把洞室墓从积石墓和封土墓中单列出，而且数量很大。那么洞室墓是一种什么情况呢？调查测绘报告是这样介绍的：“洞室墓的墓室，也用石材构筑，多单室，也有双室和三室的，但石室之间绝不相通，而且比封土石室墓的石室要小而低矮得多，洞室高多在1米左右，石材加工也嫌简陋，筑造得不甚规整，顶部四角也常见简单的抹角叠涩做法，上盖石板。洞室外部，有的也用石材筑成阶坛状，应归石圪类；大多数则以土培封，或土石混筑，应归土圪类。但由于洞室墓规模不大，用材又小，很易遭受扰动破坏，历经岁月风霜，外部常常已很难辨识和判定究竟属于哪一种培封方式，所以我们未便一一区分为封石洞石墓、封土洞石墓或土石混封洞石墓，仅(今一引者注)将之统称为洞室墓。”其实，正如调查测绘报告所言，洞室墓“大多数则以土培封，或土石混筑，应归土圪类”。见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编著的《洞沟古墓群1997年调查

葬历代被破坏、扰乱，特别是一些小型墓就更为严重。中国对积石墓进行正式的科学发掘，是从20世纪50年代后半叶开始的，至今大概有200座左右。通过这些发掘及先后调查，使我们对积石墓的类型和特点逐渐有了比较清楚的认识。

一. 积石墓的类型

关于积石墓的类型，几十年来，中外学者对此作了大量探讨，发表了多种互有异同的看法。从总的趋势看，大家的认识逐步接近，但仍有程度不同的差别。而且就是同一作者对自己以往的研究也在不断地进行修正。这些差别，固然不少是属于用词方面的不同，但是从中也可以看出他们各自观察的角度、研究的基点都有所不同。

其实，对高句丽积石墓再进行具体类型划分，既要注意墓葬外部结构的变化，又要注意墓葬内部的不同。而对每一种类型的命名，最好能把这两方面的特征都比较明确地表示出来，使人一看到墓葬类型的名称，就会马上联想到它的外部形状和内部结构。

经多年调查、发掘和研究得知，积石墓的外部结构可分为无坛，方坛和方坛阶梯三种。所用石料有河卵石、自然石块和加工过的石材，有碎有整，有粗有精，并不一致。

无坛，则是先用大的河卵石或石块在地表之上堆出略呈方形或长方形的边框(或称墓基)，再用碎石(小的河卵石或石块)把整个墓葬包封起来，成为不甚规则的封石堆。

方坛，则是在墓葬四周用大型石块和石条砌筑出一层规整的台阶，台阶之上再以碎石封顶，该结构又被称为有坛、基坛等名称。

方坛阶梯，其筑造方法和过程，因地势不同而有所区别。地势平坦之处，先用大型石块或石条砌筑底部第一级方坛，高度随墓葬规模大小而变化。方坛内填以大小河卵石或石块、形成一个平面。在此平面之上，四周各内缩一定距离，筑第二级方坛。接着再以同样方式筑第三级或三级以上方坛，逐级内收，成阶梯状，上边以碎石封顶，故称之为方坛阶梯，也有的学者称之为阶

测绘报告》第9-15页，科学出版社2002年出版。

- 3) 田村晃一著、李莲译：《论高句丽积石墓的结构与分类》，李正南著、文一介译：《云坪里高句丽墓群第4区积石墓发掘报告》，李正南著、文一介译：《慈江道楚山郡莲舞里二号墓发掘报告》，李昌恩著、文一介译：《在最近调查发掘鸭绿江流域积石墓时引起人们注意的几个问题》，分别见于《东北亚历史与考古信息》总第7期(1985年)、第16期(1991年)、第17期(1992年)、第18期(1992年)。

坛、阶台。这种方法可称为分级平筑法，也有的学者称为叠压构筑法。

另一种多是在地势坡度较大之处，为了防止积石下滑，在低处筑起几道石墙，上高下低，依次倚护。而在高处可以少筑、甚至不筑石墙。近年不少学者和论著把这种构筑方法称为阶墙构筑法，把运用这种构筑方法修建的积石墓称为阶墙积石墓，而把运用上述分级平筑法修建的积石墓，称之为阶坛积石墓或叠压式阶坛积石墓。从2003年对集安大型积石墓王陵的发掘得知，早期的几座大型积石墓王陵采用的是阶墙构筑法，说明阶墙构筑法要原始一些。但是从外观上看，这两种构筑方法的效果是相同的，而且有时一座墓可以同时使用两种方法进行构筑，所以我们还是统称之为方坛阶梯。

积石墓的内部构造可分为石圻和石室两种。石圻指只是石砌四壁、上无盖顶石，一般无门无墓道。石室则是上有盖顶石，并且有门有墓道。

除此之外，在桓仁、集安积石墓的发掘中，还发现了一些不见圻坑的墓葬，比石圻还要简陋。但鉴于高句丽墓葬历代被破坏的事实，也不能排除这是遭后代破坏或其他原因造成的。由于这种情况还需进一步调查和研究，暂时先不单作为一种类型，有的例墓且归入石圻类型之中。

还有一些墓葬，石圻砌得比较宽大，而且有门、有墓道，墓道(多偏西向)两旁又有耳室或石砌器物箱，器物箱和耳室均发现盖顶石，内置陶器，而墓道和石圻上方不见盖顶石。对于这种墓葬内部结构，有的学者称为圻室。其实，这种结构的现存石圻和墓道的顶部，原来是应该有盖顶石的，那就是说此属于石室结构。作为石圻而开门和设墓道的，应该是很少的，它是石圻与石室之间的过度形式。

将积石墓外部结构和内部结构相结合，可以组成以下几种类型，而且这几种类型迄今多少都有发现，见如下表一。

表一：积石墓类型表

外部 \ 内部	无坛	方坛	方坛阶梯	
石圻	无坛石圻墓	方坛石圻墓	方坛阶梯石圻墓	积石石圻墓
石室	无坛石室墓	方坛石室墓	方坛阶梯石室墓	积石石室墓
	无坛积石墓	方坛积石墓	方坛阶梯积石墓	

表中所列积石墓的类型实为六种，即无坛石圻墓、方坛石圻墓、方坛阶梯石圻墓、无坛石室墓、方坛石室墓、方坛阶梯石室墓。

无坛石圻墓外部无坛，内部为石圻。积石规模不大，石圻底或与地表同，或略高于地表，多为单圻，也见双圻，石圻上面封以碎石。以往各家划分的积石墓、积石石圻墓、圆丘式积石墓，则是指此类型。

方坛石圻墓的规模比无坛石圻墓增大，其内部结构与无坛石圻墓基本相同，石圻有单圻、双圻或多圻；不同的是在墓葬的四周用大型石块或石条砌筑一层规则的方坛。内部用卵石或石块填平。石圻修筑在此填平的石面上，石圻上面封以碎石，以往各家划分的方坛积石墓、有坛积石石圻墓和基坛积石墓，则是指此种类型。

方坛阶梯石圻墓的内部结构与方坛石圻墓相同，不同的是在外部以上述分级平筑法或阶墙构筑法构筑出方坛阶梯，石圻一般修在第一、二级阶梯上，有单圻、双圻、多圻之分，石圻上面封以碎石。以往各家划分的方坛阶梯积石墓、阶坛积石石圻墓、阶台式积石墓和部分圆丘式积石墓、部分阶坛积石墓，则是此种类型。

无坛石室墓发表的材料很少，在朝鲜慈江道楚山郡云坪里曾发现例墓，墓道偏向一侧，使整个墓室、墓道平面呈现为刀形。从原位保留的部分盖顶石知道原石室为平盖顶。

方坛石室墓四周为方坛结构，内部为石室。石室位于方坛中部地表，四壁或用规则的石块、石条砌成，或用大块石板竖立而成，石室上面以巨石覆盖，多作平顶，也有抹角叠涩。墓道多偏向一侧，使整个墓室、墓道平面呈现为刀形。同一墓葬，有单室、双室、三室之分。双室、三室者，并行排列，各设墓道，多不相通。最后用碎石将各墓室一起封包起来。

方坛阶梯石室墓内部结构与方坛石墓基本相同，只是外部为方坛阶梯结构。综合上述六种类型，外部结构是无坛的可统称为无坛积石墓，是方坛的可统称为方坛积石墓，是方坛阶梯的可统称为方坛阶梯积石墓；内部结构是石圻的可统称为积石石圻墓，是石室的统称为积石石室墓。

二. 积石墓不同类型的等级与年代

上述高句丽积石墓不同类型的典型墓葬，笔者曾对其形制结构、葬俗、随葬品等分别列表进行过详细统计，现归纳为如下表二和表三(不包括集安大型积石墓王陵)。

表二：积石墓外部结构演变表

类型		年代		纵行排列	积石规模	石圪、石室位置	火烧痕迹	随葬品种类	壁画
		上限	下限						
无坛积石墓	无坛石圪墓	高句丽政权建立之前	公元5世纪	多见	从无坛	多与地表平, 或略高于地表	有	陶器、铁器及汉代钱币	
	无坛石室墓					略高于地表		铁器、骨器	
方坛积石墓	方坛石圪墓	“最迟不晚于东汉初年”	公元四五世纪	多见		方坛	多在方坛石面上	有	陶器、铁器、铜器、战国及汉代钱币
	方坛石室墓			个别存在	方坛阶梯	略高于地表, 或与地表平			
方坛阶梯积石墓	方坛阶梯石圪墓	与方坛石圪基本同时	公元5世纪	多见	, 逐渐增大	在不同阶梯的石面上	有	陶器、釉陶器、铁器、铜器及鍍金器	
	方坛阶梯石室墓	公元3世纪末—公元4世纪初	公元5世纪	个别存在		部分大墓石室位于积石中上部, 其余多与地表平		陶器、釉陶器、铁器、铜器、鍍金器、银器、织物残迹和漆皮残片	个别发现壁画残片

表三：积石墓内部结构演变表

类型	年代		纵行排列	积石规模	石圪、石室位置	火烧痕迹	随葬品种类	壁画	
	上限	下限							
积石石圪墓	无坛石圪墓	高句丽政权建立之前	公元5世纪	多见	从无坛方坛方坛阶梯，逐渐增大	多与地表平，或略高于地表	有	陶器、铁器及汉代钱币	
	方坛石圪墓	“最迟不晚于东汉初年”	公元四五世纪	多见		多在方坛石面上	有	陶器、铁器、战国及汉代钱币	
	方坛阶梯石圪墓	与方坛石圪墓基本同时	公元5世纪	多见		在不同阶梯的石面上	有	陶器、釉陶器、铁器、铜器、鎏金器	
	无坛石室墓					略高于地表		铁器、骨器	
	方坛石室墓			个别存在		略高于地表或与地表平			
	方坛阶梯石室墓	公元3世纪末—公元4世纪初	公元5世纪	个别存在		部分大墓石室位于积石中上部，其余多与地表平		陶器、釉陶器、铁器、铜器、鎏金器、银器、织物残迹和漆皮残片	个别发现壁画残片

由于年代久远，高句丽墓葬被破坏严重，随葬品更是所剩无几，所以上边两表中本应填写的项目尚有空白，即使如此，表中内容仍能说明问题。从修筑技术方面考虑，积石墓的外部结构无坛、方坛和方坛阶梯中，无坛的出现应更早一些，但在高句丽政权建立后，这三种结构则长期并行发展，它们的下限都到五世纪，可见，无坛、方坛、方坛阶梯几种结构的区别，主要的不是时代早晚的区别。与此同时，外部同样是无坛、方坛和方坛阶梯结构的墓葬，它们的内部又各自具有石圪和石室，可见石圪、石室与外部结构不存在对应关系，因此它们所代表的意义也应与外部结构不同。

具体分析，关于无坛积石墓、方坛积石墓和方坛阶梯积石墓的积石规模，过去笔者作过具体数字的比较，但是由于积石墓中大量存在一墓双圪、多圪和一墓并列双室、多室的情况，所以积石规模数字的变化，并不绝对的是某一种结构的墓葬都比另一种大，它们之间也有交叉。但是总的趋势，从无坛—方坛—方坛阶梯，积石的规模逐渐增大，还是明显的，尤其是那些王室贵族级的大型方坛阶梯积石墓，边长达几十米，是其他墓葬无法比拟的。此总结是指分布在不同地区的各类墓葬的总体表现，而分布在同一处、即同一墓群的墓葬，其规模大小与外部结构的变化关似乎还要明确些。

再看随葬品种类，墓葬同被扰乱，无坛积石墓中发现的是少许陶器和铁器；方坛积石墓中增加了铜器；方坛阶梯积石墓中又增加了釉陶器、银器、鎏金

器，有的还发现了织物残迹、漆皮残片和精美的壁画。

所以，积石墓外部结构之无坛、方坛和方坛阶梯，尽管起初有个先后顺序，但现在看到的主要的不是时代早晚的不同，而是等级高低的差别。

关于积石墓的内部结构，先看两种葬俗，墓葬分布的纵行排列现象存在于石圪结构的墓葬中，而在石室结构的墓葬中很少看到；火烧痕迹也只存在于石圪结构的墓葬中，而在石室结构的墓葬中不再发现。后面还要专门谈到，这两种葬俗迹象，尤其是前者，它是一种原始氏族族葬的习俗，所以使用这种葬俗的墓葬，时间必然要早。由此再来看表二中所列各种结构墓葬的流行时间，积石石圪墓的三种类型，其年代上下限基本一致，即从高句丽政权建立前后至五世纪；而积石石室墓中只有方坛阶梯石室墓的时代比较清楚，即从三世纪末、四世纪初到五世纪，另两种由于材料少，没有列明，但是参照上述两项葬俗，其时代应与方坛阶梯石室墓基本相同。所以可以说，积石墓内部结构石圪到石室的变化，不是墓葬等级的不同，而是墓葬时代先后的差别。

至此，再来分析一下石圪、石室在墓葬中的位置。积石石圪墓中，从无坛一方坛一方坛阶梯，随着外部结构的变化和墓葬规模的增大，石圪的位置逐步升高；而积石石室墓则不尽然，因为石室室壁比石圪圪壁高，而且上边要盖顶，顶上又封石，所以只有少数大型方坛阶梯石室墓中的石室可建在墓葬的中上部，其他则不象石圪那样随着外部结构的变化而升高，而是大都直接建在地表之上，或略高于地表，由此如果同以后封土石室之石室皆位于地表之上或略低于地表的作法连系起来考虑，则知石室在墓葬中的位置与石圪不同，可能还含有不同文化因素的影响。

高句丽积石墓中还有一种石棺墓，规模较小，砌造简单。其流行时间与积石石室墓相当，而且与以后的封土石棺墓有传承关系，只是这种墓数量很少，所以暂不单做一种类型列入。

高句丽积石石圪墓从高句丽政权建立之前开始，一直延续到5世纪。其间在3世纪末4世纪初又出现了积石石室墓，而它们结束的年代基本是同时的，大概到5世纪末。与积石墓相关，我们在看一下高句丽的封土墓。高句丽封土墓内部为石室，包括中小型无壁画封土石室墓和大中型有壁画封土石室墓，经研究，它们开始的时间在公元4世纪。积石石圪是高句丽本民族的墓葬类型，高句丽墓葬的类型结构，石圪向石室、积石向封土的改变，几乎是同时进行的，一共持续了四五两个世纪。在这期间出现了一种过渡形式的墓葬，即积石石室墓，其数量不多，至五世纪末，便和积石石圪墓一起被日趋发展起来的封土石室墓取而代之了。高句丽的墓葬类型之所以发生如此演变，与这个时期高句丽势力的发展及接受外部文化的影响有着密切的关系。

三. 积石墓的特点

(一) 积石墓的分布排列

关于高句丽墓葬的分布排列，由于高句丽处于“多大山深谷，无原泽”之地⁴⁾，所以其墓葬大都分布在山坡，山脚或河谷两旁。相比之下，封土墓多在地势低平之处，积石墓多在地势较高之处，而且往往依地势高低自上而下成纵行排列，每行长达几十米、乃至百米以上。如桓仁高力墓子村墓区，“墓群南端为积石大墓区，共约70座。尽南端高岗上为1座，其北邻为2座。再往北依次发展为4行，长的达70米，墓墓相连。凡北墓全无南壁，皆倚南墓北墙接砌出墓室。由此证明，知此类墓葬的形成时间上，没有南墓便无北墓，亦即南墓先筑，北墓后成。墓葬是由南向北随时发展起来的。四行积石墓排列有序，并形成越往北(即时代越晚)越向东西两侧扩展”⁵⁾。类似现象在集安更为普遍，对此集安博物馆的研究人员曾作过详细考察⁶⁾，他们把其中在同一墓基上修筑两个或两个以上石圪或石室的墓葬称为“串墓”。其中积石石圪墓与积石石圪墓相连接的占80%以上，多分布在山坡上，积石石圪墓与积石石室墓相连接的占18%，多分布在山坡串墓的末端，积石石室墓与封土石室墓相连接的则更少，一般分布在河流两岸的台地，顺着河水的流向排列，封土石室墓多位于排列的末端，而且排列也变得比较松散。

另值注意的是，在积石墓串墓的末端，有的再筑出面积较大的方坛或方坛阶梯，平面呈方形或半圆形，被称为“墓舌”或“祭坛”。其实际作用是防止上部积石下滑外涨，至于其他作用有待继续发现和研究。

五世纪以后，随着积石墓的消失，以“串墓”为主体的纵行排列的现象也走向消亡。而在以后的封土墓中，尤其是大中型封土墓中，出现了在山下平地呈横行排列的布局，集安五盔坟、四盔坟即是典型的例墓。

积石墓中依地势高低、自上而下成纵行排列的现象，应属原始氏族墓葬的遗俗。摩尔根在分析、调查古代氏族的公共墓地时就遇到了类似现象，并且明确每一列属于不同氏族⁷⁾。

4) 《三国志》卷三十《乌丸鲜卑东夷·高句丽传》。

5)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第1期。

6) 孙仁杰：《高句丽串墓的考察与研究》，《高句丽研究文集》，延边大学出版社，1993年。

7) “在各个埋葬地中，住在一村落中的各氏族之成员都可埋葬在里面；但是同氏族的成员，仍可局部保持同葬在一起。来特的观察，无疑的是正确的。关于说明此种事实的例证，在邻近路易斯吞(Lewiston)地方的塔斯卡洛刺(Tuscarora)保留地，现在尚可发现出来。在保留地中塔斯卡洛刺部落有一个共同的墓地，凡属于同一氏族的人，都是成列的埋列在一起。其中一列是海狸氏族死者之墓，一列是灰色狼氏族死者之墓，象这样，直至八列墓。夫与妻分别埋葬，异其墓列；父与子，也各异其

文献记载高句丽本由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组成。这五部实际上是五个大的部族，或是原属氏族，后由于发展、扩充，超越了氏族的界限和范围，因此，其内部又必分为若干氏族。《三国志·高句丽传》记，“王之宗族，其大加皆称古雏加。本涓奴部为王，今虽不为王，适统大人，得称古雏加，亦得立宗庙，祠灵星、社稷。绝奴部世与王婚，加古雏之号”。高句丽高级官吏大对卢，先是排在相加之后，居第二位，后来排在第一位，一直到高句丽后期仍以强弱相攻，胜者为之，高句丽王也无可奈何⁸⁾，其背后必然有部族的势力为依靠。高句丽末年之名将盖苏文，出自顺奴部(又称左部、东部)，就是继承其父之东部大人和大对卢的职位后，进而掌握了当时高句丽的实权⁹⁾。因此，高句丽原始氏族墓葬的习俗在政权建立之后得以较长时间的继续保持，是不奇怪的。

(二) 积石墓中的火烧迹象

在积石石圪墓中还发现了不少火烧的迹象，圪坑中的石块都被烧结，可见其温度是相当高的。如桓仁M15，“清理时发现许多熔石和烧石，并伴有少量烧骨碎片。人骨皆烧结在熔石之中，头骨和肢骨尚清楚可认，皆经火烧发白。……随葬器物皆出于烧石和熔石的附近，……陶器经过火烧，多数变形。有的也粘结在熔石之中”¹⁰⁾。再如集安万宝汀M242，这是在同一墓基之上筑有四个墓室的积石墓。北起第一室为石圪结构，发现有烧石熔石堆积，而第二、第三室为石室(或石棺、石椁)，则不见此迹象(第四室已被毁不清)¹¹⁾。集安山城

墓列。但是母子、兄弟、姐妹，是埋葬在同一墓列的。这种事实，表明氏族感情的力量，并表明氏族在良好的条件之下便很迅速地回复到古代的旧习；塔斯卡洛刺部现时虽已基督教化，但未放弃其旧时的习惯。一个温嫩加多部落的印第安人曾对著者说过，同样的氏族埋葬法在温嫩多加及奥奈达(Oneida)墓地现在还是流行的。这样的习惯，我们虽不能断言通行于所有印第安人的部落间，但是在古代却有爱采取此种埋葬法的倾向，这是没有什么可疑的。”

摩尔根著、杨东莼、张栗原、冯汉骥译：《古代社会》第一册，第135页，商务印书馆1971年。

8) 《周书》卷四十九《异域上·高句丽传》：“(高丽)大官有大对卢，次有太大兄……凡十三等，分掌内外事焉。其大对卢，则以强弱相陵，夺而自为之，不由王之署置也。”《旧唐书》卷一百九十九上《东夷·高句丽传》：“其官大者号对卢，比一品，总知国事，三年一代，若称职者，不拘年限。交替之日，或不相祗服，皆勒兵相攻，胜者为之。其王但闭宫自守，不能制御。”

9) 《新唐书》二百二十卷《东夷·高句丽传》：“有盖苏文者，或号盖金，姓泉氏，自云生水中以惑众，性忍暴。父为东部大人、大对卢，死，盖苏文当嗣，国人恶之，不得立，顿首谢众，请摄职，有不可，虽废无悔，众哀之，遂嗣位。”

10)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第1期。

11) 吉林省集安县文管所：《集安万宝汀墓区242号古墓清理简报》，《考古与文物》1982年第6期。

下墓区东大坡墓地356号方坛阶梯石圻串墓，在第二圻室“扰乱坑的北侧有一堆被火烧成流状的熔石和一些烧变形的河卵石。还有一些被烧毁的铜器与被烧成流状的石块粘在一起，铁镢也烧得有些变形”¹²⁾。这些火烧现象，学术界多认为应属火葬。这种火烧迹象迄今只发现于积石石圻墓中，而积石石室和封土石室墓中都没有发现，说明它是与积石石圻墓并存的一种古老葬俗。

(三) 积石墓的葬具

关于高句丽墓葬的葬具，文献记载很少，只见《梁书·高句丽传》记“有椁无棺”几字。何为“有椁无棺”，过去往往认为是指积石石圻墓的石圻或与石圻有关。从近年考古发现来看，在封土石室墓中，包括无壁画中小型和有壁画的大中型，发现多例棺钉、棺环和棺板残片，说明这时已普遍使用的是木棺。而在积石墓中，包括积石石圻墓和部分积石石室墓，不见上述木棺构件、出土的却是两端作同向弯曲的铁扒铜，据说有的墓葬石圻内还有木炭发现¹³⁾。推测这些墓葬中使用的应是木椁，木椁用材粗大，以铁扒铜连接固定。由此看来，“有椁无棺”并非无据。据目前发现，木椁是和积石墓同时流行的。其放置过程，如果内部是石圻的话，则是先筑石圻，再放置木椁，或者先放置木椁，再叠砌石圻。一切放置完备，要是使用火葬，木椁一起被烧掉，然后以碎石填封；要是不使用火葬，则直接以碎石封顶，时间一久，木椁腐朽或被扰乱，封石下陷成坑。如果内部是石室的话，也可以先砌四壁或先放置木椁，然后用石材铺盖室顶，上面再封以碎石。现在发现的一些积石石室墓，其墓门、墓道不少是低矮、窄小的，说明木椁不是从墓门放入的。以后石室顶部如果被坏，也会形成塌陷坑。出土铁扒铜的积石墓，规模都较大，有的还同时出土其他贵重的金属器，包括鍍金器，说明该墓的等级很高。这就是说，木椁在积石墓中也不是普遍使用的。而在有的积石石室墓中，也发现棺座和棺钉，说明木棺开始使用，同样表现出了积石石室墓的过渡性质。

(四) 关于合葬与二次葬

关于合葬，积石石圻墓的石圻保存得相当不好，从残存迹象来看都不算大，人骨也很少看到，所以石圻之中是否有合葬，可能性是很小的。而在积石石室墓中，合葬则较多存在。这不仅是因为石室变得宽大，特别是在不少石室中发现有两个或三个棺座。这种合葬的习俗在以后的封土石室墓中普遍流行，而

12) 张雪岩：《吉林集安东大坡高句丽墓葬发掘简报》，《考古》1991年第7期。

13) 李殿福：《集安高句丽墓研究》，《考古学报》1980年第2期。

且还发现一批异穴同封、即两个墓室或三个墓室各开墓道、互不相通、而处于同一封土之下的墓葬。如果追溯合葬及异穴同封的渊源，应与积石墓中在同一墓基之上砌造两个以上的石圻或石室的做法有关。

《隋书·高丽传》、《北史·高句丽传》在记载高句丽葬俗时还写道：死者殡于屋内，经三年，择吉日而葬。而在之前的史书中并无此记载。这就是说，高句丽后期可能存在这种类似的二次葬习俗。1976年在集安集中发掘了一批中小型封土石室墓，出土的骨架都很零乱，发掘者推断这是二次葬。由于高句丽墓葬多被扰乱、盗掘，所以把零乱骨架都定为二次葬当然把握不大，但是把二次葬作为原因之一，还是应予考虑的。

（五）墓上建筑迹象

在高句丽的大型积石墓上，普遍发现板瓦、筒瓦残片，有的还见瓦当。《集安高句丽王陵》报告把是否有瓦件作为确定王陵的一个条件。瓦的外表，时代早的饰以绳纹，晚的是素面。瓦当花纹，时代早的是云纹，晚的是莲花。

瓦件大都很坚硬，火候相当高。瓦件的颜色，我曾作过统计，城址、遗址中出土的瓦件多为红色，而墓葬上发现的只有灰色。2003年集安大型积石墓王陵发掘，发现也有深浅不等的褐色，但是多数仍是深浅不等的灰色，说明还是有一定意图的。大量瓦件的发现，表明原来墓上有建筑设施。建筑遗迹在中原先秦时期的墓葬上即已发现，但是由于高句丽墓上其他建筑遗迹保留很少，所以原来建筑的布局结构一直是学术界关注的问题。2003年集安大型积石墓王陵发掘，在几座墓上都发现顺墓摆放的板瓦和筒瓦，说明瓦件原是直接铺在墓上的，不见得另有建筑。同时在大型积石墓王陵周围，还发现排水系统、陵园、陵寝和祭台等遗迹。

最后，作为本文的结尾，对高句丽早期王陵的类型结构少说几句。高句丽自公元前37年建国，至公元668年灭于唐，共经705年、28位王。经研究，在这28位王之中，长寿王之前、即公元5世纪之前的王陵，除闵中王是葬于闵中原石窟中外¹⁴⁾，其余都应是大型积石墓。上边谈到，四五两个世纪，正是高句丽积石墓和封土墓的交替演变阶段，封土石室墓开始出现和流行，而且也出现了壁画墓，但是此时期的壁画墓规模较小，与同时期的大型积石墓无法相比。近年新出版的《集安大型积石墓王陵》，介绍和研究的就是这些王陵。当然该报告中不包括始祖东明(朱蒙)圣王的陵墓，因为据《三国史记》之高句丽本纪和地理志记载，东明王在位19年，死后葬龙山，“大武神王三年(公元20年)春

14) 《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二：“(闵中王)四年秋七月，又田，见石窟，顾谓左右曰：‘吾死必葬于此，不须更作陵墓。’”“五年，王薨。王后及群臣重违遗命，乃葬于石窟，号为闵中王。”

三月，立东明王庙”，其后新大王、故国川王、东川王、中川王、故国原王、安藏王、平原王、荣留王数次去卒本祀始祖庙¹⁵⁾，说明东明王庙和王陵始终都在卒本、即今桓仁。大型积石墓王陵的内部结构，开始是石圪，以后变为石室，石室由狭小低矮向宽敞高大发展；其外部结构，绝大部分应是方坛阶梯，最初的几座可能不像后来的那样完备、规整，或者还只是方坛，但是只要方坛阶梯出现，它就应首先在王陵中使用。开始的方坛阶梯属于阶墙形式的方坛阶梯。

15) “(新大王)三年(公元167年)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冬十月，王至自卒本。”
“（故国川王）二年（公元180年）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东川王）二年（公元228年）春二月，王如卒本，祀始祖庙。”
“（中川王）十三年（公元260年）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故国原王）二年（公元332年）春二月，王如卒本，祀始祖庙。巡问百姓老病赈济。三月，至自卒本。”
“（安藏王）三年（公元521年）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庙。五月，王至自卒本。所经州邑贫乏者赐谷人一斛。”
“（平原王）二年（公元560年）春二月-----王幸卒本，祀始祖庙。三月，王至自卒本。所经州郡狱囚除二死皆原之。”
“（荣留王）二年（公元619年）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庙。五月，王至自卒本。”

고구려 초기고분 적석묘의 유형과 특징

魏存成 (길림대학)

〈목 차〉

- I. 적석묘의 유형
- II. 다양한 유형의 적석묘 등급과 연대
- III. 적석묘의 특징
 1. 적석묘의 분포배열
 2. 적석묘의 불에 탄 흔적
 3. 적석묘의 장구
 4. 합장과 이차장
 5. 묘상건축흔적

고구려고분은 외관상 돌로 덮은 적석묘(積石墓)와 흙으로 덮은 봉토묘(封土墓)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석묘(石墓)와 토묘(土墓)라고도 부른다. 적석묘 명칭의 유래는 『삼국지』의 “積石爲封”이라는 기록에서 처음으로 보인다.¹⁾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 같은 적석묘와 봉토묘라도 각각 그 차이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석묘는 그 시기가 이르고, 봉토묘는 늦다.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변화는 과정에서, 고분의 외부구조와 내부구조도 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로부터 고구려문화 고유의 특징과 주변 지역·민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적석묘는 고구려 고분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환인(桓仁)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가운데 절대다수는 적석묘이다. 1966년 통계된 집안(集安) 통구(洞溝)고분군 11,300기 가운데 4,973기는 적석묘이며 전체의 44%를 차지한다.²⁾ 북한 자강도(慈江道)에서 발견된 고

1) 『三國志』 권30, 「烏桓鮮卑東夷·高句麗傳」: (高句麗)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于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2) 『考古學報』 1980-2기 166쪽 표2에서 적석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이지만 실제로는 44%이고, 봉토묘는 표에서의 백분율은 55%이지만 실제로는 56%이다. 1997년 조사에서, 1966년 통계한 통구고분 10,782기 가운데, 1997년 현존하는 고분은 6,854기이고, 취소한 것이 3,928기로 새로이 확정했다. 아울러 이 6,854기는 적석묘(적석석광묘(積石石坑墓), 유단적석석광묘(有壇積石石坑墓), 계단적석석광묘(階壇積石石坑墓), 계단적석석실묘(階壇積石石室墓) 포함) 3,368기(49.14%), 봉토묘(유단봉토석실묘(有壇封土石室墓),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 386기(5.63%), 통실묘 3, 100기(45.23%)로 분류하였다. 1997년 조사결과에서 봉토묘의 수량이 1996년에 비해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번에는 통실묘(洞室墓)를 적석묘와 봉토묘에서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며, 그 수량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실묘는 어떤 상황인가. 조사보고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통실묘의 묘실도 석재로 축조하였는데, 단실이 많다. 통실은 높이가 1m정도인 것이 많으며 석재의 가

구려 고분은 보도된 것 모두 적석묘이다.³⁾ 이들 고분은 대대로 파괴되고 교란되었으며, 특히 일부 소형고분은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 처음으로 적석묘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200여기 정도가 발굴되었다. 이들 발굴과 이어진 조사를 통해서 적석묘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I. 적석묘의 유형

적석묘의 유형에 관해서는 몇 십년 동안 국내외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다양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학자들의 인식이 점차 접근해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이전 연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수정을 한다. 이들 차이는 비록 용어사용의 차이에 속하는 것이 적지 않지만, 그중에는 또한 그들의 각자의 관찰의 각도, 연구의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고구려 적석묘에 대해서 재차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고분 외부 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분 내부의 차이점도 주목해야 한다. 각종 유형의 명칭에 대해서도, 가장 좋기로는 이 분야의 특징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고분유형의 명칭을 보기만 해도 바로 그것의 외부형태와 내부구조를 연상해 낼 수 있다.

다년간의 조사·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적석묘의 외부구조는 무단(無壇), 방단(方壇)과 방단계제(方壇階梯)의 3종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재료는 강자갈, 자연석과 가공한 석재가 있으나, 깨지거나 완전한 것, 그리고 거친 것과 정교한 것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무단(無壇)은 먼저 커다란 강자갈 또는 돌덩어리를 지면에 대체로 방형 또는 장방형의 테

공도 매우 간략하여 매우 가지런하지 않다. 천장부분의 네 모서리도 일반적으로 간단한 말각조정 기법(抹角疊澀做法)이 발견되며, 그 위에 판석을 덮었다. 통실 외부는 어떤 것은 또한 석재로 계단 형태를 만들었으므로 당연히 석묘계통에 포함된다. 대다수는 흙으로 덮었는데, 일부 토석 혼축한 것도 있으며 토묘로 분류한다. 그러나 통실묘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용한 재료도 작아 교란이나 파괴되기 쉬운데,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외부는 항상 어떤 형태의 봉토인지 분별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봉석통석묘(封石洞石墓), 봉토통석묘(封土洞石墓) 또는 토석혼축봉통석묘(土石混封洞石墓)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인용자 주) 통칭하여 통실묘로 부른다". 사실 조사보고에서 말한 것과 같이 통실묘는 "대부분 흙으로 덮거나 토석으로 혼축하였으므로 토분류로 분류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9~15쪽).

- 3) 田村晃一 著, 李蓮 譯, 1985, 「論高句麗積石墓의 結構與分類」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7기 ; 李正南 著, 文一介 譯, 1991, 「云坪里高句麗墓群第4區積石墓發掘報告」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6기 ; 李正南 著, 文一介 譯, 1992, 「慈江道楚山郡蓮舞里二號墓發掘報告」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7기 ; 李昌恩 著, 文一介 譯, 1992, 「在最新調查發掘鴨綠江流域積石墓時引起人們注意的幾個問題」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8기.

두리(혹은 ‘고분의 기단(墓基)’이라고도 함)를 만들고, 다시 깨진 돌(작은 강자갈 또는 돌)로 전체 무덤을 감싸서 덮어서 매우 불규칙한 돌무더기를 만든다.

방단(方壇)은 고분의 네모서리를 커다란 돌과 장대석으로 반듯하게 계단 한 층을 쌓고, 다시 그 위를 깨진 돌로 덮는다. 이 구조는 유단(有壇), 기단(基壇)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방단계제(方壇階梯)는 그 축조방법과 과정이 지형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형이 평탄한 곳에서는 먼저 커다란 돌 또는 장대석으로 바닥에 계단을 한층 쌓는데, 높이는 고분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르다. 방단 안에는 크기가 다양한 강자갈 또는 돌을 채워서 평평하게 한다. 이 평면 위의 네모서리는 각각 안쪽으로 일정하게 좁혀서 두 번째 방단(方壇)을 쌓는다.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방단(方壇)을 만드는데, 층이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좁아져서 계단형태를 이루며, 윗부분은 깨진 돌로 덮는다. 그러므로 방단계제(方壇階梯)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학자는 그것을 계단(階段), 계대(階臺)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을 분급평축법(分級平築法 : 층마다 평평하게 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학자는 첩압구축법(疊壓構築法)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종류는 지면경사가 비교적 큰 곳에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적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곳에 몇 겹의 벽을 쌓고, 위쪽은 높고 아래쪽은 낮게 하여 순서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높은 곳에는 조금 쌓기도 하고, 아예 석벽을 축조하지 않기도 한다. 최근에 많은 학자와 논저에서 이러한 축조방법을 계장구축법(階牆構築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축조방법을 통해서 만든 적석묘를 계장적석묘(階牆積石墓)라고 한다. 상술한 분급평축법으로 축조한 적석묘는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 또는 첩압식계단적석묘(疊壓式揭壇積石墓)라고 부른다. 2003년에 이루어진 집안 대형적석묘왕릉 발굴로, 초기의 대형적석묘왕릉 몇 기에 채용된 것은 계장구축법(階牆構築法)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계장구축법(階牆構築法)이 더 원시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외관상 이 두 축조방법의 효과는 서로 같아서, 어떤 때는 하나의 고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단계제(方壇階梯)라고 통칭한다.

적석묘 내부구조는 석광(石壙)과 석실(石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석광은 단지 돌로 네 벽을 쌓고 천정에는 덮개돌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문(墓門)과 묘도(墓道)가 없다. 석실은 천정에 덮개돌이 있으며, 묘문과 묘도가 있다.

이외에 환인(桓仁)·집안에 분포한 적석묘 발굴에서 또한 일부 광(壙) 또는 갱(坑)이라 볼 수 없는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석광(石壙)에 비해서는 약간 더 간루(簡陋)하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이 오랫동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도 후대의 파괴 또는 기타 원인으로 훼손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욱 발전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일단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석광유형에 포함시킨다.

또한 일부 고분은 석광을 비교적 넓고 크게 만들었고, 문과 묘도가 있다. 묘도(대부분은 편서향) 양쪽에는 또한 측실(耳室)이 있거나 돌로 쌓은 부장품을 놓는 곳(器物箱)이 있다. 부

장품을 넣는 곳과 측실에서 모두 덮개돌이 발견되었고, 안쪽에는 도기를 두었다. 묘도와 석광 천정에서는 덮개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분 내부구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광실(曠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구조에 남아있는 석광(石曠)과 묘도(墓道)의 천정 부분에는 원래 분명히 덮개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석실구조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석광에 문과 묘도를 설치한 것은 매우 적다. 그것은 석광에서 석실로 전환되는 중간단계의 형식이다.

적석묘 외부구조와 내부구조를 서로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 몇 가지의 유형은 현재까지 다소 발견되었으며,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적석묘 유형표

내부	외부	무단	방단	방단계제	
	석광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	방단계제석광묘	적석석광묘
석실	무단석실묘	방단석실묘	방단계제석실묘	적석석실묘	
	무단적석묘	방단적석묘	방단계제적석묘		

표에서 열거한 적석묘 유형은 실제로 무단석광묘(無壇石曠墓), 방단석광묘(方壇石曠墓), 방단계제석광묘(方壇階梯石曠墓), 무단석실묘(無壇石室墓), 방단석실묘(方壇石室墓),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 등 6종류이다.

무단석광묘는 외부에 단(壇)이 없고, 안에는 석광(石曠)이다. 적석의 규모는 크지 않고, 석광바닥은 지표면과 같거나 약간 높다. 대부분은 구덩이가 하나이지만, 두 개인 것도 보인다. 석광 천정은 깨진 돌로 덮었다. 이전에 학자들이 분류한 적석묘(積石墓), 적석석광묘(積石石曠墓), 원구식적석묘(圓丘式積石墓)가 바로 이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방단석광묘의 규모는 무단석광묘보다 크고, 그 내부구조는 무단석광묘와 기본적으로 같다. 석광은 구덩이가 하나인 것, 두 개인 것 또는 여러 개인 것이 있다. 다른 점은 고분 들레를 대형돌 또는 장대석으로 반듯하게 방단(方壇)을 한 층을 쌓은 것이다. 내부는 조약돌 또는 돌로 평평하게 채웠다. 석광은 이 평평하게 메운 돌바닥에 쌓고, 석광 위부분은 깨진 돌로 덮었다. 학자들이 분류한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 유단적석석광묘(有壇積石石曠墓)와 기단적석묘(基壇積石墓)가 바로 이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방단계제석광묘의 내부구조는 방단석광묘와 같으나, 다른 점은 외부에 상술한 분급평축법 또는 계장구축법으로 방단계제를 만든 점이다. 석광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단 위에 만든다. 구덩이가 하나인 것, 두 개인 것, 여러 개인 것 등의 구별이 있다. 석광 천정은 깨진 돌로 덮었다. 이전에 학자들이 분류한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 방단적석석광묘(方壇積石石曠墓), 계단식적석묘(階壇式積石墓)와 일부 원구식적석묘(圓丘式積石墓), 일부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가 바로 이러한 유형이다.

무단석실묘로 발표된 자료는 매우 적다. 북한 자강도(慈江道) 초산군(楚山郡) 운평리(云坪里)

에서 일찍이 발견된 예가 있는데, 묘도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체 묘실과 묘도 평면이 도(刀)자 형태를 이루게 하였다. 원위치에 남아있는 일부 덮개돌에서 석실이 평천정임을 알 수 있다.

방단석실묘 사방은 방단구조(方壇構造)이며, 안쪽은 석실이다. 석실은 방단 중간 지표면에 있고, 네 벽은 가지런한 돌이나 장대석으로 쌓거나 커다란 판석을 세워서 쌓았다. 석실 천정은 커다란 돌로 덮었는데, 대부분은 평천정이고, 일부 말각고임도 있다. 묘도(墓道)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 묘실(墓室)과 묘도(墓道) 평면은 도(刀)자 형태를 이룬다. 동일한 고분에는 묘실이 하나인 것,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 등의 구분이 있다. 묘실이 두 개이거나 세 개인 것은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다. 각각 묘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깨진 돌로 각 묘실을 하나로 감싸서 덮었다.

방단계제설실묘 내부 구조는 방단석실묘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단지 외부만 방단계제(方壇階梯) 구조이다.

상술한 여섯 가지 유형을 종합하면, 외부구조가 무단인 것은 무단적석묘로, 방단인 것은 방단적석묘로, 방단계제인 것은 방단계제적석묘로 통칭할 수 있다. 내부구조가 석광인 것은 적석석광묘로, 석실인 것은 적석석실묘로 통칭할 수 있다.

II. 다양한 유형의 적석묘 등급과 연대

상술한 다양한 유형을 지닌 전형적인 고구려 적석묘에 대해서, 필자는 일찍이 그 형식구조 · 장식 · 부장품 등을 각각 표를 작성하여 상세하게 통계를 내었는데, 아래의 표 2, 표 3과 같다(집안에 있는 대형적석묘왕릉은 포함시키지 않음).

표 2 적석묘 외부구조 변화표

유형		연대		총행배열	적석규모	석광·석실 위치	불에 그을린 흔적	부장품 종류	벽화
		상한	하한						
무단적석묘	무단 석광묘	고구려정권 건립 전	5세기	많이 보임	무단, 방단	대부분 지표면과 나란하거나, 지표면보다 약간 높음	있음	도기, 철기 및 한나라시기 동전	
	무단 석실묘					지표면보다 약간 높음		철기, 골기	
방단적석묘	방단 석광묘	아무리 늦어도 동한 초기보다 늦지 않음	4~5세기	많이 보임	방단계제에서	대부분 방단 위	있음	도기, 철기, 동기, 전국 및 한나라시기 동전	
	방단 석실묘			일부 존재		지표면보다 약간 높거나 지표면과 같음			

방단계제 석묘	방단계제 석실묘	방단석광묘와 대략 같은 시기	5세기	많이 보임	점차 늘어남	다른 계단 위	있음	도기, 유약바른 도기, 철기, 동기, 및 도금한 유물	
	방단계제 석실묘	3세기 말 ~ 4세기 초	5세기	일부 존재		일부 대형묘 석실은 적석 상부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표면과 같음		도기, 유약바른 도기, 철기, 동기, 도금한 유물, 은기, 직물잔편과 칠기 잔편	

표 3 적석묘 내부구조 변화표

유형	연대		종행 배열	적석 규모	석광·석실 위치	불에 그을린 흔적	부장품 종류	벽화	
	상한	하한							
적석 석광묘	무단 석광묘	고구려정권 건립 전	5세기	많이 보임	무단, 방단, 방단계제에서	대부분 지표면과 같거나 약간 높음	있음	도기, 철기 및 한나라시기 동전	
	방단 석광묘	아무리 늦어도 동한 초년을 넘지 않음	4~5세기	많이 보임	방단계제에서	대부분 방단 위	있음	도기, 철기, 전국 및 한나라시기 동전	
	방단계제 석광묘	방단석광묘와 대략 같은 시기	5세기	많이 보임	점차 늘어남	다른 계단 위	있음	도기, 유약바른 도기, 철기, 동기, 도금한 유물	
적석 석실묘	무단 석실묘				무단, 방단, 방단계제에서	지표면보다 약간 높음		철기, 골기	
	방단 석실묘			일부 존재	방단계제에서	지표면보다 약간 높거나 같음			
	방단계제 석실묘	3세기 말~4세기 초	5세기	일부 존재	점차 늘어남	일부 대형묘 석실은 적석묘 상부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표면과 같음		도기, 유약바른 도기, 철기, 동기, 도금한 유물, 은기, 직물잔편 및 칠기 잔편	일부에서 벽화 잔편 발견

연대가 오래되어 고구려 고분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부장품도 거의 남지 않았다. 그래서 위의 두 표에 채워야 할 항목이 오히려 공백이 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표 내용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축조기술에서 보면, 적석묘의 외부구조인 무단, 방단과 방단계제에서는 무단(無壇)의 출현이 약간 빠르지만, 고구려가 건국한 이후 이 3가지 구조는 오랫동안 발전하여, 그 하한은 모두 5세기에 이르므로, 무단, 방단, 방단계제의 구조의 차이는 주로 시대의 빠르고 늦음에 따른 구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외부가 마찬가지로 무단, 방단과 방단계제 구조를 띤 고분일지라도 그 내부는 다시 각각 석광과 석실구조를 띠고 있어서,

석광·석실이 외부구조와 대응관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대표적인 의미도 당연히 외부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무단적석묘, 방단적석묘와 방단계제적석묘의 적석규모에 관해서, 과거에 필자는 구체적인 수자를 비교하였으나, 적석묘에서 구덩이가 두 개이거나 여러 개인 것, 고분 한 기에 묘실이 두 개이거나 여러 개인 것이 병렬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적석규모의 수적 변화로 어느 구조의 고분이 다른 유형보다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 사이에는 또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무단--방단--방단계제에서 적석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은 또한 명확하다. 특히 한 변의 길이가 몇 십 미터에 이르는 왕실귀족급의 대형 방단계제적석묘는 다른 묘장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각종 유형의 고분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이며, 동일한 지역, 즉 동일한 고분군에 속하는 고분은 그 규모의 크기와 외부구조의 변화관계가 보다 분명하다.

다시 부장품의 종류로 보면, 고분이 교란되었으므로 무단적석묘에서 발견된 것은 약간의 도기와 철기들이고, 방단적석묘에서는 청동기가 증가되었으며, 방단계제적석묘에서는 다시 유약을 바른 도기와 은기, 도금기가 늘어났는데, 어떤 고분에서는 식물흔적, 칠기잔편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벽화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적석묘 외부구조인 무단, 방단과 방단계제는 처음부터 어떤 선후순서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 볼 수 있는 주요한 것은 시대의 빠르고 늦음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등급의 높고 낮음에 의한 차이이다.

적석묘 내부구조에 관해서, 먼저 두 가지 장속을 보면, 고분분포의 종행배열현상은 석광구조 고분에서 보이지만, 석실구조를 띤 고분에서는 매우 적다. 화장흔적도 석광구조를 띤 고분에서만 보이고 석실구조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두가지 장속, 특히 전자는 일종의 원시씨족가족장 풍속이므로 이러한 장속을 사용한 고분은 시기가 분명 빠르다. 이로부터 다시 표2에 열거된 다양한 구조를 지닌 고분을 보면, 적석석광묘의 3가지 유형은 그 연대 하한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고구려정권 건립 전후부터 5세기까지이다. 적석석실묘에서는 단지 방단계제석실묘의 시대가 비교적 분명한데, 바로 3세기 말 4세기 초부터 5세기까지이고, 다른 두 종류는 재료가 적어 명확하지 않지만, 상술한 두 종류의 장속을 참고하면 그 시대는 당연히 방단계제석실묘와 기본적으로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적석묘 내부 구조는 석광에서 석실로 변화하였고, 고분등급의 변화가 아니라 고분 시기의 선후에 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석광과 석실이 고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분석해 보자. 적석석광묘에서 무단--방단--방단계제에서 외부구조의 변화와 고분규모의 확대에 따라 석광의 위치도 점차 높아졌으나, 적석석실묘는 그렇지 않았다. 석실묘의 묘벽이 석광의 벽보다 높기 때문에 윗부분은 천정을 덮어야 했고, 천정 위를 또한 돌로 덮었다. 그래서 일부 대형 방단계제석실묘의 석실만이 무덤 중상부에 축조되었을 뿐이며, 그 나머지는 석광과 같이 외부 구조의 변화에

따라 높아지지 않고, 대부분은 직접 지표면 또는 지표면보다 약간 높이 축조하였다. 따라서 만약 이후 봉토석실의 석실이 모두 지표면 또는 지표면보다 약간 낮게 축조하였다는 것을 연관지어 보면, 석실은 고분 중에서의 위치가 석광과 다르며,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적석묘에는 또한 일종의 석관묘가 있는데, 규모가 비교적 작고, 축조법도 매우 간단하다. 유행한 기간은 적석석실묘와 같으며, 이후의 봉토석관묘와 계승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고분의 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는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고구려 적석석광묘는 고구려정권이 건립 이전부터 5세기까지 이어졌다. 그사이 3세기 말 4세기 초에 다시 적석석실묘가 출현하였는데 그 소멸시기는 기본적으로 동시기로 대체로 5세기 말까지이다. 적석묘와 관련하여 고구려봉토묘를 보자. 고구려봉토묘 내부는 석실로, 중소형의 벽화가 없는 봉토석실묘와 중대형의 벽화가 있는 봉토석실묘가 포함되며, 연구를 통해 보면, 이것은 4세기에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석석광은 고구려 본민족의 고분유형으로, 고구려고분의 유형구조는 석광에서 석실, 적석에서 봉토로의 변화는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져 모두 4·5세기에 유행하였다. 이 기간에는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를 띤 고분이 출현하였는데 바로 적석석실묘로 그 수량은 많지 않으나 5세기 말까지 축조되다가, 적석석광묘와 함께 날로 발전한 봉토석실묘로 대체되었다. 고구려 고분유형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은 이 시기 고구려 세력의 발전 및 외부 문화로부터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I. 적석묘의 특징

1. 적석묘의 분포배열

고구려 고분의 분포배열에 관해서,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고 평야가 적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⁴⁾ 그 고분은 대부분 산기슭, 산자락 또는 하곡 양쪽에 위치한다. 서로 비교해 보면, 봉토묘는 대부분 지세가 낮고 평평한 곳에 있고, 적석묘는 지세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있으며, 종종 지세의 높낮이에 따라 위에서 아래의 세로방향으로 배열되어, 각 줄마다의 길이는 몇 십미터 내지 백미터 이상에 이른다. 예를 들어 환인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고분군은 “고분군 남단은 적석대묘구로 모두 70여 기가 있다. 남쪽 끝의 높은 언덕위에도 1기가 있고, 그 북쪽에도 2기가 이웃해 있다. 다시 북쪽으로 순서대로 4줄로 발전하여, 긴 것은 70m에 달하며 고분마다 서로 이어져 있다. 북쪽에 있는 고분은 모두 남벽이 없고, 모두 남쪽 고분 북벽을 이용하여 묘실을 쌓았다. 이로써 이 유형 고분의 형성시기는 남쪽 고분이

4) 『三國志』권30, 「烏桓鮮卑東夷·高句麗傳」.

없으면 북쪽 고분이 없으므로, 역시 남쪽 고분이 먼저 축조된 이후 북쪽 고분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기에 따라 발전해 갔다. 4줄의 적석묘 배열은 질서있으며, 북쪽(즉 시대가 늦을수록)으로 갈수록 동서 양쪽으로 확대되었다.⁵⁾ 유사한 현상은 집안에서 더욱 보편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집안박물관 소속 연구원이 상세하게 고증한 적이 있다.⁶⁾ 그들은 그중에서 같은 고분에 기본적으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석광 또는 석실을 축조한 고분은 ‘곶묘(串墓)’라고 하였다. 그중에서 적석석광묘와 적석석실묘가 서로 이어진 것은 80%이상으로 대부분 산기슭에 분포한다. 적석석광묘와 적석석실묘가 서로 이어진 것은 18%이며 대부분은 산기슭의 곶묘 끝자락에 분포한다. 적석석실묘와 봉토석실묘가 서로 이어진 것은 이보다 더 적으며, 일반적으로 하류 양안 대지에 분포하는데, 물길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봉토석실묘는 대부분 배열의 끝자락에 있으며, 그 배치도도 비교적 드문 드문하다.

또 주의할 만한 것은 적석묘 곶묘의 끝자락에서, 어떤 것은 다시 면적이 비교적 큰 방단 또는 방단체제를 축조하였는데, 그 평면은 방형 또는 반원형이라서 “묘설(墓舌)” 또는 “제단(祭壇)”이라고 불린다. 실제 기능은 상부의 적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견과 연구가 필요하다.

5세기 이후 적석묘가 소멸함에 따라 “곶묘”를 중심으로 한 종향배열현상도 점차 쇠퇴하였다. 이후의 봉토묘, 특히 중대형의 봉토묘에서 산 아래의 평지에 횡향배열의 배치가 나타났는데, 집안 오회분(五灰墳)과 사회분(四灰墳)이 바로 전형적인 예이다.

적석묘 가운데 지세의 높낮이에 따라 위로부터 아래로 종향배열되는 현상은 원시씨족축장의 유속에 속한다. 말건(摩爾根)은 고대 씨족의 공동묘지를 분석하고 조사할 때, 유사한 현상들을 만났고 각 열마다 다른 씨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다.⁷⁾

5) 陳大爲, 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1기.

6) 孫仁杰, 1993, 「高句麗串墓의 考察與研究」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7) 각각의 무덤 안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각 씨족 성원은 모두 안쪽에 매장되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씨족 성원과 함께 합장(同葬)을 하였을 것이다. 라이터의 관찰은 정확함에 의문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증거들이 이웃한 Lewiston(路易斯吞)지역의 Tuscarora(塔斯卡洛刺) 보류지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보류지의 Tuscarora(塔斯卡洛刺)부락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씨족인들이며, 모두 열을 지어 한 곳에 매장되었다. 그중에서 한 열은 해리씨족(海狸氏族) 사망자의 무덤이고, 다른 한 열은 회색랑씨족(灰色狼氏族) 사망자의 무덤인데, 이런 형태로 여덟 줄이 있다. 남편과 아내는 따로 매장하며 그 열이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도 각각 다른 줄에 묻었다. 그러나 모자, 형제, 자매는 같은 줄에 있는 무덤에 묻었다. 이러한 사실은 씨족의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씨족이 양호한 조건에서 신속하게 고대의 구습을 회복하여 나갔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Tuscarora(塔斯卡洛刺)부는 현재 비록 기독교화 되었으나 옛날 습관은 아직 버리지 않았다. 윈네푸오지아(溫嫩多加)부락의 인디언들은 일찍이 저자에게 말하기를 동일한 씨족을 매장하는 법이 현재도 윈네푸오지아(溫嫩多加) 및 Oneida(奧奈達) 묘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습관이 비록 모든 인디언부락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대에 이러한 묘장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별다른 의심이 없다(말건 저 楊東純·張栗原·馮漢驥 譯, 1971, 『古代社會』 제1책, 商務印書館, 135쪽).

문헌에서는 고구려는 본래 연노부(涓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5부는 실제로 5개의 큰 부족으로 어찌면 본래 씨족에 속하였다가 후에 발전하고 확대되어 씨족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내부는 또한 필연적으로 약간의 씨족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왕의 종족, 대가(大加)는 모두 고추가로 부른다. 본래 연노부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비록 왕이 되지는 않지만, 적통대인(嫡統大人)은 모두 고추가(古鄒加)라 부른다. 또한 종묘를 세우고,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 제사한다. 절노부는 대대로 왕과 혼인하였으며, 고추의 호칭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였다. 고구려 고급관리 대대로(大對盧)는 우선 상가(相加)의 뒤에 위치하는 두 번째 관등이나 후에 첫 번째에 놓였고, 고구려 후기에 이르기까지도 줄곧 서로 공격하여 승자가 그 직을 수행하였음에 고려왕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⁸⁾ 그 배후에는 분명이 부족 세력에 의탁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후기의 명장 연계소문은 순노부에서 나왔으나(또는 左部, 東部), 바로 그 아버지의 동부대인과 대대로 직위를 계승한 이후 당시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하였다.⁹⁾ 따라서 고구려 원시씨족 족장 풍속은 정권을 건립이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2. 적석묘의 불에 탄 흔적

적석석광묘에서 또한 불에 탄 현상이 적지 않게 발견되며, 구덩이의 돌도 모두 그을려서 온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인 M15는 “조사 당시에 수많은 용암석과 불에 그을린 돌이 발견되었으며 불에 탄 인골잔편 약간이 발견되었다. 인골은 모두 용암석에서 타버렸으나 두개골과 사지골은 오히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모두 불에 타서 희게 변했다. … 부장품은 모두 그을린 돌과 용암석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 부장품은 불에 그을려 그 형태가 변하였다. 어떤 것에는 또한 용암석에 달라붙어 있었다.”¹⁰⁾ 다시 집안 만보정 M242를 예로 들면, 이것은 동일한 고분 기단 위에 4개의 묘실을 쌓은 적석묘이다. 북쪽에서 첫 번째 묘실은 석광구조인데, 불에 그을린 용암석 퇴적이 발견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묘실은 석실(또는 석관, 석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네 번째 묘실은 완전히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다).¹¹⁾ 집안 산성하구분군(山城下古墳群) 동대파묘지(東大坡墓地) 356

8) 『周書』 권49, 「異域上·高句麗傳」: (高麗) 大官有大對盧 次有太大人… 凡十三等 分掌內外事焉 其大對盧 則以強弱相陵 奪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

『舊唐書』 권199상, 「東夷·高句麗傳」: 其官大者號對盧 比一品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祇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御.

9) 『新唐書』 권220, 「東夷·高句麗傳」: 有蓋蘇文者 或號蓋金 姓泉氏 自云生水中以惑衆 性忍暴 父爲東部大人 大對盧 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 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灰 衆哀之 遂嗣位.

10) 陳大爲, 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1기.

11) 吉林省集安縣文管所, 1982, 「集安萬寶汀墓區242號古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6기.

호 방단계제석광묘는 두 번째 묘실 “교란된 구덩이 북쪽에서 불에 그을려 흘러내린 용암 석과 일부 변형된 자갈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불에 그을려 훼손된 청동기가 불에 그을려 흘러내린 돌과 붙어있으며, 쇠호미(鐵鏟)도 불에 그을려 변형되었다.¹²⁾ 이렇게 불에 그을린 현상은 학계에서는 대부분 화장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불에 그을린 현상은 지금까지 단지 적석석광묘에서만 발견되었고, 적석석실과 봉토석실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석석광묘와 병존했던 일종의 오랜 장속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3. 적석묘의 장구

고구려 고분의 장구에 관해서는 문헌기록이 매우 적다. 단지 『양서(梁書)』¹³⁾ 『고구려전』에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라는 몇 자만이 기록되어 있다. 무엇이 “유곽무관(有槨無棺)”일까. 과거에는 종종 적석석광묘의 석광을 가리키거나 또는 석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고고발견으로 보면, 봉토석실묘에서 벽화가 없는 중소형과 벽화가 있는 중대형을 포함하여 관못, 관고리와 관판 잔편이 다수 발견된 것은 이 시기에 이미 목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한다. 적석석광묘와 일부 적석석실묘가 포함된 적석묘에서는 상술한 목곽 부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쪽 끝을 굽게 하는 쇠로된 꺾쇠(鐵扒銅)만이 출토되었는데, 어떤 고분 석광 안에서 목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¹³⁾ 이들 고분에서는 목곽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목곽재료는 거칠고 크며, 꺾쇠로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유곽무관”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발굴에 근거하면, 목곽은 적석묘와 동일시기에 유행하였다. 그 안치과정은 내부가 석광이라면, 먼저 석광을 파고 다시 목곽을 설치한다. 어떤 것은 먼저 목곽을 설치하고 석광을 설치한다. 모든 것이 완비되고, 만약 화장을 하였다면, 목곽과 함께 타버린 이후 깨진 돌로 덮었을 것이다. 만약 화장하지 않았다면, 바로 깨진 돌로 위를 덮었을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목곽이 부패하였거나 교란되어 천정을 덮은 돌들이 구덩이 안으로 함몰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부가 석실이라면, 또한 먼저 네 벽을 축조하거나 먼저 목곽을 설치한 연후에 석재로 묘실을 덮고, 그 위는 다시 깨진 돌로 덮었을 것이다. 현재 발견된 일부 적석석실묘의 묘문과 묘도는 대부분 낮고 좁은데, 이것은 목곽이 묘문을 통하여 설치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후 석실 천정부분이 만약 파괴되었다면 함몰된 구덩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꺾쇠가 출토된 적석묘는 규모가 비교적 큰데, 어떤 것은 또 도금한 유물을 포함한 귀중한 금속기가 함께 출토되어, 이 고분의 등급이 매우 높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곧 목곽이 적석묘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용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적석석실묘에서는 관대와 관못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목곽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적석석실묘의 과도적인 성질도 출현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12) 張雪岩, 1991, 「吉林集安東大坡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7기.

13)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2기.

4. 합장과 이차장

합장에 관해서, 적석석광묘의 석광은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잔존 유적으로 보면, 모두 그다지 크지 않고, 인골도 매우 적다. 그래서 석광에 합장을 했는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 적석석실묘에서는 합장이 비교적 많다. 이것은 석실의 너비가 커졌기 때문으로서, 특히 적지 않은 석실묘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관대가 발견된다. 이러한 합장풍속은 이후의 봉토석실묘에서 일반적으로 유행하여, 일부 이혈동봉(異穴同封), 즉 두 개의 묘실 또는 세 개의 묘실에 각각 서로 통하지 않는 묘도를 만들고 동일한 봉토아래 있는 고분도 발견된다. 만약 합장 및 이혈동봉의 연원을 따져보면, 당연히 적석묘의 동일묘기단 위에 두 개 이상의 석광 혹은 석실을 축조한 방법과 관련지을 수 있다.

『수서』 『고려전』 과 『북사』 『고구려전』에는 고구려 장속에 대한 기록이 있다. 즉 “죽은 자는 집안에서 빈을 하고, 3년이 지나면 길일을 택하여 장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나, 그 이전의 사서에는 이와 같은 기록은 없다. 이것은 바로 고구려 후기에 이와 유사한 이차장 풍속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1976년 집안에서 중소형 봉토석실묘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출토된 뼈가 모두 심하게 교란되었기 때문에 발굴자는 이것을 이차장으로 추측하였다. 고구려 고분은 대부분 교란되거나 도굴되었기 때문에 교란된 뼈를 모두 이차장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크지 않지만, 이차장을 원인의 하나로서는 고려할 만하다.

5. 묘상건축흔적

고구려의 대형적석묘에는 일반적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잔편이 발견되며, 어떤 고분에서는 와당도 발견된다. 『집안고구려왕릉』에서는 기와의 존재여부로 왕릉을 확정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삼았다. 기와의 바탕에는 시대가 이른 것은 새끼줄무늬가 있고 늦은 것은 무늬가 없다. 와당은 무늬가 있는데 시대가 빠른 것은 구름무늬, 늦은 것은 연꽃무늬이다. 기와는 대부분 단단하며 소성도가 상당히 높다. 기와의 색깔에 대해서 일찍이 통계를 내어 보았는데, 성터, 유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대부분이 붉은색이지만 고분에서 발견된 것은 회색만 있다. 2003년 이루어진 집안대형적석묘왕릉 발굴에서 진하기가 다른 갈색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은 진하기가 다른 회색이다. 이것은 또한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와의 발견은 원래 고분에 건축시설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건축유적은 중원 선진시기의 고분에서 이미 발견되지만, 고구려 고분에 다른 건축유적이 남아있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에 원래의 건축배치 구조는 줄곧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다. 2003년 집안대형적석묘왕릉 발굴에서 다른 건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대형적석묘왕릉 주위에서 또한 배수 시설, 능원, 능침과 제단 등 유적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결론이므로 고구려초기왕릉의 유형구조에 대해서는 이만 줄인다. 고구

려는 기원전 37년 건국하여 668년 당에 멸망될 때까지 28왕 705년을 존속하였다. 연구를 통해 이 28왕 가운데 장수왕 이전, 즉 기원전 5세기 이전의 왕릉은 민중왕이 민중원 석굴에 장사된 것을 제외하면¹⁴⁾ 그 나머지는 모두 대형적석묘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5세기는 바로 고구려 적석묘와 봉토묘의 교체변화하는 단계로서, 봉토석실묘가 출현하여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벽화묘도 출현하였으나, 이 시기의 벽화묘는 규모가 비교적 작아 동시기의 대형적석묘와 비교할 수 없다. 최근에 새로 출판된 『고구려대형적석묘왕릉』에서 소개하고 연구한 것은 바로 이들 왕릉이다. 당연히 이 보고에는 시조 동명(주몽)성왕의 왕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지리지』에, 동명왕은 19년 재위하였으며, 죽은 이후 용산에 장사되었다. “대무신왕 3년(기원 20년) 봄 3월, 동명왕묘를 세웠다.” 그 후 신대왕(新大王), 고국천왕(故國川王), 동천왕(東川王), 중천왕(中川王), 고국원왕(故國原王), 안장왕(安藏王), 평원왕(平原王), 영류왕(榮留王)은 여러 번 졸본에 가서 씨족묘에 제사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¹⁵⁾, 이것은 동명왕묘와 왕릉이 처음부터 졸본, 즉 환인에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대형적석묘왕릉 내부구조는 석광으로 시작하여 이후 석실로 변화하였다. 석실은 협소하고 낮은 것에서 넓고 높은 것은 발전하였다. 그 외부구조는 대부분이 방단계제(方壇階梯)인데, 처음에 축조된 몇 기는 아마도 이후의 것처럼 완비되거나 반듯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는 방단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방단계제(方壇階梯)가 출현하자마자, 그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왕릉에 채용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조영된 방단계제(方壇階梯)는 계장(階牆)형식의 방단계제에 속한다.

1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권2 : (閔中王) 四年秋七月 又田 見石屈 顧謂左右曰 吾死必葬于此 不須更作陵墓 五年 王薨 王后及群臣重違遺命 乃葬于石窟 號爲閔中王.

15) (新大王) 三年(167) 秋九月 王如卒本 祠始祖廟 冬十月 王至自卒本.

(故國川王) 二年(180) 秋九月 王如卒本 祠始祖廟.

(東川王) 二年(228) 春二月 王如卒本 祠始祖廟.

(中川王) 十三年(260) 秋九月 王如卒本 祠始祖廟.

(故國原王) 二年(332) 春二月 王如卒本 祠始祖廟 巡問百姓老病賑濟 三月 至自卒本.

(安藏王) 三年(521) 夏四月 王幸卒本 祠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邑貧乏者賜穀人一斛.

(平原王) 二年(560) 春二月 王幸卒本 祠始祖廟 三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郡獄囚除二死皆原之.

(榮留王) 二年(619) 夏四月 王幸卒本 祠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09

卒本時期 高句麗의 對外關係

이인철 (동북아역사재단)

卒本時期 高句麗의 對外關係

이인철 (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卒本時期 高句麗와 西漢 玄菟郡의 關係 |
| II. 西漢 玄菟郡의 移動과 高句麗 | V. 맺음말 |
| III. 卒本時期 高句麗의 領土 및 周邊國과의 關係 | |

I. 머리말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漢 孝元帝 建昭 2年(BC 37)에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졸본을 첫 도읍지로 정하여 거주하다가, 瑠璃明王 22년(AD3)에 國內(城)로 천도하였다. 그러나 『後漢書』 고구려전에서는 서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군에 속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이는 주몽이 나라를 세운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BC 107년 이전부터 고구려가 존재해왔음을 의미한다. BC 75년에 고구려는 현도군을 서북 방향으로 몰아내게 되는데 고구려의 실질적인 국가형성은 이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졸본 시기의 고구려는 BC 75년에서 AD 3년까지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외관계는 고구려가 하나의 국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고구려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지방정권이라면 고구려와 다른 정치체와의 관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관계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예맥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고구려사회에 BC 107년에 현도군이 들어졌으나 기원전 75년에 이맥의 공격을 받아 구려 서북쪽 지금의 신빈현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고구려가 현도군을 축출하는 과정이 소노부 중심의 소국연맹체 형태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기원전 37년경에 주몽의 등장과 함께 고구려가 연맹왕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중심세력이 계루부로 바뀌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¹⁾

이와는 달리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가 현도군 내에 건립된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 특히 馬大正은 고구려를 중국동북역사상의 소수민족정권이라 정의하

1) 李仁哲, 2006 「고구려 국가형성의 전제조건과 귀속문제」 『中央史論』23, pp.1~52.

2)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pp.158~166.

孫玉良 李殿福, 1990 「高句麗同中原王朝的關係」 『博物館研究』3; 孫進己·孫海 編,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pp.159~170.

고, 고구려의 선인들은 아직 부락상태에 있을 때 周에 신하가 되어 복종하고 조공하였으며,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에 속하였기 때문에, 漢 정부는 고구려현 지방 관리를 통하여 고구려인에 대해 실제 관할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 관할 범위 내에 정권을 세웠는데, 사서에서는 고구려국이라 기록하였지만 실질상으로는 한의 현도군 내의 일개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한다. 또, 고구려칭호는 기원전 109년 한무제 조선정벌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기원전 37년에 고구려인이 민족정권을 세우고 고구려국을 칭하였는데 한 번도 현도군과 요동군의 관할구역을 이탈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³⁾

李大龍도 고구려국은 서한왕조의 현도군과 고구려현 관할의 변경소수민족이라 정의하고, 고구려부락 관원의 설치는 현도군태수의 인가를 거쳐야 했고, 고구려의 구체적 일상사무 처리는 고구려현령의 책임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또 “고구려정권은 한 현도군 고구려현 경내에서 출현하여, 세력이 약소했던 까닭에 漢 왕조가 중요시하는데 이르지 못하여, 1개 독립적 변경민족정권으로 상대하여 대우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하여 고구려가 서한왕조에 대하여 칭신납공한 기회를 찾을 수 없다. 군현의 직접 관할 하에 들어가 현도군 소속 고구려현이 고구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⁴⁾

王綿厚도 “현도군이 고구려에게 朝服衣幘을 준 것은 印信(관인)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모두 중앙왕조를 대표하여 당시 각 민족정권 혹은 侯國에게 신하 직책의 信物 표지로 준 것이다. 주몽이 지금 훈강 유역에서 건립한 고구려정권은 처음부터 한 현도군 경내에 있었고, 고구려현령이 그 名籍을 주관한 지방 민족정권”이라 하였다.⁵⁾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현도군의 설치와 고구려를 비롯한 夷貊의 공격을 받아 현도군이 고구려 서북쪽으로 밀려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가 현도군 영역 밖에 건립되었음을 밝히려 한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졸본 시기에 대외 정복 활동을

楊昭全, 1993 「論高句麗歸屬」 『韓國上古史學報』13, pp.187-201.

孫進己, 1994 「高句麗族和周邊各族的關係」 『東北民族史研究』, pp.236~240.

孫進己, 1994 「關於高句麗歸屬問題的幾個爭議焦點」, 위의 책, pp.286~292.

徐貴通, 1996 「中原王朝對高句麗諸王的冊封」 『通化師院學報』1期; 孫進己·孫海 編, 1997 앞의 책, pp.178~180.

徐德源, 2001 「高句麗歷史與疆域歸屬問題補議」 『社會科學戰線』5期, pp.171~174.

馬大正 外,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pp.8~11.

馬大正, 2004 「中國學者的高句麗歸屬研究評析」 『東北史地』1, p.6

李大龍, 2001 「高句麗與兩漢至南北朝中央王朝的關係」; 馬大正 外, 2001 앞의 책, pp.184~187, pp.205~207.

馬大正 外, 2003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pp.97~98.

王綿厚, 2004 「關於確認高句麗歷史地位的三要素」 『東北史地』1, p.47.

厲聲 李方, 2004 「隋唐征伐高句麗芻議」 『東北史地』2, pp.3~7.

3) 馬大正, 2001 앞의 책, pp.8~11.

4) 馬大正 外, 2003 앞의 책, pp.97~98.

5) 王綿厚, 2004 앞의 논문, p.47.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서 당시의 고구려 영토와 주변국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서한이 고구려에 주었다는 고취기인과 조복·의책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구려와 서한 현도군의 관계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II. 西漢 玄菟郡의 移動과 高句麗

漢나라는 위씨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樂浪臨屯玄菟真番 4郡을 두었다고 한다.⁶⁾ 『後漢書』 동옥저전은 漢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沃沮의 땅을 玄菟郡으로 삼았다고 전하고,⁷⁾ 『三國志』 동옥저전은 沃沮城을 현도군으로 삼았다고 전한다.⁸⁾ 『後漢書』 고구려전에서는 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高句驪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속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이에 따르면 현도군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고구려가 있었다. 『후한서』에서는 옥저의 땅, 『삼국지』에서는 옥저성을 현도군으로 삼았다고 하므로, 고구려현으로 편제된 지역과 옥저를 포괄하는 지역이 현도군으로 편제되고, 고구려는 그 현도군 내의 1개현으로, 옥저성은 현도군의 郡治가 되었다고 하겠다.¹⁰⁾ 여기서 현도군의 1개현으로 편제되기 전의 고구려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현도군으로 편제된 지역을 위씨조선 내의 1개 지방명칭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史記』 匈奴傳에서 ‘東拔穢貊·朝鮮, 以爲郡’이라고 한 사료를 참작하면, 조선은 낙랑·진번·임둔을 포괄하는 지역이고, 현도는 압록강 방면의 예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¹⁾

어느 경우이든 현재 남아있는 사료를 가지고는 BC 107년 이전에 고구려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고구려의 정치체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BC 107년 이전에 고구려의 존재가 확인됨으로 해서 고구려가 애초에 현도군 경내에서 건립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C 107년 이전 고구려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위씨조선 및 기자조선과 고구려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徐德源과 馬大正이 고구려 귀속의

6) 『漢書』 本紀 卷六 武帝紀 第六. 『後漢書』 列傳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濊.

7) 『後漢書』 列傳 卷85 東夷列傳 第75 東沃沮.

8) 『三國志』 魏書 卷30 魏書30 東夷 東沃沮. 함흥, 구체적으로는 영흥의 소라리 토성이 현도군 군치로 생각된다.(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와 문화』, p.328)

9) 『後漢書』 列傳 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驪.

10) 이러한 견해는 청말의 학자 楊守敬이 제시하였던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이병도의 비판이 있다(李丙燾, 1976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pp.163~164). 또, 당시 현도군이 서쪽으로는 혼하 하류에서부터 동으로는 동해안의 함흥평야에 이르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긴 管狀帶와 같은 형상의 군이었다는 견해가 있다.(和田 清, 1951 「玄菟郡考」 『東亞史研究 滿洲篇』. 노태돈, 1999 앞의 논문, p.322)

11) 李丙燾, 1976 앞의 책, p.167.

전체는 현도군의 귀속문제이고, 현도군 귀속의 역사적 전제는 기자조선과 위씨조선에 관한 귀속문제라고 한 것도,¹²⁾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견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와 이들 조선은 다른 정치체이기 때문에 기자조선과 위씨조선의 귀속에 따라 고구려국가의 귀속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¹³⁾

『後漢書』예전에 따르면 昭帝 始元 5年(BC 82)에 臨屯·真番을 과하여 樂浪·玄菟에 합하고 玄菟는 다시 句驪로 옮겨居하게 했다.¹⁴⁾ 현도군의 군치가 고구려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나 현도군은 다시 토착세력의 저항을 받아 서북쪽으로 쫓겨 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後漢書』 동옥저전에서는 武帝가 조선을 멸하고 沃沮의 땅을 玄菟郡으로 삼았으나, 後에 현도군이 夷貊의 침입을 받아 郡을 高句驪 서북으로 옮겼다고 하였고,¹⁵⁾ 『三國志』 동옥저전은 句麗 서북으로,¹⁶⁾ 옮겨갔다고 전한다.

현도군이 구려 서북으로 옮긴 시기에 대해서는, 元鳳 6년(BC 75) 춘정월에 郡國의 무리를 모아 遼東·玄菟城을 쌓았다는 기록을 근거로,¹⁷⁾ 元鳳 6년(BC 75)이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⁸⁾ 그렇다면 현도군은 옥저성을 郡治로 하여 설치되었다가, 昭帝 始元 5年(BC 82)에 구려로 옮겼으며, 기원전 75년에 그 지역 주민인 夷貊의 공격을 받아 구려 서북쪽으로 구축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¹⁹⁾ BC 107년에서 BC 75년까지 고구려는 현도군 고구려현으로 편제되어 그 직접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구려는 서한 현도군 내의 1개 지방이었다. 이 시기의 고구려는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지역집단 명칭이었으나²⁰⁾ 한군현과 대결하면서 소국연맹체의 형태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BC 75년에 현도군이 옮겨간 지역은 구려 서북쪽, 지금의 요녕성 新賓縣 永陵鎮 西南 蘇子河南岸의 漢代古城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²¹⁾ 이 때, 지금의 환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12) 徐德源, 2001 「高句麗歷史與疆域歸屬問題補議」 『社會科學戰線』 5期, pp.171~174. 馬大正, 2004 「中國學者的高句麗歸屬研究評析」 『東北史地』 1, p.6.

13) 가령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과거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유럽 각국의 정권이나 역사가 이탈리아에 귀속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4) 『後漢書』 列傳 卷85 東夷列傳第75 濊.

15) 『後漢書』 列傳 卷85 東夷列傳 第75 東沃沮.

16) 『三國志』 魏書 卷30 魏書30 東夷 東沃沮.

17) 『漢書』 本紀 卷7 昭帝紀 第7. 『漢書』 志 卷26 天文志 第6.

18) 이 때 현도군이 옮겨간 지역을 이병도는 지금의 요녕성 신빈현 興京 老城 부근으로 보았다. (李丙燾, 1976 앞의 책, p.159.)

19) 金美旻, 2002 「第1 玄菟郡의 위치에 관한 검토」 『실학사상연구』 24, pp.20~43.

20) 현도군이 구려 서북쪽으로 옮겨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고구려가 하나의 지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徐家國에 따르면 요녕성 신빈현 일대에서 3개의 漢代 古城址가 발견되었다. (徐家國, 1984 「漢玄菟郡二遷址考略」 『社會科學輯刊』 3, pp.116~117) 왕면후는 서한 현도군은 기원전 82년에 고구려현 지금의 요녕성 신빈현 영릉 남쪽 이도하자 고성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王綿厚, 2004 「關於

에 설치되었던 高句麗縣도 현도군과 함께 지금의 신빈현 영릉 쪽으로 옮겨갔다. 특히, 현도군이 夷貊의 침입을 받아 郡을 高句驪 서북으로 옮겼고, 句驪는 일명 貊이라 한다는 『後漢書』의 기록을 참조해보면, 현도군을 서북쪽으로 몰아낸 중심세력은 夷貊 곧 고구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²⁾

이처럼 중국의 군현세력, 즉 漢帝國과 대결하여 그를 몰아낼 정도이면 고구려도 그에 상당하는 조직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 이에 현도군을 서북쪽으로 驅逐한 기원전 75년경에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때의 고구려는 계루부를 중심으로 한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아니라 비류국을 중심으로 여러 那國들이 결성한 소국연맹체였다고 보아야 하겠다.²³⁾

『漢書』志 卷28下 地理志 第8下에는 현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隊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上殷台, 莽曰下殷.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

현도군과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낙랑군 조에 동부도위와 남부도위가 보인다. 『후한서』에 전에서 昭帝始元 5年(BC82)에 이르러, 臨屯·真番을 파하여 樂浪·玄菟에 합치고, 玄菟를 다시 句驪로 옮기고, 單單大領 이동의 옥저 예맥을 모두 樂浪에 속하게 하였는데, 후에 땅이 넓고 멀어 다시 영동 7현을 나누어 樂浪東部都尉를 두었다고 한 기록을 참고하면, 낙랑동부도위는 기원전 82년 이후에 설치되었을 터인데 그 적절한 시점은 기원전 75년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자연히 『한서』지리지 현도군 조의 기록도 기원전 75년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⁵⁾

고구려현의 위치를 보아도 동 사료는 기원전 75년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현에서 遼水나 나온다고 하는데, 遼水는 小遼水를 가리키며 지금의 渾河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정을 받고 있다.²⁶⁾ 渾河의 한 支流가 蘇子河 이고, 蘇子河는 사료에 보이는 南蘇水를 지칭한다. 南蘇水는 그 유명한 南蘇城과 관련이 있을 터인데 남소성이 바로 蘇子河 유역의 撫順市 鐵背山 清界藩城 아래의 고구려석성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현은 혼하의 상류, 소자하 유역인 지금의 신빈현 縣鎮에서 老城 부근에

確認高句麗歷史地位的三要素』『東北史地』1, p.47.)

22) 李仁哲, 2006 『고구려와 고대중국의 전쟁』『고구려연구』24, p.93.

23) 李仁哲, 2006 위의 논문, p.93

24) 李丙燾, 1976 앞의 책, p.169.

25) 도위는 후한 광무제 건무 6년(AD30)에 폐지되었다.

26) 徐家國, 1984 앞의 논문, p.116.

이르는 지역 일대에 있었다.²⁷⁾

상은대현의 위치는 통화현성인 快大茂鎮 서남쪽 25km에 있는 赤松柏古城이 유력하다. 적송백고성은 둘레 약 1km의 평지 토성으로 漢式 토기들이 출토되었다.²⁸⁾ 그러나 마자수 유역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서개마현의 위치는 기원전 75년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 것에 따른 착오로 여겨진다.²⁹⁾ 현도군이 夷貊의 공격을 받아 句麗 서북으로 쫓겨 간 기원전 75년 이후에는 현도군의 속현이 압록강 유역에 남아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³⁰⁾

현도군의 호구수 역시 지나치게 많아서 이 사료를 그대로 신빙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속현이 18인 요동군이 戶가 5만5973, 口가 27만2539이고, 낙랑군이 속현 25에 戶가 6만2812, 口가 40만6748인데 비하여, 현도군은 속현 3인데, 호는 4만5006, 구는 22만1845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도군이 구려 서북으로 쫓겨 가기 전에 통구 평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을 당시인 기원전 82년에서 기원전 75년 사이의 호구를 기록해놓은 데 따른 착오로 아닌가 한다.³¹⁾

지금의 환인현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를 그 서북쪽으로 밀려난 현도군 쪽에서 보면, 그 동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두 세력 사이에는 경계가 있었다. 『삼국지』~고구려전에서는 이 경계를 東界라 하였다. 고구려가 점점 驕恣해져서 다시 郡에 나오지 않으니 東界에 小城을 쌓고 그 가운데 朝服과 衣幘을 놓아두면 歲時에 와서 그것을 取하여 갔다는 것이다. 고구려가 현도군 東南쪽에 있는데 東界에 城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놓았다고 한 것을 보면, 東界에 성을 쌓을 시점에는 고구려가 북쪽으로 상당 부분 영토를 확장하였던 모양이다.

요컨대 현도군은 기원전 107년에 옥저성을 군치로 하여 설치되었다가, 그 중심지를 기원전 82년에 구려로 옮겼다가, 기원전 75년에 구려 서북 신빈현 영릉 방면으로 옮겼는데, 이러한 현도군의 이동은 토착 夷貊 세력의 저항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이 서북 방면으로 쫓겨 간 것은 소국연맹체로서 고구려의 국가형성과정이었다. 현도군은 그 속현으로 高句驪縣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東界를 사이에 두고 高句麗國과 이웃하고 있었다. 즉, 고구려는 서한 영토 밖에 건립된 국가였다.

27) 徐家國, 1984 위의 논문, p.116.

28) 노태돈, 1999 앞의 논문, p.324.

29) 집안현성의 한토성에 서개마현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孫進己·張春霞, 1999 『高句麗國史』, p75) 또, 염난수를 압록강, 마자수를 독로강에 비정하고, 서개마현성이 독로강과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 일대에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노태돈, 1999 앞의 논문, p.323)

30) 노태돈, 1999 앞의 논문, pp.325~327.

31) 이병도는 고구려현이 통구평야에 있을 당시를 제 1차 고구려현이라 보고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으나(李丙燾, 1976 앞의 책, p. 178.), 필자는 현도군의 군치가 옥저성에서 기원전 82년에 통구평야로, 기원전 75년에 신빈현 방면으로 옮겨갔다는 입장이다.

III. 卒本時期 高句麗의 領土 및 周邊國과의 關係

현도군을 구려의 서북쪽, 지금의 신빈현 일대로 몰아냈다고 하므로, 졸본시기에 고구려는 지금의 요녕성 환인과 길림성 집안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다. 洵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등 고구려 5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압록강 이북에만 있었다는 견해와 압록강 이북과 이남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³²⁾ 그러나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양식인 적석총이 압록강 이북 뿐 아니라 압록강 이남지역인 평안북도 및 자강도 일대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5奴部 역시 압록강 양안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은 듯하다. 이들 奴部는 소노부가 본래 비류국이었던 것처럼 각기 ‘○那’라고 불린 소국이였다. 이들 소국들이 단결하여 현도군을 서북쪽 신빈현 방면으로 몰아냈고, 그 과정에서 소국 연맹체로서 고구려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소국연맹체의 맹주권을 처음에 장악한 것은 소노부, 즉 비류국이였다. 이 때 부여방면에서 내려온 朱蒙集團이 善射·騎馬·종마구별능력·집단통솔력 등 강력한 군사적 조직력과 麥·五穀種 등 우수한 종자를 지닌 농경기술 등을 바탕으로 毛屯谷, 召西奴집단 등 토착세력과 연합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마침내 소노집단을 누르고 那國聯盟의 맹주로 등장하였다.³³⁾

沸流國은 松讓國이라고도 한다. 비류국의 국명은 비류수에서 유래하였는데, 비류수는 지금의 富爾江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고구려가 卒本川 즉 渾江 유역에 도읍하였고 비류수에서 채소 잎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그 상류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수렵하고 올라가서 비류수에 도달하였다고 하므로,³⁴⁾ 비류국은 혼강과 부이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에서 멀지 않은 상류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동명성왕 2년(BC36)에 비류국왕 송양의 항복을 계기로 고구려는 그 땅을 多勿都로 삼고 그 영토를 차지하였다. 부이강 상류에는 黑溝山城, 轉水湖山城, 孤脚山山城 등 고구려 초기산성이 있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성이 비류국의 산성이라기보다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지역이 비류국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⁵⁾ 그렇다면 고구려는 비류국의 항복을 계기로 부이강 유역의 이들 성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라 하겠다. 비류국의 항복으로 소국연맹체 맹주의 지위 또한 주몽의 계루집단으로 옮겨왔다. 항복해온 비류국왕 송양을 多勿都의 主로 삼았다는 것은 비류국의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계루 왕권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점에서 동명성왕 2년(BC36) 이후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은 연맹왕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른 3개의 那들로 이 때 연맹왕국 내부의 지역집단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32) 劉子敏, 2004 「關於高句麗歷史研究的幾個問題」『東北史地』2, pp.26~27. 耿鐵華는 5部 중에 灌奴部는 寬田 東北과 平北 楚山一帶, 順奴部는 平北 滿浦에서 江界 一帶에 있었다고 주장한다.(耿鐵華, 2004 「兩漢時期高句麗的封國地位」『中國邊疆史地研究』4; 2005 『高句麗史論稿』, p.113.

33) 余昊奎, 199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pp.41~46.

34)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元年.

35) 孫進己·張春霞, 1999 앞의 책, p.69. 박찬규, 2004 『초기고구려사연구』, p.55.

고구려의 북쪽에는 부여가 있었다.³⁶⁾ 고구려는 부여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세력의 통제도 받지 않고 외교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 B ① 十四年，春正月，扶餘王帶素遣使來聘，請交質子，王憚扶餘強大，欲以太子都切爲質，都切恐不行，帶素恚之。冬十一月，帶素以兵五萬來侵，大雪人多凍死，乃去。³⁷⁾
- ② 三十二年，冬十一月，扶餘人來侵。王使子無恤，率師禦之。無恤以兵小，恐不能敵，設奇計，親率軍，伏于山谷以待之。扶餘兵直至鶴盤嶺下，伏兵發，擊其不意，扶餘軍大敗，棄馬登山。無恤縱兵盡殺之。³⁸⁾

이 사료를 가지고 고구려의 영역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부여가 중심지가 지금의 길림시 용담산성과 동단산의 옛 성터라고 보는 견해를 따르면 고구려와 부여의 경계는 그 중간지대가 아닐까 한다. 즉 길림성 증부일대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³⁹⁾

동명성왕 6년(BC 32) 10월에 고구려는 烏伊와 扶芬奴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의 荇人國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서 城邑으로 삼았다.⁴⁰⁾ 태백산은 백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백두산 동남쪽의 행인국은 함경북도 일대에 있었다고 하겠다.⁴¹⁾

고구려는 동명성왕 10년(BC 28)에 扶尉獸에게 명하여 北沃沮를 멸하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⁴²⁾ 북옥저의 위치에 대해서는 『후한서』 동옥저전에 남(동)옥저에서 800여리를 간다고 하였다. 『후한서』와 『삼국지』에서는 동옥저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개마대산을 지금의 개마고원으로 보면 고구려는 함경북도 일대의 행인국에 이어 계속해서 동쪽 혹은 동북쪽으로 진출하여 두만강 유역의 북옥저를 정복하였던 것이다.⁴³⁾ 고구려가 북옥저를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본래 현도군으로 편성되었다가, 현도군이 밀려남에 따라 힘의 공백지대가 되었기 때문이고, 과거 현도군의 영역을 고구려가 재정복하는 형태로 전쟁이 전개된 때문으로 헤아려진다.

유리명왕 11년(BC 9) 여름 4월에 扶芬奴의 지혜로 고구려는 선비와 싸워 이겨 속국으로 삼았다.

36) 『後漢書』列傳 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驪.

3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14年.

3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2年.

39) 高福順, 2001 「試論漢魏時期高句麗政權的統轄區域」『東疆學刊』18-4, p.73.

40)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6年.

41) 여호규는 행인국의 위치를 咸鏡北道 茂山이나 그 남쪽의 해안 지역으로(余昊奎, 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的 成立과 運營」『韓國史論』27, p.57), 고복순은 두만강 유역의 상류일대(高福順, 2001 앞의 논문, p.70)로 보았다.

42)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6年.

43) 손영중은 함경북도 일대와 연해주남부일대를 차지하였다고 보았다.(손영중, 1990 『고구려사(1)』, p.68.)

C 十一年, 夏四月 (중략) 鮮卑果開門出兵追之. 扶芬奴將兵走入其城, 鮮卑望之, 大驚還奔. 扶芬奴當關拒戰, 斬殺甚多. 王舉旗鳴鼓而前, 鮮卑首尾受敵, 計窮力屈, 降爲屬國.⁴⁴⁾

사료 C 역시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선비와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 烏丸은 철령 부근 장성 이북에 있었고, 선비의 분포는 그보다 더 북쪽의 초원지구에 있어서 西漢과 鮮卑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그 활동 구역이 서한의 요동, 현도 제군의 관할구와도 서로 가깝지 않았는데, 현도군 내에 있는 고구려정권이 어떻게 현도군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⁴⁵⁾ 그러나 『삼국사기』에 보이는 선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비의 별종 가운데 일부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⁴⁶⁾ 이 선비와 고구려가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현도군의 세력이 약화된 상태이어서 고구려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고구려가 북진하여 길림성 중부 일대에서 선비의 지파와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구려는 유리명왕 33년(AD14)에 서쪽으로 梁貊을 정벌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漢의 高句麗縣을 습취하였다.⁴⁷⁾ 梁貊은 梁水 유역의 貊을 의미하고, 양수는 태자하를 지칭하므로, 양맥은 태자하 유역에 있던 소국이었다. 유리명왕 33년(AD14)에 양맥을 정벌하였으므로 졸본시기에 고구려는 서쪽으로 梁貊이라는 맥족 계통의 小國과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맥의 북쪽 방면, 고구려에서는 서북쪽 방면의 신빈 지역에 현도군 고구려현이 있었다.

태자하 유역에 양맥이라는 소국이 있었다면 양맥의 남쪽, 압록강 이북의 寬甸 일대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을까. 『漢書』 지리지를 통해서 보면, 요동군에는 18개현이 있고, 이를 서부도위·중부도위·동부도위가 다스렸다. 동부도위의 치소는 武次이고, 武次를 포함하여 平郭·西安平·文·番汗·沓氏 등 6개현이 동부도위의 관할 하에 있었다.⁴⁸⁾ 6개현의 현재 위치를 보면, 무차는 요녕성 봉성시, 평곽은 개현, 서안평은 단동시, 문현은 영구, 번한현은 해성 서남쪽일대, 沓氏는 대련시에 해당한다.⁴⁹⁾ 요동군의 동계가 지금의 요녕성 봉성시, 단동시 일대였던 것이다. 태자하 유역에 양맥이 있고 그 북쪽에 현도군이 있는 상황에서 현도군이 지금의 봉성·단동 동쪽의 관전일대를 관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後漢書』 고구려전에 別種이 있어 小水에 의지해 살아가므로 그로 인하여

44)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11年.

45) 李大龍, 2008 앞의 논문, p.15.

46) 이에 대해 AD49년(慕本王2년) 한으로 이탈해 나간 선비족의 異種이라는 滿離 집단으로 본 견해가 있다.(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p.128.)

4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3年.

48) 『漢書』志卷28下 地理志 第8下.

49) 譚其驥, 1996 『中國歷史地圖集』2, p.28.

이름을 소수택이라 한다는 기록이 주목을 끈다. 50) 『三國志』~고구려전에서도 “句麗가 나라를 만들어 大水에 의지해 살아간다. 서안평현 북쪽에 小水가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句麗別種이 小水에 의지해 나라를 만들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름을 小水貊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句麗는 大水貊이고, 句麗別種은 小水貊이라는 의미가 된다. 서안평현 북쪽에 小水가 있다고 하므로, 小水는 지금의 단동시 북쪽에 있는 靄河에 비정된다. 애하 유역에 小水貊國이 있었고, 그 小水貊國과 고구려 사이에 어떠한 소국이 있었다는 기록도 전해지지 않으며, 小水貊國 북쪽에 梁貊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애하 이동 관전 현 일대가 小水貊國이고, 51) 그 동쪽에 大水貊의 고구려가 있었다고 하겠다.

고구려는 대무신왕 9년(AD26) 겨울 10월에 왕은 친히 蓋馬國을 정벌하고,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 개마국에 이어 그 해 12월에 句茶國이 항복해왔다. 개마국의 위치는 양강도 중부지역의 개마고원 일대로 생각되고, 52) 개마국에 이어 구다국이 항복한 것으로 보아 구다국은 개마국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졸본시기 고구려의 동남쪽 경계는 양강도 중부이북으로, 그 남쪽의 개마국, 구다국과 이웃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남쪽에는 낙랑군이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와 낙랑군의 경계가 어딘지는 불확실하다. 압록강 이남의 적석총 분포로 볼 때 압록강이 고구려와 낙랑군의 경계는 아니었던 듯하다. 『三國史記』~고구려본기에 보이는 黃龍國, 53) 海頭國, 曷思國, 54) 樂浪國, 55) 藻那, 56) 朱那 57) 등의 소국은 압록강이남, 낙랑군 이북에 있었던 소국들이 아니었나 한다. 부여 대소왕의 아우가 압록강에 이르러 해두왕을 만났다가, 그를 죽이고 갈사에 도움을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해두국이나 갈사국은 압록강 유역에 있던 소국으로 생각된다. 압록강 북쪽에는 고구려와 小水貊國이 있었으므로 해두국이나 갈사국은 압록강 남쪽에 있었을 것이다. 낙랑군 역시 낙랑군 북방에 있던 소국으로, 고구려를 북국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 남쪽에 있던 소국이였다. 이처럼 낙랑군 북방에 여러 개의 소국이 존재한 것은 낙랑군의 지배체제가 허술하고 그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藻那·朱那 역시 평북일대에 있던 소국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고구려와 5那部와 마찬가지로 국명이 那로 끝나는 것도 고구려 가까운 지역의 소국일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요컨대, 고구려는 비류국의 항복을 계기로 諸那 세력을 지역집단으로 편제하고 연맹왕국

50) 『後漢書』~列傳 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驪.

51) 余昊奎, 2003 「高句麗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韓國古代史研究』25, p.100.

52) 손영중, 1990 앞의 책, p.76.

5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27年.

54)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55) 『三國史記』~卷14卷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56) 『三國史記』~卷15卷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0年. 慈江道 일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孫進己·張春霞, 1999 앞의 책, p.73)

57) 『三國史記』~卷15卷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2年.

으로 성장하였다. 북쪽의 부여와 국경을 맞닿게 됨에 따라 양국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양국 간의 경계는 길림성 중부일대였다. 동쪽으로는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복하여 영토가 두 만강유역에 이르렀다. 동남쪽으로는 양강도 중부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남쪽에 개마국과 구다국이 있었다. 남쪽으로는 적석총으로 분포로 보아 鴨綠江 南岸도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그 남쪽에 黃龍國, 海頭國, 曷思國, 樂浪國, 藻那, 朱那 등의 소국과 낙랑군이 있었다. 고구려의 서쪽에는 양맥국과 소수맥국이 있었다. 자연히 현도군은 남쪽의 양맥국, 동남쪽의 고구려, 북쪽의 부여에 둘러싸인 가운데 팽창하는 고구려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고구려는 마침내 유리명왕 33년(AD14)에 서쪽으로 梁貊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나아가 漢의 玄菟郡 高句麗縣을 습취하였다. 현도군은 2세기 초에 다시 무순방면으로 쫓겨 가게 된다.

IV. 卒本時期 高句麗와 西漢 玄菟郡의 關係

『後漢書』~고구려전에서는 武帝가 조선을 멸하고 고구려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속하게 하고 鼓吹伎人을 내렸다고 한다.⁵⁸⁾ 『三國志』~고구려전에서는

- D. ① 漢時賜鼓吹技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麗令主其名籍．② 後稍驕恣，不復詣郡，于東界築小城，置朝服衣幘其中，歲時來取之，今胡猶名此城為幘溝濃．溝濃者，句麗名城也．

고 하였다.⁵⁹⁾ 사료 D의 서술 대상 시기는 ‘漢時’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책구루의 설치시기와 관련해서는 태조왕대,⁶⁰⁾ 대무신왕대,⁶¹⁾ 유리명왕 29년(AD 10) 이후,⁶²⁾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 이후,⁶³⁾ 기원전 75년 현도군을 소자하 방면으로 축출한 후,⁶⁴⁾ 등으로 보는 견해가 나와 있는 바이다. 그러나 사료 D는 西漢政府가 현도군에 고구려와의 대외관계를 전담시킨 시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와의 대외교섭을 요동군이 담당하거나, 고구려가 현도군을 넘어 요동일대를 유린하던 후한 시기(AD25 이후)에는 책구루가 양국 간의 교류창구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⁶⁵⁾ 그렇다고, 사료D①이 기원전 75년 이전 고구려

58) 『後漢書』~列傳 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麗.

59) 『三國志』~魏書 卷30 魏書30 東夷 高句麗.

60) 노태돈, 1999 앞의 책, p121.

61)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중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大丘史學』89.p.58.

62) 余昊奎, 2005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 『軍史』54, p.24.

63) 李仁哲, 2006 앞의 논문, p.94.

64) 李鍾旭, 1987 「高句麗 初期의 政治的 成長과 對中國關係의 展開」 『東亞史의 比較研究』, p.72.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韓國古代史研究』14, p.301. 윤용구, 2006 「高句麗의 흥기와 幘溝濃」; 신종원 편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p.19.

가 현도군 지배하에 있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현도군이 그 管内의 고구려를 통치하던 상황을 기술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상적인 군현지배의 일환이므로 특별히 사서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료 D①은 기원전 75년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으므로, 기원전 75년에서 기원전 37년까지 鼓吹技人과 조복·의책을 받아간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驕恣해져서 다시 郡에 나오지 않은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기원전 37년 이전에 현도군으로부터 鼓吹技人과 조복, 의책을 받아간 세력은 주몽이 졸본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지역에 존재하였던 세력일 터이다. 『三國史記』~고구려본기 고구려건국신화에서는 그 국가가 沸流國으로 나타나고 있다. 『後漢書』와 『三國志』에서는 고구려에 消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の 5族이 있었는데 본래 消奴部가 王을 하였으나 점차 미약해져서 지금은 桂婁部가 이를 대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⁵⁾ 주몽이 왕위에 오른 이후 고구려왕실이 교체된 사실이 없음을 보면, 東明聖王 이후의 고구려왕실이 桂婁部이고 그 이전은 消奴部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⁷⁾ 『三國史記』에서는 비류국의 국왕을 松讓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송양’은 ‘소내’ 혹은 ‘소노’로 발음될 수 있다. 이 또한 후대에 소노부로 편제된 당시의 비류국이 기원전 75년부터 37년까지 현도군으로부터 鼓吹技人을 받아간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이규보의 『東明王篇』이다.

E. 王曰 以國業新造 未有鼓角威儀 沸流使者往來 我不能以王禮迎送 所以輕我也. 從臣扶芬奴進曰 臣爲大王取沸流鼓角. 王曰 他國藏物 汝何取乎. 對曰 此天之與物 何爲不取乎. 夫大王困於扶余 誰謂大王能至於此. 今大王奮身於萬死之危 揚名於遼左 此天帝命而爲之 何事不成. 於是扶芬奴等三人 往沸流取鼓而來. 沸流王遣使告曰云云. 王恐來觀鼓角 色暗如故. 松讓不敢爭而去.(『東國李相國集』~卷第3 古律詩 東明王篇)

사료 E에 따르면, 북과 나팔(鼓角)은 沸流國에만 있고, 동명왕 주몽의 고구려에는 없었다. 이 사실을 『후한서』와 『삼국지』~고구려전과 연결지우면 현도군은 비류국에는 鼓角을 주고 주몽의 고구려에게는 고각을 주지 않았다. 송양왕의 비류국이 고구려로 지칭된 소국연맹체의 맹주로서 현도군으로부터 鼓角을 받았던 것이다.⁶⁸⁾

65) 윤용구, 2006 앞의 논문, pp.16~17.李大龍도 이 사료를 西漢時期的 일로 취급하여 다루고 있다.(馬大正 外, 2001 앞의 책, pp.184~185. 馬大正 외, 2003 앞의 책, p.98.

66) 『三國志』~高句麗傳에서는 연노부로 기록하였다.

67) 노태돈, 1999 앞의 책, p.60.

68) 조법중, 2005 「한국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先史와 古代』23, p.168. 李仁哲, 2006 위의 논문, p.94. 당시 고취기인을 준 대상은 고구려왕이고, 조복과 의책을 받아간 자들은 체나의 수장이나 가층에 속하는 존재 등 다수로 이해되고 있다.(노태돈, 1999 앞의 책, p.119. 여호규,

서한이 현도군을 통하여 고취기인을 지급한 까닭은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이 비류국을 대표로 하는 소국연맹체의 압력을 받아 구려 서북으로 밀려나 있는 형편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驅逐壓力을 받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고구려로부터 계속해서 서북쪽으로 밀리고 있던 현도군이 구축압력을 무마 약화시키기 위해 那國聯盟體의 주도세력인 비류국에 고취기인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고취기인의 지급행위는 그것을 받지 못한 那國聯盟體 내부의 여타 세력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那國聯盟體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那國聯盟體의 결합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작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⁶⁹⁾

고구려는 계루부왕실의 등장과 함께 諸那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비류국을 통합하면서 왕권도 강력해져서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도군으로 하여금 고구려 지배하에 있는 諸那 세력과 접촉하기도 어렵고, 연맹왕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기원전 37년 이후에 현도군은 고취기인을 고구려에 주지 않았다.

종래에 현도군에 나가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오던 諸那의 首長들도 고구려에 통합되고 통치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도군에 나아가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사료 D는 바로 그 동안 송양의 비류국이나 주변의 諸那 首長들이 조복과 의책을 받아오다가, 고구려 왕실이 계루부로 바뀌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강력한 諸那에 대한 통제로, 현도군에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을, 고구려가 驕恣해져서 현도군에 나와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기록해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西漢이 조복과 의책을 지급한 것 또한 고취기인과 마찬가지로 那國聯盟體의 분열을 조장하고 와해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왕이나 諸那의 首長들이 西漢의 관리로서 朝服과 衣幘을 받아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로부터 朝服과 衣幘을 받은 수많은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책에 특별히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중국사서에 朝服과 衣幘을 받은 사실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고구려가 西漢의 朝服과 衣幘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이를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시 현도군이 夷貊에 밀려 신변현 방면으로 밀려난 사실을 감안하면, 기원전 75년 이후에 비류국을 중심으로 한 소국연맹체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를 회유·무마 혹은 소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편으로 현도군이 고구려에 朝服과 衣幘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⁷⁰⁾

1996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형성『역사와 현실』21, p.68.) 鼓角은 일반적으로 軍中에서 號令할 때 사용하는 전투장비였지만, 사료 E에서는 迎送의 禮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낙랑국에서는 적의 침략을 알리는 도구로, 유리명왕 11년(BC 9) 고구려와 선비의 전투에서는 군대를 진격하게 하는데 사용된 도구였다.

69) 노태돈도 ‘당시 한의 대고구려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諸那를 아우르는 강력한 통합력을 지닌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여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었다.’고 하였다.(노태돈, 1999 앞의 책, p.119)

70)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이병도, 여호규도 이를 회유책으로 보았다.(李丙燾, 1976 앞의 책, p.358.)

高句麗 縣令이 名籍을 주관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는 名籍을 戶籍으로 해석하여, 漢 정부는 고구려현 지방 관리를 통하여 고구려인에 대해 실제 관할을 진행하였다고 보고 있다.⁷¹⁾ 그러나 名籍이 호적이라면 현령이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보면, 명적은 호적이 아니라 현도군에서 조복·의책을 받아간 소국이나 그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적’으로 해석함이 옳다.⁷²⁾ 고구려가 驕恣해져서 다시 郡에 나오지 않아서 東界에 小城을 쌓고 그 가운데 朝服과 衣幘을 놓아두면 歲時에 와서 가져가게 한 이후에는 名籍을 고구려령이 주관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도 朝服과 衣幘을 누가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적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몽의 고구려는 물론이고 그 이전 비류국 당시에 고구려가 고구려현령을 통하여 현도군의 관할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이후에 현도군에 나아가 고취기인은 물론이고 조복과 의책을 받아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은 東界에 小城을 쌓고⁷³⁾ 그 가운데 朝服과 衣幘을 놓아두었고, 고구려는 歲時에 가서 그것을 取하여 왔다.⁷⁴⁾ 이러한 상황은 현도군의 東界를 경계로 현도군과 고구려가 서쪽과 동쪽의 다른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하고, 동시에 고구려가 현도군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유리명왕 33년(AD14)에 고구려가 漢의 高句麗縣을 습격하여 빼앗았다는 기록도⁷⁵⁾ 고구려와 漢의 高句麗縣이 다른 실체이고, 다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체였음을 나타낸다.

기원전 37년 이후 졸본시기의 고구려는 앞 절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현도군은 북쪽에 부여, 남쪽에 양맥국, 동남쪽에 고구려가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유리명왕 33년(AD14)에 고구려가 마침내 梁貊을 정복한 데 이어 고구려현

余昊奎,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韓國古代史研究』38, p.74).

71) 耿鐵華, 2005 앞의 책, p.115. 李大龍, 2008 「《三國史記·高句麗本紀》史料價値辨析」 『東北史地』2, p.13.

72) 居延漢簡에서 名籍이라는 용어가 각종 명단 특히 官人의 명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永田英正, 1980 「簡牘よりみだる漢代邊郡の統治制度」 『講座敦煌:敦煌の社會』, pp.72~73. 粗山明, 1999 「下級官吏の世界」 『漢帝國と邊境社會』, pp. 152~153, 여호규, 2007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東北亞歷史論叢』15, pp.17~18) 필자도 名籍을 ‘명단을 적은 장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李仁哲, 2006 앞의 논문, p.93 주46)

73) 이 성을 책구루라고 하는데, 책구루라는 성을 통해서만 한군현과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간 諸那가 각각 행해오던 대외적인 외교 무역 활동을 왕실이 통제하여 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1999 앞의 책, p.121) 이 견해에 동조하는 논고가 많으나, 필자는 현도군이 책구루를 설치하였으므로 고구려가 책구루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였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계루세력이 주변 제국을 통합하여 연맹왕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제나 세력이 현도군과 교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대외교섭창구가 고구려국가로 일원화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74) 『三國志』魏書 卷30 魏書30 東夷 高句麗.

7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3年.

을 습취하였다. 이처럼 현도군이 고구려에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다. 이에 고구려는 현도군에 나오지 않았고, 현도군은 東界에 작은 성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놓아두면 받는 쪽이 필요에 따라 가져갔다. 이러한 授受行爲가 冊封이나 朝貢에 따른 儀禮品 수수행위가 아님은 물론이다.⁷⁶⁾ 그것은 단지 양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주고받은 變則的 物品授受行爲였다고 함이 적절할 것이다.

V. 맺음말

현도군은 기원전 107년에 沃沮城을 郡治로 하여 설치되었다가, 그 중심지를 기원전 82년에 句麗로 옮겼다.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은 구려 서북 신빈현 영릉 방면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도군의 이동은 토착 夷貊 세력의 저항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이 서북 방면으로 쫓겨 간 것은 소국연맹체로서 고구려의 국가형성과정이었다. 현도군은 그 속현으로 高句驪縣을 거느리고 있었고, 현도군의 東界를 사이에 두고 高句麗國과 이웃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서한 영토 밖에 건립된 국가였던 것이다.

고구려는 계루집단이 집권하면서 비류국의 항복을 받고 통치체제를 강화하여 연맹왕국으로 성장했다. 비류국 통합으로 고구려는 부여와 국경을 맞닿게 됨에 따라 양국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경계는 지금의 길림성 중부 일대로 생각된다. 동쪽으로는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복하여 영토가 두만강유역에 이르렀다. 동남쪽으로는 양강도 중부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남쪽에 개마국과 구다국이 있었다. 남쪽으로는 적석총으로 분포로 보아 鴨綠江南岸도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그 남쪽에 黃龍國, 海頭國, 曷思國, 樂浪國, 藻那, 朱那 등의 소국과 낙랑군이 있었다. 고구려의 서쪽에는 양맥국과 소수맥국이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 출범 시기에 현도군은 남쪽의 양맥국, 동남쪽의 고구려, 북쪽의 부여에 둘러싸인 가운데 팽창하는 고구려로부터 驅逐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고구려는 이 시기에 현도군으로부터 어떠한 制裁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주변소국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기원전 37년 이전에 고취기인을 받아들인 세력은 비류국이었고, 조복·의책을 받아들인 세력은 비류국과 주변 諸那의 首長들이었다. 당시 현도군은 고구려를 비롯한 夷貊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취기인이나 조복과 의책을 주어 고구려로부터의 驅逐 壓力을 회유 무마하고, 소국연맹체의 와해를 기도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계루집단의 등장과 함께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였고, 諸那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도군은 고구려에 고취기인을 주지 않았고, 고구려 또한 조복·의책의 효용성이 감소하여 이를 받으

76) 또, 사료 D 전체를 놓고 보아도, 서한이 고구려왕을 책봉했다는 표현도 없고, 고구려가 서한에 조공을 했다는 표현도 없기 때문에 고취기인이나 조복·의책을 책봉에 수반된 하사품이나 조공에 따른 답례품으로 볼 수 없다.

러 郡에 나가지 않았다. 고구려가 驕恣해져서 다시 郡에 나오지 않았다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표현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고구려령이 명적을 관할하였다는 『삼국지』의 표현도 조복과 의책을 받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장적을 관할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한이 고구려현령을 통하여 고구려를 관할하였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고구려는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을 서북쪽으로 밀어낸 이후에 계속해서 구축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계루집단이 집권한 후에도 고구려는 북쪽으로는 비류국을 통합하고, 동쪽으로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복하여 두만강유역에 영역이 도달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여 독자적인 영토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북쪽의 현도군을 군사적으로 驅逐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도군이 고구려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한의 고구려왕에 대한 책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국사기』는 물론 중국사서에도 졸본시기의 고구려가 서한에 稱臣納貢한 기록이 없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졸본시기의 고구려는 독립된 영토와 주권을 가진 자주 국가였다.

卒本时期高句丽的对外关系

李仁哲 (东北亚历史财团)

〈目次〉

- | | |
|-----------------------|---------------------|
| 一. 前言 | 四. 卒本时期高句丽与西汉玄菟郡的关系 |
| 二. 西汉玄菟郡的移动与高句丽 | 五. 结语 |
| 三. 卒本时期高句丽的领土及与周边国的关系 | |

一. 前言

据《三国史记》记载，高句丽由朱蒙于汉孝元帝建昭二年(公元前37年)建国，初定都卒本，后于琉璃明王二十二年(公元3年)迁都至国内。但是，《后汉书》高句丽传记载，西汉王朝灭卫满朝鲜后，以高句丽为县，使属玄菟郡。这就意味着在朱蒙建立高句丽之前的公元前107年，高句丽早已存在。到了公元前75年，高句丽将玄菟郡驱逐至西北方向。高句丽真正意义上的国家形成，很有可能是在这一时期。因此，本文所要论述的卒本时期的高句丽，相当于公元前75年至公元3年。

本文所指的对外关系，以高句丽作为一个国家的事实为前提。这是因为，如果高句丽不是国家，而是他国的地方政权，那么，高句丽与其他政治体的关系，就很难从国家的角度定义为对外关系。以笔者之见，虽然于公元前107年，玄菟郡设置在以濊貊为主的高句丽社会，但到了公元前75年，因夷貊的进攻而退缩至句丽西北的现今新宾县一带。高句丽逐出玄菟郡的过程是其以消奴部为中心，逐渐形成国家形态的过程。笔者认为，公元前37年朱蒙登上历史舞台的同时高句丽成长为联盟王国，其中心势力至此向桂娄部转移。¹⁾

与此不同，中国学界绝大部分学者都主张高句丽是建立在玄菟郡内的地方政权。²⁾ 特别是，马大正将高句丽定性为中国东北历史上的一个少数民族政

1) 李仁哲：《高句丽国家形成的前提条件与归属问题》，《中央史论》23，2006年，第1~52页。

2) 张博泉：《东北地方史稿》，吉林人民出版社1985年，第158~166页。
孙玉良、李殿福：《高句丽同中原王朝的关系》，《博物馆研究》1990年3期；
孙进己、孙海编：《高句丽·渤海研究集成》，第159~170页。

权, 认为高句丽先人还处于部落阶段时, 就已成为周王朝的臣民, 臣服于周王朝, 又向周王朝朝贡, 主张正因为高句丽属于汉王朝玄菟郡, 所以汉王朝通过高句丽县的地方官吏, 对高句丽实行了实际性管辖。虽然高句丽于公元前37年在汉王朝玄菟郡的管辖范围内建立了政权, 史书中也记为高句丽国, 但实际上它是汉王朝玄菟郡内的一个少数民族政权。他还指出, 高句丽称号在公元前109年汉武帝征朝鲜前就已存在, 公元前37年, 高句丽人在他们居住的中心地区建立起民族政权, 尽管称高句丽国, 一直也没有脱离汉玄菟郡和辽东郡的管辖区域。³⁾

李大龙也将高句丽国定性为西汉王朝玄菟郡管辖下的边疆少数民族, 并指出高句丽部落官员的任命要经过玄菟郡太守的认可, 高句丽的具体日常事务的处理由高句丽县令负责。又指出: “高句丽政权由于是在汉玄菟郡高句丽县境内出现的, 势力弱小, 故而没有得到西汉王朝的重视, 更没有把它作为一个相对独立的边疆民族政权对待, 因为我们在史书中也没有查到高句丽向西汉称臣纳贡的记载, 而是将其纳入到了郡县的直接管辖之下, 由玄菟郡总领, 所属高句丽县具体实施对高句丽的管理。”⁴⁾

王绵厚也指出: “由‘玄菟郡’向高句丽赐‘朝服衣帻’, 这与‘授印信’意义相同, 都代表汉中央王朝对当时各民族政权或‘侯国’, 封授臣职信物的标志。所以史记确凿地证明了朱蒙在今浑江流域建立的高句丽政权, 从一开始就是在汉玄菟郡境内, 并由高句丽县令‘主其名籍’的地方民族政权”⁵⁾

针对这一问题, 本文首先将探讨玄菟郡的设置和玄菟郡因受到包括高句丽在内的夷貊的攻击而向高句丽西北方向缩退的过程, 并通过这一探讨, 指出高句丽是建立在玄菟郡领域外的。其次, 将审视高句丽在卒本时期, 通过对外

杨昭全: 《论高句丽归属》, 《韩国上古史学报》 13, 1993年, 第187~201页。

孙进己: 《高句丽族和周边各族的关系》, 《东北史研究》 1994年, 第236~240页。

孙进己: 《关于高句丽归属问题的几个争议焦点》, 前揭书, 第286~292页。

徐贵通: 《中原王朝对高句丽诸王的册封》, 《通化师范学报》 1996年 1期; 孙进己、孙海编: 前揭书, 第178~180页。

徐德源: 《高句丽历史与疆域归属问题补议》, 《社会科学战线》 2001年 5期, 第171~174页。

马大正等: 《古代中国高句丽历史丛论》, 2001年, 第8~11页。

马大正: 《中国学者的高句丽归属问题研究评析》, 《东北史地》 2004年 1期, 第6页。

李大龙: 《高句丽与两汉至南北朝中央王朝的关系》, 2001年; 马大正等: 前揭书(2001年), 第184~187页、第205~207页。

马大正等: 《古代高句丽历史续论》, 2003年, 第97~98页。

王绵厚: 《关于确认高句丽历史地位的三要素》, 《东北史地》 2004年 1期, 第47页。

厉声、李方: 《隋唐征伐高句丽各议》, 《东北史地》 2004年 2期, 第3~7页。

3) 马大正: 前揭书(2001年), 第8~11页。

4) 马大正等: 前揭书(2003年), 第97~98页。

5) 王绵厚: 前揭文(2004年), 第47页。

征服，扩大领土的过程，洞察当时的高句丽领土和周边国的状况。最后，通过考察西汉王朝赐给高句丽的鼓吹技人和朝服、衣帻，把握高句丽与西汉玄菟郡的关系。

二. 西汉玄菟郡的移动与高句丽

据史料载，汉王朝在灭卫氏朝鲜之后，在其地设立了乐浪、临屯、玄菟、真番四郡。⁶⁾《后汉书》·东沃沮传载，汉武帝灭朝鲜之后，以沃沮地为玄菟郡；⁷⁾《三国志》·东沃沮传载，以沃沮城为玄菟郡。⁸⁾《后汉书》·高句骊传载：武帝灭朝鲜，以高句丽为县，使属玄菟。⁹⁾据此可知，在设置玄菟郡之前已存在高句丽。因为《后汉书》载“以沃沮地”，《三国志》载“以沃沮城为玄菟郡”，所以编入高句丽县的地域和包括沃沮的地域被划入玄菟郡范围，高句丽作为其内的一个县，沃沮城成为玄菟郡的郡治。¹⁰⁾在这里，如果把握高句丽在编入玄菟郡的一个县之前的性质，将是个重要的焦点问题。虽然也可以将编入玄菟郡的地域视为卫满朝鲜的一个地方名称，但考虑到《史记》·匈奴传中的史料：“东拔秽貊、朝鲜，以为郡”，我们可以将其理解为朝鲜是包括乐浪、真番、临屯的地域，而玄菟指的是鸭绿江一带的秽貊。¹¹⁾

我们虽然可从现存史料得知在公元前107年以前，高句丽就已存在，但要确定高句丽政治体的性质，就不会是件轻而易举的事了。明显的是，在确认了公元前107年以前存在高句丽的情况下，高句丽创建于玄菟郡境内的主张就已经站不住脚了。如果承认公元前107年高句丽早已存在的话，卫氏朝鲜及箕子朝鲜与高句丽之间的关系将成问题。徐德源和马大正所主张的，玄菟郡的归属问题是确定高句丽归属问题的前提，而认定玄菟郡地方原来归属的历史前提则是关于箕子朝鲜和卫氏朝鲜的归属问题，¹²⁾也源于此。但高句丽和这些朝

6) 《汉书》，本纪，卷六，武帝纪，第六；《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濊。

7)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东沃沮。

8) 《三国志》，魏书，卷30，东夷，东沃沮。咸兴，具体来讲，永兴苏拉子土城似为玄菟郡郡治。（卢泰敦：《高句丽的起源与国内城迁都》，1999年；金时俊等：《韩半岛与中国东北三省的历史与文化》，第328页）。

9)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高句骊。

10) 这一观点是由清末学者杨守敬提出的，对此李丙焘有过反驳意见（李丙焘：《玄菟郡考》，《韩国古代史研究》，1976年，第163～164页）。又有学者认为，在当时玄菟郡是以从西边的浑河下流至东边的咸镜平野之交通路为中心的，其形状如细长的管状带的郡（和田清，《玄菟郡考》，《东亚史研究·满洲篇》，1951年；卢泰敦，前揭文1999年，第322页）。

11) 李丙焘：前揭书（1976年），第167页。

12) 徐德源：《高句丽历史与疆域归属问题补议》，《社会科学战线》2001年5期，第

鲜是不同的政治体，不能以箕子朝鲜和卫氏朝鲜的归属，认定高句丽国家的归属。¹³⁾

《后汉书》·濊转载：昭帝始元五年(公元前82年)，罢临屯、真番、以并乐浪、玄菟，玄菟徙居句骊。¹⁴⁾也就是说，玄菟郡的郡治迁至高句丽了。但玄菟郡受到地方势力的抵抗，被驱逐至西北方向。有关这一情况《后汉书》·东沃沮转载：武帝灭朝鲜，以沃沮地为玄菟郡，后为夷貊所侵，徙郡于高句丽西北；¹⁵⁾《三国志》·东沃沮转载：徙郡句丽西北。¹⁶⁾

有关迁移玄菟郡至句丽西北的具体时期，依据史料“元凤六年(公元前75年)春正月，募郡国，徙筑辽东玄菟城”¹⁷⁾，学界大都同意元凤六年(公元前75年)说。¹⁸⁾那么，我们可以对玄菟郡的变迁过程作如下梳理：玄菟郡以沃沮城为郡治设置以来，到昭帝始元五年(公元前82年)迁至句丽，后于公元前75年又因其地方居民——夷貊的抗击，被驱逐至句丽西北。¹⁹⁾公元前107年至公元前75年，高句丽被纳入玄菟郡之高句丽县，受到其直接支配。因此，这一时期的高句丽是西汉玄菟郡内的一个领地，很难将其视为一个统一的政治体，它是一个单纯的地域集团名称。²⁰⁾但与汉郡县的对峙过程中，高句丽确实处在了集结小国联盟体的阶段。

笔者认为，公元前75年玄菟郡迁至的地点应是句丽西北侧，今辽宁省新宾县西南苏子河南岸的汉代古城。²¹⁾这时，设置在以现今桓仁为中心地域的高句丽县，和玄菟郡一同迁移至现今新宾县永陵一带。特别是，若综合考虑玄菟郡因夷貊的侵入不得不迁向高句丽西北方向，《后汉书》中“句骊一名貊”的史料记载，笔者认为高句丽即为向西北方向驱逐玄菟郡的中心势力。²²⁾

171~174页；马大正：《中国学者的高句丽归属研究评析》，《东北史地》2004年1期，第6页。

13) 比如就算欧洲诸国家过去曾受到罗马帝国的支配，也不可能将欧洲政权或历史纳入意大利。

14)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濊。

15)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东沃沮。

16) 《三国志》，魏书，卷30，东夷，东沃沮。

17) 《魏书》，本纪，卷7，昭帝纪，第7；《汉书》，志，卷26，天文志，第6。

18) 李丙焘认为这时玄菟郡移至今辽宁省新宾县兴京老城附近(李丙焘：前揭书1976年，第159页)。

19) 金美灵：《第1玄菟郡的位置检讨》，《实学思想研究》24，2002年，第20~43页。

20) 通过玄菟郡迁至句丽西北的记录可知高句丽为一地名。

21) 徐家国指出，在辽宁省新宾县一带发现了3处汉代古城址(徐家国：《汉玄菟郡二迁址考略》，《社会科学战线》1984年3期，第116~117页)。王绵厚认为西汉玄菟郡于公元前82年迁至高句丽县，即今辽宁省新宾县永陵南侧的二道河子古城(王绵厚：《关于确认高句丽历史地位的三要素》，《东北史地》2004年1期，第47页)。

22) 李仁哲：《高句丽与古代中国的战争》，《高句丽研究》24，2006年，第93页。

如此，高句丽既然能够与中国的郡县势力，即与汉帝国对峙，并将其驱逐，想必高句丽有着相当雄厚的组织力和军事力。所以，高句丽很有可能于公元前75年左右，即将玄菟郡驱逐至西北方向时期形成了国家。只是这时的高句丽，并不是以桂娄部为中心的朱蒙所建高句丽，而是以沸流国为中心由诸那国结成的小国联盟体。²³⁾

《汉书》，志，卷28下，地理志，第8下中对玄菟郡作了如下记录：

A. 玄菟郡，武帝元封四年开。高句骊，莽曰下句骊。属幽州。户四万五千六，口二十二万一千八百四十五。县三：高句骊，辽山，辽水所出，西南至辽队入大辽水。又有南苏水，西北经塞外。上殷台，莽曰下殷。西盖马。马訾水西北入盐难水，西南至西安平入海，过郡二，行二千一百里。莽曰玄菟亭。

紧接着，在其乐浪郡条中出现东部都尉和南部都尉。《后汉书》·濊传载：“至昭帝始元五年，罢临屯、真番，以并乐浪、玄菟。玄菟夏徙居句骊。自单单大领以东，沃沮、濊貊悉属乐浪。后以境土广远，夏分领东七县，置乐浪乐部都尉。”可知，乐浪东部都尉的设置是在公元前82年以后，最有可能的时期为公元前75年左右。²⁴⁾ 同样，《汉书》·地理志·玄菟郡条记录的也是公元前75年之后的事宜。²⁵⁾

从高句丽县的地理位置来看，上述史料记录的也应是公元前75年之后的事。辽水，即小辽水指的是现今的浑江，这一观点被诸多学者所接受。²⁶⁾ 浑江的一个支流即为苏子河，苏子河指史料中出现的南苏水。想必南苏水与著名的南苏城有关联，很有可能是位于苏子河流域的抚顺市铁背山清界藩城下的高句丽石城。即高句丽县曾位于浑江的上流，苏子河流域的现新宾县县城至老城附近一带。²⁷⁾

上殷台县，最有可能是通化县城快大茂镇西南25km处的赤松柏古城。赤松柏古城，周长1km，平地土城，出土过汉式陶器。²⁸⁾ 但描述为马訾水流域的西盖马县的地理位置，好像误记了公元前75年以前的情况。²⁹⁾ 玄菟郡因受夷貊的攻

23) 李仁哲：前揭文(2006年)，第93页。

24) 李丙焘：前揭书(1976年)，第169页。

25) 后汉光武帝建武六年(公元30年)废除了都尉。

26) 徐家国：前揭文(1984年)，第116页。

27) 徐家国：前揭文(1984年)，第116页。

28) 卢泰敦：前揭文(1999年)，第324页。

29) 有学者认为西盖马县位于集安县城汉代土城(孙进己、张春霞：《高句丽国史》，1999年，第75页)。又有学者将盐难水比定为鸭绿江，马訾水比定为秃鲁江，认为西盖马县城位于秃鲁江与鸭绿江汇流一带(卢泰敦：前揭文1999年，第323页)。

击而被驱逐至句丽西北的公元前75年，玄菟郡属县不可能位于鸭绿江流域。³⁰⁾

史料中，玄菟郡的户口数目过多，若对其史料不加分析地信赖，会带来诸多问题。辽东郡的属县有18个，户5万5973，口27万2539；乐浪郡有属县25个，户6万2812，口40万6748。而玄菟郡只有3个属县，但户4万5006，口22万1845。这种错误信息源于它误记了玄菟郡被驱逐至句丽西北之前的位于以通沟平野为中心的当时，即公元前82年至公元前75年间的户口。³¹⁾

对被驱逐至句丽西北方向的玄菟郡来说，曾属于现今桓仁地区的高句丽，位于其东南侧，两个势力间存在疆界。《三国志》·高句丽传将其疆界记录为东界。高句丽“后稍骄恣，不夏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高句丽居于玄菟郡东南侧，但玄菟郡在其东界筑城，置朝服、衣帻，想必高句丽在玄菟郡筑城于东界时，已向北扩张了相当部分的领土。

综上所述，玄菟郡于公元前107年以沃沮城为郡治设置，到公元前82年将其中心地迁至句丽，后又于公元前75年迁往句丽西北的永陵方向。玄菟郡的这一移动源于地方夷貊势力的抵抗。特别是，公元前75年玄菟郡被驱逐至西北方向，正是作为小国联盟体的高句丽的国家形成过程。玄菟郡领有其属县高句丽县，其东界与高句丽国相邻。即高句丽是建立在西汉领土之外的国家。

三. 卒本时期高句丽的领土及与周边国的关系

因玄菟郡被驱逐至句丽西北侧，即现今的新宾县一带，所以，卒本时期的高句丽应位于现今的辽宁省桓仁和吉林省集安一带。有关消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等高句丽五部的地理位置有两种不同见解：一种观点认为其仅存在于鸭绿江以北地区；另一种观点则认为存在于鸭绿江以北和以南地区。³²⁾ 但考虑到高句丽典型的墓葬形式——积石墓不仅在鸭绿江以北，而且在鸭绿江以南的平安北道及兹江道一带的广泛分布，五奴部也理应位于鸭绿江两岸。这些奴部就像消奴部曾是沸流国一样，都是称之为“×那”的小国。这些小国联合起来将玄菟郡驱逐至西北侧新宾县方向，在这一过程中形成了

30) 卢泰敦：前掲文(1999年)，第325～327页。

31) 李丙焘提出高句丽县在通沟平野当时为第1次高句丽县(李丙焘：前掲书1976年，第178页)，但笔者认为玄菟郡郡治于公元前82年迁至通沟平野，于公元前75年迁至新宾县一带。

32) 刘子敏：《关于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东北史地》2004年2期，第26～27页。耿铁华认为高句丽五部中灌奴部位于宽田东北和平北楚山一带，顺奴部位于平北满浦江界一带(耿铁华：《两汉时期高句丽的封国地位》，《中国边疆史地研究》2004年4期；《高句丽史论稿》2005年，第55页)。

作为小国联盟体的高句丽。掌有小国联盟体盟主权是消奴部，即沸流国。这时，从夫余南下的朱蒙集团以善射、骑马、识骑马能力、集团统率力等强有力的军事组织力和栽培麦、五谷等优良谷种的农耕技术为基础，联合毛屯谷、召西奴集团等土著势力，逐步扩大其势力，终于力压消奴集团，登上了那国联盟的盟主地位。³³⁾

沸流国又称之为松让国。沸流国的国名源于沸流水，沸流水相当于现今的富尔江。高句丽定都于卒本川，即浑江流域，见沸流水中，有菜叶逐流下，知有人在上流者，因以猎往寻，至沸流国。³⁴⁾ 所以，沸流国位于离浑江与富尔江汇流处不远的上流地区。东明圣王二年(公元前36年)高句丽以沸流国王松让的来降为契机，以其地为多勿都，占领了其领土。富尔江上流有黑沟山城、转水湖山城、孤脚山山城等高句丽早期山城。比起说其中某一城才是沸流国的山城，还是称覆盖所有这些城的地区都是沸流国这一说法更接近事实。³⁵⁾ 那么，以沸流国来降为契机，高句丽极有可能将其疆域扩张至包括富尔江流域的这些城。又随沸流国的来降，小国联盟体盟主的地位也随即向朱蒙集团转移。高句丽把来降的沸流国王松让为多勿都主，说明既承认沸流国的存在，又将其纳入桂娄王权的支配之下。从这一点来讲，东明圣王二年(公元前36年)以后的高句丽国家的性质应是联盟王国。其它三个“那”在这时也可能以联盟王国内部的地域集团来编入。

高句丽北有夫余。³⁶⁾ 高句丽在与夫余的关系上，不受其它某势力的统制，或与其保持外交关系，或与其进行战争。

B. ① 十四年，春正月，扶馀王带素遣使来聘，请交质子，王憚扶馀强大，欲以太子都切为质，都切恐不行，带素恚之。冬十一月，事素以兵五万来侵，大雪，人多冻死乃去。³⁷⁾

② 三十二年，冬十一月，扶馀人来侵。王使子无恤，率师御之。无恤以兵小，恐不能敌，设奇计，亲率军伏于山谷以待之。扶馀兵直至鹤盘岭下，伏兵发，击其不意，扶馀军大败，弃马登山。无恤纵兵尽杀之。³⁸⁾

凭这一史料，很难推出高句丽的领域。但是，若依照夫余中心地为现今吉林

33) 余昊奎：《一至四世纪高句丽政治体制研究》，1997年，第41～46页。

34)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东明圣王元年。

35) 孙进己、张春霞：前揭书(1999年)，第69页；朴灿奎：《初期高句丽史研究》，2004年，第55页。

36)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高句骊。

37)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十四年。

38)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三十二年。

市龙潭山城和东团山的古城址这一见解，高句丽与夫余的交界就有可能在其中间地带。也就是说，是在吉林省的中部一带。³⁹⁾

东明圣王六年(公元前32年)十月，高句丽、乌伊、扶芬奴伐太白山东南苻人国，取其地为城邑。⁴⁰⁾ 太白山可能指白头山，所以，白头山东南苻人国应在咸镜北道一带。⁴¹⁾

高句丽于东明圣王十年(公元前28年)，命扶尉馱伐沃沮之，以其地为城邑。⁴²⁾ 关于北沃沮的地理位置，《后汉书》·东沃沮传称去南(东)沃沮八百余里。《后汉书》和《三国志》载，东沃沮在高句丽盖马大山之东。如果将盖马大山比定为现今的盖马高原，高句丽占据苻人国之后，相继又向东或东北方向进发，征服了豆满江流域的北沃沮。⁴³⁾ 高句丽之所以能够比较轻松地征服北沃沮，是因为在这一地区起初设置了玄菟郡，后玄菟郡被驱逐之后，这一地区成为力量的空白地带，不仅如此，也与高句丽把过去的玄菟郡领域进行再征服的形式展开战争有关。

琉璃明王十一年(公元前9年)夏四月，扶芬奴智取鲜卑，鲜卑降为属国。

C. 十一年夏四月(中略)鲜卑果开门出兵追之。扶芬奴将兵走入其城，鲜卑望之，大惊还奔。扶芬奴当关拒战，斩杀甚多。王举旗鸣鼓而前，鲜卑首尾受敌，计穷力屈，降为属国。⁴⁴⁾

史料C同样传达了高句丽独自实行对鲜卑的战争信息。对此，有人提出疑问：乌丸位于铁岭附近的长城以北，鲜卑则分布在更靠北一些的草原地区。因此，西汉与鲜卑不曾有过接触，其活动区域距西汉的辽东、玄菟诸郡的管辖区域较远。也有人提出，在这种情况下高句丽政权怎么可能发动对玄菟郡战争的疑问。⁴⁵⁾ 但可以肯定的是，它并非指《三国史记》中出现的所有鲜卑。从筑城而居的情况来看，应是鲜卑别种的一部分势力。⁴⁶⁾ 高句丽之所以能够

39) 高福顺，《试论汉魏时期高句丽政权的统辖区域》，《东疆学刊》18-4，2001年，第73页。

40)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东明圣王六年。

41) 余昊奎认为苻人国位于咸镜北道茂山或其南海岸一带(余昊奎：《高句丽那部统治体制的成立与运营》，《韩国史论》27，第57页)，高福顺认为应位于豆满江流域的上流一带(高福顺：前揭文2001年，第70页)。

42)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东明圣王六年。

43) 孙永钟认为占据了咸镜北道一带和沿海州南部一带(孙永钟：《高句丽史》1，1990年，第68页)。

44)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十一年。

45) 李大龙：前揭文(2008年)，第15页。

46) 对此有学者认为其为于AD49年(慕本王二年)逃至汉的鲜卑族的异种——满离集团(卢泰敦：《高句丽史研究》，1999年，第128页)。

对这一鲜卑势力发动战争，其原因在于：因为在当时玄菟郡的势力有所减弱，没有统治高句丽的能力，反倒致使高句丽北进至吉林省中部一带与鲜卑支派相接。

高句丽于琉璃明王三十三年(公元14年)，西伐梁貊灭其国，进兵袭取汉高句丽县。⁴⁷⁾ 梁貊意味着梁水流域的貊，而梁水指的是太子河，所以梁貊便是太子河流域的小国。既然琉璃明王三十三年(公元14年)向西讨伐了梁貊，那么卒本时期高句丽西邻貊族系统的小国——梁貊。梁貊北侧，高句丽西北侧的新宾地域置有玄菟郡高句丽县。

太子河流域有小国梁貊，那么，梁貊的南侧鸭绿江以北的宽甸一带会有哪一势力存在呢？从《汉书》·地理志可知，辽东郡共有18个县，分治于西部都尉、中部都尉、东部都尉。武次为东部都尉的治所，包括武次在内的平部、西安平、文、番汗、沓氏等6个县由东部都尉管辖。⁴⁸⁾ 这6个县的现今地理位置是：武次为辽宁省凤城市，平部为盖县，西安平为丹东市，文县为营口，番汗县为海城西南一带，沓氏为大连市。⁴⁹⁾ 辽东郡的东界为现今的辽宁省凤城市、丹东市一带。梁貊位于太子河流域，其北侧置有玄菟郡的情况下，说玄菟郡管辖了现今的凤城、丹东东侧的宽甸一带是行不通的。

对此，《后汉书》·高句骊传中的“有别种，依小水为居，因名曰小水貊”之史料记载引人注目。⁵⁰⁾ 《三国志》·高句丽传也有“句丽作国，依大水而居，西安平县有小水，南流入海，句丽别种依小水作国，因名之为小水貊”的史料记载。这就意味着句丽为大水貊，句丽别种为小水貊。传西安平县北有小水，所以小水应该是位于现今丹东市北侧的鬲河。因鬲河流域曾有小水貊国存在，又找不到小水貊国与高句丽之间存有某小国的记录，在考虑到小水貊北侧曾存有梁貊，就可以得出宽甸一带为小水貊国，⁵¹⁾ 其东侧为大水貊——高句丽。高句丽于大武神王九年(公元26年)冬十月，王亲征盖马国，以其地为郡县。同年12月，即盖马国之后，句茶国来降。盖马国应位于两江道中部地区的盖马高原一带，⁵²⁾ 又从继盖马国之后，句茶国来降的情况来看，句茶国应位于盖马国南侧。继而，卒本时期高句丽的东南界在两江道中部以北，其南与盖马国、句茶国相邻。

高句丽的南侧存有乐浪国，但高句丽与乐浪国的边界还不好确定。从鸭绿

47)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三十三年。

48) 《汉书》，志，卷28下，地理志，第8下。

49) 谭其骧：《中国历史地图集》2，1996年，第28页。

50)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高句骊。

51) 余昊奎：《高句丽初期的梁貊与小水貊》，《韩国古代史研究》25(2003年)，第100页。

52) 孙永钟：前揭书(1990年)，第76页。

江以南的积石墓的分布情况来看，鸭绿江不像是高句丽和乐浪国的边界。想必《三国史记》高句丽本纪中的黄龙国⁵³⁾、海头国、曷思国⁵⁴⁾、乐浪国⁵⁵⁾、藻那⁵⁶⁾、朱那⁵⁷⁾等是位于鸭绿江以南，乐浪国以北的小国。从夫余代素王弟至鸭绿谷会海头王，杀之，建都于曷思的史料记载来看，海头国和曷思国极有可能是鸭绿江流域的小国。因高句丽的小水貊国位于鸭绿江北侧，所以海头国及曷思国应在鸭绿江以南。乐浪国作为位于乐浪郡北方的小国，曾称高句丽为北国，所以它也应是高句丽南侧的一个小国。就这样，之所以在乐浪郡北部有诸小国存在，是因为乐浪郡的支配体制松动，其势力大有削弱而引起的。那么同样藻那、朱那也可视为平北一带的小国。特别是，其国名以高句丽和五部类似，都以“那”结束，这为其是高句丽周边的小国提供了证据。

综上所述，高句丽以沸流国的来降为契机，将诸势力纳入地域集团，逐渐成为联盟王国。因其北与夫余相接，两国间时有战争发生，两国间的边界为吉林省中部一带，向东征服了荇人国和北沃沮，其疆域抵至豆满江流域，向东南扩张领土至两江道中部以北，其南有盖马国和句茶国。玄菟郡夹在南至梁貊，东南之高句丽，北之夫余间，受到日益膨胀的高句丽的压力。高句丽终于在琉璃明王三十三年(公元14年)西灭梁貊，进而袭取了汉玄菟郡高句丽县。至二世纪初，玄菟郡又被驱逐至抚顺一带。

四. 卒本时期高句丽与西汉玄菟郡的关系

《后汉书》·高句骊传载，武帝灭朝鲜，以高句骊为县，使属玄菟，赐鼓吹伎人。⁵⁸⁾《三国志》·高句丽传载：

- D. ① 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丽令主其名籍。② 后稍骄恣，不夏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今胡犹名此城为帻沟溲。沟溲者，句丽名城也。⁵⁹⁾

53)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二十七年。

54) 《三国史记》，卷14，高句丽本纪2，大武神王五年。

55) 《三国史记》，卷14，高句丽本纪2，大武神王十五年。

56) 《三国史记》，卷15，高句丽本纪3，太祖大王二十年。也有提出其为慈江道一带的观点(孙进己、张春霞：前掲书1999年，第73页)。

57) 《三国史记》，卷15，高句丽本纪3，太祖大王二十二年。

58) 《后汉书》，列传，卷85，东夷列传，第75，高句骊。

59) 《三国志》，魏书，卷30，魏书30，东夷，高句丽。

史料D的叙述时期为“汉时”，但关于幘沟溇的设置时期意见不一，主要有：太祖王代⁶⁰⁾；大武神王代⁶¹⁾；琉璃明王二十九年(公元10年)以后⁶²⁾；公元前37年高句丽的建国以后⁶³⁾；公元前75年将玄菟郡驱逐至苏子河一带之后⁶⁴⁾等多种见解。但是史料D记述的是西汉王朝将与高句丽的对外交涉全全委托给玄菟郡时期的状况。所以，由辽东郡负责与高句丽的对外交涉，或高句丽的超越玄菟郡而驰骋辽东一带的后汉时期(公元25年以后)，幘沟溇已不再是用于两国间的交涉窗口了。⁶⁵⁾但是，史料D记录的也不像是公元前75年以前高句丽在玄菟郡支配之下的当时状况。如果记述的是玄菟郡统治其管辖内的高句丽状况的话，这仅是日常郡县支配的一个环节，绝对没有必要特别地把其记录下来。

那么，可将史料D视为对公元前75年以后的记述。《三国史记》载高句丽建国于公元前37年。那么，公元前75年至公元前37年间，领取鼓吹伎人和朝服、衣幘的势力是谁，“后稍骄恣，不夏诣郡”的具体时期又是何时呢？在《三国史记》·高句丽本纪的高句丽建国神话中，它以沸流国出现。《后汉书》和《三国志》载：“本有五族，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⁶⁶⁾从朱蒙登上王位之后，没有出现过王位交替现象来看，东明圣王之后的高句丽王室是桂娄部，之前是涓奴部。⁶⁷⁾《三国史记》中沸流国的国王是松让，“松让”也可以发音为“涓内”或“涓奴”。这又可解释为后来被编入涓奴部的当时之沸流国于公元前75至公元前37年，从玄菟郡领取了鼓吹伎人。

与此息息相关的记录便是李奎报的《东明王篇》。

E. 王曰 以国业新造 未有鼓角威仪 沸流使者往来 我不能以王礼迎送
所以轻我也 从臣扶芬奴进曰 臣为大王取沸流鼓角 王曰 他国藏物
汝何取乎 对曰 此天之与物 何为不取乎 夫大王困於扶余 谁谓大王
能至於此 今大王奋身於万死之危 扬名於辽左 此天帝命而为之 何事
不成 於是扶芬奴等三人 往沸流取鼓而来 沸流王遣使告曰云云 王恐

60) 卢泰敦：前揭书(1999年)，第121页。

61) 金贤淑：《高句丽德种族起源与国家形成过程》，《大丘史学》89，2007年，第58页。

62) 余昊奎：《高句丽的国家形成与汉的对外政策》，《军史》54，2005年，第24页。

63) 李仁哲：前揭文(2006年)，第94页。

64) 李鍾旭：《高句丽初期的政治的成长与对中国关系的展开》，《东亚史的比较研究》，1987年，第72页；朴京哲：《“高句丽社会”的展开与政治的统合努力》，《韩国古代史研究》14，1998年，第301页；尹龙九：《高句丽的兴起与幘沟溇》，《高句丽的历史与对外关系》，2006年，第19页。

65) 尹龙九：前揭文(2006年)，第16~17页。李大龙也把其史料视为西汉时期之事(马大正等：前揭书2001年，第184~185页；马大正等：前揭书2003年，第98页)。

66) 《三国志》高句丽传记为涓奴部。

67) 卢泰敦：前揭书(1999年)，第60页。

来观鼓角 色暗如故 松让不敢争而去(《东国李相国集》, 卷第3, 古律诗, 东明王篇)

根据史料E, 可知鼓和鼓角是沸流国的特产, 是东明王朱蒙的高句丽所没有的。把其与《后汉书》和《三国志》·高句丽传联系起来看, 玄菟郡虽送鼓角给沸流国, 但没有给朱蒙的高句丽。松让王的沸流国, 以指称高句丽的小国联盟体盟主的身份, 从玄菟郡取得的鼓角。⁶⁸⁾

西汉通过玄菟郡发放鼓吹伎人的原因在于, 公元前75年玄菟郡处于因受到以沸流国为代表的小国联盟的压力, 被驱逐至句丽西北的境况, 在之后仍受继续被驱逐的压力。换言之, 因高句丽而逐渐向西北方被驱逐的玄菟郡, 为减轻驱逐压力, 才将鼓吹伎人发放给了那国联盟体的主导势力——沸流国。这种发放行为带有诱发未能接受到鼓吹伎人的其它势力间的矛盾, 并以此来造成那国联盟体的分裂, 扰乱那国联盟体结成的意图。⁶⁹⁾

高句丽随桂娄王室的登场, 对诸那的统治得到强化, 王权得到进一步巩固, 逐渐发展为联盟王国。这使得玄菟郡很难接触到高句丽支配下的诸郡势力, 难以造成联盟王国内部的分裂。因此, 公元前37年之后, 玄菟郡没有向高句丽给予鼓吹伎人。

以往到玄菟郡领取朝服和衣帻的诸那首长, 逐渐被高句丽统合, 又因统治体制的不断强化, 使得他们前往玄菟郡领取朝服和衣帻变得相当困难。史料D正是将随着高句丽王室向桂娄部过渡, 王权得到不断强化, 再加上其对诸那的强力统治, 使得松让的沸流国或周边首长在领取朝服和衣帻后, 无法走出玄菟郡的境况, 理解并记录为高句丽“后稍骄恣”, 未前往玄菟郡领取朝服和衣帻。

西汉王朝给予朝服和衣帻, 同给予鼓吹伎人一样, 也是以分裂瓦解那国联盟体为目的的。高句丽王或诸那首长从西汉官吏手中领取朝服和衣帻, 像从中国王朝领取朝服和衣帻的诸多官吏一样, 本应是很平常的事, 没有必要特意记录下来。尽管如此, 中国正史对领取朝服和衣帻一事作了特意记录, 这可能是因为, 高句丽的地位虽然未及领取朝服和衣帻, 但还是领取了朝服和衣

68) 赵法锺:《韩国古代社会的古朝鲜、檀君认识研究》,《先史与古代》23, 2005年, 第168页;李仁哲:前掲文(2006年), 第96页。那时, 赐鼓吹伎人的对象为高句丽王, 领受朝服、衣帻的有诸那的首长或属于加等级的存在等多数人(卢泰敦:前掲书1999年, 第119页;余昊奎:《在鸭绿江中流流域的高句丽的国家形成》,《历史与现实》21, 1996年, 第68页)。通常鼓角是用于军队号令的一种战斗装备。但是, 史料E中的鼓角用于迎送之礼, 在乐浪国则用于报告敌方入侵的工具, 发生于琉璃明王十一年(BC9)的高句丽与鲜卑的战斗中又用于进击军队。

69) 卢泰敦也指出:“当时, 汉王朝对高句丽的政策的首要目的是, 阻止能够统领诸那的具有强有力的、统合势力的形成, 进而谋取边境的安定”(卢泰敦:前掲书1999年, 第119年)。

帙而引起的。当时玄菟郡已被夷貊驱逐至新宾方向，再加上公元前75年以后以沸流国为中心的小国联盟体的威胁越来越大，玄菟郡以怀柔、羁縻或诱发小国间矛盾的策略，给予了高句丽朝服和衣帙。⁷⁰⁾

“高句丽令主其名籍”是什么意思呢？对此，中国学界将名籍解释为户籍，认为汉王朝通过地方官吏直接管辖高句丽人。⁷¹⁾ 如果名籍就是户籍的话，由县令掌管是理所当然的事，没有必要对其作特意的记录。正确的解释应是：名籍并非户籍，应是记录从玄菟郡领受朝服，衣帙的小国或其官吏的“记名籍之藏籍”⁷²⁾ 高句丽“后稍骄恣，不更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帙其中，岁时来取之”之后，没有高句丽令主名籍之记录，也是因为不知是谁取来了朝服和衣帙，无法作名籍而产生的。不用说朱蒙的高句丽了，之前的沸流国时期，高句丽并非通过高句丽县令受玄菟郡的管辖。

高句丽在公元前37年以后，并没有到玄菟郡领取鼓吹伎人和朝服、衣帙。对此，玄菟郡于东界筑小城，⁷³⁾ 置朝服衣帙其中，岁时来取之。⁷⁴⁾ 这说明玄菟郡和高句丽以玄菟郡的东界为界，分别占领着西、东两个不同的地区，同时也说明高句丽并非玄菟郡领域之内。琉璃明王三十三年(公元14年)，高句丽袭取汉高句丽县⁷⁵⁾ 的记录说明高句丽和汉高句丽县是不同的实体，是置于不同地区的政治体。

公元前37年以后率卒本夫余，而接梁貊国，东南与高句丽相邻，左右受到威胁。于琉璃明王三十三年(公元14年)，高句丽终于西伐梁貊，袭取高句丽县。玄菟郡在被高句丽驱逐的这种状况下，两国间的交流是不可能正常进行的。所以，高句丽不进入玄菟郡内，而玄菟郡在其东界筑小城，置朝服和衣帙于其

70) 虽有些差别，但李丙焘、余昊奎也把其看成是怀柔之策(李丙焘：前揭书1976年，第58页；余昊奎：《高句丽国内迁都的时期和背景》，《韩国古代史研究》38，2005年，第74页)。

71) 耿铁华：前揭书(2005年)，第115页；李大龙：《〈三国史记·高句丽本纪〉史料价值辨析》，《东北史地》2008年2期，第13页。

72) 居延汉简中，名籍这一用语指各种名单，特别是官人的名单(永田英正：《从简牍看汉代边郡的统治制度》，《讲座敦煌：敦煌的社会》，1980年，第72~73页；胤山明：《下级官吏的世界》，《汉帝国与边境社会》，1999年，第152~153页；余昊奎：《高句丽初期对中战争的展开过程及性质》，《东北亚历史论丛》15，2007年，第17~18页)。笔者曾经也将名籍解释为“记名单之藏籍”(李仁哲：前揭文2006年，第93页，注46)。

73) 这一城称之为帙沟濑。而有学者认为，必须通过帙沟濑才可与汉郡县进行交涉，这意味着诸那原来自行行使的外交及对外贸易活动，现在则在王室的统治下，对其交涉视窗进行一元化处理(卢泰敦：前揭书1999年，第121页)。虽有很多论稿赞同此观点，但笔者对因设置了帙沟濑，高句丽就对其交涉视窗进行一元化处理的立场持怀疑态度。客观的解释应是：正因桂娄势力通过统合周边诸那，发展成为联盟王国，诸那势力同玄菟郡的交涉才被断绝，由此，交涉视窗才会演变为高句丽一元化。

74) 《三国志》，魏书，卷30，东夷，高句丽。

75) 《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三十三年。

中，领取之人在有必要时才前去取之，当然这种接受行为绝非是册封朝贡之类的仪礼品授受行为。⁷⁶⁾ 其只是根据两国的政治需要而进行的变相的物品接受行为。

五. 结语

玄菟郡于公元前107年以沃沮城为郡治初置，后于公元前82年将其中心地迁至句丽，至公元前75年玄菟郡又迁至句丽西北的新宾县永陵方向。这一玄菟郡的迁移是因土著夷貊势力的抵抗所引起的。特别是，公元前75年玄菟郡被驱逐至西北方向的时期，正是作为小国联盟体的高句丽的国家形成过程。玄菟郡以其属县领有高句丽县，并以玄菟郡的东界为界，与高句丽相邻。高句丽是建立在西汉领土之外的国家。

高句丽由桂娄集团掌权，在沸流国降服之后，强化其统治体制，成长为联盟王国。占领沸流国之后，高句丽与夫余领域直接接壤，使得两国间发生战争。两国间的边界可能是现今的吉林省中部一带。向东征服了苻人国和北沃沮，其领域已抵豆满江流域。向东南将领土扩张至两江道中部以北，其南侧有盖马国和句茶国。南边，从积石墓的分布状况来看，鸭绿江南岸也应是朱那等小国的乐浪郡。高句丽西边有梁貊国和小水貊国。所以高句丽卒本时期，玄菟郡夹在南之梁貊国，东南之高句丽，北之夫余中间，受到被日益膨胀的高句丽驱逐的威胁。高句丽在这一时期，不受玄菟郡的任何制裁，自主地发动战争，征服周边小国扩张领土。

公元前37年，朱蒙建立高句丽以前，领取鼓吹伎人的势力来自沸流国，领取朝服、衣帻的是沸流国与周边诸那的首长。当时，因玄菟郡正处在被高句丽等夷貊驱逐的境地，欲通过给予鼓吹伎人和朝服、衣帻，缓解来自高句丽的驱逐压力。以求瓦解小国联盟体。但高句丽随桂娄集团的登场，成长为联盟王国，强化了对诸那的统治。所以，玄菟郡未给予高句丽以鼓吹伎人，高句丽也因朝服、衣帻之效服性降低而没有前往玄菟郡领取朝服、衣帻。《三国志》中的“(高句丽)后稍骄恣，不夏诣郡”的记录，恰好说明了这种情况。《三国志》中“高句丽令主其名籍”的记载，也只是说明管理了记录领取朝服和衣帻的人的名单，西汉王朝通过高句丽县令管辖了高句丽的主张是不能成立的。

高句丽在公元前75年，将玄菟郡逐至西北方向之后，继续给其施加压力。高

76) 而且综合分析史料D，也找不出西汉王朝册封高句丽的表现用语，又没有高句丽向西汉王朝朝贡的表现用语。所以，我们不能将鼓吹伎人或朝服、衣帻视为册封的下赐品或朝贡的答礼品。

句丽在桂娄集团执政之后，继续向北统合沸流国、向东征服靺鞨人和北沃沮，将领域扩张至豆满江流域，在保留独自的领土的情况下，对西北之玄菟施加军事的驱逐压力。在这种玄菟郡被高句丽不断驱逐的状况下，西汉王朝不可能对高句丽王进行册封。我们在《三国史记》、中国正史中找不到卒本时期的高句丽向西汉王朝称臣纳贡的记录的原因就在于此。所以卒本时期的高句丽是拥有独立领土和主权的自主国家。

10

五族时期的高句丽与 玄菟郡的关系

朴灿奎 (延边大学)

五族时期的高句丽与玄菟郡的关系

朴灿奎 (延边大学)

〈目次〉

- 一. 五族时期的高句丽
- 二. 五族时期高句丽与玄菟郡的关系

在早期高句丽史的研究中,关于高句丽源于句丽,学界似无异议。但对句丽的具体研究尚嫌欠缺深入的研究。本文拟通过比较分析史书中关于高句丽五族的记载,论证此五族就是史书中出现的句丽,并大致推测其居住区域,进而初步探讨和归纳五族时期的高句丽与汉玄菟郡的相互关系的性质及发展变化情况。

一. 五族时期的高句丽

早在朱蒙建国之前,高句丽就与玄菟郡县有了直接的联系。为正确把握相互间的关系的形式和内容,有必要对朱蒙建国前的高句丽的情况进行先行的研究。笔者认为,汉郡县和高句丽的相互关系的出现,开始于高句丽的“五族时期”。

长期以来,中外学界围绕着如何理解《三国志》所载的高句丽“五族”,进行了大量研究,但仍未能在其性质的把握上取得相近的意见。在关于高句丽“五族”的研究中,一般有两种不同意见。一种意见是把高句丽“五族”和“五部”看成同一个实体;另一种意见是把高句丽“五族”和“五部”看成高句丽历史发展的两个不同的历史时期。有不少主张第二种意见的学者把“五族时期”看成是朱蒙建国之后¹⁾。笔者同意把“五族”和“五部”分开考察的意见,但不同意“五族”的形成时间是在朱蒙建国之后意见。关于高句丽“五族”的形成时间,笔者同意姜孟山、姜仁淑的看法²⁾,即朱蒙建高句丽国之前,就已经存在了高句丽

1) 对这些分歧点,卢太敦和崔在锡的下列论文,有较为详细的整理和说明。

卢太敦:《高句丽史研究的现状和课题》,《东方学志》52,1986年

崔在锡:《高句丽五部》,《韩国社会史研究会论文集》4,1986年

2) 姜孟山:《高句丽五部》,《延边大学朝鲜学国际学术会议论文集》第245页

五族。笔者认为高句丽的五部是五族发展演变的结果，五族时期是指沸流王时期的古高句丽，从朱蒙建国到大武神王初期应属五族向五部的过渡时期³⁾。至于沸流国为涓奴部之前身的看法，笔者已在去年的学术会议的发表过，在此不重复赘述⁴⁾。

关于高句丽“五族”，《三国志》和《后汉书》有如下记载：

史料1. 本有五族。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

《三国志·魏书·东夷传·高句丽条》

史料2. 凡有五族，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涓奴部为王，稍微弱，后桂娄部代之。《后汉书·东夷传·高句丽条》

从上述记载来看，《后汉书》的记载基本上与《三国志》的记载相同，应系承袭《三国志》所载。对两书的相关记载的不同点，学界多限于对“娟”与“涓”字差异的分析和讨论⁵⁾，而对两条记载反映内容之另一重要相异点“本有五族”和“凡有五族”的区别点，则未引起学界的充分重视。两者虽一字之差，但对于我们如何理解高句丽五族和五部的起源和变迁有着重要的意义。

“本有”之“本”字表示“原本”、“本来”的意思，与其后的“有”和“今有”等字构成时间概念上的前后关系和承续关系。可见，陈寿在《三国志》中所言的“五族”与“五部”在概念上是有区别的。“本有五族”与其后的“本涓奴部为王”相对应，指称同一个时期，表示“五族时期”的古高句丽是涓奴部为王的时期；“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则与“今桂娄部代之”相对应，通过“稍微弱”的过渡，表示当时有“五部”，是桂娄部为王的时期。此《三国志》之“本”字，与《后汉书》之“凡”字相比，在时间概念上是完全不同的词汇。范晔把“本有五族”改成“凡有五族”，无疑有违于陈寿的原意，其“凡”字表示“共有”或“总共”之意。此“凡有五族”实际上可被理解成当时之高句丽“共有五族”，即“五族”就是其后所载的“五部”之意。也就是说，从《后汉书》的记载来看，把“五族”理解成“五部”并非是错误的。问题在于《后汉书》的撰成时间是在

姜仁淑著、文一介译：《关于先行于高句丽的古代国家句丽》，《东北亚历史与考古信息》，1992年 第1期

3) 朴灿奎：《三国志·高句丽传研究》第77-78页，

4) 朴灿奎：《沸流国考》，2007年中韩高句丽学术会议论文集

5) 《后汉书》、《翰苑》引《魏略》言、《新唐书》等，均载为涓奴部，固学界亦有人把“涓奴部”看成是“娟奴部”之误。笔者同意孙永钟和全海宗关于“涓奴部”是“娟奴部”之误的见解。“涓”字可能属《后汉书》抄袭《三国志》之“娟”字时的笔误。《翰苑》引《魏略》言、《新唐书》等所载之“涓”，均可看成是承袭了《后汉书》的错误。

《三国志》之后，其〈高句丽传〉系承袭和修补《三国志》的〈高句丽传〉。如而且鱼豢之《魏略》也记载为“其国本有五族”，而未言“凡有五族”⁶⁾。可见，范晔的《后汉书》把“本有五族”改成“凡有五族”不符《三国志》和《魏略》的本意。范晔的《后汉书》虽然在中国历代正史的顺序上看是早于《三国志》的史书，但实际撰写时间要比《三国志》晚150年左右。其东夷传的高句丽部分，仅后汉末对汉关系部分有所补充外，基本上承袭了《三国志·高句丽传》所载。文中可看出其重新整理修正的意图，这种整理和修正造成了《三国志》和《后汉书》在相关记载中的差异点，从而使后人在引用这些史料时出现混乱和分歧。所以，在研究高句丽的五族和五部时，应以《三国志》的记载为准，把其记载理解为原有五族，后有五部，五部是五族发展和变化的结果；五族和五部是高句丽民族的前后两个不同的历史时期。此外，“又其国有五部，皆为贵人之旅”和“部贵五宗”的记载，也表明五部源于古高句丽五族。可以说作为征服民族，高句丽五族构成了高句丽对内统治和对外扩张势力中的核心骨干力量，其众多成员成为享有一系列特权的贵族。

那么高句丽的五族是什么时候开始形成，什么时候演变成五部的呢？笔者认为至少在玄菟第一次西迁之前，就已经形成了就已经形成了以后来发展成涓奴部的沸流国为首之句丽民族共同体—句丽⁷⁾，其内部构成就是高句丽的“五族”。玄菟从沃沮“徙郡于句丽西北”，也明确表明“句丽”民族共同体的形成。玄菟西迁后设置的高句丽县，就是在句丽人地区，以“句丽”为主干词，前加形容词“高”字命名的。高句丽的五族完成向五部的演变，应该是在大武神王时期。大武神王时期之前的高句丽，我们也可称之为高句丽的五族时期。

关于高句丽五族的居住地区，史无明确的记载。但我们可以通过分析《三国史记》中关于高句丽建国初期的历次对外扩张，可大致推测出高句丽五族的居住区域。《三国史记》对建国初期向四周扩张的情况记述如下：

史料-4 “宋让以国来降，以其地为多勿都，封宋让为主。”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一》东明王二年条

史料-5 “王名乌伊、扶芬奴伐太白山东南 人国，取其地为城邑。”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一》东明王六年条

史料-6 “王命乌伊、麻离，领兵二万西伐梁貊，灭其国”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一》琉璃王三十三年条

史料-7 “王亲征盖马国，杀其王，但以其地为郡县。”

《三国史记卷十四·高句丽本纪》大武神王九年条

6) 转引自《翰苑蕃夷·高丽》注引魏略言。

7) 参阅拙文《沸流国考》，2007年12月，在北京召开之《中韩高句丽历史学术会议》论文集。

从上述关于建国初期高句丽对外扩张情况的记载中，可以看出高句丽五族的大致居住区域。因为初期高句丽的对外扩张必然是从原居住地区向四周的扩张，扩张之前的区域，应该就是高句丽五族之居地。从史料4来看，五族居地之北界就是沸流国所在地—富尔江流域。从朱蒙前往沸流水上游至沸流国和宋让所言之沸流国地“僻在海隅”的记载中⁸⁾，我们可以看出沸流国是在高句丽的北部地区。从史料5来看，高句丽五族之东界，当在太白山东南蓊人国之西。对于《三国史记》中出现的太白山，学界一般看成是今长白山，进而把蓊人国的位置看成为今吉林省长白朝鲜族自治县附近⁹⁾。据此，笔者暂从太白山就是长白山之说，把高句丽五族居地之东界，定位长白县以西地区。从史料6来看，高句丽五族居地之西界当在梁貊以东地区。关于梁貊的地理位置，似是在绥河中上游地区¹⁰⁾，则高句丽五族之西界大致应在今薄石河流域。从史料7来看，高句丽五族之南界应是盖马国之北。关于盖马国的地理位置学界看法各异。但有一点似乎是共同的，即盖马国当在鸭绿江以南。因为高句丽征盖马国是在大武神王时期。而高句丽在琉璃王时期就已经迁都于鸭绿江畔的国内城。即在琉璃王时期，高句丽统治中心已经迁移到鸭绿江中游地区，在鸭绿江以北地区不可能有盖马国。盖马大山为今狼林山脉，盖马国当为今盖马高原或以西地区。

从上述分析中，可以看出高句丽五族的居住地区应是东至长白山西南，西至薄石河流域，北至富尔江流域，南至鸭绿江中游地区的广阔地区。高句丽建国后，在其初期进行的一系列对外扩张战争，无疑是依靠了此五族的力量。

二. 五族时期高句丽与玄菟郡的关系

在汉四郡中，除玄菟郡外的乐浪、临屯、真番三郡均是在武帝讨平朝鲜的元封三年(公元前108年)设置，只有玄菟郡是次年设置的¹¹⁾(公元前107年)。其后玄菟郡历经多次向西迁移，学界称之为第一玄菟郡、第二玄菟郡和第三玄菟郡。本文叙述范围仅限第二玄菟郡时期的玄菟郡和高句丽关系。

西迁后的之第二玄菟郡，与当时的其它郡相比，具有两个明显的特征。一是其下属县只有高句丽、上殷台、西盖马等三个县；二是其属县的户数明显多于其它郡的属县户数。如辽东郡户55972，口272539，县25，平均每县户3100

8)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一》东明王一年条

9) 孙进己、王绵厚：《东北历史地理》第一卷，第264页，1988年版。

10) 参阅拙著：《三国志高句丽传研究》，第53—61页，吉林人民出版社，2000年。

11) 《汉书卷二十八下》地理志载为：“武帝元封四年开”(公元107年)

多户；乐浪郡户62812，口406748，县25，平均每县2500多户。而玄菟郡户45600，口221845，县三，平均每县15200户。对于这些不同点，有学者认为，汉书所记载之玄菟郡的县数和户口数的比例，与其临近郡县的县数和户口数的比例相比，显现出了过于悬殊的差异，从而主张此户数是第一玄菟郡时期的统计数字直接编入《汉书·地理志》的结果¹²⁾，而不是第二玄菟郡的户口数。也有学者认为仅以三县的户口数来讲，玄菟郡的户口数过多，其数字有所误差¹³⁾。但是，笔者认为对《汉书·地理志》的此户口数记载，应与有别于其它郡县的玄菟郡之特殊管辖方式联系起来进行考察。对于玄菟郡的特殊统治方式，我们可以通过分析下述之《三国志》的相关记载来进行整理。

史料3 “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丽令主其名籍，后稍骄恣，不复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¹⁴⁾ 《三国志·魏书·东夷传》高句丽条

从史料3中，我们可以看出以下几点。

一是高句丽县的辖区分“界内”和“界外”。即在第二玄菟郡之高句丽县址的东部有条“界”，“界”以西为高句丽非直辖的地区，“界”以东为高句丽县直辖的地区。也就是说高句丽县是由直辖地区和非直辖地区构成。这是玄菟郡有别于乐浪、辽东等汉郡的特殊的构成方式。这种构成方式，也是上述其属县之户口数明显多于乐浪、辽东之属县户口数的原因。依笔者的推测，玄菟郡高句丽县的直辖地区户口数，应该和乐浪、辽东等郡属县的户口数基本相似，只不过是由于增加了高句丽县非直辖地区的“东界”以东地区的户口数，才出现了上述户口数上的悬殊差异。《后汉书·五行三》所载的玄菟郡之户口数也可证明这一点。据《后汉书》所载，尽管如唐李贤注引《东观书》所言，“安帝即位元年，分三县来属”¹⁵⁾，其原三县加上“分三县来属”的玄菟之六县户口数，也仅为户1594，口43163¹⁶⁾，比第二玄菟郡的户口数减少了数倍。应该说，这种户口数的大量减少，正是反映了随着朱蒙所建高句丽国的产生和发展，非直辖地区户口的脱离所造成的玄菟郡户口数的锐减现象。

二是高句丽县对高句丽人的管辖是通过高句丽人的统治阶层进行的间接管

12) 李丙焄：《韩国古代史研究》第177—178页，(韩)博英社，1985年2月

13) 和田清：《玄菟郡考》，《历史与考古信息东亚史》，2005年 1期25页

14) 《北史》载为“汉昭赐衣帻、朝服、鼓吹”，汉昭帝时期为公元前86年—前74年。玄菟西迁为昭帝始元五年(公元前82年)

15) 《后汉书·郡国五》玄菟郡条。东汉之安帝即位元年为公元107年。

16) “户1594”的记载与“口43163”的记载不相符，当时的每户之口数大约为5口左右。此户1594，最多不可能超过万口。可能是在户字之后，漏载“万”字。即后汉书安帝时，“分三县来属”后玄菟郡之户口数应是万一千五百九十四，而不是一千五百九十四。

辖。史料C中关于“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丽令主其名笈”是有关玄菟西迁初期(汉昭帝时期)之高句丽县与高句丽之间关系的记事。这里所言的“赐鼓吹伎人”是指西汉政府把“鼓吹伎人”赐给高句丽统治阶层，“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则表明古高句丽的统治阶层经常到玄菟郡接受西汉政府赐予的“朝服、衣帻”。毋庸置疑，对此赐“鼓吹伎人”和“受朝服、衣帻”的现象，我们不仅应看成古高句丽人对汉文化的接受和收容，还应看成是古高句丽人对西汉与古高句丽关系问题上的管辖和被管辖关系的接受和收容。因为高句丽县令根据自己所掌握的名籍，赐给与官职直接联系在一起“朝服、衣帻”，亦可理解为西汉政府向前往玄菟郡接受“朝服、衣帻”的古高句丽统治阶层的诸贵族赐予了各级官职。可见，玄菟对古高句丽的管辖或统治方式是通过古高句丽统治阶层的间接管辖。这种管辖，很可能是在古高句丽地区沸流国(后来的涓奴部)的协助和支持下的间接管辖。当然，从玄菟郡掌握有准确的高句丽人的户口统计数字的情况来看，尽管其管辖形式是间接的，但却体现了其管辖有相当的实质性。

三是随着朱蒙所建之高句丽国的发展，高句丽县对高句丽地区的管辖逐步削弱，转变成留于形式的管辖。“后稍骄恣，不更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的记载，反映的应是朱蒙建国前后的一段时期。关于高句丽人“后稍骄恣，不更诣郡”的具体时间，史书并无明确记载。笔者认为，高句丽人对玄菟郡的这种态度的转变，应该是以高句丽五族内部出现新的力量构成变化为前提。从《三国史记》的记载看，似乎应该是朱蒙的建国和沸流国的降服，即高句丽五族中桂娄和涓奴之间的领导地位的交替。也就是说，应与“本涓奴部为王，稍微弱，桂娄部代之”的记载联系起来考察，表明随着沸流国在高句丽地区的领导地位的丧失，古高句丽人没有再前往玄菟郡去接受朝服、衣帻。也就是汉王朝所赐之朝服、衣帻的颁发者不是高句丽县令，也不一定按高句丽县令所掌管的名籍来确定赐给对象，而是由高句丽人至“东界”之“帻沟娄”自行取之。至于取走之后朝服、衣帻的分配，很可能是由高句丽国的国王自行决定。此后时期，玄菟郡逐渐丧失了对高句丽地区的有效管辖能力，仅以“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的方法，维持了形式上的对高句丽人的管辖。玄菟郡和高句丽的这种隶属关系的结束时间，至少应该是在琉璃王派遣乌伊、麻离“进兵袭取汉高句丽县”的琉璃王三十三年。

综上所述，高句丽是起源于中国东北地区的古代民族，其起始是以五个血缘集团—五族构成的部族联合共同体，被称之为“句丽”。第二玄菟郡时期，汉王朝在句丽人地区设置了高句丽县进行了管辖，但随着朱蒙所建高句丽的发展壮大，玄菟郡对高句丽的管辖逐步削弱，最终结束了这种管辖和被管辖关系。

五族시기의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朴燦奎 (연변대학)

〈목 차〉

- I. 五族시기의 고구려
- II. 오족시기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조기 고구려사의 연구에 있어서 고구려가 구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려의 구체적인 연구에 있어서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유감이다. 본문은 사서의 고구려 오족에 관한 기록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 오족이 바로 사서에 나타나는 구려임을 증명하고 동시에 그 거주 구역을 대략 추측해 볼 예정이다. 나아가 오족시기의 고구려와 현도군의 상호 관계적 성격과 발전, 변화의 상황을 초보적으로 검토, 귀납할 예정이다.

I. 五族시기의 고구려

주몽이 건국하기 이전에 고구려는 현도 군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상호간 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주몽이 건국하기 전의 고구려의 상황에 대하여 먼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의 군현과 고구려의 상호관계의 출현이 고구려의 “오족시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내외 학계에서는 『三國志』에 기록된 고구려 “五族”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둘러싸고 대량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성질의 파악에 있어서 비슷한 견해를 얻어 내지 못하였다. 고구려 “오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고구려 “오족”과 “五部”를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견해는 고구려의 “오족”과 “오부”를 고구려 역사 발전에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역사 시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을 주장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오족시기”를 주몽의 건국 이후로 간주한다.¹⁾ 필자는 “오족”과 “오부”를 나누어 고찰하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오족”의 형성 시

1)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서는 아래에 열거하는 盧太敦과 崔在錫의 논문이 상세한 정리와 설명에 도

기가 주몽의 건국 이후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고구려 “오족”의 형성 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이미 고구려의 오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姜孟山, 姜仁淑의 견해에 동의한다.²⁾ 필자는 고구려의 오부가 오족이 발전, 변천한 결과로, 오족시기는 沸流왕 시기의 古高구려를 가리키며 주몽의 건국에서 大武神王 초기까지가 마땅히 오족에서 오부로 향하는 과도기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³⁾ 沸流國을 涓奴部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작년의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기에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⁴⁾

고구려의 “오족”에 대하여 『三國志』와 『後漢書』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사료 1. 본래 다섯 부족이 있으니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이다.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대신하고 있다.

本有五族, 有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三國志』~『魏書』東夷傳 高句麗條

사료 2. 모두 다섯 부족이 있으니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이다.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후에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대신하고 있다.

凡有五族, 有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后桂婁部代之. 『後漢書』~『東夷傳』高句麗條

상술한 기록을 통해 보면 『後漢書』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삼국지』의 기록과 같으며 당연히 『三國志』의 기록을 계승한 것이다. 양서의 관련된 기록의 다른 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부분 “涓”자와 “涓”자의 차이 분석과 토론에 한정되어 있으며,⁵⁾ 두 기록이 반영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인 “本有五族”과 “凡有五族”의 차이점은 학계의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양자는 비록 한 글자의 차이지만 우리가 고구려 오족과 오부의 기원 및 변천을 어

음을 줄 것이다.

盧太敦: 「고구려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東方學志』52, 1986년.

崔在錫: 「고구려오부」, 『韓國社會史研究會論文集』4, 1986년.

2) 姜孟山: 「高句麗五部」, 『延邊大學朝鮮學國制學術會議論文集』제245쪽.

姜仁淑 著, 文一介 譯: 「關於先行于高句麗의 古代國家高句麗」,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992년 제1기.

3) 朴燦奎: 『三國志·高句麗傳研究』제 77-78쪽.

4) 朴燦奎: 「沸流國考」, 2007年中韓高句麗學術會議論文集.

5) 『後漢書』, 『翰苑』이 인용한 『魏略』의 말과 『新唐書』 등은 모두 涓奴部로 적고 있다. 당연히 학계에서도 어떤 이는 “涓奴部”를 “涓奴部”의 잘못으로 간주한다. 필자는 孫永鐘과 全海宗의 “涓奴部”가 “涓奴部”의 오기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涓”자는 아마도 『後漢書』가 『三國志』의 “涓”자를 베껴 쓸 때의 오기였을 것이다. 『翰苑』이 인용한 『魏略』의 말과 『新唐書』 등에 기록된 “涓”자는 모두 『後漢書』의 착오를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本有”의 “本”자는 “原本”, “本來”의 뜻을 나타내며, 그 다음의 “有”와 “今有” 등의 글자와 함께 시간 개념상의 전후관계와 계승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진수가 『三國志』중에서 말한 “오족”과 “오부”가 개념상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本有五族”과 그 다음의 “本涓奴部爲王”은 서로 대응되어 하나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으며 “오족시기”의 고구려가 연노부에서 왕을 삼던 시기를 나타낸다; “有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는 곧 “今桂婁部代之”와 서로 대응되어 “稍微弱”의 과도기를 거쳐 당시에 “五部”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을 삼던 시기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三國志』의 “本”자를 『後漢書』의 “凡”자와 서로 비교하면 시간 개념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이다. 范曄은 “本有五族”을 “凡有五族”으로 바꾸었는데 陳壽를 따르지 않는 원 뜻이 있음이 틀림없다. 그 “凡”자는 “共有”나 “모두”의 뜻을 나타낸다. 이 “凡有五族”은 사실상 당시의 고구려에 “모두 오족이 있었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오족”은 바로 그 뒤에 기재된 “오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後漢書』의 기록을 통해 보면 “오족”을 “오부”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後漢書』의 찬술 시간이 『三國志』의 뒤라는 데에 있으며 그 「고구려전」은 『三國志』의 「高句麗傳」을 계승하여 손질하였다. 예를 들어 魚豢의 『魏略』도 또한 “其國本有五族”으로 기록하였지만 “凡有五族”이라고 하지는 않았다.⁶⁾ 范曄의 『後漢書』가 “本有五族”을 “凡有五族”으로 고쳐 『三國志』와 『魏略』의 본의에 부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范曄의 『後漢書』가 중국 역대 정사의 순서상으로 볼 때는 『三國志』에 앞선 사서이지만 실제 저술 시간은 『三國志』보다 150년가량 늦게 된다. 그 동이전의 고구려 부분은 단지 후한 말 對漢관계 부분의 보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三國志』의 「高句麗傳」의 기록을 계승하였다. 문중에서 다시 정리하고 수정한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리와 수정이 『三國志』와 『後漢書』의 관련 기록에서의 차이점을 조성함으로써 후인들이 이러한 사료를 인용할 때 혼란과 불일치가 출현하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오족과 오부를 연구할 때는 마땅히 『三國志』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록은 원래 오족이 있었으며 후에 오부가 있었고 오부는 오족이 발전, 변화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오족과 오부는 고구려 민족의 전후의 서로 다른 두 역사 시기이다. 이 외에 “又其國有五部, 皆爲貴人之族”과 “部貴五宗”의 기록 역시 오부가 고구려 오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복민족의 성격으로서 고구려의 오족은 고구려의 대내 통치와 대외 세력 확장에서의 핵심 역량이었으며, 그들의 많은 구성원들은 일련의 특권을 향유한 귀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오족은 언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언제 변화하여 오부가 되었는가? 필자는 적어도 현도군의 제 1차 서천 이전에 이미 나중에 涓奴部로 발전한 沸流國을 우두머리로 한 句麗 민족 공동체 -- 句麗를 형성하였으며,⁷⁾ 그 내부 구성이 바로 고구려의 “오족”

6) 『翰苑·蕃夷·高麗』의 注에서 인용한 魏略言에서 인용.

7) 拙文「沸流國考」, 2007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中韓高句麗歷史學術會議論文集』참고.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도가 沃沮로부터 “徙郡于句麗西北(구려의 서북으로 군을 옮긴)” 것도 “구려”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도의 西遷 후에 설치된 고구려현은 바로 구려인의 지역으로 “句麗”를 기본 단어로 하여 앞에 형용사 “高”자를 더해 명명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오족 완성이 오부로의 변천은 마땅히 大武神王 시기일 것이다. 대무신왕 시기 전의 고구려는 고구려의 오족시기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오족의 거주 지역은 사서에 명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⁸⁾중의 고구려 건국 초기 여러 차례의 대외 확장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고구려 오족의 거주 구역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는 건국 초기 사방으로의 확장의 정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료 4. “宋讓이 나라를 들어 투항하여 그 땅을 多勿都로 삼고, 宋讓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宋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宋讓爲主.” 『三國史記』⁹⁾「高句麗本紀一」東明王 二年條

사료 5. “왕이 烏伊, 扶芬奴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의 荇仁國을 정벌하여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王命烏伊, 扶芬奴伐太白山東南荇人國, 取其地爲城邑.” 『三國史記』⁹⁾「高句麗本紀一」東明王 六年條

사료 6. “왕이 烏伊, 麻離에게 명하여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서 梁貊을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王命烏伊, 麻離, 領兵二萬西伐梁貊, 滅其國.” 『三國史記』⁹⁾「高句麗本紀一」琉璃王 三十三年條

사료 7. “왕이 친히 蓋馬國을 정벌하여 그 왕을 죽였지만 그 땅을 郡縣으로 삼았다.”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但以其地爲郡縣.” 『三國史記』⁹⁾「高句麗本紀」大武神王 九年條

상술한 건국 초기 고구려의 대외확장 정황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 오족의 대체적인 거주 지역을 알 수 있다. 초기 고구려의 대외 확장은 필연적으로 원 거주 지역으로부터 사방을 향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확장 이전의 구역은 당연히 고구려 오족의 거주지인 것이다. 사료 4에서 보면 오족의 거주 지역의 북쪽 경계는 바로 沸流國의 소재지인 富爾江 유역이다. 주몽이 沸流水 상류로 가서 비류국에 이르렀고 宋讓이 말한 沸流국의 땅이 “바다의 모퉁이에 치우쳐 있다(僻在海隅)”는 기록을 통해서⁸⁾ 沸流國이 고구려의 북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5에서 보면 고구려 오족의 동쪽 경계는 太白山 동남의 荇人國의 서쪽에 있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태백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의 長白山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荇人國의 위치를 지금의 길림성 장백 조선족자치현 부근으로 간주하고 있다.⁹⁾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일단 태백산이 곧 장백산이라는 설을 따라서 고구려

8) 『三國史記』⁹⁾「高句麗本紀」東明王 1년條.

오족 거주 지역의 동쪽 경계를 長白縣 이서지역으로 정하였다. 사료 6을 통해 보면 고구려 오족 거주지의 서쪽 경계는 당연히 梁貊의 동쪽 지역에 있어야 한다. 梁貊의 지리적 위치에 관해서는 纓河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듯 하며,¹⁰⁾ 고구려 오족의 서쪽 경계는 대체적으로는 지금의 博石河 유역이어야 할 것이다. 사료 7을 통해 보면 고구려 오족의 남쪽 경계는 당연히 蓋馬國의 북쪽이다. 개마국의 지리 위치에 대하여 학계의 견해는 각자 다르지만 한 가지 점은 공통된 듯하니, 곧 개마국은 반드시 압록강 이남에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개마국 정벌은 대무신왕 시기인데 고구려는 유리왕시기에 이미 압록강가의 국내성으로 천도하였기 때문이다. 즉 유리왕시기에 고구려의 통치 중심은 이미 압록강 중류 지역으로 천도하였으니 압록강 이북 지역에는 개마국이 있을 수 없었다. 蓋馬大山은 지금의 낭림산맥으로 개마국은 당연히 지금의 개마고원이나 그 서쪽 지역에 있어야 한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 고구려 오족의 거주 지역은 마땅히 동으로는 長白山의 서남까지, 서로는 博石河 유역까지, 북으로는 富爾江 유역까지 이르고, 남으로는 압록강 중류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건국 후, 초기에 진행된 일련의 대외 확장 전쟁에 있어서는 이 오족의 역량에 의존하였음이 틀림없다.

II. 오족시기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한사군 중에서 현도군을 제외한 낙랑, 임둔, 진번의 세 군은 모두 무제가 조선을 토벌한 원봉 3년(B.C108)에 설치되었으며, 현도군만 다음 해(B.C107)에 설치되었다¹¹⁾. 그후 현도군은 여러 차례 서쪽으로 이전하여서 학계에서는 이를 제1 현도군, 제2 현도군과 제3 현도군으로 칭한다. 본문의 서술 범위는 단지 제2 현도군시기의 현도군과 고구려의 관계에 한하도록 한다.

서천 후의 제2 현도군은 당시의 기타 군과 비교해서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 아래 속현이 단지 고구려, 上殷臺, 西蓋馬 등의 3개 현이고; 둘째로는 속현의 호수가 기타 군의 속현의 호수보다 뚜렷하게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遼東郡은 戶 55,972, 口 272,539, 縣 25로 매 현마다 평균 3, 100여 戶이다; 樂浪郡은 戶 62,812, 口 406,748, 縣 25로 매 현의 평균은 2,500여 戶이다. 그러나 현도군은 戶 45,600, 口 221,845, 縣 3으로 매 현의 평균은 15, 200 戶이다. 이러한 다른 점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漢書에 개재된 현도군의 현 수와 호구 수의 비례가 인근 군현의 현수와 호구 수의 비례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9) 孫進己, 王錦厚: 『東北歷史地理』 제 1권 제 264쪽, 1988년판.

10) 拙著 『三國志高句麗傳研究』 제 53 - 61쪽 참고, 吉林人民出版社, 2000년.

11) 『漢書』卷 28下 「地理志」에는 “武帝 元封 4년(B.C 107년)에 설치하였다(武帝元封四年開)”고 신고 있다.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 호 수는 제1 현도군 시기의 통계 숫자를 직접 『漢書』 『地理志』에 편집하여 넣은 결과이지, 제2현도군의 호구 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¹²⁾ 또한 어떤 학자는 3현의 호구 수만 가지고 말하자면 현도군의 호구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그 숫자에 오차가 있다고 여겼다.¹³⁾ 그러나 필자는 『漢書』 『地理志』의 이 호구 수 기록에 대하여 마땅히 다른 군현과 다른 현도군의 특수한 관할 방식과 연관시켜서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도군의 특수한 통치방식은 아래에 서술한 『三國志』의 관련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사료 3 “漢代에는 북과 피리, 악공을 하사하여 항상 玄菟郡에 나아가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으며 (현도군의) 高句麗令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후에 차츰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다시는 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상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 안에 두어 해마다 그 성에 와서 가져가게 하였다.”

“漢時賜鼓吹伎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麗令主其名籍。後稍驕恣，不復詣郡，于東界築小城，置朝服，衣幘其中，歲時來取之。”¹⁴⁾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사료 3에서 아래의 몇 가지 점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고구려현의 관할 구역이 “경계 내부”와 “경계 외부”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즉 제2현도군의 고구려현 땅의 동부에 “경계”가 있었으며 “경계”의 서쪽을 고구려의 비직할 지역으로, “경계”의 동쪽을 고구려현의 직할 지역으로 삼았다. 바꾸어 말하면 고구려현은 직할 지구와 비직할 지구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현도군이 낙랑, 요동군 등의 漢郡과 달리 가지고 있던 특수한 구성 방식이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상술한 속현의 호구수가 낙랑, 요동의 속현의 호구 수보다 뚜렷하게 많았던 원인이기도 하였다. 필자의 추측에 의하면 현도군 고구려현의 직할지구의 호구 수는 마땅히 낙랑, 요동 등 군의 속현의 호구 수와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였고, 단지 고구려현 비직할 지역의 “東界” 이동 지역의 호구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술한 호구 수에서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後漢書』 『五行三』에 실린 현도군의 호구 수 역시 이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後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당의 李賢의 注에서 『東觀書』을 인용하여 말만 바와 같이 “安帝 즉위 원년에 3현을 나누어 속하게 (安帝卽位元年，分三縣來屬)” 하더라도,¹⁵⁾ 원래의 3현에다 “分三縣來屬”을 더한 현도군의 6현 호구

12) 李丙燾：『韓國古代史研究』 卷 177-178쪽, (韓) 박영사, 1985년 2월.

13) 和田清：「玄菟郡考」, 『歷史與考古信息東亞史』, 2005년 1기 25쪽.

14) 『北史』에는 “漢昭帝가 衣幘, 朝服, 북과 피리를 하사하였다(漢昭賜衣幘, 朝服, 鼓吹)”로 적고 있으며 漢昭帝시기는 B.C86년 - 84년이다. 현도군의 서천은 昭帝 始元 5년(B.C 82년)이 된다.

15) 『後漢書』 『群國五』 현도군條. 東漢 安帝의 즉위 원년은 서기 107년이다.

수 또한 겨우 1,594 호에 43, 163 구로¹⁶⁾ 제 2현도군의 호구보다 몇 배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호구 수의 대량 감소는 바로 주몽이 세운 고구려국의 탄생하고 발전함에 따라 비직할 지역의 호구의 이탈로 조성된 현도군 호구 수의 격감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고구려현의 고구려인에 대한 관할이 고구려인의 통치 계층을 통해 진행된 간접 관할이었다는 점이다. 사료 C에서 “漢代에는 북과 피리, 악공을 하사하여 항상 玄菟郡에 나아가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으며 (현도군의) 高句麗令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는 것은 현도군의 서천 초기(漢昭帝시기)의 고구려현과 고구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기사이다. 여기서 말한 “북과 피리, 악공을 하사하였다”는 것은 서한 정부가 “북과 피리, 악공”을 고구려 통치계층에 하사하였음을 가리키며, “항상 현도군에 나아가 朝服과 衣幘을 받아 갔다”는 것은 고구려의 통치계층이 항상 현도군에 와서 서한 정부가 하사하는 “조복과 의책”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이들에게 “북과 피리, 악공”을 하사하고 “조복과 의책을 받은” 현상은 마땅히 고구려인의 한문화에 대한 접수와 수용으로 봐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고구려인의 서한과 고구려 관계의 문제에 대한 관할과 피관할 관계의 접수와 수용으로 보아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구려현령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명부에 근거하여 관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복과 의책”을 하사하였기 때문에 현도군에 와서 “조복과 의책”을 접수한 고구려 통치계층의 몇 귀족들은 서한 정부에 의해 각급 관직을 수여받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현도군의 고구려에 대한 관할, 혹은 통치 방식은 고구려 통치계층을 통한 간접 관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할은 고구려 지역의 沸流國(후의 涓奴部)의 협조와 지지 하에서의 간접 관할이었을 것이다. 현도군이 파악한 정확한 고구려인 호구의 통계 숫자를 통해 볼 때, 그 관할 형식이 간접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관할이 상당히 실질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셋째는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국의 발전에 따라 고구려현의 고구려 지역에 대한 관할은 점차 약화되어 형식적인 관할만 남게 되었다. “후에 차츰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다시는 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상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 안에 두어 해마다 그 성에 와서 가져가게 하였다”는 기록이 반영하는 것은 주몽 건국 전후의 한 시기일 것이다. 고구려인이 “후에 차츰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다시는 군에 오지 않았던”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사서에는 전혀 명확한 기록이 없다. 필자는 고구려인의 현도군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고구려 오족 내부에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여 변화를 형성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보면 주몽의 건국과 沸流國의 항복, 곧 고구려 오족 중에서 桂婁部和 涓奴部 사이의 영도 지위의 교체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본래 연

16) “戶 1,594”의 기록과 “口 43, 163”는 서로 부합되지 않는데 당시 매 戶의 口 수는 대개 5 구 정도였다. 이 戶 1,594는 가장 많아도 일만 口를 넘을 수 없다. 아마도 戶자 뒤에 “萬”자가 누락되었을 것이다. 곧 後漢書의 安帝 때에 “分三縣來屬”한 뒤의 현도군의 호구 수는 마땅히 11,594이며 1,594가 아니다.

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계루부에서 이를 대신하였다”는 기록과 연결해서 고찰한다면, 비류국의 고구려 지역에서의 영도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古 고구려인은 더 이상 현도군에 가서 조복과 의책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왕조가 하사한 조복, 의책의 수여자가 고구려현령이 아니었으며, 반드시 고구려현령이 관장하고 있는 서류에 의해 수여 대상이 확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이 “東界”의 “幘溝婁”에 스스로 와서 가져갔던 것에 불과하다. 가져간 후의 조복, 의책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마도 고구려국의 국왕이 스스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후에 현도군은 점차 고구려지역에 대한 유효한 관할 능력을 상실하여 겨우 “동쪽 경계에 작은 상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 안에 두어 해마다 그 성에 와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써 형식상의 고구려인에 대한 관할을 유지하였다. 현도군과 고구려의 이러한 예측관계가 끝난 시간은 적어도 유리왕이 烏伊와 麻夷를 파견하여 “군대를 보내 공격하여 한의 고구려현을 취한” 유리왕 33년까지였을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대민족으로 그 시작은 다섯 개의 혈연집단 -- 오족으로 구성된 부족 연합 공동체였으며 “句麗”로 일컬어졌다. 제2현도군 시기에 한왕조는 구려인의 지역에 고구려현을 설치하여 관할하였지만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발전과 강성함에 따라 현도군의 고구려에 대한 관할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결국에는 이러한 관할과 피관할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